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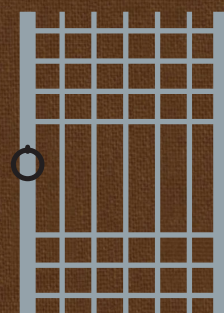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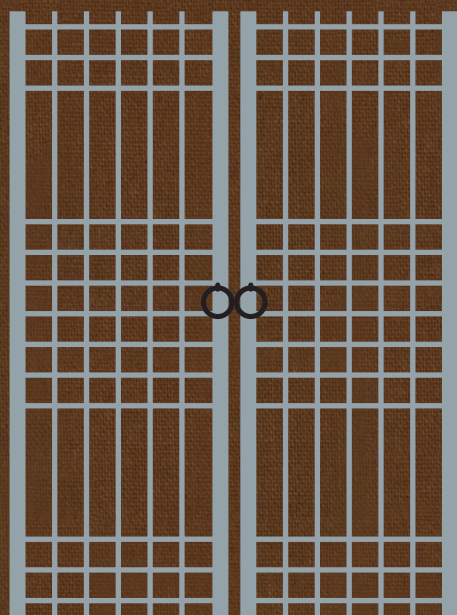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of Basic Necessities

HOUSING

한국 의식주 생활 사전

주 생활

국립민속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한국 의식주 생활 사전

주 생활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식주생활사전

주 생활 ❶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of Basic Necessities

HOUSING

발행일

2019년 12월 13일

발행

국립민속박물관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7

전화 02. 3704. 3141

발행인

윤성용

총괄

이관호

기획

강경표

편수원

백민영, 은현정, 김혜영, 류건욱

윤문·교열

엄민용, 김병동, 김용준, 김대훈, 김선아

디자인·제작

(주)디자인인트로 / www.gointro.com

발간등록번호

11-1371036-000317-01

ISBN

978-89-289-0240-8 : 비매품

978-89-289-0239-2 (세트)



한국 의식주 생활 사전

주 생활

국립민속박물관

발간사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한국민속학의 정체성 확립, 학술 연구의 기초 자료 제공과 함께 많은 분들이 민속문화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민속대백과사전을 편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여섯 번째 주제인 <한국의식주생활사전>의 ‘주생활^{住生活} 편’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전에서는 우리 민족의 생활 속에서 발생하여 전승되어 온 주생활^{住生活}을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정리·해설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립민속박물관은 2002년부터 <한국세시풍속사전>, <한국민속신앙사전>, <한국민속문학사전>, <한국일생의례사전>, <한국민속예술사전>, <한국의식주생활사전>을 발간하여 한국의 민속을 집대성한 《한국민속대백과사전》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간할 <한국생업기술사전>, <한국민속사회사전>까지 모두 한국민속학 연구 성과를 집대성 하는 계기일 뿐 아니라 새로운 관심과 연구를 촉진하는 창조의 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사전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집필자, 자문위원, 감수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료를 제공해 주신 관계 기관과 사전이 나오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인 모든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국립민속박물관장 **윤성용**

발간개요

국립민속박물관의 《한국민속대백과사전》은 민속을 크게 8개의 주제로 나누어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제1주제인 <한국세시풍속사전> 전5권을 2002년부터 2007년에 걸쳐 발간하였고, 2009년부터 제2주제인 <한국민속신앙사전> 편찬사업을 시작하였다. 2009년에 ‘무속신앙 편’(1·2권), 2010년에 ‘마을신앙 편’(1·2권), 2011년에 ‘가정신앙 편’(1·2권)을 발간하였다. 2012년에 제3주제인 <한국민속문학사전> 편찬사업을 시작하여 같은 해 ‘설화 편’(1·2권), 2013년에 ‘민요 편’과 ‘판소리 편’을 발간하였다. 2014년에는 제4주제인 <한국일생의례사전>(1·2권)을 발간하였고, 2015년에는 제5주제인 <한국민속예술사전>편찬사업을 시작하여 ‘민속극 편’과 ‘민속놀이 편’을 발간하였고, 2016년에는 ‘음악·농악·무용·민화 편’을 발간하였다. 2017년에는 제6주제인 <한국의식주생활사전> 편찬사업을 시작하여 ‘의생활 편(1·2권)’을 발간하였고, 2018년에는 ‘식생활 편(1·2권)’을 발간하였다. 올해는 <한국의식주생활사전>의 세 번째 편인 ‘주생활 편(1·2권)’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번에 발간한 <한국의식주생활사전> ‘주생활 편’은 표제어 406항목, 원고 5,500여 매, 사진 850여 장으로 구성하였다. 사진자료는 집필자로부터 이용권을 구입한 사진과 국립민속박물관 소장사진, 타 기관에서 제공한 사진을 활용하였다.

이 사전은 관내·관외의 주생활 연구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으로부터 사전편찬팀에서 선정한 표제어의 적합성을 검증 받았고, 여기에서 빠진 중요한 표제어를 추천 받는 등의 도움을 받았다. 또한 주생활 분야를 전공한 72명의 연구자가 원고를 집필하였다.

수합한 원고는 사전편찬팀의 검수를 받은 후 전문가의 교정·교열·윤문을 거쳤다. 최종 원고는 각 분야에서 많은 연구업적을 쌓은 외부 학자의 감수를 거쳤으며 감수위원단이 문제점을 제기한 원고는 수정·보완하여 사전의 신뢰성과 권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 사전에서는 주생활을 크게 집, 공간, 구성, 살림살이, 의례, 연장, 공법, 부재, 자료, 용어로 구분하였다.

사전은 발간사와 발간개요, 일러두기와 목차, 그리고 본문과 색인으로 구성하였다. 표제어 배열은 가나다순으로 하였으며, 분야별 차례를 구성하여 범주별 표제어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집필자란을 마련하여 필자별 표제어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사전의 전체 구성

<한국의식주생활사전 : 주생활 편>은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제어 선정 및 범주

1. 표제어는 한국의식주생활사전 주생활 편에 독립항목으로 배열되는 단어를 말한다.
2. 표제어는 집, 공간, 구성, 살림살이, 의례, 연장, 공법, 부재, 자료, 용어의 범주로 나누어 선정하였다.
3. 표제어는 관내의 자문회의를 통해 그 방향과 범위를 설정하여 선정하였다.
4. 이 사전에서 사용되는 표제어는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을 따랐다.

표제어 배열 및 목차

1. 본문에서의 표제어 배열은 가나다순으로 하였다.
2. 목차는 가나다 차례와 분야별 차례 두 가지로 구성하였으며, 분야별 차례의 경우는 각 분야 안에서 가나다순으로 배열하였다.

가표제어

주표제어와 거의 대등하게 불리는 이칭을 가표제어로 선정하였다. 가표제어도 목차에 같이 제시하였다. 가표제어와 관련된 주표제어 쪽수를 제시하여 사전 이용자의 검색 접근성을 향상 시켰다.

표기방법

맞춤법과 표기법은 기본적으로 현행교육과학기술부 규정 ‘한글맞춤법통일안(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과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표준국어대사전(2008년 10월 발간)’을 따랐다.

사진과 자료

사진, 도표, 삽화 등 내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는 본문의 해당부분에 첨부하고 그 출처 또는 소장처(제공처)등을 밝혔다.

속담·관용구

주생활 관련 속담과 관용구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내용을 정리·제시하여 주생활에 대한 한국인의 가치관과 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등록문화재 목록

문화재로 등록된 주거건축물에 대한 정보는 문화재청에 등록된 주거건축물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색인

표제어 및 표제어에 준하는 용어들을 가나다순으로 배열하고 해당 쪽수를 기재하여 본문에서 찾아보기 쉽게 하였다.

필자

필자의 성명과 소속 그리고 집필한 표제어와 해당 쪽을 기재하여 필자란을 통해서도 표제어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사진제공

경기문화재단연구원, 경기여자고등학교 경운박물관, 교문사, 국가기록원, 국립경주박물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국립고궁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국립무형유산원,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익산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대원사, 대전시립박물관, 도서출판 동녘, 동아일보, 문화재청, 부산광역시청,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서울사진아카이브, 서울역사박물관,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에넥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주택문화사, 충현박물관, 토지구택박물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관광공사

자문위원과 감수위원

1. 관내 자문위원은 기량, 김종규, 박선주, 정연학이 맡았다.
2. 관외 자문위원은 강영환(울산대), 김기덕(건국대), 김길식(용인대), 김명자(안동대), 김시덕(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박선희(전북대), 박철수(서울시립대), 이왕기(목원대), 전봉희(서울대), 정정남(건축문화연구소), 천인호(동방문화대학원대), 홍승재(원광대)가 맡았다.
3. 감수위원은 김광언(인하대), 김삼대자(전 국립민속박물관), 김성우(연세대), 윤인석(성균관대)이 맡았다.



지역



ㄱ자집	018
가랍집	019
가리개	020
가사제한	022
가스레인지	027
가신	029
가옥도형	033
가옥문기	034
각계수리	037
간(칸)	667
감실	038
개공제	039
개량한옥	040
개별난방	042
개토제	043
거실	045
거중기	046
건넌방	047
건축연장	048

거름집	050
겹집	051
경대	053
경주 양동마을	054
계단	059
고래	061
고비	062
고성 왕곡마을	064
고시원	068
고콜(코콜)	671
곡척(곶자)	070
굴목	068
곶자	070
곶간	071
공동주택	073
공유주택	074
공인중개사	076
공포	077
광창	080
교창	082
구들(온돌)	525
구들목(아랫목)	478
국민주택	083
굴도리집	084
굴뚝	085
굴피집	087
궁가	088
궁집(궁가)	088
괘	090
귀틀집	091
그랭이질	093
금입택	095
기단	097
기둥	100
지역자집(ㄱ자집)	018
기와	103
기와집	105
기중기(거중기)	046
기초	106
까치구멍집	109

깍낫	110
꽃담	111
꿀	113

니은



난간	114
난로	116
납도리집	117
내외담	118
냉장고	119
너와집	121
녹로	122
농(장릉)	575
누마루	124
눈꼽재기창	125

디글



ㄷ자집	126
다락	127
다림보기	128
다세대주택	129
다용도실	131
단독주택	132
단청	134
달구질	136
달동네	138
담장	140
담집	142
당호	144
대들보	145
대목장	146
대문	148
대문채	150
대청	152
대패	153
더부살이	155

도리	156
도배	157
도시한옥	158
도투마리집	161
도편수	162
독신자주택	163
돌기와집	165
돌담	165
동사택서사택	167
두령집	168
두레박	169
뒤주	170
뒷간	171
들어열개	173
등	175
디글자집(ㄷ자집)	126
디딜방앗간	179
디딤돌	180
뜰집	181

미음



ㄹ자집	183
마당	184
마루	186
마루기와	188
마름질	190
마리	192
마을	193
마치(망치)	202
막살이집	199
막새	200
망치	202
맞배지붕	203
맞춤	205
머름	207
머릿장	209
먹통	209
명당	211

모델하우스	212
모임지붕	213
모탕고사(개공제)	039
목가구	215
목수	219
문	221
문갑	224
문고리	225
문방구	226
문배	228
문자형집	229
문지방	230
문패	232
문화주택	234
물형론	235
미닫이	237
미음자집(ㅁ자집)	183
미장	238
미장이	239
민가	241
민도리집	243
민영주택	244
민택삼요	245

비읍

반가	246
반닫이	249
반자	250
발	252
발코니(베란다)	262
방	253
방석	255
방장	256
배산임수	257
벌집촌	259
베개	261
베란다	262
벼락달이창	264

벽	265
벽장	267
변기	268
변소(뒷간)	171
별당	269
별서	271
병풍	272
보	274
보료	275
보일러	277
복덕방	278
복부인	280
봉당	281
봉덕(부설)	268
봉창	282
부경	283
부뚜막	285
부설	286
부엌	287
부연	290
부지깽이	291
분가	292
분합문	293
불란서주택	294
불발기창	296
불박이장	297
비	298
비보풍수	300
빗장	301

시옷

사글세(월세)	544
사당	418
사랑방	419
사랑채	421
사립문	422
사방탁자	423
산경표	424

산태극수태극	426
살강	429
살림살이	430
살림집	433
살창	437
상량제	440
새마을주택	441
샛집	443
생울	444
서고	445
서까래	446
서까래기와	447
서안	449
서옥	450
성주매기	451
세면대	454
세탁기	456
셋방살이	457
소로수장집	459
소목장	459
소파	461
손 없는 날	462
숯을대문	464
송곳	465
수렛간	467
수맥	469
시렁	470
식탁	471
신구간	472
십승지	473
싱크대	475
싸리울	476

이응



아궁이	477
아랫목	478
아산 외암마을	479
아파트	484

안거리·밖거리	488
안동 하회마을	489
안방	495
안방물림	497
안석	498
안채	499
안택	500
양옥	504
양택	506
양통집(겸집)	051
여단이	509
여막	510
연가	512
연립주택	513
연상	514
연탄	516
영단주택	517
영조척	518
영주 무섬마을	520
오피스텔	522
옥상	523
온돌	525
옷장	527
와공	528
외양간	530
외통집(홀집)	728
요강	532
요사	533
욕실	534
우데기	535
우물	537
우진각지붕	539
움	541
움집	542
원룸	544
월세	544
윗목	545
윗방	546
윤도판	547
응접실	549

의결이장	550
이부자리	551
이사	553
이음	554
익공	557
一자집	558
일자집 (一자집)	558
임대주택	560
입식	561
입주	563
입춘첩	564
입택고사	565

지읒



자	568
자귀	569
자리	571
자생풍수	572
장(장릉)	575
장독대	573
장릉	575
장작	577
장지문	578
장판	579
적산가옥	580
전세	582
전원주택	583
전자레인지	584
정낭	585
정원	587
정주간	590
제등	591
제주 성읍마을	593
조선건축	596
족자	597
좌등	598
좌상	600
좌식	601

좌향	602
주련	603
주방	603
주상복합	605
주차장	606
주춧돌 (초석)	660
주택법	607
주택복권	608
죽부인	609
줄	611
중문	612
중앙난방	613
지관	614
지붕	615
지붕엮기	619
지역난방	621
진산	622
집	623
집들이	631
집장사	633
집짓기	633
쪽마루	638
쪽매	639
쪽문	640
쪽방	640

치읒



차양	642
찬광	643
찬방	644
찬장	645
찬탁	647
창호	648
책상	651
책장	652
쳐마	654
천장	657
청석집 (돌기와집)	165

초가집	659
초석	660
추녀	662
치목(마름질)	190
침대	664
침방	665
침실	666

키읔



칸	667
칼	670
코를	671

티을



택리지	673
택보요전	675
택호	676
텃밭	677
텔레비전	678
토담	680
토막촌	682
토벽	683
툼	685
통시	686
툃간	687
툃마루	688
투막집(귀틀집)	091

피읖



판문	689
판벽	691
판자촌	692
팔걸이	693
팔작지붕	694

편액	696
평	697
평상	698
풍경	699
풍수	700
피란촌	703

히읇



한뎃부엌	706
한옥	707
한옥보존지구	714
함	716
함실	717
해막	718
해방촌	719
행랑채	720
헛간	721
현관	722
현판	724
협문	725
호롱	727
흘집	728
화단	729
화로	730
화장실	732
화재막이	733
화티	734
헛대	737
흘이기	738
휘장	740
흘림기둥	741
흘단(토담)	680
흘벽(토벽)	683

														
부양책	ㄱ자집	018	불란서주택	294	거실	045	응접실	549	감실	038	우진각지붕	539	가리개	020
	가람집	019	살림집	433	건넌방	047	장독대	573	계단	059	창지문	578	가스레인지	027
	개량한옥	040	새마을주택	441	곳간	071	정원	587	고래	061	정낭	585	각계수리	037
	거름집	050	샛집	443	누마루	124	정주간	590	광창	080	중문	612	경대	053
	겹집	051	소로수장집	459	다락	127	주방	603	교창	082	지붕	615	고비	062
	고시원	068	아파트	484	다용도실	131	주차장	606	굴뚝	085	쪽문	640	궤	090
	공동주택	073	양옥	504	대문채	150	쪽마루	638	기단	097	창호	648	난로	116
	공유주택	074	연립주택	513	대청	152	찬광	643	기초	106	천장	657	냉장고	119
	국민주택	083	영단주택	517	뒷간	171	찬방	644	꽃담	111	코클	671	두레박	169
	굴도리집	084	오피스텔	522	디딜방앗간	179	침방	665	내외담	118	토담	680	뒤주	170
	굴피집	087	요사	533	마당	184	침실	666	눈꼽재기창	125	토벽	683	등	175
	궁가	088	움집	542	마루	186	텃밭	677	담장	140	판문	689	머릿장	209
	귀틀집	091	원룸	544	마리	192	통시	686	대문	148	판벽	691	목가구	215
	기와집	105	ㅡ자집	558	방	253	뒷간	687	돌담	165	팔작지붕	694	문갑	224
	까치구멍집	109	임대주택	560	베란다	262	툃마루	688	디딤돌	180	함실	717	문방구	226
	납도리집	117	적산가옥	580	벽장	267	한뎃부엌	706	맞배지붕	203	협문	725	문패	232
	너와집	121	전원주택	583	별당	269	해막	718	머름	207	화티	734	반닫이	249
	ㄷ자집	126	주상복합	605	별서	271	행랑채	720	모임지붕	213			발	252
	다세대주택	129	집	623	봉당	281	헛간	721	문	221			방석	255
	단독주택	132	쪽방	640	부엌	287	현관	722	문고리	225			방장	256
	달동네	138	초가집	659	사당	418	화단	729	문지방	230			베개	261
	담집	142	토막촌	682	사랑방	419	화장실	732	반자	250			변기	268
	도시한옥	158	판자촌	692	사랑채	421			벼락달이창	264			병풍	272
		도투마리집	161	피란촌	703	서고	445			벽	265			보료
독신자주택		163	한옥	707	수렛간	467			봉창	282			보일러	277
돌기와집		165	해방촌	719	안거리·밖거리	488			부뚜막	285			부지깽이	291
두렁집		168	흙집	728	안방	495			부엌	286			불박이장	297
뜰집		181			안채	499			분합문	293			비	298
	ㄹ자집	183			여막	510			불발기창	296			사방탁자	423
	막살이집	199			옥상	523			빋장	301			살강	429
	문자형집	229			외양간	530			사립문	422			살림살이	430
	문화주택	234			옥실	534			살창	437			서안	449
	민가	241			우물	537			생울	444			세면대	454
	민도리집	243			움	541			숫을대문	464				
	민영주택	244			윗방	546			싸리울	476				
	반가	246							아궁이	477				
	벌집촌	259							우데기	5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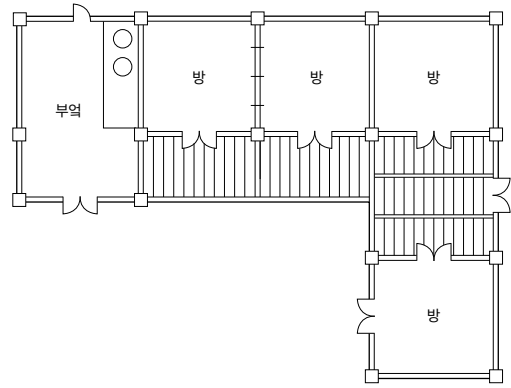
																			
	세탁기	456	개공제	039	거중기	046	그랭이질	093	공포	077	가옥문기	034	가사제한	022					
	소파	461	개토제	043	건축연장	048	다림보기	128	기둥	100	민택삼요	245	가신	029					
	시렁	470	달구질	136	곰자	070	대목장	146	기와	103	조선건축	596	가옥도형	033					
	식탁	471	상량제	440	깎нат	110	도배	157	난간	114	택리지	673	개별난방	042					
	싱크대	475	성주매기	451	끝	113	도편수	162	단청	134	택보요전	675	골목	068					
	안석	498	안택	500	녹로	122	마름질	190	대들보	145			공인중개사	076					
	연상	514	입주	563	대패	153	맞춤	205	도리	156			금입택	095					
	연탄	516	입택고사	565	망치	202	목수	219	마루기와	188			당호	144					
	옷장	527	화재막이	733	먹통	209	미장	238	막새	200			더부살이	155					
	요강	532			송곳	465	미장이	239	보	274			들어열개	173					
	의결이장	550			영조척	518	소목장	459	부연	290			모델하우스	212					
	이부자리	551			윤도판	547	온돌	525	서까래	446			문배	228					
	자리	571			자	568	와공	528	서까래기와	447			미단이	237					
	장롱	575			자귀	569	이음	554	연가	512			복덕방	278					
	장작	577			줄	611	장판	579	익공	557			복부인	280					
	전자레인지	584			칼	670	지붕엮기	619	차양	642			부경	283					
	제등	591			툽	685	집짓기	633	처마	654			분가	292					
	죽자	597			흙이기	738	쪽매	639	초석	660			서옥	450					
	좌등	598							추녀	662			셋방살이	457					
	좌상	600							흙림기둥	741			손 없는 날	462					
	주련	603											신구간	472					
	죽부인	609											아랫목	478					
	찬장	645											안방물림	497					
	찬탁	647											여단이	509					
	책상	651											월세	544					
	책장	652											윗목	545					
	침대	664											이사	553					
	텔레비전	678											입식	561					
	팔걸이	693											입춘첩	564					
	편액	696											전세	582					
	평상	698											좌식	601					
	풍경	699											주택법	607					
	함	716											주택복권	608					
	현판	724											중앙난방	613					
	호룡	727											지역난방	621					
	화로	730											집들이	631					
	햇대	737											집장사	633					
	휘장	740											칸	667					
													택호	676					
													평	697					
													한옥보존지구	714					

정의 평면과 지붕이 ㄱ자 모양인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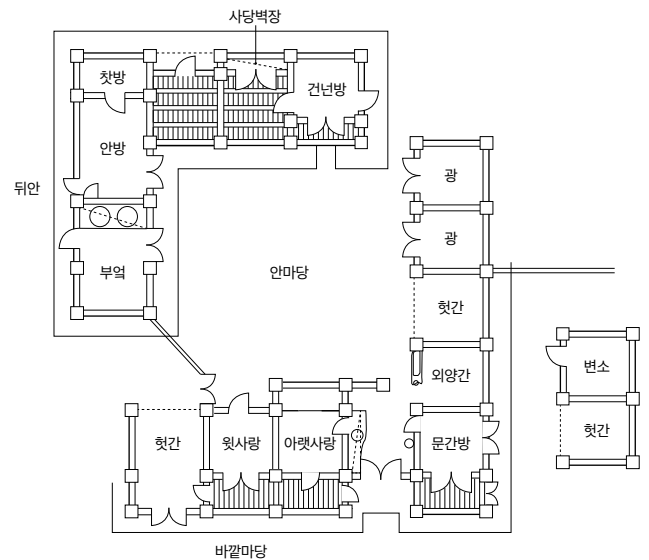
내용 ㄱ자집은 평면과 지붕이 ㄱ자 형태로 꺾여 있다. 경기 지역에서는 곱은자집, 평안도 지역에서는 꺾음집, 충청도 지역에서는 곱패집(곱패집)이라고 부른다. ㄱ자집이란 용어는 20세기 중반 이후에 사용되었다. ㄱ자집의 평면 구성은 다양하지만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부엌·안방·윗방을 일렬 배치하고 윗방에서 직각 방향에 대청을 두고 건넌방을 연결하는 형식이고, 다른 하나는 안방·대청·건넌방을 배치하고 안방 앞으로 부엌이 돌출된 형태이다.

전자는 중부형, 후자는 서울형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중부형은 몸체의 기본축이 부엌과 안방·윗방으로 이어지며, 서울형은 안방·대청·건넌방이 기본축이다. 이 축이 남향을 취한다. 중부형은 우리 민가의 기본형인 일자형 평면에서 발전된 형태이다. 一자형 민가에 바탕을 둔 ㄱ자집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호남지방과 평안도·강원도 지역까지 널리 분포하며, 다양한 공간 구성과 함께 각각의 지역성을 보여 준다.

ㄱ자집 규모는 5~7칸이 보통이다. 一자집에 비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영농 이상의 중농과 부농 계층 집이 많다. 중부지방에서 가장 널리 사용된 ㄱ자집은 부엌, 안방, 윗방으로 구성된 3칸 一자집에서 윗방 앞에서 꺾어지며 대청과 건넌방을 배치한 형태이다. 남부지방의 ㄱ자집은 부엌, 안방, 대청, 건넌방으로 이어지는 4칸 일자집에 부엌 앞에 방을 한 칸 덧붙거나 一자집에 건넌방을 꺾어서 상하 두 칸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 평안도 지역은 부엌이 ㄱ자로 꺾이는 모퉁이에 배치되며, 대부분 가옥에서 대청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부엌을 꺾임 부분에 배치하면 양쪽 방에 불을 때는 일이 간편해서 추운 기후 조건에 적합하다. 북부지방의 부엌은 중부지방에 비해 넓은 공간을 차지하며, 겨울에 이곳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다. 강원도 지역의 ㄱ자집은 몸체 부엌 앞에 외양간(마구)



ㄱ자집 평면도 | 한옥의 공간문화 | 한옥공간연구회·교문사



서울형 ㄱ자집 평면도 | 한국의 민가 | 조성기·한올아카데미

을 꺾어 배치하여 ㄱ자형을 이룬다.

서울형은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에 안방과 건넌방이 배치된다. 대청은 1~2칸 규모이며, 대청과 건넌방 앞에는 툇마루를 두는 것이 보통이다. 대청이 확대되어 2칸 이상이 되면 대청의 중심성이 더욱 강조된다. 대청은 평면의 중심이자 의례의 중심이다. 이곳에서 제사를 모시며, 대청 뒷벽에는 조상의 신주를 모시기 위해 벽감을 설치하기도 한다. 대청 중심의 서울형 평면은 서울이라는 사회환경과 상류주택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도, 충청도 등 중부지방에 분포한다. 이 유형은 안방 전면에 부엌이 위치

하기 때문에 안방을 남향으로 할 수 없어 일조에 불리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안방 뒤쪽에 윗방을 두고, 안방을 남쪽으로 조금 내밀고 부엌을 설치하기도 한다. ㄱ자집은 살림채 한 채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하지만 보통은 부속채와 함께 튼ㄷ자 배치를 하거나 ㄴ자형 바깥채와 마주한 튼ㄷ자 집이 다수를 차지한다.

특징 및 의의 ㄱ자집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호남지방과 평안도·강원도 지역까지 널리 분포한다. 一자집보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영농 이상의 중농층과 부농층 주거에서 볼 수 있다. 평면은 크게 두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부속채와 함께 안마당을 둘러싸며 튼ㄷ자 배치를 하거나 튼ㄷ자 배치가 일반 형태이다.

참고문헌 한국건축사 강론(박언근, 문운당, 1998), 한국의 민가(조성기, 한울아카데미, 2006), 한국의 민가1·2(김홍식, 한길사, 1992), 한국의 살림집(신영훈, 열화당, 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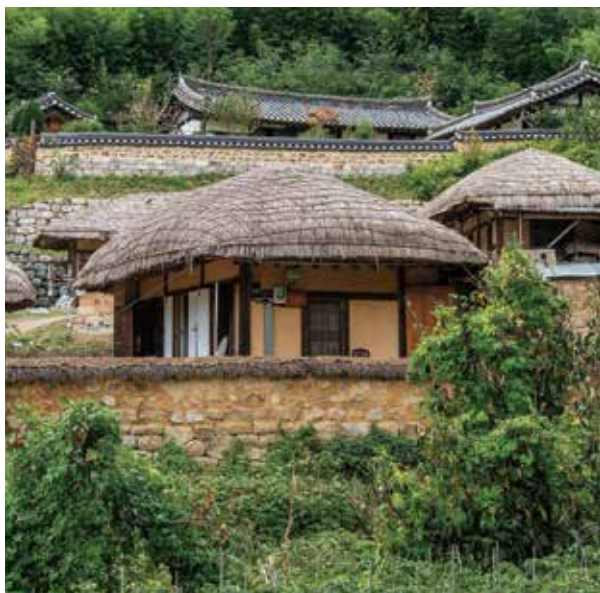
필자 홍승재(洪升在)

가람집

정의 조선시대 외거노비가 거처하던 살림집.

개관 신분제 사회가 형성된 이래 최하위 계층인 천민으로 대표되는 존재는 노비였다. 고대국가시대부터 개인에게 예속된 노비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들이 어떤 집에서 생활하였는지는 알려지지 않는다. 다만 『신당서新唐書』 「신라新羅」에 “재상의 집에 노동奴童이 3,000이었다.”는 기록을 볼 수 있다. 재상의 집이라 하여도 그만한 인원을 모두 수용하기는 어려웠을 터이니 재상의 집 밖에(또는 같은 마을에) 노비들이 생활하는 독립된 살림집을 두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사노비는 상전의 토지·가옥과 더불어 중요한 재산으로 간주되었으며, 상속·매매·증여의 대상이었다. 사노비私奴婢는 솔거노비와 외거노비로 구분된다. 솔거노비率居奴



가람집 | 경북 경주 양동 | 국립민속박물관

婢는 상전 가호家戶의 일원으로 생활하면서 농경과 가내잡사에 사역되는 노비를 말한다. 이에 반해 외거노비外居奴婢는 독립된 가호와 가계를 유지하면서 신공身貢만을 바치는 노비였다. 이들은 대부분 상전의 토지를 경작하는 농경노비였으나 타인의 토지를 전작하여 재화를 축적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경제력에 따라 주거 수준도 차이가 있었다.

내용 조선사회에서 솔거노비와 외거노비의 주거형식은 완전히 달랐다. 솔거노비는 상전인 양반 가호의 일원으로서 그 집 안에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립된 주택을 갖지 못하였다. 그들의 생활 영역은 대부분 양반주택의 전면 외곽에 위치하는 행랑채나 대문채에 부속되어 있었다. 또한 사랑채나 수장 공간을 경계로 하여 주인의 거처인 안채 영역과 철저히 격리되었다. 이러한 배치는 유사시에 주거 외부로부터 주인을 방호하고 노비들에 대한 주인의 권위를 지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솔거노비가 혼인으로 가정을 꾸리면 상전의 주택에서 나와 독립된 집을 마련하여 살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외거노비라 부른다. 이들은 자신의 집에서 잠만 잘 뿐 날이 새면 주인집에 들어가 일을 하고 세 끼를 주인집에서 먹었다. 이들의 집을 경상도에

서는 ‘가랍집’, 전라도에서는 ‘호지집’, 평안도에서는 ‘마가리집’, 황해도에서는 ‘웃집’이라고 불렀다. 이들의 집은 대체로 주인집에서 가까운 외곽에 자리하였다. 주인이 쉽게 호출할 수 있고, 주인집을 방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외거노비는 좋은 집을 가질 경제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경제력이 있다 하여도 가사규제에 따라 주택 규모를 크게 하거나 고급주택을 지을 수가 없었다. 영역화된 외부공간이 필요하지 않으니 넓은 마당도 없고, 울도 담도 대문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경제생활을 주인집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산이나 수장을 위한 공간도 별도로 필요하지 않았다. 대부분 살림채 한 동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안에는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즉 하나의 부엌과 침실로 구성되는 예가 많았다. 대부분 자력으로 건설하기 때문에 쉽게 지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고, 자연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가 사용되었다. 벽체는 담처럼 쌓아 만든 토담집이 많았고, 지붕은 볏짚을 사용한 초가집이었다.

특징 및 의의 가랍집은 조선시대 양반촌락에서 양반과 노비들의 주거생활과 상호관계를 반영하는 주거 유형이다. 이는 양반들의 주거생활이 양반주택 안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외곽의 가랍집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반영한다. 또한 사노비들의 주거생활을 반영하는 생활무대이기도 하다.

건축 관점으로 보면 가랍집은 최저 수준의 살림집이다. 학계에서는 ‘막살이집’, ‘오막살이집’이라 하여 빈한한 소농계층의 집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가랍집은 사회적 지위나 생활양식상 상전 집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소농계층의 집과는 차이가 있다. 가랍집은 가족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와 공간이 있는 집이다. 또한 가장 적은 노동력과 비용으로 지을 수 있는 구조와 형태를 보여 준다.

참고문헌 한국 주거문화의 역사(강영환, 기문당, 2013), 한국의 주거민속지(김광언, 민음사, 198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강영환(姜榮煥)

가리개

정의 공간을 구분하기 위하여 세우는 장자障子나 창과 문에 걸어서 가리는 장帳과 발[簾]의 총칭.

내용 가리개는 시야를 차단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공간 가운데 세워져 가리는 장자류障子類와 걸어서 가리는 장이나 발 등이 있다.

장자障子 가운데 가장 오래 된 것은 중국 주나라의 천자가 8자[尺] 크기의 판에 자루가 없는 여러 개의 도끼를 그리거나 수놓아 뒷벽을 장식한 부의斧屨에서 비롯된 병풍屏風으로 보고 있다. 병풍은 통병풍과 여러 폭을 만들어 접었다 폈다 하는 연병풍連屏風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 고려 후기 이전 건물의 내부는 병풍屏風과 같은 장자障子를 단독으로 세워 공간을 구분하고 시야를 차단하였다. 건물로 드나드는 입구에는 두꺼운 판재로 만든 문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실내는 늘어두었다. 어두운 실내가 밝아지기 시작한 것은 목재를 가늘고 길게 켤 수 있는 톱인 인거引鋸를 사용하면 서부터이다. 인거로 켜 목재로 틀을 만들고 그 사이에 얇은 살을 끼워 넣은 후 한 면에만 종이를 바르자, 장자가 가벼워졌고 빛을 투과시키는 것도 가능해졌다. 가벼워진 장자를 틀에 축을 끼우거나 철물로 고정시켜서 여닫는 용도로 사용하면서 빛과 공기의 유입을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장자는 더 이상 고정 장치로만 쓰이지 않고 창이나 문의 기능을 하기 시작하였다.

장자는 본래 가로막아 공간을 구분하는 모든 것을 일컫던 용어였지만 종이를 바르고 창호 역할을 하면서 장지障紙, 帳紙로 불리기 시작하였다. 장지는 방 전면에 구들을 깔면서 더 다양한 종류로 변화하였다. 전면에 구들을 깔 온돌방은 불 지피는 쪽이 부엌, 다른 쪽은 또 다른 온돌이나 마루와 결합하게 된다. 이때 온돌방은 불기운이 들어가도록 바닥 높이를 똑같이 시설해야 하였지만 마루는 다양한 높이와 넓이로 조절이 가능하였다.

넓어진 온돌방은 필요에 따라 나누기도 하고 합치

기도 하면서 공간 구분을 위한 설치물로 장지를 사용하였다. 공간 구분을 위한 빛이 거의 투과되지 않도록 살의 양쪽 면에 두꺼운 종이를 발라 벽처럼 만들었고, 이를 특별히 면장지[面障子]라 하였다. 면장지는 빛이 투과하는 기존의 장지에 반해 빛이 투과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맹장지[盲障子]로도 불리었다. 이는 1900년대 이후 등장한 용어이다. 면장지는 기존의 벽과 달리 문틀에 설치되어서 필요에 따라 밀어 열거나 떼어내어 공간 너비를 조절할 수 있는 가변성을 특징으로 한다. 면장지 가운데에는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키고 벽처럼 도배하여 만든 장지도 있다. 이는 종이로 만든 벽이라는 뜻으로 지벽장지[紙壁障子]라고 한다.

장지를 이용한 공간의 가변성 활용은 온돌방과 마루 사이에서도 이루어졌다. 여기에 설치된 장지는 온돌방의 지벽장지와 달리 문짝으로 만들어서 기온이 낮을 때는 필요한 부분만 여닫이로 하다가 여름철이나 행사가 있을 때는 겹쳐서 개폐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를 분합장지[分閤障子]라고 한다. 온돌방과 대청 사이에 설치된 분합장지는 빛이 투과할 수 있도록 한 쪽에만 종이를 바르지만 지벽장지처럼 빛이 투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경우도 있다. 이때 분합의 중간 부분은 다양한 모양의 살을 넣어 장식하고 한 면에만 종이를 붙여 빛이 투과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이 부분을 불발기창이라고 한다.

장자 외에 가리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는 천으로 만든 장류[帳類]와 억새나 대나무를 엮어 만든 발류[簾類]가 있다. 장과 발은 창과 문 기능을 보조하거나 의장

기능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다. 천으로 만든 장류는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 휘장[揮帳]·갑장[甲帳]·차장[遮帳]·면장[面帳], 발은 재료에 따라 억새발[蘆簾]과 대나무발[竹簾]로 각각 구분된다.

장류 가운데 휘장은 방문이나 감실 입구에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의 커튼과 같은 기능을 한다. 갑장은 실외에 위치한 출입구에 설치하는 것으로, 출입은 빈번하지만 문을 설치할 수 없는 곳이나 문을 여닫을 때 소리가 요란한 대문에 걸던 가리개이다. 차장은 별이나 바람 또는 시선을 차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리개로, 신분이 높은 사람들의 의례 장소를 가리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발은 재료에 따라 억새로 엮은 완렴[蘆簾]과 대나무로 엮은 죽렴[竹簾]으로 구분된다. 대나무발 가운데 격식이 높은 것으로는 주렴[朱簾]이 있다. 주렴은 세죽[細竹]이나 중죽[中竹]에 주칠[朱漆]을 하고 비단실을 이용하여 귀갑문[龜甲紋]으로 엮은 것을 말한다. 주로 제사를 지내는 건물이나 궁궐에서 연회 등 행사가 있을 때 전각 안팎을 가려서 장식 역할을 하였다. 주렴은 위치나 거는 방식에 따라 달리 불리었다. 건물 내부에 거는 것은 내주렴[內朱簾], 외부에 거는 것은 외주렴[外朱簾]이라 하였다. 공간을 구분할 용도로 거는 것은 격주렴[隔朱簾] 또는 격렴[隔簾]이라 하였다. 주렴 가운데 의례를 위하여 길게 늘어뜨려서 가리다가도 통행을 위하여 걷어서 말아 올리는 주렴은 권주렴[捲朱簾] 또는 권렴[捲簾]이라 한다.



장지 | 서울 종로구 창경궁 경춘전 | 정정남



가리개 | 경기 수원 화령전 | 정정남



외주렴



목란도 가리개 | 가로60 세로215 | 19세기 말~20세기 초 | 국립고궁박물관

특징 및 의의 가리개 가운데 장자의 변화는 건축 기술과 도구 발전의 영향을 받았다. 두꺼운 판재로 이루어진 장자는 종이를 바른 가벼운 구조체가 되면서 공간을 구성하는 기능 외에 빛을 투과시키고 공기의 드나듦을 차단하면서 내부의 온열 환경을 조절하는 창호로 진화하였다. 그러나 목재와 종이로 만들어진 창호는 재료 특성상 차가운 공기나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하지 못하였다. 장과 발은 창호로 변한 장자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20세기 초 유리와 철이 건축 재료로 등장하면서 창호는 공기나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투명한 유리로 인해 더 이상 가리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빛을 가리고 시선을 차단하는 기능은 온전히 커튼이나 블라인드가 하였다.

참고문헌 영건의궐-의궤에 기록된 조선시대 건축(영건의궐연구회, 동년, 2010), 한국건축개념사전(한국건축개념사전기획위원회, 동년, 2013), 한국건축대계4-신편 한국건축사전(장기인, 보성각, 2005), 화성성역의궤 건축용어집(영건의궐연구회, 경기문화재단, 2007), 두산백과사전(doopedia.c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정정남(鄭貞南)

가사제한

家舍制限

정의 고대 신라와 조선시대에 신분별로 대지와 가옥의 규모 및 사용 재료·크기·치장 등을 제한한 명문 규정.

내용 가사제한家舍制限은 신분의 높고 낮음에 따라 집터의 면적과 가옥의 전체 규모 및 치장 등을 제한하는 제도를 이른다. 조선왕조에서는 초기부터 신분에 따라 집터의 면적을 규제한 가대(집터)제한家垈制限과 주택 규모·장식 등을 엄격히 제한하는 가사제한이 시행되었다. 신라의 옥사조가 골품제에 의하여 차등을 두었다면 조선시대에는 관직의 품계에 따라 집터의 면적, 주택의 규모와 장식 등을 제한하였다. 관직 품계 기준으로 주택 규모를 제한한 가사규제는 성리학을 통치이념으로 하는 문무 양반 사회의 상하 신분 질서와 유가儒家 사상의 명분론名分論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태조 대에 신분별로 집터 면적을 제한하는 가대제한을 먼저 제정하여 시행하다가 세종 대에 이르러 가옥의 총 규모와 장식을 제한하는 가사제한을 처음 제정하였다.

1395년(태조 4)에 제정된 가대제한은 국가가 나누어 주는 집터 면적을 신분별로 정한 것으로, 봉건 신분 질서를 준수함과 동시에 도성 내 무분별한 가옥 건축을 규제하여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개경에서 한양으로 도성을 옮기기 전부터 개경의 토지를 신분과 벼슬의 높고 낮음에 따라 차등을 두고 나누어 줄 목적으로 가대제한이 처음 시행되었다. 가대제한은 한양으로 천도하기 전인 1395년 1월 장지화張至和 등의 상소로 비롯되었다. 장

지화 등은 개경에서 시행하고 있던 가대제한을 새 도성(한양)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집터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가대 면적을 대폭 축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태조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1품의 집터 면적을 60부⁸에서 35부로 줄이는 등 관리들에게 나누어 줄 가대의 면적을 대폭 축소하였다. 즉 정 1품에게 35부에 해당하는 집터를 나누어 주고, 이하 한 품에 5부씩 줄여 정 6품에게 10부를 나누어 주도록 정하였다. 그리고 정 6품 이하는 한 품에 2부씩 줄여 정 7품 8부, 정 8품 6부, 정 9품 4부로 축소 조정하였다. 서인⁹의 집터 면적은 이전과 같은 2부(80여 평)로 정하였다.

1395년에 태조가 장지화 등의 주장을 수용하여 품계별 집터 면적을 대폭 축소 조정하였으나 그 후 한양의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택지가 부족해졌다. 이에 성종 때 『경국대전經國大典』을 편찬하면서 한양의 택지 부족 현상을 감안하여 품계별 가대 면적을 다시 대폭 축소하고, 이를 조선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의 「호전戶典」 급조가지조給造家地條에 규정하였다. 『경국대전』에 보이는 품계별 가대 제한은 대군·공주 30부, 왕자군·옹주 25부, 1·2품 15부, 3·4품 10부, 5·6품 8부, 7품 이하 4부, 서인 2부이다. 『경국대전』에 규정된 대군·공주의 집터는 1,179평이나 되어 대단히 큰 주택을 지을 수 있었고, 최하층인 서인도 오늘날의 도시 주택 대지보다 넓은 약 78평의 대지를 얻어 집을 지을 수 있었다. 도성 안의 집 지을 터는 한성부¹⁰가 신청을 받아 공지가거나 만 2년이 넘도록 집을 짓지 아니한 토지를 회수하여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다만 주인이 사신으로 나가거나 지방관이 되거나 상¹¹을 당하여 집을 짓지 못한 경우는 예외로 하였다. 『경국대전』에 기록된 가대제한은 조선 후기에 편찬된 법전 『대전통편大典通編』(1785)과 『대전회통大典會通』(1865)에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가대제한에 이어 1431년(세종 13)에 품계별로 가옥의 총 규모와 장식 등을 규제하는 가사제한이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이후 1440년(세종 22), 1449년(세종 31), 1478년(성종 9) 등 여러 차례 가사제한의 세부 내용을 고치고 보완하였다. 1431년에 제정

1395년(태조 4) 가대 분급			『경국대전』의 가대 분급		
품계	가대 제한		품계	가대 제한	
	부수 (負數)	m ²		부수 (負數)	m ²
-	-	-	대군·공주	30	4,225
			왕자군·옹주	25	3,521
정1품	35	4,663	1·2품	15	2,112
정2품	30	3,997			
정3품	25	3,331	3·4품	10	1,408
정4품	20	2,665			
정5품	15	1,998	5·6품	8	1,127
정6품	10	1,332			
정7품	8	1,066	7품 이하 유음자손	4	563
정8품	6	799			
정9품	4	537			
서인	2	266	서인	2	282

*3등 전척(田尺)으로 측량함

조선시대 신분별 가대제한

된 제1차 가사제한은 세종이 집현전 학사를 시켜 옛 제도를 상고하여 만든 것이다. 품계별로 지을 수 있는 가옥의 총 규모를 정하고, 이를 예조¹²로 보내 시행하도록 하였다. 제1차 가사제한에서는 임금의 친아들·친형제·공주의 가옥은 50칸, 대군은 여기에 10칸을 더하여 60칸, 2품 관리는 40칸, 3품 이하는 30칸, 서인은 10칸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가옥 총 규모의 제한과 함께 주춧돌 외에는 다듬은 돌¹³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포의 일종인 화공¹⁴을 사용하지 말고, 진채¹⁵로 단청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사치스럽게 다듬은 돌 및 화공, 진채단청의 사용을 불허하여 검소하고 소박한 것을 숭상하는 분위기를 진작시키려고 하였다.

제1차 가사제한을 시행하면서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면 예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가사제한 시행 전에 지은 가옥, 사당 및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가옥, 사들인 가옥, 한성이 아닌 지방에 지은 가옥은 가사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것으로 보아 제1차 가사제한은 주로 궁궐이 있는 한성 도성을 중심으로 시행되었으며, 도성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던 한성부가 가대제한과 가사제한 관련 업무를 처리

제정 연대	구분품계		대군	친형제 천자·공주	2품 이상	3품 이하	서인
제1차 가사제한	가옥 총 규모		60칸	50칸	40칸	30칸	10칸
	장식 제한		주춧돌 외에 다듬은 돌을 사용할 수 없고, 화공으로 구성하지 말며, 진채를 사용하여 단청할 수 없다.				
제2차 가사제한	가옥 총 규모 (사용적 - 영조척)		60칸	50칸	40칸	30칸	10칸
			50칸+누 10칸	42칸+누 8칸	34칸+누 6칸	25칸+누 5칸	7칸+누 3칸
	정침·익랑	들보 길이	10	10	9	9	7
		도리 길이	11	11	10	10	8
		기둥 높이	13	13	12	12	7
	기타건물	들보 길이	9	9	8	8	-
		도리 길이	10	10	9	9	-
		기둥 높이	12	12	7.5	7.5	-
	누	누 높이	18	18	13	13	12
제3차 가사제한	구분품계		대군	친형제 천자·공주	중친 및 2품 이상	3품 이하	서인
	가옥 총규모		60칸	50칸	40칸	30칸	10칸
			50칸+누 10칸	42칸+누 8칸	34칸+누 6칸	25칸+누 5칸	7칸+누 3칸
	정침·익랑·서청·내루·내고	앞면 1칸 길이	11	10	9	9	8
		측면 총 길이	18	17	16	16	7.5
		뒷기둥 높이	11	10	9	9	기둥 10.5
	차양 있는 사랑	앞면 1칸 길이	10	9	8.5	8.5	-
		옆면 1칸 길이	9.5	8.5	8	8	-
		기둥 높이	9	8.5	8	8	-
	행랑	앞면 1칸 길이	9.5	9	8.5	8.5	-
		옆면 1칸 길이	9	8.5	8	8	-
		기둥 높이	9	8.5	8	8	-
『경국대전』	품계		대군	왕자군·공주	옹주 및 중친·2품 이상	3품 이하	서인
	구분		다듬은 돌을 사용할 수 없고, 화공과 초공으로 구성할 수 없다.				
	가옥 총 규모		60칸	50칸	40칸	30칸	10칸
제4차 가사제한	구분품계		대군	왕자 제군·공주	옹주 및 2품 이상	3품 이하	서인
	가옥 총 규모 (사용적 - 영조척)		60칸	50칸	40칸	30칸	10칸
	주요 건물 ①정방 ②익랑 ③서청 ④침루 ⑤별실		①정방 ②익랑 ③서청 ④침루 전후 뒷간 포함 12칸	①정방 ②익랑 ③별실 전후 뒷간 포함 9칸	①정방 ②익랑 전후 뒷간 포함 6칸	①정방 ②익랑 전후 뒷간 포함 6칸	-
	주요 건물	고주 높이	13	12	11	11	
		들보 총 길이	20	19	18	18	
	재목 치수	앞면 1칸의 도리 길이	11	10	10	10	
		누의 기둥 높이	15	14	13	13	
	기타 건물	기둥 높이	9	9	8	8	8
		들보 길이	10	9	8	8	(8)
	재목 치수	앞면 1칸의 도리 길이	10	10	9	9	9
『대전회통』	품계		대군	왕자군·공주	옹주 및 중친·2품 이상	3품 이하	서인
	구분						
	가옥 총 규모		60칸	50칸	40칸	30칸	10칸
	장식 제한		다듬은 돌을 사용할 수 없고, 화공과 초공으로 구성할 수 없다.				

조선시대 가사 제한 및 변화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방 거주 관인과 양반사대부의 가옥은 직접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가사제한 제도를 준용한 것으로 보인다.

1431년에 제1차 가사제한을 제정하고 불과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1440년에 제2차 가사제한이 제정되었다. 제2차 가사제한은 제1차 가사제한을 시행하면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제1차 가사 제한은 품계별로 지을 수 있는 가옥의 총 규모를 칸수로만 정하여 놓아 칸수 제한을 지키면서 기둥 간격을 넓게 잡거나 기둥, 들보, 도리에 큰 재목을 사용할 경우 제한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하여 가옥의 전체 칸수와 장식 등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봉건 신분 질서를 유지하려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1440년 7월 예조는 제1차 가사제한의 칸수 규제는 유지하면서 누각과 주요 건물의 기둥 간격 및 들보 길이[楹長], 도리 길이[行長], 기둥 높이[柱高] 등을 척수尺數로 구체화시켜서 제한한 제2차 가사제한을 제정·반포하였다. 제2차 가사제한의 특징은 품계별로 지을 수 있는 주요 건물의 들보 길이, 도리 길이, 기둥 높이 등을 차등적으로 정해 가사제한의 실효성을 크게 높인 바 있다. 그럼에도 당시 고위 관리들이 제2차 가사제한을 위반한 사례는 더 많이 늘었다.

이처럼 제2차 가사제한도 시행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다. 1449년 1월에 드디어 제2차 가사제한의 불합리한 내용을 대폭 수정한 제3차 가사제한을 제정·반포하였다. 제3차 가사제한을 제안하면서 의정부議政府는 개정하여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 “대군과 공주의 가사에서 정침·익랑의 들보 길이는 10자^[尺], 기둥높이는 13자라 하였으나 들보(대들보)는 10자가 너무 짧고 중보^[小梁]는 10자가 너무 길며, 또 기둥 높이 13자는 너무 길고, 각 품계 가옥의 정침과 행랑의 치수에 차등이 없어서 실로 적당하지 못합니다.” 이에 세종은 의정부에서 그동안의 문제점을 수정한 제3차 가사제한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제3차 가사제한의 특징은 제1·2차 가사제한을 시행하면서 나타난 여러 문제를 고치기 위하여 가옥 내 각 건물에 사용하는 재목의 크기 등을 매우 구체화해서 정하였다는 데 있다. 여러

건물을 용도와 중요도에 따라 누樓·정침正寢·익랑翼廊 외에 서청西廳·내루內樓·사랑斜廊·행랑行廊 등으로 구분하고, 이에 맞게 각 건물의 기둥 간격과 사용 재목의 크기를 결정하였다. 이처럼 제1차 가사제한에 비하여 제3차 가사제한은 내용에서 매우 정교해졌으며, 따라서 시행상의 문제도 크게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후 『경국대전』을 편찬하면서 품계별로 지을 수 있는 가옥 규모를 칸수로만 제한한 제1차 가사제한 내용이 그대로 실리면서 가사제한의 제정 목적을 크게 상실하게 되었다.

1466년(세조 12)에 편찬된 『경국대전』 「공전工典」 잡령조雜令條의 가사제한은 세종 대의 제1차 가사제한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다만 친척 단청을 사용하여 가옥을 치장하는 것을 금지한 조항만 삭제하였다. 이처럼 『경국대전』의 가사제한은 신분별로 지을 수 있는 가옥의 총 규모를 칸수로만 간략히 제한한 것이었다. 제2·3차 가사제한에 들어 있던 들보와 도리 등 주요 재목의 크기와 기둥 간격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빠져 있어 실효성이 매우 낮았다.

1431년에 제1차 가사제한을 제정하고 두 차례의 개정과 보완을 통하여 실효성을 크게 높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자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성종 초에 한치형 등은 당시 사정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장사하는 무리와 노예의 미천한 신분으로도 돈과 재물이 있으면 분수를 헤아리지 않고 집을 경쟁적으로 지어 변화한 것만 숭상하니 칸수^[間數]의 많음과 화려하게 꾸민 것이 경대부卿大夫보다도 뛰어나다. 또 서인의 집이 조정 신하의 집을 능가하고, 조신朝臣의 집이 궁궐과 같이 사치하고 크기에 절조가 없다. 따라서 세종 때 정한 가사제한을 거둬 밝히고 지키지 않는 자는 법에 의해 논단하고 지은 집을 철거함으로써 사치하고 참람된 풍습을 근절시켜야 합니다.” 이는 1431년에 제1차 가사제한을 제정하고 그 후 수차례 개정·보완하였음에도 가사제한을 잘 준수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드디어 1471년(성종 2)에 성종은 “이제부터 이미 지은 집 이외에는 세종 때 정한 가사제도를 넘는 집은 금단^{禁斷}하라.”라는 지시를 내린다. 이는 세종 대에 반포한 가사제한이 성종 대에 이르러

유명무실하여지고 있었음을 잘 보여 준다.

성종은 문란해진 가사제한 제도를 바로잡기 위하여 사헌부로 하여금 새로운 가사제한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것이 1478년에 나온 제4차 가사제한이다. 제4차 가사제한에서는 가옥의 총 규모는 이전의 가사제한을 그대로 계승하되 정침, 익랑 등의 규모를 칸수로 제한함과 동시에 재목 크기에도 함께 제한하였다. 다만 가옥 규모가 열 칸에 불과한 서인에게는 재목의 크기 제한(척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았다. 제4차 가사제한에서는 고주高柱의 높이를 제한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지붕이 높은 집을 짓지 못하게 하였다. 이는 제3차 가사제한의 문제점을 개선한 것으로, 고주의 높이를 정하여 정침·익랑 등 주요 건물의 최고 높이를 규제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고주 높이를 제한하는 방식이 봉건 신분을 반영하는 가옥의 수직성 통제에 더 유리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제4차 가사제한에서는 각 건물의 규모를 실제로 규제하기 위하여 과량장過樑長, 척량장脊樑長 등 새 용어를 사용하였다. 먼저 과량장은 건물의 앞뒤 기둥 위에 놓이는 대들보와 뒷보의 길이를 모두 합한 것으로, 이는 건물의 측면 총 길이를 일정하게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건물의 측면 전체 길이를 제한하는 방식을 통하여 건물의 지붕 높이를 일정하게 제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리고 척량장은 건물의 앞면 한 칸의 도리 길이로, 이를 제한하여 기둥 간격이 넓은 큰 규모의 건물을 함부로 짓지 못하게 하였다.

이처럼 조선시대의 가사제한은 집터 면적을 제한하는 가대제한을 비롯하여 가옥의 총 규모와 재목 크기 및 장식을 제한하던 가사 및 장식 제한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1395년에 제정된 품계별 가대제한은 한성부의 택지 부족 문제 등 여러 현실 문제를 고려하여 『경국대전』을 편찬하면서 국가에서 나누어 주는 가대의 면적을 대폭 축소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반면에 가사제한은 1431년에 제정된 제1차 가사제한 이후 세 차례에 걸친 개정과 보완 작업을 거쳤으나 여전히 잘 준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469년에 편찬된 『경국대전』의 가사제한에서는 제1차 가사제한에서 정한, 품계별로 지을 수 있는 가옥의

총 칸수만 규제하여 가사제한의 제정 의도와 효력을 크게 상실하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시대 가사제한의 변화를 살펴보면 신분별 가옥의 총 규모(칸수)는 제1차 가사제한 때 처음 정하여 고종 때 편찬된 법전인 『대전회통』으로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제2차 가사제한에서 가옥 내 각 건물의 규모를 규제하기 위하여 들보와 도리 길이는 물론 기둥 높이 등을 제한하는 재목의 척수제한이 채택되었다. 하지만 가사제한을 시행하면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수정·보완한 제3차 가사제한에서는 주요 건물의 기둥 간격, 건물의 측면 전체 길이 등을 조정하였다. 성종 대에 마련한 제4차 가사제한에서는 주요 건물의 규모를 칸수로 제한함과 동시에 규제의 실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고주 높이를 제한하는 방식을 채용, 각 건물의 높이를 일정하게 제한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건물의 측면 총 길이와 정면의 기둥 간격도 제한하였다.

특징 및 의의 조선시대 가사규제는 1431년(세종 13)에 품계에 따라 주택 칸수를 제한하는 것을 시작하여 그 후 세 차례 개정되었다. 품계별로 주택의 전체 칸수를 제한하는 규제는 『경국대전』 및 『대전회통』 등의 법전에 등재되어 제도상으로는 조선 말기까지 유지되었다. 그러나 조선 초기에 엄수되던 가사규제는 15세기 말에 이르러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중종 반정 이후 가사규제를 위반한 주택 수는 급증하였으며, 이것으로 보아 왕권이 약화된 중기 이후에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칸수제한과 가대제한은 사치 금지 및 절검節儉과도 관련이 있다. 칸수제한과 가대제한을 위반한 왕자녀의 제택 건축 등은 늘 과도한 재목 벌목과 운반으로 민폐를 발생시켰다. 민폐를 줄이기 위하여 가사제도 준수를 강조하였으나 잘 지켜지지 않았다. 조선 중기 이후 왕의 자녀와 권신들의 위반으로 가사규제가 점차 유명무실해지면서 법전에도 없는 ‘집을 99칸까지 지을 수 있다.’라는 민간 전승어가 생겨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가사제한은 중국 명明의 가사제한과는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조선의 가사제한은 신

2,000여 가정을 비롯하여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확대되었다. 1970년 동부이촌동 한강맨션 공급용 도시가스 공장을 시작으로 여의도 시범단지용 공장이 세워졌고, 이어 전국 곳곳에 취사용 도시가스 공장이 건설되었다. 이에 따라 1970년대 말에는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취사용 연료로 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국으로 보면 일반가정에서 주로 사용한 가스레인지 연료는 도시가스가 아니라 프로판가스였다.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외국산 가스레인지가 수입되거나 한국린나이, 흥한, 조일 등이 일본에서 수입한 부품으로 조립한 가스레인지가 유통되었다. 그러다 1974년 일본의 린나이가 합자회사로 린나이코리아를 설립하고 금성사에서 가스레인지를 출시하면서 가스레인지의 국내 생산이 본격화된다. 이후 가스레인지 시장이 크게 활성화된 것은 1970년대 말이다. 1978년 한국후지카공업주식회사에서 ‘가스테이블’이라 하여 가스레인지를 출시하고, 1979년부터 수출용 가스레인지만 생산하던 린나이코리아에서도 국내 판매를 개시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가세하여 1985년에 대우, 1986년에는 삼성전자가 가스레인지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1988년 당시에는 린나이코리아, 후지카, 한국린나이(코리나이), 삼성, 대우, 금성 등이 가스레인지를 생산하였다. 외국산도 여전히 수입, 판매되었다.

가스레인은 화구火口 수에 따라 1구식, 2구식, 3구식 등으로 시판되었다. 가정용으로는 2구식 가스레인지가 가장 많이 이용되었다. 전자레인지 생산이 증가하면서 1980년대 후반에는 농촌에도 가스레인지 이용이 확산되었다. 농촌의 경우 1989년 기준으로 가스레인지가 100가구당 91.1대에 이르렀다. 따라서 1990년대 들어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전국에 거의 가스레인지가 보급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1인 가구나 맞벌이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식재료를 사서 집에서 직접 조리하지 않고 외식을 하거나 집에서 먹는다 해도 반조리 또는 조리된 간편식을 사다가 전자레인지로 데워 먹는 경우가 늘면서 가스레인지 이용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

고 있다. 게다가 신축 주거시설에 전기레인지 설치가 증가하면서 가스레인은 전자레인지, 전기레인지와 경쟁 관계에 놓인 상황이다.

특징 및 의의 가스레인지의 도입은 입식 부엌 확산과 관련이 깊다. 입식 부엌이라고 하면 적어도 싱크대(설거지통), 조리대, 가열대, 수납장 등을 갖춘 부엌을 이른다. 여기에 가스레인지를 설치함으로써 허리를 굽히지 않고 조리할 수 있는 편리한 취사열을 확보했던 것이다. 특히 아파트의 보급으로 부엌에 입식 싱크대와 수납공간을 당연히 설치하게 되면서 가스레인지 보급률은 아파트 생활의 보편화와 비례하여 더욱 높아졌다.

가스레인은 연탄불이나 석유포로에 비해 냄새가 없고, 화력이 세고 화력 조절이 쉽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화구가 두 개 이상이기 때문에 동시 조리가 가능하여 조리 시간을 단축시키는 장점이 있다. 장작 불에는 무쇠솥을 쓰고 연탄불이나 석유포로를 사용할 때는 가볍고 열전도성이 좋은 양은 재질의 솥과 냄비를 많이 썼지만, 가스레인지 사용이 보편화되는 1980년대 이후에는 열에 강한 스테인리스 제품의 인기가 높아졌다.

한편 냄새가 없고 깨끗한 가스레인지의 설치는 주방을 조리 공간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식탁을 들여놓고 식사 공간으로 활용하는 데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주방의 식탁에서 가족들이 둘러앉아 밥을 먹게 되었고, 끼니때마다 상을 접고 퍼거나 부엌에서 마련한 음식을 방 또는 마루까지 날라야 하는 주부의 수고가 줄었다. 주방이 주부와 가족의 생활 중심 공간으로 점차 변화하면서 냄새가 심한 음식은 주방이 아니라 다용도실에 별도의 가스레인지를 설치해서 조리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참고문헌 대한주택공사삼십년사(대한주택공사, 1992), 한국인 무엇을 먹고 살았나(양미경 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7), 한국인 어떤 집에서 살았나(김혜숙 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7), 국내 가스연소기기 90년 역사와 전망(가스신문, 2001.4.30), 금성사 가스레인지(매일경제, 1974.7.10), 농어가 살림 갈수록 속 빈 강정(매일경제, 1990.4.25), 연료 가스 25일부터 공급(매일경제, 1969.12.4).

필자 김혜숙(金惠淑)

가신 家神

정의 가택의 요소마다 존재하면서 가족을 비롯하여 집안의 안녕, 재산 등을 지켜 주는 수호신(守護神).

개관 가신(家神)은 가택의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신으로, 가족과 집안의 모든 일을 보살피 준다고 믿는다. 주거공간이 다양하듯이 가신은 그에 맞추어 다양하게 존재한다.

주거로도 표현되는 집은 애초 움집의 단일 공간에서 기능이 다양한 여러 공간으로 분화되었다. 공간과 건물이 기능에 따라 분화되는 가운데 각 공간이나 건물은 그 기능이나 상징성에 따라 의미가 부여되고, 그 의미에 따라 위치나 규모·형태 등이 결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주거의 건물과 공간은 단일건물의 단일공간에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거나 기존의 기능이 분화됨으로써 여러 건물 또는 여러 공간으로 분리되었다. 가신이 집의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 역시 이러한 기능 분화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강영환은 주거공간을 살림채와 부속채, 마당과 부속시설로 나누어 설명한다. 살림채는 주인이 기거하는 건물 또는 가족생활의 중심 영역으로서 격이 가장 높은 공간이다. 이곳에는 큰방(또는 윗방, 주인 부부의 거처), 안방(안주인의 거처), 부엌, 마루가 있다.

큰방·안방·작은방에는 삼신, 제석, 조상, 말명, 왕신 등이 존재한다. 안방에 이들 신이 모두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고 작은방과 나누어 신의 자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는 집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이들 가신을 한 집안에서 모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선택해서 섬긴다. 같은 신이지만 명칭이 다를 수가 있어서 가정에 따라 삼신과 제석신을 동일시하거나 제석신과 조상신을 동일시하기도 한다. 곧 삼신의 기능을 하면서 제석신이라는 명칭으로 섬기는 수가 있고, 조상신의 기능을 하면서 제석신이라는 명칭으로 섬기는 가정도 있다. 말명이나 왕신은 주로 중부지역에서 섬기지만 널리 섬기는 가신은 아니다. 부엌에는 조왕신이 거주하며, 마루에는 성주신이 거주한다.

부속채는 주로 주생활을 보조하는 기능을 하기 위한 건물이다. 이 안의 공간은 경제력에 따라 기능이나 규모가 달라진다. 부속채를 일컫는 용어도 다양하다. 아래채, 초당채, 행랑채 등은 공간이 여럿 되는 건물이지만 헛간, 마구간, 방앗간, 잣간, 도장, 뒷간 등과 같이 단일 공간을 지칭하는 용어로도 사용된다. 부속채의 공간으로는 마구(또는 외양간), 도장(고방 또는 곳간), 방앗간, 측간을 들 수 있다.

마구에는 우마신, 도장에는 용단지·업신·농기구신이 각각 자리 잡고 있다. 도장지신이라고 공간을 직접 붙이기도 한다. 방앗간에는 방앗간신(방아지신), 농기구신이 거주한다. 방앗간신이나 농기구신은 신체(神體)가 없이 건궁으로 모시는데 이들은 이른바 생업신이다. 생업이 달라지면 사라질 수 있는 신이기도 하다. 농경신이면서 업신과 터주신의 기능을 하는 용단지는 도장을 비롯하여 뒷마당, 부엌 등지에 모시기도 한다. 업신은 뒷마당(뒤꼍)에 업가리를 신체로 하여 터줏가리와 나란히 모시기도 하지만 가정에 따라



성주 | 인천 강화 | 1998 | 국립민속박물관



삼신 | 경북 영덕 | 2006 | 김영자



신줏단지 | 경남 함양 | 2001 | 코리아루트



조왕 | 충북 옥천 | 2016 | 국립민속박물관

서 안방에 모시기도 한다. 측간에는 변소각시로 대접하는 측간신이 존재한다.

마당과 부속시설로는 마당, 담장, 대문이 있다. 특히 마당은 살림채 앞에 있는 앞마당, 뒤에 있는 뒷마당, 살림채 안에 있는 안마당(또는 뜰)이 있지만 보통 앞마당과 뒷마당으로 나뉜다. 뒷마당에는 장독이 있으며, 앞마당이나 뒷마당에 우물이 있는 집도 있다. 계층과 주거 형태에 따라 마당의 형태가 달라진다.

앞마당에는 마당신이 있고 뒷마당에는 터주, 업신, 철룽, 용단지, 우물신, 칠성 등이 존재한다. 물론 이들 신의 자리가 고정된 것은 절대 아니다. 업신의 신체가 안방에 자리하는 가정이 있는 것처럼 터주가 건물 안이 아니라 집 밖에 거주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집 밖이라고는 하지만 그 집터를 떠나지는 것은 아니다. 철룽은 장독대나 그 부근에 모시므로 흔히 장독신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호남 농악에서는 장독신으로 일컫지만 호남과 충청북도의 가정에서는 터주로 인식하기도 한다. 용단지는 고방이나 뒷마당, 부엌 등에 자리 잡고 있다. 칠성의 자리는 뒷곶 또는 장독대 부근이라 한다. 대체로 신을 상징하는 몸인 신체(神體)가 없이 건궁으로 섬기지만 안방에 칠성단지를 모시는 가정도 있다.

담장에는 사신(四神)이 존재한다. 이는 성주신을 보호하는 신이다. 대문에 존재하면서 집안에 들어오는 액살을 막아주는 수문신(守門神)은 성주신을 지키는 신으로 보기도 한다. 이밖에도 대문에 걸립이 있고 우물에는 정신(井神)이 있다. 걸립은 널리 섬기는 가신은 아니다. 드물게 가정에서 섬기는 수가 있지만 신체는 없으며, 그 자리는 집의 대문 주변 기둥을 일컫는다고 한다. 이 역시 집안을 보살피 준다고 믿기 때문에 집안 고사 때 빌며, 우물신인 정신은 물을 맑고 깨끗하게 해 준다고 믿는다.

가신을 섬기는 의례는 대체로 이들 가신이 자리 잡고 있는 신체의 자리를 중심으로 행해진다. 대개 집안의 상주부(上主婦)가 관장하고 의례 역시 이들이 주재하지만 성주의례는 예외일 수 있다. 성주는 가옥신 성격을 띠면서 대주(大主), 이를테면 가장(家長)을 상징하기 때문에 대주가 의관을 갖추고 직접 의례를 행하기도



성주고사 | 강원 삼척 | 1996 | 코리아루트



터줏고사 | 경기 양평 | 2006 | 국립민속박물관

한다. 대주가 사망하면 기존의 성주를 내보내고 다음에 대주가 될 사람을 새로운 성주(성주 신체)로 모신다. 담장에 존재하는 사신(四神)이 성주신을 보호하고 대문에 거주하는 수문신이 성주신을 지킨다는 점에서도 성주신은 집안의 어른신, 으뜸신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주거공간에 가신 역시 다양하게 자리 잡고 있다.

내용 집의 중심은 대청의 대들보이다. 대들보는 마룻대를 받치는 들보로, 집을 받쳐 주는 힘의 원천이다. 한 집안이나 나라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사람을 일컫기도 한다. 가옥을 받쳐 주는 대들보 같은 신이면서 한 집안을 책임지는 가장家長 신神이 곧 성주신이다. 성주는 으뜸신이기에 집안의 중심인 대청의 상기둥에 자리 잡고 있다. 신체는 한지를 절반으로 접고 실타래와 띠를 감아 놓은 것, 성주독 등이 있다. 성주독에는 다른 신주단지와 마찬가지로 곡물을 넣어 둔다.

아기를 낳은 산모는 안방 아랫목의 따뜻한 곳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삼신은 당연히 방의 아랫목인 따뜻한 곳에 자리하며, 벽 위에 선반을 매고 그 위에 모신다. 신체로는 삼신바가지, 삼신자루, 삼신단지, 삼신고리 등이 있다. 이들 신체 안에는 대체로 깨끗한 쌀을 넣어 둔다. 그러나 삼신고리에는 옷감을 넣어 두기도 한다. 반면 조상신은 삼신과 마주한 윗목에 자리 잡고 있다. 이를테면 아이를 관장하는 삼신에게 따뜻한 자리를 내준 것이다. 이는 실생활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신체가 없는 건궁일 수도 있지만 지역에 따라 조상단지나 조상고리를 신체로 하여 그 안에 곡물이나 옷감, 실 등을 넣어 두기도 한다. 제석이나 세존, 시준이라는 이름으로 조상신 또는 삼신과 동일시하기도 한다. 버들고리를 신체로 한 조상신은 그 신체 이름을 조상마우리, 조상당세기, 조상토방구리라고 한다. 그 안에는 한지를 깔고 옷감이나 실타래를 넣어 둔다.

그런데 조상신은 독특한 면이 있다. 조상신은 그 가계의 선조로서 유교 제사를 받는 조상과 가신으로서의 조상이 같을 수도 있겠으나 구별될 수도 있다. 유교식 제례를 받는 조상은 서열이 명확해서 종손은 집안 내에서 4대 봉사를 한다. 하지만 선대 조상이되 유교식 제례를 받는 조상과는 달리 서열을 알 수 없지만 집안에 들어앉아 섬기는 조상신도 있다.

중부지역에서 주로 섬기는 말명과 왕신은 모두 조상 계통이다. 말명은 조상의 넋을 모신 것으로, 작은 나무상자에 망인이 생전에 입던 옷을 넣어 대청이나 방 안 천장 밑 높이에 작은 선반을 매고 엮어 놓는다. 왕신 역시 말명과 같은 형태로 시령을 매고 작은 상

자를 놓아 모시는데, 이는 주로 처녀로 숨진 넋을 모신 것이다.

조왕신은 불을 관장하는 신이기에 부엌에 자리 잡고 있다. 신체는 조왕중발로 불리는 사기그릇이며, 매일 아침 깨끗한 물로 갈아 준다. 조왕신이 음식에 관여한다는 기능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부엌에 거주하기 때문에 음식과 관련시키기도 한다. 또한 불을 관장하기에 이의 연장선상에서 재산에 관여하고 자녀를 거두는 일을 한다고 믿는다.

측신은 변소신이면서 살糞을 거두어 준다고 한다. 신체가 없는 건궁으로, 대단히 두려운 신으로 여긴다. 변소에 빠지면 으레 떡을 찢고 간단하게나마 의례를 행한다. 심지어 밖에서 거름더미(오물)에 빠져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오물독에 살기殺氣가 있다고 보고 그 살을 제거한다는 의미가 있다. 무속신화에서는 조왕신과 측신이 처첩관계로 나타나 부엌과 변소는 멀어야 좋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집터는 주거가 자리 잡고 있는 모든 터를 이르지만 ‘터를 본다.’고 할 때는 곧잘 뒷마당이 중심이 된다. 여기에는 터주신이 자리하며, 신체는 터줏가리 또는 거대한 자연석인 경우가 있다. 터줏가리 안에는 곡물을 담은 단지가 있다.

곡물은 곧 재물을 뜻한다. 재물신인 업신은 당연히 곡물을 저장하는 도장에 모시며 뒤꼍에 터줏가리와 함께 나란히 모시기도 한다. 그 밖에도 돈을 넣는 금고가 업신의 자리일 수도 있다. 신체는 업가리가 보편 형태이며, 업항아리도 있고 건궁업도 많다.

용단지는 농경신이자 재물신이어서 곡물이 있는 고방이나 음식을 하는 부엌 또는 뒤꼍에 모신다. 안용과 꺼칠용 두 개를 모시는 것이 보편적이다. 안용에는 쌀, 꺼칠용에는 나락을 각각 넣는다. 뒤편은 집터를 지켜 주고 재복을 주는 터주와 함께 철룡, 천룡도 있는 곳이다. 또 장독이 있고 김치독도 있는 곳으로 먹을거리를 두는 곳이다.

거주공간은 가족이 필요로 하는 기본 공간이다. 공간마다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의 공간이기도 하다. 가신은 주거공간과 주거생활의 다양화에 맞추어 존재한다. 따라서 거주공간은 인간(가족)의 공간이며 신의

공간이다. 그러기에 집은 가족의 안식처라는 단순한 생활공간을 넘어 신과 만나는 성화聖化된 공간으로 변신할 수 있다.

한국인의 신 관념은 천신天神으로부터 시작된다. 천신을 모태로 한 단군신화에서 단군이 산신이 되었다는 사실은 산신이나 신목신앙의 모델이 되고 있다. 이 밖에도 명산대천의 산신이나 지신·용신신앙 등이 모두 근원은 천신이지만, 기능신으로 나타나 구체적이고 초월적인 힘의 발현으로 수용되고 있다. 천신은 기능신을 동반하거나 스스로 변용하여 현현하기도 한다. 그 1차 변용이라 할 수 있는 산신이 천신의 성격을 띠면서 실질적인 최고신이 되고, 천신이 관장하는 대우주를 산신이 담당하는 소우주인 마을로 옮긴다. 마을보다 소규모의 우주를 가정이라 할 수 있으며 가신으로서 으뜸신인 성주신앙도 역시 천신신앙을 근원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천신이 변용되거나 기능신을 수반하듯 가옥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성주신이 기능신을 수반하거나 스스로 변용하여 여러 기능신으로 분화한다.

집안에서 섬기는 여러 가신은 특정한 공간이나 건물을 주관하고 있어 공간이 분화되기 시작한 이후에 신앙화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 민속신앙의 신화 체계로 볼 때 집에는 성주를 가장으로 하는 신들의 가족이 있고, 이들은 각각의 공간이나 건물을 주관하여 그 기능이나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만큼 가신의 존재는 이미 오랜 역사성을 담보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주거 형태가 시간 흐름에 따라 다양한 공간으로 분화되는 것처럼 가신 역시 다양하게 분화되어 각 기능신이 각 공간에서 구실하는 것이다.

특징 및 의의 주거공간은 단순히 가족들의 생활을 위한 공간일 뿐만 아니라 공간마다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화聖化되며,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기에 주거공간은 일상생활을 하는 공간이면서 의례를 행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가신이 존재함으로써 속된 일상의 공간에서 신성한 공간으로 바뀌기도 하는 것이다. 샅된 사람들이 침해하고 잡귀들이 범하기 쉬운 속된 공간을 가신을 섬김으로써 정결하고 신성한 공간으

로 정화한다. 그러면서 집은 가족들의 안식처라는 단순한 생활공간을 초월하여 신과 만나는 중심 영역이 된다.

가신은 한 가족의 평안과 건강, 풍요 등 복을 받기 위해 섬긴다. 집의 중심은 대청의 대들보이다. 가옥을 받치는 대들보 같은 신이면서 한 집안을 맡고 있는 대주이자 가장이 바로 성주이다. 조상신이나 삼신은 돌아가신 어른이 앉은 것으로 생각하는 반면에 성주는 살아 있는 존재로 여긴다. 한 가정에서 대주가 중심을 잡고 있어야 온전한 가정생활이 이루어지듯이 대들보가 온전할 때 집도 안전하다.

전통사회에서는 가부장제 전통 속에 대주大主를 중심으로 가족이 형성된다. 가신은 때로 가족 구성원의 질서체계를 반영한다. 여기서 질서 체계란 첫째, 부권 중심의 가족주의 제도 속에서 가족의 생존과 생활 전반에 대하여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부父의 역할에 따른 지위를 의미한다. 둘째, 전통사회에서 강조되는 가계 계승과 가문 존속 및 조상숭배의 주체자로서 자子의 역할에 따른 지위를 의미한다. 셋째, 이들을 내조하고 모성애로 보살피 주며 까다로운 윤리규범을 마다할 수 없는 처지에서 이를 지켜 나가고 가정 내부의 일에 충실한 여성의 역할에 따른 지위가 신격에 반영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집안의 가장, 곧 대주를 상징하는 성주를 최고신으로 봉안한다. 그 다음이 자녀의 출산과 성장을 지켜 주는 삼신, 그 다음으로 화신火神으로서 주부만의 생활공간인 부엌에 봉안된 조왕 또는 안방에 봉안된 조상신이다. 이것은 재래의 천신신앙天神信仰이라든가 조상숭배의 전통 관념이 있던 터에 유교사상의 영향을 받아 고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고사를 지낼 때 신령들의 높낮이에 따라 시루나 떡을 어디에 어떻게 올려서 진설하는가 하는 것과 같이 놓는 방법이 다양하듯 가신도 나름의 질서체계가 있다. 가신의 서열은 고정된 것은 아니지만 으뜸신인 성주신을 중심으로 삼신-조상신-용단지-조왕신 등의 순으로 질서체계를 이룬다. 성주는 한 가정 전체를 관장하는 집안의 대주를 상징하는 신이어서 대주가 사망하면 성주를 없애고 다음 대주에 맞추어 성주를 새

로 맨다. 성주고사 때 으레 하는 “성주는 대주를 믿고 대주는 성주를 믿는다.”는 주언은 이들 관계를 말해 준다. 가신에 대한 신앙은 대체로 여성이 주체가 되지만 성주의례는 가장이 의관을 갖추고 행하기도 한다.

성주는 생존해 있는 집안의 가장을 상징하는 반면에 삼신, 조상신, 용단지 등은 돌아가신 가계의 어른들이다. 이들 조상신 가운데서도 현재의 가족과 접한 당대의 조상 신격을 우선 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를 테면 성주가 가장으로 집안을 총괄하는 신인 반면에 당대의 조상 신격으로 삼신이 그 대상이 된다.

삼신으로는 대체로 돌아가신 여자 상어른이 들어앉는다. 돌아가신 시할머니가 삼신으로 있다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시할머니는 삼신의 자리를 내놓고 시어머니가 삼신으로 좌정한다. 조상은 삼신과 마찬가지로 역시 세상을 떠난 선대 어른이 좌정한 신이다. 조상은 누구라는 것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개 ‘막연한 조상’이어서 삼신과 동일시하지는 않는다. 굳이 서열을 따진다면 삼신 다음이라 할 수 있다.

가신은 그 신체의 형상을 통해서도 농경문화와 관련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은 농경사회가 아니다. 의식意識이 달라지고 가옥 형태는 전혀 달라져서 가신은 그 자리를 잃었다. 그러나 주거환경이 달라진 아파트에서 용단지를 모시는 가정이 있으며, 전통의 종교 심성은 간직된 채 다른 종교로 대체된 경우도 있다. 가신에 대한 의식에서도 역시 여타 민속문화와 마찬가지로 변화와 지속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가옥이나 의식 변화 등 사회 변화에 따라 가신을 섬기지는 않더라도 주거공간은 신의 공간으로서 상징의 의미를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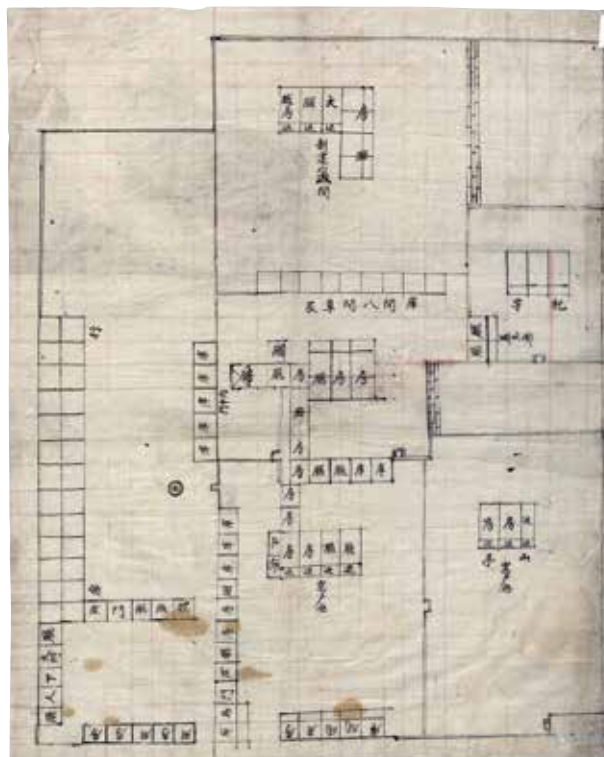
참고문헌 가신신앙의 성격과 여성상(김명자, 여성문제연구13, 효성여자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1984), 가을떡과 안택(이필영, 한국문화연구1,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1), 마을신앙의 사회사(이필영, 웅진출판, 1994), 집과 가족을 일체화하는 가정신앙(김명자, 비교민속학32, 비교민속학회, 2006), 집의 사회사(강영환, 웅진출판, 1992), 한국민간신앙연구(김태곤, 집문당, 1983), 한국의 가정신앙-상·하(김명자 외, 민속원, 2005), 한국종교문화의 전개(정진홍, 집문당, 1986).

필자 김명자(金明子)

정의 가옥의 공간 구성과 규모를 그린 도면.

내용 가옥도형家屋圖形은 집을 의미하는 가옥家屋과 도면을 의미하는 도형圖形의 합성어로, 과학 측량을 통한 도면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작성된 가옥의 평면배치도를 말한다. 가옥도형은 집을 그린 그림이란 의미로 가도家圖라고도 불리며, 도면을 통해 간間과 가구架構를 알 수 있다는 의미에서 간가도間架圖라고도 한다.

현전하는 가옥도형은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고려대학교박물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개인이 소장한 것도 있다. 국립고궁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고려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가옥도형은 <순화궁도형>·<세심궁도형>·<재동궁도형>·<운현궁도형>·<원동이궁도형> 등과 같이 주로 왕실 가족의 제택인 궁가宮家를 그린 경우가 많다. 해당 도형을 통하여 조선시대 궁가의 한양 내 입지뿐만 아니라 공간 구성



사대부가배치도형 | 조선 후기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및 변화 과정을 찾아내는 것이 가능하다. 국립민속박물관 및 개인이 소장한 가옥도형은 사대부 주택을 그린 것으로, 가옥의 간가를 그린 것은 동일하지만 사용한 종이나 도형에 기록된 내용이 다르다.

가옥도형은 주로 닥나무를 재료로 한 저주지(楮注紙)에 작성되었다. 종이는 가옥 규모에 따라 낱장 또는 여러 장을 이어 붙여 사용하였다. 축척 대신 일정한 간격으로 격자를 그리고, 격자를 바탕으로 도면을 그린 것이 많다. 하지만 격자와 상관없이 그려진 것도 있다.

가옥도형은 가옥 정보 기록을 기본 목적으로 하여 제작된 것이다. 그 목적에 더하여 확장이나 증축과 같은 건축 목적이 있는 경우는 지형, 도로, 주변 가옥의 주인, 건물 간 거리 등을 자세히 기재하였다. 매매를 위한 경우에는 가옥의 거래 가격을 더 기록하였다. 건축 또는 매매를 목적으로 할 경우의 가옥도형은 행위가 있기 이전 현장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기록 및 보존을 목적으로 제작한 가옥도형은 현장 조사도면을 정서해서 옮겨 그리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가옥을 그린 것으로는 1908년에 제작된 궁내부 문서『조선각관청가옥도본(朝鮮各官廳家屋圖本)』과 1910년 대한제국기에 도입된 토지 및 가옥의 소유권 증명, 전당 증명을 위하여 작성된『토지가옥증명원본(土地家屋證明原本)』 및『토지가옥전당증명원본(土地家屋典當證明原本)』 등이 있다. 이 자료들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 연구원에 소장된 것들로, 가옥도형과 달리 근대식 삼각측량법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나 간가 또는 공간 명칭이 표현되어 있지는 않다. 관청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옥의 기록이나 전당을 목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것은 가옥도형과 별반 다르지 않다.

건축 또는 매매를 위하여 가옥을 그린 도면은 근대기 이전에는 가옥도형 또는 가도, 근대기에는 가옥도본으로 각각 지칭되었다. 현대에는 용어가 변화하여서 주택평면배치도로 지칭하며, 제작 기법이나 기록하는 종이도 시대 변화를 따랐다. 심지어 종이에 남기지 않고 디지털 자료로만 남기기도 한다.

특징 및 의의 가옥도형은 조선시대 주택을 그린 도면을 사료로 총칭하기 위하여 정정남이 각종 도면 자료의

명칭과 건축 상황을 반영하여 만든 용어이다. 가옥도형은 근대기 이전에 존재하던 집을 그린 도면으로, 도면의 작성 배경 및 작성 기법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료이다. 가옥도형에 표현된 내용을 통해 조선 후기 주택의 공간 구성 및 그 변화 과정을 알아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근대건축도면집(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인사동 194번지의 도시적 변화와 18세기 한성부 구유옥 가옥에 관한 연구(정정남, 건축역사연구, 한국건축역사학회, 2008), 조선왕실 건축도면(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한국건축사전(장기인, 보성각, 2005), 조선왕조실록사전(encysillok.aks.ac.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정정남(鄭貞男)

가옥문기

家屋文記

정의 전통시대에 주택을 거래하면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작성해 준 계약문서.

개관 가옥문기(家屋文記)란 ‘주택거래 계약문서’를 말한다. 전통시대의 주택거래에는 집을 사고파는 ‘매매(賣買)’, 주택과 주택, 주택과 토지 등을 서로 교환하는 ‘상환(相換)’, 주택을 일정 기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리는 ‘환퇴(還退)’ 등이 있었다. 이러한 주택거래 행위가 있으면 관행으로 가옥문기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주고 받았다.

역사적으로 중국에서는 선진(先秦)시기 및 한대(漢代) 때부터 주택거래 기록이 『사기(史記)』, 『후한서(後漢書)』 등에 전해진다. 주택거래 문서에 관해서는 돈황문서(敦煌文書)나 금석문(金石文)에서부터 당송(唐宋)시기 전후 및 원(元)·명(明)·청대(淸代)에도 주택거래 문서가 작성되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교부하였으며, 해당 거래에 대해 관청의 공증절차를 거치는 문서가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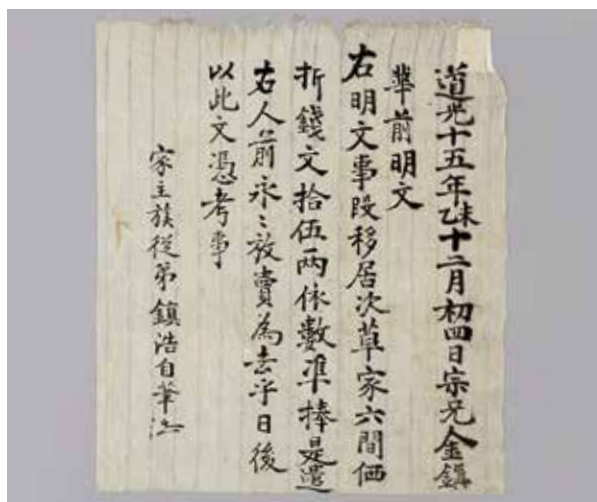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주택거래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삼국사기(三國史記)』 권45 열전5에 나오는 고구려 평원왕(559~590) 때의 평강공주 및 온달장군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쫓겨난 평강공주가 궁궐을 나오면

서 가지고 온 보물 팔찌 수십 개를 팔아 집과 땅을 사들이고 노비와 소·말, 집기 등을 구비하여 온달과 그의 노모를 모시며 살게 되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도 주택거래 기록이 전존하며, 특히 조선시대에는 다량의 가옥문기가 남아 있어 당시의 주택거래 생활을 살펴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주택거래 후 공증서인 ‘입안立案’을 발급하도록 규정하였고, 대한제국 이후로는 가옥문기나 주택거래계약서가 작성되는 동시에 ‘가사관계家舍官契’라는 양식화된 공증서가 발급되기도 하였다.

내용 가옥문기는 전통시대에 집의 소유자가 집을 매매, 상환, 환퇴하면서 거래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작성해 주던 주택거래 관련 계약문서이다. 주로 매매계약 행위에서 상용되었다. 조선시대에 주택은 주로 ‘가사家舍’, 계약문서를 ‘문기文記’ 혹은 ‘명문明文’이라고 각각 일컬었기 때문에 가옥문기를 ‘가사명문家舍明文’이라고 일컫기도 했다. 조선시대의 주택거래 등 다양한 거래생활은 단순히 구두로만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명문, 문기 등의 계약문서를 작성하고 관련 기록들에 근거하여 이뤄졌다. 조선시대 매매에서는 지금과 달리 상호 간에 계약문서를 한 장만 작성하였고, 작성한 문서와 기존 거래 목적물과 관련된 권리문서를 거래 상대방인 매수인에게 모두 넘겨주는 것이 관행이었다.

가옥문기에는 대체로 거래 연월일, 집을 사는 매수인의 정보, 매도인이 집을 소유하게 된 연유와 이용 형태, 집을 파는 이유, 거래 대상인 집의 정보(소재지, 형태, 크기 및 면적 등), 지불수단 및 매도가격, 문기를 쓰는 이유, 거래 분쟁에 대비한 문구, 매도인 및 증인, 대서인(필집) 등의 정보, 특기사항 등을 순서대로 기재하였다. 주요한 기재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주택 소유 및 거래의 사유: 매도자가 거래 대상인 자신의 집을 소유하게 된 연유와 그 집의 이용 형태에 대한 기재 유형으로는 ‘여러 해 살고 있는(累年居生)’, ‘직접 매입하여 살고 있는(自己買得居生)’, ‘조



의성김씨 김진화 가사매매명문 | 1865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상으로부터 물려받아 살고 있는(傳來居生)’, ‘(부모 등으로부터) 자식의 몫으로 받아 살고 있는(衿得生居)’, ‘직접 지어 살고 있는(自己構居)’ 등의 표현이 있고, 간단히 ‘살고 있는’이란 표현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집과 텃밭, 땔나무터 등을 일괄로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형태를 ‘몫으로 받아 살면서, (밭을) 갈아먹고 (나무를) 잘라다 쓰면서(衿得生居 耕食刈取)’ 등으로 상세히 표현하는 사례도 간혹 발견되고 있다. 집을 파는 이유를 기재한 경우는 매우 다양하지만 주로 ‘이사하기 위하여(移居次·移徙次·移去次·移居他鄉次)’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간혹 ‘빚을 갚기 위하여(報償)’나 ‘생계生計’ 또는 ‘긴히 쓸 곳이 있어서(要用所致)’ 등의 이유라고 간단히 기재하는 것이 통상적이었다.

2. 거래 대상 주택의 정보: 조선시대의 집은 기와집인 ‘와가瓦家’와 초가집인 ‘초가草家’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 등에 따르면 실제 대다수의 하층민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거주한 주거 형태로는 흙으로 지은 토실土室, 토방土房, 토막土幕 등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토막 등에 대한 거래나 매매의 고문서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고, 현전하는 가옥문기에서는 와가와 초가가 주된 거래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함께 가옥문기에는 와가와 초가의 내부를 거

래 목적물로 삼아 기재할 때 구조나 기능으로 세분화기도 하였다. 정침正寢, 행랑行廊, 익랑翼廊, 용실春室, 내사內舍 등이 그것이다. 한편 주거래 대상인 주택에 포함시켜서 집 주변에서 기르고 있는 감나무인 시목柿木이나 뽕나무인 상목桑木 등의 수목樹木, 집을 지을 수 있는 집터인 공대空垔, 집 안팎의 텃밭 또는 남새밭이라 할 수 있는 대전垔田을 함께 기재하여 거래하기도 하였다. 어떤 경우에는 집에서 사용하는 주거용품 절구인 침용砵春 혹은 석용石春 등 집기까지 주택과 함께 거래하기도 하였다.

거래 대상인 주택에 대한 정보를 기재할 때 우선 주택 소재지를 표시하였다. 즉 군현郡縣 단위의 지역명과 면面 혹은 동리洞里 명칭을 기재하였다. 그다음 집의 종류가 초가인지 와가인지와 그 세부 기능이 정침인지 행랑인지 등을 구분하고 면적인 칸수를 기재하였다. 집을 지을 수 있는 터인 공대인 경우도 대개 칸수를 따로 적었다. 주택의 면적 혹은 범위를 표시하는 단위인 ‘칸[間]’은 조선시대 거의 전 시기에 사용되었고, 대한제국기 이후가 되면 일본의 영향으로 ‘평坪’이 주택 면적 단위로 등장한다.

한편 공대와 달리 ‘대전’은 주로 집에 부속되어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를 통칭하여 가옥문기에서 사용되고 있다. ‘가대전家垔田’ 혹은 ‘기지基地’ 등의 용어로도 사용되고, 그 면적은 전답과 같은 방식인 마지기[斗落只]나 결부수結負數로 표현되고 있다.

간혹 거래하는 집의 정보에 대해 주소 없이 ‘초가 몇 칸’, ‘와가 몇 칸’으로만 간략하게 기재하기도 하였다. 이는 상호 간에 합의가 되어 있거나 주변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소나 부속 건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적지 않은 연유로 보인다.

3. 지불 수단: 집에 대한 매도가격은 당사자 간에 임의로 정하는 것이 관례였고, 대금을 지불하는 수단은 시대별로 변화가 있었다. 저화楮貨, 은자銀子, 면포綿布, 우마牛馬 등의 여러가지 화폐가 있었으나 포화布貨와 전문錢文 등이 주로 혼용되다가 나중에는 흔히 ‘엽전’이라고 알려진 금속화폐인 전문으로 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1746년에 시행된 『속대전續大典』에서는

국폐로 동전을 사용한다고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인 18세기 초부터 사회에서 상평통보 등 동전이 지불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현전하는 가옥문기에는 지불 수단이 거의 대부분 ‘전문’으로 기록되어 있다.

4. 추탈담보문언(거래 분쟁 및 해결 과정에 대한 언급): 가옥문기 본문의 말미에는 “차후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신고하여 처리할 일(後次雜談 則持此文記 告官下正事)”이라는 취지가 상투성 문구로 기재되었다. 해당 가옥문기의 증빙 문서로서의 지위를 표현한 것이었다. 이는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이 문서로 증빙할 일(此文記 憑考事)” 등으로 간략화되었다.

5. 매도인, 필집, 증인 등 정보: 마지막으로 매도인과 증인, 대서인 등의 정보가 기재된다. 초가 혹은기와 집 등을 매도할 경우 매도인에 대한 지칭은 ‘가주家主’, ‘초가주草家主’, ‘가사주家舍主’ 등으로 한정해서 썼다. 주택 이외에도 텃밭, 과수 등의 다양한 부속 재산을 함께 매도할 경우 ‘재주財主’라는 통칭으로 매도인을 지칭하여 기재하기도 하였다.

6. 서명 관련: 가옥문기의 마지막에 매도인, 증인, 대서인 등이 자신의 이름 아래에 적는 서명 방식으로 수촌手寸과 착명着名 등이 있었다. 오늘날의 서명 signature과 같은 의미와 효력이 있다. 신분과 지위 고하에 따라 또는 문맹文盲 여부에 따라 착명을 하거나 가운데 손가락 마디의 본을 뜬 수촌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성별에 따라 남자는 좌촌左寸, 여자는 우촌右寸을 하기도 하였다. 수촌 이외에도 손바닥의 본을 떠서 그 안에 ‘우장右掌’이나 ‘좌장左掌’이라고 써 넣기도 하였다. 그러나 오른손, 왼손 구분이 반드시 남녀 구별을 따른 것은 아니었고 약간의 혼용이 있기도 하였다. 또 부모나 조부모의 상중喪中인 사람은 ‘상불착喪不着’이라고 표기하고 서명을 하지 않았다.

특징 및 의의 『경국대전經國大典』 호전戶典 매매한조買賣限條에 따르면 토지·가사·노비의 경우 매매 계약을 한

각계수리

지 15일이 지나면 해제·취소·변경할 수 없으며, 매매 계약이 성립된 지 100일 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지금의 공증서인 입안立案을 발급받도록 규정하였다. 매수인이 입안을 신청하는 청원서인 소지所志를 적어 주택을 거래한 계약서인 가옥문기를 첨부하여 관청에 제출하면 관청에서는 이를 검토한 후 입안 발급 결정에 대한 처분 내용인 제사題辭를 소지의 좌측 하단 부분에 써서 돌려주게 된다. 이에 근거하여 관청으로 소환된 매도인, 증인, 대서인 등으로부터 매매 사실의 여부 및 합법 정당함을 확인하는 진술서인 초사招辭를 징구 받은 후에 입안을 최종 발급하게 된다. 그러나 조선 후기로 올수록 행정력의 형해화, 공증수수료의 부담 등으로 인해 주택거래 시 당사자 간 계약문서인 가옥문기만으로 거래가 완결되어 그다음 입안 발급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가옥문기에 집을 소유하게 된 연유와 집에 대한 매도인 자신만의 이용 형태를 굳이 가옥문기에 기록한 이유는 거래 대상인 집의 소유 배경 및 점유 상태는 물론 매도라는 처분행위 등의 토대가 합법정당함을 공시함으로써 이중매매二重賣買 및 도매盜賣 등 불법 행위를 방지하여 주택 거래의 안전을 도모한 국가·사회 요구와 관행에 근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옥문기의 말미에 “잡담이나 분쟁이 발생할 시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신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라는 상투성 문구가 기재되었다는 사실은 가옥문기가 단순히 주택거래 기록을 남기는 용도로만 쓰인 것이 아니라 차후 분쟁 시 재판에서 거증 책임의 주요 수단으로 자격을 갖춘 증거 능력 있는 증빙 문서 역할도 동시에 담당하였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곧 현대사회에서 매매계약 체결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매도물賣渡物의 하자담보책임瑕疵擔保責任 등은 물론 여타 분쟁의 경우에 그 해결을 관官의 사법처분에 따라 진행하도록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經國大典, 高麗史, 史記, 三國史記, 朝鮮王朝實錄, 華城城役儀軌, 後漢書, 우리나라 토지제도 변천사(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11), 조선시대 명문에 관한 문서학적 연구(김성갑,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3), 한국법제사고(박병호, 법문사, 1974), 唐宋法律文書の研究(仁井田陞, 東京大學出版會, 193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김성갑(金性甲)

정의 여닫이 문 안에 여러 개의 서랍이 설치된 일종의 금고로, 귀중품 문서 등을 보관하는 데 사용하는 가구.

내용 각계수리는 일본의 현연懸硯, 가けすずり이라는 말이다. 현연은 원래 아래에는 종이를 넣고 위에는 버루를 넣은 상자를 걸치도록 만든 두 개의 상자를 포개 놓은, 상선商船에서 사용한 문방가구였다. 15~16세기에 중국과의 무역이 활발하던 오사카大阪의 사카이堺항에서 중국 영향을 받아 다도용茶道用 단스[簞笥]와 상선용商船用 가케스즈리懸硯, 가けすずりの 두 가지 양식으로 발전되었고, 16~17세기에 상업이 발달되면서 중인中人계층에서 폭넓게 사용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각계수리는 안방과 사랑방에서 함께 쓰인 귀한 가구 중 하나이다. 조선시대 숙종 때 통제사로 재직 중이던 조이중趙爾重이 각기소리角其所里를 여덟 개 만들고 그 안에 기화奇貨를 넣어 진신摺紳(벼슬아치)에게 보낸 일로 문제가 있었다는 기사는 당시에 이미 각기소리를 사용하였음을 말해 준다.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에서는 각계수리를 왜궤倭几라 하여 ‘жат계슈리’, ‘가계소리’, ‘각비슈리’, ‘각기소리’라고 그 표기를 각각 달리하였다. 한자어로는 중국식의 정궤頂櫃, 천안주天眼廚 또는 백안주百眼廚라고도 기록하였다.



각계수리 | 가로53 세로32 높이37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각계수리는 내면 서랍에 약재 이름이 적혀 있다. 이러한 각계수리 약장은 대부분 가정에서 상비용으로 쓰였다. 또 내부에 여러 개의 서랍이 있으나 각을 하지 않은 것은 귀중품이나 어음등을 보관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대부분의 중상층 이상의 가정에서 사용하였다.

특히 상술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개성에서는 각계수리를 많이 사용하였고, 경제력이 풍부한 개성인들 취향에 맞춰 제작하였기 때문에 우수한 제품은 대부분 개성산이었다.

특징 및 의의 각계수리란 명칭은 일본에서 온 것이지만 우리나라에는 정궤라는 중국식 명칭을 사용하였다. 임진왜란 이후 우리나라 남부지역에서 각계수리란 명칭이 통용되기 시작하였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정궤란 명칭은 사라지고 각계수리란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내면에 여러 개의 서랍이 있어 귀중품 또는 자료를 분류해서 보관하는 데 요긴하기 때문에 현대생활에서도 활용 가치가 높은 가구이다.

참고문헌 한국 민속의 세계4-주거환경(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1).

필자 김삼대자(金三代子)

감실 龕室

정의 조상의 신주神主를 봉안하기 위하여 가구처럼 만든 조선시대 유교식 제례 시설의 하나.

내용 감실龕室은 유교는 물론 불교에서도 사용되는 의례 용어이지만 유교의 제례 시설 명칭으로 보편화되어 있다. 불교의 경우 벽면에 작은 공간을 오목하게 내어 부처님을 모시는 시설을 감실이라 하고 감실에 모신 부처를 감불龕佛이라 한다. 대표 사례가 석굴암 본존불 주위의 열 개 감실이다. 이러한 형식을 흔히 벽감壁龕이라 한다. 서양에서는 그곳에 조각품 등 예



감실 | 경북 경주 양동 낙선당 고택 | 국립민속박물관



벽감 안의 주독 | 경북 안동 하회 | 2011 | 배영동

숯품을 안치하여 실내 장식의 한 요소로 삼았다.

감실은 신주를 보관하는 작은 나무상자, 즉 주독主櫥 전체를 감싸는 일종의 공예품 같은 가구家具이다. 넓은 의미로는 신주를 안치한 작은 규모의 실(공간)을 가리키기도 한다. 우리 속담에 ‘신주 모시듯이’라는 말이 있다. 이렇듯 조상의 혼백을 담은 신주는 매우 귀중하다는 상징성이 있다. 신주는 보통 길이 24cm, 폭 6cm 정도 크기이다. 밤나무로 만든다. 감실에는 대체로 독 네 개가 나란히 있다. 이는 조선시대 사대부가에서 실천한 4대봉사四代奉祀(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제례 규범과 관련이 있다. 독의 위치는 고조부부터 서쪽에서 동쪽으로 배치하였다. 이는 제례에서 서쪽이 상위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감실 위치는 크게 둘로 나뉜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놓인 곳은 가옥에 딸린 가묘, 즉 ‘사당祠堂’이라는 독립된 건물이다. 사당은 문묘文廟·종묘宗廟와 함께 조선 유교를 상징하는 시설로, 지금까지도 제례가 이어

지고 있는 한국 유교문화의 대표 상징물이다.

사당은 조선 초부터 유교 이념확산을 위하여 국가 관심사로 장려하였으나 실제로는 임진왜란 이후부터 사대부 가옥을 중심으로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당시는 특히 동쪽마을의 결속과 활동이 크게 두드러지는 시기로, 사당 건립도 그와 관련이 있었다. 사당 규모는 종가인 경우 정면 3칸에 측면 1칸 반, 일반 가옥은 정면 1칸에 측면 1칸으로 규모를 달리하였다. 한편 가례에서는 가난하여 땅이 좁을 때는 1칸 크기로 건립하여도 무방하다고 하였다. 감실은 후면 벽 중앙의 60~90cm 높이에 설치하고, 그 앞에 탁자를 놓았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서 별도의 가묘를 세울 수 없는 경우에는 감실을 안채 대청이나 방 일부에 설치하기도 하였다. 한편 일반 백성도 감실 설치가 보편화된 지역이 있다. 그 사례가 남·서해 도서지역이다. 아무리 작은 3칸 민가에서도 ‘마리’라는 별도의 독립된 방에 감실을 설치하거나 선반에 2~3대 조상의 독을 안치하였다. 지역과 환경을 떠나 조상숭배의 한 단면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특징 및 의의 감실은 조선 유교문화의 기초인 조상숭배 사상의 한 단면을 보여 주는 시설이다. 작은 나무상자에 불과하지만 조선시대 씨족촌락의 혈족주의 공동체 의식을 보여 주고 있다. 감실을 봉안하는 가묘는 조선시대 사대부 가옥의 핵심 시설로, 주거사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주자가례에 나타난 사당의 구조에 관한 연구(장철수, 한국의 사회와 문화2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한국민속대사전(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중서관, 1998), 한국의 유교건축(김지민, 발언, 198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김지민(金知民)

개공제 開工祭

정의 건설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기원하는 의식.

개관 건설공사에서 개공제開工祭라는 의식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조선시대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전하여 온다. “목수들이 들보 아래 톱을 늘어놓고 가신家神을 모신 뒤에 제례를 올린다. 붉은 종이 위에 ‘개공대길開工大吉’이라고 써서 붙이며 따로 황색 종이에 ‘강태공 재차姜太公在此’라는 글귀를 붉은 글씨로 써서 나무에 걸어 둔다. 이렇게 하면 잡귀가 붙지 못한다.” 이처럼 조선시대 건축공사에서는 오늘날 기공식에 해당하는 건축의례가 널리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내용 개공開工이 ‘공사의 시작’을 의미하는 용어인 것처럼 개공제는 건설공사를 시작하기 직전에 지내는 의식이다. 개공제를 일명 ‘모탕고사’라고도 이른다. ‘모탕’이란 대목들이 나무를 다듬는 데 사용하는 일종의 작업대를 말한다. 모탕 주변에 먹통, 톱, 장도리, 자귀 등 연장을 진설하여 지낸다. 경상북도 예천의 최훈규 대목大木은 모탕고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모탕고사는 집주인이 음식을 준비하고 대목이 지낸다. 돼지머리, 술, 명태, 실타래, 소금, 고춧가루, 수저를 차리고 상량할 나무를 진설하여 절을 한다. 고사가 끝나면 소금과 고춧가루를 집터에 뿌린다. 소금과 고춧가루는 잡귀를 물리치는 것으로 하여 잡귀를 몰아내어 공사 중의 안전을 기원한다.” 제물이나 의식 절차에서는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 하지만 공사를 시작하면서 공사 중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하여 대목이 주관하는 고사라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개공제는 사정에 따라 생략되거나 개토제와 함께 지내는 경우도 있었다. 제사를 지낼 수 없을 때는 서까래로 사용할 나무 두 개의 머리 부분을 묶어 양쪽에 다릿발을 세우고 양쪽 다리, 발, 머리 부분에 가로로 서까래 나무를 걸쳐 놓는 것으로 고사를 대신한다. 이조차도 못할 때는 “아무 곳 아무개가 아무 시에 개공하였소.”라고 세 번 소리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개공제가 생략되거나 개토제만 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둘을 같은 의식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하지만 개공제의 형식과 내용은 주관자와 배례 대상, 기

원 내용에서 개기제와 차이가 있다. 우선 개기제는 형식상 집주인이 주관하는 의식이지만 모탕고사는 대목이 주관하는 행사이다. 물론 텃고사를 대목이 주관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집주인이 의식 절차 지식이 없기 때문에 대목이 대행할 뿐이며, 형식상 제주祭主는 집주인이다. 개공제는 대목이 제주가 되어 지낸다는 점에서 개기제와는 지향하는 바가 전혀 다르다.

두 번째로 개기제가 토지신에게 바치는 의식이라면 모탕고사는 상량신에게 바치는 고사라는 점이다. 즉 모탕 위에 상량할 목재(머릿대)를 진설하고 배례를 드리게 된다. 이때 대목들은 상량목에 상량신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상량목은 건물 최상부에 자리하는 머릿대(중도리)이다. 이것은 나중에 상량제와 더불어 성주신으로 변한다고 한다. 결국 모탕고사의 배례 대상은 성주신이라는 것이다.

세 번째, 개기제가 토지신에게 그 터를 이용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라면 모탕고사는 주로 공사 중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함이다. 공사를 주관하는 기술자의 우두머리로서 대목이 주관해서 그들의 작업대인 모탕 위에 제물과 함께 공사 도구를 진설하고, 공사 중 안전과 순조로운 공사의 진행을 기원하는 것이다. 이것은 집터와 관련되어 있다기보다 공사 진행과 관련된 의식으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원하는 의미가 있다.

특징 및 의의 개공제는 공사의 시작을 알리는 의식이다. 공사를 시작하는 날짜는 지관에게서 택일을 받는다. 공사를 시작하는 날에 바로 개공제가 열린다. 개공제를 지내기 전에는 집 짓는 일을 일절 하지 않는다. 공사의 시작을 의식화하는 것은 비단 건설 과정의 안전만을 기원하기 위함이 아니다. 건축은 여러 기술자가 협업으로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목의 지휘 아래 분업과 협업이 필수적인 작업이다. 따라서 공사의 안전뿐만 아니라 원활한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지는 의식이 필요했을 것이다. 한편 민간신앙에서 집을 짓는 행위는 성주신을 탄생시키는 과정으로서의 신성한 행위로 인식된다. 목수들이 만드는 집의 뼈대

는 성주신이 깃들 골격에 해당한다. 성주신의 신체가 기형이 되지 않고 정상의 골격을 갖출 수 있도록 기원하는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집의 사회사(강영환, 웅진출판, 1992), 한국고건축단장-상(신영훈, 동산문화사, 1975), 한국민속신앙사전-가정신앙(국립민속박물관, 2011), 한국의 민가연구(장보웅, 보진재, 1986), 한국의 주거민속지(김광언, 민음사, 1988).

필자 강영환(姜榮煥)

개량한옥

改良韓屋

정의 전통한옥에 기초하면서 주택의 성능, 평면, 구조, 재료 등을 개선하여 고친 한옥.

내용 개량한옥改良韓屋은 전통한옥에 기초하면서 주택의 성능, 평면, 구조, 재료 등이 개선되었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흔히 도시한옥을 지칭한 말이다. 개량한옥은 집장사집이라고도 불리면서 다소 부정의 의미도 포함하게 되었다. 집장사집이라는 이름이 주택경영회사 또는 건축청부업자에 의하여 판매를 위한 주택 상품으로 공급되면서 지어진 이름이라면 개량한옥은 새로운 사회적 요구와 생활양식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변화되었거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다. 개량한옥이라는 단어의 사용은 1920년대 대두되어 1930년대 활발하게 논의된 주택개량운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된다. 당시 근대식 건축교육을 받은 조선인 건축가들은 전통주거에 대한 불편 개선과 서구 주거문화 도입을 논의하였다. 위생 개념을 도입하여 부엌과 화장실 배치, 일조, 동선, 환기 등의 개선을 위한 안을 신문과 잡지에 게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개선안은 소수의 주택에 적용되었을 뿐 일반 대중에게는 일반 주거 형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개량한옥은 <조선주택개량안>의 영향을 받았지만 <조선주택개량안>으로 만들어진 주택과 개량한옥으로 불린 도시한옥은 구별된다.

당시 개량한옥은 기존의 전통한옥과 대별되는 의



개량한옥 | 서울 구로구 | 2013 | 서울역사박물관



개량한옥 내부 | 서울 종로구 | 2009 | 서울역사박물관

미로 사용되었다. 개량한옥은 전통한옥의 대청에 유리문을 사용하여 대청을 실내화하고, 짧아진 처마에는 함석 차양을 달아 처마선을 강조하는 한편 햇빛과 빗물을 차단하였다. 외벽에는 벽돌, 타일 등 새로운 재료가 사용되었다. 평면 구성도 일부 변화되었다. 도시한옥이 근대식 도시환경에 적응하며 주택 대량 생산을 위해 분할된 필지에 동시에 건설된 전통한옥의 새로운 도시주거 유형이라는 점으로 강조되고 있는 반면에 개량한옥은 실질 성능 및 위생 개선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도시한옥을 일반화해서 말할 때 기존의 전통한옥이 개량된 사실에 주목하면서 도시한옥을 개량한옥으로 일컫게 된 것이다. 도시한옥이 건설되기 시작한 시기는 주택개량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던 때여서 개량한옥이라는 용어는 기존 한옥에 대한 부정 시각을 바탕으로 하여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전제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한옥 양식을 전반적으로 부정한 것이 아니라 주로 위생과 관련된 것이었다. 당시 신문, 잡지 등을 통해 조선의 건축가 또는 건축청부업자들이 주택 위생 문제를 지속 제기하였다. 이는 근대 도시의 전반적인 문제이기도 하였다. 당시 시대 및 도시 환경에 맞춰 새로운 근대 도시 건축 유형인 개량한옥이 등장한 것이다.

1920년대 후반부터 본격 활동한 건축청부업자 또는 주택경영회사에 의하여 대규모로 공급된 도시한옥은 소위 개량한옥 또는 집장사집으로 불렸다. 중소 규모의 한옥들이 기존의 남겨진 대규모 필지가 분

할되거나 새롭게 공급된 주거지에 집단 형식으로 건설되었다. 이른바 집장사집이다. 그리고 이들 집장사집은 유리·함석·벽돌·타일 등 새로운 재료가 사용되고, 평면과 입면 구성이 표준화된 소위 개량한옥으로 불렸다. 변화와 더불어 이들 개량한옥에서 주목할 점은 주택과 도시 조직이 함께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필지를 분할하고 주택을 대규모로 건설하면서 길과 필지, 주택이 함께 조성되었다. 개량한옥은 전통한옥이 근대 도시 환경과 만나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주택 유형이다.

특징 및 의의 1930년대 전후에 소위 개량한옥으로 불리던 도시한옥이 집단 형식으로 건설되기 시작한다. 이들 개량한옥은 민간 주택시장이 본격 형성되면서 도시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되기 시작하였다. 개량한옥에는 당시 주택과 도시 문제에서 시작된 위생 논의와 근대 요소들이 나타난다. 위생과 관련된 논의는 주로 부엌과 화장실의 배치·환기·채광 등의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된다. 그리고 근대 요소로 나타나는 것은 주택 판매 방식과 새로운 재료 사용이다. 주택시장 형성과 더불어 주택 공급업자와 구매자가 분리되면서 분양이라는 새로운 공급 방식이 도입되고, 유리·함석·벽돌·타일 등 새로운 재료가 사용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지어진 개량한옥은 당시 일반 대중의 주거유형으로 보편화 된다. 개량한옥으로 불린 도시한옥과 전통한옥을 비교해 볼 때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개량한옥(도시한옥)과 전통한옥은 한식 목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형태 측면에서 유사하다. 따라서 개량한옥(도시한옥)을 전통한옥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두 주거 유형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가 존재하고, 이러한 차이는 개량한옥(도시한옥)과 전통한옥을 구분 짓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도시한옥을 전통한옥의 진화 또는 발전된 모습으로 이해하는 시각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개량한옥(도시한옥)에 나타나는 근대 요소와 건축 방식을 통해 전통한옥과의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실의 내부화이다. 전통 대청은 외부에 직접 노출된 공간이었으나 도시한옥에서는 대청에 유리문을 달아 내부화하여 대청을 계절의 영향을 덜 받고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 새로운 재료를 덧댄 처마 성능의 개선이다. 제한된 필지로 인해 짧아진 처마에 함석을 덧대어서 차양을 만들었다. 함석 차양은 처마선으로 강조하고 햇빛과 빗물을 차단하는 데 활용된다.

셋째, 구조와 직접 상관없이 부재를 의장 요소로 사용한다. 때로는 의장 효과를 위해 부재를 과장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전통한옥의 살림집에서는 대부분 겹처마를 설치하지 않으나 개량한옥(도시한옥)에서는 마당 등 주요 노출부에 부연을 사용한 겹처마를 설치하고, 납도리보다는 굴도리를 설치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 일반 대중이 겹처마와 굴도리를 설치하고 소로가 있는 소로수장집을 격이 높은 주택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는 당시 주택 공급 방식과 관련이 있다. 분양을 통해 주택을 판매하였기 때문에 시대·사회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일부 부재가 구조 역할이 아닌 장식화된다. 대표 사례가 소로이다. 구조 역할이 아닌 장식 부재로 사용되는 소로를 딱지 소로라고 부른다.

넷째, 건축 방식이 간략해지거나 생략된다. 개량한옥(도시한옥)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목구조 방식은 민도리집이다. 민도리집은 구조가 단순하여 주로 소규모 주택이나 지방의 민가에서 사용된다. 대체로 구조가 단순한 방식을 사용한다.

다섯째, 규격화된 재료의 사용과 표준화이다. 대

량 생산 및 공급을 위하여 부재의 치수, 평면과 입면의 구성이 표준화되었다. 개량한옥(도시한옥)에서 사용된 기둥이나 보와 같은 주요 부재들은 목재소에서 일차 가공되어 일정한 크기로 공급되었다. 대규모 주택 건설을 위하여 대량 생산된 부재가 공급되었고, 주춧돌이나 장대석 등도 다듬어서 사용하여 그랭이질 같은 정밀한 작업이 생략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전통한옥과 개량한옥(도시한옥)은 구축 방식, 의장, 평면 및 입면 구성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개량한옥(도시한옥)은 근대화, 도시화, 주택 생산 방식에서 구조, 구법, 재료, 주택 공급 방식으로 변화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근대의 주거 유형이다.

참고문헌 도시형 한옥의 유형연구(송인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북촌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의 터전(서울역사박물관, 2018), 북촌가꾸기 기본계획(서울특별시, 2001), 서울 삼청동35번지 도시한옥주거지의 도시건축 유형학적 특성(성태원,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한국건축대계-옥조(장기인, 보성각, 1996), 한국근대화 과정의 건축제도와 장인 활동에 관한 연구(김란기,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필자 김영수(金英洙)

개별난방

個別暖房

정의 가구人口별로 난방을 하는 방식.

개관 국내 최초의 단지식 아파트인 마포아파트(1962년)의 난방 방식은 연탄보일러를 설치한 개별온수난방 방식이었으며, 공기를 데우는 라디에이터radiator식이었다. 보일러는 연료를 연소시켜 그 연소열을 물에 전하여 증기를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연탄보일러는 보일러에서 직접 연통을 통해 배기되기 때문에 연탄아궁이에 비해 연탄가스의 유출 위험이 적었다. 연탄보일러를 사용한 초기에는 온돌방 바닥에 파이프를 깔고, 거실이나 침대식 방에는 방열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1970년대 중반 이후 민간 건설업체가 공급한 대부분의 고층아파트는 현대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

는 주택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하여 석유 연료를 사용하는 중앙난방 방식으로 난방과 온수를 공급하였다. 1980년대 후반 들어 개별가구가 난방을 조절할 수 없어 불편한 중앙난방의 대안으로 개별가구에 보일러를 설치하는 개별난방 방식을 택하는 단지가 증가하였다. 보일러에 사용하는 연료는 정부 정책, 사용 편리성, 석유 시장의 불안정성 등의 영향으로 변화하였다. 1979년 2차 석유파동으로 석유가격 급등을 경험한 이후 1980년대에 LPGliquefied petroleum gas(액화석유가스), LNGliquefied natural gas(액화천연가스)가 도입되어 개별난방 보일러에 사용되었다.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1980년에는 연탄 아궁이가 62.9%로 가장 많았고 연탄보일러 23.4%, 기름보일러 4.7%였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개별난방 가스보일러가 절반을 넘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내용 단독주택은 가구별로 난방을 하는 개별난방이며, 공동주택은 개별난방과 중앙난방으로 구분된다. 난방을 하는 방식에는 열로 바닥을 데우는 방식, 증기로 공기를 데우는 방식이 있다. 전자는 온돌이며 아궁이에서 연료로 구들을 덥히거나 보일러에서 연료로 물을 데워 바닥에 매설된 온수관을 통해 따뜻해진 바닥면의 복사열을 이용하는 복사난방輻射暖房이다. 후자는 쇠파이프를 통해 들어온 증기가 라디에이터를 데우는 스팀난방이다. 초기 아파트의 라디에이터 스팀난방은 국내 기후 조건과 좌식생활에 맞지 않아 교체하는 시행착오를 거친 후 1970년대 중반부터는 열로 바닥을 데우는 온돌 형태의 바닥 패널panel난방으로 정착되었다.

아파트의 초기 난방 방식은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개별난방이었다. 1962년의 마포아파트에서는 연탄보일러로 샤워용 온수를 공급했고, 보일러 덮개를 덮고서 취사도 할 수 있었다.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연탄을 갈지 않아도 되는 편리한 기름보일러가 보급되었으며, 아파트의 개별난방은 점차 석유 연료를 사용하는 중앙난방으로 전환되었다. 당시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단독주택에 비해 중앙난방은 관리비

가 저렴하고 보일러 고장의 염려가 없다는 것이 장점이었다.

그러나 중앙난방은 개별가구가 난방 시기와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없고, 주택 규모에 따르는 난방비 부과 방법 등의 문제가 있었다. 소득 증대에 따르는 가구별 에너지 대응 선호의 증가, 난방기술 발달 등으로 중앙난방 선호도가 감소하여 개별난방으로의 전환이 증가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아파트의 개별난방은 초기 연탄보일러 방식을 거쳐 기름보일러 방식으로 변화하였고, 점차 대규모 고층아파트에서는 개별난방보다 중앙난방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중앙난방은 개별난방보다 개별가구 입장에서 난방비가 저렴하고 보일러 관리에 대한 가사노동 경감, 보일러 고장에 대한 우려가 없다는 점, 난방과 온수를 중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현대식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만족감 등으로 말미암아 많은 민간 건설업체가 채택하였다.

1990년대에는 도시지역에 대규모 택지가 감소하고 구릉지나 중·소규모 택지가 증가하면서 중앙난방의 저렴한 난방비 효과가 줄어들고 정책적으로 대기 오염 완화 정책 지향, 개별 가구의 에너지 환경에 대한 조절·대응 선호 등의 이유로 다시 개별난방이 증가하였다. 2017년 아파트 주거환경통계에 의하면 개별난방 가스보일러가 52.6%를 차지한다.

참고문헌 공동주택의 개별난방과 중앙난방의 장단점 비교1~4(이은택, 냉동공조기술10-11~11-2, 한국설비기술협회, 1993~1994), 주거용 연료의 전환에 의한 주거공간 구성의 변화 과정에 관한 연구(박용환·이순희, 대한건축학회논문집13-7, 대한건축학회, 1997), 한국 주거의 미시사(양세화·전남일·홍형욱, 돌베개, 2009), 한국공동주택계획의 역사(공동주택연구회, 세진사, 1999), 통계청(kostat.go.kr).

필자 박경옥(朴庚玉)

개토제 開土祭

정의 집을 짓거나 묘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땅을 처음 팔 때 토지신土地神에게 올리는 제의.

개관 건물터를 조성할 때는 개기제開基祭라고도 한다. 건물의 터나 묘지를 성화된 장소로 만들기 위한 의식은 인간이 삶과 죽음을 위한 특별한 장소를 선택할 때부터 시작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일정한 경계를 갖는 장소를 뜻하는 ‘터’에는 주관하는 토지신이 있다고 믿었다. 민속신앙에서 말하는 터주신, 터줏대감, 후토신령 등은 선택된 장소인 터를 주관하는 수호신이다.

선택한 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호신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또한 수호신에게 보호와 발복을 기원하는 것은 마땅하다. 땅을 토지신의 소유로 보고 사람이 빌리거나 매입하여 이용한다는 생각은 백제의 무령왕릉에서 발견된다.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매지권買地券에는 지신에게 묘지로 쓸 토지를 돈을 주고 매입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하지만 개토제開土祭나 개기제라는 제의명은 고려시대 문헌에서 발견된다.

물론 조선시대 문헌에는 개토제와 개기제에 관한 기록이 풍부하게 남아 있다. 문헌 기록을 조사해 보면 ‘개기제’와 ‘개토제’를 수행하는 의식(흔히 ‘덧고사’라고 칭함)은 동일하지만 제의명은 용도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있다. 즉 묘터를 조성할 때 올리는 제의는 ‘개토제’, 건물터를 조성할 때 올리는 제의는 ‘개기제’로 각각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대의 개토제는 중국의 고대 의례규범에 따라 형식화된 것으로 보인다. 『세종실록世宗實錄』(세종 1년 기해)에 따르면 “태조의 장사 때 후토신后土神에게는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고 천맥장군阡陌將軍과 유당혈신幽堂穴神 따위에게 제사를 지냈음을 비판하면서 개토는 옛 제도에 의거하여 다만 후토의 신에게만 제사를 지내라.”라는 논의가 있었다. 이에 따라 후토제라는 이름으로 시행한 기록을 볼 수 있다. 전래되어 오던 민속신앙의 제의로부터 유교식 제의로 변화되었음을 암시한다.

내용 개토제는 매장의식 가운데 첫 번째 절차에 해당한다. 선정된 장소를 묘지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토지신에게 알리는 의식이다. 이후 묘광을 파고 시신을 안치한 후 평토제를 지내고 봉분을 만들면 매장의식이 끝난다. 개토제는 묘의 영역을 표시하고 제상을

차리며, 축문을 읽고 술을 올리며 배례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사례편람四禮便覽』 상례조喪禮條에서는 영역(塋域, 묘) 공사를 시작하면서 사토제祠土祭를 지낸다고 하였다. 즉 밋자리의 네 모퉁이를 파고서 각각 표목을 세운 다음 먼 친척이나 손님 가운데 한 사람을 제관으로 선정하여 후토后土, 즉 토지신에게 축문을 읽고 배례를 행하는 것이다. 사토제는 개토제의 또 다른 이름이었음을 알 수 있다.

개토제의 의식절차나 제수 찬품은 신분,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토지신을 배례 대상으로 하여 제물을 차리고, 고유문을 지어 고사를 지낸 뒤 터에 술을 뿌리는 ‘덧고사’의 형식 골격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개기제에도 덧고사가 치러진다.

그 의식과 절차는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의 상택지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전한다. “집터를 닦아서 집을 지을 때 주인은 반드시 지운地運과 연운年運을 가려야 한다. 좋은 날을 택하여 밤중에 술과 과일, 포와 식혜, 향과 촛불 등을 정성껏 갖추고 글을 지어 토지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집을 짓는다고 고한다. 그런 다음 비로소 흙을 판다. 땅을 깊게 파서 곁흙을 걷어 내고 반드시 생흙을 봐야만 파기를 그만둔다. 나무뿌리나 머리털, 다른 더러운 물건이 있으면 모두 걷어 낸다. 만약 생흙 위에 흙의 성질이 부드러운 데가 있으면 그 밑에는 반드시 매장된 물건이 있다는 말이므로 자세히 살펴야 한다.”

특징 및 의의 개토제나 개기제는 땅에 관한 한국인의 의식을 보여 주는 중요한 제의이다. 땅은 인간이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자연으로부터 잠시 빌려 쓰는 것이라는 관념을 보여 준다. 이는 땅을 특별한 장소, 즉 신성한 장소로 축성하기 위한 의식이기도 하다.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 거주할 장소가 토지신의 가호로 거룩해지기를 염원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四禮便覽, 林園經濟志, 민족건축론(김홍식, 한길사, 1987), 집의 사회사(강영환, 웅진출판, 1992), 한국의 민가연구(장보웅, 진보제, 1986), 한국의 살림집(신영훈, 열화당, 1986), 한국의 주거민속지(김광언, 민음사, 1988).

필자 강영환(姜榮煥)

정의 집 안의 중심이 되는 공동생활 공간으로, 가족의 휴식이나 교류 및 손님 접대 등의 기능을 하는 장소.

개관 ‘거실居室’이란 사생활이 이루어지는 침실과 대비되는 공간으로, 한 집 안에서 공용의 성격을 띠는 장소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실은 가족 중심의 생활 양식이 형성된 이후 등장하였다. 전통주택에서의 의례 공간인 안대청, 접객 공간인 사랑방 및 사랑대청, 가족 단란 공간인 안방의 기능을 결합하여 두루 사용하는 주택의 중심 공간이다.

내용 ‘거실’은 과거 전통주택의 안대청 위치에 자리하며, 과도기에는 ‘마루’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이후 이 공간에 바닥 패널 난방이 도입되면서 목재 바닥이 사라진 이후 ‘거실’이라는 명칭이 본격 정착하였다. 이로써 거실은 기후와 상관없이 항상 사용하는 공간이 되었다. 아파트의 경우 거실은 1960년대 초부터 있었으며, 단독주택에서는 1970년대 중반부터 보편화되었다. 거실은 도입 초기에 가족 공동생활 공간이라는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였고, 통로나 홀과 같은 기능을 하였다. 사방으로 문이 열리는 구성이어서 가구 배치가 어려웠다. 과도기의 거실은 대청의 속성이 남아 있어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었고 난방

이 안 되었으며, 미세기로 안방과 구획된 개방 형태였다. 아파트의 경우도 1980년대까지 목재의 바닥 마감에 라이에이터 방식 난방을 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좌식을 선호하는 기거 습관 때문에 이후에는 바닥 패널 난방이 도입되었고, 그 마감도 난방이 가능한 합성수지 제품이나 온돌 마루로 대체되었다.

식탁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거실이 식사 공간을 겸하기도 하였으며, 소파 세트 사용도 일반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식사 행위가 휴식·교류 행위로부터 점차 분리되면서 거실과 식사실도 별도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이는 입식 생활방식과 가구가 도입되면서 함께 진행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1970년대부터 대규모 아파트 및 상류 단독주택에서 진행되었으며, 점차 확산되었다. 여기에는 사회 전반의 서구화 영향과 함께 경제 수준 향상, 주생활 합리화에 대한 요구가 복합 작용하였다. 거실은 산업화시대 근대식 가족의 화목을 위한 단란한 장소, 휴식의 장소라는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한 거실의 가장 중요한 설비 가운데 하나는 가족의 오락과 여가 기능을 담당하는 TV이다. 이에 더하여 거실은 제사, 명절 의례, 생일 손님 초대 등 비일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성격을 띤다.

거실은 여러 변화와 절충 단계를 거친 후 오늘날 한국 거실의 전형으로 완성되었다. 가족 구성원의 접근이 수월하도록 전체 주거공간의 중심에 배치되는 가장 중요한 공간인 동시에 다양한 장식품과 상징물로 한 가정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공간이다. 한쪽 벽면에 거실장과 TV가 있고 맞은편에 긴 소파 세트가 있으며, 한편으로는 바닥까지 내려오는 넓은 전면 창이 있고 가운데가 대부분 넓게 비워진 것이 일반 형태이다. 또한 거실과 연계된 곳에 식탁이 놓여 있고, 그 후면에는 부엌이 있다. 가족이 모두 모이기 쉽도록 적절히 개방된 동시에 가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벽면이 확보된, 적절히 독립된 형태로 구성되었다.

특징 및 의의 한국의 주거문화가 전통과 서구, 재래식과 현대식 사이에서 충돌 및 수용 과정을 거쳐 발달되어 온 공간이 거실이다. 거실에서는 입식 가구 사용과 동



거실 | 주택문화사

시에 바닥에 앉는 좌식 기거 문화가 공존한다. 또한 온돌과 마루가 현대식 설비로 결합한 특성을 띤다. 즉 현대화된 바닥 난방에 입식 가구를 결합한 방식으로 한국의 주생활 양식 속성을 유지한다. 오늘날의 거실은 물리적인 속성으로는 방과 구분할 수 없는 공간이다. 이와 함께 거의 모든 한국 주거공간에서 볼 수 있는 ‘거실 중심 평면형’은 전통주택의 대청이 가졌던 위상을 이어받아 전승된 것이다.

참고문헌 집·집의 공간과 풍경은 어떻게 달라져 왔을까(전남일, 돌베개, 2016), 한국건축개념사전(한국건축개념사전기획위원회, 동녘, 2013), 한국 주거의 공간사(전남일, 돌베개, 2009), 한국 주거의 미시사(전남일·양세화·홍형욱, 돌베개, 2009), 한옥과 한국 주택의 역사(전봉희·권용찬, 동녘, 2012).

필자 전남일(田南一)

거중기 舉重器

정의 목재 틀에 여러 개의 도르래와 밧줄을 설치하여 무거운 짐을 들어서 옮기는 연장.

개관 집을 지을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공정은 운반이다. 운반은 집을 짓는 일의 기본이며, 물건을 운반

함으로써 집 짓는 일이 시작된다. 운반량은 집 무게와 비례한다. 연장을 이용하거나 가축을 이용하면 운반 효율성이 커진다. 거중기는 대형 목재나 석재를 들어 옮기기 위하여 목재로 만든 틀에 여러 가지 도르래를 설치하고 밧줄을 걸어 사람의 힘으로 무거운 짐을 들어 옮기는 기계 일종이다. 그 전에도 이와 유사한 연장이 있었으나 수원 화성華城을 건설할 당시 운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발된 것이다.

내용 운반 연장은 동력 원천에 따라 인력·축력畜力·수력·풍력, 운반 유형에 따라 수평운반과 수직운반으로 나눌 수 있다. 기계가 발달하더라도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곳이 반드시 있다. 수공업 생산 시대에는 거의 모든 집을 지을 때 인력을 이용하였다. 인력으로 운반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연장을 이용하게 된다. 끈과 들나무를 이용하거나 지게와 같은 연장을 이용하였다. 원목이나 원석을 운반할 때 하는 ‘목도’도 그 가운데 나왔다.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처음에는 단순히 밧줄을 이용하여 위에서 끌어올리는 방법을 쓰다가 차츰 도르래를 이용하면서 작은 힘으로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도르래 원리를 이용하면서 차츰 여러 가지 모양의 연장을 만들어 사용해



거중기 전도 | 화성성역의궤 | 1801 | 국립중앙박물관



거중기(재현) | 경기 수원 수원화성박물관 | 국립민속박물관

왔다. 이처럼 단순한 연장의 효율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하여 조선 후기에 들어와 개량된 운반 연장이 거중기이다.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이 화성 성역에서 운반의 어려움을 수월하게 하고 공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동안 사용하던 운반 연장을 개량한 것이 거중기이다. 즉 거중기는 여러 개의 도르래에 밧줄을 걸면 적은 힘으로도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릴 수 있게 만든, 일종의 기계와 같은 것이다. 다른 말로는 ‘기중기起重機’라고 한다. 특히 조선 정조正祖 때 화성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연장을 만들어 쓰면서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거중기를 사용할 때는 밑목 직도르래 틀에 끼운 세 개의 고정된 쇠고리(늑철)에 가로쇠막대(하철강)를 끼우고 쇠사슬을 쇠막대에 건 다음 또 다른 두 개의 쇠막대를 이용하여 짐을 걸어 둔다. 그런 다음 여러 사람이 얼레와 그 위의 도르래를 돌리면 움직도르래에 의해 적은 힘으로 무거운 짐을 쉽게 들어 올릴 수 있다. 이때 들어 올리는 짐은 반드시 평행을 유지하도록 고리에 걸어야 하며, 양쪽의 얼레도 똑같은 속도로 감아올려야 한다. 이것을 이용하면 불과 30여 명으로 1만 2,000근이나 되는 돌을 들어 올릴 수 있다고 한다. 실로 한 사람이 400근의 무게를 들어 올리는 셈이다.

거중기는 인력으로 물건을 들어 올리는 운반 연장이다. 축력이 없어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연장의 부품을 목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구성이 좋지 않은 단점이 있어서 참나무처럼 강도가 높은 목재로 만들고 관리를 철저히 하면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 들어 올리는 힘을 조금 수월하게 하기 위하여 얼레축이나 도르래축과 같이 마찰이 큰 곳에는 기름을 쳐서 부드럽게 만들기도 한다. 거중기는 목재보다 석재를 들어 올릴 때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목재는 길이가 길기 때문에 밧줄을 많이 걸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붙을 수 있지만 석재는 부피에 비하여 무게가 많이 나가서 많은 사람이 함께 붙어서 들기 어렵기 때문에 거중기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특징 및 의의 거중기는 집을 짓거나 성을 쌓을 때 재료 운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발된 연장이다. 밧

줄과 도르래를 이용하는 거중기는 적은 힘으로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릴 수 있어 공사 기간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대규모 공사를 짧은 기간에 마칠 수 있어 건축기술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연장이다.

참고문헌 華城城役儀軌, 연장과 치목(이왕기, 건축167-4, 대한건축학회, 1992), 조선후기의 건축도구와 기술(이왕기, 한국전통과학기술학회지1-1, 한국전통과학기술학회, 1994), 한국의 건축 도구(이왕기, 건축장인의 꿈과 꿈, 국립민속박물관, 1999), 한국의 건축연장 연구2(이왕기, 목원대학교논문집8, 목원대학교, 1985).

필자 이왕기(李王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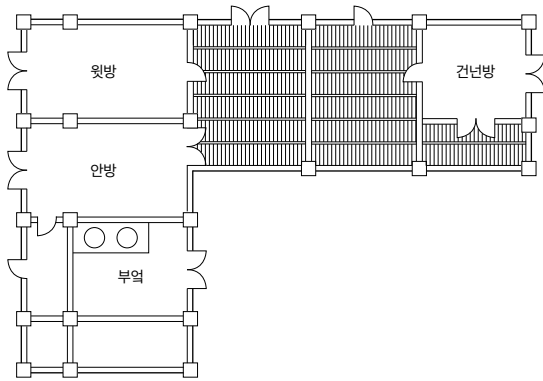
건넌방

정의 안방 기준으로 대청을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 있는 방을 일컫는 말.

내용 건넌방은 안방을 중심으로 볼 때 대청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방을 일컫는다. 조선시대 가옥 도면에는 대개 한자로 표기한 것이 많은데, 건넌방은 월방越房으로 표기하고 있다.

건넌방은 안채가 여성의 공간이므로 시집을 가지 않은 딸이나 혼례로 맞이한 며느리의 거처로 사용되었다. 며느리의 방으로 사용될 때는 윗목에 장과 놓을 놓고 이 위에 색실 함이나 반진고리를 얹어 둔다. 건넌방 앞에는 보통 누마루를 만들어 여름에 시원한 공간을 형성해 준다. 건넌방은 안방에 비하여 크기가 작은 편이었다. 건넌방은 대청에서 출입할 수 있는 문이 기본으로 있지만 반대편 뒷마루 쪽에도 문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조용한 출입이 가능한 구조로 된 것이었다.

온돌방의 바닥은 장판지로 마감하였다. 한지를 여러 겹으로 만든 두꺼운 장판지를 바른 다음 기름을 여러 번 칠해서 내수성과 내구성을 높였다. 기름칠한 장판지 바닥은 황금색과 같은 밝고 매끄러우며 아름다운 바닥을 형성하였다. 온돌방의 벽은 기둥과 같은 목부재가 드러나지 않도록 마감하였다. 흰색의 한지로 마감한 경우가 많았다.



중부지방 민가 배치도 | 한국의 민가 | 조성기·한울아카데미

온돌방 표현 미감은 무엇보다 청결이었다. 기름칠한 장판지는 세월이 흐르면 아주 매끄럽고 밝은 바닥을 형성하므로 더욱 청결감이 드러날 수 있었다. 그리고 바닥에서 전해지는 겨울철 온열감은 시각화되어 나타나지 않지만 심리 상태로는 이미 매우 따뜻한 체감의 정서를 띠어 왔다. 그러므로 한국인에게 온돌방이 주는 청결감과 온열감은 다른 문화권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바닥 재료 및 방바닥 미감으로 형성되었다.

특징 및 의의 건넌방은 전통한옥에서 대청이 있을 때만 안방을 사이에 두고 호칭되는 용어이다. 안방에 시어머니가 거주하고 건넌방에 며느리가 거주할 때 대청은 중요한 완충 공간 역할을 하였다.

참고문헌 한국의 주거와 삶(박선희 외, 교문사, 2007), 한국주택건축(주남철, 일지사, 1980), 문화재청(cha.go.kr).

필자 박선희(朴善姬)

건축연장

정의 건축물을 만들 때 사용하는 각종 연장.

개관 건축연장은 건축기술을 보존하는 수단이자 발

전시키는 도구이기도 하다. 기술과 기법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동안 사용해 온 연장을 사용하지만 그 과정에서 능률이 높고 기능이 우수한 연장이 개발되고 발전되어 온 것이다. 그러므로 시대를 불문하고 건축에 사용된 연장은 변화를 지속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건축연장 기능에 따라 변화 발전 속도는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어떤 연장은 기능 변화가 거의 없이 모양만 변화하기도 하였다.

건축연장은 건축기술 발전이나 양식 변화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건축기술을 시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축연장이 있어야 하고, 그렇게 구현된 기술은 또 다른 기술을 발전시켜 왔다. 건축양식 또한 기술 변화, 시대의 기술 수준과 경제 조건에 맞춰 그 시대의 특성을 건축물에 표현하여 온 것이다. 건축연장은 이러한 기술을 시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 왔고, 그 기술을 합리화하고 능률을 올리는 방향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발전해 온 것이다. 그러므로 건축연장의 특성을 이해하면 더불어 건축 구조와 양식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즉 건축연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건축 구조와 양식, 나아가 당시의 기술 수준까지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내용 전통 수공업 생산 시대의 건축 장인은 대개 자기 직능에 알맞은 연장을 사용하였다.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직접 만들어 썼다. 당시의 사회 상황을 볼 때 거의 모든 것이 소규모 수공업 생산 체계였기 때문에 건축연장과 같은 것을 전문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러한 전통사회의 배경을 보면 건축연장을 어떻게 만들어 사용하였는지 추정할 수 있다. 수공업 생산 시대에는 건축연장의 발달 과정이 매우 느리고 제한되어 있었다. 이런 이유로 건축연장의 대량 생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공업 생산 시대의 모든 건축연장은 장인 자신이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른 연장도 마찬가지였지만 특히 목공 연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재료만 구입하여서 장인이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집을 지을 때 사용하는 재료의 특성을 누구보다도 장인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연장을 만들어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도 알고 있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연장은 만든 사람의 신체 조건과 기호 조건에 맞추게 되었고, 연장마다 그 모양과 치수가 달랐다. 그러나 기능 변화가 전혀 없는 먹통과 같은 연장은 몇 대에 걸쳐 전수되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먹줄 치는 일은 건축공사의 기본이 될 뿐만 아니라 목수로서 가장 잘 갖추어야 할 기술이다. 그래서 먹통은 스승이 제자에게 물려주는 건축 연장의 상징이었다.

건축연장은 용도에 따라 굿기 연장, 자르기 연장, 깎기 연장, 파기 및 쪼기 연장, 치기 및 다지기 연장, 갈기 연장, 운반 연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굿기 연장은 집을 지을 때 재료를 선정한 다음 치수를 정하고 치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연장이다. 기둥 크기를 정하고 다듬을 때 반드시 필요한 연장이다. 굿기 연장으로는 자, 먹통 그므개를 대표로 들 수 있다. 자르기 연장을 대표하는 것은 톱이다. 건축 부재의 길이가 결정되면 자르는 효율이 가장 좋은 연장이 톱이다. 톱은 자를 뿐만 아니라 길이 방향으로 썰기도 한다. 자르는 건축연장 가운데에는 작도가 있다. 작도는 황토 흙벽

에 섞어 넣는 짚을 자르는 데 유용하게 사용하는 연장이다.

깎기 연장은 건축 부재를 적당한 크기나 굵기로 깎아 내는 기능을 한다. 원목의 껍질을 깎아 내거나 목재를 일정한 크기로 깎을 때 주로 사용하는 연장이다. 전통 목조건축은 거의 대부분이 맞춤과 이음으로 완성하게 된다. 맞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멍과 축이 맞물려야 한다. 또한 목재의 표면을 매끈하게 다듬거나 모양을 내기 위해서도 목재 표면을 깎아 내야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것이 깎기 연장이다. 깎기 연장으로는 대패, 훑이기, 도끼, 자귀, 까귀, 거피칼, 깎낫 등이 있다.

파기 및 쪼기 연장은 목재 면에 날을 이용하여 구멍을 내거나 쪼아서 홈을 파는 기능을 한다. 맞춤과 이음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홈을 파내야 한다. 홈 파내기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맞춤이 불안하고 나아가 집 구조가 불안해지기 때문에 홈과 장부를 빈틈없이 잘 만들어야 한다. 이때 사용하는 연장이 끌이다. 끌은 목재, 정은 석재에 주로 사용하는 연장이다. 치기 및 다지기 연장은 목재를 단단하게 맞추거



건축연장 | 국립민속박물관

나 흙을 파낼 때 한순간의 큰 힘으로 내리치게 만든 연장이다. 메, 망치 등이 여기에 속한다. 다지기 연장으로서는 달고가 있다. 이 연장은 집터를 다지거나 초석 놓을 자리를 다질 때 주로 사용한다.

갈기 연장은 목재 면을 갈거나 날을 갈거나 할 때 사용하는 연장이다. 쥘, 환, 솥돌 등이 있다. 쥘이나 환은 가구를 만드는 소목장이 주로 사용하는 연장이고, 솥돌은 집 짓는 대목뿐만 아니라 소목들도 반드시 사용하는 연장이다. 쥘은 목재 면을 갈거나 톱날을 갈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금속으로 만든다. 환은 상어 껍질을 목재에 붙여서 말려 사용하는 연장이다. 주로 가구를 만들 때, 목재 면을 갈 때 사용한다. 연장이 기능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항상 날이 날카롭게 잘 서 있어야 한다. 날은 대부분 금속이며 금속을 가는 데 적당한 소재는 돌이다. 돌의 한 면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날을 잘 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솥돌이다.

운반 연장으로는 거중기, 녹로, 마차, 우차, 지게 등이 있다. 이 밖의 연장으로는 목수들이 치목을 할 때 사용하는 모탕, 작은 부재를 한꺼번에 치목할 때 묶어서 조이는 물림쇠, 흙을 바를 때 사용하는 흙손, 기와장이 사용하는 와도瓦刀, 집칠이나 종이를 바를 때 사용하는 귀얄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집을 지을 때 간접 사용하는 것도 있다. 윤도판은 집터를 잡을 때 지관들이 주로 사용하는 연장이고, 풍구나 모루 등은 연장의 날을 세울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건축연장은 조선 후기에 들어와 크게 발전한다. 계기가 된 것은 조선 정조 때 이루어진 화성華城 성역城役이다. 당시 신도시로 건설된 화성은 그때까지의 조영 기술을 결집시켜 시행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된 중요한 사업이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건축재료의 규격화’와 ‘건축연장의 기계화’라고 할 수 있다. 건축재료의 규격화는 공정을 합리화하는 방식으로 체계를 갖추게 되었고, 건축연장의 기계화는 공사비를 절감하면서 공정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었다. 화성 건설이 건축공사에서 발전 계기가 되었지만 기술 발전 원동력에는 연장 개발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징 및 의의 건축연장은 몇 가지를 제외하고 대부분 몸통과 날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몸통은 날을 끼우는 부분과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손잡이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몸통 자체가 손잡이를 겸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몸통에 별도로 손잡이를 달아서 사용하는 것도 있다. 그러나 같은 기능의 연장이라 하더라도 수십 가지의 서로 다른 모양을 하고 있다. 몸통이나 날의 크기, 폭, 두께 등 거의 모든 건축연장의 치수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모든 연장은 쓰는 사람이 쓰기 좋고 편리하게 직접 만들었기 때문이다. 특별히 건축연장을 만드는 장인이 없는 것도 전통 수공업 생산 시대의 특징이다.

참고문헌 연장과 치목(이왕기, 건축167-4, 대한건축학회, 1992), 한국의 건축 도구(이왕기, 건축장인의 땀과 꿈, 국립민속박물관 1999), 한국의 건축연장 연구 1(이왕기, 목원대학교논집7, 목원대학교, 1984).

필자 이왕기(李王基)

거름집

정의 대마 속대 겨름으로 지붕을 인 건축물.

내용 대마 껍질을 벗겨서 삼베 재료로 사용하고 남은 속대를 겨름이라 하며, 이것을 서까래 위에 얹어 지붕을 인 건축물을 겨름집이라 한다. 저름집, 저름대집이라고도 한다. 지붕 재료인 기와·짚 등을 구하기 어려운 산간지역이나 토지가 척박한 지역에서 대마 농사를 지어서 껍질은 삼베길쌈으로 사용하고 속대는 지붕, 담장, 울타리 등에 사용한다.

대마는 우리나라에 목화가 도입되기 전까지 여름철 고온 다습한 기후에 가장 적합한 옷감이었다. 중앙아시아가 원산지이며,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이미 길쌈 관련 기록이 있다. 해발 600~800m 고랭지에 잘 자라서 강원도 산간 화전민들이 많이 재배하고, 껍질은 삼베를 짜고 남은 속대 겨름은 지붕 재료로 사용하였다. 대마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겨릅집 | 강원 삼척 | 국립민속박물관

3~6m 높이까지 성장한다. 겨릅 지붕에는 줄기가 곧게 자라고, 단면은 말각형이며, 잔털이 있고, 녹색 빛을 띠는 것을 주로 사용한다.

속이 빈 겨릅대에는 공기와 기포가 쌓여 있으며, 이것이 단열재 역할을 해서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다. 보통 3년에 한 번 교체하며, 방과 부엌으로 구성된 건축 면적 40㎡의 겨릅집 지붕에 필요한 재료는 1톤 트럭 4대 분량의 이엉 30마름이다. 이엉과 지붕 작업에는 6명씩 12명이 이틀 소요된다.

지붕은 서까래 위에 산자를 두고 그 위에 겨릅을 칸 다음 지붕에 이엉을 편 후 겹고삐로 묶고, 긴 나뭇가지나 작은 원통나무를 종횡으로 고정시켜서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한다. 겨릅집은 대궁이가 굵어 속대에 물 빠짐이 빠르고 습기가 머문 시간이 짧아 부식이 느리게 진행되어 초가집보다 수명이 2~3년 길다.

특징 및 의의 건축물은 그 지역의 자연 환경에 적응하며 성장 발전한다. 사용되는 재료는 주변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것을 사용하면서 자연을 극복하며 사회 성장과 함께 건축 문화 환경을 이룩한다. 마땅한 지붕 재료가 없는 대마 농사 지역에서는 대마 껍질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의복 재료인 삼베 원료로 사용하고, 나머지 속대는 겨릅 지붕을 이어 초가보다 긴 수명의 주거생활을 영위한다.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주어진 재료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의복과 주거에 활용하고 있다. 겨릅은 대마 농사 지역의 훌륭한 지붕 재료이다.

참고문헌 강원도 산간지역의 가옥과 생활(국립민속박물관, 1994), 삼척의 삼베문화(이한길, 삼척시립박물관, 2010), 옛집에 담긴 생각(김일진, 청구, 1989), 한국의 주거문화사(이중근, 우정문고, 201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정재국(鄭在國)

겹집

정의 한국 전통가옥 평면 유형의 하나로, 각 실이 종도리 아래에서 위아래 두 줄로 나란히 들어서는 구조.

내용 한국 전통 살림집은 실들의 배열 모습에 따라 평면 유형을 분류한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그중 하나는 횡으로 긴 장방형 구조인 ‘一’자형과 이를 기본으로 하여 변형·발전한 ‘ㄱ’자형·‘ㄷ’자형·‘ㅁ’자형 등 외형으로 분류하는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건물 내부에서 실들의 배치가 어떤 모습인지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이다. ‘겹집’은 바로 후자의 방법으로 분류한 평면 유형의 하나이다. 겹집과 대비되는 평면 유형으로 ‘홀집’이 있다.

겹집은 채 내에서 실들이 위아래 두 줄로 나란히 배열되는 구조이다. 즉 전후로 기둥을 세우고 그 사이에 중간 기둥을 세워 벽체를 구성하고 각 실이 위치한다. 즉 ‘田’자형 같은 집약된 모습 또는 가옥에 따라 전체가 아닌 부분 겹으로 실들이 들어서는 경우도 있다. 구조로 보면 정면 칸(도리 칸)은 여러 칸일 수 있다. 그러나 측면 칸(보 칸)은 보통 2칸이 되며, 이로 인하여 정면 길이 대비 폭도 크다.

겹집은 지리상 한반도의 동쪽에 위치한 함경도 지역에서부터 태백산맥이 길게 뻗은 강원도와 경상도 북부지역, 소백산맥의 지리산을 거쳐 전남 내륙 산간 지역에서 주로 발달하였다. 중국 지린성吉林省과 랴오닝성遼寧省 등 조선족이 거주하는 집도 주로 겹집 구조이다. 홀집이 서해안과 남부 평야지대에서 주로 보이는 것과 대비된다. 지역 분포에서도 보듯이 겹집은 주로 기후가 추운 지역에 발달하였다. 이는 추위에 대한

인간의 건축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실들을 겹으로 모아 배치하면 최대한 열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생활의 지혜가 건축에 적용된 것이다. 그러나 환기나 채광 면에서는 실 앞뒤가 개방된 홑집에 비하여 불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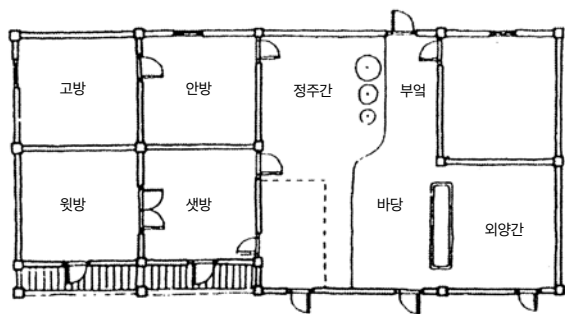
강원도 삼척의 너와집 중에는 실이 3줄로 구성된 3칸 겹집이 있다. 건물 내에 외양간과 작업장까지 두어 추운 겨울을 집 안에서 보내기 좋은 구조이다. 또한 제주도 가옥도 대체로 겹집 형식이다. 이는 열 손실을 줄이려는 목적보다 제주도 특유의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진 것이다.

상류층의 겹집은 시기상 1800년대 초에 등장하였고, 1900년대 근대기에도 부농층 가옥에는 겹집이 많았다. 당시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가구가 크게 증가하였고, 구조의 큰 변경 없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채 내에서 겹으로 배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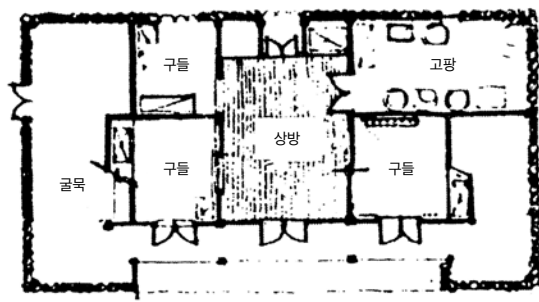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완전한 겹집이 아닌 반겹집 형태의 집도 근대 한옥에 많이 등장하였다. 특히 전라남도 지역의 부농층 한옥에서 많이 보인다. 후퇴를 보통 뒷간보다 넓게 잡아 고방, 골방, 아궁이, 감실 등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채 내에서 한쪽 일부에만 실들이 상하로 들어서는 겹집도 있다.

특징 및 의의 겹집은 지리 요인과 사회문화 요인에 의하여 발전한 주거 유형이다. 조선족이 사는 한반도 북쪽의 중국 지린성과 라오닝성에서부터 제주도까지 널리 분포한 주거 형태이면서 신분이나 경제력과 관계 없이 지어졌다는 측면에서 한국 대표 주거 형식이라 할 수 있다. 전자가 추운 지역에서 열 손실을 예방하려는 측면으로 접근하였다면 후자는 공간 확대가 요구된 조선 후기 상류층 가옥에서 더욱 발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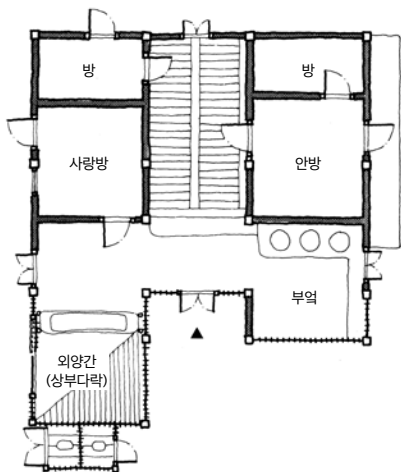
겹집은 홑집의 별다른 구조 변경 없이 공간을 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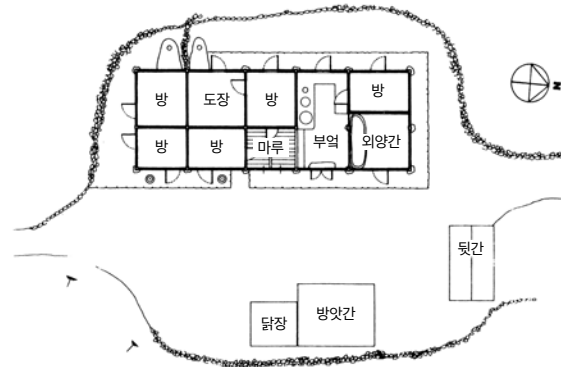
함경도 민가 | 한국의 민가 | 조성기·한울아카데미



제주도 민가 | 한국의 민가 | 조성기·한울아카데미



강원도 민가 | 강원도 산간지역의 가옥과 생활 | 국립민속박물관



강원도 민가 | 영월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 한림대학교박물관·강원도·영월군

힌 발전된 건축 형식으로, 학자에 따라 양통兩通집이라고도 한다.

참고문헌 조선 후기 주거사에 있어서 겹집화 현상에 관한 연구(전봉희, 대한건축학회논문집12-10, 대한건축학회, 1996), 한국건축의 역사(김동욱, 기문당, 2007).

필자 김지민(金知民)

경대 鏡臺

정의 화장할 때 사용하는 화장구이며, 화장품과 화장 용품들을 보관하는 용구.

개관 경대鏡臺는 덮개 내부에 거울을 부착해서 화장할 때 유효하게 활용하는 화장 도구로, 좌경座鏡이라고도 한다. 유리 거울이 전래되면서 이를 빗집에 부착하였기 때문에 경대는 조선 후기에 대중화된 것으로 보인다. 화장 후에는 화장품과 화장 용구를 서랍에 보관하고, 덮개를 닫아서 한쪽으로 치우거나 문갑 위에 얹어 놓는다. 경대 활용은 화장의 편의성 증진과 완성도 향상, 화장 기술 발전에 한몫하였다.

내용 여성의 아름다움 추구는 기본 욕망이다. 남에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을 감추려는 것은 여성들의 마음일 것이다. 좌경은 앓은 자세로 자기 얼굴을 보면서 화장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사용자는 거울이 달린 덮개를 열어 비스듬히 세워 서 자기 얼굴을 보면서 화장하고, 좌우 옆모습까지 보면서 머리 등을 가지런히 정리한다. 거울 기울기는 대부분 사람의 앓은키에 매우 적합하다. 화장의 편의성 증진과 완성도 향상으로 여성들이 자신의 아름다움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경대를 탐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화장을 마친 후에는 화장품과 화장 용구를 서랍에 보관하고, 덮개를 평평하게 닫고서 한쪽으로 치우거



경대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① 가로18 세로14 높이12 ② 가로23 세로36 높이27

나 문갑 등의 위에 얹어 놓는다. 경대는 작은 물건에 불과하지만 눈에 쉽게 띄이기 때문에 안방의 단아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여성용 경대는 풍부한 장식 부착으로 화려하지만 남성용 경대는 소형으로 필요한 장식만을 부착하여 소박한 맛을 풍긴다. 목침만한 크기에 옷칠하거나 오동나무에 인두로 지져서 취색한 경대도 있다. 경대는 중국에 가는 사신들에게 선물로 보내기도 하고, 일본 왕실로부터 선물로도 받았다. 그리고 왕후의 죽음은 경대의 향이 사라지고 내용이 텅 비어 있는 것으로 슬픔을 표현하였다. 이는 경대가 왕실의 생활 기물과 상징물이었음을 알려 주는 대목이다.

구조는 덮개, 몸통, 서랍, 다리로 이루어진다. 덮개는 안쪽 면에 유리를 배치하고, 접고 펼 수 있다. 몸통은 지지대를 세우고 서랍 1~3개를 배치하거나 밖으로 여닫이문, 안으로 서랍을 각각 배치한다. 다리는 낮게 제작하여 안정감 있게 하였다. 다리는 마대와 족대, 풍혈로 갖추기도 하고 다리를 하나만 만들기도 하였다. 풍혈 대신 뇌문을 새긴 경대도 있다.

느티나무와 먹감나무 등은 경대의 주요 재료이다. 표면에는 칠을 하였다. 장인은 다양한 색채, 화려한 문양과 장식으로 경대의 품격을 높이려고 하였다. 은행나무 바탕에 회양목같이 다른 재질로 만개한 꽃문양을 제작한 경대도 있다. 칠은 단출한 주칠과 나뭇결을 살린 생칠을 활용하였다. 문양은 자개·화각·대모 등을 활용해서 소나무, 대나무, 사슴, 거북, 학, 봉황, 원앙, 박쥐, 연꽃, 각종 기하문 등을 표현하였다. 금구 장식은 경첩, 앞바탕, 들쇠, 감잡이, 손잡이 등에 불로초·제비추리·달·박쥐 등을 새긴다. 이들은 부부 화합, 자손번창, 장생 등 의미를 담은 길상문이다. 가족의 수복강령 바람을 문양 새김과 장식 부착으로 표현하였다.

서랍에는 분과 연지 등 각종 화장품, 분접시·분물통·연지반죽그릇, 소병·합·족집게·빗·머릿보·실·수건 같은 화장도구, 빗빚치개·뒤꽂이·비녀·불두잠 같은 장신구를 보관한다. 사용자는 소품도 서랍에 보관하는 등 생활 속에서 요긴하게 경대를 활용하였다.

경대는 형태에 따라 ‘가계수리경대’·‘사모쌈기경대’·‘제비추리경대’, 장식과 문양 재료에 따라 ‘화각경대’·‘자개경대’·‘화류경대’로 각각 불린다. 경대는 주로 여성을 위한 화장구이지만 남성도 이용하였다. 선비들의 의관정제(衣冠整齊)는 갖추어야 할 기본 격식이었기 때문이다. 남성 역시 상투 등 머리 수식을 정리할 때 경대 등을 이용해야 하였다. 목침 겸용 좌경은 대체로 남성용 소형 경대이다.

화장 도구는 예나 지금이나 신부의 주요 혼수품이다. 예전에는 경대가 신부의 필수 혼수품이었지만 현대에는 화장대가 필수 혼수품이다. 화장대는 거울, 서랍장, 의자가 한 세트를 이룬다. 서랍장 위에는 화장품과 화장 도구들을 비치한다. 이는 주로 침실 또는 세면장 주변에 배치해서 화장을 하거나 지우는 데 활용한다.

특징 및 의의 경대는 여성과 남성을 위한 가구이자 안방과 사랑방 가구이다. 구조는 안정감 있으며, 크기는 작지만 실용성이 매우 크다. 문양 새김과 장식 부착은 아름다움의 표현이며, 솔직한 가족의 수복강령 바

람이다. 경대는 조선시대 목가구 형태와 구조·문양을 집약시킨 모습을 보여 주며, 그 집안의 가정 경제력과 풍모를 엿보게 하는 소형 가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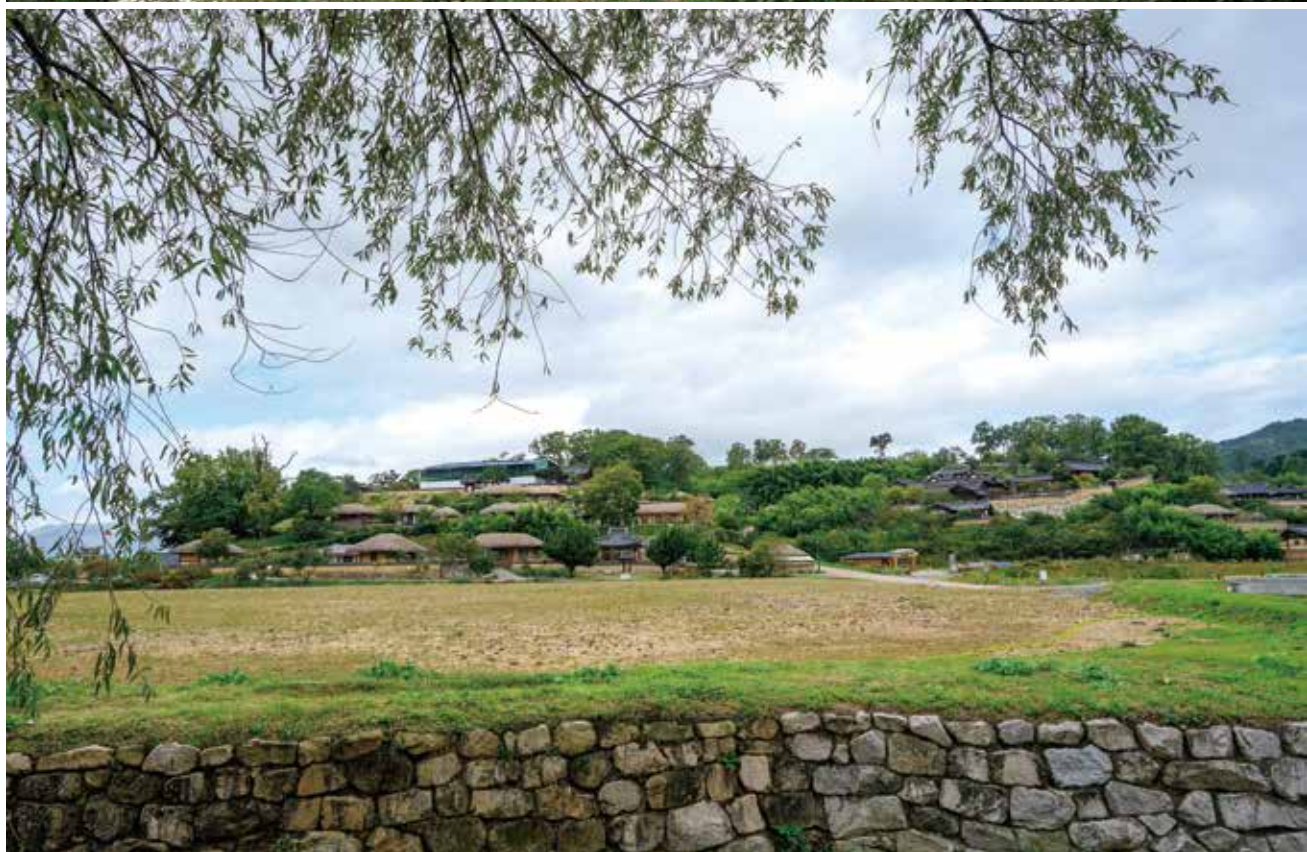
참고문헌 한국 목가구의 전통양식(배만실,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8), 한국 화장문화사(전완길, 열화당, 198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박종민(朴鍾珉)

경주 양동마을

정의 국가민속문화재 제189호로 지정된 경상북도 경주 강동면 양동리에 위치한 민속마을.

개관 1984년 국가민속문화재 제189호로 지정된 양동마을은 경북 경주에서 동북방으로 약 20km 떨어져 있다. 북쪽 주산인 설창산 문정봉에서 뿔어 내린 네 개의 지맥과 그 지맥 사이에 만들어진 골짜기가 주거지를 두동골, 물봉골, 안골, 장터골, 거림 등의 공간으로 분할하면서 ‘물勿’자 모양과 매우 흡사한 형국을 띠고 있다. 그리고 ‘물’자 모양을 이루는 능선 중 가운데 능선을 중심으로 하여 ‘하촌’과 ‘상촌’으로 구분되며 마을의 입구에서 안계(安溪)로 넘어가는 도로를 기준으로 하여 ‘북촌’과 ‘남촌’이 나뉜다. 지형이 경사지긴 했지만 북촌의 경우는 남향의 경사면으로 되어 있어 집자리를 잡기에 유리하나 남촌은 북향의 경사면을 이루기 때문에 아래의 평지 일부에만 가옥들이 위치하고 있다. 능선에 등을 안착시키고 골 사이에 터를 잡아 앉힌 기와집과 초가집들은 숲에 가려져 자연의 일부가 되고 이러한 마을 전경을 제대로 조망하려면 안산인 성주봉에 올라야 가능하다. 또한 멀리 전면으로는 형산강 줄기를 임수로 하여 풍부한 수자원을 품은 안강평야가 넓게 펼쳐져 있다. 설창산에서 시작된 작은 골들은 주민들에게 안락한 생활 터전을 제공하고 자연스럽게 들을 지나 강으로 이어지니 풍수지리적으로 재물이 풍성한 형국이며 이로 인해 평안함이



양동마을 | 경북 경주 양동 | 국립민속박물관

깃드는 마을이다.

입구에서 마을을 바라보면 기와집과 초가집이 다양한 크기로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기와집 중에는 종가도 있고 또 다시 분가하여 새롭게 살림을 나면서 집을 꾸민 예들도 많아 집들의 건축 연대 또한 매우 다채롭다. 초가집은 마을에 사는 일반 서민의 주거인 예도 있고, 또 종가집 근처에는 ‘가람집’이라고 하여 종가에 소속된 외거노비들의 집들이 많다. 종가는 때로 담장을 두르지 않고 가람집이 주변을 둘러싸서 외지인들의 출입을 담장 없이도 경계할 수 있었다고도 한다.

내용 양동마을은 보통 한 가문이 모여서 사는 다른 집성촌들과는 다르게 월성손씨 月城孫氏와 여강이씨 驪江李氏의 두 문중이 500여 년을 함께 살아오고 있다. ‘물’자 지형 안골마다 두 문중의 종가와 주요 건물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우선 가장 왼쪽의 첫 번째 획이 마무리되는 부분에 월성손씨 파종가인 관가정 觀稼亭과 여강이씨 파종가인 향단 香壇이 위치하고 있다. 여강이씨 대종가인 무첨당 無添堂은 세 번째 획의 능선에, 월성손씨 대종가인 송첨 종택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획이 감싸면서 마을 내에서 가장 길지로 알려진 곳에 터를 잡았다.

동쪽마을에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가옥 이외에 재실, 재각, 비각, 장지, 서원 등이 함께 마을을 이루는 요소들이 된다. 먼저 손씨 문중의 경우에는 대종가인 송첨 종택(국가민속문화재 제23호), 관가정(보물 제442호) 등이 이웃하고 있다. 그 외에 낙선당 고택(국가민속문화재 제73호), 수운정 水雲亭(국가민속문화재 제80호), 안락정 安樂亭(국가민속문화재 제82호) 등이 있다. 여강이씨의 경우 무첨당(보물 제411호), 향단(보물 제412호), 양동 사호당 고택(국가민속문화재 제74호), 상춘헌 고택(국가민속문화재 제75호), 근암 고택(국가민속문화재 제76호), 두곡 고택(국가민속문화재 제77호), 수졸당 고택(국가민속문화재 제78호), 이향정 고택(국가민속문화재 제79호), 심수정(국가민속문화재 제81호), 강학당(국가민속문화재 제83호) 등이 마을 내에 자리하고 있는 대표적인 건

축물들이다. 또한 『통감속편 通鑑續編』(국보 제283호), <손소영정 孫昭影幀>(보물 제1216호) 등의 유물도 마을이 소장하고 있다.

손씨 문중의 대표적인 가옥으로는 송첨 종택과 관가정을 들 수 있다. 먼저 송첨 종택은 입향조 양민공 襄敏公 손소 孫昭(1433~1484)가 마을에 정착하면서 건립한 것으로 전한다. 손소는 월성손씨 5세손으로 4세 학성공 鶴城公 손사성 孫士晟의 둘째 아들이다. 그는 결혼하여 5남 1녀를 두었는데, 그중 둘째 아들 우재 禹齋 손중돈 孫仲墩(1463~1529)이 이조판서와 좌우참판을 지낸 불천지위이다. 또한 그의 누이동생이 출가하여 낳은 이가 회재 晦齋 이언적 李彦迪(1491~1553)으로 여강이씨는 월성손씨의 외손이 된다. 이렇게 두 불천위가 이 집에서 출생하면서 이곳은 ‘삼현선생지 三賢先生之地’의 명당으로 불리며 앞으로 한 사람의 걸출한 인물이 더 태어날 장소로 여겨져 왔다. 손소는 청송부의 속현인 안덕현에서 태어나 25세에 풍덕류씨 豐德柳氏 류복하 柳復河의 사위로 양동에 정착하게 되었다. 결혼 후 처가에 거처하다 4년 뒤에 송첨 종택을 짓고 분가하게 된다. 그 후 큰아들 손위가 대를 잇지 못하자 둘째 손중돈이 장손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손중돈이 관가정을 지어 살림을 나가면서 손소의 신위와 영정을 관가정에 모시게 되고 그 후 송첨 종택은 종가의 기능을 20세기 초까지 관가정에 내주었다. 그러나 1924년 사당을 신축하고 신위를 옮겨 오면서 대종가의 역할을 다시 해 오고 있다.

송첨 종택이 지금의 모습을 갖춘 것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전체적인 배치 형식은 전면에 一자형의 행랑채를 두고 그 뒤에 ㄱ자형 본채가 앉아 있다. 그러나 가운데 ㄱ자 마당을 두고 안채와 사랑채 공간이 하나의 지붕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아 조선 전기의 형식이 남아 있음을 짐작케 한다. 사대부들은 조선의 건국과 더불어 유교를 건국이념으로 내세우며 모든 생활 덕목에 성리학적 질서를 적용하기를 주장했다. 집의 공간 구성에 있어서도 남자와 여자를 분리하고 생활의 영역이 겹쳐지지 않도록 채의 분리를 유도했다. 그러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시간 내에 새롭게 탄생하기에는 무리가 있기에 사랑채와



송첩 종택



무첨당



낙선당 고택

양동마을 | 경북 경주 | 국립민속박물관

안채의 완전한 구분이 가능한 가옥의 완성은 조선 중기를 지나면서 보인다. 송첩 종택은 이를 개념적인 공간 나눔으로 해결하고자 안채와 사랑채가 연결되는 곳에 짧은 내외담을 두기도 하고 출입은 하지 않지만 형식적인 문을 내기도 하였다. 집의 입지가 마을의 가장 안쪽 경사지이기 때문에 넓은 대지를 확보하기 힘든 것도 집의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배경으로 지목할 수 있다. 대문에 들어서도 집의 전체가 보이지 않고 눈에 들어오는 것은 사랑 기단과 누마루가 전부이

다. 좁은 통로를 따라 좌측으로 돌아 들어가면 안채로 향하고 우측은 사랑과 사랑마당이다. 이 집에서 가장 넓은 영역을 차지하는 곳은 사랑마당이다. 남자들의 공간인 사랑채는 사랑누마루를 큰사랑방과 작은 사랑방이 꺾어져 접하고 있는 것이 전부이다. 그러나 그 앞에 펼쳐진 사랑마당은 북쪽으로 보이는 사당과 그 앞에 심어진 500년 넘은 향나무까지 사랑채 공간과 같은 성격으로 이어진다. 실제 이 데크에 큰 제사나 행사가 있을 때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어 마당이 좁게 느껴지기도 한다. 누마루의 아자난간이나 사랑방의 불발기창 등은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런 격식을 갖추며 집의 얼굴 역할을 하고 있다.

안채는 ㅁ자로 반듯하게 꾸며진 마당을 감싸면서 실들이 이어진다. 중문을 들어서면 높은 기단 위에 정면으로 대청이 보이고 좌우에 방이 마주하고 있는데, 왼쪽이 안방이다. 안방 아래로는 정지가 이어지고 건넌방 아래는 책방이 연결되어 있다. 정지는 본채의 좌측에 있는 장독대로 출입이 가능하여 여자들의 활동 공간인 동시에 집안의 식생활을 책임지는 곳이기도 하다. 높은 기단을 올라 다시 댓돌을 밟고 서야 대청마루에 오를 수 있다. 지면에서의 높이만큼이나 서까래까지의 높이도 보기 드물게 높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 마루에 올라서도 외부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서야에 들어오는 것은 행랑채 지붕 처마끝로 막힌 중문이다. 여성들의 바깥세상 구경이 쉽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송첩 종택은 양동마을과 그 역사를 같이 해 온 가장 오래된 가옥이다.

관가정은 손중돈이 결혼하여 분가하면서 건축하여 거주하기 시작한 가옥이다. 집은 안강평야와 형산강의 조망 위치가 가장 좋은 물봉산 끝자락에 자리하여 '농사짓는 모습을 바라보는 정자'라는 뜻의 이 집의 택호가 아주 적절하게 조화된다. 작은 규모의 대문을 들어서면 안마당으로 출입할 수 있는 중문을 가운데 두고 좌우로 사랑채와 행랑채가 대청으로 길게 이어진다. 중문을 들어서면 ㅁ자 마당을 두고 본채가 자리하고 있다. 사랑채는 네 칸의 누마루와 두 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행랑은 세 개의 방과 정지로 구성하였다. 사랑의 윗방과 아랫방은 2분합 맹장

지 들어열개분합문으로 넓은 공간이 필요할 때는 이 문을 들어올려 두 개의 방과 마루까지를 하나로 사용할 수 있다. 사랑채 누마루 난간은 계자로 꾸미고 마루 대공에도 작은 규모의 화반대공을 조각하는 등 대종가인 송침 종택에 비해 장식적인 요소를 가미하였다. 안채는 전면 세 칸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에 안방과 상방이 대칭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방에 정지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안방 아래로는 바닥을 마루로 한 고방이, 상방 아래로는 전면이 개방된 마루가 있을 뿐이다. 정지를 행랑채에 속하게 한 것으로 보아 안방 아래 마루 공간이 특별한 활용 목적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일제강점기에 종가를 송침 종택으로 다시 옮기면서 관가정은 손씨 문중의 정자 및 영당다례를 모시는 공간으로 사용되어 온 것이 그 배경이 된다. 종가에서 사당은 사랑채에서 보이는 사랑마당의 안쪽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관가정의 사당은 반대편 마당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여강이씨 문중의 무침당과 향단은 두 가옥이 모두 보물로 지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집의 배치 및 평면 구조에 있어서도 손씨 문중의 집들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먼저 대종가인 무침당은 회재 이언적의 아버지 찬성공(贊成公) 이번(李蕃, 1463~1500)이 터를 정하고 살던 집이다. 사랑채이자 별채의 기능을 하는 무침당은 ㄱ자 형식의 집으로, 화려한 기법의 부재들로 안채와는 완전히 별도의 독립된 공간을 영위하고 있다. 큰마루를 사이에 두고 좌우에 서편방, 동편방이라 불리는 사랑방을 두고 서편방 앞으로는 지형의 높낮이를 활용한 누마루를 두어 집의 격을 높였으며, 동편방 옆으로는 따로 달아낸 눈썹지붕 아래 책을 보관하는 판벽으로 마무리된 서고를 연결한 것이 특이하다. 무침당 마당을 지나면 우측에 ㄱ자형 평면의 본채로 이어진다. 중문의 좌측으로는 무침당 방향으로 뒷마루를 붙인 사랑방이 있고 우측으로는 행랑 역할을 하는 아랫방과 고방이 연결된다. 대청과 이어진 안방 옆으로는 정지가 붙고 그 아래에 집의 규모에 어울리는 방, 공간, 헛간 등이 ㄱ자 마당을 둘러싸고 있다. 사당은 집이 앉은 자연 지형을 그대로 활용하여 높이 배치하였

다. 무침당에서 본채로 가는 중간에 높은 계단을 오르면 대청을 한 사당의 삼문 앞에 이른다. 사당 영역은 따로 담장을 둘러 구획을 하였으며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건물 앞에 서면 마을 입구까지 한눈에 들어온다.

향단은 마을 입구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집이다. 이는 지붕이 유난히 여러 방향으로 중첩되어 있으며 집이 주변의 건조물들에 비해 높게 지어졌기 때문이다. 이 집은 회재 이언적이 경상도 관찰사 재직 당시 어머니를 모시고 있던 동생 이언괄(李彦适, 1494~1553)에게 지어 준 살림집이다. 집의 택호는 이언괄의 손자 향단(香壇) 이의주(李宜澍, 1567~1637)의 호를 따라 건축 이후에 붙여졌다. 경북 지역에 문화재로 지정된 한옥들이 많이 있지만 향단처럼 독특한 외관과 평면을 가진 예는 찾기 힘들다. 향단의 평면은 일반적으로 日자형이라고 한다. 이는 안채, 사랑채, 행랑채가 두 개의 ㄱ자형 마당을 중심으로 매우 복잡한 구성으로 이루어지면서 두 개의 ㄱ자가 합쳐져서 日자형으로 보기 때문이다. 높은 기단 위에 앉은 행랑채 중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좌측은 안채 공간, 우측은 사랑채 공간이 나온다. 동쪽을 향하고 있는 사랑채 대청은 전면이 개방되어 건너편 심수정과 성주산을 마주 볼 수 있다. 또한 사랑 대청의 상부는 화려한 화반대공으로 꾸미고 방문도 띠살과 넉살무늬를 섞어 사용하는 등 다양한 장식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

이렇게 개방적인 사랑채에 비하여 안채는 작은 마당에 매우 폐쇄적인 공간으로 만들었다. 안방과 정지, 정지에서 이어지는 2층 구조의 수장공간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안방에서 이어지는 대청은 마당과 이어져 뚫린 지붕의 개방감을 내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집은 마을에서 외부에 개방적일 수 밖에 없는 입지에 위치해 있어 평면의 구성에 있어서는 반대로 내부지향적인 방향을 택한 것이다.

특징 및 의의 경주 양동마을은 1980년대 이후 국가적 민속마을 보존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작되면서 보호를 받아 온 대표적인 곳이다. 이러한 보존의 결과는 2010년 안동 하회마을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

로 등재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수많은 전통가옥뿐만 아니라 지금도 지켜지고 있는 문중과 마을의 풍습 또한 이와 관계되어 있는 다양한 종류의 유물과 건축물들은 한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그 가치와 존재감을 인정받기 충분하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동시에 마을 내 안길을 정비하고, 비어져 있어 관리되지 않던 작은 가옥들도 보수를 통해 원래의 모습을 많이 되찾았다.

양동마을에서는 유형의 문화재 이외에도 이어져 내려오는 무형의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민속놀이가 행해지고 있다. 웃말과 아랫말로 편을 나누어 하는 줄다리기는 매해 날을 잡아 행사 10여 일 전부터 줄을 꼬아 하루 동안 진행한다. 지금은 많이 간소화되었지만 예전에는 오전에 고사를 지내고 오후부터 당일 밤늦게까지 줄을 당겼다. 줄다리기의 결과 웃말이 이기면 풍년이 들고 아랫말이 이기면 마을이 편안해진다고 믿었다. 또한 이긴 편이 줄을 조금씩 잘라가 각 집의 지붕 위에 얹는 풍습이 있는데, 이는 집안의 평안을 가져다준다는 믿음 때문이다. 이외에 웃놀이, 지신밟기,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이 지금까지 행해져 오고 있다.

참고문헌 조선시대 반가의 초기형식에 관한 연구(박선주,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조선시대 씨족마을의 내재적 질서와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전봉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한국의 전통가옥 기록화보고서-경주양동마을(문화재청, 2009).

필자 박선주(朴宣注)

계단 階段

정의 사람이 오르내릴 수 있도록 단을 쌓아 만든 구조물.

개관 전통 건축은 높은 기단을 쌓은 후 그 위에 건물을 지었다. 높이가 높아서 건물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다리를 높이 들어 기단을 뛰어올라야 한다. 오르기 힘든 높은 기단 대신에 같은 높이를 여러 개의 단으

로 나눠 쌓는다면 훨씬 편하게 기단을 오를 수 있다. 이런 시설을 계단이라고 한다. 산비탈을 오를 때 발을 디딜 수 있도록 흙을 평평하게 다져서 만든 단순한 계단도 있고, 불국사佛國寺의 청운교靑雲橋와 백운교白雲橋같이 거대한 장대석을 깎아 몇 단을 겹쳐 세우고 석난간을 돌려 만든 화려한 계단도 있다.

계단은 높은 곳을 편하게 오르도록 도와주는 기능 외에도 사람의 동선을 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부석사浮石寺는 높게 쌓은 여러 단의 축대로 이름나 있다. 각각의 축대에는 높은 계단을 설치하였다. 하지만 이 계단들은 주불전인 무량수전에 한시라도 빨리 다다를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는다. 바로 주불전에 오를 수 있도록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단을 오르면 다음 계단이 눈앞에서 사라져 가급적 천천히 돌아 오르기를 강요한다.

내용 경주 옥산서원玉山書院 무변루無邊樓, 안동 병산서원屏山書院 만대루晩對樓에 오르는 계단은 통나무를 다듬어 만들어 사용하였다. 통나무를 세워 놓고 여러 단으로 디딤대를 깎아서 이것을 밟고 오르도록 한 것이다. 하나의 통돌로 계단을 만든 사례도 있다. 합천 영암사지靈岩寺址는 높은 축대 위에 금당이 있다. 축대를 오르는 계단은 정면 좌우에 하나씩 만들어 놓았는데, 모두 하나의 통돌로 만들었다. 이런 사례들은 특별한 경우이고 대부분의 계단은 몇 단의 석재 혹은 목재를 쌓아서 만든다. 외기에 노출된 계단은 비에 젖어 썩기 쉽다. 이런 까닭에 실내의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계단은 돌로 만든다. 돌계단은 적당한 크기의 받침돌을 단이 지게 쌓은 다음 이 위에 평평한 디딤돌을 놓아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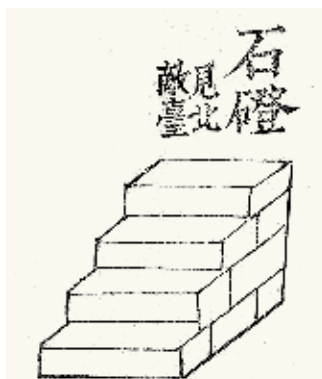
고대 중국의 은殿과 주周나라 때에는 기단 정면 좌측과 우측에 두 개의 계단만을 설치하였다. 동쪽 계단을 조계階階 또는 동계東階라고 하였고, 서쪽 계단을 서계西階라고 불렀다. 동쪽의 조계는 주인이 오르는 계단이며, 서쪽의 서계는 손님이 오르는 계단이었다. 주나라의 의례는 이후 동양의례의 표준이 되었고, 의례가 치러지는 중요 건물에는 주나라의 사례를 따라 두 개의 계단만 설치하였다. 고려궁의 정전인 회경전會慶

殿도 좌우에 하나씩의 계단만을 설치해서 조선의 정전과 차이를 보인다. 의례와 관련된 건물은 향교의 대성전, 서원의 사당, 주택의 사당이 대표적이다. 이들 건물도 대부분 조계와 서계를 설치해서 행례의 기준으로 삼았다. 조선시대 의례의 기본이 되었던 『주자가례朱子家禮』에서도 “사당의 동쪽 계단을 조계라고 하고 오직 주인만 오르며, 주인의 처와 다른 사람들은 지위가 높다 하더라도 서계로 오른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현재 각 지방 향교의 대성전은 정면에 두 개의 계단만을 놓은 곳과 세 개의 계단을 놓은 곳이 혼재해 있다. 세 개의 계단을 설치한 곳 중에는 최근에 개조한 곳이 상당히 많다. 세 개의 계단 중에 가운데 계단은 의례와 관련이 없다. 오래 전부터 중앙 계단을 갖추고 있던 곳이라면 국가에서 향축을 내릴 때 향축이 통과하던 계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의 정궁인 경복궁景福宮은 정전인 근정전勤政殿 전면에 세 개의 계단을 설치하였다. 중앙에는 답도踏道를 설치하고 좌우에 계단을 마련하였다. 경희궁慶熙宮 회상전會祥殿의 상량문에는 “반고班固가 저술한 부賦에 따르면 중헌삼계重軒三階가 궁침宮寢의 제도이다.”라고 하였다. 후한後漢 때 역사학자 반고가 장안長安의 모습을 기술한 <서도부西都賦>의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궁궐은 세 개의 계단을 갖추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즉 조선의 궁궐은 고려의 궁궐과 다른 예제를 채택하였고, 그 결과 계단의 배치 역시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중층으로 건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2층에 오를 수 있도록 만든 경우가 드물었다. 문루와 같이 특별한 건물에 한해서 2층에 오를 수 있도록 계단을 만들었다. 이 계단은 실내에 설치하기 때문에 목재로 만들었다. 이런 까닭인지 옛 문헌에서는 ‘계階’보다 ‘제階’라는 단어로 계단을 기록하였다. 1776년(정조 원년)에 영조의 글을 모은 책을 봉안하기 위해 주합루라는 중층건물을 만들었다. 하지만 1781년(정조 5)에 건물의 용도를 바꿔 이곳에 정조의 어진을 봉안하였다. 『춘관통고春官通考』에는 서향각書香閣에 모신 어진을 주합루宙合樓로 봉안하는 의식(御眞奉安宙合樓儀)이 기록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어진은 주합루의 정계正階를 통해 1층으로 진입한 다음 동계東梯를 통해 2층으로 올라갔다. 이때 신하들은 서계·서계를 통해 2층으로 올랐고, 내려올 때도 서계·서계를 통해 내려왔다. 어진을 봉심하는 의식, 어진을 아래층으로 옮겨 모시는 의식 등 모든 의식에서 어진은 동계를 통하였고, 신하들은 서계를 통해 주합루에 오르고 내려왔다. 서쪽 계단에 비해 동쪽 계단이 높은 위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정조 연간에 팔달문八達門이 만들어졌다. 중층 누각으로 상층에 오르는 계단을 동쪽과 서쪽에 하나씩 만들었다. 그런데 임금이 오르는 계단을 서쪽에 두었고, 동쪽에 신하들이 오르는 계단을 만들었다. 계단은 좌우 비대칭으로 설치하였다. 서쪽 계단을 통하면 2층의 중앙 칸으로 오를 수 있게 한 반면, 동쪽 계단을 통하면 2층의 동남쪽 가장자리로 오르게 된다. 의도적으로 서쪽 계단의 위계를 높게 만들었고, 일반적인 방향 설정과 크게 다른



화성성역의궤 | 1801 | 국립중앙박물관

돌계단



경기 수원 화성 북동적대 | 국립민속박물관



화성성역의궤 | 1801 | 국립중앙박물관

곡란층제



경기 수원 화성 팔달문 | 국립민속박물관

모습이다. 중층문루의 계단은 대부분 동선을 꺾지 않고 직선으로 만든다. 좁은 공간에 직선으로 계단을 만들다 보니 폭에 비해 높아 오르기 불편한 단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팔달문에는 꺾은 계단, 즉 ‘곡란층제(曲欄層梯)’를 설치하였고 임금이 다니는 동선의 편리성을 고려해서 서쪽 계단을 이용하였다고 한다.

커다란 통돌을 화려하게 조각해서 계단 좌우면을 막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소맷돌’이라고 한다. 저고리의 소매를 닮은 모습에서 이름의 연원을 추측할 수 있으나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다.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의 도설편에서는 이를 ‘운각대우석(雲刻大隅石)’, 일명 ‘모로대(毛老臺)’라고 하였다. ‘구름무늬를 새긴 커다란 가장자리 돌’이라는 의미이다. 옛 문헌에서 모로대는 장인들이 사용하는 도구로 기록되었다. 두석(豆錫匠), 동장(銅匠), 야장(冶匠), 시장(匙匠) 등 철물을 다루는 장인의 연장으로 등장한다. 따라서 모로대는 철물을 다루는 연장인 ‘모루’를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슷한 용어로 ‘모리석(毛里石)’ 또는 ‘모로석(毛老石)’이 옛 문헌에서 발견된다. 17~18세기 중반 『산릉도감의궤(山陵都監儀軌)』에 모리석이 등장하며, 18세기 중후반에는 모로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여러 『산릉도감의궤』에 따르면 모리석(모로석)은 정자각 월대 동쪽의 향로(香路) 돌계단 좌우에 사용하는 석재를 말한다. 17세기의 몇몇 『산릉도감의궤』에서는 소맷돌이 있는 계단을 ‘모리교(毛里橋)’, 없는 계단을 ‘협교(狹橋, 挾橋)’라고도 기록하였다. 경상도 사투리 중에 ‘모로’라는 말은 ‘옆쪽’을 뜻한다. 따라서 현재 사용하지는 않지만 조선시대에는 ‘소맷돌’ 대신에 ‘모리석(모로석)’ 또는 ‘모리돌(모로돌)’이라고 불렀을 것으로 보인다.

특징 및 의의 통일신라시대의 건축법을 기록한 『삼국사기(三國史記)』 옥사조(屋舍條)에는 출신에 따라 계단의 사용을 규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진골(眞骨)은 삼중계(三重階)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육두품(六頭品)은 건계(巾階)와 이중계(二重階)를 설치하지도 계단석을 다듬지도 못하였다. 건계는 모리교로 추정된다. 오두품 역시 계단석을 다듬지 못하였고, 사두품과 백성들은 계체(階砌)에 산석(山石)을 쓰지 못하였다. 결국 삼중계는 궁궐과

사찰 건축에서나 설치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렇듯 계단은 단순히 높은 곳에 오르는 시설로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사용에도 여러 제약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김왕직, 동녘, 2007), 영건의궤(영건의궤연구회, 동녘, 2010), 예제에 의한 승려문과 팔달문의 중층구조 차이에 관한 연구(김왕직·오규성, 대한건축학회논문집31-10, 대한건축학회, 2015), 지혜로 지은 집 한국건축(김도경, 현암사, 2011), 화성성역의궤 건축용어집(경기문화재단, 2007).

필자 이연노(李演魯)

고래

고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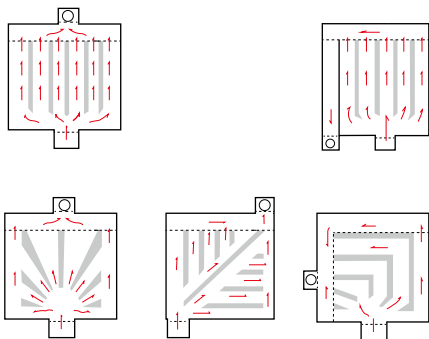
정의 온돌 구조에서 구들 아래에 돌 또는 벽돌을 괴어 세운 독과 독 사이의 불길.

내용 고래는 아궁이에서 지핀 불이 방바닥의 좌우와 끝까지 도달하여 바닥을 골고루 데울 수 있도록 독을 만들어 낸 불길이다. 고래는 온돌방의 바닥을 이루기 때문에 방고래라고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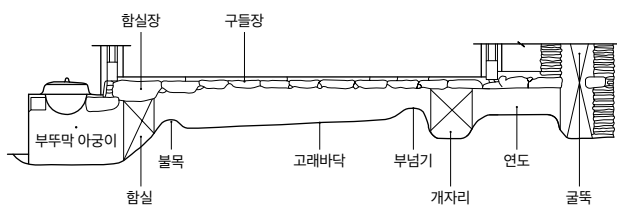
온돌방의 바닥은 고래를 이루는 고래독과 고래 위를 덮는 구들장으로 이루어진다. 고래독은 대체로 흙과 자갈을 섞어 쌓지만 경제 여유가 있거나 격이 높은 건물에서는 기와, 벽돌, 장대석을 이용하여 쌓기도 한다. 독과 독 사이의 바닥은 고래바닥이라고 하며, 불길이 아랫목에서 윗목까지 잘 이어지도록 바닥을 점점 높여 경사지게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아궁이에서 만든 불길을 모든 고래로 보내기 위해서는 고래의 입구를 한 구멍에 모이게 해야 한다. 이때 만드는 구멍을 함실이라 한다. 함실과 고래바닥의 경계는 독처럼 만들어서 높인다. 이를 불목 또는 부넙기라 하며, 고래의 끝부분 개자리와의 경계 지점에도 설치한다. 개자리는 고래가 끝나는 윗목이나 측면에 만든 고래보다 깊은 줄 웅덩이로, 고래를 통과한 뜨거운 공기가 식으면서 생기는 그을음이나 찌꺼기를 떨어뜨려 모으는 곳이다.

고래의 형태는 하나의 아궁이에서 열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방바닥 구석구석으로 열기를 보내기 위한 건축 관련 고민은 다양한 형태의 고래로 구현되었다. 가장 일반화된 고래는 아궁이의 반대편에 굴뚝을 설치하고 고래독을 아랫목부터 윗목까지 나란하게 쌓는 줄고래이다. 이때 고래독의 곳곳을 터놓아 불이 고래를 넘나들도록 한 경우도 있다. 이를 허튼고래라 한다. 불길의 부채처럼 퍼져 나가도록 고래독을 쌓은 것은 부채고래이다. 아궁이와 굴뚝을 각각 방의 대각선 모서리에 두고 대각선의 중심 독을 쌓은 다음 중심 독에 대하여 직각 방향으로 고래독을 쌓아 서로 마주 보게 한 고래를 맞선 고래라고 한다.

굴뚝 위치가 측면 또는 아궁이와 같은 방향으로 설치한 경우 고래독의 방향을 전환하며 쌓을 수밖에 없다. 측면에 굴뚝을 시설한 경우는 고래를 ㄱ자로 꺾어 설치하게 된다. 이를 굽은고래라 한다. 아궁이와 같은 방향에 굴뚝을 둔 경우에는 연기가 빠져나가는 연도를 고래와 반대 방향으로 되돌려 나오게 시설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형태의 고래를 되돈고래라 한다.



고래의 종류 |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 | 김왕직·동녘



고래(필자 재구성) |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 | 김왕직·동녘

고래독 위는 넓고 평평한 돌을 깔고 진흙을 이겨서 마감한 후 사람들이 생활하는 방바닥을 만든다. 이때 고래독 위에 까는 돌을 구들장이라 한다. 구들장은 보통 비정형의 돌을 사용하며, 구들장 사이로 연기가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틈 사이에 작은 돌을 끼우고 진흙을 이겨서 메꾼 다음 그 위에 다시 진흙 미장을 하여야만 방바닥이 완성된다. 진흙 미장을 한 방바닥을 생활면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장판지를 바르거나 돛자리를 까는 등의 행위인 포진鋪陳이 이루어진다.

온돌은 구들장을 데워서 그 열을 이용하는 난방 방식인 만큼 구들장 선택이 중요하다. 특히 함실은 고래가 시작되는 지점으로, 아궁이에서 지핀 열기가 모이는 곳이어서 가장 뜨겁다. 이에 함실 상부에 설치하는 구들장은 함실을 덮을 수 있을 정도로 크고, 열기를 견딜 수 있을 정도로 두꺼운 것을 사용한다. 이 구들장을 특별히 함실장이라 한다.

특징 및 의의 온돌 난방의 성공 여부는 아궁이에서 만들어진 열기가 얼마나 방바닥에 골고루 퍼지게 하는가에 달려 있다. 방바닥 아래에 놓이는 고래 구조가 그 기능을 해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고래가 고안되었다. 또한 윗목으로 갈수록 고래바닥을 경사지게 한다든가 함실과 고래의 경계, 고래와 개자리의 경계 지점에 부넙기를 둔다든가 하는 구축 방식도 자리를 잡았다.

참고문헌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김왕직, 동녘, 2007), 한국건축개념사전(한국건축개념사전기획위원회, 동녘, 2013), 한국건축사전(장기인, 보성각, 2005), 한국의 전통건축(장경호, 문예출판사, 199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정정남(鄭貞男)

고비

정의 벽에 걸어 두고 편지나 두루마리를 끼워서 보관하는 조선시대 실내용품.

개관 조선시대 사전 『역어류해(譯語類解)』에서 ‘書牀’을 ‘슈판’으로 읽고 ‘고비’라 하였고, 지와자(紙窩子)는 ‘고삭고비’라고 기록하였다. 이것은 『재물보(才物譜)』와 『광재물보(廣才物譜)』에서도 그대로 기록되면서, 역시 ‘書牀’을 ‘고비’라 하고 지와자를 ‘고삭고비’라 명시하였다. 또 書牀은 고벽(靠壁)과 동의어로 기록되어 벽에 기대도록 두는 쓰임새를 추측할 수 있다. 여기서 ‘牀’은 ‘반(攀)’의 약자이다. 하지만 오늘날 조선시대에 벽걸이로 편지나 두루마리를 걸어 두는 용어로 쓰이는 ‘고비(考備)’라는 용어는 찾기 어려우며, ‘고삭고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사전 내용을 통해 벽에 걸어 두고 문서류를 보관하는 용도의 가구임을 알 수 있다. 문헌에서는 벽에 부착해서 물건을 넣어 두는 용도로 ‘고비(高飛)’라는 용어도 찾아볼 수 있다.

내용 『숙종실록(肅宗實錄)』(숙종 27, 9월 29일)에 “고비(高飛)란 종이를 벽에 붙이고 금단 따위의 물건을 그 사이에 끼워서 왕신을 받드는 것이다(所謂高飛, 以紙付壁, 錦段等物, 挿於其間, 以奉王神者也).”라고 하였다. 이것은 서실(書室)에 둔 고비가 나무나 종이로 앞뒤를 막고 그 사이를 몇 개의 층으로 나눠 문서류를 꽂아 보관하던 것과 비교하면 생김과 그 쓰임은 다르지만 벽에 설치하여 물건을 끼워 보관하는 방식은 같음을 알 수 있다. 『인선왕후국장도감의궤(仁宣王后國葬都監儀軌)』(1674)에서는 고비롱(高飛籠)이라는 용어와 그 도설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고비롱은 국가 장례에서 부장용으로 마련되는 복식 일습인 복완(服玩)의 하나로 단지 모양의 작은 그릇이어서 벽에 설치하는 수납 용구와는 구별된다.

즉 현전 유물을 지칭하는 고비(考備)의 어원이 명시된 기록은 찾지 못했으나 벽에 부착하고 그 틈 사이에 물건을 끼워 보관하는 용도로 ‘고비(高飛)’라는 것이 있었고, 고비롱과는 다른 것이며, 조선시대 사전풀이로는 ‘書牀’, ‘슈판’, ‘고벽(靠壁)’으로 불리기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늘날 전해지는 문방(文房)에 두던 고비는 조선 후기에 들어와 공간 규모가 커지고 벽에 여유가 생기면



① 죽제 고비 | 길이56 너비24 | 조선 | 국립중앙박물관
② 고비 | 길이106 너비28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서 발달한 것이다. 고비는 튼튼한 소나무 등으로 만들기도 하고, 결이 좋은 오동나무에 사군자나 글귀를 조각하거나 대나무 살을 구부려서 기하학 문양으로 구성하여 조형미와 장식성을 강조한 것들이 전한다. 송나라 임홍(林洪)의 『문방도찬(文房圖讚)』에 기록된 문방 제구 중 ‘죽고비’의 품목이 보인다. 여성용의 경우 갖가지 색종이로 문양을 붙여서 만들기도 하였으며, 머리 빚는 도구를 보관할 수 있는 종지로 된 ‘빗집고비’도 있다. 간혹 반단이 문 안쪽에 종이를 ‘X’자형으로 붙여 둔 것이 있는데, 이것 역시 문서를 간편하게 보관하는 용도로 고비 역할을 하였다.

특징 및 의의 고비는 조선 후기 문방(文房) 꾸밈을 대표하는 소품 가운데 하나이다. 주인이 두고 볼 문서나 편지를 개방형으로 보관하는 용도이면서 그대로 벽을 장식하기도 하였다. 대나무를 길게 오려 구부려 만든 고비는 비교적 큰 크기로 넓은 주택공간에서 사용되었음을 말해 준다. 두꺼운 종이를 사용해 X자형으로 만들어서 가구의 문짝 등에 부착하여 편리하게 문서 등을

꽃기도 하고, 색지나 오동나무, 대나무 등으로 꾸미는 등 고비는 각 쓰임과 효율적 공간 활용을 위해 다양하게 제작되었던 전통 생활공예품이다.

참고문헌 譯語類解, 才物譜, 조선후기 한자어휘 검색사전-물명고, 광재물보(정양완·홍은표 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한국의 목공예(이종석, 열화당, 1996), 한국학고사전총서14-재물보(아세아문화사, 1980), 국립중앙박물관-외규장각 의궤(museum.go.kr).

필자 김미라(金美羅)

고성 왕곡마을

정의 강원도 고성 죽왕면에 위치한 병화불입의 은거지로서 대문 없는 전통 한옥마을.

개관 고성 왕곡마을은 국가민속문화재 제235호로 지정된 마을로, 강원도 고성 중북부 해안가 산지와 소나무가 가득한 구릉으로 둘러싸인 골 안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 북쪽에는 공현진리, 서쪽으로는 구성2리, 남쪽으로는 인정2리, 동쪽으로는 7번 국도와 동해, 남동향으로 송지호가 자리 잡고 있다. 가옥들은 두백산을 뒤로 하고 남향의 골에 마을 가운데를 흐르는 개천을 중심으로 좌우로 자리 잡고 있다.

왕곡마을은 7번 국도에서 내륙 쪽으로 1k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나 오음산·두백산·순방산·제공산(일명 발도산)·호근산(일명 갯가산)·골무산 등으로 둘러싸여 있고 송지호에 의해 분리되어 있어 동해안가에서 보이지 않는다. 외부로부터 잘 보이지 않는 이 마을이 전화를 아주 적게 입고 지금까지 유지되어 올 수 있는 것은 주변 바다와 호수, 논밭 등 생업을 위한 접근성이 좋으면서도 기밀성을 보장해 주고 있는 마을의 독특한 입지에서 기인한다. 이는 입향조와 관련 있다.

고려 말 두문동 72인의 한 사람이었던 함부열의 자손이 강릉, 간성을 거쳐 이곳에 자리 잡은 것은 조선 초였다고 한다. 두 왕조를 섬기지 않고 난을 피해

오지에 자리 잡은 양근함씨(楊根咸氏)들이 터를 잡고, 오래지 않아 강릉최씨들이 들어와 함께하였다. 그 후 마을 북쪽에는 양근함씨가, 남쪽에는 주로 강릉최씨가 자리 잡고 오늘에 이르렀다. 그 외에도 20세기 들어 김씨, 박씨, 송씨, 신씨, 이씨, 전씨, 정씨, 한씨 등이 들어와 이제는 제법 많은 성씨들이 어울려 살고 있다.

마을 이름에 대한 유래가 정확히 전해지지 않고 있으나 이 마을이 학계에 보고될 당시인 1980년대 초까지 윗마을은 금성마을, 아랫마을은 왕곡마을로 불리다가 문화재로 등재되면서 윗마을과 아랫마을 구분 없이 왕곡마을로 불리게 되었다. “금성에서는 소를 산에 가서 먹이고, 왕곡에서는 바다에 가서 먹였다.”라고 하는 마을 주민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두 마을은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지내 왔다고 한다. 일제강점기에 행정 구역이 하나로 통일되고 옆 마을인 금성마을까지 하나로 통합되면서 주민 간에 갈등을 빚은 적이 있으나 이장을 비롯한 주민들의 노력과 종교의 역할로 이후 원만하게 협조하며 살게 되었다고 한다. 왕곡마을 남쪽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던 현대식 건물의 교회는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곳으로 왕곡마을이 국가민속문화재가 된 이후에도 존치하여 왔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후락해진 건물을 한옥으로 리모델링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내용 고성 왕곡마을은 병화불입지로 배 모양을 하고 있어 마을 안에는 되도록 우물을 파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때로는 우물을 파고 사용하기도 하였다. 마을을 둘러싸고 소나무, 참나무, 밤나무와 대나무 종류인 이대가 마을을 울타리처럼 둘러싸서 보호하고 있다. 이 외에도 졸참나무, 솜대도 분포하여 있다. 1996년과 2000년 두 차례 발생한 산불에도 마을 주민 전체가 합심하여 진화에 나서서 마을 가옥들은 피해를 보지 않았다. 그러나 주변 산의 식생은 많은 피해를 보았다. 특히 소나무의 피해가 컸다. 다시 식재를 하였으나 복원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두백산에서 공모산으로 이어지는 곳에는 소나무 숲이 조성되어 지세 보완과 더불어 마을 숲 역



왕곡마을 | 강원 고성 | 한국관광공사·IR스튜디오

할을 하고 있다. 북동쪽의 지세를 보완하고 바닷바람이 마을로 오는 곳을 막아 주던 소나무 숲은 7번 국도 공현진으로 이어지는 현재의 왕곡마을 진입로 확장으로 일부 훼손되고 길이 생기게 되었다. 1998년 동해안가 7번 국도에서 내륙으로 들어와 ‘한고개’를 넘어 구성리로 이어지는 도로가 개통되어 오랫동안 사용해 온 마을 주 진입로와 마을 주변 경관이 바뀌었다. 원래 한고개는 마을과 7번 국도를 잇는 아주 작은 농로였지만 1980년 초 새마을운동 일환으로 포장을 하며 마을 입구까지 넓힌 것을 포장도로로 2차 확장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용의 옆으로 큰 길을 내는 것은 마을에 좋지 않다.”고 반대하였으나 고성군이 도로를 개설하는 대가로 간성과 마을을 오가는 버스 노선을 신설하겠다고 함에 따라 시행되었다고 한다. 그전까지는 면사무소가 있는 오호리에서 서쪽으로 진입하여 송지호를 따라 북향하면서 마을에 다니

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때로는 7번 국도에서 송지호를 끼고 다녔다고 한다. 이 도로의 등장으로 마을이 본격 변모하게 되었다. 이 길은 7번 국도에서 한 고개를 넘어 옆 마을인 적동마을 주민을 비롯하여 그 뒤편에 있는 마을 주민과 군부대원들이 다녔던 길이다. 적동마을의 용궁김씨(龍宮金氏)들은 왕곡마을을 거치는 짧은 길이 있음에도 왕곡마을을 거치지 않고 남쪽 길을 돌아서 다녔다고 한다.

마을 안에는 와가가 37동(본채 29동, 부속채 8동), 초가가 88동(본채 14동, 부속채 74동), 원형 회복이 되지 않은 가옥이 9동(본채 3동, 부속채 6동), 저잣거리의 초가가 6동이 있다(2012년 현재). 인구는 매년 조금씩 변화가 있으나 2012년 기준 61명(남 30명, 여 31명)이고 가구는 거주 34가구, 비거주 4가구, 군 소유 8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가옥 이외에도 양근함씨 효자각, 함희석 효자각, 지금은 오봉1리 경

로당으로 사용되는 마을회관, 정미소, 교회사택 등이 있다. 경로당 앞의 마당은 마을 축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중심 광장 역할을 하고 있다. 가옥의 일부는 해체되어 재축 예정이거나 해체 수리 중에 있는 등 정비계획에 의거하여 지속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마을 보존회 사무실과 저잣거리가 마을 외부인 한고개에 조성되어 외부인들이 마을 탐방 시 마을에 관한 정보를 얻거나 식사를 할 수 있게 하였다. 마을이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 마을 안에는 식당이 두 곳 있었으나 지금은 한 곳만 운영되고 있다.

왕곡마을 내부공간은 마을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개천을 따라 조성된 주 도로, 그 길 양 옆으로 조성된 가옥과 딸린 마당, 가옥과 가옥을 연결하는 셋길, 텃밭과 경계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왕곡마을은 주로 두 성씨들의 집성촌이지만 가옥 사이가 다른 평지의 집성마을에 비해 넓은 편이고, 가옥 사이에 다소 넓은 텃밭이 있다.

마을 한가운데를 관통해서 흐르는 왕곡천은 빨래터로 활용되는 등 마을 생활의 중심 역할을 하여 왔다. 그러나 민속마을로 지정되면서 마을길이 정비되고 독방이 설치되어 예전같이 일상에서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지금은 축제 체험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마을의 농경지는 골무산 방면의 마을 뜰, 마을과 송지호 사이에 위치한 갯뜰이 중심을 이룬다. ‘갯뜰’은 홍수 등에 의해 침전되면서 형성된 곳으로, “홍수 때마다 흘러내린 토사가 쌓이면 써래질만 해서 논으로 만들던 곳”이라고 한다. 왕곡마을 사람들은 주변 오호리의 들판에도 농경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으며 가옥 앞과 뒤편에도 텃밭을 가꾸어 왔다. 송지호에서는 매년 재첩이 풍부하게 수확되어 왕곡마을을 포함한 주변 마을의 부수입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다.

각 가옥은 앞으로는 담장과 대문 없이 외부로 열려 있으나 뒤편에는 다소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가옥의 기밀성을 높이고 있다. 전면 4칸, 측면 2칸의 안채는 넓은 부엌에 외양간이 가옥 전면으로 돌출되어 있어 독특한 외관을 형성한다. 앞 열에는 마루와 사랑방, 뒷열에는 안방·옷방·도장방이 있는 겹집이다. 이 형태를 기본으로 몸체에 헛간과 고방이 붙어 있거나

뒷마당에 별채를 조성하기도 하였다. 특이한 점은 거의 모든 방으로의 출입이 부엌을 통해 이루어지고, 뒷마당으로의 진입도 부엌을 통해 이루어져 여성과 가족의 공간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평면과 공간 사용의 약속은 마을의 친척들에게 열려 있으면서도 가족만의 사생활을 보장하는 왕곡마을만의 지혜이자 특색을 보여 주는 주목할 만한 면모라 할 수 있다.

금강산 문화권에 속하는 이곳은 북방 가옥 형식인 겹집 평면이 자리 잡았으며, 홀처마에 기와를 얹은 가옥은 모두 팔작지붕을 하고 있다. 외부로 열린 창호의 높이도 조금 높게 구성되어 바깥마당에서 직접 출입하기보다는 부엌을 통해 진입하게 함으로써 추운 겨울에 직접 차가운 외기가 방으로 들어오지 않게 하고 있다. 서향으로 돌출된 ㄱ자형 평면 배치는 북서풍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일부 동쪽이 돌출된 평면은 ‘삼포’ 등지의 해안가에서 옮겨온 것이라 한다. 마루와 사랑방에 외부로 열린 개구부가 있으나 출입보다는 채광과 통풍을 위한 것이다. 귀중한 재산인 소를 부엌과 인접시켜서 겨울에 대비하는 등 추운 기후에 적절히 대응한 지혜로운 가옥이었음을 말해 준다. 굴뚝은 대부분 사랑방 측면 벽에서 1.5~1.8m 떨어진 측면부에 설치되었으며, 1.2~1.5m 높이로 아래가 넓고 위가 약간 좁은 원통형으로 마감되었다. 작은 자연석과 와편을 흙과 같이 섞어 쌓아 토석담과 함께 왕곡마을의 경관에 운치를 더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19세기 중·후반을 지나면서 왕곡마을에서 일부 사회·경제 면에서 자리를 잡고 신분이 상승된 가구들이 기와집을 짓기 시작하였고, 농민들의 마을이던 이곳은 기와집이 즐비한 잘사는 마을이 되었다. 자식이 분가하면 인근 마을로 집을 이축하거나 재목을 사서 집을 지어 지금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한다. 20세기 초 일제강점기 토지등기사업 시 등기가 된 대부분의 가옥들은 그 이전에 이미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많은 젊은이가 외지로 나가고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 청년회 수립이 어려워졌으며, 농사짓는 사람 수는 급격히 줄어 마을 보존과 지속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1981년 왕곡마을이 학자들에 의해 조사되고 1982년 학계에 보고된(박경립, 유승용) 이후 문화재청에 의해 1988년 8월 10일자로 '전통건조물 보존지구 제1호'에 지정되었다. 당시까지는 하회마을과 양동마을 등이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되어 관리되었으나 살아 있는 마을을 동결 보존하는 법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대한민국 최초로 <전통건조물 보존법>이 제정되고, 그 일환으로 왕곡마을과 외암마을(전통건조물 보존지구 제2호)이 지정된 것이다. 이후 박제된 마을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삶과 보존을 위한 마을 보존 방안이 연구되고, 지속해서 정비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1999년 <전통건조물 보존법>이 아쉽게도 당시 정부의 중복법 조정 일환으로 폐기되었고, <문화재보호법>에 통합되어 2000년 1월 17일자로 왕곡마을은 '국가민속문화재 제235호'로 재지정되었다.

문화재 재지정 이후 민속마을의 지속 가능한 보존과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정비 계획에 의거하여 가옥 정면에 설치되어 있던 농기구와 건조기 등이 공동 창고 조성과 함께 철거 및 이전되고, 전기의 지중화 사업이 진행되어 고유 경관을 회복하는 한편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계획 등이 논의 및 시행된다. 2004년 문화재청에 의해 '민속마을 보존활용 및 종합정비 세부실천계획'과 2006년 '고성 왕곡마을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어 마을의 공간배치와 자연경관, 주거시설, 기반시설, 공동시설 등에 대한 정비 기준안이 마련되었다. 2012년 '고성 왕곡마을 기본계획 수립 보고서'에 10년 단위의 정비 계획이 수립되었고,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2017년 보완용역이 이루어져 오늘에 이른다. 점점 감소하는 인구를 유지하는 방안이 절실하며, 지속 가능한 보존을 위하여 더욱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왕곡마을은 대대로 서낭제를 지내 왔다. 마을 입구의 당목이 베어지자 두백산 중턱에 있는 소나무로 옮겨 지냈다. 그러나 1996년 중반 화재로 서낭목이 소실되면서 서낭제가 중단되었다. 기우제는 오음산에서 관과 지역 주민에 의해 실행되었으며, 일제강점

기까지 시행되었다고 한다.

한편 '옛 것 그대로 시간이 멈춘 곳'이라는 부제를 달고 2004년에 시작된 '왕곡마을 민속체험축제'는 마을 차원에서 처음으로 외부인에 마을을 공개하고 관광객을 맞았다. 2005년에는 여름축제와 가을축제로 분리하여 2회 실시하였다. 왕곡마을보존회와 자문 위원회가 구성되고 고성군·강원도·문화재청의 적극 지원하에 진행된 마을 축제는 일반의 관광 축제와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고, 인근 부대의 협조로 의미 있는 출발을 하게 되었다. 3,000명이라는 많은 방문객이 참여한 제1회 축제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강원도 내 관광자원 발굴의 이정표가 되었다. 이후 축제는 마을 주민들의 통합, 인근 마을과의 소통 등은 물론 사라질 위기에 있던 지역의 민속과 놀이 등을 발굴하고, 민속마을의 가치와 보존 노력을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듯 왕곡마을은 6·25전쟁을 치르면서도 원형이 잘 보존된 거의 유일한 마을로, 박제된 박물관으로서의 민속마을이 아니라 생동감 있게 살아 숨쉬는 민속마을로서 마을과 가옥 형태는 물론 예전부터 내려온 민속을 발굴하고 보존하는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한반도 중북부 해안가 산지에 자리 잡아 강원도 북부지역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외양간이 부엌 앞으로 돌출된 특이한 가옥 형태를 보여 주는 왕곡마을의 가옥은 양반 위주로 구성된 여타 마을과 달리 백성의 생활상을 고스란히 간직한 매우 중요한 마을 유산이다.

참고문헌 가옥과 민속마을1-경기·관동·호서지역(문화재청, 2010), 강원도 민가에 관한 조사연구(박경립·유승용, 과학기술연구17-1, 강원대학교 과학기술연구소, 1982), 고성 왕곡마을 디자인 가이드라인(문화재청, 2007), 고성 왕곡마을 보존방안 학술조사 연구보고서(고성군, 2001), 고성 왕곡마을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보고서(고성군, 2012), 전통민가의 열환경특성에 관한 조사연구1(구재오·이경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계획계·구조계7-2, 대한건축학회, 1987), 제1회 고성 왕곡마을 민속체험축제 평가보고서(왕곡마을보존회, 2004), 한국의 건축문화재3-강원(박경립, 기문당, 1999).

필자 박경립(林耕立)

정의 다수의 구획된 개별 실들로 독립 구성되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시설.

내용 고시원 考試院은 건축법에서는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 근린생활시설 가운데 다중이용시설로 구분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에서는 준주택으로 분류된다. 고시원이란 명칭이 제도 형태로 사용된 것은 2009년 <다중이용업소법>에서 고시원을 다중이용업소로 규정하면서부터이다. 이 법에서는 고시원을 ‘구획된 실 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고시원을 준주택으로 분류하는 것은 사실상 주거 시설로 이용되는 고시원 등의 건축물에 대한 소음, 피난, 화재 등의 건축 기준을 강화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1970년대 독서실이 식사를 제공하는 형태로 변형되어 대안 주거 역할을 하게 되면서 고시원으로 불리기 시작하였다. 서울 신림동과 노량진동의 고시촌 지역이나 학원 밀집가 등을 중심으로 공급되기 시작하였다. 도입 초기에는 고시생들의 취침을 위한 방으로 이용되어 독립된 취사 공간이나 화장실 등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고시원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점차 저소득층의 숙소로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시설이나 환경이 열악하지만 임대료가 낮아 1인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였고, 학생·직장인과 일용직 노동자들의 대체 주거로 이용되고 있다. 고시원은 독립된 주거가 아닌 복합 주거 형태이며, 다가구주택과 같이 구분 등기가 불가능하다. 2018년 현재 전국 1만 1,620개 고시원 가운데 서울에 5,989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시원은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건설 시 주택도시기금 용자가 가능하다. 고시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용자 조건은 실면적 7~20㎡에 ㎡당 40만원 대출 한도(실당 최저 280만원, 최고 800만원)이다.

특징 및 의의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고시원은 대부분 근린 생활시설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 고시원 형태는 다양하지만 대체로 30~50개의 실로 구획되어 있고, 4~20㎡ 규모의 실별로 1인용 침대와 책상이 비치되어 있으며, 욕실·화장실·식사실·취사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실별로 내부에 화장실과 욕실을 설치하거나 2인 침대를 설치한 고급형도 나오고 있는 등 고시원은 거주자 특성 편차가 넓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반주택의 방을 작게 나누어 세를 주거나 여관 또는 여인숙으로 이용하던 곳을 개조하여 쪽방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고시원 가운데 가장 저렴한 곳이 쪽방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 고시원은 주택이 아니지만 저소득 1인 가구를 위한 저렴한 주거의 하나로 기능하고 있다.

참고문헌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준주택 제도의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김기영,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고시원의 공급·운영관리 실태와 향후 정책 방향(진미윤·최상희, 주택연구26-3, 한국주택학회, 2018), 서울의 준주택 실태와 정책방향(박지영·신상영,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서울연구원, 2010).

필자 천현숙(千賢淑)

골목

정의 큰 길과 연결되어 마을 안 구석까지 연결되는 좁은 길.

내용 길은 지역과 지역을 연결시키고 물자 흐름이 이루어지는 생활공간의 활동 매개체이다. 길은 장소와 장소, 공간과 공간으로의 이동 성격과 기능에 따라 우마차가 다니는 큰길과 작은 길, 생활 속 보행 길 등으로 구분된다. 골목길은 마을 내 구석구석 연결되는 보행 중심의 길이다.

대체로 골목은 지형 조건과 주택의 군집 형태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때문에 인간미와 함께 정겨운 삶의 풍경이 담겨져 있다. 이와 같이 골목길은 이동 통로이자 생활공간과 직결되는 공공장소이며,

도시와 마을 전체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핏줄과 같은 공공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보존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골목길에는 지역 사람들의 오래된 삶의 이야기가 녹아 스며들어 있고 생활무대인 전통주택과 상업 공간들이 혼재되어 독특한 지역 풍경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삶의 풍경, 지역 풍경 크게는 문화 풍경이라 한다. 궁극으로 골목길은 과거와 현재를 담아내는 문화 풍경 공간이다. 이런 골목길을 대표하는 것이 제주의 거친 현무암으로 쌓아 만든 올레이다. 올레는 좁고 구부러진 아늑한 보행 공간이자 연결 공간이다. 제주도의 경우 큰길에서 대문에 이르기까지 구불구불하게 형성된 올레를 따라 들어가게 되는 진입 공간에 5~6가구의 초가집들이 모여 군집을 이루고, 이러한 군집 형태가 다시 마을 전체를 구성하게 됨으로써 아름다운 풍경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골목길의 가치가 절하되어 각종

개발로 사라져 가고 있다. 이는 고유의 지역 풍경이 사라지는 것이며 사람 사는 정겨운 풍경도 사라져 지역 생활, 지역 공동체가 약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 장소가 원도심이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원도심은 비록 초라한 외관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통건축 양식과 공간을 유지한 주거 건축물이 남아 있고, 아름답고 정감 어린 골목길이 남아 있기도 하다. 또한 문화 가치가 있는 근대 건축물 역시 곳곳에 남아 있다.

원도심은 일부 도로 개설 및 복개 등으로 인하여 지적 변화가 있기는 하였으나 전체를 볼 때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특히 골목길의 경우도 상당 부분 길이 확장되고 지적 변경에 따른 건물 건축으로 훼손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다. 또한 마을 내 골목길도 과거에 비하여 많이 훼손되기는 하였으나 골목길이 남아 있어서 마을 고유의 분위기와



한개마을 | 경북 성주 | 최지현

풍경을 보여 주고 있는 등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걷기 열풍을 불러일으킨 제주 올레길은 기존 골목길과 골목길을 연결하거나 새롭게 개척하여 연결한 보행길이라는 측면에서 골목길과는 본질이 다르다. 즉 올레길은 골목길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일정 부분 인위성이 가미된 보행길인 셈이다.

특징 및 의의 골목길 보전을 위해서는 도시재생 혹은 마을재생과 연계하여 골목길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옛길을 보존하고 효율 높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앞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기존의 블록 형태와 과거 골목길의 흔적을 가능한 한 원형 그대로 유지하도록 해서 역사와 문화 흔적을 보존해야 한다. 옛길이 훼손되는 가장 큰 원인은 각종 건물이 건축되면서 관련 법규상 확보해야 하는 주차장 문제 등 복합 요인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도심 내 또는 옛길이 잘 보존된 마을에서 개발 행위를 억제하면서도 지역 여건이 고려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규제와 개발 가능성을 동시에 열어 둘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기존 필지를 합필하는 등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거나 합필이 불가피한 경우 보행 통로 중심으로 건축물을 여러 개의 매스로 분할하는 등 최대한 원래 땅의 조건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골목길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참고문헌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 제주 도시건축을 이야기하다(김태일, 제주대학교출판부, 2008), 제주 속 건축(김태일, 안그래픽스, 2018).

필자 김태일(金泰一)

곶자

정의 주로 치수를 제거나 직각을 가늠하는 데 사용하는 연장.

개관 곶자의 어원은 ‘곶다’에서 찾을 수 있다. 대체로 형태가 곶은 모양을 ‘곶았다’ 또는 ‘곶다’라고 한다. ㄱ자 집을 곶패집이라고 이르는 것도 같은 어원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곶어 있다’고 해서 ‘곶은자’가 ‘곶은자’로 변화되었다. 제주도에서는 ‘곶은자’라고 한다. 한자식 표기인 곡척曲尺이 변화된 말이기도 하다. ㄱ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ㄱ자자’라고도 한다.

내용 곶자는 간단한 치수를 제거나 직각을 잴 때 사용하는 것으로 목수가 소지하고 다닌 기본 건축연장이다. 목수들은 단단하고 질 좋은 나무를 이용하여 곶자를 직접 만들어 사용하였다. 곶자는 부재의 크기를 규칙화해서 가늠하기 좋게 만들어 쓴다. 모양을 보면 길이가 서로 다른 두 개의 나무를 맞추어 ㄱ자 모양으로 만들었다. 긴 쪽을 ‘장수長水’, 짧은 쪽은 ‘단수短水’라 한다. 겹눈 장수에 1.58자, 단수에 0.75자로 그어 장수는 서까래·셋기둥·장선 등을 나누기 좋게 1/4 칸으로 되어 있다. 속눈 장수에는 겹눈 길이를 정방형으로 보고 그 대각선 길이를 10등분하여 매겨 놓았다. 그러므로 겹눈과 속눈의 치수 비는 $1:\sqrt{2}$ 관계가 되는 것이다. 이 겹눈과 속눈을 이용하면 정방형의 한 변 길이로 대각선 길이를 알 수 있고, 대각선 길이로 정방형의 한 변 길이를 알 수 있게 된다. 특히 원목을 제재할 때 이 자를 사용하면 어떤 크기의 정방형 목재를 얻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큰 조영 사업이 벌어지면 무엇보다도 어려운 일이 목재 조달이다. 어느 산에 어느 정도 크기의 나무가 얼마나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목수가 각 지역의 목재 정보를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집 짓는 일의 성패를 가름한다. 대목이 목재를 구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대목이 목재를 구하러 다닐 때 몸에 꼭 지니는 것이 바로 곶자이다. 곶자는 대부분 대목 자신이 직접 만들어 사용한다. 만드는 재료는 주로 목재이다. 참나무, 느티나무, 참중나무와 같이 단단하고 결이 고운 목재가 사용되었다. 곶자를 만들 때 장수와 단수 두 개의 나무를 ㄱ자로 맞춰서 고정시킨다. 이때 곶어지는 모서리가



곶자 | 길이27 너비45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측정 | 1997 | 국립무형유산원

흔들리거나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곶자는 반드시 직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곶자는 길이를 재는 기능도 있지만 직각을 표시하는 기능도 있다. 그래서 장수와 단수가 움직이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곶자 가운데에는 치수 눈금이 없는 것도 있다. 이것은 직각만 재거나 표시하는 곶자이다. 주로 가구를 만드는 소목장이나 창호장이 사용한다.

장수와 단수를 연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그 가운데 하나는 장수와 단수가 이어지는 부분을 각각 반턱으로 깎아 아교로 접목한 다음 접목된 부분에 송곳으로 작은 구멍을 네 군데 뚫어서 나무못을 박아 고정시키는 방법이다. 또 하나는 장수와 단수의 폭은 같지만 두께를 다르게 만들어서 연결하는 방법이다.

흔히 장수를 두껍게 하여서 단수가 연결되는 부분에 홈을 판 다음 단수를 홈 사이에 직각으로 끼워 아교로 고정시키는 방법이다. 이것 역시 접목되는 부분에 네 개의 작은 나무못을 박아서 단단히 고정시킨다.

특징 및 의의 곶자는 크기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다. 곶자는 정해진 크기가 없지만 보통 긴 쪽 길이를 한 자 또는 한 자 반으로 만든다. 큰 것은 대목들이 흔히 사용하는 것이고, 작은 것은 대개 가구를 만드는 소목들이 사용한다. 재질은 목재가 가장 흔하고, 간혹 쇠로 만들어 쓰기도 한다. 조선시대에는 보통 나무로 만들어 사용하였으나 일제강점기 때는 쇠로 만든 것을 많이 사용하였다. 간혹 대나무로 만든 것도 있었다. 곶자는 먹통과 함께 대목에게 필수 연장이다. 이 자는 어딜 가더라도 꼭 지니고 다닐 정도로 대목에게는 필수품과 같은 건축연장이다. 심지어 먹통보다 더 가까이 두는 건축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한국고대의 척도(이우태, 태동고전연구1, 태동고전연구소, 1984), 한국의 건축연장 연구1·2(이왕기, 목원대학교논문집7·8, 목원대학교, 1984·1985)

필자 이왕기(李王基)

곶간

정의 곡물이나 물건을 넣어 두는 간.

개관 곶간[庫間]은 광·고방庫房·창고倉庫 등으로 불리며, 수납되는 물건에 따라 곡간穀間·토광土壙 등으로도 구분된다. 곡간은 벼·보리와 같은 곡식을 넣어 두는 간이며, 토광은 마루를 깔지 않고 흙바닥을 그대로 둔 광을 말한다. 고방은 바닥을 마루가 아닌 온돌로 꾸미고 온갖 물건을 넣어 두는 방을 말하지만 지역에 따라 곡물을 보관하는 저장공간의 부속사로서 마루방으로 꾸미기도 한다.



곳간 | 경북 안동 하회 북촌택 | 서현강



곳간 | 경기 용인 한국민속촌 | 국립민속박물관

곳간

내용 곳간은 대체로 행랑채 또는 대문채 등에 설치된다. 남부지방 농가에서는 주택 부지 내에 독립된 건물로 짓는다. 또 종류 이상의 주택은 행랑채 이외에 사랑채나 안채 등에 접하여 짓는 경우도 많다. 이들 곳간의 수납 대상을 대별해 보면 곡물고, 농기구고, 식료품고 등이 있다. 농기구고와 곡물고는 바닥면을 흙바닥으로 하는 것이 많고, 창고 출입은 보통 한 쪽이나 두 쪽 판문(板門)으로 한다. 식료품고는 된장, 간장, 기름이나 기타 조미료 등을 넣는 창고이다. 대부분은 벽체를 판벽(板壁)으로 하고 바닥은 높이가 낮은 마루 구조로 되어 있다. 내부에는 선반을 설치한다. 이는 습기를 막기 위해 지면으로부터 사이를 두는 것이다. 서적이나 사용하지 않는 가구류를 보관하는 특수 용도의 창고는 바닥을 다른 일반 방과 같은 높이로 하고 마루 구조로 한다. 출입문은 판문으로 하는 것이 많다.

일반 농가의 경우 곳간은 1~2칸으로 된 토광과 여기에 접하여 측간과 잣간을 겸한 건물이 있는 정도이다. 부유한 농가는 곡물고와 농기구고가 추가되고, 종류 이상의 주택에서는 곳간의 종류와 수가 한층 더 많아진다. 종류 이상 주택의 경우 농기구고와 비료고 등은 가장 외측, 즉 사랑채 바깥쪽으로 이어진다. 곡물고는 사랑채에 이어서 짓거나 안마당을 통하여 출입하도록 한다. 식료품고는 반드시 부엌에 인접하여 짓는다. 북부지방이나 제주도의 경우에는 식료품, 곡물 등의 곳간은 안채 안에 마련된다. 이것은 田자형

평면으로 된 주택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뒤쪽 2실이 이에 해당하며 고방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이러한 주택의 경우 규모가 큰 주택에서는 뒤쪽 방도 기거공간으로 사용되고, 고방은 부엌을 중심으로 방의 반대 측에 이어진다.

중국 지린성 지안현 압록강가의 고구려 고분벽화 등에는 소창(小倉)으로 보이는 부경(桴京)의 쌍창(雙倉) 건물이 묘사되어 있다. 이런 것으로 보아 고구려 중기에는 이미 고상식(高床式)과 비슷한 유형이 나타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귀틀집 형태의 북방 고상식 집은 이와 같이 곳간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채택된 것으로 보인다.

특징 및 의의 조선 효종 때의 학자 이유태(李惟泰, 1607~1684)는 이상형의 집에 대해 서술한 『초려집(草廬集)』에서 중옥(重屋)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곳간의 규모와 형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침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초가인 중옥을 세우되 3칸 중에 2칸은 곳간(庫間)이어야 하고 나머지 1칸은 헛간으로 하여 땀나무 등을 쌓아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정조~순조 연간의 실학자 서유구(徐有榘, 1764~1845)가 지은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 따르면 창고를 지을 때는 반드시 창고 앞에 위치한 뜰이나 마당에 흐르는 물이 문을 향하도록 해야 길하다고 하였다. 갑(甲), 병(丙), 경(庚), 임(壬)의 네 방향을 이용하되 평상시 방문을 열면 5 내지 6길(丈)쯤 떨어진 곳에 창고가 위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참고문헌 산수간에 집을 짓고(서유구, 안대회 역, 돌베개, 2009), 한국건축대계4-신편 한국건축사전(장기인, 보성각, 2005), 한국의 살림집(신영훈, 열화당, 1983), 한국주택사연구(김정기, 국립문화재연구소, 2017),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stdict.korean.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남호현(南虎鉉)

공동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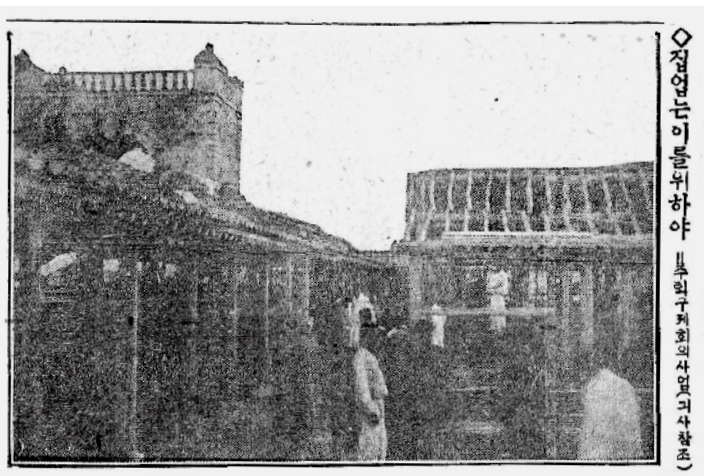
共同住宅

정의 한 개 건축물의 공용 부분인 대지, 벽, 복도, 계단 및 주요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세대마다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된 주택.

개관 우리나라에서 공동주택共同住宅의 출현은 근대화로 인한 도시 인구집중과 관계가 깊다. 1960년대 초에 도시의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층아파트단지 개발이 시작되었고, 이렇게 시작된 아파트는 공동주택의 대명사가 되어 중산층 도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였다. 공동주택은 토지의 효율적 사용, 경제적 구법, 대량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하여 도시의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였다. 공동주택은 공용·전용 공간과 시설이 있어 건물의 구분 소유, 주민의 공동 거주, 관리의 공동화를 특징으로 한다. 건축물은 같은 시기에 지어지

고 같은 시기에 철거되어야 하는 공동운명체이기도 하다. 공동주택은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같은 단지에 거주하면서 관리, 처분, 재건축 등 일련의 과정을 공유하게 된다. 생활 측면에서도 특징이 있다. 공동주택은 비슷한 계층의 주민, 주택 가격 등 공동 경제의 이해관계, 주민 시설의 공유, 부녀회나 입주자 대표회의 같은 주민 조직, 공동의 관리규약 등 공동체 활동에 매우 유리하다.

내용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은 구분소유가 가능한지 여부이다. 즉 단독주택은 집주인이 한 명인 데 반해 공동주택은 집주인이 여러 명이다. 공동주택의 건축 특성으로는 주호 내에서 거주자의 개인생활이 자족하며 영위되고 밖으로는 공동의 생활을 위한 생활공간, 즉 관리사무실·놀이터·경로당·주차장 등이 별도로 만들어지는 특징을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공동주택의 정의와 범위는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다. 건축법상 ‘공동주택’이란 하나의 건축물을 여러 세대가 구분하여 소유·사용하는 주택을 뜻한다. 공동주택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에 의해 정해진다. 2019년 3월 12일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공동주택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다섯 개 층 이상인 주택이다. 둘째,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한 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네 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셋째,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한 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네 개 층 이하인 주택(두 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이다. 넷째,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이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한 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이다. 빌라, 맨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아파트보다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하여 일부 건축주들이 사용한 명칭으로, 건축법에는 없는 용어이다.



주택구제회의 간편주택(백이간 신주택) | 1921.12.1 | 동아일보

특징 및 의의 공동주택은 기존 주택의 변화로 주택의 분할 거주가 이루어진 형태와 외래 주거 형식이 유입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과 같은 형태로 구분한다. 1920년대 분할 거주 형태에서 파생된 독립된 행랑채형 건물에서 생활하는 주거 형식을 행랑식 공동주택이라 하였고, 이를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시작으로 본다. 행랑채는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곳으로, 행랑살이는 주인과 행랑채 거주자 사이에 일종의 관계가 형성되어 주인은 거주자를 부양하고 거주자는 주인집 일을 거드는 것이 상례였다. 초기의 행랑식 공동주택은 큰 한옥의 행랑채에서 시작하여 공동주택 성격이 다소 부족하였지만 점차 행랑채 형태의 독립된 공동주택이 확산되었다. 즉 조선시대 머슴이 살던 행랑채가 일제강점기 근대화의 물결 속에 신분에 종속된 형태가 아닌 자유계약 형태로 바뀌면서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주택으로 변모되었다는 것이다. 행랑식 공동주택의 예로는 경성 교북동에 지은 주택구제회의 간편주택을 들 수 있다. 거주공간 외에 탁아시설을 갖추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아파트형 공동주택이 등장한 것은 1930년대로, 주택 부족을 기업체나 기관이 직접 해결하도록 한 기숙사형 아파트였다. 이때부터 아파트는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대명사가 되었다. 1960년대 공동주택은 서민을 위한 시민아파트, 단지형 아파트, 중산층을 겨냥한 민간아파트 등이 단지로 개발되었다. 또한 상가·오피스와 공동주택의 주상복합시설도 개발되었는데 세운상가, 낙원아파트가 대표 사례이다. 이들은 도시의 주요한 경관을 이루면서 서울이 근대 도시로 빠르게 변화하는 데 한몫하였다. 1960년대에는 미국 공병대로부터 건축기술을 이전 받은 한국인 건축기술자에 의해 지어진 고층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주택 현황에서 1990년 초 대비 단독주택은 감소하는 반면에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비거주용건물 내 주택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후 한국의 공동주택 수는 총 주택의 70%에 이르고 있다. 도입 후 80여 년의 짧은 기간에 공동주택이 한국의 대표 주거 형식으로 자리 잡은 것은 생산

기술 진보와 거주자의 생활양식에 맞도록 노력한 토착화에 기인하기도 한다. 하지만 <주택건설촉진법> 제정 등 정책 뒷받침도 큰 몫을 하였다. 박철수와 주거학연구회는 우리나라 아파트 변천을 저소득층 주택 또는 질 낮은 주택의 이미지로 여겨지던 1960년대 아파트, 중산층의 주택으로 여겨지던 1970년대 아파트,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 이미지를 강화시킨 1980년대 아파트, 잠재된 욕망의 분출구로 변모하기 시작한 1990년대 아파트, 소비자 맞춤형 브랜드화가 등장한 2000년대 아파트로 설명하였다.

참고문헌 넓게 보는 주거학(주거학연구회, 교문사, 2005), 아파트에 미치다(전상인, 디자인 하우스, 2009), 아파트의 문화사(박철수, 살림출판사, 2007), 조선주택영단의 주택에 관한 연구(천단공,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한국 공동주택 변천에 관한 고찰(윤인석·정순영, 한국건축역사학회11-2, 건축역사연구, 2002),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두산백과사전(doopedia.co.kr).

필자 김선중(金仙中)

공유주택 共有住宅

정의 거주자들이 모임, 식사, 세탁 등을 하는 공간 및 시설을 함께 사용하며 거주하는 주택.

개관 국내에서 공유주택共有住宅은 2010년대 이후 대도시의 주택 가격 상승으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주거 소유가 어려워지면서 대안 주거를 모색하며 시작되었다. 사회 전반에 걸친 공유경제 확산 영향으로 주거공간에 공유를 적용하여 공유공간 common space을 구성함으로써 가구당 건축 면적을 줄이는 한편 이웃 간 유대를 통한 공유공간의 일상 사용으로 현대의 다양한 가구가 처한 소통 부재로 인한 외로움, 가사 부담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공유공간을 구성하는 방식은 두 방향으로 나타났다. 한 방향은 1970년대 덴마크에서 시작된 현대식 개념의 공동체주거인 코하우징cohousing 또는 컬렉티브하우스collective house로 불리는 완결된 개별 단위주택에 공유공간을 구성하는 계획 개념을 도입한 것이

다. 다른 방향은 수도권 중심으로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문제가 사회 문제화되면서 민간에서 주거비를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단위주택에서 방은 독립 형태로 사용하고 거실, 주방, 화장실은 함께 사용하는 셰어하우스로 공급하는 것이다. 공유주택은 민간에서 시작되었지만 점차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도 코하우징형과 셰어하우스형이 적용되었다.

내용 거주자가 공유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은 코하우징형과 셰어하우스형으로 구분된다. 코하우징형은 미국 코하우징협회의 코하우징 6대 원칙의 적용을 기본으로 한다. 즉 계획 과정에서 주민 참여, 주민 교류를 위한 환경 디자인, 개별주거를 보완하는 공유시설, 주민에 의한 관리, 주민 간 비계층적 구조, 의사결정의 합리성, 공동경제 활동을 목표로 하지 않는 것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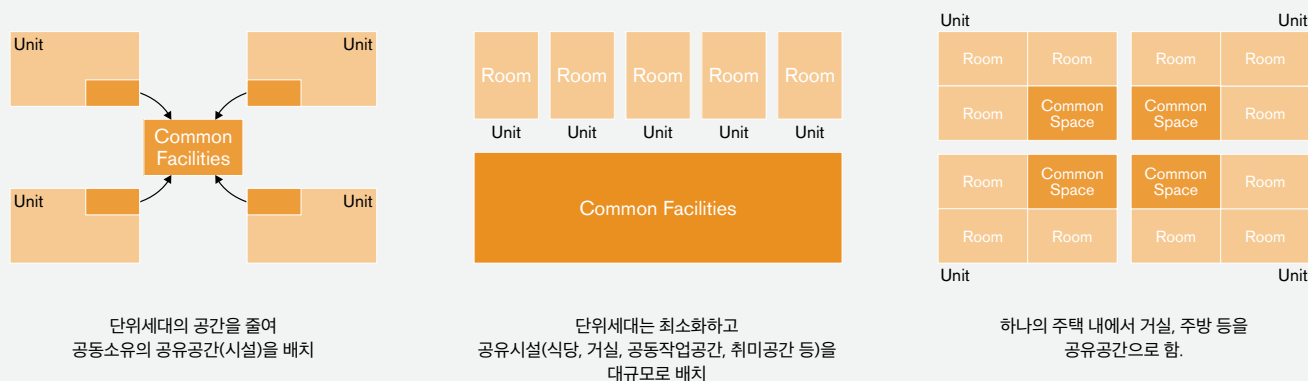
국내에서 공유공간이 있는 주택에 대해 제도상의 정의가 내려지기 전에는 코하우징, 공동체주거, 공유주택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였다. 정책 차원에서는 공유주택 공급 촉진을 위하여 자치 법규인 조례에 공동체주택과 공유주택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다.

서울시는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한 주거 지원을 위해 2017년 7월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및 시행하면서 공동체주택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즉 ‘공동체주택’을 “입주자들이 공동체공간과 공동체규약을 갖추고, 입주자 간 공동 관심사를 상시적으로 해결하여 공동체 활동을

생활화하는 주택”으로 정의하였다. 이 정의에 해당하면 코하우징형이나 셰어하우스형 모두 공동체주택에 해당한다.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셰어하우스의 공간 구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의하였다.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2016.12.3. 시행)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 가구 기본 조례>(2017.5.15. 시행)에서 셰어하우스와 공유주택을 동일한 의미로 보았고, “공동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 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으로 정의하였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1.16. 개정)에서도 ‘공유형 민간임대주택’을 “가족관계가 아닌 2인 이상의 임차인이 하나의 주택에서 거실·주방 등 어느 하나 이상의 공간을 공유하여 거주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임차인이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정의하였다. 공공과 민간에서 1인 가구, 청년층을 위한 주거 공급의 물량 확대가 급증하면서 하나의 주택에 비혈연 관계에 있는 다인수가 거주하는 평면 구성의 선호도가 낮아 공간 구성이 변화되고 있다. 제도로 규정한 공유주택 정의보다는 가구당 면적은 최소화하고 공동의 식당, 거실, 취미공간, 작업공간 등을 대규모로 배치하여 생활을 공유 co-living하면서 공동 작업을 하는 co-working 주거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특징 및 의미 공유주택은 건축법이나 주택법에 정의되지



얇은 주택 유형이다. 1인 가구 증가, 고령사회 도래, 도시의 주택가격 상승, 청년층의 주거문제 등 사회 배경에 의해 이러한 상황을 먼저 경험한 국가에서 나타난 주택 유형이 국내에 적용된 것이다.

공유주택은 코하우징형과 셰어하우스형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공간계획 개념, 후자는 다인수 거주 방식에 특징이 있다. 코하우징형에는 개별 단위주택의 거실·부엌의 공적 공간을 축소하는 대신 여러 가구가 사용하는 공유공간을 넓게 확보해서 이 공간을 매개로 생활을 공유하고자 하는 공간계획 개념이 적용된 것이다. 셰어하우스형은 비혈연 가구가 하나의 주택에서 거실, 주방 등 어느 하나 이상의 공간을 공유하는 다인수 거주방식이다.

가구별 전용공간을 축소하여 건축비를 줄이면서 개인이 일상에서 공유공간을 사용함으로써 실제 이용하는 공간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고, 공유공간에서 이웃과의 교류로 공동체의식을 형성하여 일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상호 지원할 수 있는 점을 추구한다.

참고문헌 공동체주거 현대적 확대가족의 삶(박경옥, 건축60-6, 대한건축학회, 2016), 공유주택 공급 및 계획기준 설정 방안연구(김도연,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6-1, 한국주거학회, 2015),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필자 박경옥(朴庚玉)

공인중개사 公認仲介士

정의 <공인중개사법> 제2조에 의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나 건축물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사람.

내용 공인중개사公認仲介士는 <공인중개사법> 제2조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에 대하여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이를 중개보수라 하며, 중개보수 요율은 시·도 조

례로 정하고 있다. 현대에는 단순한 중개물 소개에서 벗어나 대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부동산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인중개사 전문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입법 취지로 1983년에 제정된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이 처음 생겼다.

공인중개사에 관한 법률은 2015년 <공인중개사법>으로 변경되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업을 하려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시·도지사가 시행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격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시험과목, 방법, 시험의 일부 면제 등 시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험은 1·2차로 나누어 1차 시험에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운데 부동산 중개와 관련되는 규정을 치른다. 2차 시험 과목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등이다. 1985년 9월 제1회 공인중개사시험에 의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6만여 명의 공인중개사가 탄생하였다. 2019년 현재 자격증 소지자는 40만 명이 넘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10만 6,000명이다. 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중개보수라는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또한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중개 대상물의 권리 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나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등 다른 업무를 함께할 수 없도록 겸업 제한이 적용된다. 또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나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때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특징 및 의의 공인중개사 시장이 포화 상태에 접어든 상황에서 매년 신규 자격자가 배출되고 있고, 변호사도 중개법인을 설립하여 중개업에 진출하고 있으며,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발달 등으로 인한 직거래 확대와 ‘직방’, ‘다방’ 등 부동산 포털 등장으로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에 대한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중개업의 업무 범위도 과거의 단순한 중개에서 벗어나 대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부동산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인중개사 전문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참고문헌 공인중개사 제도발전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국정연구회, 2013),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필자 천현숙(千賢淑)

공포 工包

정의 건축물의 기둥부와 지붕부 사이에 가로로 덧댄 구조물.

개관 공포工包는 기둥머리에 설치해서 상부 지붕의 하중을 받도록 설치한 구조물을 말한다. 일찍이 공탑工

塔, 공답工踏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각각의 평주 상부에 공포를 설치해서 기둥부 위에 가로로 높이가 일정한 띠를 최종 형성하기 때문에 ‘공포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기둥 상부의 수평 띠는 고대 서양의 건축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부분을 엔타블러처 entablature라고 한다. 기둥머리에 엔타블러처를 설치하면 그만큼 건물의 높이가 높아져서 훨씬 당당한 건축물이 구축된다. 그리고 이곳에 고대 신화 장면을 조각한다거나 화려하게 꾸며 장식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서양건축의 엔타블러처나 동양건축의 공포대는 모두 수직으로 건물의 높이를 높여 주고, 최대한의 장식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면에서 일맥상통한다.

그런데 동양건축의 공포대는 엔타블러처와 다른 큰 차이점이 있다. 동양은 서양과 다르게 처마를 길게 외부로 돌출시키는 특징이 있다. 평주 바깥으로 처마를 내밀어서 건물 내부로 직사광선이 들이치지 못하게 한다. 하지만 처마의 돌출 정도는 정해져 있어서 한 없이 처마를 내밀 수 없다. 이때 공포대를 사용하면 평주에서 공포가 돌출한 길이만큼 처마를 외부로 더 노출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물에 공포를 사용하면 수직으로는 건물의 높이를 높일 수 있고, 수평으로는 처마를 외부로 더 확장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건물의 격을 높여 주는 화려한 장식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내용 공포를 구성하는 대표 부재로 주두柱頭, 소로[小露], 小累, 첨차簷遮, 살미[刹尾, 山彌]를 들 수 있다. 이 외에 장혀, 화반, 보머리 등도 공포의 결구에 관여한다. 주



근정전 | 서울 종로구 경복궁 | 국립민속박물관



석조전 동관 | 서울 중구 덕수궁 | 문화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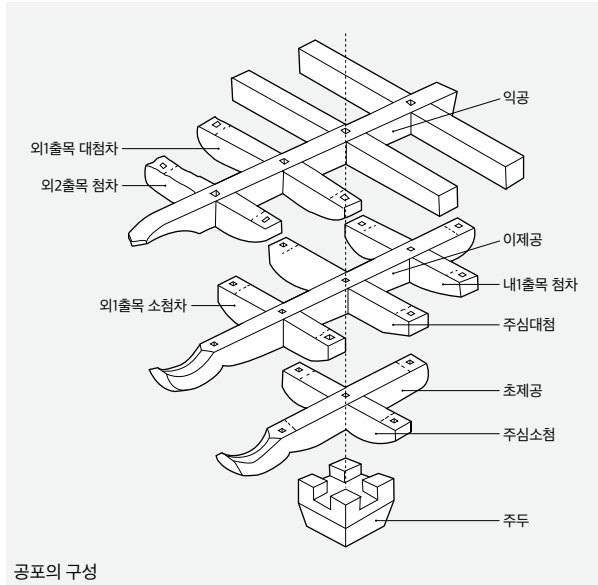


충남 공주 마곡사 대웅보전 |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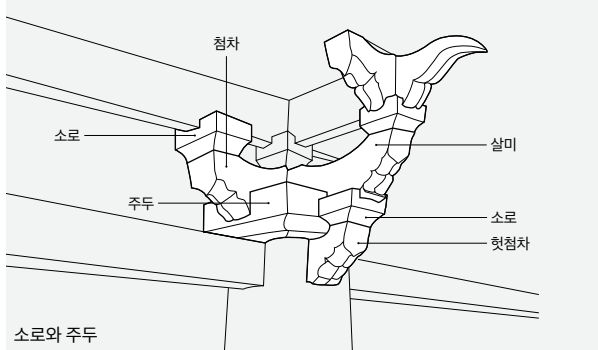


외2출목 공포 | 경북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 2017

공포 | 이연노



공포의 구성



소로와 주두

공포 | 그림으로 보는 한국건축용어 | 김왕직·발언

두, 소로, 첨차, 살미 등의 부재를 조합해 만든 1조組의 공포를 건물에 어떻게 배치하는지에 따라 주심포식 柱心包式과 다포식 多包式으로 구별한다. 주심포식 건축물은 1조의 공포를 기둥 위에만 사용한 방식이고 다포식 건축은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여러 조의 공포를 배치한 방식이다. 주심포 건축으로는 수덕사 修德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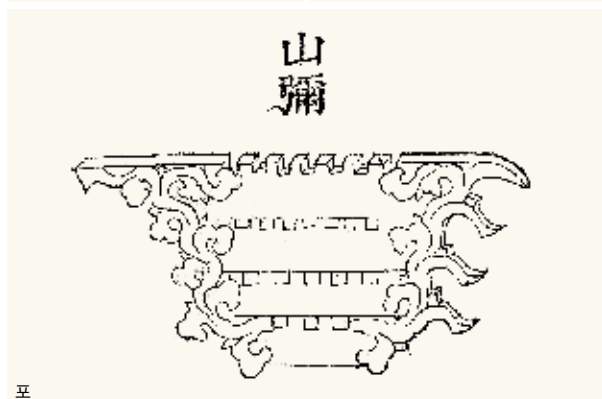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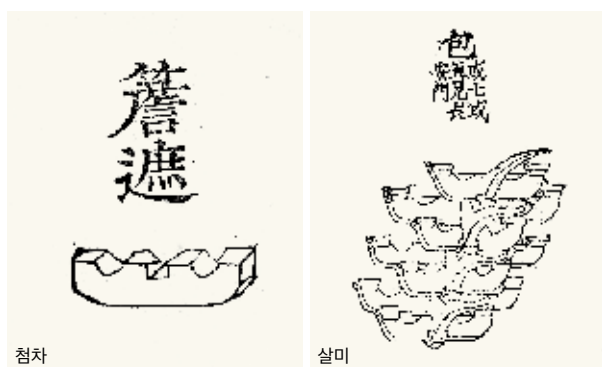
대웅전, 부석사 浮石寺 무량수전을 대표로 들 수 있다. 다포 건축 대표 사례로는 승례문 崇禮門과 봉정사 鳳停寺 대웅전 大雄殿을 들 수 있다.

주두와 소로는 같은 형태를 하고 있다. 단지 크기에서 차이가 있다. 주두와 소로 아랫면에는 작은 구멍을 뚫어 이곳에 목재 축을 꽂아 하부 부재와 접합한다. 윗면에는 다른 부재를 꽂을 수 있도록 길게 홈을 만든다. 이를 ‘갈’이라고 한다. 이곳에 첨차 또는 살미를 꽂아 이들 부재가 제자리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잡아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윗면에 하나의 홈을 만든 경우 중심에서 좌우 양쪽으로 같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양갈’이라고 부른다. 또 두 개의 홈을 만든 경우는 중심에서 네 방향으로 같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네갈’ 또는 ‘사갈’이라고 부른다. 귀포의 경우 여러 부재가 소로 상부에서 동시에 결구하기 때문에 양갈소로나 네갈소로와 같이 갈을 만들 경우 조립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때는 소로 상부에 아무런 갈을 만들지 않고 갈의 깊이만큼 모두 제거한 소로를 사용한다. 이를 ‘접시소로’ 또는 ‘대접소로’라고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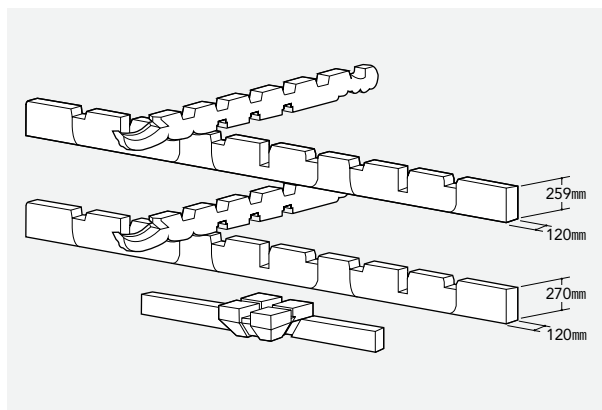
주두나 소로는 높이의 중간 정도를 기준으로 상부와 하부 형태가 다르다. 상부는 수직으로 잘라 육면체 형태를 하고 있다. 반면에 하부는 경사지게 잘라 뿔 형태로 만든다. 하부의 뿔 부분을 ‘굽’이라고 한다. 굽의 가공 형태는 시기마다 큰 차이가 있다. 총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1. 가장 오랜 방식은 굽을 곡선으로 깎은 다음 굽 하부에 높은 방형의 목재를 덧대 만든 것이다. 고구려의 고분벽화에서 이런 모습의 주두를 발견할 수 있다. 현존하는 사례로는 일본 나라 奈良에 있는 호류지 法隆寺와 호키지 法起寺의 건물들을 들 수 있다.

2. 통일신라시대 공포에 사용한 굽은 고구려 방식과 유사하지만 굽 하부에 굽받침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의성 탑리 오층탑, 불국사 佛國寺 다보탑 多寶塔과 청운교 靑雲橋·백운교 白雲橋 난간 부조에서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과 일본에 남아 있는 8~9세기 목조건축물의 주두와 소로도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목조건축물로서 유일하게 봉정사 극



공포 | 화성성역의궤 | 1801 | 국립중앙박물관



첨차와 살미의 조립 | 서울 종로구 경복궁 근정전 | 정연상

락전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다.

3. 현존하는 고려시대 건축물의 주두와 소로는 굽받침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고구려 고분벽화에서와 같이 두 개의 부재가 아니라 굽 하부에 높이가 낮고 밖으로 약간 돌출한 형태로 굽을 조각하는 방식이다. 수덕사 대웅전, 부석사 무량수전 등에서 사용한 방식이다. 중국의 송나라 건축물에서도 유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4. 조선시대에 와서는 더 이상 굽을 곡선형으로

가공하지 않았다. 굽을 사각뿔대 모양으로 단순하게 가공하였고 더 이상 굽받침을 만들지 않았다.

주두 위에는 첨차와 살미라는 넓은 나무판을 층층이 쌓아 올려 공포를 만든다. 첨차는 도리 방향, 즉 벽체 방향으로 쌓아올린 부재를 말한다. 살미는 보 방향, 즉 벽체에서 돌출하는 방향으로 쌓아 올린 것이다. 따라서 살미와 첨차는 서로 직각으로 만나게 된다. 두 부재가 만나는 부분은 각각 높이의 절반 정도를 잘라 내어 서로 결합시킨다. 통상 살미는 목재의 하단을 잘라 내고 첨차는 목재의 상단을 잘라 낸다. 통일신라시대에는 살미와 첨차 형태가 매우 유사하였다. 경주 월지月池에서 발굴된 공포 부재를 살펴보면 첨차와 살미 모두 마구리 하단을 세 번 정도 비스듬하게 잘라서 마감하였다. 이런 모습은 당나라 건축물에서도 확인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첨차와 살미는 각각 나름대로 형태가 변하면서 전혀 다른 모양을 띠게 되었다.

첨차는 외형에 따라 크게 연화두형蓮花頭形과 교두형翹頭形으로 나뉜다. 연화두형은 첨차의 양단에 화려한 꽃 모양을 조각草刻한 첨차를 말한다. 형태가 S자를 닮은 곡선이 겹쳐 있다고 해서 ‘쌍S곡선’이라고도 부른다. 반면에 교두형은 첨차의 양쪽 끝 하단을 원호 모양으로 조각한 매우 단순한 형태의 첨차를 말한다. 주심포 건축의 경우 첨차 사용이 극히 제한된다. 따라서 공포를 구성하는 부재들 모두 화려하게 조각하는 경향이 있다. 첨차 역시 화려하게 조각하기 때문에 연화두형 첨차는 주심포 건축에서 주로 사용한다. 반면 다포 건축은 1조의 공포에 매우 많은 첨차를 사용한다. 이때 중첩되는 모든 첨차를 연화두형으로 조각할 경우 장식이 지나쳐서 건물의 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까닭에 다포 건축에서는 대부분 교두형 첨차를 사용한다.

살미에는 쇠서[牛舌]라는 부분이 덧붙여졌다. 쇠서는 살미 외단의 형태가 소의 혀와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쇠서는 하양下仰이라는 공포 부재의 형상을 본뜬 것으로 추측된다. 특정 시기 이후 하양이라는 공포 형식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그 형태만을 살미에 덧대 조각한 것이 후대에도 계속 남아 있는 것

이다. 하양은 보 방향으로 경사지게 설치해서 끝부분을 뽕족하게 마감한다. 하양의 끝 모양을 조각한 살미의 쇠서를 ‘수서[垂舌]’라고 부른다. 봉정사 대웅전, 개심사[開心寺] 대웅보전과 같이 여말선초에 지은 다포건축에서 볼 수 있는 살미 형태다. 조선 중기에 이르면 쇠서 형태가 변하기 시작한다. 더 이상 살미 끝을 수서형으로 마감해야 할 이유도 사라졌다. 쇠서의 끝을 아래 방향으로 곧게 만드는 대신 동그랗게 말아 올려 마치 덩굴 모양을 형상화한 것으로 변화했다. 이런 형태의 쇠서를 ‘양서[仰舌]’라고 부른다. 17세기에 건립한 많은 건물에서 이런 모양의 쇠서를 볼 수 있다. 이후 양서형 쇠서도 형태가 변하기 시작하였다. 살미 끝에 덩굴 모양만 남기고 깎아 내던 부분에 꽃봉오리를 조각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쇠서 상부와 하부 구석에 작은 꽃봉오리를 조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깎아 냈다. 이런 까닭에 기존의 양서형과 형태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내 꽃봉오리가 꽃을 피우기 시작하였고, 19세기에 이르면 살미 끝에 만개한 꽃이 조각되었다. 그 결과 앞 시대의 살미와 전혀 다른 형태의 모양을 띠게 되었다. 쇠서는 시대에 따라 계속 변화하였기 때문에 건축물의 건립 시기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공포의 최상단 바깥쪽 끝에는 외목도리[外木道里]를 설치한다. 이 외목도리가 처마의 하중을 최종적으로 지지한다. 외목도리 바깥쪽으로 돌출한 처마는 일정 거리 이상 길게 만들 수 없다. 공포 사용으로 처마가 더 확장된다고 한 것은 결국 외목도리를 설치한 결과이다. 외목도리가 평주에서 얼마나 외부로 돌출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출목[出目]’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외목도리가 훨씬 많이 돌출하려면 공포에 더 많은 살미, 첨차, 소로를 사용해야 한다. 길이가 긴 하나의 살미만으로 외목도리를 지지하면 부재가 쉽게 부러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최하단의 살미를 가장 짧게 만들고, 그 위에 놓이는 살미는 약간 길게 만들어서 계속 중첩하였다. 살미를 중첩할 때 살미가 제 자리를 이탈하지 못하도록 소로를 설치한다. 외목도리 위치까지 소로가 몇 번에 걸쳐 설치되었는지에 따라 출목 수를 따진다. 주심포 건축물은 출목 수가 외2

출목 이상인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 반면 다포 건축물은 건물마다 출목 수가 다양하다. 현재 출목이 가장 많은 건축물은 서울 조계사[曹溪寺] 대웅전으로, 외5출목을 이루고 있다. 17세기 건축물들은 1출목의 길이를 1자(약 30cm)로 설정한 경우가 많다.

특징 및 의의 건축물에 공포를 사용하면 건물의 높이가 높아지고, 처마를 외부로 더 확장할 수 있으며, 건물의 격을 높여 주는 화려한 장식 효과를 더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아주 오래전부터 공포의 사용은 엄격하게 규제되었다. 통일신라시대 건축법을 기록한 『삼국사기[三國史記]』 옥사조[屋舍條]에도 출신 성분에 따라 공포 사용을 규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진골[眞骨]은 설치할 수 있지만 육두품 이하는 ‘공아[拱牙]’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였고, 오두품 이하는 ‘화두아[花斗牙]’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였다. 공아와 화두아가 어떤 형태의 공포인지는 학자마다 다른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공포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조선시대 역시 일반 건축물에 공포 설치를 엄격히 규제하였다. 1431년(세종 13)에 실시한 가사규제[家舍規制]에는 “주춧돌을 제외하고는 숙석[熟石]을 쓰지 말고 화공[花拱]과 진채단청[眞彩丹靑]을 쓰지 말며 되도록 검소하고 간략한 기풍을 숭상하되, 부모가 물려주거나 사들인 가옥, 외방에 세운 가옥, 사당 등은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이들 중에 화공이 공포에 해당한다.

참고문헌 고려말 조선초 다포건축 공포의 결구 특성에 관한 연구(이연노·주남철,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19-8, 대한건축학회, 2003), 고려말 조선초 주심포건축 공포의 결구특성에 관한 연구(이연노, 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건축역사학회, 2018),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김왕직, 동녘, 2007), 지혜로 지은 집 한국 건축(김도경, 현암사, 2011).

필자 이연노(李演魯)

광창 廣窓

정의 벽 높은 곳 또는 문 상부에 가로로 길게 설치하는 창.



광창 | 주택문화사



개관 광창은 ‘廣窓’ 또는 ‘光窓’이라고 표기하며, 바라지창 또는 망창望窓, 사창斜窓, 교창交窓, 고창高窓이라고도 부른다. 광창을 ‘廣窓’으로 쓸 경우, 외벽면이나 전후퇴 고주열高柱列의 분합 상부에 가로로 길게 설치하는 창문을 일컫는다. 조선시대 영건의궐에서는 ‘廣窓’의 용례가 자주 보이나 ‘光窓’ 표기는 없다. 광창은 문 위 상인방과 지붕면 사이의 좁은 곳에 설치되기 때문에 자연히 세로변이 짧고 가로변이 넓은 모양으로 만들어지며, 넓을 광廣 자는 이 때문에 쓰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 벽이나 문 위 높은 곳에 설치된다는 사실 때문에 고창高窓으로 부를 수도 있겠는데, 장기인의 『창호』(1993)에는 이 이름으로 실려 있다. 한편 ‘바라지’는 17세기의 『창덕궁수리도감의궤昌德宮修理都監儀軌』와 『저승전의궤儲承殿儀軌』에서만 ‘波羅地’, ‘波羅池’, ‘把羅知’ 등으로 표기되었을 뿐 그 밖의 영건의궐들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光窓’으로 표기할 경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광창光窓을 주로 불박이 창호로 한정하여 정의하고 형태에 따라 살광창, 격자광창, 아자광창, 교창, 투공광창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 중 앞의 셋은 사용된 살창의 형태(세로살, 격자살, 아자살) 분류에 따른 것이고, 교창은 광창廣窓과 통한다. 투공광창은 부엌 등의 관벽에 쓸 널빤지를 미리 적절한 형태로 오려낸 후 벽을 짤 때 짜 맞춘 형태이다.

내용 광창은 외벽이나 출입문 윗부분에 만들어진다. 특히 건물 바깥쪽에 뒷간이 있고 그 안쪽의 고주칸高柱間에 출입문이 달리는 경우, 그 출입문 위에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출입문을 기둥에 맞춰 너무 높게 만드는 것이 실용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적절히 분절하는 것이다. 실내의 천장 반자가 출입문의 상인방과 맞물릴 경우 광창은 천장 반자 위의 공간, 즉 다락과 연결되어 쓰이게 된다. 가로변 너비를 문틀 전체의 너비와 같게 할 경우, 문틀 너비가 너무 길면 둘이나 셋으로 등분하여 만들기도 한다. 광창이 채광만을 위하여 쓰일 때에는 불박이 형태로 만들 수도 있지만, 통풍 등의 기능을 위해서 열리도록 하려면 위로 들어서는 벼락달이나 여러 짝의 미세기 형태로 만들 수도 있다.

광창 중에서 살대가 빗살로 짜인 것을 1900년대 이전의 영건의궐에서는 따로 구분하여 ‘사창斜窓’이라 표기했는데, 사묘의 정전이나 궁궐의 본 건물에 주로 쓰였다. 사창은 1900년대의 영건의궐에서는 사라지고 같은 의미로 ‘교창交窓’이란 용어가 쓰이게 된다. 단순한 교살로만 이루어진 교창뿐만 아니라 아자살이나 완자살을 45도 방향으로 엮은 아자교창, 완자교창처럼 의장적으로 화려한 것도 있다.

한편 바라지창과 동의어인 망창望窓은 사전류에 ‘방에 햇빛을 들게 하려고 벽의 위쪽에 낸 작은 창’,

‘방, 누각 등의 벽 위쪽에 바라보기 좋게 뚫은 창’, ‘방 위쪽에 낸 작은 창’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설치 위치나 용도 등에서 광창廣窓과 거의 의미가 유사하나 내다보는 기능이 더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 관련어로 쌍바라지, 눈썹바라지, 약계바라지 등이 있다. 쌍바라지는 바라지가 두 짝으로 구성된 것이다. 눈썹바라지와 약계바라지는 모두 큰 창호 중간부에 살짝 밖을 보거나 약봉지 같은 작은 물건을 주고받기 위한 작은 들창을 별도로 낸 것이다. 눈썹바라지와 약계바라지는 밖을 내다보는 기능 때문에 바라지라 불리는 것이므로 광창과는 범주가 다르다.

교창

특징 및 의의 벽면이나 출입구 윗단에 가로로 길게 덧붙은 광창의 채광면은 실내를 더 밝고 높직해 보이도록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광창은 궁궐, 사묘의 의례 공간을 꾸미고 주거의 실내에 명랑한 기운을 더하는 데에 쓰였으며, 특히 조선 후기 사찰의 주불전에서 실내 예불 공간을 더 밝고 넓게 조성할 때 적극 활용된 것을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김왕직, 동녘, 2007), 영건의궐(영건의궐연구회, 동녘, 2010), 한국건축대계1-창호(장기인, 보성각, 1993), 한국건축대계4-신편 한국건축사전(장기인, 보성각, 1998), 한국의 문과 창호(주남철, 대원사, 2001), 한국의 살림집(신영훈, 열화당, 1983), 국립국어원(korean.go.kr), 두산백과사전(doopedia.c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이우중(李雨鍾)

교창 交窓

정의 광창 중 특히 교살(빛살) 방식을 바탕으로 살대를 짜서 꾸민 창.

개관 주로 벽이나 출입문 위에 가로로 길게 설치하는 창문을 광창廣窓, 光窓이라 한다. 『영건의궐』(2010)에 따르면 광창 중에서 살대가 빛살로 짜인 것을 1900년대 이전의 영건의궐류에서는 일반 광창과 구분하여 ‘사창斜窓’이라 표기하였다. 1900년대 영건의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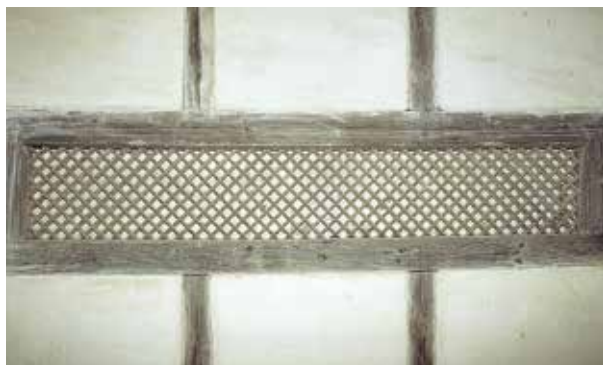
는 광창과 대비되어 쓰이는 용어로 ‘교창交窓’이란 표기가 등장하는데, 교창의 등장과 동시에 사창이란 용어는 영건의궐에서 사라진다. 따라서 사창이라는 용어가 이 무렵 교창으로 대체된 것으로 보인다.

내용 교창은 사창을 대신하여 1900년대에 나타난 용어로 교살로 꾸민 광창을 일컫는다. 따라서 벽이나 출입문 위에 높게 설치하는 가로로 긴 창으로, 방 안 또는 천장 반자 위 다락의 채광 및 환기에 쓰인다는 점은 다른 광창과 다를 것이 없다. 다만 『영건의궐』에 따르면 사창은 사묘의 정전, 궁궐의 본 건물에 쓰이고 광창은 기타 부속건물에 쓰였다고 한다. 즉 빛살로 꾸민 교창은 다른 살짜임새의 광창보다 좀 더 고급의 창으로 취급된 것으로 보인다. 직렬 살을 단순히 교차하여 짠 교창도 있지만, 아자살 또는 완자살을 45도로 기울여 엮은 아자교창과 완자교창도 있다.

그런데 1900년대 영건의궐 중 덕수궁 관련 의례에서만 나타나는 ‘사살교창斜箭交窓’과 ‘직교창直交窓’이라는 용어가 있다. 사살교창은 빛살광창 즉, 사창과 같은 의미로 생각되며 직교창은 수직 수평으로 살대를 엮은 만살광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빛살이 아닌 광창을 교창이라 부른 용례인 것이다. 물론 『영건의궐』에서는 이러한 용례가 하나뿐이므로 사창과 교창이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사창을 대신한 단어가 교창이라는 견해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교창의 현대적 용례들을 살펴보면 창호 및 건축 용어에 관한 주요 저서들에서 교창이 광창 전체를 대표하는 용어 또는 광창의 동의어로 심심찮게 쓰인다. 주남철(2001)은 ‘교창’을 부엌의 벽이나 광의 벽 높은 곳에, 또 대청 전면의 분합문 상부에 가로로 길게 설치하는 창이며 울거미를 가로로 길게 장방형으로 짰다고 설명하였다. 장기인(2005)은 ‘교창’을 창문 위에 다는 낮은 창이라고 설명하는 한편, ‘고창高窓’을 설명하면서 창문 위쪽에 단 키가 낮은 창인데 예전에는 교살창으로 하였으므로 교창으로 통용된다고 설명하였다.

특징 및 의의 교창이 현재 특정한 살짜임새를 지닌 광창



교창 | 주택문화사



아자교창 | 서울 종로구 경복궁 경회루 | 국립민속박물관

의 일종만이 아닌 광창 전체를 아우르는 넓은 의미로 쓰이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영건의궐』에 실린 1900년대 이전 의궐의 사창과 광창 용례와 부재 수량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유추해 볼 수 있다. 대체로 사창과 광창이 함께 쓰일 때 사창이 광창에 비해서 수량이 많았다는 것이다. 일반 광창보다 더 고급 의장으로 취급받은 사창이 더 많이 설치되었다는 것은 사창 또는 이를 계승한 교창이란 명칭의 사용 빈도와 중요도가 함께 늘어나면서 점차 광창을 대표하는 이름이 되었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 즉 앞서 언급한 덕수궁 관련 의궐의 사살교창, 직교창 등의 용례는 이후 교창이 광창 전체를 아우르는 용어로 대두되기 직전의 단초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참고문헌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김왕직, 동녘, 2007), 영건의궐(영건의궐연구회, 동녘, 2010), 한국건축대계1-창호(장기인, 보성각, 1993), 한국건축대계4-신편 한국건축사전(장기인, 보성각, 2005), 한국의 문과 창호(주남철, 대원사, 2001), 국립국어원(korean.go.kr), 두산백과사전(doopedia.c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이우종(李雨鍾)

정의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직접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되어 무주택자 대상으로 임대·분양되는 적정 규모의 주택.

내용 국민주택(國民住宅)은 1972년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정의된 주택이다. 한국주택은행(현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 자금에 의하여 적정한 규모 및 부대 복리시설과 함께 계획되어 무주택자 대상으로 임대 혹은 분양(이하 공급)된 주택을 말한다. 관련 학계에서 쓰이는 유사한 용어로 공적 자금에 의하여 공급되어 운영된 주택을 통칭하는 의미로서 공영주택(公營住宅)이 쓰이기도 한다. 공급 주체에 따라서는 이를 더 세분화하여 예를 들어 시(市)에서 공급한 주택의 경우 시영주택(市營住宅)과 같은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1976년 당시 건설교통부에 제출된 연구보고서 「국민주택의 적정규모와 부대복리시설기준 연구」를 살펴보면 1981년을 국민주택의 본격 공급 시점으로 염두에 두고 국민주택 개념 정립, 공적 자금 조달, 공동주택 단지 구성에 필요한 부대 복리시설 기준 등에 대한 일종의 권고안이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국민주택 개념이 생겨나게 된 것은 1970년대 이후 대한민국의 급격한 경제 발전 및 도시화로 인하여 주로 도시 지역 주택 보급률이 심각하게 낮은 당시 상황에서 비롯한다. 따라서 1970년대 중반 시점에서 1980년대 이후의 대한민국을 염두에 두고 가장 많은 계층이 경제력으로 부담할 수 있는 적정한 주택의 규모, 즉 단위 주호의 적정 규모를 찾는 것이 국민주택 개념을 정의하는 핵심이 된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1976년 보고서에서는 국민주택 개념을 여섯 가지 세부 사항으로 나누어 언급하고 있다. 첫째, 건강한 주생활을 이룰 수 있는 경제 조건에 알맞은 적정한 규모의 주택. 둘째, 전 국민 중 가장 많은 계층의 주생활을 포괄할 수 있는 대중 주

택. 셋째,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제나 사회 및 생활 양식 변화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융통성 있게 장기간 생활할 수 있는 주택. 넷째, 적은 건설비로 지을 수 있으며 튼튼하고 안전한 주택. 다섯째, 적은 관리비로 효율 높은 생활을 이룩할 수 있는 주택. 여섯째, 통일된 규격 체계와 모듈을 사용하여 설계된 주택. 1970년대 중반 당시 대다수 국민이 거주하는 주택 규모는 대체로 7.5평(약 25㎡)에서 25평(약 83㎡) 범주이던 것이 1981년에는 10평(33㎡)에서 30평(약 99㎡) 범위가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중간치 소득층은 5인 가족 기준으로 20평(66㎡) 정도의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국민주택으로서 적합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이 기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가구당 거주 가족이 줄어드는 등의 변화를 거치면서 오늘날에는 전용면적 25.7평(85㎡) 이하를 국민주택으로 설정하고 있다.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의 경우 100㎡ 이하를 국민주택으로 설정한다.

국민주택 개념 설정 논의에서 단위 주호의 적정 규모 설정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바로 부대 복리시설 기준이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대단위 공동주택단지, 즉 아파트단지를 공급하게 될 경우 상가·유치원·학교·목욕탕 등 특정 복리시설이 어느 정도의 인구 규모마다 어떻게 배치될 것인가에 대한 권고안이 마련되었다.

특징 및 의의 시대 상황을 종합 고찰하여 공적 자금을 바탕으로 국민 대다수에게 적합한 규모의 주택을 계획하고 공급하기 위한 노력의 시도로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기획이 사실은 최초가 아니었다. 공적 자금에 의한 주택 공급은 이미 1950년대 중반부터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었으며, 시대 상황을 종합 고찰하여 주택을 공급하고자 한 기획은 1960년대 중반 당시 건설부 산하 연구 조직 HURPI(Housing, Urban and Regional Planning Institute)에 의하여 시도된 바 있다.

1970년대 및 그 이후 국민주택 기획의 가장 큰 차이점 내지 의의는 역시 계획이 실행되었다는 점에 있다. 1960년대 중반 HURPI의 주택 평면 계획안은 국

민주택의 평면 계획안과 달리 식침분리(食寢分離)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한국 재래의 좌식(座式) 생활에 근거한 식침혼용(食寢混用) 원칙을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생활에 필요한 최소 규모의 면적은 더욱 작게 되어 공동주택의 경우 단위 주호당 3평(약 10㎡)에서 9평(약 30㎡) 규모가 제안되었다. 이는 해당 연구진이 1960년대 당시의 열악한 경제 여건을 고려한 결과였다. 그러나 결국 당시의 정책입안자들에게도 너무 작은 규모로 인식되어 채택되지 못했다. 반면 1970년대에 기획된 국민주택은 좀 더 나아진 경제 여건을 바탕으로 현실을 감안한 단위 주호 규모를 설정하여 시행되기에 이른다.

참고문헌 국민주택의 적정규모와 부대복리시설기준 연구(건설부, 1976), 대량생산과 공용화로 본 한국 근대 집합주택의 전개(권용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대한주택공사 주택단지총람(대한주택공사, 1978·1979·1981·1987), 한옥과 한국 주택의 역사(권용찬·전봉희, 동녘, 2012), The minimum dwelling approach by the Housing, Urban and Regional Planning Institute(HURPI) of South Korea in the 1960s(Sanghoon Jung, Yongchan Kwon, Peter G. Rowe, The Journal of Architecture 21-2, 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 2016), 두산백과사전(doopedia.co.kr), 서울도시계획포털(urban.seoul.go.kr).

필자 권용찬(權容贊)

굴도리집

정의 서까래의 하중을 받는 도리가 원형인 살림집.

개관 도리는 목조건축물의 주요 구조재로, 서까래와 추녀가 받는 지붕의 하중을 모아 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도리의 단면 형태에 따라 납도리와 굴도리로 나뉜다. 살림집은 도리의 단면 형태에 따라 굴도리집과 납도리집으로 구분된다. 굴도리집은 기둥 상부의 짜임새보다 보 위에 놓이는 도리의 단면 형태가 원형인 경우를 말한다. 도리의 단면 형태가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인 경우 납도리라 하며, 납도리를 사용한 집을 납도리집이라 한다.

내용 치목 가공의 공력과 의장 측면을 고려한다면 굴도리는 납도리보다 좀 더 장식화된 형태라고 할 수



직절익공집 굴도리 | 경북 안동 심원정사 | 정연상

있다. 또한 굴도리를 사용한 건물은 납도리를 사용한 건물보다 격이 높다. 이와 같은 논리는 원기둥을 사용한 건물과 사각기둥을 사용한 건물 간 위계 차이와 같다. 굴도리는 포작 부재를 사용하지 않고 기둥이 보를 받도록 한 민도리식 살림집보다 익공 이상의 살림집 또는 건물에 주로 사용한다.

민도리식 굴도리집은 대체로 사갈 튼 기둥 상부에 도리 밑 도리받침 장혀와 보가 사개맞춤으로 결구하고, 보 머리에 도리가 맞춤한 이후 도리와 도리는 나비장이음을 한다. 이 경우 보 밑에 보아지(보 받침재)를 결구한 예도 있다. 장혀와 상인방 사이는 소로를 끼워 목재의 뒤틀림을 잡으면서 입면을 장식한다. 이와 같이 소로를 적극 사용한 경우 소로수장집이라고 이른다. 익공식 굴도리집은 기둥 위 주두 윗면에 보와 도리받침 장혀가 결구한 후 보 머리에 도리가 결구한다.

특징 및 의의 굴도리는 살림집보다 궁궐이나 관아, 사찰 건물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굴도리를 사용한 살림집을 굴도리집이라고 한다. 살림집의 굴도리 사용은 집주인의 경제 상황과 미의식을 엿볼 수 있는 부재 가운데 하나이다.

참고문헌 맞춤과 이음(정연상, 고려출판사, 2010),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김왕직, 동녘, 2007), 한국건축대계5-목조(장기인, 보성문화사, 1988), 한국의 살림집(신영훈, 열화당, 1985).

필자 정연상(鄭淵相)

정의 불을 땔 때 연기가 빠져나가도록 뚫은 구멍이나 시설.

내용 굴뚝은 불을 땔 때 발생하는 연기를 실외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이다. 지붕, 기단, 벽 등에 구멍만 뚫어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연도(煙道)를 건물 밖으로 길게 내서 건물과 먼 곳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연기는 땔감의 불완전 연소로 발생하는 기체·액체·고체 성분이 혼합된 미립자 가스로, 실외에서 불을 땔 경우 자연 환기가 가능하지만 실내의 경우 별도의 배연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온돌은 난방을 위하여 땔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연기가 원활하게 실외로 배출될 수 있도록 온돌 구조가 진화하였다.

우리나라 주거 유적에서 굴뚝의 발생 흔적은 수혈 주거지의 노지(爐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표 사례는



굴뚝 | 충남 서산 경주김씨 고택 | 서현강



굴뚝 | 경북 예천권씨 초간공파 종택 | 서현강

1980년 강원도 춘천 중도에서 발굴된 움집이다. 노爐부터 움집의 중심부를 비스듬히 가로지르는 진흙 구조물에서 화구와 같은 터널이 나타났으며, 이 구멍은 굴뚝으로 추정되었다. 시설로서의 굴뚝은 평안북도 운산군 용호동에서 발굴된, 5세기경의 고구려 고분에서 출토된 무쇠 화덕의 고래 끝에 수직으로 솟은 부분을 통하여 확인되었다. 또 황해도 안악군 안악 3호분 벽화에도 굴뚝이 표현되어 있어 고구려시대에 이미 굴뚝이 발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까지의 굴뚝은 단순한 배연 시설로, 온돌 구조에 따르는 굴뚝과는 차이가 있다.

난방을 목적으로 하는 불길의 독인 고래가 T자 형태로 확인되는 중국 지린성 지안시의 고구려 유적인 동대자(東臺子) 유적을 보면 건물의 뒤쪽으로 길게 연도가 나 있고, 별도의 굴뚝을 시설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발해 상경성 용천부의 침전(寢殿) 유적에서 같은 흔적을 볼 수 있다. 이 유적들의 굴뚝이 이전 시기와 다른 점은 연기를 굴뚝으로 유도하는 연도가 있다는 것이다. 연도는 여러 고래를 지난 연기가 한 곳에서 배출되도록 유도하는 장치로, 온돌의 굴뚝을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부분이다.

전면온돌은 고려 후기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17~18세기의 소빙기를 거치면서 일반화되었다. 모든 주거용 건물에 온돌을 시설하면서 굴뚝도 다양

한 형태로 시설되었다. 위치에 따라 건물 내부에 있는 굴뚝, 건물의 초석 고막이나 벽체에 구멍을 뚫어 낸 굴뚝, 건물 벽이나 건물에서 떨어진 곳에 따로 수직의 연통을 세워 만든 굴뚝으로 나눌 수 있다.

내부 굴뚝은 굴뚝을 부뚜막의 귀퉁이에 시설한 사례로, 서민 주택이나 규모가 작은 건물 등에서 확인된다. 초석 고막이나 벽체에 구멍을 뚫어 굴뚝을 내는 것은 가장 일반화된 것으로, 서민 주택에서 궁궐의 건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시설된 유형이다. 연통을 수직으로 세워 굴뚝을 만드는 것은 최고급 유형이다. 일반 서민층의 경우 벽체에 의지하여 굴뚝을 세워서 처마 아래에 낮게 설치하기도 하고 지붕 위까지 솟아 오르게 하기도 한다. 또한 수직으로 세우거나 비스듬히 세우기도 한다. 건물과 떨어져 만든 굴뚝은 관아, 학교, 궁궐, 정사(亭榭) 등에서 볼 수 있다.

굴뚝의 재료도 다양하다. 통나무, 널빤지, 오지토관, 돌과 흙, 기와파편, 벽돌 등으로 쌓은 굴뚝이 확인된다. 통나무 속을 파내어 만든 굴뚝은 삼림지대, 돌과 흙 및 널빤지, 오지토관, 기와파편 등을 쌓아 만든 굴뚝은 평야지대나 도회지에서 각각 볼 수 있다. 벽돌로 꽃담처럼 장식한 것은 굴뚝 가운데 최고급으로, 궁궐에서만 볼 수 있다.

궁궐의 굴뚝은 연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물 사이에 거리를 두고 건물 뒤쪽에 있는 화계(花階)나



오지굴뚝 | 충남 서산 경주김씨 고택 | 김왕직



전축굴뚝 | 서울 종로구 경복궁 아미산 | 국립민속박물관



기단굴뚝 | 전남 구례 운조루 고택 | 국립민속박물관

담장에 세우는 경우가 많다. 이때 여러 아궁이에서 지핀 불의 연기가 한 굴뚝에서 배출되도록 연도를 조절한다. 연도가 모인 곳에 벽돌로 굴뚝을 세우고 상부가 가장자리에는 기와를 씌운다. 정상부에는 바람의 역류와 비를 막기 위하여 연가煙家를 엮는다. 현존하는 궁궐 굴뚝으로는 경복궁 아미산峨嵋山의 육각형 굴뚝(보물 제811호)과 자경전 뒤뜰의 십장생무늬굴뚝(보물 제810호)을 대표로 들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굴뚝은 단순히 연기를 밖으로 배출하기 위한 것이지만 온돌 구조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건축 시설이다. 또한 온돌에 따른 굴뚝의 위치나 형태, 재료 등은 건축물이 위치한 지역이나 경제 여건을 가늠할 수 있는 외부 판단 요소가 되기도 한다.

참고문헌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김왕직, 동녘, 2007), 한국건축개념사전(한국건축개념사전기획위원회, 동녘, 2013), 한국건축대계4-신편 한국건축사전(장기인, 보성각, 2005), 한국의 전통건축(장경호, 문예출판사, 1994), 두산백과사전(doopedia.co.kr), 물백과사전(water.or.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정정남(鄭貞男)

굴피집

정의 나무껍질로 지붕을 인 건축물.

내용 굴참나무, 상수리나무 등의 두꺼운 나무껍질을 평평하게 한 후 적당한 크기로 잘라 지붕을 인 집이다. 목재가 풍부하고 짙, 기와 등 일반 건축 지붕 재료를 얻기가 어려운 강원도 산간지역의 화전민 주거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수령 20년 이상 된 굴참나무, 상수리나무 껍질을 밑둥치에서 3~4척 높이로 떠낸다. 시기로는 나무 수액이 왕성한 7~8월 처서 전후에 속껍질을 제외한 겉껍질만 상·하로 칼집을 내어 벗겨서 채취한다. 5년 정도 지나면 다시 껍질이 재생되어 다음에 또 뜰 수 있다.

떠낸 둥근 굴피껍질은 두께가 1cm 이상 되며, 음지



굴피집 | 강원 삼척 | 서현강



굴피 껍질 벗기기 | 강원 삼척 | 한승일

의 흐르는 계곡물에 담가 수액을 제거하고 눅눅하게 한 다음 평평하게 펼쳐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무거운 돌들을 올려놓고 서서히 건조되게 하여 나머지 수액을 제거한다. 1개월 이상 지나면 더욱 건조해져서 탄력 있고 잘 부식되지도 않으며, 가볍고, 내구성은 증가하고, 방수 효과가 있는 특성을 띠게 된다. 이것을 평평하게 만든 후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여 지붕 재료로 사용한다. 그래서 ‘굴피천년’이라는 옛말도 있다.

지붕을 이을 때는 서까래 위에 싸리나무 등 가는 나뭇가지와 죽덩이를 30~40cm 간격으로 가로로 놓고, 그 위에 처마에서부터 위쪽으로 서로 끝부분을 포개며 이어 올라간다. 굴피가 바람에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주먹보다 큰 돌을 올려놓거나 처마에 평행으로 통나무 ‘너시래’를 얹어 눌러 준다. 굴피 수명은 10~20년이며, 3~5년마다 한 번 부분 교체를 하여야 한다. 또 오랜 수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겹쳐진 부분을 외부에 노출시키는 자리바꿈을 한다.

나무껍질을 지붕 재료로 사용한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삼조북맹회편三祖北盟會編』 권30에 “목판이나 화피樺皮로 지붕을 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어 고려 시대부터 화피(자작나무껍질)를 지붕 재료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굴피지붕은 건조한 날씨에는 수축해서 틈새가 보이지만 습기가 많아지면 굴피가 늘어나게 되어 틈새가 막히고 비가 새어 들어오지 않는다. 산간지역의 폐쇄형 가옥 구조에서 환기와 부엌의 원활한 배연에 적합한 틈새를 보이고 있다.

나무껍질은 내부에 기포가 많아 가볍고, 단열 성능이 뛰어나 여름철에는 시원하며, 겨울철에는 지붕의 눈이 실내 온기 배출과 외부 찬기운의 침투를 막아 주고 실내 열 손실을 방지하여 따뜻한 기온을 유지한다.

특징 및 의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붕 양식을 볼 수 있으며, 보통 벽체는 귀틀집 형식이다. 혹한에 대비하여 각 실은 집중된 형태로 배치하고, 내부에는 작업 공간이 있다. 지금까지 굴피집은 강원도 산간지역 특유의 평면을 한 집을 의미하였으나 원래의 사전상의 의미인 지붕 재료에 의한 구분에 한정하여 기술하였다.

참고문헌 옛집에 담긴 생각(김일진, 청구, 1989), 한국의 살림집(신영훈, 열화당, 1996), 한국의 주거문화사(이종근, 우정문고, 201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정재국(鄭在國)

궁가 宮家

정의 조선 왕실 가족 가운데 궁호宮號를 부여 받은 자의 주거 생활이나 재산 관리를 위하여 궁궐 밖에 마련한 가사家舍.

내용 궁집으로 불리는 궁가宮家は 궁방宮房의 가사家舍로, 궁호를 부여받은 자들의 궁궐 밖 거주공간인 동시에 왕실과 관련한 복합 기능을 하는 관서와 같은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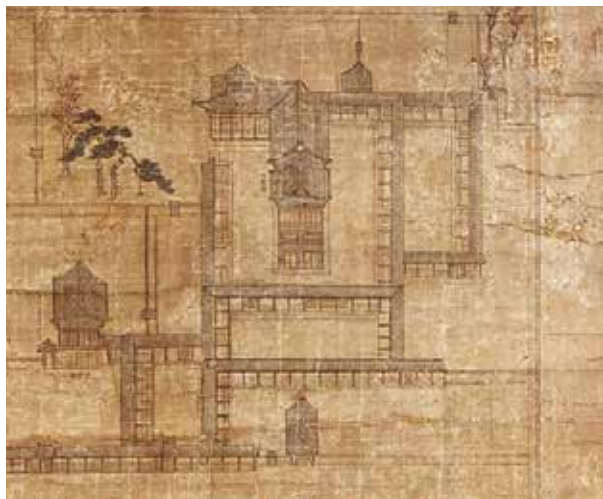
조선 전기의 궁가는 궁호를 받은 왕실 가족이 사는 집에 불과했지만 궁방의 기능이 다양해진 조선 후기의 궁가는 그 기능을 수용한 복합 공간으로 변모하였다. 조선 후기 궁가는 첫째, 직전제 폐지로 인하여 왕실 재정인 내탕內帑의 일부를 담당함과 동시에 공물로 충당될 수 없는 왕실의 수요를 담당하는 공간이었다. 둘째, 궁방주의 생활 자재를 공급하는 곳이었으며 셋째, 궁방주 당사자의 제사를 담당하는 곳이었다. 이로 미루어 보면 조선 전기의 궁가는 소규모로도 기능할 수 있는 주생활 공간이지만 조선 후기 궁가는 변화된 기능을 수용하여야만 하는, 규모가 큰 복합 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궁가는 기본적으로 궁궐에 살던 왕의 자녀와 후궁들이 궁궐 밖에서 살기 위하여 마련한 가사家舍이다. 왕의 자녀들은 혼인을 하면 궐 밖으로 나와 살게 되고, 후궁들은 왕이 죽으면 출궁하게 된다. 궁가 마련은 왕실 재산을 관리하던 내수사內需司가 주도하였으며, 조선 전기와 후기 상황에 차이가 있다.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왕의 적자녀嫡子女의 궁가는 풍수지리 등을 고려하여 땅을 사들이고 관영공사로 제택第宅을 건립하여 주었지만 서자녀庶子女의 경우 궁가를 구입할 자금만 주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 원칙은 왕비에게서 적자녀가 거의 태어나지 않고 심지어 서자가 왕위를 잇게 되던 조선 후기에 이르러 완전히 무너졌다. 조선 전기와 같은 전례는 행할 수 없게 되었고, 적서 구분 없이 앞의 두 방식 모두로 궁가를 마련하였다.

후궁의 궁가도 유사한 과정으로 형성되었다. 조선



궁집 | 경기 남양주 | 서현강



궁가 | 인평대군방전도 중 부분 | 조선 후기 | 규장각한국학연구원·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전기 후궁들은 왕이 승하하면 모두 한 궁가에 모여 살았다. 왕자를 낳은 경우에는 별도의 궁가를 하사받기도 하였지만 대부분 한 곳에 모여 살면서 여승들과 같은 금욕적인 생활을 했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후궁에게서 태어난 왕자들이 왕위를 계승하면서 후궁의 입지에 변화가 생겼다. 국왕 흥서 후 궁궐 밖으로 나가는 후궁들의 생활을 보존하기 위하여 왕실에서는 재산을 하사하고, 이를 관리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궁가를 마련해 주기 시작하였다. 정조(正祖) 이후로는 왕자를 낳지 못해도 재산과 궁가를 하사 받은 후궁도 있다. 왕비와 같이 금혼령(禁婚令)을 내려서 삼간택(三揀擇)을 통하여 후궁이 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궁가 범주에는 왕실에서 건립하거나 구입한 왕자녀와 후궁들의 궁가 외에 서열이 아니지만 왕위를 계승한 왕실 자손의 제택, 왕의 사친인 대원군의 제택

도 포함된다. 반정이나 추대로 왕이 된 왕실의 자손이 살던 집은 즉위 후 잠저(潛邸)로 인식되어 본궁(本宮)이라는 명칭을 얻을 뿐 특별히 다시 짓지 않고 수리와 관리만 하였다. 왕의 사친인 대원군의 제택은 여전히 생활공간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일반 사대부 주택에서 궁가로 변모하여야 하는 과정을 거친다. 대원군의 궁가는 왕의 잠저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사를 마련하지 않고 본래 영역 중심으로 주변의 땅과 가옥을 구입한 후 확장 공사를 통하여 궁가의 일곽을 이룬다. 고종의 사친인 흥선대원군의 운현궁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궁가의 명칭은 그 주인의 작호(爵號)에 따라 결정된다. 왕자의 경우 작호에 방(房)을 붙이고 왕녀의 경우 작호에 방을 붙이거나 남편의 작호에 궁(宮)을 붙여 지칭하였다. 인평대군방(麟坪大君房)이나 연인군방(延昐君房) 등이 전자의 사례이다. 숙명공주방(淑明公主房)을 청평위궁(淸平慰宮)이라고도 부른 경우가 후자의 사례이다.

후궁의 궁가 명칭은 비간택 후궁과 간택 후궁의 경우가 다르다. 비간택 후궁의 경우 작호에 방(房)을 붙여 불렀다. 영조 사친인 숙빈 최씨의 궁가를 숙빈방(淑嬪房), 사도세자의 사친인 영빈 이씨의 궁가를 영빈방(映嬪房)이라고 한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간택 후궁은 왕비와 같이 삼간택 절차를 거쳐 후궁이 되었기에 책봉 시점에 이미 궁호를 받고, 궁호가 그대로 궁가의 명칭이 되었다. 정조 후궁 화빈 윤씨의 경수궁(慶壽宮)과 헌종 후궁 경빈 김씨의 순화궁(順和宮)이 그에 해당한다.

왕의 잠저는 기존 궁가의 명칭을 버리고 궁가가 있는 지역명에 본궁을 붙여 부르거나 지명 없이 본궁이라고만 호칭하기도 하였다. 중종의 잠저는 신본궁(新本宮) 또는 수진방에 있어서 수진궁(壽進宮)이라 하고, 인조의 잠저는 어의동에 위치하기 때문에 어의동 본궁이라 불렀으며, 영조의 잠저를 창의궁(彰義宮)이라 한 것이 그 예이다.

조선 전기에는 왕비 친정도 본궁이라 불렀지만 조선 후기에는 이전에 형성된 왕비의 내탕을 관리하던 특정 궁가 한 곳으로 이어졌다. 그 역할을 선조 계비 인목왕후의 본궁이 하였다. 인목왕후의 본궁은 본래

한양의 명례방(明禮坊)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명례본궁 또는 명례궁이라 하였다.

대한제국이 성립되면서 이전의 궁가는 격상된 주인의 작호에 따라 궁호와 기능의 변화를 맞이하였다. 국왕이 황제가 되면서 왕자들은 친왕에 봉해졌고, 그 때문에 궁가 또한 왕궁(王宮) 또는 왕부(王府)로 불리기 시작하였다. 의화군방이 의친왕궁 또는 의친왕부로 불리고 흥선대원군방인 윤현궁이 대원왕궁으로 불린 것이 그 사례이다.

궁가의 공간 구성은 『경국대전(經國大典)』과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명시된 가사 제한 내용을 통하여 알 수 있다. 『경국대전』 「공전(工典)」의 잡령(雜令)에 제한되고 있는 궁가 규모는 대군의 궁가가 60칸, 왕자군과 공주의 궁가가 50칸, 옹주의 궁가가 40칸이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각 궁가를 구성하고 있는 공간으로 정방, 익랑, 서청, 침루 등이 기재되어 있다.

조선 후기 궁가의 공간 구성에 관하여서는 국립고궁박물관, 장서각, 규장각 등에 소장되어 있는 가옥도형(家屋圖形)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조선 후기 궁가는 주거생활을 위한 주택이지만 일반 사대부 주택과는 차별되는 면모를 보인다. 가장 크게 대별되는 점은 간가(間架)가 150~250여 칸에 해당할 정도로 큰 규모라는 것이다. 여기에 궁궐의 전각처럼 좌우에는 온돌을 갖춘 넓은 대청이 있다. 이를 중심으로 주변의 공간들이 폐쇄 형태를 띠면서 긴밀하게 연결되었다. 조선 후기 궁방은 단순히 생활공간의 기능만 한 것이 아니라 호조(戶曹)나 내수사에서 하는 것과 같은 업무를 관장하였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궁방 업무를 총괄하는 장무(掌務)가 근무하는 서제소(書題所) 같은 공간도 존재하였다. 또 궁방주 사후의 제향을 위하여 큰 사우와 그 보조시설을 갖춘 것도 조선 후기 궁가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 궁가는 한성부 내에 위치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런데 현재 서울이 아닌 곳에 위치한 궁가가 있다. 영조의 막내 딸 화길옹주(和吉翁主)의 궁가로 알려진 국가민속문화재 제130호 ‘남양주 궁집’이다. 조선시대 궁가의 건립 배경과 공간 구성으로 보면 남양주 궁집은 영조 당대에 건립된 것이 아니라 후손들이 화

길옹주와 능성위(綾城尉) 구민화(具敏和)의 무덤 주변으로 이거(移居)하면서 조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유사한 사례로 2018년에 경기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여주 장흥리 변씨고택이 있다. 이 고택은 소현세자(昭顯世子)의 딸 경순군주(慶順郡主)(1643~1697)와 황창부위(黃昌副尉) 변광보(邊光輔)(1644~1661)의 합장묘를 위한 묘막에서 유래한 것으로, 가세가 빈한해진 후손이 한양에서 이거하여 살면서 종손가로 이어진 집이다. 인근 주민들에 의하여 궁택, 별궁, 부마댁으로 불리다가 최근 묘막에서 유래하였음이 밝혀졌다.

특징 및 의의 궁가는 조선시대 왕실 가족의 주거생활을 알 수 있는 건축물로, 조선 전기와 후기의 공간 구성이 확연히 달랐다. 생활공간과 정치공간이 긴밀하게 연결된 궁가는 궁궐과 사대부 주택의 복합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왕실의 궁궐 밖 주거인 궁가는 사대부 이하 서민들의 주거와 달리 정치 상황 변화에 영향을 받아 변모하였으며, 주인의 사회 신분으로 인하여 당대의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역할도 하였다.

참고문헌 궁집(주남철, 일지사, 2003), 의친왕부 사동본궁을 통해 본 대한제국기 궁가의 특징(정정남, 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건축학회, 2014), 조선왕실 건축도면(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조선후기 궁가의 공간구성 및 배치(정정남, 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건축학회, 2009), 조선후기 궁방의 실제(조영준, 정신문화연구31-3,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조선왕조실록사전(encysillok.aks.ac.kr).

필자 정정남(鄭貞男)

궐

정의 널판으로 짠 육면체 상자.

내용 궐(櫃)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천판을 가로로 나누어서 뒤쪽은 뒷널과 측널에 고정시킨 다음 경첩을 달아 앞쪽을 여닫는 뚜껑으로 만든 윗다지이고, 다른 하나는 앞널의 중간 부분을 가로로 절반으로 나누어서 앞으로 당기어 여는 반다지이다. 처음의 궐 형



궤 | 가로130 세로59 높이73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태는 위에서 뚜껑을 열게 한 윗다지이며, 반다지는 윗다지를 사용하면서 나중에 생겨난 형태이다. 그러므로 윗다지는 궤라 하며 반다지는 궤이지만 반다지라 일컫는다.

신라 제4대 탈해왕(脫解王)(재위 57~80)이 궤에서 나왔다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궤는 가장 오래된 가구이다. 궤는 문(뚜껑)이 널판으로 되어 있어 운두가 없으며, 문판에 붙은 경첩이 천판과 연결되어 있어 포개 놓을 수 없다. 일부 큰 궤 중에는 문판의 중앙에 경첩이 없이 앞으로 당겨 열도록 만든 작은 문을 내어 포개 놓고 쓰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위에 놓은 궤에는 낮은 다리가 달려 있기 마련이다.

윗다지는 책, 문서, 의복, 피륙, 건어물, 그릇, 제기(祭器, 활자(活字) 등을 보관하는 다목적 가구이다. 수납된 물품의 종류에 따라 사랑방·다락·광·사당 등에 두고 사용하였으며, 관청에서도 많이 이용하였다. 특히 양반가에서는 여름에 사기그릇을, 겨울에 놋그릇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부유한 가정에서는 철이 바뀌면 윗다지에 그릇을 보관하였다.

궤는 견고하고 물품 보관에 안전해서 가정마다 여러 구를 비치하였으며, 수요가 다양해서 지역 특색을 띠기도 하지만 필요에 의하여 주문 제작한 것은 일정한 양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윗다지라 일컫는 대형 궤를 흔히 돈궤라고 하는데, 이는 잘못 알려진 명칭이다. 돈궤는 윗다지와 형태는 같으나 경첩이 없고 크기가 훨씬 작으며, 윗면의 절개된 부위 중앙에 엽전(葉錢, 동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장방형의 작은 구멍이 뚫려 있다. 경첩 대신 문판

의 안쪽 양측면에 버팀쇠목을 천판의 뒤까지 길게 대고, 문판과 앞널에 잠금장치를 하였다.

궤는 상품의 포장 및 수송용으로도 쓰였다. 공출로 나무가 귀하던 일제강점기에 성냥은 큰 나무 궤에 담아 소매상에서 판매하였다. 성냥을 다 팔고 남은 빈 궤는 서민들이 얻어 가서 색종이를 발라 혼수품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특징 및 의의 궤는 사용 역사가 가장 오래된 가구이며, 다양한 목적에 따라 다양한 양식으로 제작되었다. 현대의 주거공간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용도에 따라 수장과 활용을 겸할 수 있는 가변성 많은 가구이다.

참고문헌 한국 민속의 세계4-주거환경(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필자 김삼대자(金三代子)

귀틀집

정의 통나무를 우물 정(井)자 모양으로 쌓아 올려서 벽체를 만들고 지붕을 덮은 집.

개관 목재를 이용하여 집을 짓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목조가구식(木造架構式)이다. 수직부재인 기둥과 수평부재인 도리 및 보를 짜 맞추어서 구조 틀을 만드는 방식이다. 목조가구식은 목재의 경제성을 최대한으로 활용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재를 짜 맞추는 기술이 필요하고, 구조 틀 안에 벽체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 방식인 귀틀집은 목재를 수평으로 쌓아 내력벽(耐力壁)을 만드는 방식이다. 목조가구식 구조에 비하여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다. 또한 벽체가 지붕 무게를 지탱하기 때문에 따로 기둥을 세울 필요도, 벽을 만들 필요도 없다. 가구식 구조에 비하여 더 많은 목재가 필요하지만 그만큼 튼튼한 구조가 된다. 역사적으로는 철기시대 이전부터 출현하는 형식이지만

그리 보편화되지 못하였고, 특수한 지역에서만 나타난다. 따라서 귀틀집은 특수한 환경과의 관련성에 주목해야 할 주거 형식이다.

내용 귀틀집의 출현은 철기문화의 시작과 관련이 있다. 많은 양의 두꺼운 목재를 벌채하기 위해서는 철제 벌목 도구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귀틀집이 존재하였다는 기록은 삼한시대부터 나타난다.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 변진조弁辰條의 주註에는 변진弁辰에서 집을 짓는데 “나무를 가로로 뉘어 쌓아 마치 감옥과 닮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여기에서 나무를 가로로 뉘어 쌓는 방식은 귀틀집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 특별히 변진에서 귀틀집이 발달한 것은 철기문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변진에서는 철이 많이 생산되었고, 철제 도끼가 많이 보급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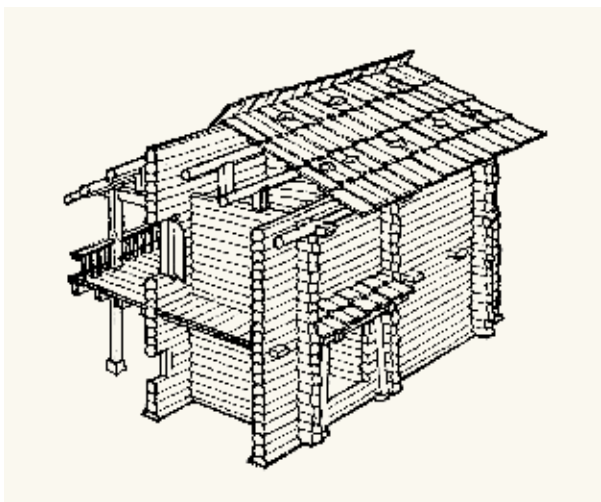
었다. 철제 도끼를 사용하면 벌목이 쉽기 때문에 통나무가 풍부하게 생산되는 산악지대에서 이러한 형식이 시도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위 기사에서 “감옥과 닮았다.”라는 표현은 이미 감옥에서 귀틀집 형식이 사용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귀틀집은 목조가구식보다 튼튼한 벽체로 형성되기 때문에 감옥이라는 기능에 유용하였을 것이다. 귀틀집이 방어 기능 목적에서 시작되었는지, 산간지역이라는 생태 환경에서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도시에서도 기능에 따른 요구가 있었음은 분명하다.

한편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도 귀틀집 형식이 나타난다. 마선구 1호분 벽화 중에는 고상형 귀틀집이 그려져 있다. 일본 나라의 도다이지[東大寺]에는 이와 유사한 모습의 경장京藏이 남아 있기도 하다. 이 경장은 수장 용도의 창고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마선구 벽화의 고상건축 또한 창고였을 가능성이 짙다. 창고도 도난에 대비한 튼튼한 벽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귀틀집 발생과 관련이 있다.

살림집으로서 귀틀집이 많이 나타나는 지역은 특수한 생태 환경을 보인다. 주로 목재 생산이 풍부한 산림지대와 적설량이 많고 한랭한 기후를 보이는 지역에서 많이 나타난다.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투방집의 분포를 보면 화전 경작지역과 관계가 있다. 개마고원과 낭림산맥 양사면, 태백산맥의 산악지대에서 투방집이 많이 발견되었다. 이들의 환경은 삼림이 우거져서 목재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과 화전 경작으로 주호 밀도가 낮아 집단 방어가 어렵다는 점이다. 산악에서 야수나 도적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귀틀벽이 유용하였을 것이다. 물론 기술자나 이웃의 힘을 빌리지 않고 쉽게 지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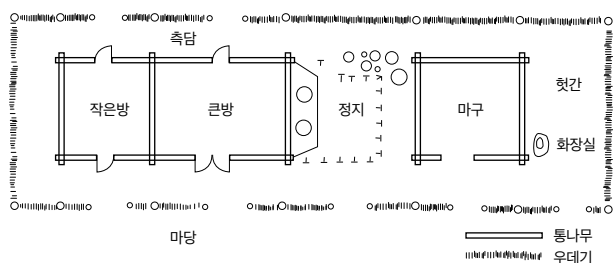
한편 경상북도 울릉도에 들어온 초기 개척민들도 귀틀집을 지었다. 이들의 귀틀집은 화전 경작과 직접 관련이 없다. 대다수가 강원도 출신으로서 귀틀집의 건축 형식을 경험하였을 것이라는 추정도 있지만 그것이 귀틀집을 지어야 할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목재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울창한 산림, 자력으로 집을 지어야 하는 고립된 환경, 겨울에 눈이 많



귀틀식 |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 | 김왕직·동넵



귀틀집 내부 | 경북 울릉 | 서현강



울릉도 귀틀집 평면 | 강영환



귀틀집(투막집) | 경북 울릉 | 1996 | 국립민속박물관

이 쌓이는 울릉도의 기후 환경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적설량이 많은 겨울에 지붕에 쌓인 눈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북유럽과 시베리아 등 눈이 많은 삼림지대에서 귀틀집 사용이 보편화된 이유와 같을 것이다.

울릉도에서 귀틀집을 만드는 방식은 다음과 같이 알려져 있다. 목재는 나리분지 인근의 산지에서 직경 15~25cm의 통나무를 벌채하여 사용하였다. 통나무의 양 끝에 둥근 모양의 홈을 파고 이곳에 다른 통나무를 끼워 우물 정井 자 형태로 쌓았다. 홈은 아래 위 통나무 사이의 간격을 좁게 해 주는 역할도 있으나 못을 쓰지 않고도 부재끼리 결합하는 역할도 한다. 통나무 사이의 틈을 진흙으로 메워서 바람을 막았다.

특징 및 의의 목재를 뉘어 쌓아 올려서 만드는 귀틀집은 비단 울릉도뿐만 아니라 태백산맥이나 지리산 자락 등 산악지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식이었다. 이들은 귀틀벽이라는 공통 구조가 있지만 공간 구성이나 지

붕 재료 등에서는 지역 특성을 띠기도 한다. 울릉도의 귀틀집은 목재 벽 밖에 ‘우데기’라는 방설벽을 둔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 ‘우데기집’이라 일컫기도 한다. 귀틀벽이 내벽이라면 우데기는 외벽인 셈이다. 지붕처마 끝에 억새나 싸리를 엮어 외벽을 만들면 눈이 쌓이지 않는 처마 밑 공간, 즉 죽담이라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 우데기는 여름철에 비바람을 막거나 햇빛을 가리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 귀틀집의 지역 차이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참고문헌 한국의 민가연구(장보웅, 보진재, 1986), 한국의 옛집(김광언, 마당, 1982), 한국 주거문화의 역사(강영환, 기문당, 2013), 한국의 주거민속지(김광언, 민음사, 1988).

필자 강영환(姜榮煥)

그랭이질

정의 부재와 부재를 이을 때나 맞출 때 본을 떠서 굽어내는 일.

개관 기둥을 자연석 위에 세우기 위하여 자연석 면을 따라 기둥뿌리에 본을 그려서 굽어내는 일을 그랭이질이라고 한다. 또 초석에 돌기둥을 세울 때나 두 개의 석재를 맞추어 쌓을 때 한쪽 돌 면에 따라 다른 돌을 굽어내는 것도 그랭이질이라고 한다. 그랭이질은 주로 기둥을 세울 때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다. 한국 전통건축에서 목수의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이다. 이때 사용하는 자를 그래자라고 한다.

내용 그랭이질은 초석에 기둥을 세울 때 반드시 사용하는 목수 기법이다. 기둥을 세울 때 먼저 초석이 놓이며, 여럿이 기둥을 초석 위에 임시로 올려놓는다. 기둥을 놓을 때는 나무가 자란 방위에 맞추어 놓아야 한다. 임시로 세운 기둥은 좌우로 다림보기를 해서 수직이 되게 한다. 이때 기둥 상부에서 지면으로 비스듬히 고정시킨 버팀목으로 좌우를 밀고 당겨서 수직을

맞춘 다음 버팀목을 바닥에 고정시킨다. 임시로 고정된 기둥을 초석에 밀착시키기 위하여 기둥뿌리를 초석 상면과 똑같이 본을 떠서 잘라 내면 된다. 이때 그래자가 사용된다. 그래자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다. 대체로 얇은 대나무로 깎아서 마치 핀셋 모양으로 만들고 한쪽 끝을 칼질하여 붓처럼 먹물을 찍어서 사용한다. 또 길쭉한 막대기에 구멍을 몇 개 뚫어 두고 그 구멍에 대나무 끝을 칼질한 다음 붓처럼 만든 것을 끼워서 사용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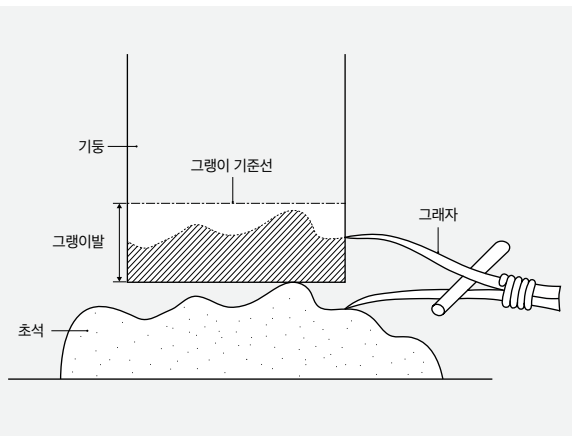
그래자의 두 가닥 가운데 한 가닥은 초석에 밀착시키고 다른 한 가닥은 먹물을 묻혀 기둥뿌리에 닿도록 한 다음 초석에 밀착시킨 가닥을 따라 기둥 둘레를 한 바퀴 돌면 초석 모양대로 기둥에 그려지게 된다. 이때 그려진 기둥 밑의 여유 부분을 그랭이발이라 한다. 그리고 나서 그랭이발을 잘라 내면 초석의 들쭉날쭉한 부분과 정확하게 밀착된다. 밑동을 자르고 나면 기둥 밑면 중심부를 더 깊이 파내야 밑동 주변이 초석에 빈틈없이 밀착된다. 이때 틈이 있으면 벌레나 습기가 스며들어 썩기 십상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둥뿌리 가운데를 조금 파내고 백반을 넣어 둔다. 백반이 없을 때는 소금을 넣기도 한다. 그래자는 엄격히 말하면 길이를 재는 것보다 본을 뜨는 데 사용되는 것이다. 그랭이발을 깎아 내는 일을 “그랭이발 죽인다.”라고 한다. 이 일은 아주 정밀하고 어려운 작업이어서 숙련된 도목수가 맡아 한다. 이와 같은 그랭이질은 성벽을 쌓을 때 석재 간 맞춤에도 사용된 기법이다.

굴립주掘立柱는 기둥을 세우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기둥뿌리를 일정한 깊이로 땅을 파서 고정시키는 것이다. 굴립주는 그랭이 기법이 사용되기 이전 시대에 주로 사용하던 기법이다. 그랭이질을 하면 울퉁불퉁한 초석 표면에 기둥이 밀착되어 기둥이 고정될 수 있지만 이런 기술은 선사시대에는 사용되지 않은 기술이었다. 당시에는 기둥을 고정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지면을 파내고 땅을 단단히 다진 다음 기둥을 세워서 흙으로 고정시키는 것이었다. 이렇게 세우는 굴립주는 그랭이 기법이 생겨나면서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여러 개의 굴립주를 세워서 상부에서 좌우로 귀들을 고정시키면 바닥을 설치할 수 있다. 굴립주를 세우면 자연히 바닥이 지면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하게 되므로 바닥 밑은 바람이 통하게 된다. 이런 건축물을 흔히 ‘고상식高床式’ 건축이라고 한다. 습기가 많고 더운 지방이나 창고 건물에 주로 적용되는 건축 구조라 할 수 있다. 굴립주의 가장 큰 단점은 기둥이 습기로 인하여 쉽게 부식된다는 것이다. 습기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둥을 세우는 지면을 약간 높이고 처마를 길게 만드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

특징 및 의의 그랭이질은 기둥을 세울 때 초석 면에 목재 기둥을 밀착시키는 건축 기법이다. 굴곡진 초석 면을 따라 기둥뿌리에 본을 떠서 긁어내면 초석과 기둥이 빈틈없이 밀착될 수 있다. 이때 사용하는 연장이 그래자이다. 땅에 박아서 세우는 굴립주가 습기로 쉽게 부식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초석을 사용하면서 나



그랭이질 | 1999 | 국립무형유산원



그랭이질 |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 | 김왕직·동녕

타나기 시작한 기법이다. 지금도 전통 목조건축물을 건립할 때 사용하는 오래된 건축 기법의 하나이다.

참고문헌 한국의 건축연장 연구1·2(이왕기, 목원대학교논문집7·8, 목원대학교, 1984·1985).

필자 이왕기(李王基)

금입택

金入宅

정의 금을 입혀 화려하게 장식한 기와집 또는 금이 들어가는 집이라는 ‘쇠드리택’ 또는 ‘금드리택’을 한자어로 표현한 주택의 한 형태로서 신라 왕경인 경주시내에 거주하던 진골귀족들의 호화스러운 주택.

개관 『삼국유사三國遺事』 권1 「기이紀異」 진한조辰韓條에는 “신라 전성기에 수도 경주는 도시 전체가 1,360방, 55리로 나뉘어 방리제가 시행되었으며, 17만 8,936호가 있었으며 그중 금입택이 35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39채가 기록되어 있다. 재매정택財買井宅(김유신공의 조상집), 지상택池上宅, 북유택北維宅, 남유택南維宅, 장사택長沙宅, 상앵택上櫻宅, 하앵택下櫻宅, 양상택楊上宅, 한기택漢岐宅, 비혈택鼻穴宅, 판적택板積宅, 김양종택金楊宗宅, 유아택柳也宅, 사하택寺下宅, 정상택井上宅, 이남택衙南宅, 지택池宅, 사상택寺上宅, 교남택橋南宅, 누상택樓上宅 등이 있다. 이로 보아 『삼국유사』에는 이름난 금입택만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금입택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많은 금입택이 있었다고 기록된 신라의 전성기는 대개 삼국통일 이후 약 100여년간인 신라 중대中代(654~780)를 가리키지만, 다른 기록들을 종합할 때 금입택이 기록된 전성기는 왕경인 경주가 수도로서 가장 번성하였던 신라 말기, 즉 제49대 헌강왕憲康王 때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금입택이 신라 말기에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고, 이미 중대에도 존재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금입택 중에는 삼국통일의 주역이었던 김유신金庾信의 종가로 추정



금입택 | 경북 경주 인왕동 건물지 | 통일신라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되는 재매정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내용 경주는 신라의 발전과 함께 대규모 국제도시로 성장하여 통일기에 접어들면서부터 크게 번성하였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헌강왕대에 도성都城 안에는 초가집이 하나도 없었고, 나무를 사용하지 않고 솥으로 밥을 지었으며, 집의 처마와 담들이 이웃과 서로 붙어 있으며, 노래 소리와 피리 부는 소리가 길거리 가득하여 밤낮으로 끊이질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경주 시내에 단장으로 경계를 이룬 금입택을 포함한 기와집들이 즐비하였으며, 그 안에서 사는 귀족들의 생활이 얼마나 호화스러웠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금입택을 짓고 이처럼 호화스러운 생활을 영위한 것은 삼국통일 후 지방에 넓은 전장田莊을 소유하고, 많은 노비와 사병私兵을 거느렸던 귀족들의 막대한 재력 때문이었다. 귀족들은 금입택과 같은 화려한 주택을 지어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이는 귀족들이 골품제^{骨品制}의 원리에 따라 상대등^{上大等}·시중^{侍中}·병부령^{兵部令}·장군^{將軍} 등 요직을 독점하고, 그 직책의 대가로서 국가로부터 식읍^{食邑} 혹은 녹읍^{祿邑}을 받았으며, 통일 전쟁의 공적에 따라 막대한 포상과 전리품을 분배받음으로써 이룩한 경제적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이와 같이 금입택주는 엄청난 경제력을 갖추어 당시 성행하였던 불교 사원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9세기 말경에 건립된 장흥 보림사^{寶林寺} 보조선사창성탑비^{普照禪師彰聖塔碑}에는 860년(헌안왕 4)경에 금입택인 ‘수망택’과 ‘이남택’의 두 택주가 금 160푼[分]과 조곡^{租穀} 2,000곡^斛을 보림사에 기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와 거의 같은 시기의 담양 「개선사 석등기^{開仙寺石燈記}」에도 금입택인 ‘지택’ 소유의 전답에 대한 내용이, 『삼국유사』 권4 백암사^{伯巖寺} 석탑사리조^{石塔舍利條}에도 백암사는 ‘북택’의 기진이 창건한 사찰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등 당시 사찰과 불탑 조성에 많은 금입택주가 재물을 희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이처럼 금입택은 통일신라시대 진골귀족의 막대한 재력과 호사스러운 생활을 표현하고 과시하는 상징적 존재였다. 통일신라는 9세기에 들어와 엄청나게 늘어난 금^金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806년(애장왕 7)에 금·은 용기 제작을 금지하였고, 834년(흥덕왕 9)에는 교서를 내려 진골귀족인 경우에도 생활 용기^{用器}·수레와 기승용 말^{車騎}·옥사^{屋舍} 등에 금의 사용을 억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입택이 경주 곳곳에 들어섰던 것은 그 택주들이 단순한 부호들이 아니라 왕권에 비견될 정도의 권력과 재력을 가진 진골귀족이었음을 말해 준다. 또 836년 흥덕왕^{興德王}이 죽은 뒤 839년에 신무왕^{神武王}이 즉위할 때까지 극심한 왕위계승 쟁탈전을 겪으면서 국가 권력이 크게 약화되어 진골귀족에 대한 사치생활 금지령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였음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금입택을 소유한 진골귀족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이들 금입택은 경주의 지형이나 유지로 미루어 경치가 아름다운 월성^{月城} 맞은편 언덕과 남천^{南川}의 양

쪽 언덕 그리고 남산 중턱과 산록, 북천 북쪽 언덕, 서천 맞은편 언덕 등 하천이 내려다보이는 높은 지대에 들어서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신라 왕경은 크고 작은 도로를 중심으로 바둑판 모양으로 구획된 방리제^{坊里制}(하나의 구획 공간이 1방)가 적용된 고도의 계획도시였다. 특히 황룡사지 동쪽 지구에 대한 발굴조사(1987~2002)에서 동-서 도로와 남-북 도로로 구획된 동서 167.5m, 남북 172.5m 크기의 방의 구조와 규모가 확인되었다. 그 안에 수많은 건물과 우물, 도로, 배수로 등을 갖추었으며, 고급 와당이나 토기 등이 무수히 출토되었다. 이러한 고급 시설과 출토 유물 등으로 보아 이 일대가 귀족들의 거주지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안압지 북동편에 대한 조사에서는 대형 기단과 담장, 정교하게 조각된 석조^{石槽}, 양변기 형태의 수세식 석제 변기,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철제 망을 갖춘 배수시설까지 갖춘 대형 건물지에서 놀이 도구인 상아제 주사위까지 출토되는 등 당시 귀족들의 저택과 생활이 얼마나 호화스러웠는지를 알 수 있다. 또 분황사의 동편 원지^{園池}와 용강동 원지는 당시 귀족들의 저택에 연못과 정원을 갖춘 원지까지 있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고급스러운 시설을 갖추고 호화로운 생활 모습을 보여 주는 화려한 유물들이 출토되는 저택 중에는 일부 금입택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한편 금입택 이외에 『삼국유사』 권2 「기이」와 『화랑세기^{花郎世紀}」 「사다함」에는 봄의 동아택^{東野宅}, 여름의 곡랑택^{谷良宅}, 가을의 구지택^{仇知宅}, 겨울의 가이택^{加伊宅} 등 계절에 따라 거처를 옮겨 거주하는 별장의 일종인 사절유택^{四節遊宅}도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귀족들의 생활이 얼마나 호화스럽고 풍요로웠는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금입택이 어떤 가옥 구조의 건축 양식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834년(흥덕왕 9)의 옥사에 대한 금 사용 금지 규정을 통해 대략 조선시대 상류주택인 창덕궁 연경당^{演慶堂}과 비슷한 배치와 규모, 가옥 구조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참고문헌 三國遺事, 6~8세기 신라 재상의 성격(구효선, 한국사학보16, 한국사학회, 2004), 삼국사기 옥사조의 신연구(김정기, 신라문화재학술발표논문집 2, 신라문화연구소, 1981), 삼국사기에 보이는 옥사조와 민가(신영훈, 사학지3,

단국대학교 사학회, 1969), 신라 왕경 발굴조사보고서1(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2), 신라 왕경의 역사(전덕재, 새문사, 2009), 신라골품제사회와 화랑도(이기동, 일조각, 1984), 신라금입택고(이기동, 진단학보45, 진단학회, 1978), 한국금석유문(황수영, 일지사, 1976).

필자 김길식(金吉植)

기단 基壇

정의 건물을 지을 때 집터를 잡고, 터를 반듯하게 다듬은 다음에 대지보다 한층 높게 쌓은 단 시설.

개관 기단基壇은 기단에 설치된 개개의 초석으로부터 전달되는 건물의 하중을 받아 지반에 골고루 전달하는 데 필요한 시설일 뿐만 아니라, 지면 대지보다 높게 설치되므로 자연히 빗물과 지하수 등으로부터 건물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건축 요소이기도 하다. 또한 기둥을 거쳐 초석을 통해 기단에 전달되는 지붕의 하중을 골고루 분산시켜 집이 기울거나 침하되는 것을 예방한다. 나아가 건물을 집터 대지보다 높게 보이게 하여 건물에 장중함과 위엄 등을 주는 기능도 한다.

기단은 동양 건축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보편적인 건축 구성 요소이다. 특히 궁궐이나 권위 건축뿐만 아니라 살림집을 비롯한 거의 모든 건축에 여러 형태의 다양한 기단이 적용되었다. 따라서 기단은 모든 집의 기본을 이루는 기초라서 튼튼하고 안정감 있게 쌓아야 하며, 쌓는 방법과 재료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가 연출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건물에 기단을 만들기 시작하였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건축물을 지으면서부터 빗물 등으로부터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기 시작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 후 기단이 있는 건물이 지면 대지보다 높게 부각되는 효과를 활용하여 궁궐이나 사찰 등 권위 건축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구려의 도성인 집안 국내성과 환도산성 내부에 배치된 궁궐 건축과 평양 청암리사지淸巖里寺址, 금강사지金剛寺址 중앙의 팔각목탑지와 금당지, 요동성총遼東城塚 고분벽화의 성

곽도城廓圖에 그려진 누각의 기단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백제의 경우도 풍납토성에서 발굴된 기단 건물지, 공주 공산성에서 확인된 대형 기단 건물지, 부여 관북리 유적과 구아리유적 등에서 발굴된 기단 건물지와 능산리사지, 왕흥사지, 익산 왕궁리유적, 제석사지, 미륵사지 등에서 발굴된 기단 건물지 등 많은 사례가 알려져 있다. 신라의 경우는 경주 월성을 비롯한 시내 왕경유적에서 확인되는 대부분의 건물지가 기단 건물지이며 황룡사지, 분황사지, 감은사지, 사천왕사지 등의 사찰터에서 발굴된 건물지들도 모두 기단 건물지인 것으로 보아 삼국 중 가장 많은 기단 건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기단 건물은 삼국시대부터 축조되어 왔으며 이후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건축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축 구성 요소 중 하나가 되었다.

내용 기단의 종류는 쌓은 재료에 따라 흙으로 쌓은 토축기단土築基壇, 벽돌로 쌓은 전축기단塼築基壇, 돌로 쌓은 석축기단石築基壇, 벽돌과 돌을 섞어 쌓은 석전혼용기단石塼混用基壇, 기와로 쌓은 와적기단瓦積基壇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토축기단은 가장 먼저 나타난 기단으로서, 고대에는 기단 건축 그 자체가 일정한 권위를 가진 건축이었으므로 궁궐건축의 기단이나 국가적 토목사업인 성곽 축성 시의 기단에도 적용되었다. 그 후 시대가 내려옴에 따라 다른 형태의 기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권위가 약화되어 일반 농가 건축에도 많이 적용되었다. 토축기단을 만드는 방법으로는 점토와 모래 등 성질이 다른 흙을 다지면서 쌓아 올리는 성토법盛土法이 주로 사용되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항토법抗土法, 판축법版築法, 말목지정법抹木指定法 등도 사용되었다. 그다음 석축기단은 삼국시대 이후 특히 권위 건축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초기에는 막돌이나 천석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쌓아 만든 할석기단이 사용되었으나 특히 장엄한 건물 외관을 요구하는 권위 건축이 축조됨에 따라 보다 미려하고 위엄을 갖춘 가구식기단架構式基壇으로 발전하였다. 삼국시대 이후 대부분의 궁궐건축이나 사찰건축, 제의건축은 이러한 가구식기단이 적용되어 있다. 전석혼용기단은 그리 많



전남 고흥 | 김왕직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 | 김왕직·동녘

토축기단



경북 안동 하회 양진당 | 국립민속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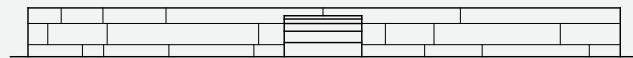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 | 김왕직·동녘

자연석기단



서울 종로구 창경궁 양화당 | 국립민속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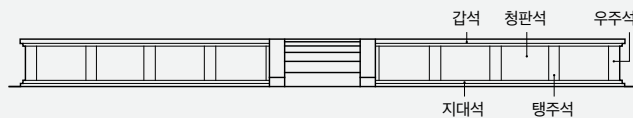


신륵사 극락보전 |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 | 김왕직·동녘

장대석기단



경북 영주 부석사 | 김광현



불국사 대웅전 |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 | 김왕직·동녘

가구석기단

지는 않으나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사찰 기단이나 성곽 기단에 사용된 경우가 있다. 와적기단은 부여·익산 지역의 궁궐과 사찰, 귀족 저택 등 백제 사비도읍기의 권위 건축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기단으로, 일본으로도 전해져 아스카테라(飛鳥寺) 등 아스카시대 권위 건축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건물 기단은 쌓은 단의 수에 따라서 한 층으로 된 단층기단과 두 층 이상으로 된 다층기단으로 나뉘는데, 상대적으로 위상이 낮은 주택과 사찰과 궁

궐의 일반 건물들은 대부분 단층기단이고 궁궐의 정전(正殿)이나 사찰의 대웅전, 제의(祭儀) 건물의 본전 등 위상이 높은 건물들은 대부분 다층기단으로 되어 있다. 즉 경복궁의 근정전·인정전·명정전 등은 건물 바닥보다 훨씬 넓은 두 층의 단을 쌓은 다음 다시 그 내부에 또 하나의 단을 쌓아 건물을 세운다. 이는 삼중으로 된 다층기단이지만, 이때 아래 두 단을 특별히 월대(月臺)라고 부른다. 근정전에서는 이 월대에 석조간을 둘러 한층 위엄을 갖추고 있다.

한편 기단을 쌓는 마감석재의 모양과 층의 모양에 따라서는 막돌로 층의 줄눈을 맞추지 않고 쌓는 막돌허튼층쌓기, 막돌로 층을 맞추어 쌓는 막돌바른층쌓기, 다듬은 돌로 쌓는 다듬은돌허튼층쌓기, 다듬은돌바른층쌓기 등의 방법이 있다. 이 중 다듬은돌허튼층쌓기는 대구 달성 도동서원道東書院의 강당인 중정당中正堂 기단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드문 예이다. 또 기단을 쌓는 방법에 따라 돌을 차곡차곡 쌓는 적석식기단積石式基壇과 땅에 지대석을 깎아 위에다 돌기둥을 세우고 기둥 사이에 면석面石을 끼워 세운 다음 그 위에 갑석甲石을 놓아 마무리하는 가구식기단 등이 있다. 적석식기단은 조선시대에는 궁궐·사찰·서원·주택 등 거의 모든 건축물에 두루 사용된 가장 보편적인 기단 축조 방법이며, 가구식기단은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궁궐이나 사찰 건축 등 권위 건축의 기단으로 널리 쓰였다. 예를 들어 백제 사비기의 익산 미륵사지석탑(국보 제11호)은 당시의 목조탑이 석조탑으로 바뀌어가는 초기양식을 보여 주는데 여기에 적용된 기단이 가구식기단이며, 양산 통도사通度寺 대웅전의 가구식기단에는 면석에 불교의 상징인 연꽃이 부조하여 권물의 종교적 권위를 높이기도 하였다.

기단의 길이와 너비는 그 위에 올라가는 집 바닥의 그것보다 넓으나 지붕의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기단 위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반적으로 지붕 처마선에서 얼마간 안쪽에 놓이도록 쌓는다. 다만 궁궐 정전이나 종묘·사직단 등 월대가 있는 건물 기단은 예외이다.

특징 및 의의 기단의 높이는 건축에서 의장적으로 중요한 요소이다. 지붕면이 정면이 되는 우리나라 건축에서 기단이 없거나 그 높이가 낮을 때에는 건물외관이 불품없는 반면, 기단이 높은 건물은 외관상 당당한 위계를 뽐여낸다. 따라서 기단의 높낮이는 건축물과 공간의 위계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요소로 기능하였다. 조선시대의 사대부집에서도 행랑채의 기단이 가장 낮고, 사랑채와 안채 등 몸채의 기단이 가장 높다. 궁궐에서는 정전의 기단이 편전이나 다른 부속전각들의 기단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사찰의 가람 배치

에 있어서도 대웅전의 기단이 주변의 회랑이나 부속 건물들에 비해 기단이 높게 되어 있다. 이는 모두 공간의 위계성을 나타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차등을 둔 배치 결과인 것이다.

기단에는 일반적인 기단 축조 방법에서 벗어나 특수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조성한 것도 있다. 예를 들어 감은사感恩寺 금당의 기단은 『삼국유사三國遺事』만파식적조萬波息笛條에 전하는 바와 같이 문무왕이 왜구를 물리치기 위하여 대왕암大王巖 수중묘水中墓에 묻히고 바다의 용이 되어 감은사 금당에 드나들겠다는 유언에 따라 다른 사찰 금당지 기단과는 달리 장대석長臺石으로 우물마루를 짜듯이 기단을 형성하고 그 위에 초석을 놓고 금당을 건립함으로써 실제 용이 드나들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건물 기단에서는 다양한 건축의례도 행해졌다. 건축의례는 건축 공정 단계와 의례 유물의 매납 위치에 따라서 기초시설, 기단, 적심, 중정, 담장과 문지 등 다섯 가지 형태로 행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중 기단 조성 시에 행해지는 의례는 진단구鎭壇具의 매납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기단의 특정한 지점을 파고 용기류 등을 매납한 후에 다시 흙을 채워서 메워 놓는 형식이다. 대부분 파낸 구덩이 내에 한 점의 진단구가 단독으로 매납되며, 두 점 또는 네 점의 지진구가 가지런히 배치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형태의 진단구는 정연한 석조기단이 갖추어지기 시작하는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 이후의 건물지 기단에서부터 유행하기 시작하여 이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건물지 기단에서도 보편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그 전통이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진단구는 건물의 기단을 조성할 때 땅의 기운을 누르기 위한 목적으로 기단의 특정 장소에 묻는 의례용 유물로서 일종의 지진구를 말한다. 이러한 진단구 또는 지진구의 매납의례는 건축의례의 한 형태로서 집을 지을 때 건축행위를 토지신의 뜻이라 생각하여 토지신의 힘에 의지하고 사고 없이 공사를 마치며 집안의 평안과 번창을 기원하는 무속적이고 주술적인 행위로서 이루어졌다.

참고문헌 알기 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김왕직, 동녘, 2009), 지진구와 지진의례(오셋별, 정신문화연구36-3, 한국학중앙연구원, 2003), 한국건축미(주남철, 일지사, 1983), 한국건축의장(주남철, 일지사, 1979), 한국고건축단장(김동현, 통문관, 1977), 한국민속신앙사전-가정신앙(국립민속박물관, 2011).

필자 김길식(金吉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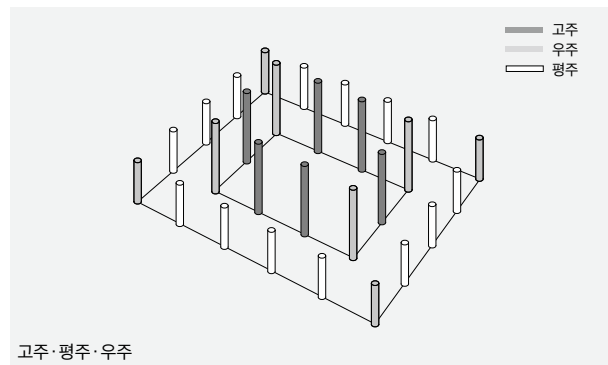
기둥

정의 초석 위에 수직으로 세워 지붕을 지지하는 구조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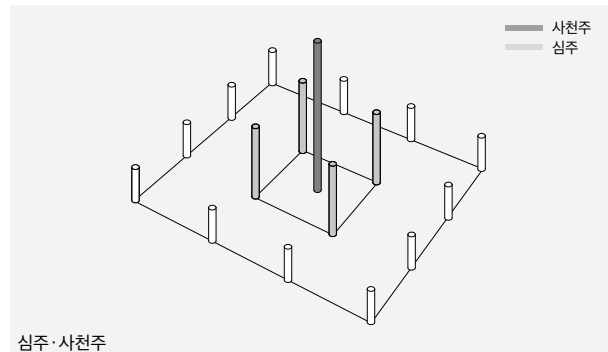
기둥

개관 기둥은 단면 형태에 따라 원주圓柱와 각주角柱로 구분된다. 단면이 원형인 기둥을 원기둥 또는 원주라고 하는데, 두리기둥 또는 도랑주라고도 불린다. 단면이 다각형인 기둥은 각주라고 한다. 사각형이면 방주方柱 또는 방형기둥, 육각형이면 육각주, 팔각형이면 팔각주라고 부른다. 이들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하는 기둥은 원주와 방주이다. 육각주나 팔각주는 누정건축에 많이 사용한다. 고구려 고분인 쌍영총雙槨塚과 경주 석굴암石窟庵에는 각각 두 개의 기둥을 사용하였는데, 팔각주를 세운 특징이 있다.

내용 기둥은 건축물의 평면에서 어떤 위치에 놓이는지에 따라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 건물의 외곽에 위치해서 외부로 노출되는 기둥을 ‘평주平柱’, 평면 내부에 위치한 기둥을 ‘고주高柱’라고 부른다. 전통적인 지붕은 중앙을 중심으로 경사지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부에 위치한 기둥을 높게 만들기 마련이다. 이런 까닭에 높은 기둥이라는 의미에서 고주라고 하였다. 건물의 모퉁이에 위치한 기둥은 ‘우주隅柱’ 또는 ‘곶기둥’이라고 한다. 우주도 평주의 일종이지만 다른 평주에 비해 굵고 높게 만드는 특징이 있다. 그 외에 건물의 평면 모서리 바깥 45° 방향에 위치한 기둥을 ‘활주活柱’라고 부른다. 다른 기둥에 비해 매우 가늘게 만들어지며, 직립하기도 하지만 약간 기울여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건물을 처음 지을 때 계획에 의해 활주를 설치하기도 하고, 후대에 건물이 기울어지기 시작하



고주·평주·우주



심주·사천주

기둥 |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 | 김왕직·동녘

면서 보강하기 위해 설치하는 경우도 많다. 건축물에 변형이 일어날 때 가장 취약한 추녀 부분을 보강하기 위한 기둥이다.

목탑건물의 한 중심에 세운 기둥을 ‘심주心柱’라고 부른다. 또 심주 외곽에 사방으로 세운 네 개의 기둥을 ‘사천주四天柱’라고 부른다. 심주는 건축물을 짓는데 필수적인 기둥이라기보다 의례와 관련된 기둥으로 보인다. 심주 아래에는 심초석心礎石을 두어 이곳에 사리공舍利孔을 만든다. 사리공에는 사리를 모신 사리기舍利器와 탑을 만든 인연을 기록한 탑지塔誌를 봉안한다. 최근 익산 미륵사지彌勒寺址 석탑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사리기가 발견되어 <서동요>의 진위가 논란이 된 일이 있다. 이 역시 심주 하단의 심초석에서 발견된 것이다.

1615년(광해군 7)에는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창경궁昌慶宮을 재건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11월경에는 문정전文政殿 건립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다. 문정전은 창경궁의 편전이다. 창경궁의 전체 전각들 중에서 정전正殿인 명정전明政殿 다음으로 위계상 중요한 건물이다. 광해군은 새롭게 지어지는 문정

전의 기둥 형태가 몹시 눈에 거슬렸던 것으로 보인다. 광해군은 “문정전은 법전法殿이니 원주를 세워야 마땅할 듯하다. 지금 방주를 세웠는데 원주로 바꿀 수는 없겠는가? 자세히 의논하여 아뢰라고 선수도감繕修都監에 말하라.”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문정전 기둥을 원주와 방주 중에서 어떤 형태로 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광해군은 계속 문정전의 기둥을 원주로 바꾸라고 지시하였다. 하지만 신하들은 문정전의 옛 초석 형태가 방형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문정전의 기둥은 방주였고, 원주로 교체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문정전의 기둥을 교체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1616년 2월 21일까지 석 달 이상 계속되었다. 이후 문정전의 기둥을 원주로 교체하였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기둥의 단면 형태가 건축물의 위계를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의 문정전은 1986년에 방주로 복원되었다.

경복궁景福宮의 강녕전康寧殿, 교태전交泰殿, 경회루慶會樓는 모든 평주를 방주로 만들었고, 내부의 모든 고주를 원주로 만들었다. 창덕궁昌德宮 대조전大造殿은 대청의 고주 여덟 개만 원주를 사용하였고 평주와 다른 고주는 방주를 사용하였다.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천원지방天圓地方(하늘은 둥그랗고 땅은 네모지다)의 원리에 따라 기둥의 단면을 구성하였다는 것이다. 경회루의 평면구성은 <경회루전도慶會樓全圖>에 기술되어 있으며 동양철학 사상을 구현한 것이라고 한다. 대조전 상량문에 “넓이는 양의兩儀(음陰과 양陽), 사상四象, 팔괘八卦, 384효爻에 맞추고, 문戶牖은 사서四序(춘하추동春夏秋冬), 오행五行, 칠수七宿와 한 해의 72후候를 상징하여 바다의 경계가 따로 없는 것처럼 팔방八方을 함육涵育하며 만물을 자생賡生하는 곤원坤元에 합치한다.”라고 기록하였다. 천원지방을 상징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원주를 사용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기둥의 단면 형태에 상징을 부여한 것은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주택건축에서도 원주를 발견할 수 있다. 하회마을의 양진당養眞堂은 대부분 방주를 사용하고 안채의 대청과 사랑채의 육간대청에만 원주를 사용



방주와 원주 | 서울 종로구 창덕궁 대조전 | 국립민속박물관



활주 | 경기 여주 신륵사 극락보전 | 2005 | 이연노

하였다. 많은 조선시대 사대부 주택에서 대청 부분의 기둥이 원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때 외부에 노출되는 기둥에 한해서 원주를 사용하였다. 일종의 권위를 외부에 드러내는 수단으로 기둥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간혹 원주를 사용해야 할 건물에 팔각주를 사용한 경우가 있다. 이는 원주와 팔각주의 공정이 겹치는 특성을 이용한 것이라고 추측된다. 원주를 만들 때는 원목재의 마구리에 정팔각형을 작도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다음으로 목재를 눕혀 놓고 여럿이서 자귀로 목재를 깎아 정팔각형의 기둥을 만든다. 이후 팔각주의 마구리를 깎아 16각주를 만든 다음 돌려 가면서 깎아 원주를 만든다. 따라서 팔각주를 사용한 경우는 원주 대신에 간이 형태의 팔각주를 세운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목조건물의 소재로 소나무를 으뜸으로 친다. 하지만 수덕사修德寺 대웅전, 부석사浮石寺 무량수전, 해인사海印寺 장경판전과 같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목조건축물들은 기둥재로 느티나무를 사용하였다. 이 외에도 많은 불전에서 느티나무 기둥을 흔하게 볼 수 있으며, 이 기둥에 얹힌 전설을 이야기하곤 한다. 느티나무는 괴목槐木으로 기록되었다. 1793년(정조 17) 수원 화성華城을 영건하는 과정에서 느티나무 기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12월 18일 수원유수 조심태趙心泰는 “소나무는 비바람에 꺾여 나가 썩기 쉽습니다. 이번 남북 층루의 많은 동량을 비록 일일이 의논할 수 없다 할지라도 외동外棟(평주)은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영호남의 여러 섬은 잡목이 나는 곳이니 이런 내용을 해당 도의 수신帥臣과 통제사統制使에게 명령하여 괴잡목槐雜木 동재棟材 백 그루를 베어다가 도내 조세선漕稅船 편에 각각 나눠 부쳐 보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이 논의에 따라 수원 화성의 문루 및 장대의 평주는 모두 괴잡목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호남과 영남의 각 섬과 봉산에 자라는 괴잡목을 찾기 시작하였다. 괴잡목을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많은 인원이 일일이 각 섬을 찾아다녔고 여러 폐단이 발생하였다. 괴잡목을 별목하였다 하더라도 운반에 매우 큰 어려움이 있었다. 결국 영남의 괴잡목은 사용하지 않았고, 호남의 괴잡목

만을 운반해서 사용하였다. 좌수영은 스무 그루, 우수영은 스물다섯 그루의 괴잡목을 별목하였다. 이들 외에 일곱 그루를 더해 총 선두 그루의 괴잡목을 수원으로 운반하였다.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에 따르면 괴잡목은 각각 길이가 15자, 말원경末圓徑(건축에 사용되는 원목의 밑둥 지름을 나타내는 단위) 2자 5푼의 크기로 기록되었다. 괴잡목은 장안문長安門과 팔달문八達門의 하층 평주 열네 개 중에서 일곱 개, 서장대西將臺의 하층 평주 열두 개 중에서 여덟 개, 동장대東將臺의 평주 열여덟 개 모두와 화성행궁華城行宮 유여택의 스무 개 평주 중에 여섯 개 기둥을 만드는 데 사용하였다. 느티나무가 건축재로서 매우 훌륭한 목재였지만 쉽게 구할 수가 없어서 건축재로 사용하기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고대 건축에서는 모든 부재를 계획한 대로 오차 없이 깎아서 사용하였다. 기둥은 직립하였고, ‘편수깎기’라고 해서 기둥머리 부분을 둥그렇게 모 접이 하였다. 인공으로 깎아 낸 기둥이 부자연스러울까 염려돼서 기둥의 배를 부르게 만들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 들어서서 ‘천생天生’의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건축물들이 등장하였다. 자연스럽게 자라난 나무의 모습을 그대로 살려 별다른 가공 없이 기둥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현상은 특정 지역이나 인물에 의해 주도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가장 대표적인 건물이 구례 화엄사華嚴寺 구층암九層庵의 요사채와 안성 청룡사靑龍寺 대웅전이다. 구층암 요사채는 매우 거대한 건물로 많은 기둥을 사용하였다. 주불전인 천불보전이 있는 마당 쪽으로 세 칸의 대청을 두었는데, 이 대청에 사용한 정면 두 개의 모과나무 기둥이 매우 독특하다. 용이 승천하는 모양처럼 휘돌아 감긴 모습이고 곳곳이 깊게 움푹 파였다. 하나의 기둥은 위쪽에서 두 개의 가지로 갈라졌다. 감히 기둥재로 사용하겠다는 꿈을 꾸기 어려운 나무이다. 기둥의 위치나 형태로 보면 분명히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거칠고 정제되지 않은 새로운 건축 조형을 추구하는 경향이다.

참고문헌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김왕직, 동녘, 2007), 유물에서 보이는 기둥단면형에 관한 연구(양재영·주남철, 대한건축학회논문집19-7, 대한건축학회, 2003), 지혜로 지은 집 한국 건축(김도경, 현암사, 2011), 한국고대건축의 기둥단면형에 관한 연구(양재영·주남철, 대한건축학회논문집20-3, 대한건축학회, 2004).

필자 이연노(李演魯)

기와

정의 양질의 점토로 성형한 다음 가마에서 높은 온도로 구워 낸, 목조건물의 지붕에 이는 건축 부재.

개관 목조건물의 지붕은 예부터 갈대나 이엉, 벗짚, 나무껍질 등으로 이었으나 누수가 많고 자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점토로 제작한 반영구적인 기와가 출현하게 되었다. 목조건물의 지붕에 기와를 이는 것은 동아시아 건축의 주요한 특색 가운데 하나로, 약 3,000년 전 중국의 서주西周 초기부터 제작되어 사용되었다.

우리나라는 기원전 2세기경 한사군 설치에 의하여 중국에서 기와가 처음 들어온 이후 각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발달하였다. 삼국시대에는 기와가 고구려·백제·신라로 나뉘어 각각 특색 있게 전개되었고, 통일신라에 이르러 폭넓은 복합 과정을 거쳐 동아시아에서 가장 세련되고 화려한 정화기를 맞았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는 취문과 취두, 잡상과 망와 같은 새로운 기와가 출현하였다. 기와는 그 의장이 장식성에서 기능성으로 바뀌었고, 제작 기법의 간략화가 나타났다. 조선 말기에는 조와 기구인 와서瓦罽가 폐지됨으로써 와공집단과 기와의 수급관계가 붕괴하였고, 일제강점기에 암·수키와의 구별이 없는 잔기와[殘瓦]가 일본에서 유입되어 성행하면서 전통의 맥을 오늘날까지 잇지 못하였다.

내용 기와는 지붕에 사용되는 위치에 따라 종류가 많고 명칭이 다양해서 목조건축의 발달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주요한 근거가 된다. 우리나라의 기와는 사용처와 형태에 따라 기본기와, 막새[瓦當], 서까래기와,

마루기와, 시유기와, 문자기와, 와범, 특수기와, 부속기와로 분류되는데 그 종류가 50여 종에 이르러 수준 높은 목조건축의 위상과 장식의장을 알 수 있다.

기본기와는 목조건물의 지붕 바닥을 이는 기와로, 수키와[夫瓦]와 암키와[女瓦]로 나뉜다. 수키와와 암키와는 지붕에 이어져서 기왓등과 기왓골을 형성하여 침수를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키와는 모골模骨에서 성형한 원통기와를 두 쪽으로 나누어 제작한다. 연강이 없는 무단식과 연강과 미구가 내밀고 있는 유단식으로 구분된다. 암키와는 와통瓦桶에서 성형한 원통기와를 네 쪽으로 나누어 제작하는데, 약간 굽은 네모꼴이다. 암·수키와의 표면에는 선조, 승석, 초화, 문살, 우상羽狀, 창해파滄海波 등 시기가 다른 고판무늬[叩板文]가 새겨진다.

막새는 기본기와의 한쪽 끝에 무늬를 새긴 드림새를 덧붙여 제작한 기와이다. 수막새, 암막새, 이형막새로 구분된다. 막새는 처마 끝에 이는 기와이다. 연꽃, 당초, 보상화, 금수禽獸, 귀면 등 여러 무늬가 새겨져 길상·벽사·불교의 염원을 상징한다. 이형막새는 반원막새와 타원막새, 소형막새와 모서리암막새, 끝암키와로 나뉜다. 반원막새와 타원막새는 지붕이 ㄱ자로 꺾이는 회첨에 사용된다.

서까래기와는 서까래의 부식을 막고 치장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연목기와[椽木瓦], 부연기와[附椽瓦], 사래기와, 토수吐首로 나뉜다. 연목기와는 원형 둥근 서까래에 부착되는데, 중심부에 못 구멍이 뚫려 있다. 부연기와는 네모꼴이며, 연목에 덧댄 부연에 사용된다. 사래기와는 추녀 끝 사래에 사용되는 원두방형의 기와이다. 조선시대에 와서 토수로 바뀐다. 토수는 잉어나 이무기 같은 형태로 제작되는데, 화마를 막는 역할을 한다. 서까래기와는 삼국시대에 제작되어 고려시대까지 성행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서까래기와 대신에 대부분 단청으로 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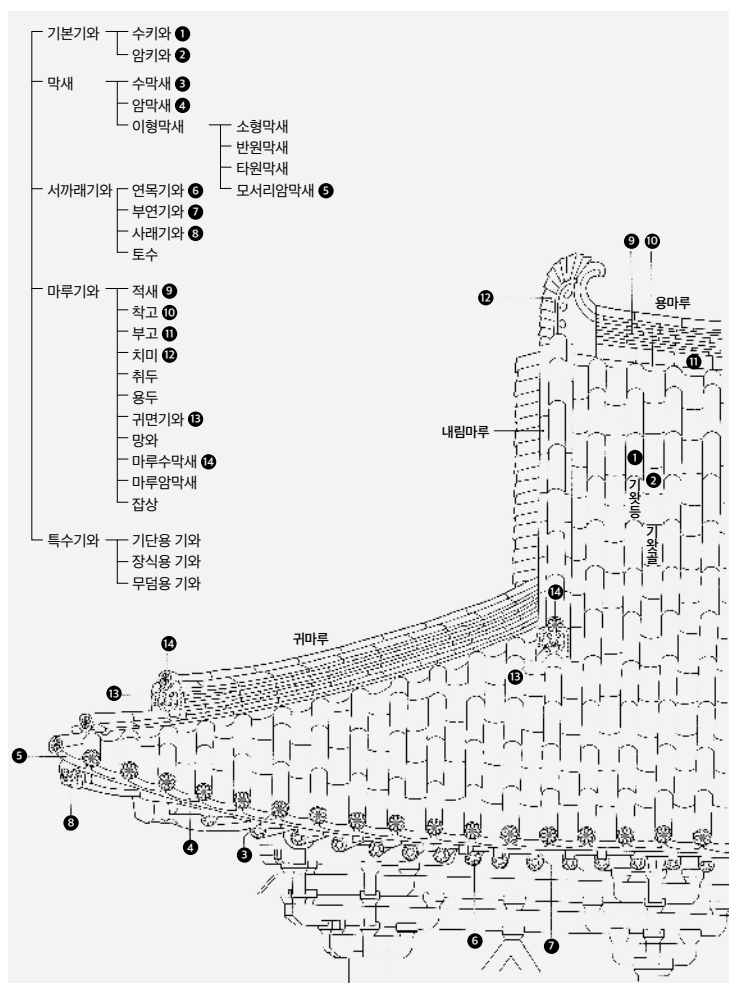
목조건물의 지붕은 용마루, 내림마루, 추녀마루로 구분되어 건물의 위용과 품격을 나타낸다. 마루기와는 지붕마루에 사용되는 기와로, 마루축조기와와 마루장식기와로 나뉜다. 마루축조기와는 지붕마루를 쌓아 올리는 기와이다. 착고와 부고, 적새와 마루끝수

키와가 있다. 착고는 마루 밑의 기왓골을 막음하는 기와로, 수키와를 재단하여 제작한다. 부고는 착고 위에 이은 기와로, 완형의 수키와를 그대로 사용한다. 적새는 부고 위에 사용되며, 암마루장기와와 수마루장기와로 나뉜다. 마루끝수키와는 각 마루의 끝을 막음하는 수키와이다. 마루끝기와가 거의 제작되지 않은 조선시대에 사용되었다.

마루장식기와는 건물을 수호하고 위용과 미관을 나타낸다. 마루장식기와는 각 시대와 건물 규모에 따라 다양하게 제작되었다. 치미鷗尾, 치문鷗吻, 취두, 용두, 잡상雜像, 귀두鬼頭, 망와望瓦, 마루수막새와, 마루암막새, 마루끝기와, 마루끝수막새, 절병통, 보탑, 보주장식 등으로 구분된다. 치미는 길상의 의미로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제작되었다. 취문은 어룡 형태로 고려시대에 성행하였으며, 화마를 막는 벽사를 의미한다. 취두는 조선시대에 성행하였는데, 왕실의 권위와 벽사를 의미한다. 용두와 귀두는 화마와 사귀를 막고, 잡상은 궁궐의 마루를 장식하고 건물을 수호하는 역할을 한다. 마루끝기와는 귀면이 장식되어 사귀를 막는 벽사를 나타냈다. 망와는 조선시대의 민가에서 주로 사용되었는데, 드림새가 위로 향한 모습이다. 절병통은 정자나 모난 지붕에 사용되며, 보탑과 보주장식은 용마루에 장식되어 불교의 특성을 나타냈다.

시유기와는 녹유기와, 청자기와, 청유기와[靑瓦]로 구분된다. 녹유기와는 백제에서 고려까지 제작되어 사용되었고, 청자기와는 고려시대에 궁궐의 정자에 이어졌다. 청유기와는 조선시대에 제작되었으며, 청유와 황유가 함께 시유된 막새가 경복궁에서 출토되었다. 문자기와도 약간씩 제작되어 기와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와범은 막새를 제작하는 틀로, 도제와 목제가 있다. 특수기와는 장식용·무덤용·전탑용·담장용·배수로용으로 구분된다. 부속기와는 완형의 암·수키와를 여러 모양으로 재단한 기와로, 특정한 장소에 사용되어 보조 역할을 한다.

특징 및 의의 기와는 목조건물의 지붕에 이어져 방수와 방화는 물론 오래 건널 수 있는 내구성耐久性和 함께 건물의 품격과 위상을 잘 보여 준다. 막새에 새겨진



고대 기와의 사용처 | 김성구

다양한 무늬와 마루에 이어진 여러 마루장식기와를 통하여 길상과 벽사, 불교의 특성을 살필 수 있다.

수막새에 새겨진 연꽃무늬를 통하여 고구려의 힘찬 모습과 강인함, 백제의 부드러운 모습과 단아함, 신라의 투박한 모습과 몽툰함 등 서로 다른 문화의 차이를 살필 수 있다. 통일신라의 기와는 동아시아에서 최고 수준을 차지하였는데, 화려하고 섬세한 장식성을 잘 발휘하였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취문과 취두, 용두와 잡상 및 망와 등 새로운 기와가 출현하였으나 기와 형태가 변화하면서 견실한 기능성을 나타냈다.

옛 기와는 당시 사람들의 따스한 심성은 물론 그 시대의 관념, 의식, 사상 등이 투영되어 고대문화를 이해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 우리나라 기와집은 주

변 산과 강, 들녘의 자연환경과 어울려 동아시아 건축에 있어서 한옥韓屋이라 부르는 특유한 주거문화로 자리하였다.

참고문헌 돌아온 와전 이우치 컬렉션(국외소재문화재재단·유금와당박물관, 2015), 삼국시대 평기와 연구(최맹식, 주류성, 2006), 옛 기와(김성구, 대원사, 1992), 우리나라 전통무늬6-와전(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한눈에 보는 제와(김성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8).

필자 김성구(金誠龜)

기와집

정의 지붕을 기와로 덮어 마무리 한 집을 부르는 명칭.

내용 기와집은 전 세계적으로 흔히 발견되는 집의 유형이다. 역사 또한 서양에서는 고대 그리스나 로마시기부터 있어왔으며, 우리나라도 삼국시대 유물에서 기와가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이미 기와로 지붕을 얹은 집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전통가옥은 지붕을 이는 재료나 땅에 얹은 외벽의 모양으로 집의 이름이 불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기와집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 그래서 기

와를 얹은 집을 통칭 ‘기와집’이라 부르지만 실의 연결방법에 따라 다른 명칭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기와는 흙을 주재료로 틀에 부어 가마에 구워 낸다. 때에 따라서는 흙 이외의 것들을 부재료로 섞어 완성품으로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아예 흙이 아닌 금속재질로 기와 형태를 만들어 집의 지붕 마무리를 하기도 한다. 그래서 흙을 주재료로 하여 구울 때 청색 유약을 발라 청기와를 만들기도 하고, 구리를 기와 모양으로 담금질하여 지붕을 덮기도 한다.

기와로 지붕을 한 한옥이 대부분인 마을 입구에 서면 멀리서 기와만 보인다. 기와집 입면은 기와가 차지하는 부분이 거의 절반에 가깝고 색까지 검기 때문에 집의 외관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 그리고 집의 가구 구조에 따라 지붕의 모양이 정해지는데 그 종류로는 대표적으로 맞배지붕, 팔작지붕, 우진각지붕, 모임지붕 등이 있다. 이는 집의 기능에 따라 결정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모임지붕은 일반적으로 정자 같은 용도에 쓰이는 것이 그 예이다. 기와지붕은 나무로 산자를 엮어 얹고 그 위에 흙을 덮은 다음 넓고 완만한 곡선 모양의 암키와를 아래에 깔고 좁은 반원 모양의 수키와로 두 개의 암키와를 연결하면서 완성한다. 기와의 끝부분에 막새기와를 쓰거나 흙으로 메워 기와장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마무리하는데,



운강 고택 | 경북 청도 | 서현강

때에 따라서는 이 과정을 생략하기도 한다.

외관으로는 비슷해 보이는 기와집도 지역에 따라 기와의 두께가 달랐고 기와의 곡률반경에도 차이가 있다. 또한 기와의 넓이와 길이도 와공의 선택과 건축주의 취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에 대한 다양한 이유가 알려져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기와의 차이가 집의 전체적인 모습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검은 기와장으로 우리의 선조들은 다양한 의도와 모습을 담아 왔다. 기둥, 보 그리고 도리 위에 서까래를 걸고 기와를 얹은 집을 모두 ‘기와집’이라고 통칭하기에는 많은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기

초

특징 및 의의 집에 기와를 얹는다는 것은 부유함의 상징이었고, 또 그 안에서도 나름의 층위가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장면이 그림으로 남아 있어서 선조들의 건축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김홍도의 <기와이기>나 기산 김준근의 풍속도에 잘 나타난다. 사실적으로 표현된 그림 속에서 기와를 얹어 집을 완성하는 과정에 등장하는 사람들 각각이 다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기와이기는 많은 노동력과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알려 준다.

가끔 오래된 한옥의 기와를 교체하고자 구와를 내리면 기와장에 재미있는 여러 가지 그림이나 문자가 새겨진 것을 볼 수 있다.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와를 구운 장인의 이름이나 일시가 적혀있기도 하고 집안의 평안을 기원하는 문구를 담아 놓은 것도 있다. 이를 통해 집의 중수 시기를 알 수도 있으니 기와의 역할은 비바람으로부터 집을 지키는 것 이외에 집의 역사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참고문헌 서해도서민가 평면형식의 지역적 특성에 관한 연구(박선주,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한국건축대계4-신편 한국건축사전(장기인, 보성각, 1998),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16-주생활(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5).

필자 박선주(朴宣注)

기초

基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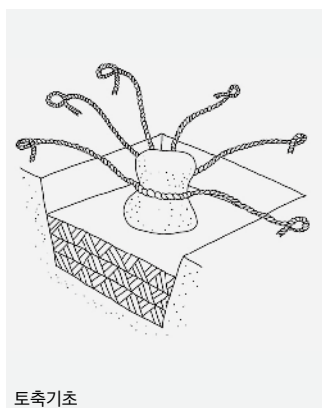
정의 건축 구조물에서 상부의 압력을 지반으로 전달하여 구조물을 안전하게 지탱하는 기능을 가진 건축 구조체계의 한 부분.

내용 기둥, 벽, 토대 및 동바리 등으로부터의 하중을 지반 또는 터다지기에 전하기 위해 두는 구조 부분으로 독립기초, 복합기초, 줄기초, 온통기초 등이 있으며, 넓은 뜻으로는 건물 자리를 파고 터다지기를 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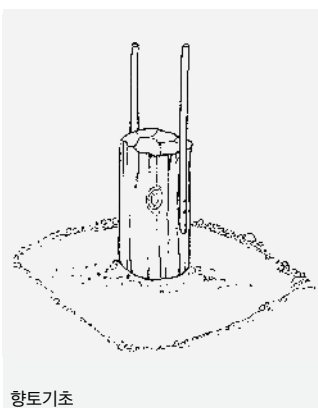
건물 본체를 의미하는 상부 구조에 대응되는 하부 구조로서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공사를 기초공사(基礎工事)라고 한다. 건물이나 다리 등과 같은 건축 구조물의 무게를 받치기 위하여 만든 밑받침도 기초에 포함된다. 특히 상대적으로 지반이 약한 곳은 기초를 튼튼히 하여 건물을 올려야 한다. 따라서 기초는 토지에 정착되는 하부 구조물로서 지반(토지)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야 상부 구조물인 건물이 안정하게 지탱된다. 기초가 튼튼하게 고정되지 않으면 건물이 전도되거나 침하 또는 미끄러져 내리게 되어 건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상부 구조물인 건물에는 무게에 의한 하중이 아래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반이 버티는 힘인 지내력이 약한 경우에 건물이 전체적으로 내려앉게 되는 동침하(同沈下) 또는 한쪽만 내려앉아 건물이 기울어지는 부동침하(不同沈下) 현상을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초 구조물을 설치해 건물의 하중을 분산시킨다. 그러므로 건물을 지탱하는 기초의 지내력이 건물의 하중보다 커야 건물이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기초를 만들기 위해 땅을 파는 작업을 토공사(土工事)라고 한다. 어떤 건물이든 건물을 지을 때는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대지 조성, 즉 토공사에서부터 면밀하게 해야만 제대로 된 건물이 올려져 지탱될 수 있는 것이다. 그만큼 기초는 모든 건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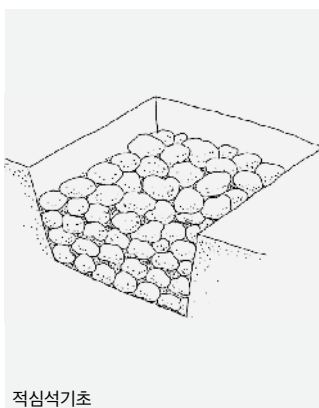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전통건축에서는 하부 구조물을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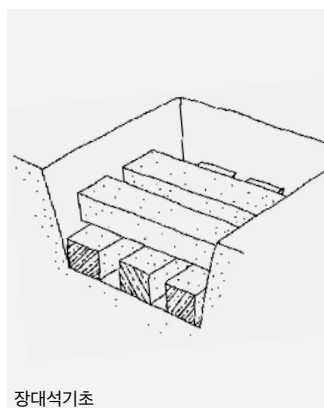
토축기초



향토기초



적심석기초



장대석기초

기초 |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 | 김왕직·동녕

하기 위해 시행되는 터 닦기와 닦은 터 위를 다지는 기초다짐, 기초다짐 위에 설치되는 기단, 기단에 기둥을 받치기 위해 설치하는 적심과 초석 등이 기초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가장 먼저 하는 터 닦기로는 건물이 들어설 땅을 지정하여 평평하게 닦거나 땅을 파서 기초 대지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경사면에 터를 닦는 경우 윗부분을 깎아 내어 아랫부분에 물성이 다른 흙과 함께 층층이 다져서 수평을 맞추어 조성한다. 바닥면은 기초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요철凹凸이 생기게 닦는 경우가 많다. 물성이 다른 흙과 모래 등을 켜켜이 깔아 다지거나 달구질을 하여 바닥 기초면을 다진다. 또 좁은 면적에 하중이 많은 구조물이 건립되는 경우 구조물의 설치 범위에 깊은 토광을 파고 그 속에 점토, 모래, 마사토, 목탄 등을 교대로 다져 넣어 견고한 기초를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토공법은 백제 사찰의 목탑·석탑지의 기초 조성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그다음 닦은 터 위에는 건물의 하중을 직접 지탱하는 기단을 조성한다. 기단은 쌓은 재료에 따라 흙으로 쌓은 토축기단土築基壇, 벽돌로 쌓은 전축기단塼築基壇, 돌로 쌓은 석축기단石築基壇, 벽돌과 돌을 섞어 쌓은 석전혼용기단石塼混用基壇, 기와로 쌓은 와적기단瓦積基壇 등 시기와 건물의 규모, 위상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사용되었다. 어느 경우든 기단 테두리의 재료만 다를 뿐 기단 내부는 토축으로 조성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토축기단이 기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기단 내부의 토축은 점토, 모래, 마사토, 목탄 등 물성이

다른 재료를 이용하여 켜켜이 다지거나 달구질을 하여 단단하게 조성한다.

기단이 완성되고 나면 건물의 평면 배치 계획에 따라 초석이 놓일 자리에 깊은 토광을 파고 그 속에 적심積心을 하여 초석 기초를 만든다. 적심은 지반이나 기단에 원형이나 방형으로 깊은 구덩이를 파고 그 속에 크고 작은 막돌이나 천석을 다지면서 채워 넣어 만든다. 경우에 따라서는 적심 대신 모래를 다져 넣은 모래적심도 많이 사용되었다. 적심이 완성되면 그 위에 초석을 고정시킴으로써 최종적으로 건물이 올라갈 기초가 완성된다.

초석은 가공되지 않은 자연석 초석과 가공된 가공석 초석이 사용되었다. 자연석 초석은 건물과 기둥의 규모에 맞는 적당한 크기의 자연석을 놓아 기둥을 받치는 것으로서 ‘덤병주초’라고도 한다. 이 자연석 초석의 경우 그 상면이 울퉁불퉁하므로 기둥의 밑면을 ‘그랭이질’하여 초석면에 맞추어 세운다. 가공석 초석은 기둥이 놓이는 자리인 주좌柱座의 가공 형태에 따라 원형초석·방형초석·팔각형초석 등이 있으며, 초석의 높이가 높은 원주형초석圓柱形礎石·방주형초석方柱形礎石 등도 사용되었다.

특징 및 의의 이와 같은 공정을 거쳐 조성되는 건물 기초는 건축공학적으로 단순히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그 규모와 형태, 축조 재료와 가공 방법, 조성 방법 등에 따라 건물의 성격과 기능은 물론 건물의 위상까지 알 수 있는 중요한 건축 구성 요

소인 것이다.

한편 건축의례는 집을 짓기 위해 집터에 제사를 지내는 행위에서부터 집이 지어진 후 이루어지는 집들이까지 일련의 과정 속에서 행해지는 의례를 가리킨다. 흔히 고사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한 가지 일을 매듭짓고 다음 일로 넘어가는 고비에서 잠깐 숨을 돌리는 휴식의 뜻과, 앞으로 해나갈 일을 다지는 뜻이 함께 들어 있다. 이때 집주인은 특별한 음식을 장만하여 목수나 토역꾼들을 대접하는 것이 관례이다. 건축의례에는 일반적으로 날받이, 텃고사[土神祭], 개공고사[開工祭], 모탕고사, 성주 운보기, 상량고사, 집들이고사, 성주고사 등이 있는데, 그중 건물의 기초를 조성할 때 이루어지는 의례는 텃고사와 개공고사이다.

텃고사는 집터의 토지신에게 땅을 파헤치고 집을 짓게 되었으니 공사의 시작을 알리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액운이 없도록 도와 달라고 지내는 제사이다. 보통 달구질을 하기 전에 집주인이 삼색 과일과 술, 포 등의 제물을 진설하고 제사를 올린다. 제사는 남자 주인이 하며, “부자 되게 해 달라.”라고 축원한다. 이때 집터 한가운데에 흙을 적당히 모아 놓고 주위에는 원새끼를 둘러쳐서 잡귀의 근접을 막는다. 제사가 끝나면 제물의 일부는 집터 중 한 곳에 땅을 파고 묻거나 집터 주위에 뿌린다. 고사를 지내지 않는 곳에서는 동토[動土]가 나지 말라는 의미로서 보통 집터 가운데 술을 붓는 의식을 하기도 한다. 텃고사는 집터 뿐만 아니라 묘지를 조성할 때도 지냈다. 공주 무령왕릉에서 토지신에게 묘지로 쓸 땅을 사들이는 형식을 밟는 증서인 매지권이 출토된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또 수원성을 쌓을 때도 팔달산주[八達山主]인 처사[處士] 이고[李皐]에게 제사를 올렸다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관념은 산 자의 집터를 양택[陽宅], 죽은 자의 집터인 무덤을 음택[陰宅]이라 하여 한가지로 본 데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텃고사가 끝나면 집터를 다져서 기단을 조성하는데, 이를 ‘지경다지기’라고 말한다. 지경다지기는 한 짐 정도 되는 둥그란 돌에 여러 가닥의 줄을 연결하여 스무 명 정도의 인원이 줄을 들었다 놓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하는 달구질을 말한다. 이때 돌에 연결된

줄은 ‘젓줄’이라고 부른다. 보통 일을 마치고 난 후 저녁에 2~3시간 정도 터를 다진다. 기단을 조성하는 지경다지기를 할 때도 정해진 의식을 한다. 지경꾼의 호흡을 맞추기 위하여 선소리꾼은 북 장단에 맞춰 주문을 읊조리고, 지경꾼들은 “에헤야 지경이여”라는 후렴으로 되받아 준다. 이때 고사를 지내고 고사에 쓴 떡과 술을 지경꾼에게 대접을 하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팔죽을 쑤어 주기도 한다.

텃고사와 지경다지기 의식 다음에는 개공고사를 지낸다. 개공고사는 건물의 기초인 기단 조성이 끝나고 일꾼들이 일을 벌이기 직전에 올리는 제사이다.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개 기단 가운데에 흙을 모아 삼을 쪼고, 백설기·시루떡·명태 등을 차려 놓고 고사를 지낸다.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 「복거[卜居]」에 의하면 “건물을 올리는 역사를 시작하는 날 제사가 끝나면 목수들은 마름질한 들보 뿌리 부분에 톱을 늘어놓고 가신[家神]을 모신 뒤에 제례를 올린다. 그리고 붉은 종이에 개공대길[開工大吉]이라고 쓴 문구를 들보머리에 붙이며, 따로 황색 종이에 강태공재차[姜太公在此]라는 글씨를 붉은 글씨로 써서 처음 손질한 나무에 걸어 둔다. 이렇게 하면 잡귀가 붙지 못한다. 개공고사는 오늘날의 기공식과 같은 것이다. 이 글귀는 집을 다 지을 때까지 더럽히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여 개공고사의 방법과 절차, 의미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건물의 기초와 관련된 의례는 고대 건축물에서도 확인되고 있어 오래 전부터 행해져 온 전통건축 의례의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텃고사와 개공고사의 결과물로 남겨진 것으로 추정되는 지진 또는 진단 의례 유구 및 유물이 그것이다. 초기 농경이 시작된 신석기 시대부터 주거지 내기둥 구멍에 즐문토기편을 매납하는 의례 행위가 확인되고, 청동기시대 주거지나 고상건물 내부에서도 초석 아래에 구덩이를 파고 그 속에 유물을 따로 매납하거나 건물 정중앙의 기둥구멍 속에 단도마연소호[丹塗磨研小壺]와 발鉢을 매납하는 등 지진과 관련된 건축의례가 확인된다. 이를 통하여 선사시대에는 땅을 주관하는 지신이 자연신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인식되었으며, 삼국시대 이후가 되면 지

신에 대한 관념이 보다 더 구체화되고 강력해져 건물을 지을 때 지진 또는 진단 의례가 더욱 성행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지진의례의 형태도 다양화된다.

삼국시대 이후 조선시대까지의 건물지에서 확인되는 지진유구와 지진구는 건물의 건축 단계에 따라 다양하게 확인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텃고사 또는 개공고사 이후에 땅의 기운을 진압하기 위해 매납한 것으로, 지진구로 사용된 용기는 유개합(有蓋盒)·광구병(廣口瓶)·도기호(壺)·백자호 등 다양한 재질과 기형의 용기가 사용되었다. 용기를 보호하는 덮개시설 또한 토기·도기·자기 등의 뚜껑이 사용되거나, 기와편을 보호 덮개로 전용(轉用)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지진구가 매납된 위치는 기초시설, 기단, 적심, 마당, 담장과 문지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로 보아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도 건물의 기초를 조성할 때 현재 민속에서 전하는 것과 같은 텃고사와 개공고사가 각 건축 공정에 따라, 건물의 각 구성 부분에 따라 건축의례의 하나로서 지속적으로 행하여져 왔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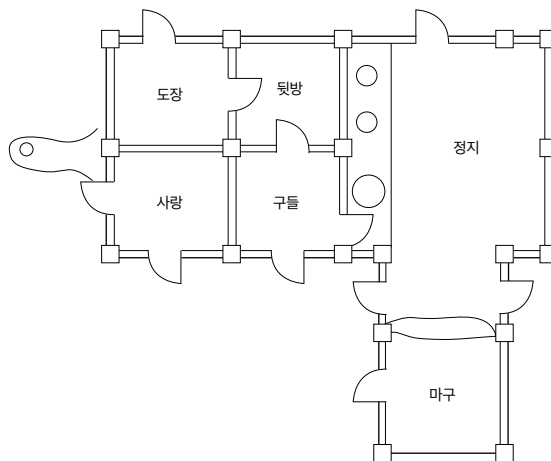
참고문헌 건축용어사전(현대건축관련용어편찬위원회, 성안당, 2019), 지진구와 지진의례(오셋별, 정신문화연구36-3, 한국학중앙연구원, 2003), 한국건축단장·상(신영훈, 동산문화사, 1975),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69), 한국주거민속지(김광언, 민음사, 1987).

필자 김길식(金吉植)

까치구멍집

정의 초가지붕의 측면 박공에 수직면을 작게 열어 두어 환기용으로 사용한 형태가 까치집의 출입 구멍처럼 보여 이름을 붙인, 경상북도 북부 및 강원도 남부 지역에 분포하는 전통 민가의 한 유형.

개관 초가지붕의 가구(架構) 일반 구조는 우진각지붕 모양이다. 연결 면이 부드러운 초가지붕 구조로는 맞배지붕과 팔작지붕 모양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방형의 평면에 경사지붕을 형성하면 삼각뿔(피라미



까치구멍집 도면 | 한국의 민가 | 조성기·한올아카데미

드) 형태의 지붕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때 평면 한쪽 방향의 길이가 길어지면 지붕의 삼각뿔 형상도 한쪽으로 길어지면서 정상부에 용마루가 길게 형성된다. 이러한 지붕 형상을 우진각지붕이라 한다. 우진각지붕 구조는 지붕 경사면이 만나는 곳에 있는 주요 구조체인 추녀가 용마루 하부 구조체인 종도리와 만나 뼈대를 형성한다. 까치구멍집은 우진각지붕이 팔작지붕 형상으로 변경되면서 생겨난 박공(朴工)에 형성된 구조에서 나타나는 형태이다.

내용 민가 유형은 본체의 깊이에 따라 홑집, 뒤틀집, 겹집으로 구분된다. 깊이가 한 칸인 홑집과 한 칸 반인 뒤틀집(혹은 반겹집)은 가구 구조의 차이가 크지 않아 주로 3량(樑)으로 형성되지만 두 칸 깊이의 겹집에서는 가구 구조가 5량으로 구성된다. 5량의 겹집 구조로 가구가 커지게 되면 더 이상 우진각지붕의 추녀를 길게 구성하기 어려워 추녀와 중량(中樑)이 만나는 부분에 합각(合閣)을 형성하게 되고, 지붕의 양 측면에 수직 벽면의 삼각형 구조인 박공이 구성되게 된다. 초가지붕에서의 용마루는 짚으로 된 이엉으로 만든다. 수직 박공 면에서는 마무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엉을 용마루의 끝에서 수직으로 내려오다 둥글게 감싸 박공 면 안으로 집어넣게 된다. 이때 그 틈이 박공 면에 구멍 형상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구멍을 완전히 막지 않고 환기공 및 채광창 용도로 둔 집을 까치구멍이 있는 집으로 지칭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까치구멍과 까치구멍집 내부 | 경북 봉화 | 서현강

한 동일한 평면에 지붕을 기와로 구성한 주거 유형도 있다. 이때의 지붕 형태는 팔작지붕이 되며, 까치구멍집이라고 하지 않는다. 대신 경북 안동 지역에서는 이들을 지붕 재료와 관계없이 평면 구조에만 주목하여 모두 ‘여칸집’(전면 3칸, 측면 2칸의 6칸집)으로 부르고 있다. 여칸집의 깊이가 세 칸이 되면 ‘두리집’(전면과 측면의 길이가 같아 둘레가 같은 집)으로 부른다. 강원도 남부 산간지역에서 지붕 재료가 참나무 판재로 바뀌면 ‘너와집’으로 부른다. 서해 백령도의 기와집 박공에는 환기공을 수키와를 겹쳐 둥글게 만들어 두고 ‘까치구멍’으로 부르기도 한다.

특징 및 의의 까치구멍집은 겹집이 분포하는 경북 북부

와 강원도 남부에 분포하는 겹집에서 초가지붕에 박공이 형성되는 유형을 가리키는 명칭이다. 겹집의 초가지붕에서 박공에 이엉을 엮으면 용마루와 박공의 수직면이 구조상 까다롭게 된다. 이 부분을 까치구멍과 같이 보이도록 구성한 것이다. 이는 경기도의 ‘파리집’과 함께 지붕 형상에 따라 건축 특징을 유형별로 구분하는 명칭으로 매우 특별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옛집에 담긴 생각(김일진, 도서출판 향토, 1996), 한국의 주거 민속지(김광연, 민음사, 1988).

필자 김화봉(金華峰)

깎낫

정의 원기둥이나 서까래 겹질을 벗기고 초다듬이질할 때 사용하는 연장.

개관 깎낫은 옆으로 긴 쇠날 양 끝에 손잡이를 달아 양손으로 당겨서 나무겉질을 벗기거나 거친 표면을 깎아 내는 건축 연장이다. 깎낫을 효율 높게 사용하기 위하여 날의 각도를 아래로 약간 수그러지게 만들었다. 양 끝에 달린 손잡이를 앞으로 당길 때 자연스럽게 압력이 가해지도록 날 방향을 아래로 향하도록 만들어 두는 것이다. 깎낫은 대개 목재를 초다듬이질할 때 많이 쓰이고, 이후로는 잘 쓰이지 않는다.

내용 깎낫은 낫과 비슷하게 생겼으나 낫과 달리 양쪽에 자루가 달려 있다. 긴 날에 양쪽으로 자루를 끼워 앞으로 당겨서 쓰는 건축 연장이다. 쇠를 담금질하여 양끝에 자루를 달 수 있도록 뾰족하게 한 다음 직각으로 꺾어 ㄱ자 모양으로 만든다. 이렇게 만든 날 양쪽에 적당한 굽기와 길이로 자루를 박아 두면 된다. 날은 너무 얇게 하면 쉽게 무디어지기 때문에 날 등의 두께를 어느 정도 유지해야 쉽게 무디어지지 않고 오래 쓸 수 있다. 날 길이는 깎낫의 용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큰 원목에 쓸 때는 한 자 반 정도로 하지만

대부분 한 자 정도로 만들어 쓴다. 날 폭은 대개 한 치 반 안팎으로 한다. 폭이 넓은 것은 두 치에 가까운 것도 있다. 깎낫의 날은 길이 방향으로 직선으로 만들지 않고 약간 곡이 지게 만든다. 깎을 때는 양 끝부분의 곡면이 위를 향하도록 한다. 나무 표면은 껍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뿌리 부분도 있고 웅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치기 위해서는 목재 면에 닿는 날 면적을 줄여 주는 효과가 있다.

깎낫은 원목을 초다듬이질할 때 사용하는 것이어서 집 짓는 일 초반에 주로 사용하고 접어 두는 경우가 많다. 집을 지을 때 목재가 반입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나무껍질을 벗기는 일이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재를 치목하기 위하여 껍질을 둔 채 치목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껍질을 벗겨야 치목이 수월해진다. 깎낫을 사용할 때는 날을 잘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웅이를 만나거나 두껍게 깎을 때 손잡이를 놓칠 수도 있다. 깎낫으로 껍질을 벗길 때 깔끔하게 다듬지 않아도 문제는 없다. 건축 부재를 치목하려면 표면뿐만 아니라 맞춤이나 이음을 할 때 마구리가 정확하여야 하지만 깎낫은 부재 치목을 위한 초벌다듬이기 때문에 약간 거칠어도 상관없다. 깎낫을 쓰는 사람은 주로 목수 일을 배우기 시작한 초보 목수이다. 특별히 잘 깎을 필요도 없으며, 무엇보다 껍질을 벗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깎낫은 쓰임새에 따라 날이 만곡되어 큰 것이 있고, 날이 얇고 작은 것이 있다. 간단하게 만든 것 가운데에는 손잡이 자루를 날의 직각 방향으로 달지 않고 날 방향에 맞춰 달아 둔 것도 있다. 이런 경우 사용할 때 손잡이를 꼭 움켜쥐지 않아도 손에서 놓치지 않아서 유리하다. 손잡이가 달려 있어 ‘손잡이훑이기[臺付鉋]’라고도 한다. 깎낫과 유사한 연장으로 거피칼이 있다. 거피칼은 날 양끝을 휘어서 오무려 모은 다음 자루를 길게 달아 두 손을 한꺼번에 모아 잡고 당겨 사용하는 것이다. 자루 길이를 조절하여 멀리서 당길 수 있도록 하였다.

특징 및 의의 깎낫은 목수 일에서 가장 먼저 사용하는 연장이다. 나무가 반입되면 치목을 하기 위해 나무껍질을 벗겨야 하고, 그 일은 대개 초보 목수가 맡아서 한다. 깎낫은 날을 가운데 두고 양쪽 끝에 자루를 달아서 사용하는 연장이다. 나무껍질을 벗기면 다시 쓸 일이 거의 없다. 모양으로 보면 날과 자루만으로 이루어진 간단한 연장이지만 집짓기 초반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연장 가운데 하나이다.

참고문헌 연장과 치목(이왕기, 건축167-4, 대한건축학회, 1992), 한국의 건축 도구(이왕기, 건축장인의 땀과 꿈, 국립민속박물관, 1999), 한국의 건축연장 연구1(이왕기, 목원대학교논문집7, 목원대학교, 1984).

필자 이왕기(李王基)

꽃담

정의 벽돌, 돌 등으로 아름답게 문양을 만들어 쌓거나 무늬와 색채를 써서 미장바름을 한 담장.

역사 꽃담이 언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고려사高麗史』 권123 「열전列傳」 권36 장순룡조張舜龍條에 “장순룡은 원래 회회인回回人으로, 저택을 지을 때 극도로 사치스럽고 화려하게 지어 기와와 조약돌로 바깥담을 쌓고 화초 무늬로



깎낫 | 1930년대 | 국립민속박물관

① 깎낫 | 길이17~29 자루길이9~10 ② 거피칼 | 길이38

장식하니 당시 사람들이 ‘장씨네 집 담장[張家牆]’이라고 불렀다.”라는 기록이 있어 고려시대에 이미 담장을 화려하게 꾸몄음을 알 수 있다.

내용 실내외에서 늘 눈에 띄는 벽이나 담장을 화려하게 무늬를 놓아 벽돌을 쌓거나 또는 그 일부에 화초문을 미장으로 새김질하여 바른 것을 꽃담이라고 한다. 식물과 같은 생명체를 문양으로 담았기 때문에 화초담花草牆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문양이 조성된 담장이라는 의미로 화문담花紋牆이라고도 한다. 꽃담은 아래에서부터 기단, 몸체, 지붕로 구성되어 있다. 기단은 담장의 기저부를 이루는 토대로 화강석을 반듯하게 다듬어 놓은 장대석을 한 단 또는 두 단으로 쌓거나, 같은 크기로 작게 잘라 놓은 사고석을 여러 단으로 쌓아 조성한다. 몸체에는 주로 전돌이 사용되는데, 전돌은 담장의 높이를 형성하는 구조체이면서 꽃담의 문양을 표현하는 장식재로도 사용된다. 꽃담의 상부는 한옥과 마찬가지로 기와잇기로 마감하거나, 벽돌을 두툼한 두껍벽돌로 얹어서 지붕을 형성한다. 꽃담의 지붕은 담장 몸체에 우수가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며 담장 안쪽 한옥과의 일체감 있는 경관을 형성한다.

꽃담에 문양을 표현하는 방식은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전돌 면에 문양을 직접 새기고 외부로 노출되도록 쌓아 올려서 문양이 반복되도록 배치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백제 무령왕릉 묘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문양틀을 사용하여 일정한 문양의 전돌을 다량으로 제작하는 생산방식을 보여 준다. 둘째로 색상이 다른 전돌을 가로세로 방향으로 연결하여 길상문자나 한국식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 능화문菱花紋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각 글자 획의 길이에 맞추어 재단된 전돌을 글자 모양대로 연결하고 전돌끼리 맞닿는 면에 사용하는 줄눈으로 글자의 여백을 표현하면 길상문자를 완성할 수 있다. 전돌을 사용하여 능화문을 만든 사례는 경북궁景福宮 교태전交泰殿의 꽃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셋째로 전돌에 부조기법을 적용하여 그림 속 개체를 도드라지게 형상화하고 삼화토(석회, 진흙, 석비레를 섞어 이긴 흙)를 주변에



무령왕릉 전돌벽(복제) | 충남 공주 송산리 고분군 | 2019 | 강희원



교태전 꽃담 | 서울 종로구 경복궁 | 국립민속박물관



수강재 꽃담 | 서울 종로구 창덕궁 | 국립민속박물관



동장대 영통담 | 경기 수원 화성 | 국립민속박물관

덧발라서 그림의 여백을 표현하여 민화와 같은 장식을 완성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사례는 창덕궁昌德宮 수강재壽康齋 후면 쪽문 곁에 만들어진 매화무늬 꽃담과 포도무늬 꽃담, 경북궁 자경전과 교태전의 후면 굴뚝에서 살펴볼 수 있다. 남양주 동관대(경기 남양주 진

접음)에서는 돌과 기와 조각을 사용하여 추상화 같은 문양을 표현하고 삼화토로 여백을 처리하였는데, 이것도 동일한 유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의 꽃담 중에서 가장 호사스러운 사례로 평가받는 경복궁 자경전 꽃담에는 붉은 전돌을 사용하여 장수長壽를 기원하는 길상문을 만들고 부조 형식의 전돌 주변을 삼화토로 발라 대나무, 매화, 국화 등의 화초를 표현하였다.

한편 특수하게 사용되는 꽃담 장식 유형도 있다. 조선왕릉에서 봉분을 둘러싸고 있는 곡장曲牆에서는 전돌을 쌓아 만든 몸체에 화강석을 둥글게 깎아 새알심 박듯이 일정하게 배열하여 일월성신日月星辰을 표현하였다. 수원 화성에서는 수키와를 성기게 교차하여 쌓아 계획적으로 관통구멍을 만드는 영릉담을 부분적으로 사용하였다. 영릉담은 동일한 규격의 전돌이나 기와만 사용하여 장식을 만드는 유형인데, 구조적으로는 대단히 불리하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창덕궁 낙선재 누마루 하부에는 마치 얼음에 금이 간 모양과 같다고 하여 빙렬문氷裂紋이라고 칭하는 작은 담장이 있다. 빙렬문은 열하 지역의 성곽과 민가 담장에 얼음에 금 간 무늬로 장식되었다는 『열하일기熱河日記』 속 가요문哥窯紋과 상통한다.

특징 및 의의 꽃담은 경계를 표시하는 담장의 원래 기능을 유지하면서 담장 표면에 문양을 표현함으로써 장식을 극대화한 유형이다. 대개 전돌을 쌓아 올린 조적식 담장의 일부분에 문양을 액자처럼 끼워 넣는 방식이 사용된다. 꽃담에서 문양을 표현할 때에는 문양이 새겨진 전돌을 반복하여 사용하거나 전돌을 이어 붙여 길상문이나 능화문을 표현할 수 있으며, 화초를 부조로 제작하고 합쳐서 설치하거나 기와 조각이나 자연석을 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꽃담의 표현 방식이 제한적이지 않음을 보여 준다. 정성스럽게 제작된 적색과 흑색의 전돌을 사용하여 길상문, 십장생 장식을 화려하게 표현하는 궁궐 꽃담에서부터 기와 조각이나 자연석을 활용하여 절박한 문양을 만드는 민가나 사찰, 서원의 꽃담까지 모두 건축물을 통해서 사용자의 권위와 미적 감각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林園經濟志, 한국건축대계2-벽돌(장기인, 보성각, 1997), 한국건축대계4-신편 한국건축사전(장기인, 보성각, 199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장필구(張弼求)

끝

정의 나무를 잇거나 접합하기 위하여 구멍을 뚫고 축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연장.

개관 끝[鑿]은 나무에 구멍을 파기 위하여 만든 연장이지만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쇠막대기의 한쪽을 담금질하여 납작하게 날을 세워 파내고자 하는 곳에 대고 머리쪽을 망치로 쳐서 구멍을 파낸다. 얇고 간단한 구멍이나 조각을 할 경우 끝을 두 손으로 잡고 파내면 된다. 끝은 크게 날, 몸(자루), 머리로 구성된다. 조선시대 끝은 통쇠로 만들었다. 자루 부분이 나무로 되어 있고 머리에 가락지가 있는 것은 일본인들이 개량한 끝이다.

내용 좁고 긴 쇠막대기에 한쪽 끝은 좁고 날찍하게 단련하여 날카로운 날을 세우고, 반대쪽 머리는 뭉툭하게 면을 만들어 둔다. 사용할 때는 날을 목재 면에 대



끝주머니와 끝 | 이왕기

고 머리를 망치로 때려서 나무에 구멍을 파낸다. 다른 말로는 ‘주리’라고 한다. 이북지역에서는 ‘논주’라고 한다.

끝은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며, 길이는 대개 한 자 미만이다. 간혹 조각끝은 한 자 반 또는 두 자 정도 크기로 만든 것도 있다. 끝은 날 쪽을 다양하게 만들어 쓴다. 날 쪽은 날을 담금질할 때 날 부분을 넓히거나 좁히면서 결정된다. 날 쪽은 대개 한 치를 기준으로 큰 것은 한 치 두 푼, 한 치 세 푼, 한 치 오 푼으로 만든다. 작은 것은 오 푼, 칠 푼 등으로 만들어 쓴다. 우리나라 전통 끝은 날부터 머리까지 통쇠로 만든다. 통쇠로 만든 끝은 웬만한 웅이에도 잘 들어간다. 옛날에는 지금과 같은 쇠망치가 없고 주로 나무망치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끝이 무거워야 하였다. 이때 사용하는 끝망치를 ‘끝방망이’라고 한다. 주로 대추나무로 만들거나 참나무로 만들었으며, 쇠망치가 나오기 전까지 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나무망치는 너무 빨리 헤지고 쪼개져서 자주 갈아야 하였다.

끝은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크게 때림끝과 손끝로 구분된다. 때림끝은 구멍이나 장부(한 부재의 구멍에 끼울 수 있도록 다른 부재의 끝을 가늘고 길게 만든 부분)를 만들기 위하여 망치로 머리를 때려 쓰는 끝을 말한다. 손끝은 조각이나 새김질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자루가 길고 머리 부분이 가늘다. 간혹 손끝 가운데에는 몸(자루)을 길게 만든 것도 있으나 흔치 않다. 때림끝 날은 자주 무디어지기 때문에 솥돌에 자주 갈아서 써야 한다. 특히 단단한 나무나 웅이를 만나면 날이 빨리 무디어져서 일을 더디게 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같은 종류의 끝이라 하더라도 여러 개를 준비해서 사용하는 목수도 있다. 목수는 집 짓는 부재를 고를 때 접합되는 부분이 어딘가를 잘 봐 두어야 한다. 구멍을 파거나 장부를 만들 때 웅이가 있는 부분을 피해야 끝질이 쉽기 때문이다. 끝질을 할 때 나오는 나무 조각을 ‘끝밥’이라고 한다. 끝은 작지만 필요에 따라 크기가 다르고, 가지고 다니면 잃어버리기 쉽다. 그래서 씹지와 같은 끝주머니에 넣고 다닌다. 끝 가운데 작고 세밀한 끝은 주로 창호장이나 소목장들이 많이 사용한다. 끝은 배를 만드는 선장(船匠)

들도 많이 쓰는 연장 가운데 하나이다.

흔히 볼 수 있는 나무 자루가 달린 끝은 일본인들이 개량한 것이다. 통쇠로 만든 끝보다 쇠를 절약할 수 있다. 통쇠끝을 녹이면 나무끝을 두세 개 만들 수 있다. 끝자루로 사용되는 나무는 참나무, 괴목과 같이 단단한 나무로 만들었다. 스펀이 끼워지는 부분과 자루머리는 쇠가락을 끼운다. 이것을 ‘목갱기’라 한다. 목갱기는 자루가 파손되는 것을 방지해 주고 오랫동안 쓸 수 있게 해 준다. 나무자루 끝을 쓸 때는 쇠망치를 써야 잘 파낼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끝은 목수 연장 가운데서 종류가 가장 많다. 부재의 이음과 맞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 종류의 끝을 사용하지만 한편으로는 날이 자주 무디어지기 때문에 여러 개를 준비해 두기도 하다. 끝은 이미 청동기시대부터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형태는 거의 변함없이 지속되어 왔다. 건축연장 가운데서 형태 변화가 가장 적은 대표 연장이다.

참고문헌 연장과 치목(이왕기, 건축167-4, 대한건축학회, 1992), 조선후기의 건축도구와 기술(이왕기, 한국전통과학기술학회지1-1, 한국전통과학기술학회, 1994), 한국의 건축 도구(이왕기, 건축장인의 땀과 꿈, 국립민속박물관, 1999), 한국의 건축연장 연구2(이왕기, 목원대학교논문집8, 목원대학교, 1985).

필자 이왕기(李王基)

난간 欄干

정의 계단, 마루, 다리 등 높은 곳 또는 높은 곳에 오르는 시설의 가장자리에 설치하여 사람이나 물건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 주는 울타리.

내용 난간欄干은 ‘울타리’를 뜻하는 난欄과 ‘막다’라는 뜻의 간干이 더해져서 만들어진 말로, 건물 높은 곳에서 사람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 주는 실질 기능이 있고 신분이나 지위가 높다는 것을 보여 주는 상징 기능도 있다.

난간이 표현된 오래된 사례로는 고구려 고분벽화

를 들 수 있다. 안악 3호분이나 태성리 1호분 등에는 무덤 주인이 평상 위에 앉아 있는 초상들이 있다. 평상 주위로는 측면과 배면에 울타리가 있어 난간이 설치된 것을 볼 수 있다. 남자 주인의 높은 평상에는 난간이 설치되어 있고 여자 주인이 앉은 자리에는 난간이 없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이는 신분에 따라 높고 낮음이 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에도 남자와 여자 사이에 구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백제 유물에는 국립부여박물관에 소장된 청동소탑편이 있다. 네 방향으로 경사가 있는 기와지붕 위로 사방에 난간이 둘러져 있다. 일본 호류지 금당에서 아래층 지붕 위로 설치된 난간 모습과 유사하다.

통일신라시대부터는 실제 난간 유적이 발견되었다. 경북 경주 동궁 월지에서 목재 난간을 구성하는 부재들이 출토되었다. 감은사 동·서 삼층석탑 사리구에서는 높은 대 위에 사방으로 두른 난간의 모습이 사실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불국사 다보탑 지붕 위에 설치된 난간과 같은 모습이다. 또한 송림사 오층전탑의 사리구에서 보이는 난간에서 파만자(破卍字) 모양인 살짜임을 볼 수 있다.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이나 석등에 조각된 모습과 같다.

이후 고려시대의 경천사지 다층탑을 거쳐 조선시대 대가 되면서 다양한 난간이 등장하였다. 조선시대 궁궐에는 용평상(龍平床)이 있다. 난간에는 용·모란·박쥐 등 무늬를 조각하고, 위에는 붉은 옷칠을 하였다.

난간은 재료에 따라 목재 난간, 석재 난간, 철 난간 등이 있다. 목조건축에는 주로 목재 난간이 사용된다. 형태에 따라 계자난간과 평난간으로 나뉜다.

계자난간은 난간의 중간 중간에 설치되는 동자기둥으로, 계자각(鷄子脚) 모양으로 조각된 부재를 사용한다. 계자각은 닭다리 모양처럼 하얗기 때문에 난간동자가 마루 귀틀 위에 수직으로 세워지는 모습이 아니다. 마루 귀틀의 바깥쪽으로 설치되어 난간을 구성하는 지방이나 중방, 상방 등 긴 부재들을 바깥쪽에서 지탱하는 결구가 된다. 따라서 평난간에 비하여 튼튼하기 때문에 지면에서 높은 누마루나 연못 위에 자리한 정자 등 떨어지게 될 경우 위험한 건축에 사용된다. 계자난간에서 계자각 사이에는 살을 짜서 모양을



난간 | 경북 경주 양동 | 국립민속박물관

내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청판(廳板)을 끼워 넣은 머름을 구성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 역시 구조의 안전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각 계자각 위에는 연잎 모양으로 조각한 하엽(荷葉)을 두고 위에는 둥근 막대 모양의 돌란대를 설치하여서 손잡이를 만든다.

평난간은 기본이 중방 위에 난간동자를 세우고 그 위에 띠장을 두르는 모습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난간동자 사이에 청판을 끼우는 방식이 있고 창호살과 같은 모양으로 짜임을 하여 교란(交欄)을 만드는 방식도 있다. 한편 띠장을 두르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고 띠장 위에 하엽, 호리병, 소로 등을 두고 그 위에 다시 두겹대를 설치하여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하엽을 두고 두겹대를 화려하게 설치하는 방식은 일반 주택보다 주로 궁에서 사용된다.

한편 목조건축 가운데 상하층이 있는 중층 건물에서는 계단 양옆으로 목재 난간을 설치한다. 기본은 평난간과 같은 구성이지만 경사지게 설치된다는 점과 살짜임의 교란을 만들지 않고 청판을 끼우는 방식을

사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석재 난간에도 계단에 사용하는 석계 난간이 있다. 이 외에 궁궐 월대 등에 사용하는 기단 난간, 석조 다리에 설치하는 석교 난간 등이 있다. 왕릉이나 태실胎室 주위에도 경계를 나타내기 위한 석재 난간이 사용된다. 지대석 위에 엄지기둥을 세우고 중간에는 난간동자를 세운 다음 위에는 돌난대[廻欄石]를 두르는 모습이 기본이다. 하엽 모양으로 조각한 것을 난간동자로 사용하기도 한다. 근정전 월대의 엄지기둥 위에는 십이지신상 조각을 설치하였고, 창경궁 옥천교 엄지기둥에는 서수瑞獸를 설치하고 있다.

L

난로

특징 및 의의 난간은 기본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을 지켜 주는 기능을 하지만, 여러 가지 무늬와 색채를 이용하여 분위기를 화사하게 꾸며 주는 장식 역할도 있으며, 나아가 신분이 높다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참고문헌 고구려 벽화고분(임연철·최무장, 도서출판 신서원, 1992), 조선시대 궁궐 용어해설(문화재청, 2009), 한국건축대계5-목조(장기인, 보성각, 1998), 두산백과사전(doopedia.c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류성룡(柳成龍)

난로 暖爐

정의 장작이나 석탄, 석유, 가스 등의 연료를 때거나 전기를 이용하여 실내를 데우는 난방기구.

내용 난로暖爐는 겨울에 방과 실내를 따뜻하게 데워서 추위를 이겨 내게 하는 난방기구이다. 난로는 입식생활을 하는 서양인에게 알맞은 난방기구 전형으로, 개화기에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는 서양인과 다르게 구들을 활용한 온돌 방식으로 겨울을 따뜻하게 지냈다. 난로는 주거공간뿐만 아니라 교실, 사무실, 기계실 등 다양한 실내에서 사용되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생산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화목난로와 연탄난로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난로가 필요하였다. 농어촌 비닐하우스 난방용, 축사 난방용, 건조용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난로가 등장하였다. 이는 실내온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화재 위험이 높아서 난로의 실내 사용은 사용자의 주의가 절대 요망된다.

화목난로, 연탄난로, 석유난로, 전기난로, 가스난로 등 난로는 조건과 상황에 따라 적절히 활용되었다. 화목난로는 불에 태울 수 있는 것을 모두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 구조가 매우 간단해서 고장 날 확률이 낮다. 그러나 연료가 불완전 연소함으로써 연기와 그을음이 심하기 때문에 연통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연탄난로는 1950년대 중반에 가정에서 겨울 난방용 연료로 연탄을 주로 사용하면서 널리 퍼지기 시작하였다. 연탄이 연소가 잘되고, 열효율이 높고, 연소시간이 길다는 장점이 있어서 서민층 가정에서는 연탄난로를 애용하였다. 연탄난로는 장점이 많지만 단점도 있었다. 이 난로는 연탄에 처음 불을 붙이기와 이동이 어렵고, 열이 연통을 따라 많이 빠져나간다. 관리 소홀로 인한 일산화탄소 배출은 가족을 중독시키기도 한다.

석유난로는 1960년대 초 일본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초기에는 심지가 석유를 빨아올려서 기화하여 연소시키는 석유난로를 사용하였다. 요즘에는 석유 탱크에 압력을 가하여 분사되는 석유를 가스화하여 태우는 석유가스난로가 나왔다. 최근 연통이 필요하지 않고 소형화와 경량화가 장점인 제품이

출시되었다. 점화 시 연기가 실내공기와 섞이고 약간의 석유 냄새가 나기 때문에 점화 후에는 실내 환기가 필요하다.

가스난로는 연통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이전의 난로보다 작고 가벼워졌지만, 정기 실내 환기를 필요로 한다. 가스 누출 시 자칫 폭발 위험이 있어서 취급할 때는 사용자의 주의가 요망된다. 사용자는 가스판매업자로부터 연료인 가스를 직접 공급받아야 한다.

전기난로는 공해가 적고 사용이 간편하나 전력요금에 비싸서 보조용 난방기구로 이용된다. 이 난로는 벽에 부착되어 있는 콘센트에 코드를 직접 꽂은 후 로터리 스위치로 단계를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간편하다. 공급되는 전기 용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기난로를 사용하면 누전차단기가 작동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콘센트 등 상태가 불량할 경우 과도한 전기난로 사용은 화재 발생 요인이 될 수 있다.

최근 가정경제의 어려움 등은 화목과 연탄을 연료로 한 난로를 다시 사용하게 하였다. 저렴한 연료비는 사용상의 불편함에도 화목난로나 연탄난로 재사용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연탄난로는 24시간 계속 사용하는 반면에 석유·가스·전기 난로는 필요할 때만 가동한다. 연탄불이 한번 꺼지면 다시 불을 붙이기가 쉽지 않아서 연탄난로는 24시간 계속 가동한다. 두 장 또는 세 장의 연탄을 겹쳐 놓아서 맨 아래 연탄이 그 위의 연탄에 불이 옮겨 붙도록 한다.

가정에서는 가을에 미리 연탄을 구입해서 창고에 재워 놓는다. 겨울철이 오기까지 건조시켜야만 불붙이기가 쉽고 화력이 더 좋아지기 때문이다. 연탄은 주부들이 김장과 함께 월동준비 품목 가운데 하나였다.

특징 및 의의 인류가 불을 발견하면서 동굴이나 야외에 피운 모닥불은 장작난로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난로 역사가 인류 역사와 함께하였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난로 사용은 주거공간과 사무실에 한정되다가 생산 활동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난로는 항상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취급할 때 사용자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난방기구이다.

참고문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e뮤지엄(emuseum.go.kr).

필자 박종민(朴鍾珉)

납도리집

정의 서까래의 하중을 받는 도리가 사각형인 살림집.

개관 살림집은 도리의 단면 형태에 따라 굴도리집과 납도리집으로 구분된다. 도리는 목조건축물의 주요 구조재로, 서까래와 추녀의 하중을 모아 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도리의 단면 형태가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인 도리는 납도리, 납도리를 사용한 집은 납도리집이라 한다. 굴도리는 도리의 단면 형태가 원형으로 납도리보다 가공할 때 공력이 더 필요하고, 의장 효과도 높다. 납도리를 사용한 건물은 굴도리를 사용한 건물보다 격이 낮은 건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논리는 원기둥을 사용한 건물과 사각기둥을 사용한 건물 간 차이와 같다.

내용 대체로 납도리집은 기둥 상부의 결구 방식이 가장 단순한 형식으로, 포부재 및 장혀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사각형의 도리를 사용한 집을 말한다. 납도리는 일반 서민들의 살림집 이외에도 상황에 따라 다른 용도로도 사용되었다. 대체로 납도리는 민도리집에



납도리 민도리집 | 경기 화성 정용수 가옥 | 정연상

서 많이 사용한다. 굴도리는 주로 익공집이나 포작 건물에 사용된다. 민도리집에도 굴도리를 사용한 예가 있다.

납도리집의 기둥 상부 결구 방법은 십자로 사갈 뜬 기둥 상부의 장부 홈에 보 목을 결구한 후 좌우 도리를 기둥과 보 목에 결구하는 사개맞춤 방식으로 짜였다. 이외에 납도리집은 굴도리집과 같이 사갈 뜬 기둥 상부에 도리 밑 도리받침 장혀와 상인방^{上引枋}을 결구하고, 보 밑에 보아지(보 받침재)를 결구하는 방식으로 짜맞춤을 한다. 장혀와 상인방 사이는 소로를 끼워 목재의 뒤틀림을 잡으면서 입면을 장식한다. 격이 낮은 납도리 건물은 소로와 장혀를 사용하지도 않는 경우도 많다.

특징 및 의의 납도리는 궁궐, 관아, 사찰 건물보다 살림집 또는 부속 건물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납도리를 사용한 살림집은 납도리집이라 한다. 살림집의 납도리 사용은 집주인의 경제 상황 등을 엿볼 수 있는 부재 가운데 하나이다.

참고문헌 맞춤과 이음(정연상, 고려출판사, 2010),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김왕직, 동녘, 2007), 한국건축대계5-목조(장기인, 보성문화사, 1988), 한국의 살림집(신영훈, 열화당, 1985).

필자 정연상(鄭淵相)

내외담

정의 안채와 사랑채를 분리하고 물리적으로 내외의 시선을 차단하고자 쌓은 담장.

역사 조선이 성리학을 통치이념으로 도입하면서 의례는 물론 일상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성리학에서 제시하는 일상생활과 의례생활의 기본이 되는 이론을 제시한 『가례^{家禮}』를 비롯하여 이를 재해석한 ‘가례서’들에는 주택의 건축 원칙과 도면을 제시하고 있다. 주택을 지을 때는 사당^{祠堂}을 가장 먼저 짓고,

정침^{正寢}(안채)과 청사^{廳事}(사랑채)를 담장으로 구분하도록 한 것이 그것이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남녀의 영역을 구분하는 내외법을 강조한 성리학에 기반한 것이었다. 실제로도 사당, 사랑채, 안채, 행랑채 등으로 구분되는 것이 조선시대 성리학의 이념에 따른 주택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내외담에 대한 구체적 기록은 “안마당의 끝에 구분하는 담을 설치하되 그 높이는 안채의 뒷마루에서 말의 배가 안 보이는 정도로 하라.”는 초려^{草廬} 이유태^{李惟泰}(1607~1684)의 『정훈^{庭訓}』에서 볼 수 있다. 또한 조선왕실고문서의 상류주택 평면도에도 일부 남아 있고, 현존하는 조선시대 양반가옥에 내외담이 남아 있을 정도이다.

내용 성리학의 일상생활 원칙 중 부부유별로 대표되는 내외법은 주거에서 남녀의 생활공간마저 물리적으로 격리시켰다. 안채와 사랑채의 물리적 구분이 그것이다. 이는 가정 내의 내외법 실천은 물론 외부로부터 안채를 보호하고 격리할 목적도 강했다. 외부에서 보았을 때 사랑채는 바깥쪽에 위치하고 안채를 안쪽 깊숙한 곳에 위치시키며, 중문을 거쳐야 들어갈 수 있다. 내외담으로 구분한 이유이다.

내외담은 헛담·내담·셋담·내외벽·차면담·가림벽 등 다양하게 불린다. 이러한 명칭은 내외담이 외부 침입을 막기 위한 담장의 기능보다는 시선 차단 목적에 컸기 때문이다. 내외담은 안채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여성을 위한 독립적인 공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경계선이라 할 수 있다.

내외담은 담장 형태도 있지만 중문간처럼 건물 형태도 있고 판자로 된 벽 형태도 있다. 담장처럼 일직선으로 길게 뻗은 모양, 뒷간처럼 조금 튀어나온 모양, ㄱ자 모양 등 모양도 다양하다. 또한 시선을 가리는 것이 목적이었기에 기단을 쌓고 화초와 나무를 심은 화단 형태도 있다. 회덕의 동춘당 고택에 흙과 돌로 낮게 쌓은 담장과 사랑채 굴뚝과 연결하여 조화를 이룬 형태가 있듯이 그 형태는 매우 다양하였다.

경상남도 고성 최필간 고택처럼 내외담에 작은 구멍을 낸 곳도 있는데, 이는 주안상 등 손님 접대를 위



내외담 | 경북 안동 허백당 종택 | 최지현

해 안채에서 사랑채에 드나드는 손님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또한 사랑채의 동정을 파악하여 식사 등의 준비에 도움을 받으려는 의도에서다. 이처럼 안채에서는 사랑채가 훤히 보이지만 사랑채 쪽에서는 안채가 보이지 않도록 한 설계에서 선조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

현재까지 내외담이 남아 있는 조선시대 가옥은 수없이 많다. 경상북도 청송 송소 고택, 전라북도 정읍 김명관 고택, 충청남도 논산 명재 고택, 경상북도 안동 풍산김씨 종택, 전라남도 구례 운조루, 충청남도 아산 건재 고택, 경기도 이천 어재연 고택의 내외담 등 그 수를 셀 수 없이 많다. 그중에서 경북 영주 무섬마을 초가의 내외담이 백미이다.

특징 및 의의 내외담은 조선시대 성리학의 내외법을 실천하기 위해 상류층의 사랑채와 안채를 물리적으로 구분한 구조물이다. 따라서 성리학을 실천하는 유학자나 상류층의 가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설물이다. 일반적인 담장의 기능보다는 시선 차단이 목적이어서 담장, 화단, 가림벽 등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으며 모양 역시 직선, ㄱ자 등 다양하다. 내외담은 내외법이라는 철학적 이념이 가옥의 형태와 배치에도 물리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외담의 기능으로 인해 대를 이어야 하는 종가에서 부부생활은 어떻게 하는가 의문이 생긴다.

그러나 내외담은 공간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빈틈을 두고 평상시에는 막아 두다가 부부생활이 필요할 때는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중문을 설치하거나 담장과 건물 사이에 비밀 통로를 만드는 등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家禮, 家禮增解, 家禮輯覽, 四禮便覽, 庭訓, 감고당-감고당 중건 기본 계획 입안에 따른 학술연구 보고서(여주군·한국건축역사학회, 2005),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김왕직, 동녘, 2007), 여성의 구술에 기반한 안동지역 종택의 부부생활 공간에 관한 연구(강미선·이예주,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34-12, 대한건축학회, 2018), 충청지역 전통주거 문화(김기주, 한국주거학회지4-1, 한국주거학회, 2009).

필자 김시덕(金時德)

냉장고 冷蔵庫

정의 음식물을 저온에서 냉장 또는 냉동함으로써 부패나 변질을 방지하여 장기간 보존,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

개관 한국에서 냉장고(冷蔵庫)가 처음 등장한 것은 일제강점기이다. 당시에는 전기냉장고가 아니라 얼음을 채워 냉장 효과를 보는 얼음 냉장고여서 냉장고라기보다 아이스박스에 가까웠다. 외국산이지만 전기냉장고가 시중에 판매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말이었다. 이후 1965년 4월 금성사(현재의 LG전자)가 국산 전기냉장고를 출시, 가정용 냉장고 보급이 본격화되었다. 1970년대까지도 냉장고는 외국산은 물론 국산도 고가(高價)였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는 구입하기 어려웠고 부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1980년대에 들어 냉장고 구매가 급증하면서 1980년대 말에는 가정의 필수 가전제품으로 자리 잡았다. 주로 흰색이던 가정용 냉장고는 1980년대 들어서면서 컬러와 디자인 등이 다양해지고, 점차 소형에서 중대형으로 용량도 커졌다. 이후 1990년대 중반에는 거의 전 가구가 냉장고를 소유하기에 이르렀고, 양문형 냉장고의 등장으

로 냉장고에 지펠Zipel과 디오스Dios 등 새로운 브랜드를 붙이는 프리미엄 마케팅이 펼쳐지면서 국산 냉장고가 고급 냉장고 시장을 장악하는 데 성공하였다. 2000년대 이후 냉장고의 고급화, 패션화, 다기능화가 더욱 진전되었다.

내용 1960년대까지는 백화점에서 팔리던 외국산 전기냉장고는 물론 국산 전기냉장고도 극히 일부의 부유층만 구매할 수 있었다. 1965년 4월 금성사에서 GR-120이라 하여 냉장실과 냉동실이 붙은 120리터 짜리 일체형 눈표 전기냉장고를 처음으로 출시하였다. 뒤를 이어 삼성, 대한전선, 신한일전기, 화신전기에서도 냉장고를 생산하면서 가정용 냉장고의 상용화 시대가 열렸다. 그러나 국산과 외국산을 막론하고 너무 고가였다. 전기냉장고의 높은 가격도 문제지만 전기요금 부담도 적지 않았다. 텔레비전이나 세탁기는 사용할 때만 전기를 연결하면 되지만 냉장고는 24시간 내내 켜 놓아야 하기 때문에 전기 사용량이 많았다. 이로 인해 보급 초기에는 현재처럼 1년 내내 냉장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름철에만 사용하는 집이 대부분이었다.

1975년 당시 국내 가정의 냉장고 보급률이 6.5%에 불과할 정도로 1970년대까지도 냉장고는 부의 상징이었다. 이에 냉장고를 구입한 가정에서는 냉장고를 자랑하기 위해 안방 또는 거실이나 마루에 두었다. 이런 장소에 냉장고를 둔 이유는 당시의 주거 환경과도 관련이 있다. 입식 부엌으로 개량하기 이전의 부엌은 바닥에 물기가 있거나 평평하지도 않은 데다 전기선을 꽂을 콘센트도 설치되지 않아 냉장고를 두기에 적합한 공간이 아니었다. 이와 함께 난방열과 조리열이 분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부엌 아궁이에서 장작 또는 연탄을 때면 냉장고가 그을음을 타거나 연탄가스에 노출되어 쉽게 더러워지고 부식되기 때문에 냉장고를 부엌에 둘 수 없었다. 도시는 물론 농촌에서도 입식 부엌으로 개조되고, 부엌에 수도와 전기 시설이 완비된 이후에야 냉장고가 부엌에 자리 잡게 된 것이다.

한편 냉장고를 구매하기 어려운 가정에서는 스티로폼으로 제작된 아이스박스를 냉장고의 대용품으로



냉장고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① 목재냉장고 | 가로45 세로46 높이74 ② 전기냉장고 | 가로53 세로55 높이110

썼다.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큰 인기를 끈 아이스박스는 냉장고가 있는 가정에서도 사용하였다. 당시 출시된 냉장고의 용량이 적어서 김치를 보관하기는 어려웠다. 이에 김치나 냄새가 나는 생선과 반찬 등을 보관하기 위해 가정에서 아이스박스를 별도로 구입하여 썼다. 당시 아이스박스에 넣을 얼음은 동네마다 있던 얼음가게에서 판매하였다.

이후 국내의 냉장고 보급은 도시지역에서는 주로 1970년대 초에서 1980년대 중반 사이, 농촌지역에서는 주로 1980년대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도시에 비해 농촌 지역에서 가정용 냉장고의 보급이 늦은 이유는 소득 수준이 대체로 낮고, 전기의 공급 및 안정적 사용이 가능해진 시기가 늦은 데다 냉장고의 기능을 대체할 만한 우물 등이 있었으며, 도시에 비해 시원한 자연환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전자산업진흥회에 따르면 1996년 말 기준 국내의 냉장고 보급률은 99.0%에 이른다. 이와 같이 전국 대부분의 가정에서 냉장고를 소유하게 되면서 냉장고의 유무가 아니라 얼마나 큰 냉장고를 소유하였는가가 중요해졌고, 500ℓ급 이상 대형 냉장고의 수요가 증가하였다. 특히 아파트 거주자의 증가는 더 큰 용량의 냉장고를 구매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단독주택에 비해 음식물 보관 공간이 좁고 실내온도가 높은 아

파트에서는 냉장 보관의 필요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1988년 7월 수입 개방 조치 이후 국산보다 훨씬 큰 대용량 수입 가전제품이 시장에 나오면서 냉장고 대형화를 더욱 촉진시켰다. 이후 냉장고는 한 가정에 한 대가 아니라 두 대 이상을 사용하거나 김치냉장고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었다.

특징 및 의의 가정에서 냉장고를 사용하기 이전에는 식재료와 음식은 집안 곳곳에 나눠 보관하였다. 또한 여름철에 음식이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때그때 음식을 조금씩 자주 만들고, 염도를 높여 저장성을 높였다. 또한 시원한 과일이나 음료를 먹고자 할 때는 우물 속이나 얼음을 채운 아이스박스에 보관하였다. 그러다 전기냉장고가 가정에 들어오면서 식생활에 변화가 초래되었다. 하지만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하게 되면서 한꺼번에 많은 양의 음식을 조리하여 여러 끼에 걸쳐서 음식을 먹고, 음식을 덜 짜게 만드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와 함께 냉동식품과 간편조리식 이용이 늘고, 장아찌와 같은 절임음식이나 말린 나물과 건어물 등 건조식품보다는 신선식품을 주재료로 삼아 음식을 조리하게 되었다. 또한 반찬을 냉장고에 보관하게 됨으로써 기존에 반찬을 보관하는 데 쓰던 찬장 櫃櫥을 대체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참고문헌 6~70년대 한국 냉장고 광고의 내용적 특성에 관한 연구(양유진·오창섭,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19-4,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13), 한국 식생활 변화에 따른 냉장고의 변천과 디자인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노혜균,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한국 주거의 미시사(양세화·전남일·홍형욱, 돌베개, 2009), 한국인 무엇을 먹고 살았나(김혜숙·양미경·주영하 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7), 한국인 어떤 집에서 살았나(김혜숙 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7), 컬러 TV-냉장고 보급률 100% 육박 포화상태(동아일보, 1997.1.7).

필자 김혜숙(金惠淑)

너와집

정의 너와로 지붕을 인 건축물.

내용 통나무나 점판암을 널빤지 형태로 만들어서 지



너와집 | 강원 삼척 강문봉 가옥 | 서현강



너와 지붕 | 강원 삼척 김진호 가옥 | 서현강

붕을 인 건축물이다. 너와집은 나무널로 지붕을 인 집이 일반 형태이며, 강원도 산간지역 화전민 주거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느에집, 능에집, 너세집, 널기와집이라고도 한다.

짚, 기와 등 일반 지붕 재료를 구하기가 어려운 산간지역 또는 목재가 풍부한 지역에서 통나무를 기와 널처럼 넓게 쪼개어 처마에서부터 비늘처럼 겹치게 쌓아 올려 완성한다. 지름 30cm 이상의 나무결이 바르고 잘 쪼개지는 적송이나 전나무 등의 밑둥치와 윗부분을 잘라낸 몸통을 40~60cm 길이로 토막을 내어 사용한다. 너와를 만들 때는 통나무 토막을 생목이 서 있던 향의 동서방향에 평행이 되도록 세우고 작은쇠 쇠끼를 박고 도끼로 찍어서 나무결을 따라 자연스럽게 판재 형태로 켜지게 한다. 목재결이 가지고 있는 표피의 손상을 줄여 부식과 뒤틀림을 방지한다.

너와의 크기는 일정하지 않으며 보통 가로 20~30cm, 세로 40~60cm, 두께 4~5cm 정도지만 처마에 사

용하는 너와는 조금 길게 하여 110cm인 경우도 있다. 너와가 바람에 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0~15cm 크기의 돌을 여러 군데 얹어 놓거나 통나무를 처마와 평행으로 올려놓아서 지붕 너와를 눌러 준다. 이런 통나무를 ‘너시래’라고 한다.

너와집은 초가집, 기와집 등과 같이 지붕 재료에 따른 구분이다. 집 구조, 지붕 형태, 벽체 구성 재료, 평면 형태에 특징이 될 만한 요소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다만 강원도 너와집이라 하면 대체로 ‘두렁집’을 지칭하기도 한다. 너와의 수명은 10~20년 정도이며, 오래 되면 2~3년마다 부식된 너와의 교체 작업을 한다.

너와 수량은 70장을 한 동이라 하며, 보통 산간지역의 한 칸 넓이 지붕에 한 동 반 또는 두 동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지붕의 하중이 크고 또한 눈이 쌓이면 하중이 더 무거워지기 때문에 지붕 부재와 기둥은 굵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연히 이러한 집들은 목재가 풍부하고 튼튼한 재목을 얻을 수 있는 지역에 많다.

너와집 형태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산림자원이 풍부한 곳에서는 세계 어디서나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조북맹회편三祖北盟會編』 권30에 “목판이나 화피로 지붕을 이었다.”는 기록과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권55에 “널이영이므로 빗소리가 높다.”는 기록으로 보아 최소한 고려시대 이전의 이른 시기 때부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징 및 의의 목재가 풍부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지붕 양식으로, 강원도 산간지역 화전민 주거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집의 구조도 추위와 산간 생활에 가장 잘 적응될 수 있도록 실들이 밀집형 배치, 동선 작업의 편리성, 귀틀집 벽체를 특징으로 하는 것이 일반 형태이다. 너와집은 강원도 산간지역의 특정 평면 가족을 의미하였지만 여기서는 원래의 사전 의미인 지붕 재료에 의한 구분에 한정하여 기술하였다.

참고문헌 新增東國輿地勝覽, 옛집에 담긴 생각(김일진, 청구, 1989), 한국의 살림집(신영훈, 열화당, 1996),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주생활(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5), 한옥에 살으리랬다(이상해, 돌베개, 200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정재국(鄭在國)

녹로 輓轡

정의 집을 짓거나 성을 쌓을 때 무거운 자재를 들어 올리기 쉽게 만든 연장.

개관 녹로輓轡는 낮은 곳에 있는 짐을 높은 곳으로 옮길 때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쉽게 옮기는 운반 연장의 하나이다. 특히 집을 짓거나 성을 쌓을 때 수직으로 운반하는 일에는 효율성이 뛰어나다. 높은 솟대에 도르래를 설치한 다음 밧줄을 도르래에 걸고 밑에서 줄을 당기면 짐을 들어 올릴 수 있다. 녹로는 운반 효율성이 높아 공사 기간 단축에 크게 기여한 건축연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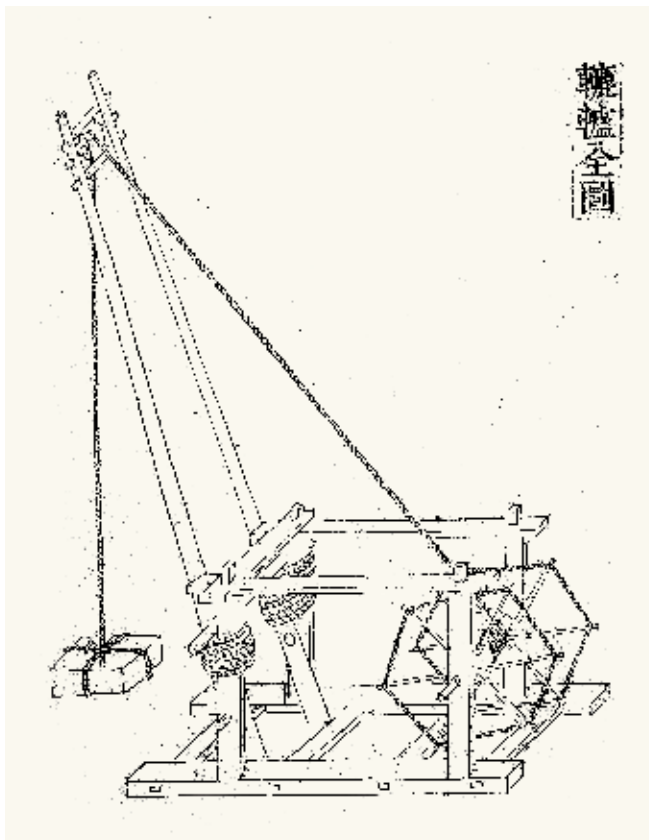
내용 대체로 수평 운반은 원거리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수직 운반은 짧은 거리에서 이루어진다. 이때 많이 사용하는 것이 녹로이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우선 원목을 집 짓는 장소까지 운반해 와야 한다. 원목은 수로水路, 해로海路 또는 육로를 통해 일정 구간을 옮겨 온 다음 수레나 우마차를 이용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이 경우 운반 거리가 매우 길다. 집을 짓는 현장에서는 수평 운반보다 수직 운반 수단이 이용된다. 간단한 운반은 인력으로 가능하지만 기단석이나 대들보 같은 무거운 자재는 기계의 힘을 이용하지 않으면 어렵다. 짐을 지을 때 사용하는 운반 기계는 이처럼 수직 운반 때문에 개발된 것이 대부분이다. 녹로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수공업 생산 시대부터 운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장은 지속 개발되었다. 특히 무거운 석재와 같은, 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자재의 운반은 연장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개발해 온 것이었다. 수직 운반 효율성이 가장 높은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녹로이다.

녹로는 밧줄, 도르래, 열레를 이용하여 무거운 석재나 목재를 들어 올리는 연장이지만 너무 무거운 것은 운반에 한계가 있다. 녹로는 거중기보다 조금 작고 간략하게 제작되었으며, 간단하게 조립·제작할 수 있다. 거중기의 경우 무거운 자재를 수직으로 운반하는 것이 쉽지만 수평으로 운반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올리는 짐 주변에 버팀목이 세워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녹로는 조금 들어 올린 다음 수평으로 짧은 거리를 이동할 수 있다. 특히 녹로는 조립이 간단하고 이동이 쉬워 거중기보다 널리 쓰인 연장이었다. 이 때문에 녹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집 짓는 현장에서 널리 사용해 온 운반 기계이다. 솟대의 도르래에서 내려뜨린 밧줄 끝에 무거운 짐을 걸고 얼레를 서서히 돌리면 짐이 위로 올라가게 된다. 어느 정도 일정한 높이에 올라갔을 때 짐 쪽에 따로 묶은 줄을 당기면서 얼레를 서서히 풀어 주면 목적하는 장소에 짐을 옮겨 놓을 수 있게 된다. 녹로의 솟대는 약간 기울여 세워야 한다. 수직으로 세우면 얼레로 밧줄을 당길 때 강한 횡력으로 인하여 꺾어지거나 휘어질 우려가 있다. 녹로는 긴 거리로 짐을 옮기는 것은 어렵지만 짧은 위치로 이동하기에는 적당하다. 녹로는 또한 성을 쌓을 때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거나 건물을 세울 때 큰 기둥이나 대들보를 들어 올리는 데 매우 유용하게 쓰이는 연장이다.

녹로 가운데에는 얼레를 수직으로 세우지 않고 수평으로 설치하는 방법도 있다. 즉 얼레를 수평으로 놓으려면 지면에 도르레가 하나 더 필요하다. 이런 경우 도르레 축에 +자로 돌림대를 걸어 돌 또는 넷이서 돌리면 얼레가 돌아가면서 짐을 들어 올리게 된다. 짐이 무거우면 얼레축이나 도르레축에 마찰이 심하여 잘 올라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때 마찰을 줄이기 위하여 얼레축과 도르레축에 기름을 조금 부으면 된다. 당장 기름이 없을 때는 물을 부어 사용하기도 한다. 녹로에 사용하는 밧줄은 거스름이 없게 만들어야 한다. 삼나무 줄을 여러 개 꼬아서 만든 줄을 말총과 함께 다시 꼬면 튼튼하고 질긴 밧줄을 만들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녹로는 집을 지을 때나 성을 쌓을 때 큰 부재를 높은 곳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개발된 연장이다. 녹로는 도르래만 있으면 다소 쉽게 만들 수 있는 연장이다. 무거운 짐을 높은 곳으로 올리는 일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어서 이 때문에 공정이 오래 걸리



녹로 전도 | 화성성역의궤 | 1801 | 국립중앙박물관



녹로(재현) | 경기 수원 수원화성박물관 | 국립민속박물관

고 사고도 많았다. 녹로를 사용함으로써 공정과 사고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참고문헌 華城城役儀軌, 연장과 치목(이왕기, 건축167-4, 대한건축학회, 1992), 조선후기의 건축도구와 기술(이왕기, 한국전통과학기술학회지1-1, 한국전통과학기술학회, 1994), 한국의 건축 도구(이왕기, 건축장인의 땀과 꿈, 국립민속박물관, 1999), 한국의 건축연장 연구2(이왕기, 목원대학교논문집8, 목원대학교, 1985).

필자 이왕기(李王基)

L

누마루

누마루

정의 바닥을 지면으로부터 높이 띄워 지면의 습기를 피하고 통풍이 잘 되도록 다락처럼 한 층 높게 만든 마루.

내용 누마루는 지면으로부터 높이 띄워 지면의 습기를 피하고 통풍이 잘 되도록 한 층 높게 만든 마루를 말한다. 밀양의 영남루嶺南樓, 울산의 태화루太和樓, 진주의 축석루矗石樓는 고려시대부터 유명한 사찰누각이었으며,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태인 피향정披香亭과 함양 학사루學士樓 등 수많은 관아누각과 정자들이 세워져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조선 전기에는 많은 유학자가 경치 좋은 곳에 누정樓亭을 지어 놓고 시서화詩書畵를 즐기거나 공부하는 곳으로 사용하였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이러한 누정이 사랑채에 붙기 시

작하였다. 그래서 양반가에서는 보통 사랑채 전면 한 칸을 튀어나오게 하여 누마루를 깔아 그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누마루는 사대부가의 사랑채와 별당에만 지을 수 있었던 가장家長의 전용 공간으로서 가장 권위 있게 구성되었다. 지인과 시서화를 논하면서 풍류를 즐기는 곳으로, 외부지향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우수한 부재를 사용하고 정교하게 마감을 처리하였다. 누마루의 규모는 1~2칸으로 다양하고, 사랑방과 사랑대청의 전면이나 측면에 구성되었다. 바닥은 우물마루로, 천장은 고급스러운 우물반자와 선자서까래로 구성된 눈썹천장을 설치하였고, 세련된 난간과 높은 누하주에 활주도 첨가하였다. 누마루는 높게 보이게 하려고 사랑대청보다 바닥을 높이거나 기단을 낮게 조성하였다. 누마루의 벽체는 중부지방에서는 3면에 사분합문을 달았고, 남부지방에서는 3면을 개방하였다. 지붕은 대부분 팔작지붕으로 대문에서 볼 때 정면성을 강조하였다. 누마루는 밖에서 보는 모습뿐만 아니라 실내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위해 창 의 구조에 신경을 썼다. 그래서 전망이 좋은 곳을 향하거나 근처에 연당蓮塘을 조성하였다.

특징 및 의의 조선 중기 이후 주택 외부에 지어지던 누각과 누정의 누마루가 사대부가의 사랑채와 별당에 구성되기 시작하였다. 사대부들은 누마루의 구성으로 운치 있는 접객공간을 상대적으로 쉽게 마련할 수 있었고, 이곳에서 시서화를 논하며 풍류를 즐겼다. 한편



누마루 | 서현강



충남 논산 명재 고택

누마루를 둘 수 없었던 향반가와 부농가에서는 사랑채의 뒷마루 바닥을 약간 높이고 난간을 설치하여 간이 누마루를 구성하기도 하였다. 드물게는 안채에 여성을 위한 누마루를 세우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김왕직, 동녘, 2007), 조선시대 건축의 이해(김동욱,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한국건축대계4-한국건축사전(장기인, 보성문화사, 1985), 한국의 사랑채(윤일이, 산지니, 2010).

필자 윤일이(尹一一)

눈썹재기창

정의 창호 안의 한 구획 또는 창호 옆의 벽면에 여단을 수 있도록 만든 작은 창.

개관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정보에 따르면 ‘눈썹재기’는 눈썹의 경상남도 방언이다. 즉 눈썹재기창은 창이 작은 것을 눈썹에 비유한 표현이다. 장기인(2005)은 눈썹재기창의 동의어로 ‘누썹’을 제시하면서 창작의 한 구간에 따로 여단을 수 있게 만든 작은 창이라 정의하였다. ‘눈썹바라지’나 ‘약계바라지’도 창 중간에 두 장의 작은 들창을 내서 밖을 내다보는 형태이므로 눈썹재기창과 서로 통한다고 생각된다.

내용 신영훈(1983)은 눈썹재기창을 안방 아랫목에서 시종이나 노비들의 동정을 낚시 살피기 위하여 밖을 내다볼 수 있도록 만든 작은 창이라고 설명하였다. 벼락닫이나 여닫이 형태로 만든 창임에도 워낙 작아서 사람이 드나드는 데에 쓸 수는 없지만 밖을 내다볼 때 일일이 미닫이를 여닫는 수고를 덜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분합문 창살 일부를 개폐할 수 있도록 만든 것도 있다고 소개하였는데, 위에 서술한 누썹이나 약계바라지, 눈썹바라지를 설명한 내용과 상통한다. 김왕직(2007) 역시 눈썹재기창을 창이나 문 안의 작은 창 또는 창호 옆 벽면에 밖의 동태만 살필 수 있도록 낸 작은 창이라 하였는데, 겨울에 창호 전체를



눈썹재기창 | 충남 아산 맹씨 행단 | 주택문화사

열 경우 열손실이 많다는 점을 들어 눈썹재기창의 유용함을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밖을 내다보는 기능만이 아니라 겨울에 큰 창호를 여는 대신 눈썹재기창을 이용하여 급격한 열손실을 막으면서 환기를 하는 것도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신영훈은 위 저술 당시 밖을 내다보기 위한 투명한 유리의 사용을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눈썹재기창과 유사하게 가만히 밖을 살피는 용도로 작은 유리를 창호에 사용하는 사례는 이미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 언급되어 있다. 서유구(徐有榘)는 『임원경제지』 「섬용지(贍用志)」에 영창(映窓)의 구조를 설명하면서 채광용

으로 만든 완자창(丸字窓)의 구석 문살에 손바닥만 한 유리조각(琉璃掌大片)을 끼워 넣으면 주인이 창 구석에 앉아 창을 열지 않고도 밖을 살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쓸 유리로는 연경(燕京, 중국 베이징 北京의 옛 이름)에서 수입한 것 중 사람이나 사물, 화초를 새겨 넣은 것이 좋다고 권하였다. 방 안에서 밖을 볼 때에는 미세한 것까지 잘 보이지만 밖에서는 방 안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유리에 새긴 무늬 때문에 밖에서는 방 안을 볼 수 없지만 안에서는 무늬 사이의 투명한 부분을 통해서 내다볼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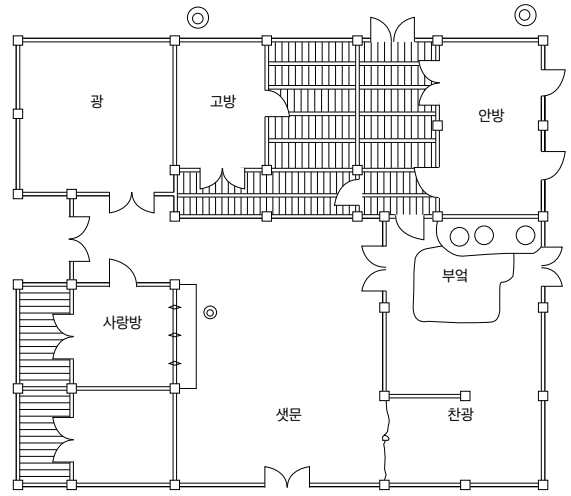
ㄷ자 집

ㄷ자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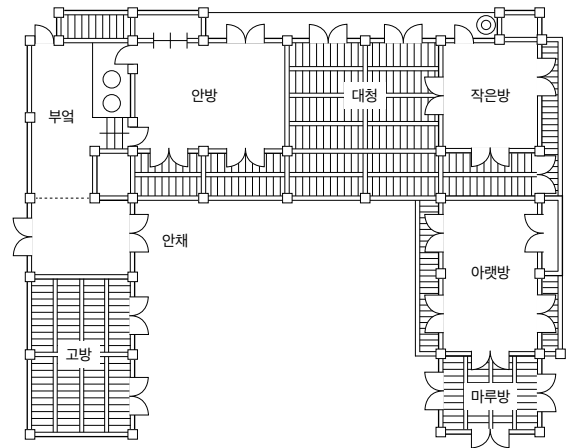
특징 및 의의 눈썰매기창은 방 안에 앉은 사람이 바깥 상황을 살필 수 있도록 최소한의 개구부를 낸 것이다. 각 집의 편의에 따라 큰 문이나 창 옆에 따로 내는 형태를 취할 수도 있고, 문이나 창 옆의 한 부분에 작은 구획을 뚫어 직접 여닫을 수 있게 하거나 작은 유리를 끼울 수도 있다. 이를 통하여 방 안의 사람은 스스로를 외부의 시선이나 한기에 노출시키지 않으면서도 집 안팎의 동정과 손님의 출입을 파악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김왕직, 동녘, 2007), 임원경제지-섬유지1(서유구, 임원경제연구소 역, 풍석문화재단, 2016), 한국의 살림집(신영훈, 열화당, 1983), 한국건축대계4-신편 한국건축사전(장기인, 보성각, 2005), 국립국어원(korean.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이우중(李雨鍾)



ㄷ자 집 | 한옥의 공간문화 | 한옥공간연구회·교문사



ㄷ자 안채 | 경북 영천 만취당 고택 | 문화재청

ㄷ자 집

정의 평면과 지붕이 ㄷ자 모양인 집.

내용 민가의 평면은 一자집에서 실이 부가되어 ㄱ자 집, ㄷ자집으로 발전한다. ㄷ자집은 ㄱ자집에 실이 부가된 형태이다. ㄱ자집 부엌에 고방이나 부엌방을 덧붙이거나 건넌방(상방)에서 방향을 꺾어 작은 부엌과 고방 또는 아랫방을 덧붙이면 ㄷ자집이 된다.

ㄷ자집도 ㄱ자집과 같이 몸체의 평면 구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一자형 민가를 바탕으로 한 이른바 ‘중부형 ㄱ자집’에 실이 부가된 ㄷ자집이고, 다른 하나는 ‘서울형 ㄱ자집’과 같이 대청을 중심으로 한 ㄷ자집이다. 대청 중심의 ㄷ자집은 경상북도 안동을 비롯하여 영남지역의 중·상류 주택에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ㄷ자집은 ㄱ자집에 비해 안마당의 위요 느낌이 크다. 주거의 모든 실은 바깥쪽을 등지고 안마당을 향하고 있다. 안마당의 크기는 대청의 칸수에 따라 정해진다. 2~3칸이 보통이다. 대청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행례의 중심이다. 강원도 철원 이북과 경기도 서쪽 지역에는 대청이 없는 작은 규모의 ㄷ자집도 존재한다. 대부분 빈곤한 농민의 주거이다.

ㄷ자집은 독채보다 문간채 또는 바깥채와 함께 튼ㄱ자 배치를 이루는 것이 보통이다. 바깥채는 사랑방을 포함하여 대문간과 농사에 필요한 부속공간 등으로 구성된다. 안채 전면에 문간채 또는 사랑채를 배치할 때는 안마당과 안채의 채광을 고려하여야 한다. 되도록이면 경사지를 택하여 안채는 지대가 높은 뒤쪽에 배치하고, 기단과 기둥도 높게 한다. 날개채의 지붕은 몸채보다 낮게 구성하지만 몸채에 맞추어 지붕을 높게 구성하기도 한다. 이때는 높아진 층고를 이용하여 위층은 공루^{空樓}를 꾸미고 아래층은 부엌으로 쓴다. 공루는 다락처럼 수납공간으로 이용하거나 여름철에 이곳에서 잠을 자기도 하였다.

ㄷ자집은 근대 도시형 한옥에서도 볼 수 있다. 1920년대 이후 집장사들에 의하여 지어진 도시형 한옥은 좁은 대지에 공간을 최대 확보하기 위하여 ㄱ자, ㄷ자와 같이 꺾음집이 많다. 당시 서울의 일반 한옥은 안채와 문간채로 구성되었다. 문간채는 도로에 맞닿아 있었고, 안채는 작은 안마당을 둘러싸며 ㄱ자형 또는 ㄷ자형을 이루었다.

한편 호남지역 근대 부농가 가운데에는 ㄷ자집을 뒤집은 ㄹ자집도 있다. 부엌-안방-대청-건넌방으로 이어지는 평범한 일자형 몸체에 뒷마당을 향하여 날개채가 붙는 형태이다. 이와 같은 집은 안마당을 둘러싸는 ㄷ자집과 다르게 집 뒤에 내밀한 뒷마당을 만든다.

특징 및 의의 ㄷ자집은 ㄱ자집에서 발전된 평면 형태이다. 평면 중앙에 대청이 있는 집은 영남지역 반가에서 집중 분포한다. ㄷ자형 안채와 一자형 바깥채(사랑채)와 함께 튼ㄱ자형 배치를 이루는 것이 일반 형태이다. ㄷ자집은 좁은 대지에 안마당을 중심으로 공간을 집중 배치할 수 있어 1920년대 이후 집장사들에 의하여 공급된 서울의 근대 도시형 한옥 형태로 이어진다.

참고문헌 인간과 주거문화(홍원화, 경북대학교출판부, 2013), 한국의 민가(조성기, 한울아카데미, 2006), 한국의 민가1·2(김홍식, 한길사, 1992), 한옥과 한국주택의 역사(권용찬·전봉희, 동녘, 201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홍승재(洪升在)

정의 주로 부엌 위에 2층처럼 만들어서 물건을 넣어 두는 곳.

역사 다락이 언제부터 건축물의 완결된 구조 속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는지는 알기 어렵다. 단지 남방 주거양식에서 볼 수 있는 고상주거^{高床住居}나 고구려 고분벽화에 등장하는 부경^{桴京}의 모습 등을 통해 다락의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내용 다락이나 벽장은 계절에 따라 사용되는 의류, 침구, 돛자리, 병풍, 식기류 등 여러 가지 생활 도구를 넣어 두는 장소이다. 벽장은 침구나 작은 물건 또는 자주 사용되는 생활 도구를 보관하는 장소인 데 반하여 다락은 크고 장기간 보관되는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이다. 다락은 건물 규모에 변화를 주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민가의 부엌은 바닥이 바깥 지표보다 60cm 정도 낮게 조성되기 때문에 부엌 바닥에서 지붕면까지 높은 공간이 형성되어 부엌의 천장을 설치하고도 상당한 공간이 그 위에 생기게 된다. 이곳을 다락으로 만들어 별도의 공간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 점은 다른 생활공간을 점유하지 않고도 수장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락은 초가^{草家}보다 와가^{瓦家}에 많이 설치된다. 이는 초가의 구조 특성상 다락을 만드는 것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주택 내에서 다락은 대부분 부엌 상부에 위치하지만 그 밖에 곳간이나 문간, 방 상부에 설치되기도 한다. 여러 채로 지어진 주택인 경우 안채가 사랑채보다 전체적으로 많은 수의 다락을 두고 있고, 면적 또한 더 크다. 이는 중심 부엌이 안채에 설치되고 안채가 일상생활의 중심이 됨으로써 수납공간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안채에서 다락 출입은 안방의 아랫목 쪽 벽면의 일부나 전면에 장지문을 달아 계단을 이용한다. 특히 오르내리는 앞부분에 칸막이를 하여 벽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상류주택의 다락 장지문에는 서화

를 붙이거나 서간용 고비를 걸어 두기도 한다. 다락의 천장은 지붕 경사가 그대로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서까래가 노출되어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샷갓반자를 한 경우도 있다. 다락의 바닥은 대부분 마루마감이다. 벽의 경우는 대부분 흙벽으로 마감되지만 벽을 두지 않고 외부로 노출시킨 경우도 있다. 다락의 채광과 통풍 방법으로 다양한 형태의 창호가 사용되었다. 창호의 대부분은 세살창으로 되어 있다. 이는 다락의 기능에 따른 필요성과 함께 입면상 미감 요구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다림보기

특징 및 의의 서울과 경기 지역의 다락은 주로 부엌 상부에 구성되어 방에서 출입하며, 충청도 지역의 다락도 부엌 상부에 많이 설치되지만 부엌의 상부 공간을 모두 활용하지 않고 일부만 활용하기도 한다. 이는 다락

설치로 인해 낮아지는 천장 높이와 채광이 불리해지는 단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라도 지역에서는 방 상부에 설치된 다락을 볼 수 있으며, 김명관 고택의 경우 다락 내의 공간 활용을 위해 가구 구조를 바꾸기도 하였다. 경상도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집안 곳곳에 다락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부엌 상부뿐만 아니라 곳간, 헛간, 문간, 외양간 등의 상부에 다락을 설치하여 외부공간에서 출입하도록 구성하기도 하였다. 작업공간과 가까이 있는 실용적인 목적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다락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사합원식(四合院式) 주택에서는 다락을 찾아보기 어렵고, 일본의 민가에서는 다락이 있지만 완전한 층을 구성하여 사용한다는 점에서 우리와는 차이를 보인다.

참고문헌 조선시대 다락에 관한 연구(김수범,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한국건축사전4-신편 한국건축사전(장기인, 보성각, 1998),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stdict.korean.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남호현(南虎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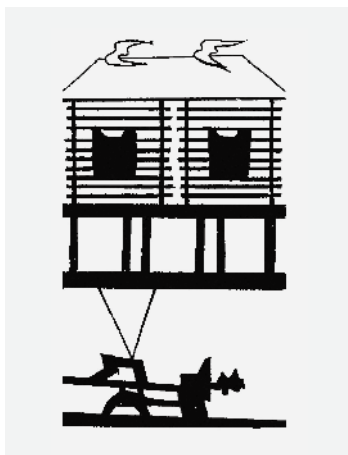
다림보기

정의 기둥과 같은 수직 부재를 세울 때 실에 추를 달아 수직을 확인하는 건축 기법.

개관 기둥은 건축의 주요 구조 부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직으로 세워야 한다. 수직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기둥을 고르게 바심질(재목을 깎거나 파서 다듬는 일)을 하고 나서 네 면에 중심선을 그어 두어야 한다. 이 중심선을 수직으로 세우면 기둥이 정확하게 수직이 된다. 기둥이 수직으로 세워졌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실 끝에 추를 매달아 기둥 상부 중심에 대고 기둥 중심선과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을 다림보기라고 한다. 다림보기를 좌우로 한 번씩 하면 기둥이 정확하게 수직으로 서게 된다. 이 일은 집 짓는 일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작업이다.



가형 토기 | 경남 창원 | 국립김해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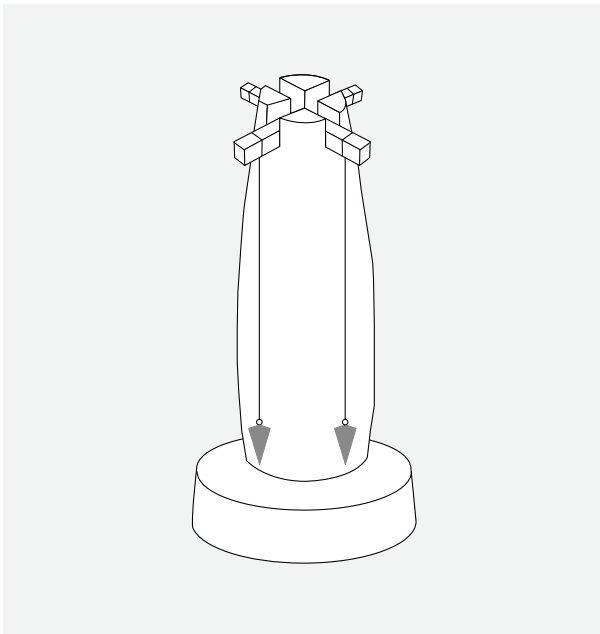
고상식 건축 | 마선구 1호분 고분벽화



다락 | 경북 예천 예천권씨 초간공파 종택 | 서헌강



다림보기 | 1999 | 국립무형유산원



다림보기 |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 | 김왕직·동녕

내용 목수가 집 짓는 일을 할 때 주요 구조 부재는 반드시 수평과 수직으로 맞춘다. 이것이 집 짓는 일의 기본 수칙이다. 곡면을 만들 때도 수평과 수직을 기준으로 각도를 조절하며 만들어 내는 것이다. 건축의 기본 질서가 수평과 수직이기 때문이다. 주요 부재를 바심질하고, 바심질이 끝난 부재는 양 끝에 맞춰 중심선을 그어 둔다. 기둥, 보, 도리 등 가장 중요한 부재를 바심질하는 마지막 단계가 이처럼 중심 먹줄을 그어 두는 것이다. 이 먹줄은 다림보기의 중요한 기준선이 된다.

다림을 보는 요령은 다음과 같다. 기둥을 세운 다

음 네 면에 버팀목으로 임시 고정시킨다. 다림추를 기둥 상부 중심에 대고 미리 그어 둔 먹줄에 맞추어 기둥을 움직여서 먹줄과 다림추를 일치시킨다. 좌우로 한 번씩 하면 기둥이 수직으로 세워진다. 그리고 나서 버팀목을 땅에 고정시키면 된다. 이런 방법으로 다림보기를 반복하여서 모든 기둥을 수직으로 세운다. 기둥이 높은 경우 작대기에 끈을 달아 높이 올려서 다림을 보면 된다.

다림추는 명주실, 삼베실, 무명실 등으로 길게 끈을 끈 다음 끝에 추를 달아서 만든다. 추는 쇠 또는 돌을 이용한다. 추는 위를 납작하게 한 다음 실을 묶을 수 있는 작은 구멍을 내고 아래는 끝을 뾰족하게 하여 중심 지점을 표시할 수 있도록 만든다. 다림추 대용으로 먹통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먹통 중심에 구부린 못을 박아 실을 묶으면 임시 다림추로 사용할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다림보기는 집 짓는 일의 기본이다. 특히 기둥을 세울 때는 반드시 다림보기를 하여서 수직으로 세워야 한다. 다림 보는 연장은 명주실이나 삼실에 추를 달아 사용하면 된다. 간혹 먹통을 임시 다림추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다림보기는 목수가 반드시 하여야 하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이다.

참고문헌 연장과 치목(이왕기, 건축167-4, 대한건축학회, 1992), 조선후기의 건축도구와 기술(이왕기, 한국전통과학기술학회지1-1, 한국전통과학기술학회, 1994), 한국의 건축 도구(이왕기, 건축장인의 땅과 꿈, 국립민속박물관, 1999), 한국의 건축연장 연구1(이왕기, 목원대학교논문집7, 목원대학교, 1984).

필자 이왕기(李王基)

다세대주택

多世帶住宅

정의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공동주택.

역사 다세대주택多世帶住宅은 1990년 도심의 주택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형식의 주택이다. 세대별로 분양을 받아 소유하는 방식이 아니라 단독주택에서

임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건물 전체로만 주택의 매매, 관리 등이 가능하다.

다세대주택은 주거난이 가장 심한 서울지역 주택가에서 자생하여 확산되었으며, 국가 정책으로 제도화되었다. 다세대주택은 주택부족률이 높은 서울에서 1980년대 초부터 자생적으로 형성되다가 차츰 서울 외곽지역과 지방도시로 확산되었다.

처음에는 단독주택지에서 다세대주택이 발생하였다. 토지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점 때문에 단독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대체되는 현상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다세대주택의 성립 배경은 1980년대까지 ‘단독주택’에서 ‘셋집’을 놓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50%가 넘었는데 수도나 전기 계량기를 1개 밖에 설치하지 못하는 것에 따른 요금 산정의 갈등, 세대 간 출입구(현관) 제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시 현황 조사를 토대로 관련법을 개정하여 생겼다. 노후화된 단독주택은 재건축 과정에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으로 다양하게 변경되었다.

내용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의 차이는 면적 $660m^2$ 를 기준으로 구분된다. 다세대주택과 비슷한 주택용어로는 다가구주택이 있는데, 다가구주택은 $660m^2$ 이하라는 규모 기준은 같지만 공동주택 범위에 속하지 않는 유형으로서 3개 층 이하이고, 대지 내에 건축되는 세대수의 합은 19세대 이하여야 한다. 이를 초과하면 공동주택 범위로 분류되는 다세대주택이 된

다. 다세대 주택은 건축법 기준으로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이 $660m^2$ 이하이고, 층수는 4층 이하인 주택이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연립주택으로 분류된다.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구분된다.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 $660m^2$ 이하의 단독주택이다.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구조로서 구분 소유가 허용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은 다세대주택과 가장 유사한 유형이다. 특징은 동일 건축물에서 여러 가구가 살지만 가구별로 별도의 출입구·화장실 등이 설치되지 않은 주거형으로 가구별 독립성이 대체로 약하다.

다세대주택은 다가구주택이 진화하면서 출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도시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독주택의 일부를 공유하는 셋집이 급격하게 확대되었으나 주인집에 종속된 관계 탓에 심리적 안정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각 가구별로 독립된 생활과 소유가 가능한 주택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구분 소유가 안 되는 한계가 있고, 규모 또한 19가구 이내여야 한다는 점에서 다세대주택과 다르다.

특징 및 의의 다세대주택은 연립주택과 층수 제한은 같으나 전체 면적에서 $660m^2$ 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의 공동주택이다. 주거단지를 이루지 않기 때문에 자투리땅에 짓기가 용이하다. 기존 시가지에 형성된 노후 주거지는 이와 같이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과 같은 도시주거 유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단독주택 토지로 공급된 토지들은 다세대주택으로 건축되는 사례가 많으며, 기존의 단독주택도 재건축 때는 다세대 주택으로 건축되는 사례들이 많다. 도시지역에는 다세대주택으로 이루어진 지역이 확산되고 있다. 다양한 도시주택이 확산해서 발전할 잠재력이 크다.

참고문헌 한국건축통사(대한건축학회, 기문당, 2014), 한국 주거의 공간사(전남일, 돌베개, 2010),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필자 손승광(孫勝光)



다세대주택가 | 서울 강남구 | 서울역사박물관

정의 세탁이나 다량의 식재료 준비 따위의 가사 작업을 위하여 마련된 공간으로, 물을 사용하는 실내 공간.

개관 다용도실多用途室은 과거 습식濕式 공간이었다. 반 외부 공간처럼 사용되던 부엌이 실내공간으로 편입되고 부엌에 입식의 싱크대가 도입되는 실내공간화 과정에서 등장한 공간이다. 싱크대는 김장이나 장 담그기 등 다량의 물을 사용하는 한국 고유의 식생활 문화를 수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다용도실이 부엌의 후면에 따로 가사 작업 공간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특히 마당이 없는 공동주택인 아파트가 도입되면서 생겨난 공간이다. 근대식 주택이 도입된 이래 부엌의 보조 공간으로서 부엌에서 직접 진출입할 수 있는 가사 작업 공간으로 제공되었다.

1950년대 후반 공공에서 계획한 연립주택에서부터 창고 겸용 세탁실을 볼 수 있다. 아파트의 경우 1962년 마포아파트에서 처음 등장한 이래 1960년대 후반부터 본격 정착하였고, 1980년대까지 거의 모든 아파트 평면 사례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후 여러 변화를 겪으면서 2000년 들어서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현재는 보조주방이 이를 대신하는 추세이다.

내용 다용도실은 전통 부엌의 기능 가운데 생활공간으로서의 마당 기능을 수용한 주택 내 재생산 및 서비스 공간이다. 다용도실이라는 어원상의 의미에 따르면 그 기능에는 제한이 없다. 식재료를 저장하고 다듬는 등 조리 작업 이전의 선행 작업, 가사 관련 물품 수납, 세탁 및 빨래 널기 등 물을 사용하는 작업이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빨래 삶기, 오랜 시간 가열이 필요한 조리 등 불을 사용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를 위하여 상수도과 배수구, 경우에 따라 가스레인지 등 추가 가열 기구가 설치된다. 그 가운데 다용도실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 설비는 배수구이다. 도입 초장기에는 바닥 전체에서 물을 사용하는 습식 공간으로 제공된다는 점이 다용도실의 기본 특

징이자 전제 조건이었다. 다용도실은 난방이 되지 않는 공간이며, 바닥은 시멘트 또는 타일과 같은 습기에 강한 재료로 마감하였다.

원래 다용도실에서의 작업 행위는 한국 전통의 기거 양식인 좌식으로부터 유래한, ‘쪼그리고 앉아서’ 일하는 반좌식 방식을 따랐다. 싱크대를 사용하는 입식의 기거 문화가 가사 작업 공간에 도입, 확산되는 과정에서의 절충식 기거 양식이라 할 수 있다. 이후 다용도실에도 싱크대 등 입식 설비가 추가 설치되면서 이러한 반좌식 생활 습관이 사라지게 되었으며, 바닥도 건식乾式으로 변화하였다. 이처럼 다용도실 역시 부엌과 다른 실내공간이 되면서 그 공간을 지칭하는 용어도 점차 ‘보조주방’으로 바뀌었다. 여기에는 김치냉장고, 세탁기 및 건조기, 기타 다양한 주방 보조기구, 수납 가구 등이 자리한다. 김치나 장을 담그지 않고 소량의 식재료를 사용하는 식문화의 변화, 세탁기 및 건조기가 손빨래와 빨래 널기를 대신하는 생활문화의 변화로 인하여 습식 공간으로서의 다용도실이 소멸한 것이다.

한편 법규 측면에서 보면 아파트의 경우 다용도실 및 보조주방은 주거 전용 면적과 다른 ‘서비스 면적’으로 구분되며, 후면 배란다를 전용轉用하여 제공한다.

특징 및 의의 다용도실로부터 보조주방으로의 변화는 한국 주생활 공간에서 가사 작업 공간의 완전한 실내화 및 입식화를 의미한다. 또 사람이 하던 가사노동이 기계로 대체되는 현상을 보여 준다. 또한 가공식품의 보급, 외식 및 배달 문화 확산 등이 가져온 식문화 변화 현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와 같은 설비의 발전과 생활 변화로 인하여 다용도실이 현대 주거공간에서 사라지게 된 것이다.

참고문헌 박철수의 거주박물지(박철수, 집, 2017), 집-집의 공간과 풍경은 어떻게 달라져 왔을까(전남일, 돌베개, 2016), 한국 주거의 미시사(양세화·전남일·홍형욱, 돌베개, 2009), 한국건축개념사전(한국건축개념사전기획위원회, 동녘, 2013).

필자 전남일(田南一)

단독주택

單獨住宅

정의 단독 택지에 단일 가구家口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역사 근대 의미의 단독주택單獨住宅은 1876년 개항 이후 부산, 원산, 인천 등의 개항장 중심으로 외국인 거류지가 형성되어 양식 및 일식으로 건축되면서 시작되었다.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택지가 대규모로 형성된 것은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기법으로 가구街區가 계획되고 토지를 분할하여 필지와 도로를 개설한 것에서 기인한다.

광복 후 대한주택영단은 1953년부터 집단주택지에 흙, 석회, 시멘트를 혼합한 흙벽돌로 33㎡(10평) 이내의 공영주택을 단독주택으로 공급하였다. 1958년 이후 시멘트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시멘트 벽돌이 주택 재료로 사용되었고, 대한주택영단은 표준형 공영주택으로 1961년까지 대지 132㎡(40평)에 건평 49.5㎡(15평)인 소규모 국민주택을 보급하였다. 국민주택은 평면의 전면 중앙에 넓은 마루방을 거실로 설계하였고, 최초로 욕실을 독립된 공간으로 설치하여 서구적인 실 구성을 선보였다. 공영주택 공급 시기부터 단독주택은 재료와 건설 방식 변화에 따라 양육 형태로 대량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1960~1970년대는 민간 집장수가 주택 공급을 담당하던 시기로, 중산층을 위한 66㎡(20평)대의 민간단독주택이 건설되었다. 1920~1960년대는 목가 구조木架構造의 도시형 한옥이 많이 지어졌지만 이후 1970년대 초반까지는 주로 시멘트 혼합 재료를 사용하여 모임지붕이나 박공지붕의 1층 구조로 된 홑집과 반겹집 평면 형태로 건설되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중산층이 성장하고 생산 기술과 설비 발달로 아궁이에 불을 때서 난방하던 방식에서 보일러로 난방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고, 집 외부에 설치된 변소가 수세식으로 일반화되면서 실내로 들어왔으며, 점차 2층 구조로 변화하였다. 평면도 입식 생활 양식 변화로 부엌과 식당이 결합되고, 거실이 가족 생활 중심 공간

으로 자리 잡았다. 1980년대부터는 주택 공급이 중산층이 선호하는 아파트 위주로 이루어지면서 단독주택 공급은 현저히 줄었다. 노후화된 단독주택은 임대 수익을 위한 여러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하였고, 건축법규가 양성화되면서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으로 개축되었다. 이러한 단독주택지는 점차 높은 밀도, 일조권 문제, 주차문제 등으로 주거 환경의 질이 낮아지면서 예전의 모습을 잃게 되었다.

대중적인 단독주택과는 다르게 상류계층의 단독주택은 주로 건축주가 건축가에게 의뢰해서 건설하였으며 작가주택으로 구분된다. 1930년대에 서구에서 유행하는 외관과 재료를 사용한 문화주택은 일반 대중의 단독주택과 차별화한 상류주택이었고,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었다. 1970년대 서구식 건축 교육을 받은 건축가가 늘면서 작가로서의 예술성을 살려 작품으로서의 단독주택을 건설하였으며, 서구식 외관과 큰 규모의 평면 구성이 특징이었다. 1980년대 후반 수도권외의 분당, 일산 신도시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지를 계획하여 분양함으로써 아파트 위주의 주택 공급 상황에서 단독주택을 건설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단독주택지에 지어진 단독주택은 대중주택과 차별화된 건축주의 개성 요구와 건축가의 작품성이 결합되어 상류계층의 주택으로 건설되었다. 2000년대 이후 수도권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에 전용 단독주택용지의 필지별 공급이 늘어났고, 블록을 하나의



한미재단 원조주택 단지 전경 | 서울 종로구 | 1958 | 서울사진아카이브

개발 단위로 공급하는 블록형 단독주택지가 늘면서 서구식 단독주택단지를 형성하게 되었다. 2010년대에는 단독주택 요구가 젊은 층으로 확산되면서 도심의 토지비용 상승으로 말미암아 마당이 있고 독립 생활을 원하는 가구들이 66㎡ 안팎 규모의 협소주택으로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내용 근대화 이후 단독주택은 주거계층별로 서민·중산층의 대중주택과 상류층의 작가주택으로 구분되며, 양식별로는 한옥과 양옥으로 구분된다. 근대화 시기부터 상류층은 서민층과 차별화하여 양식 단독주택을 건설하였다. 시멘트·유리·철 등의 새로운 재료 사용, 근대화된 설비, 침실·거실·응접실·서재·식사실 등 실 기능 분화, 집중식 평면과 공간을 연결하는 복도·현관 배치, 외부공간의 정원화 등이 특징이었다. 또 입식생활을 추구하는 방향이었다. 이런 방향은 대중주택에 점차 영향을 주었다. 1980년 중반 이후는 작가주택으로서의 단독주택에 한국의 주체성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또 채나눔, 중정형 배치, 내부공간과 마당과의 연계, 마당의 분화 등을 적용하면서 한국적 특성을 모색하였다.

대중주택으로서의 단독주택은 근대화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구획 정리된 택지에 집단으로 목가구조의 도시형 한옥으로 건축되었지만 시멘트를 이용한 재료로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 양식 구조로 변화해 갔다. 대중주택으로서 단독주택의 평면·입면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사회문화 배경, 연료 및 난방 방식 변화, 급수·위생시설 변화, 구조·재료 변화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사회문화 배경으로 주택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시기에는 최소 규모의 공영주택으로 공급되었고, 소득 증가와 중산층 형성으로 건축 면적이 넓어지고 다양한 평면이 공급되었다. 연료 및 난방 방식이 연탄아궁이, 연탄보일러, 기름보일러, 가스보일러로 변화하면서 아궁이가 있던 부엌의 단차가 없어져서 평면 구성의 자유도가 높아지고 생활공간이 넓게 확보되었다. 급수·위생시설이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변화되면서 화장실과 욕실이 실내화되었고, 한 공간으로 통합 구성되었다. 구조·재료가 흙벽돌, 시멘트

트블록, 철근콘크리트조로 되면서 주택 면적이 넓어지고 2층으로 적층화되었다.

특징 및 의의 단독주택은 담으로 둘러싸인 대지에 주택과 마당으로 구성하는 형태와 필지 경계에 주택을 둘러싸고 가운데 마당을 두는 중정형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단독주택의 다수를 차지하며, 후자는 목가구조의 도시형 한옥으로 192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대량 공급을 위하여 양옥으로 건설된 단독주택에는 한국적 특성이 나타나 있다. 조적조나 콘크리트구조로 건설되면서 외관상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해 서구형 전면 박공지붕이나 평슬라브지붕이 나타난 적은 있으나 주택 전면에서 수평선이 강조되는 모임지붕 또는 우진각지붕 형태로 정착하였다. 평면은 장방형 또는 ㄱ자형 변형의 겹집형으로 전면 열과 방 사이에 마루(거실)가 있고 후열에 부엌·화장실이 배치된 거실 중심형 평면으로 수렴되는 등 전형적 평면 유형으로 정착되었다. 이런 특성은 1980년대까지 민간 건설 단독주택에도 이어진다. 서구의 단독주택이 1층은 거실·부엌 등 공적 공간, 2층은 침실 등이 있는 사적 공간으로 구분되는 데 비해 국내 단독주택은 1층에 안방이 배치된다.

주택이 아파트 위주로 공급되는 상황에서 단독주택은 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기존의 단독주택지에서 노후화한 단독주택이 담이 없는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으로 개축되는 방향, 신도시 단독주택지에서 건축주와 건축가가 개별 대응하여 개성을 살린 독특한 단독주택으로 건설되는 방향, 도심 소규모 택지에서 협소주택으로 건설되는 방향 등이다.

참고문헌 평면의 형상으로 바라본 우리나라 단독주택의 공간구성적 특성에 관한 유형학적 연구(손세관·전경화, 대한건축학회논문집14-3, 대한건축학회, 1998), 한국 주거와 삶(윤정숙 외, 교문사, 2011), 한국 주거의 사회사(전남일 외, 돌베개, 2008), 한국의 주택 그 유형과 변천사(임창복, 돌베개, 2011).

필자 박경옥(朴庚玉)

단청 丹青

정의 청색·적색·황색·백색·흑색 등 5가지 색을 기본으로 하여 건축물 등에 여러 가지 무늬와 그림을 그려 장식한 것 또는 그 일.

내용 단청丹青은 청색·적색·황색·백색·흑색 등 5가지 색을 기본으로 하여 대상물에 여러 가지 무늬와 그림을 그려 장식한 것 또는 그 일을 말한다. 단청의 대상은 주로 목조 건축물의 기둥, 창방, 공포, 보, 천장, 벽 등에 한정되나, 보다 넓은 범위에서 고분, 불화, 조각, 공예품 등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 목조 건축물에 단청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비, 바람, 해충 등으로부터 목재 표면을 보호하여 그 내구성을 높이는 데에 있으며, 이와 동시에 건물의 등급과 위계를 나타내고 장엄하게 장식하려는 목적도 있다.

단청의 등급은 크게 가칠단청假漆丹青, 굿기단청, 모로단청毛老丹青, 금단청鎭丹青 등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가칠단청은 선이나 무늬 등을 그리지 않고 바탕색만 칠하는 방법으로 가장 낮은 등급의 단청이다. 주로 사찰의 요사채나 궁궐과 능묘의 협문, 일반 주택 등에 사용된다. 둘째, 굿기단청은 부재에 바탕칠을 한 후 먹선, 분선, 색선을 그어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주로 사찰, 향교, 서원 등의 부속 건물 등에 사용된다. 또한 굿기단청은 가칠단청과 함께 유교건축에서 검박과 엄숙 등을 표현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셋째, 모로단청은 머리단청이라고도 하며, 주요 부재의 끝머리에만 각종 무늬를 장식하고 중간에는 바탕칠을 한 후 굿기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주로 궁궐, 향교, 서원 등의 주요 건물에 사용된다. 넷째, 금단청은 비단 금뿔자에서 알 수 있듯이 비단에 수를 놓은 듯 모든 부재를 복잡한 무늬와 화려한 색채로 장식하는 방법이다. 가장 높은 등급의 단청에 해당하며, 주로 대웅전, 극락전, 비로전 등 부처님을 모신 사찰의 주불전에 사용된다. 또한 금단청은 열금단청과 갓은금단청으로 다시 세분되기도 하는데, 전자는 금단청과 모로단청의 중간 단계로서 장식이 적은 간략한 단청이고 후자는 금단청보다 더욱 화려하고 입체적으로 장식한 단청이다.

단청에 나타나는 무늬는 시대, 지역, 장인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기본 무늬로는 삼각형·사각형·원형이 주축을 이루는 기하무늬, 구름당초·인동당초 등의 당초무늬, 해·달·구름 등의 자연무늬, 각종 수목과 꽃을 그린 식물무늬, 용·봉황 등의 동물무늬, 불상·보살 등의 종교무늬, 수복壽福·칠보七寶 등 인간의 길복을 기원하는 길상吉祥무늬 등이 있다.

단청의 시공은 포수 및 바탕칠, 출초·천초·타초,



서울 종로구 종묘 | 국립민속박물관



서울 종로구 사직단 | 국립민속박물관



가칠단청 |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 | 김왕직·동넉



굿기단청 |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 | 김왕직·동넉

도채와 보호칠 순으로 진행된다. 작업 준비를 마치면 단청을 칠할 모든 바탕면에 아교 등의 교착제를 물에 타서 칠하는데, 이를 ‘포수泡水’라 한다. 포수가 마르면 백분으로 바탕칠을 한다. 그다음 건물 각 부재에 단청의 무늬를 그리는 데, 도안한 초도草圖를 초지草紙에 옮겨 그리는 것을 ‘출초出草’라 하고, 출초한 무늬를 윤곽을 따라 돛바늘로 초구멍을 뚫는 것을 ‘천초穿草’라 한다. 천초가 끝나고 완전 건조된 가칠면에 초지本草紙本을 대고 분주머니를 두드리면 초구멍을 통해 무늬의 윤곽선이 백분 점선으로 묻어 나오는데, 이를 ‘타초打草’라 한다. 타초가 끝나면 구획별로 채색하고, 단청면을 보호하기 위해 정제한 식물성 기름을 고르게 발라 마무리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이른 건축물의 단청은 고려 후기 건축, 즉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및 조사당, 수덕사 대웅전 등에서 확인된다. 이 가운데 부석사 조사당 벽화 단청은 가장 오래된 것으로 후세에 여러 번 다시 칠하였으나 옛 격식이 그대로 남아 있으며, 수덕사 대웅전 벽화 단청도 대웅전 건립 당시의 것으로 추정되는 오래된 것이다.

현존하는 가장 이른 단청은 고려시대 것이지만 삼국시대의 단청도 문헌기록과 고분벽화를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다. 단청과 관련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삼국사기三國史記』 권48 「술거조率居條」에 나오는 화가 술

거의 노송도老松圖 이야기이다. 여기에서 ‘단청’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이는 벽화의 개념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또한 가장 오래된 단청의 흔적은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357년 조성된 안악3호분의 석실 벽면과 천장에는 목조 건물의 기둥, 공포, 창방 등이 채색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목조 건축의 단청 양식을 그대로 볼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사례이다. 그 밖에도 덕흥리고분, 용강대묘, 쌍영총, 수산리고분, 안악2호분 등에서 고구려 건축의 수준 높은 단청 양식을 살펴볼 수 있다.

특징 및 의미 단청이라는 단어는 붉을 단丹과 푸를 청靑의 두 가지 색이 합쳐 만들어진 것이나 사실 단청은 청색, 적색, 황색, 백색, 흑색의 5가지 색, 즉 오채五彩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는 오행五行 사상에 근간한 것으로 단청이 색상, 방위, 계절, 신수神獸 등과도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三國史記,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김왕직, 동녘, 2007),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단청(한석성 구술, 박해진 편, 현암사, 2004), 한국건축 대계3-단청(장기인·한석성, 보성각, 2012), 한국의 단청(곽동해, 학연문화사, 2002), 두산백과사전(doopedia.c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현승욱(玄勝旭)



서울 종로구 경복궁 경회루 | 국립민속박물관



서울 종로구 조계사 | 국립민속박물관



모로단청 |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 | 김왕직·동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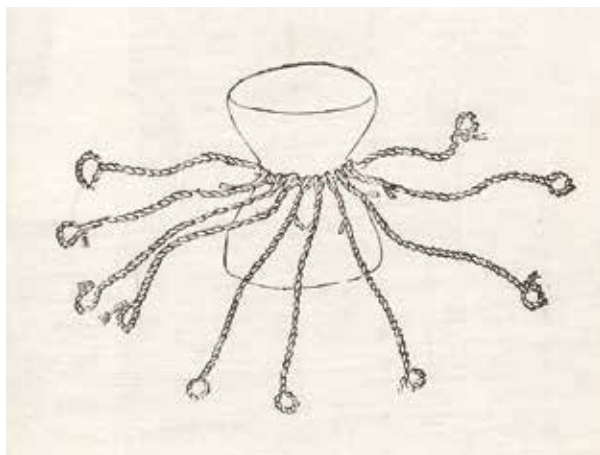
금단청 |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 | 김왕직·동녘

정의 건물이 지어질 지반을 달구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단단하게 다지는 작업.

개관 달구질을 사용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첫째는 땅을 파서 무덤을 만들 때 묘광을 다지는 작업이며, 두 번째는 건물의 기반을 다지는 작업이다. 무덤에서 묘광을 다지는 것은 나무뿌리나 뱀, 쥐, 여우와 같은 동물이 침범해서 시신을 상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흙과 회를 섞어 다지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회다짐’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는 토광묘가 사용되었을 시기에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건축공사에서 달구질은 건물이 들어설 지반을 다지는 작업이다. 이는 건물 구조의 안정성과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견고한 지반을 만들기 위하여 건설공사에서는 필수 작업이다. 특히 기술자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주택을 건설하던 시대에는 지반이 무르거나 기초가 부실해져서 집이 기울거나 무너지는 사례가 많았을 것이다. 달구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지반을 다지는 방법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흙을 쌓아 건물의 토대를 마련하던 시대 때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다. 조선시대 문헌에는 달구질에 대한 필요성과 방식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내용 한옥을 건설하는 공사는 크게 두 가지 공정으로 구분된다. 먼저 건물이 들어설 지반을 만드는 공정과 그 위에 뼈대를 조립하는 공정이다. 건물의 지반은 흙과 돌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토역土役을 다루는 기술자들이 이 공정을 맡았고, 뼈대를 만드는 작업부터는 대목大木이 주관하였다. 흔히 집짓기 공사를 총괄하는 기술 책임자는 대목이 맡았기 때문에 민간의 소규모 공사에서는 지반공사를 경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반이 평탄하지 않거나 견고하지 않으면 뼈대를 아무리 튼실하게 만들었다 해도 건물이 기울거나 무너지는 일이 많았을 것이다.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서는 지반공사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돌달고 | 화성성역의궤 | 1801 | 국립중앙박물관

“집을 지움에 있어서 기초에 가장 유의해야 한다는 사실은 사람마다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여유 있는 집에서는 번다한 비용을 아끼지 아니하고, 혹은 숯을 가지고 다지고, 혹은 소금을 가지고 다지면서 남산 속에 견고하게 세웠다고 생각하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쪽이 무너지고 서쪽이 내려앉는데 그 까닭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먼저 대를 다지지 않는 데 있고, 주춧돌을 놓음에 법도가 없었던 데 있다.”

달구질은 달구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건물이 들어설 지반을 다지는 작업이다. 이는 지반을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과 견고하게 다지는 작업을 포함한다. 달구질은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지반 전체를 다지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이후 주춧돌이 놓일 자리를 특별한 방법으로 보강한다.

주춧돌은 건물의 하중이 기둥을 통하여 집중 전달이 되는 곳이라 더욱더 견고한 지반이 필요하였다. 여기에는 보통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되었다. 첫째는 돌을 쌓아 초반을 만드는 적심석積心石이라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모래를 다져 만드는 입사지정立砂地定이다. 적심석 지정은 둥근 잡석을 깔고 다진 후 그 위에 주춧돌을 놓는 방식을 말한다. 경사진 지형이나 고급 건축에서는 큰 돌을 쌓아 기둥을 받치기도 하였다. 『임원경제지』에 그 방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전한다.

“무릇 집을 영조함에 있어 먼저 건물 세울 땅을 살펴 정한다. 그리고 큰 나무 절구(속명은 원달고元達古이다)를 가지고 사방을 빙빙 돌아가며 두루 다진다.

땅이 이미 굳고 단단하게 되었으면 다시 주춧돌 놓을 곳을 살피 정한다. 그리고 말구유 형상과 같이 곧게 땅을 파는데 깊이는 반 길 정도가 좋다. 먼저 굵은 모래를 일곱 내지 여덟 치 채우고 물을 많이 뿌린 다음 나무달구로 여기저기 세게 다진다. 달구머리에서 땅 땅 소리가 난 뒤에야 비로소 손을 멈춘다. 그런 뒤 다시 모래를 붓고 물을 뿌린 다음 앞에서와 같이 다져 나간다. 대략 반 길의 깊이라면 반드시 예닐곱 차례로 나누어 다져야만 비로소 돌처럼 견고해진다.”

산간지역에서 토담집이나 토벽집, 귀틀집을 지을 때는 달구질을 하면서 소금을 뿌리기도 하고 짚이나 나뭇가지를 태운 잿물을 뿌리기도 한다. 땅에 직접 접하는 목재가 썩지 않도록 하는 예방법이다. 토담이 빗물에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도 한다. 진흙으로 다지는 경우도 있다. 이는 지표면에서 모세관 현상으로 올라오는 습기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땅을 다지는 일은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고 노동력이 조직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협동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달구질이라고 부르는 이 작업은 절구 모양의 나무달구, 돌달구, 쇠달구에 여러 방향으로 줄을 매어 각 방향에서 잡아당김으로써 달구의 상하운동을 통하여 땅을 다지는 작업이다. 달구질하는 사람들은 줄 하나씩을 허리에 매고 동시에 잡아당겼으며, 이때 호흡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노래 소리에 맞추어 작업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래를 <달구소리> 또는 <터다지기 소리>라고 한다. 건축 작업 중에 부르는 유일한 노동요에 해당한다.

민간의 서민주택과 같은 소규모 건축공사에서는 동네 사람들의 품을 빌려 이러한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구술 자료에 의하면 관청이나 상류계층에서 주도하는 대규모 공사에는 달구질을 전문으로 하는 조직이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도편수 배희안은 전문 달구 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구술한 바 있다.

“그전에는 달구패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지. 저 동대문 밖에 한 패가 있구, 여기 영천에 한 패가 있구 그랬지.…… 이 달구질패는 열하나야. 좌우 쪽으루 다섯씩은 동아줄 잡구 들었다 났다 하구, 하나는 이제 장구 치구 소리 메기는 거야.”



집터다지기 | 강원 동해 | 2008 | 국립민속박물관

이와 같이 달구질은 노동과 춤과 노래가 어우러진 마을 축제 성격을 띠고 있었다. 하나의 돌에 20~25명의 노동력이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마을 장정들이 품앗이 노동으로 참여하였고, 주인은 술과 음식을 풍부하게 제공하였으며, 마을의 풍물패가 함께하는 경우가 많았다. 노래는 대체로 집터를 칭송하고, 재앙을 물리치며, 복을 기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지역에 따라 다른 사례들이 나타난다. 특히 성주풀이류의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 많아 문학·신앙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특징 및 의의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반공사는 기계화된 건설장비로 하게 됨으로써 달구질의 명맥은 단절되고 말았다. 달구질 전문집단의 해체도 빨라서 기술 내용도 목조만큼 상세하게 전수되지 못하였다. 달구질은 건설 공정의 기술 차원을 넘어 전통 촌락사회의 생활 민속 행사로 이해될 수 있다. 촌락 구성원들이 상호부조 성격의 노동을 통하여 집짓기에

참여하는 공동체 생산 행위였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춤과 노래가 함께하는 마을 축제 성격이 포함되었고, 노래에는 건축 과정과 건축주에 대한 축원이 담겨 있었다. 건축 과정에서 공동체 참여와 인식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林園經濟志, 이제 이 조선 틈에도 녹이 슬었네(배희한 구술, 이상룡 편, 뿌리깊은 나무, 1981), 집의 사회사(강영환, 웅진출판, 1992), 한국건축대계 5-목조(장기인, 보성문화사, 1988), 한국의 살림집(신영훈, 열화당, 1995).

필자 강영환(姜榮煥)

C

달동네

달동네

정의 급속한 근대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의 고지대에 조성된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

개관 달동네는 마을이 높은 산자락에 위치하여 달이 잘 보인다는 뜻을 나타낸다. 이 단어는 ‘달나라 천막촌’에서 유래한다. 도심에서 쫓겨난 가난한 사람들이 임시 천막에 누우면 밤하늘의 달과 별이 보인다고 해서 생겨났다. ‘달동네’가 널리 쓰인 것은 1980년대 초반에 TV에서 방영된 연속극 <달동네>가 인기를 끈 이후이다. 이 연속극이 큰 인기를 누리면서 달동네는 불량 노후 주택이 집중되어 있는 산동네의 대명사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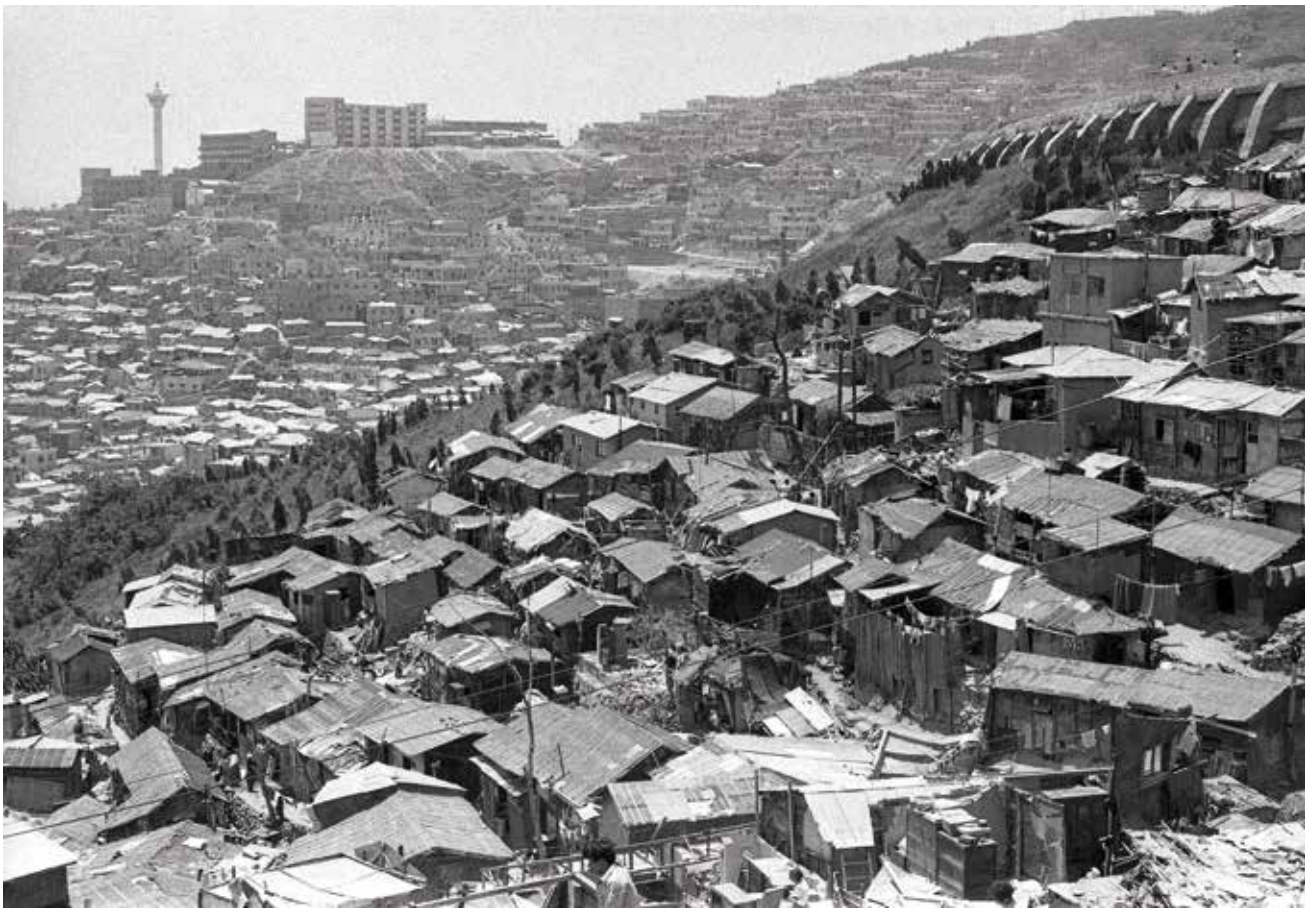
내용 우리나라의 급속한 근대화와 도시화는 필연으로 빈민촌을 탄생시켰다. 일제강점기 서울로 이주한 농민들은 도심 외곽에 흙으로 된 토막土幕을 짓고 살았다. 이후 한국전쟁 시기의 판자촌과 하꼬방, 1960~1970년대 달동네·산동네, 1980년대 별집·닭장·비닐하우스 등도 도시로 이주한 빈민들이 살던 집과 마을이다. 이 가운데 달동네는 빈민촌의 대명사로 알려졌다. 195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고지대에 형성된 판자촌으로 서민들이 더 많이 몰려듦에 따라 달동네는 확대되었다.

달동네가 형성된 근현대사의 배경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광복 후 동포 귀환과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란민 유입이다. 도시로 급격히 유입된 피란민들은 도심의 산비탈을 개간하여 판잣집을 지었다. 둘째, 산업화 시기에 도시로 이주한 가난한 농민들이 판자촌으로 몰리면서 달동네가 확대되었다. 셋째, 도심의 판자촌 철거에 따라 번두리에 새로운 달동네가 생긴 경우이다. 불량 주택을 없앤다는 정부의 조치가 오히려 달동네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국전쟁은 거주공간의 급속한 변동을 초래한 근본 원인이었다. 서울로 이주한 피란민들은 인왕산, 안산, 남산을 비롯한 도심부 인근의 산을 개간하여 판잣집을 짓고 살았다. 인천에 몰려든 피란민들도 동구의 만석동과 수도국산 일대에 판잣집을 짓고 살았다. 그 외 인천의 피란민들은 남구 학익동 등지에 샬터를 마련하였다. 한국전쟁 때 임시수도가 된 부산은 인구가 폭증하였다. 특히 1·4 후퇴 이후 부산에 들어온 수십만 명의 피란민들은 중앙동, 동광동, 보수동 등 원도심권에서 임시 거처를 마련하였다. 전쟁은 끝났지만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북한 피란민들은 초량동, 영선동, 아미동, 청학동, 우암동 등의 고지대에 정착하여 살았다.

1960년대 이후 산업화로 인한 이촌향도離村向都 현상은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을 야기했고, 달동네가 확장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집도 없이 무작정 상경한 농민들은 안정된 주거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지인의 집에서 행랑살이를 하거나 월세방을 얻었다. 이조차 안 되면 산비탈에 판잣집을 짓고 살아야 하였으니 가난한 이주민들에게 달동네에서의 생활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특징 및 의의 달동네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형성된 빈민촌貧民村이다. 달동네는 지리상 도심과 번두리의 높은 곳에 위치해 있으므로 ‘하늘동네’, ‘산동네’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산동네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산촌山村이 아니라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이주한 서민들에 의하여 급속도로 형성된 도시 마을이란 점이 특징이다. 하늘동네와 산동네는 고지



판자촌 | 부산 동구 | 1970년대 | 부산광역시

대 마을이란 지리 특징이 강조된 반면에 달동네는 민중의 삶과 애환까지 담고 있는 용어이다. 도시로 몰려 빈민들에게 달동네는 유일한 보금자리이자 삶터 역할을 하였다.

달동네에 지어진 초창기 집들은 대개 임시 주거 형태였다. 시대 변천에 따라 달동네 임시주거 형태도 변화하였다. 대체로 간이형의 천막에서 판잣집으로, 다시 슬레이트집으로 변모하였다. 한국전쟁 시절 간이천막에서 살던 피란민들은 점차 주변에 판잣집을 지어 살았다. 몇 평 안 되는 땅을 다져 판자와 각목을 주재료로 하여 열기설기 엮어 집을 지었다. 지붕은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섬유제품에 아스팔트 가공을 한 물막이 천인 루핑을 많이 사용하였다. 이러한 판잣집은 이후 슬레이트와 블록을 자재로 사용한 주택으로 변화하였지만 달동네 사람들은 비좁고 가난한 주거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달동네는 우리나라 빈민촌을 상징하는 생활 공간이다. 서울의 길음동·월곡동·미아동·봉천동·신림동·금호동·옥수동 등과 부산의 수정동·좌천동·아미동·감천동·재송동·반여동 등지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달동네가 조성되었다. 산비탈의 판자촌과 가파른 도로,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 옥상 주차장과 간이 물탱크, 공동 화장실 등 달동네 특유의 생활 양식을 형성하였다. 달동네 주민들은 일용직 건설 노동자, 행상, 불안정한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면서 가난한 삶을 이어갔다. 이 때문에 달동네는 사회에서 가난과 소외 공간으로 인식되었고, 달동네 주민들은 정부의 강제 철거 정책 등으로 인하여 차별과 탄압을 받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도시민속학에서 바라본 달동네의 특징과 의의(유승훈, 민속학연구25, 국립민속박물관, 2009), 부산의 산동네(박재환 외, 부산발전연구원, 2008), 수도권산달동네박물관 상설전시도록(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2006), 한국 주거의 사회사(전남일 외, 돌베개, 2008).

필자 유승훈(柳承勳)

정의 건물 대지의 경계 또는 시설물 주위의 일정한 공간을 둘러막기 위하여 흙, 돌, 벽돌 따위로 쌓아 올린 낮은 구축물.

개관 담장은 집을 보호하는 중요한 구조물이다. 고대에는 큰 짐승을 막기 위하여 울타리가 필요하였지만, 거주 인구가 늘어나고 취락이 커지면서 울타리는 가족공동체의 영역을 지키는 구조물로 발전하였다. 조선의 실학자 홍만선洪萬選의 『산림경제山林經濟』에서는 백성들에게 울타리 꾸미는 방법을 가르치고 울타리가 갖추어야 할 조건도 제시하였다. ‘사흘 굴어서 담 안 넘을 놈 없다’ 또는 ‘담 너머 불구경 하듯 한다’라는 속담은 담장의 높이가 몇 척에 불과할지라도 사적 공간과 공적공간을 구분하는 사회적, 지리적 경계가 된다는 점을 보여 준다.

내용 담장은 원장垣牆이라고도 하며 줄여서 담이라고도 불린다. 담은 대체로 흙, 벽돌, 돌, 널판 등으로 축조하는데, 경미한 재료를 사용하거나 담장 내부가 들여다보이게 만들어진 것을 울타리, 울 또는 책冊이라고 한다. 담장의 역할은 일정한 공간을 둘러막아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고, 내부가 들여다보이지 않도록 차단하여 공간을 서로 다른 성격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서는 담과 벽을 아울러 ‘장벽牆壁’이라고 하였다. 내외를 구분하고 내부를 보호하는 기능의 담과 벽을 동일한 건축 요소로 간주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동시에 담장에 표현되는 소박하거나 화사한 장식성은 담장을 지은 사람이 이웃이나 방문객들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장소와 경관을 고려하였음을 보여 준다.

『고려사高麗史』 권13 「세가世家」에서 궁궐에 높은 담장이 있는 사치스러운 화원을 조성하였다가 없었던 기록, 1503년(연산군 9) 2월 8일에 경복궁과 창덕궁의 안 담장을 모두 높게 쌓도록 명한 것은 궁궐 밖 불초不肖한 사람이 안을 들여다볼 수 없게 하기 위함

이라는 기록이 있다. 궁궐 안에 높이 쌓은 담장이라는 공통의 내용은 담장이 일정한 높이를 물리적으로 확보하여 내부를 보호하는 차단막으로 사용되어 왔음을 보여 준다. 국내에서 담장에 대한 기록으로 가장 이른 사료는 『삼국사기三國史記』 옥사조屋舍條로 알려져 있다. 옥사조에서는 신라시대 사회적 신분에 따라 주택의 규모와 위계를 제한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현재의 건축 관련 규정에 비하면 적은 분량이지만, 당시 건축물 중요 부위의 규모와 장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축 구성의 세세한 이해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이 중 담장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옥사조 속 담장 규정에는 첫째, 신분에 따라 담장의 높이, 담장 상단 지붕장식의 유형, 담장표면의 회칠 여부가 반영되어 있다. 담장의 높이는 일반 백성부터 사두품까지, 오두품, 육두품에 따라 6척, 7척, 8척 높이로 제한된 반면 진골과 성골은 높이 제한이 없다. 일차적으로 담장의 위계는 높이가 중요하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으며, 돌이나 벽돌을 쌓아서 만드는 조적조 담장의 특성상 높이와 두께가 비례한다는 점에서 위계가 높을수록 높고 두꺼운 담장을 설치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둘째, 담장 상단에는 건물의 지붕과 유사한 시설을 신분에 따라 다르게 설치하였다. 성골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담장과 직교하는 양梁과 담장과 평행하는 동棟이 함께 사용된 지붕을 사용할 수 있었으며, 진골과 육두품은 양으로만 구성된 지붕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오두품 이하는 양과 동이 전혀 없이 담장을 마무리하였다. 마지막으로 담장의 벽면을 미려하게 만드는 회칠 마감은 성골에게만 허락되었다. 회칠의 재료가 되는 석회는 손쉽게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골 이외에는 담장을 구성하는 재료가 그

골품	담장 형식
진골	담장에 양동梁棟(들보)을 설치할 수 없고, 회칠을 할 수 없다.
육두품	담장 높이는 8척을 넘을 수 없고 양동을 설치할 수 없으며, 회칠을 할 수 없다.
오두품	담장 높이는 7척을 넘을 수 없고 양梁을 가설할 수 없고, 회칠을 할 수 없다.
사두품·백성	담장 높이는 6척을 넘을 수 없고 양을 가설할 수 없으며, 회칠을 할 수 없다.

골품별 담장 형식 제한(삼국사기 권33 잡지 제2 옥사조)



토담 | 경북 안동 하회 | 최지현



토석담 | 경북 안동 하회 | 최지현



막돌담 | 경북 군위 | 국립민속박물관



생울 | 경북 안동 하회 | 국립민속박물관

대로 노출되는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담장은 주로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서 흙으로 쌓은 토담[土牆], 벽돌로 쌓은 벽돌담[壁鄕牆], 전돌로 쌓은 전돌담[塼牆], 돌로 쌓은 돌담[石牆], 사고석으로 쌓은 사고석담[四塊石牆], 막 생긴 돌[雜石]로 쌓은 막돌담, 목재 널로 막은 판장板牆 그리고 나무줄기를 엮어 세워 만든 울타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토담은 널판으로 틀을 만들고 그 사이에 진흙, 짚 등의 여물, 석회를 섞은 흙 반죽을 눌러 쌓은 담으로 농촌주택에 많이 남아 있다. 안동 하회마을에서는 널판의 경계선이 토벽면에 고스란히 남는다고 해서 ‘판담’이라 부르기도 한다.

벽돌담과 전돌담은 각각 벽돌과 전돌을 쌓아 만든 담장이다. 벽돌과 전돌은 모두 일정한 크기로 흙을 빚은 뒤 높은 열로 구워서 만드는 건축재료로 전문적인 생산과정을 필요로 한다. 벽돌과 전돌은 형태와 사용 방식에서는 유사하지만, 전돌은 백제 고분에 사용될 만큼 역사가 오래된 전통 건축자재라는 점에서 차이

가 있다. 벽돌은 일정한 크기와 색상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담장면에 문양 디자인을 적용하기에 유리하다. 돌담은 돌을 쌓아 만든 담장인데, 크고 작은 막돌들을 허튼충쌓기로 쌓으면 막돌담이 되고, 비슷한 크기의 돌을 바른충쌓기로 정렬하면 돌담이 된다.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소소하게 다듬어서 만든 담장을 ‘토석담’이라고도 하며, 흙을 전혀 쓰지 않고 돌만 쌓은 담은 ‘강담’이라고 한다. 돌의 크기를방 한 뼘 정도의 정방형으로 반듯하게 다듬어서 쌓으면 사고석담이 된다. 사고석은 돌이 담장 깊숙이 박혀 있게 하기 위해서 몸체를 길게 다듬으며, 돌끼리 맞댄 면에는 삼화토를 빚어 넣고 돌 표면보다 높게 돌출시켜서 화장줄눈으로 꾸민다. 바닥에 굵은 돌을 놓고 위로 가면서 줄눈 없이 작은 돌을 차곡차곡 쌓아 만든 담장을 ‘돌각담’이라고 하는데, 제주도 민가에서 주로 보이는 유형이다.

판장은 널판을 켜는 제재술이 발달한 이후 도시

주택에 쓰인 담장으로, 통나무 기둥을 세우고 띠장을 건너지른 뒤 세로널을 붙여서 만든다. 기둥은 6자(약 1.8m) 정도 간격으로 세우는데, 한두 칸 정도를 건너 버팀기둥을 추가로 세워서 풍력 등의 외력에 대비한다. 세로널을 횡방향으로 고정하는 띠장은 1.5~2치(4.5~6cm)의 각재를 상하 1.5~2자(45~60cm) 간격으로 못을 박아 고정한다. 목재용 방부재가 없던 시절에는 기둥 밑동을 불에 태워 지중에 묻었으며 널판은 불에 그슬어 박아 댔다. 울타리는 나뭇가지·풀대·싸리나무·수수깡 등 여러 가지 식물재료를 짜서 경계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농촌이나 산간의 주택에서 널리 사용해 왔다. 한자어로는 이락籬落·파리巴籬·번리藩籬·바자울[笆子籬] 등이라고 한다. 특히 나무를 직접 심어 그 나무 자체가 하나의 울타리 구실을 하게 하는 경우는 생울이라고 한다.

담장은 세운 위치와 규모에 따라서 세분화될 수 있다. 돌을 안팎 담장면에 마주 놓아 쌓은 보통의 돌담을 ‘맞담’이라고 한다. 안팎을 동시에 쌓아 올린 협축기법夾築技法을 사용하여 안과 밖이 서로 닮은 벽면이 만들어진다. 화방장과 같이 담장면의 한쪽에만 쌓고 뒤는 다르게 한 것을 ‘홀담’이라 하고, 축대 등의 표면을 싸 바른 담장으로 내구성과 기능을 위주로 조성한 것을 ‘외담’이라 한다. 궁궐 주위에 둘러쌓은 높은 담장을 궁장宮牆이라고 하며, 왕릉의 봉분 주변에 쌓은 반원형의 담장은 곡장曲牆이라고 한다. 안채와 바깥채 사이 또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 막아 쌓은 담을 셋담[間牆]이라 하며, 주택의 바깥대문에서 내실이 들여다보이는 것을 막기 위하여 쌓은 장식담을 차면담[遮面牆], 면장 또는 조장照牆이라 한다. 낮은 담은 단장短牆 또는 반담[半牆]이라고 한다.

이 외에도 담장 윗부분의 지붕 재료를 이엉이나 기와 등으로 다르게 사용할 수도 있으나, 이를 기준으로 담장을 구분하지는 않는다. 다만 『임원경제지』에서는 담장을 덮는 지붕의 길이는 담장 두께보다 1~2 척을 더 길게 하고 양 끝을 가지런하게 하며, 빗물이 아래로 흘러내리도록 지붕을 기울이거나 겹쳐지게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특징 및 의의 우리나라 담장은 건축주의 신분에 따라 재료와 축조방법이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다. 서민층 주택에서는 울타리·토담·돌담과 같은 자연 재료가 그대로 드러나는 담장을 축조하는 반면, 중상류층 주택이나 궁궐에서는 사고석담·벽돌담·화초담과 같이 가공된 자재가 사용되고 전문 인력이 참여하여 담장을 축조한다. 담의 높이도 서민주택에 비하여 상류주택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담의 지붕도 주거공간의 몸체가 초가지붕이면 초가지붕으로, 기와지붕이면 기와지붕으로 조성하는 현상은 담장 역시 주택의 일부로서 사용자의 사회적 위상을 표현함을 보여 준다.

서민주택의 담장은 집터의 경계에 안과 밖을 구별할 목적으로 쌓는 성격이 강한 반면, 상류 주택이나 궁궐에서는 외부에 대한 방어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담이 경사지에 건축될 때는 담의 윗면과 지붕이 경사면을 따라 나란히 축조되는 것이 아니라 단면을 만들며 축조되는 것이 특색으로 울동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내 주고 있다.

참고문헌 高麗史, 三國史記, 林園經濟志, 朝鮮王朝實錄, 빛깔있는 책들21-꽃담(조정현, 대원사, 1995), 한국건축대계2-벽돌(장기인, 보성각, 1997), 한국건축대계4-신편 한국건축사전(장기인, 보성각, 1998), 한국건축대계5-목조(장기인, 보성각, 2001), 한국의 살림집(신영훈, 열화당, 197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장필구(張弼求)

담 집

정의 벽을 담장처럼 두꺼운 흙으로 축조하고 벽 위에 목조지붕틀을 짜서 지붕을 덮은 집.

개관 담집은 두꺼운 벽을 흙으로 축조하고 지붕틀만을 뼈대로 결구하여 지붕의 하중을 벽체에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축조된 주거유형으로, 주요 구조를 벽체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나무를 활용한 목가구조는 최소한으로만 적용되었다. 이 때문에 담집은 지상주거

의 발전과정에서 시원적 성격을 갖는 모형적(母型的) 형태라고도 평가한다. 또한 담집은 건축 기술자의 실력이 특별히 가미되지 않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 흙 등을 사용하여 주거공간을 만드는 최소한의 경제적 시공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담집의 평면 형식은 대부분 세 칸 이하의 규모로서 생활형태에 따라 공간 이용의 변화는 보이지만, 차이점이 명확하게 부각되지는 않는다.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최소한의 주거공간으로서 심한 추위와 경제성을 고려한 결과라고 하겠다. 이런 배경에서 담집은 구조기법이나 평면구성이 원시 지상주거의 틀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근대까지 이어져 온 서민주거의 한 유형이라고 하겠다.

내용 담집은 두꺼운 벽을 흙으로 축조하고 위는 목조 지붕틀을 짜서 지붕을 덮은 집이다. 담집은 토담집, 토벽집, 토막집, 흙벽돌집이라고도 한다. 담집의 벽은 토담처럼 두껍게 쌓아서 지붕을 지탱하는 구조체 역할과 내외를 구분하는 벽체 역할을 함께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담집에서 흙으로 만든 토담벽의 두꺼운 두께는 단열이 잘 되는 장점이 있으나 구조적 성능이나 생산성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세 칸 이하의 소규모로 건립되었다. 또한 흙벽의 내구성 한계 때문에 집의 높이는 목가구조 또는 벽돌조와 비교하여 낮아질 수밖에 없다. 담집은 아름다움보다는 겨울을 지내기 위한 단열 성능을 기대함과 동시에 경제적 여건 때문에 목수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신과 주변의 노동력만으로 축조할 수 있는 집으로서 서민들 사이에서 많이 건립되었다.

토담집은 우선 집 지을 터를 미리 준비해 두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 터를 다지고 잡석과 흙으로 지표면보다 다소 높게 담부자리(줄기초)를 마련한 뒤, 집 터나 인근에서 습기가 채 마르지 않은 흙을 채취하여 담을 쌓아 만든다. 토담은 벽돌처럼 진흙을 일정한 크기로 빚고 말려서 쌓는 방식과 콘크리트처럼 거푸집을 짜고 그 속에 연속하여 진흙을 다져 넣어 판축으로 축조하는 방식이 있다. 거푸집으로 토담집을 만드는 경우에는 거푸집 공간에 이긴 흙과 돌을 넣으면서

절굿공이나 회반죽에 쓰는 다소 두꺼운 나무줄기로 최대한 다진다. 아랫도리가 바짝 마른 뒤에 거푸집을 분리시켜 위쪽에 다시 조립하고 흙과 돌을 넣어서 다지면 도톰한 토벽이 구성된다. 이때에 거푸집이 약하면 벽은 배가 부르기도 하고 울퉁불퉁해지기도 한다. 벽이 두꺼우면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며 옷풍이 없다. 담집의 흙담은 한 번에 두 척(약 60cm) 높이와 한 척(약 30cm) 폭을 만들 수 있었는데, 이것은 단순하면서도 작업효율이 높은 거푸집을 활용한 판축기법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진흙을 벽돌처럼 빚고 말려서 쌓은 토담으로 지은 집을 흙벽돌집이라고 한다. 흙벽돌은 날벽돌을 말하기도 하나 흙을 이기고 말려서 큰덩어리로 쓰는 방식을 뜻한다. 토피벽돌(土皮壁趺)은 잔디나 풀이 덮인 땅을 네모지게 벽돌처럼 그대로 떠낸 뒤 말려서 임시건물(가가)이나 담을 쌓는 데 쓰인다. 흙벽돌의 크기는 5치(약 15cm) 정방형 또는 5치×3치×8치(약 15cm×9cm×24cm) 정도로 만든다. 흙벽돌은 모두 진흙으로 쌓여 줄눈 두께는 5~10푼(1.5~3cm)으로 한다.

담집이라도 흙담만으로는 지붕틀을 설치하는 데에 지장이 있으므로 내부에 통나무기둥을 세우는 경우가 많다. 흙벽돌벽의 경우도 빗물에 약하여 내부에 기둥을 쓰는 예가 많았다. 기둥에 쓰이는 통나무로는 위쪽 끝이 새총과 같이 두 갈래로 된 아귀목이 있다. 이런 담집의 벽두께는 6~10치(약 18~30cm), 보통 8치(약 24cm) 정도로 만들고, 벽의 높이는 7자(약 210cm) 정도로 쌓는 것이 보통이다. 벽체 위에는 보와 약식 도리를 걸치고 보 위에 동자기둥을 세워 상량을 한다. 이 위에 서까래를 걸치고 산자를 엮은 후 이엉을 덮어 지붕을 만들면 담집이 완성된다.

완성된 담집의 흙벽이 완전 건조될 경우 상당한 압축 강도가 발휘되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땅을 직접 파서 기둥을 세울 경우에는 지면과 만나는 기둥 부분에 습기가 스며들기 때문에 기둥의 밑동을 불에 그슬어 사용한다. 또한 담집의 흙벽은 들이치는 빗물이나 물기에 약하기 때문에 처마를 깊게 내거나 처마 높이 자체를 낮게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또는 벽면에 수숫대나 갈대 등의 바자를 쳐서 토담이 젖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으나, 지면과 만나는 부분에서 물기를 흡수할 경우 붕괴 우려도 있다. 따라서 건물의 기단을 높이 꾸며서 지면은 항상 건조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고 주변 배수도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20세기 전반기 신문지상에서 담집이 사용된 용례를 살펴보면 이동이 잦은 유목민이 천막집을 사용하는 반면 정주생활을 하는 농경민은 토담집을 사용하는데, 재목이 귀한 곳에서 만들 수 있는 납작한 집으로 묘사되었다. 담집을 한 칸 규모 내에 부엌과 방을 함께 만들고 여러 가족이 사는 부족한 주택 유형으로 묘사하는 방식은 6·25전쟁 이후 1960년대까지도 신문 기사에서 판잣집과 함께 적지 않게 발견된다. 담집에 대한 인식 전환은 1990년대 후반부터 등장한다. 1980년대 수도권 신도시 개발로 주택이 다량으로 공급되고 올림픽 유치를 통해 문화적 역량이 강화되면서 주거공간의 양과 질을 함께 인식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자연의 일부인 흙을 건축에 사용할 경우 환경을 살리고 건축공간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인식이 나타났고, 돌담이나 담집이 전원의 특색이 되어 관광자원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또한 2000년대부터는 한옥건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면서 흙으로 만든 건축공간을 가치 있게 다루는 경향이 높아졌다. 현재에는 건강한 일상생활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든다는 목표 하에 흙벽, 토담집 등이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

특징 및 의미 담집은 서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공간으로 심한 추위와 경제적 시공을 고려하였으며, 사회공동체의 공통된 체험과 관심에 따라 축조되고 전수되었다. 담집의 재료와 구조는 대체로 기술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연재료와 소규모의 원초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원시주거의 초기 형태를 간직하고 있다. 토담집의 두꺼운 벽체는 외부 소음과 한기를 막으며 습도 조절을 돕는 방한, 방풍, 방습의 기능을 담당하는 친환경적 소재이자 건축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재료를 활용한 토담집과 흙벽은 현대 생활에서 불편할 수 있지만 전원적이고 친환경적인 건축 요소나 기법으로 현재에도 평가받고 있다.

참고문헌 林園經濟志, 충북지역 토담집의 조영특성(백성용,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한국건축대계2-벽돌(장기인, 보성각, 1997), 한국건축대계5-목조(장기인, 보성각, 2001), 한국건축사대계1-한옥과 그 역사(신영훈, 동산문화사, 1975).

필자 장필구(張弼求)

당호 堂號

정의 건물이나 공간에 의미를 담아 부여한 명칭.

내용 당호堂號는 건물이나 공간에 부여한 이름으로, 지역 명칭 또는 해당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의 생활신조를 반영하기 때문에 개인의 아호雅號와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당호에는 당堂, 현軒, 누樓, 재齋 등이 붙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건물이나 공간 유형에 따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당堂은 집 또는 제사를 지내는 공간을 의미하는 용어로, 집 전체 또는 제사를 지내는 대청이 있는 안채의 당호를 지을 때 붙여진다. 경상북도 안동 하회마을의 양진당養眞堂과 충효당忠孝堂이 각각 류운룡柳雲龍과 류성룡柳成龍의 집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현軒과 누樓는 주로 처마가 높거나 누마루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 또는 공간 명칭에 붙여지는 유형이다. 현은 추녀 또는 마루를 뜻하며, 누는 다락을 의미하는 한자이기 때문이다. 경복궁景福宮의 경회루慶會樓나 창덕궁昌德宮의 석복헌錫福軒이 이에 해당한다.

재齋는 남성들이 기거하는 사랑채의 방에 걸린 편액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명대에 간행된 『삼재도회三才圖會』에는 한漢나라 선宣황제가 삼가면서[齋] 일을 결정할 때 사용하던 공간이라는 뜻에서 생긴 명칭으로, 후대인들이 연못의 북쪽에 작은 집을 짓고 독서하는 곳으로 삼았기 때문에 독서재讀書齋라 부른 것에서 유래한 것이라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남성들의 생활 공간에는 ‘재’를 붙여 당호를 짓고 이를 아호雅號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

앞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전殿, 각閣, 합閣, 정亭 등



경북 안동 하회 충효당



경북 경주 양동 낙선당 고택

편역 | 국립민속박물관

이 있지만 이들은 주생활 공간보다 공공 목적의 건물 명칭을 만들 때 붙여지는 유형이다.

특징 및 의의 당호는 특정 건물이나 공간에 붙여지는 명칭이지만 당호를 통해서 건물의 용도나 공간구성, 공간을 사용하는 주인의 삶의 신조까지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던 조선시대에는 당호가 이름을 대신하기도 했다. 남성은 당堂, 현軒, 누樓, 재齋 등 모든 공간유형의 당호를 사용하지만, 여성의 경우 당堂 또는 재齋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참고문헌 三才圖會, 한국건축개념사전(한국건축개념사전기획위원회, 동년, 2013), 한국건축대계4-신편 한국건축사전(장기인, 보성각, 2005), 두산백과사전(doopedia.c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정정남(鄭貞男)

정의 앞뒤 기둥 위에 건 보 가운데 가장 큰 보.

개관 보는 앞뒤 기둥 또는 공포 위에 걸린 구조재이며, 기둥과 도리보다 큰 부재로서 도리가 모인 지붕의 하중을 기둥에 전달한다. 규모가 큰 건물은 하나의 보로 가구를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대량과 종량 등을 걸어 지붕 하중을 받도록 한다. 가구는 측면 주칸 거리가 커질수록 보와 도리의 수량이 증가하며, 대량·중량·종량 등을 걸어 상부 하중을 기둥으로 전달한다. 대량은 대들보, 중량은 중보, 종량은 종보라고 부른다. 대량은 다른 보보다 단면이 크고 길이도 길다.

내용 보는 측면 주칸 거리와 가구 구성 방식에 따라 보의 수가 다르다. 가구는 삼량가구, 평사량가구, 오량가구, 칠량가구 등으로 나뉜다. 삼량가구는 앞뒤 기둥에 보를 걸고 전후 보 머리와 용마루에 도리 세 개를 거는 방식이다. 오량가구는 기둥 중심열과 용마루 열, 기둥 중심과 용마루 사이 열에 도리를 거는 방식으로 도리 5개를 거는 방식이다. 대량과 종량을 짜 맞춤하는 방식이다. 평사량가구는 오량가구의 용마루 열 도리를 생략하고 앞뒤 중도리에 서까래를 수평으로 거는 방식이다. 대량과 종량이 도리와 짜 맞춤을 한다. 칠량가구는 규모가 큰 목조건물에서 볼 수 있는 예이다. 주심과 용마루의 도리 열 사이에 2열의 도리를 더 건 형식으로 총 일곱 개 도리를 거는 방식이다. 보통 대량, 중량, 종량의 세 보가 걸린다. 따라서 가구의 량 수가 늘어나면 측면 주칸 길이가 늘어나기 때문에 대들보도 자연스럽게 커지게 된다. 그러나 목재의 자료 한계로 대들보는 무한정 크게 계획될 수 없다.

삼량가구는 대부분 측면 주칸이 한 칸 또는 두 칸으로 규모가 작은 건물 또는 살림집의 문간채, 행랑채 등에서 볼 수 있다. 삼량가구의 대들보는 앞뒤 기둥에 걸구한 후 도리를 받으며, 대들보 등 위 중앙에 대공을 세워 중도리를 받는다. 대들보와 기둥은 민도리 방식으로 짜맞춤 하거나 익공 방식으로 짜 맞춤을 한다.

민도리 방식은 기둥 상부에서 보와 도리가 직접 결구하는 방식으로 보 밑에 직절한 보아지를 끼워 보 머리 부분을 받도록 한 예도 있다. 공포 위 대들보는 포부재 첨차와 장혀, 주두, 소로 등과 맞춤을 한다. 보는 측면 주칸 거리가 크면 클수록 보의 길이, 단면 크기, 수가 늘어난다. 커다란 보를 구하지 못할 경우 대들보는 단일 부재가 아닌 두 개의 보를 사용한다. 이때 보는 내부에 세운 고주에 짜 맞춤하여 가구를 구성한다. 대체로 대들보와 고주는 장부 맞춤을 한 후 산지 두 개를 박아 부재 간 결속력을 높인다.

특징 및 의의 살림집은 대부분 대청에 반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상부 가구재인 대들보, 도리, 서까래를 드러내고 있다. 대청은 죽은 자와 산 자가 만나기 위한 제사를 지내는 곳이면서 민속신앙의 대상인 성주신이 있는 곳이자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또한 대청은 온돌방으로 출입할 때 통과 공간으로, 우

리나라 전통가옥의 독특한 공간이다. 따라서 대청은 좌식보다 입식 중심의 공간이다. 집주인은 이사, 명절, 제사 때 첫 상을 가신인 성주신께 올린다. 성주신은 색 형겅이나 한지를 대들보 또는 대공, 종도리에 붙여 놓거나 걸쳐 놓는다. 이때 대들보를 성주보라 한다. 성주가 더러워지면 날을 받아 고사를 올리고 새것으로 바꾼다.

참고문헌 맞춤과 이음(정연상, 고려출판사, 2010), 한국건축대계5-목조(장기인, 보성문화사, 1988), 한국의 살림집(신영훈, 열화당, 1985).

필자 정연상(鄭淵相)

대목장 大木匠

정의 나무를 가공해서 건물을 만드는 장인.

내용 현재 대목장大木匠은 목재를 가공해서 건물의 뼈대를 만드는 장인을 말한다. 하지만 조선후기 문헌에서는 대목장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고, ‘목수木手’라는 용어가 대목장을 지칭하고 있다. 여말선초 상량문과 같은 문헌에 ‘대목大木’이 등장하는데 이는 목수들의 우두머리, 즉 ‘도편수’를 부르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조선 후기 문헌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며, ‘소목장小木匠’이라는 장인과 비교해서 대목장이라는 용어가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규모나 좌향 등 건축물의 계획은 궁궐이라면 어전 회의, 향교라면 각 지방관, 서원이라면 유림들이 맡아서 진행하였다. 장인의 지위가 높았던 고대에는 이 회의에 대목장도 참석해서 의견을 제시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 대목장이 건축 계획에 관여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회의에서 구체적인 건물의 규모와 형태가 결정되면 이때부터 대목장이 투입되었다.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목재의 수량 등 예산을 수립하고, 각 부재에 맞는 목재를 찾아다녔다. 궁궐 공사의 경우 합당한 목재를 찾아 전국의 산을 누비기도 하였다. 1804년(순조 4)에는 화재



삼량가구와 대들보 | 경북 안동 하회 하동 고택 | 정연상



대들보와 보아지 | 경북 안동 검암정사 | 정연상

로 소실된 인정전을 다시 짓는 공사가 있었다. 이때 ‘목수도편수’ 김재명金在明은 강원도 인제로 파견되어 직접 적합한 목재를 골라 벌목하는 일을 감독하였다. 1905년(광무 9)에는 경운궁慶運宮의 중화전中和殿을 다시 짓는 공사가 진행되었다. 중화전을 짓는 데 있어 추녀에 적합한 부재를 구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중화전에 적합한 추녀를 찾기 위해 편수 두 명이 동래 범어산성梵魚山城, 양주 설령, 광주 현릉, 인제, 춘천, 무안, 나주, 함평, 완도, 수원, 양주 당창리 치설령을 다녀온 내용이 기록에 있다. 추녀를 찾기 위해 거의 전국을 누비고 다닌 것을 알 수 있다. 최종적으로 중화전의 추녀는 파주 소령원昭寧園에서 구하였다.

대목장은 공사 현장에 도착한 목재를 가공해서 건물을 짓는다. 목재를 조립하는 방법에는 이음과 맞춤이라는 방법이 사용된다. 이음은 같은 방향으로 두 개의 목재를 붙이는 방법이며, 맞춤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부재를 교차시켜 조립하는 방법이다. 맞춤과 이음도 여러 방법이 있어서 목재가 조립되어 설치되는 지점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였다. 맞춤과 이음을 하려면 먼저 각 원목재의 따낼 자리에 밑그림을 그려야 하였다. 밑그림은 실에 먹을 묻힌 다음 실을 팽팽하게 놓고 튀겨 원목에 직선을 그리는 방법을 사용한다. 문헌에서는 이 실을 ‘정현면사正絃綿絲’라고 하였다. 이 일은 대목장들 중에서 도편수만 할 수 있는 일이었고, 이때 사용하는 먹통은 도편수의 상징과 같은 것으로 여겨졌다. 추녀와 선자서까래같이 흰 부재는 가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건물에 설치하였을 때 일관된 곡선을 만들어야만 한다. 모두 치밀한 계획하에 치목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무를 깎기 전에 미리 양판이라는 실시설계도를 그린다. 이 일도 대목장들 중에서 도편수가 담당하였다.

1857년에는 창덕궁昌德宮 인정전仁政殿의 중수공사가 있었다. 이 공사의 목수도편수는 원중명元重明, 부편수는 지복록池福祿과 정치홍鄭致弘이 맡았다. 여기에 더해 정현편수[正絃邊首] 두 명, 공포편수[工踏邊首] 두 명, 연목편수[椽木邊首] 두 명, 녹노편수[轆轤邊首] 두 명, 당가편수[唐家邊首] 한 명을 더 두었다. 공사 규모가 커지면서 각각의 공종工種에 따라 편수를 따로 두고 있으며,



강북전도



집경당도

대목장 | 서궐영건도감의궤 | 1832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이를 총괄하는 도편수가 지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맞춤과 이음을 위한 부재 치목이 완료되면 이것을 가지고 건물의 뼈대를 조립한다. 건물의 뼈대를 세우기 전에 초석을 놓는데, 이를 ‘정초定礎’라고 한다. 정초는 석수石手가 담당하는 일이다. 1839년(헌종 5) 화재로 소실된 옥산서원의 구인당을 중건하는 공사가 있었다. 이때 정초 과정에서 도편수가 실수를 범해 초석 간격을 잘못 맞추는 일이 발생하였다. 모든 초석을 파헤쳐 재설치하는 작업이 진행되었고, 도편수는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되었다. 초석 설치가 비록 석수

의 구역이지만 건물을 짓는 공사의 총괄은 대목장이 맡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목장이 건축물의 뼈대를 완성하면 다른 직종의 장인들이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공사를 마무리한다. 개장蓋匠은 지붕에 기와를 얹고, 이장泥匠은 흙을 가지고 벽체를 마감하며, 박배장朴排匠은 문틀에 창호를 설치하는 것으로 건축공사를 끝낸다.

특징 및 의의 조선 초기에는 선공감繕工監 등 각 기관에 소속되어 전문적으로 대목장 일을 하는 장인들이 많았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장인들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건물을 짓는 일도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평소에는 각 군문에 소속되어 군졸軍卒 일을 하다가 건축공사가 시작되면 대목장 일을 맡았다.

1677년(숙종 3) 『남별전중건청의궤南別殿重建廳儀軌』에는 훈련도감에 소속되어 있던 포수砲手 김명원金明元이 공포의 살미를 조각하기 위해 파견되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포수는 화약을 다뤄 총과 포를 쏘는 군졸이다. 건축 일을 담당할 도감의 원칙을 정한 도감사목都監事目에는 “각 아문과 궁가에 소속된 노비, 조예皂隸, 나장羅將, 포살수砲殺手를 공사에 동원한다.”고 정하였다. 이들은 매우 낮은 신분으로 공사 현장에서 잔심부름 정도나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이들 중에도 장인의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1862년(철종 13)에는 성주 사마소를 짓는 공사가 있었다. 공사는 정鄭 목수, 이李 목수를 포함한 네 명이 진행하였다. 그런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6월 1일에 목수들이 이종移種을 위해서 밖으로 나갔고 6월 23일에야 돌아왔다. 이종은 모내기를 말한다. 따라서 이들 목수는 평소 건축 일이 없을 때는 농사를 업으로 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성주 연계소 영건에 관한 연구(김찬영,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1-12, 대한건축학회, 2005), 옥산서원 구인당 중건에 관한 연구(이연노·주남철,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17-6, 대한건축학회, 2001), 이제 이 조선톱에도 녹이 슬었네(배희한 구술, 이상룡 편, 뿌리깊은나무, 1992), 조선후기 장인의 담당 공종에 관한 연구(이연노,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25-8, 대한건축학회, 2009).

필자 이연노(李演魯)

대문 大門

정의 집이나 일정한 구획이 있는 공간의 주가 되는 출입문.

내용 대문大門은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큰문이다. 실제 통용되는 의미는 일정한 구획이 있는 공간에서 주가 되는 출입문이다. 여기에서 일정한 구획이 있는 공간이란 집을 비롯하여 궁궐, 사찰, 성곽, 서원 등 인간 생활과 관련된 역할이 있는 모든 대지이다. 이 공간들은 각각의 용도에 따라 일정한 구획 혹은 경계를 형성한다. 대지 전체의 배치와 중심건물, 중심건물과 대문의 위치인 좌향을 중시하였다. 부귀와 안녕이 대문 좌향과 안채 혹은 중심건물과 관련이 있다고 여겼다.

사찰에서는 ‘일주문一柱門’, 살림집에서는 ‘사립문柴門’ 혹은 ‘평대문平大門’과 ‘숫을대문’, 서원과 사묘 등에서는 ‘홍살문’이 이에 해당한다. 대문의 형태에 따라 중층 누문과 단층의 문, 일각문과 사주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대문은 각 공간의 가장 바깥 경계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대문을 통해 해당 공간의 성격이 드러난다.

대문은 사용된 재료와 제작방식, 형태 등에 따라 명칭과 종류가 다양하다. 일반적인 살림집에는 가는 나무 내지는 나뭇가지를 엮어 만든 ‘사립문’이 많이 쓰였다. 사립문은 싸리울이나 바자울과 짝을 이룬다. 따라서 싸리울과 바자울에 사립문이나 바자문이 있는 형태가 많다. 흙담에 사립문을 두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사립문은 지붕이 없는 여닫이 형태의 문이다.

양반가 등 규모 있는 살림집에서는 집의 경계 가장 바깥에 행랑채를 두거나 기와를 이은 담장을 둔다. 이 담장이나 행랑채의 한 칸 정도가 되는 일부 구간에 대문을 둔다. 그중 ‘숫을대문’은 행랑채나 담장 지붕보다 높게 만든 대문이고, ‘평대문’은 행랑채나 담장 지붕 높이가 같게 만든 대문이다. ‘숫을삼문’은 문을 총 세 칸으로 설치하고, 가운데 칸은 양옆 칸보다 높게 한다. 궁궐, 관아, 서원, 향교, 사묘 등 다양한 곳



대문 | 충북 괴산 송병일 고택 | 서현강



솟을대문 | 충남 아산 외암 건재 고택 | 서현강



홍살문 | 서울 종로구 사직단 | 국립민속박물관



정낭 | 경기 용인 한국민속촌 | 국립민속박물관

에서 볼 수 있다. 당초 솟을대문은 벼슬아치가 타던 수레인 ‘초헌(輶軒)’을 타는 양반가와 이들이 드나드는 궁궐, 관아, 서원, 향교 등에서만 볼 수 있었다. 초헌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높게 만든 대문이 솟을대문이다. 문지방에는 바퀴가 지나갈 수 있는 홈이 있기도 하고 문지방을 아예 생략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솟을대문이 있는 가옥은 고위관료의 상징과 다름없었다. 평대문은 서민의 초가와 기와집부터 양반가까지 다양한 신분의 주택에서 널리 쓰였다. 행랑채나 담장의 지붕 높이와 거의 같은 높이로 나란하게 지은 대문이다. 솟을대문과 평대문 문짝은 안여닫이 형태가 대부분이다.

‘일주문’은 사찰의 대문이다. 두 개의 기둥을 양쪽에 두고 포작은 다포로 하며 기와지붕을 잇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일주문 정면에는 현판을 거는데, 현판에는 해당 사찰의 명칭과 이 사찰이 속한 종문을 기재한다. 일주문을 경계로 속세와 부처의 세계로 나뉜다.

‘홍살문’은 서원, 능, 묘, 원, 단 등에서 볼 수 있는 대문이다. 두 개의 기둥 위에 다수의 살대가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고, 지붕은 없다. 홍살문은 문 전체가 붉은색으로 칠이 되어 있다. 서원, 능, 묘, 원, 단 등 유교적으로 신성한 장소가 시작되는 경계에 있다. 일주문과 홍살문은 모두 문짝이 없는 형태이다. 일주문과 홍살문은 늘 열려 있는 상태이므로 공간의 경계에서 출입을 통제하거나 차폐하기 위한 용도라고 볼 수는 없다. 경계의 상징 즉 일정한 구역의 시작을 의미하는데, 신성하게 여긴 공간의 시작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조선시대 궁궐의 대문은 단층 형태도 있으나 중층의 ‘누문(樓門)’ 형태도 있다. 경복궁의 광화문, 창덕궁의 돈화문, 창경궁의 홍화문이 이와 같은 형태이다. 누문 하층은 대문으로서 출입의 기능을 하고, 상층은 방어와 감시 등을 위한 용도로 활용되었다. 궁궐의 대문은 모두 세 칸으로 만들어 ‘삼문(三門)’이라고도 한다. 궁궐의 대문 명칭은 각각의 궁궐에 맞는 고유명사로

명명한다. 한양도성漢陽都城의 대문인 성문城門은 하부에는 돌로 홍예를 쌓고 상부에 목조건물을 두는 문루 형태가 대부분이다. 궁궐의 누문과 같이 상층은 방어와 감시가 가능한 공간이고, 하층은 백성의 출입이 가능하다. 특히 성문 중에는 목재로 만든 판문에 철엽이라고 하는 철판을 빼곡하게 이어붙여 불화살 등을 막도록 하였다.

대문은 기둥 수에 따라 ‘일각문’과 ‘사주문’으로도 나눌 수 있다. 일각문은 기둥을 양쪽에 하나씩 두어 만든 문이고, 사주문은 네 개의 기둥을 사방으로 두어 만든 문이다. 일각문과 사주문 모두 지붕이 있고 건물 안으로 여는 안여닫이문이다. 일각문은 일각대문의 줄임 말이다. 담장 사이에 일각문을 두며, 지붕은 맞배지붕이 일반적이다. 드물게 팔작지붕과 우진각지붕인 경우도 있다. 사주문도 담장 사이에 둔다. 사주문四柱門은 기둥이 네 개이므로 사주이지만, 일각문一角門은 이주문二柱門이라고 하지 않았다. 하나의 각이 있는 즉 사각형 형태가 하나가 있는 문이라는 의미로 풀어 볼 수 있다.

제주도 살림집에서는 ‘정낭’이 대문이다. 정낭은 정주목(정주먹) 혹은 정주석이라고 하는 성인 무릎 높이에서 허리 높이 정도의 나무기둥 내지는 돌기둥들을 대문 자리에 나란히 둔다. 돌기둥에는 각각 세 개의 구멍을 뚫어 놓는다. 3개의 구멍에 장대를 가로질러 거주자의 상태를 알린다. 이 장대가 정낭인데, 세 개 모두 가로질러 있으면 주인이 멀리 외출한 것을 의미한다. 두 개는 조금 멀리, 한 개는 가까운 곳으로 외출하였다는 표시이다. 정낭이 모두 내려져 있으면 집에 사람이 있다는 뜻이다. 정낭은 마을 길에서 집 마당으로 이어지는 골목길인 올레 어귀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특징 및 의의 대문은 각 공간을 대표하는 구조물이면서 복합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가옥의 대문이 솟을대문이라는 것은 초현을 탈 정도의 고위관료가 거주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조선 말기에 사실상 신분제가 무의미해지면서 중인의 가옥에도 솟을대문을 짓기 시작하였다. 양반의 상징이었던 솟을대문을 중인의

가옥에도 두게 되니, 오히려 양반가에 있던 솟을대문을 평대문으로 고쳐 짓기도 하였다.

일주문과 홍살문을 제외한다면, 대문은 소유주가 필요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외부공간으로부터 차폐와 통제, 통과와 관문, 혹은 공유와 소통을 선택해서 운영할 수 있다. 대문은 내부공간의 성격을 상징하는 대표 건물이다.

참고문헌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김왕직, 동녘, 2007), 영건의궐(영건의궐연구회, 동녘, 2010), 한국건축개념사전(한국건축개념사전기획위원회, 동녘, 2013), 한국건축대계1-창호(장기인, 보성각, 2000), 한국건축대계4-신편 한국건축사전(장기인, 보성각, 1998), 한국의 문과 창호(주남철, 대원사, 2001), 한국의 민가(김홍식, 한길사, 199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stdict.korean.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grandculture.net).

필자 조현정(趙賢貞)

대문채

정의 대문간을 설치한 건물.

개관 대문채는 양반 주택이나 경제적 여유가 있는 농가 주택에서 집의 주 출입구인 대문간을 중심으로 하인들의 방인 문간방, 광 혹은 고방, 가축사육 공간인 소막 혹은 외양간 등으로 구성된 채이다. 전통사회에서 하인들은 집을 지키며 대문채에 거주하였다.

전통 한옥은 안채, 사랑채, 행랑채(안행랑채·바깥행랑채) 혹은 문간채(대문간채·중문간채), 사당, 별당 등 여러 채로 이루어졌다. 근대기 들어와 도시에 지어진 한옥은 그 가운데 본채와 대문채만 남아 짜임새 있게 결합된 모습을 보여 준다. 하인들이 쓰던 대문채의 방은 상업이나 공업 용도로 쓰거나 셋방으로 사용한다. 또한 전통 한옥에서는 대문채의 긴 정면을 보면서 진입하였으나 근대기에는 대문채의 박공 방향, 곧 측면으로 진입하는 집도 지어졌다.

내용 대문채 위치는 주택의 전체 배치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전통사회에서는 지관이 대문의 향과 위치를 정

하여 주면 그곳에 대문채를 배치하였다. 대문간을 통하여 집 안팎을 드나들면서 집 안에서 밖을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집 안팎의 시선과 동선 연결 방식은 대문채의 위치에 좌우된다. 개방적으로 구성되는 사랑채 전면에 대문채를 배치하여 주 진입 동선 상에서 안채를 가려 주고 사랑채에서는 대문간을 통하여 집 밖을 내다볼 수 있도록 한 경우가 많다. 도시에 지어진 집들에서는 가로에 면하여 대문채를 설치함으로써 밖의 시선을 차단,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수 있다. 가로에 면하여 대문채가 이어지는 형태는 한국 역사 도시의 독특한 풍경이다.

대문채를 길에 바짝 붙여서 배치하는 도시지역과 달리 농촌지역에서는 대문채 앞에 너른 바깥마당을 조성하여 작업 공간 혹은 마을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였다.

지역사례 전라남도 영광의 연안김씨 종택 대문채는 매우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다. 삼효문三孝門이라는 이름의 이 대문채는 중앙 한 칸을 2층으로 올린 다음 효자기를 걸고 효자각을 만들었다. 삼대(현 소유자의 14대·9대·8대조)에 걸쳐 효자가 나와 나라에서 세워준 2층 누각형의 정려문이다. 옆으로 대문 1칸을 두

어 평상시에 사용하고 삼효문은 집안의 중요한 의례가 있을 때만 연다.

경기도 안성 같은 상업 도시에서는 대문채가 방앗간, 대장간, 목공소 같은 시설이나 유기점·쌀가게 등 상업 혹은 공업 용도로 사용되었다. 대문채는 상업 가로와 주거 공간 사이에 놓여 바깥 면은 가로, 안쪽 면은 주거 공간에 각각 면한다. 여기서 전통주택이 평면상 주거와 비주거 용도를 나누어서 수용하는 복합 공간으로 변모한 모습을 볼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대문간이 설치되는 대문채는 진입 방향과 시선 처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공공 건축에서는 대문채와 본 건물을 나란히 놓아 본 건물의 정면으로 진입하는 것이 일반 형태이지만 일반주택에서는 안채, 사랑채 등의 위치를 고려하여 진입 방식과 시선 조절 방식을 정한 다음 대문채의 향 및 위치를 결정한다.

대문채의 모양은 대문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평대문을 설치한 대문채의 지붕은 하나의 높이를 갖는데 비해 솟을대문을 설치한 대문채는 대문간 부분이 한 층 높여진다. 조선시대 관료는 정正과 종從이 9품 계品階씩 총 18품계로 나뉘었다. 이 가운데 종2품 이



대문채 | 충남 부여 여흥민씨 고택 | 서현강

상의 관료는 초헌輶軒이라 일컫는 외바퀴 수레를 타고 대궐을 드나들었다. 이때 초헌을 탄 채로 대문을 드나들려면 대문의 지붕을 주변보다 한 층 더 높일 수밖에 없었다. 결국 솟을대문은 양반집을 말하여 주는 대문이 되었다. 그러나 점차 중2품 아래의 양반집에서도 솟을대문을 달게 되었고, 신분제가 유명무실해진 조선 후기에는 중인의 집에도 솟을대문을 달았다.

참고문헌 비원(주남철, 대원사, 1990),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김왕직, 동녘, 2007), 오래된 도시의 골목길을 걷다(한필원, 휴머니스트, 2012), 한국의 살림집(신영훈, 열화당, 1983), 한국의 전통마을을 찾아서(한필원, 휴머니스트, 2011).

필자 한필원(韓弼元)

대청

대청

대청 大廳

정의 대개 바닥에 마루널을 깔 큰 방.

개관 한국의 살림집은 한 칸의 부엌과 두 칸의 온돌방이 나란히 배열된 오막살이집에서 발전하여 왔다. 여기에 대청이 추가되어 부엌, 안방, 대청, 건넌방으로 이루어진 전면 네 칸 집이 격식을 갖춘 전통한옥 안채의 표준 규모라 할 수 있다. 대청은 온돌방과 달리 개방된 공간이었으나 근대기에 들어서면서 전면에 유리문을 달고 실내에 복도를 설치함으로써 대청은

사시사철 사용할 수 있는 독립된 실내공간으로 변모하였다. 근대 주거에서는 프라이버시 확보와 가족 공간 마련이 중요해짐에 따라 다른 공간과 연계하여 사용하던 대청을 독립된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 보편화된다. 대개 안채의 안대청은 가족 공동 공간인 거실, 사랑채의 사랑대청은 남자주인의 서재를 겸하는 응접실 성격을 각각 띠게 되었다.

내용 대청은 설치되는 채의 이름을 따서 안대청, 사랑대청 등으로 일컫는다. 경상북도 경주 양동마을에 있는 서백당의 본채에서 보듯이 안대청과 같은 폭의 아담한 안마당을 둘러싸는 ㄱ자형 구성은 가장 진화된 전통한옥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대청은 온돌방보다 크고 높은 개방된 공간으로, 여름철에는 가족생활의 중심이 안방에서 대청으로 옮겨진다. 대청 바닥에는 대개 우물마루를 깔며, 천장에는 반자를 설치하지 않아서 대들보와 서까래가 드러난다. 대청은 가능한 한 남향으로 배치한다. ㄱ자형 집에서는 대청이 있는 부분을 몸채로 보고 대청의 향을 채의 향으로 한다.

대청과 방 사이에는 분합문, 곧 들어열개문을 설치한다. 고급주택에서는 가운데 부분에 광창을 달고 위아래는 벽지를 발라 빛을 차단하는 독특한 분합문인 불발기분합문을 설치하기도 한다. 뒷면은 널빤지로 만든 판벽을 세우고 판문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대청 앞은 벽체를 세우지 않고 개방하거나 필요에 따라 완전히 개방할 수 있는 들어열개문을 설치한다. 또한 창방과 장여 사이에 소로를 끼워 장식하기도 한다. 대청 앞면을 개방하면 마당과 연계하여 손님 접대, 연회, 가족 식사, 가사 작업 등 여러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너른 공간이 형성된다.

대청은 본래 제사 등 의례를 행하는 장소이다. 대체로 사당에 있는 신위를 안채의 대청으로 모셔와 제사를 지내며, 신위는 대개 북쪽으로 모신다. 그밖에 대청은 식사, 휴식, 가사 작업 등 다양한 주생활 기능을 수용하면서 방으로 출입하는 통로 역할도 한다.

지역사례 중부지역의 민가는 대개 대청 앞쪽에 벽체를



대청 | 경북 예천권씨 초간 종택 | 서현강

두지 않거나 들어열개문을 설치하여서 대청 앞을 완전히 개방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남부지역에서는 대청 전면에 온돌방처럼 띠살문을 설치하기도 한다. 이런 집들은 전라남도 순천 낙안읍성에서 볼 수 있다.

제주 지역에서는 대청을 상방이라고 부른다. 제주 지역 살림채는 전면 세 칸을 기본 형태로 구성되며, 정지·상방·구들이 한 칸씩 차지한다. 육지의 주택과 다른 점은 정지에서 볼 때 상방, 곧 대청 건너편에 구들이 있다는 점이다. 육지의 한옥은 부엌에서 난방을 하기 때문에 부엌에 온돌방이 접해 있지만 제주 지역에서는 난방이 필요 없는 상방이 정지에 접하여 있다.

특징 및 의의 안대청은 안주인, 곧 시어머니가 사용하는 안방과 며느리가 사용하는 건넌방 사이에 놓인다. 사랑대청은 바깥주인, 곧 부친이 사용하는 큰사랑방과 아들이 사용하는 작은 사랑방 사이에 놓인다. 이렇게 대청이 서로 다른 세대가 사용하는 방들 사이에 놓여 두 방을 적절히 나누고 프라이버시를 확보해 줌으로써 삼대가 한 집에 살면서 겪게 되는 세대 간 갈등의 소지가 줄어든다.

대청과 방 사이에는 분합문을 설치하여 필요에 따라 분합문을 들어 걸어서 하나의 넓은 공간을 만든다. 또한 앞을 개방하면 마당과 연결하여 잔치, 제사 등 큰 규모의 공간을 필요로 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대청 중심으로 공간을 분리하고 통합하여서 다양한 활동을 융통성 있게 수용하는 것이 한국 전통주택의 큰 장점이다.

참고문헌 알기 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김왕직, 동녘, 2007), 오래된 도시의 골목길을 걷다(한필원, 휴머니스트, 2012), 집(전남일, 돌베개, 2015), 한국건축개념사전(한국건축개념사전 기획위원회, 동녘, 2013), 한국의 살림집(신영훈, 열화당, 1983), 한국의 전통마을을 찾아서(한필원, 휴머니스트, 2011).

필자 한필원(韓弼元)

대패

정의 쇠 날을 이용하여 목재 표면을 매끈하게 다듬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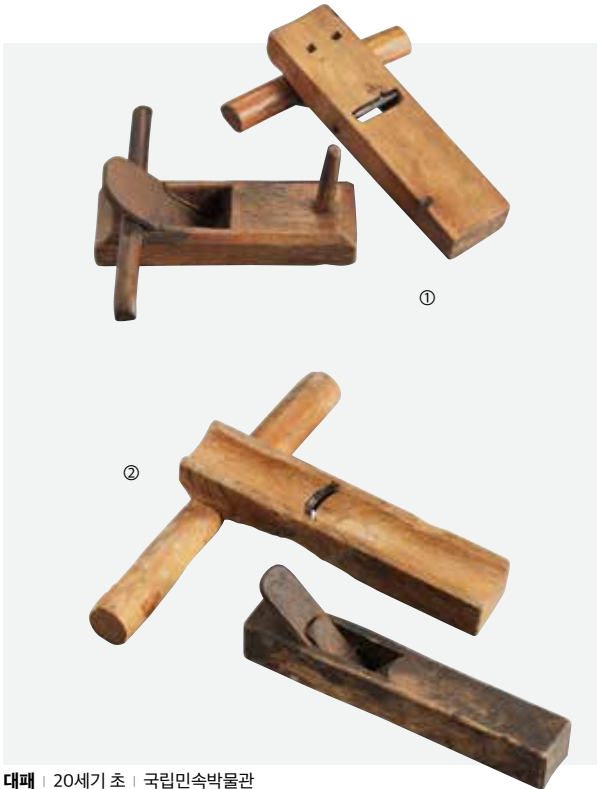
나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듬는 연장.

개관 대패[鉋]는 목재 면을 다듬을 때 사용하는 필수 연장이지만 다른 연장에 비하면 발전이 더디었다. 건축에서 모양을 내는 일, 즉 장식하는 행위는 건축기술이 완숙한 단계에 들어섰을 때 흔히 나타난다. 대패는 이러한 건축 발전 과정에서 구조보다는 장식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연장으로 변천되어 왔다.

내용 대패는 목재의 표면을 다듬기도 하면서 다양한 장식 효과를 나타내는 연장이다. 건축에서 장식하는 행위는 건축기술이 완숙한 단계에 들어갔을 때 흔히 나타난다. 선사시대의 대패는 날카로운 날로 표면을 긁거나 깎는 단순한 모양이었다. 철기시대에 접어들면서 날카로운 칼에 긴 자루를 달아 표면을 깎아 내는 것이 좀 더 발전된 대패였다. 이 대패를 자루대패라 한다. 자루대패는 옆으로 자루를 잡고 밀거나 당겨서 사용한다. 자루대패로 목재 면을 고르기 위해서는 기술이 숙달되어야 한다.

네모난 대패집 속에 날을 끼워서 사용하는 틀대패는 17세기에 들어와 본격 개발된 것으로 보인다. 18세기 화가 단원 김홍도가 그린 <죽와[蓆瓦](기와이기)>에 틀대패를 사용하는 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때는 대패가 상당히 발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틀대패에는 우선 나무로 만든 육면체 장방형 대패집 가운데에 ‘V’자 모양으로 파진 홈이 있다. ‘V’자 홈의 뒤쪽에 쇠날을 경사지게 끼우고 날이 움직이지 않도록 쐈기를 박아 둔다. 대패 뒤쪽에는 대패손잡이를 날과 같은 방향으로 가로질러 끼워 둔다. 이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앞으로 밀어서 사용한다. 간혹 앞쪽 대패 등 쪽에 한손으로 잡을 수 있는 촉을 박아 두기도 한다. 이것을 ‘끝손’ 또는 ‘당길손’이라 한다. 대패는 뒤쪽의 손잡이를 잡고 앞으로 밀어서 사용한다. 그래서 대패는 옛날에 ‘밀이’라고 하였다. 다른 말로는 목재 면을 긁어내는 기능을 표현하여 ‘글개’라고 하였다.

대패를 사용할 때는 대패손을 양손으로 잡고 누르면서 앞으로 민다. 이때 누르는 힘과 미는 힘이 동시



대패 | 20세기 초 | 국립민속박물관

① 대패 | 길이18~21 너비6~7 ② 굴림대패 | 길이21 너비3~5



대패질 | 1991 | 국립민속박물관

에 작용하여 목재 표면이 깎이면서 대패밥이 위로 올라오게 된다. 깎이는 대패밥의 두께에 따라 목재 면이 곱거나 거칠게 되기도 한다. 고운 표면을 얻기 위해서는 날을 조금만 내밀고, 깎아낼 표면이 많을 때는 날을 많이 내어 사용한다. 날을 많이 내밀면 면이 거

칠게 된다. 목재 면을 마름질하는 정도精度에 따라 대패 종류가 다양해졌다. 막대패, 초련대패, 재대패, 잔대패 등은 마름질 시기와 정도를 구분하는 대패 종류이다. 대패의 밑바닥은 마름질의 중요한 부분이어서 흠집이 나지 않도록 잘 다루어야 한다. 대패는 마름질 시기에 따라 거친 면을 처음 다듬을 때 쓰는 막대패(초련대패)가 있고, 조금 곱게 다듬을 때 쓰는 재대패(중대패)가 있다. 아주 곱게 다듬기 위해서는 잔대패(마무리대패)를 쓴다. 잔대패는 주로 가구를 짜는 소목장소목장이 많이 사용하였다.

조선 후기가 되면 대패의 종류와 기능이 다양해진다. 모양을 내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 여러 가지 대패가 나타나게 되었다. 기둥면과 모서리, 창호 틀, 창살 등에도 여러 가지 문양을 만들게 되면서 이러한 장식 문양에 맞추어 대패바닥 모양이 다양해졌다. 사밀이는 기둥면 중심 부분에 파도 모양의 곡선을 넣음으로써 장식 효과를 내는 데 사용한다. 이뿐만 아니라 창호 틀에 장식 선을 넣을 때도 사용한다. 모끼대패는 기둥 모서리에 곡선과 같은 장식 문양을 넣을 때 사용한다. 흔히 “모서리를 죽인다.”라고 말하는데 모서리의 장식 문양에 따라 쌍사모, 실모, 큰모, 등근모, 계눈모, 평골모 등이 있다. 살밀이는 창살에 문양을 넣기 위하여 민다고 하여 살밀이대패라고 한다. 살의 문양에 따라 골밀이, 배밀이, 등밀이, 퇴밀이 등이 있다. 이밖에 대패는 모양과 기능에 따라 평대패, 장대패, 짧은대패, 곧날대패, 실대패, 개탕, 변탕, 뒤쥌대패, 등근대패, 배꼽대패 등이 있다.

특징 및 의의 대패는 늦게 발달한 연장이지만 종류와 모양이 다양하다. 전통적인 대패는 밀어서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건축기술이 발달하면서 장식 효과를 나타내려는 의도가 여러 다양한 대패를 만들어 내는 배경이 되었다. 다른 연장에 비하여 대패는 인간 사회 발전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으면서 변천된 특징이 있다.

참고문헌 연장과 치목(이왕기, 건축167-4, 대한건축학회, 1992), 한국의 건축 도구(이왕기, 건축장인의 꿈과 꿈, 국립민속박물관, 1999), 한국의 건축연장 연구1·2(이왕기, 목원대학교논문집7·8, 목원대학교, 1984·1985).

필자 이왕기(李王基)

더부살이

정의 남의 가정집 또는 영업집에서 먹고 자면서 품을 팔거나 방세를 지불하지 않고 얹혀사는 사람 또는 그런 형태.

내용 더부살이란 상점에서 심부름을 하는 일꾼, 농가에서 농사를 짓는 머슴, 일반 가정에서 살림을 돕는 식모, 아이를 돌봐 주는 애보개 등과 같이 주인집이나 가게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그 집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면서 품삯을 받는 행위 또는 그러한 일을 하는 노동자를 가리킨다. 또한 노동력 제공과는 상관없이 남의 집에 세를 든 것도 아니면서 얹혀사는 일이나 그렇게 사는 사람을 더부살이라고 한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신분제도가 철폐되면서 머슴살이는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반면 도시 지역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며 더부살이하는 형태가 급증하였다. 많은 노동력을 거느리던 농경사회의 관념이 잔존해 있는 데다 한반도로 이주하여 온 일본인 역시 여러 명의 가사사용인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영향을 받은 조선인 부유층도 여러 형태의 더부살이를 거느리고 있었다.

도시한옥에서는 일자리를 찾아 농촌에서 올라온 일가족이 행랑에 기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행랑식구라 하였다. 행랑식구의 부인은 집안일을 해 주는 대가로 주인집으로부터 월급을 받았고, 남편은 인력거꾼 등으로 하루하루 벌며 생계를 유지하였다. 또한 주인집에서 함께 거주하며 아이를 돌보고 집안의 소소한 가사를 챙기는, 과거 여성의 몸종과 같은 역할을 하는 젊은 여자도 있었는데 이를 안잠자기라 하였다. 서생은 가정교사와 유사한 존재로, 도시에 있는 학교(중등학교 이상)에 다니며 하숙이나 기숙사 생활 대신 부유층과 고위 관료의 집에서 더부살이하면서 바깥주인의 잔심부름이나 내방객의 응접 보조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다. 서생은 바깥주인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 주인의 후원을 받아 사회적으로 성공하기도 하였지만,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주생활에서 서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았다.

이러한 더부살이는 광복 이후에도 잔존하였다. 최후까지 남아 있던 더부살이의 형태는 ‘식모’였다. 1960년대부터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농촌 출신의 10대 중·후반 여성들이 상경하여 취직할 수 있는 일자리 가운데 하나가 식모였다. 그리하여 1960년대 후반의 주생활에 맞춰 설계된 중대형 아파트인 서울 동부이촌동·여의도 아파트단지 등에는 부엌 옆에 ‘식모방’ 또는 ‘가정부방’이라 불리는 작은 방이 설계 때부터 반영되어 있었을 정도였다. 식모는 1970년대부터 폐지론이 대두되었다. 저임금 노동착취일 뿐만 아니라 도시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농촌 출신 10대 소녀를 실수한다는 이유로 확대하는 사례가 종종 벌어졌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중산층 출신 여성들에게 가정주부로서 가사를 돌볼 책임과 남성의 생계 부양 의무를 강조함으로써 근대식 모성과 가족 구성원의 역할을 구체화시켰다. 이뿐 아니라 임금 상승으로 식모를 구하기 어려워진 1970년대 초·중반부터 중산층 가정에 전기밥솥, 전기냉장고, 전기포트 등 가전제품이 보급되어 주부의 가사노동을 보조하게 된 점도 식모가 사라지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1980년대에 이르면 숙식을 함께하는 ‘식모’는 점차 사라지면서, 정기 또는 부정기 출퇴근을 하면서 가사를 보조하는 ‘파출부’가 이를 대신하였다. 여기에는 취사 방식 및 난방 연료의 변화와 아파트 거주 등 주거 환경의 변화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특히 도시가스와 중앙난방식 보일러가 도입되면서 새벽에 연탄을 갈기 위하여 일어나지 않아도 되었으므로 식모가 필요하지 않았다. 또한 아파트는 열쇠 하나로 도둑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상주하는 식모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특징 및 의의 더부살이는 한국의 주택 공간 구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머슴과 찬모 등이 많던 전통한옥에는 행랑채가 반드시 필요하였고, 1970년대에 설계된 아파트에도 식모를 위한 결방이 부엌 옆에 배치되는 형태로 더부살이가 주거 양식에 잔존하였다. 그러나 가사노동을 돕는 가전제품이 보편화되고 취사·난방 방식이 변화하면서 더부살이는 사라지게 되었다.

참고문헌 근대화 시기 주변부 여성노동에 대한 담론(김원, 아시아여성연구43-1,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04), 일제하 가사사용인의 등장과 그 존재 양상(이아리, 한국사론60,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2014), 한국 주거의 미시사(양세화·전남일·홍형욱, 돌베개, 2009), 한국인 무엇을 먹고 살았나(김혜숙·양미경·주영하,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7), 한국인 어떤 집에서 살았나(김혜숙 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7).

필자 이대화(李大和)

도리

도리

정의 서까래에 실린 지붕의 하중을 받아 보에 전달하는 목조 구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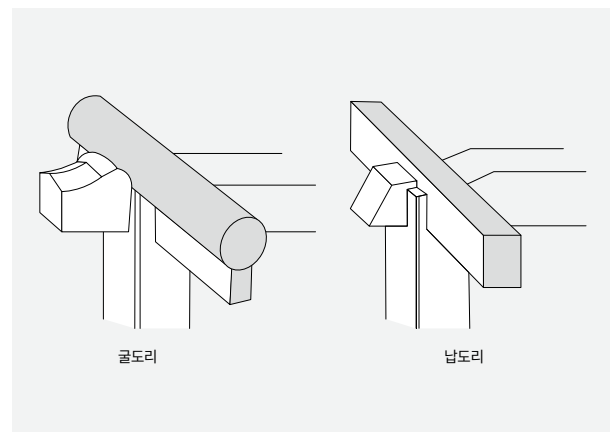
개관 우리나라 전통 목조 건물의 기본은 기단, 몸체, 포작, 가구, 지붕 등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부분에는 건물의 규모, 기능, 성격 일부가 생략되어 있다. 목조건물의 골격을 구성하는 부재는 몸체 부분의 기둥부터 포작 부분의 공포 부재, 가구 부분의 보와 도리, 지붕 부분의 서까래와 추녀까지 다양하다. 목조 건축물 시공은 기둥을 세우고 기둥 위에 보를 조립한 후 보 머리 부분에 도리를 걸며, 또한 용마루 열 보위에 대공을 세우고 마루도리 또는 종도리를 건다. 도리를 걸면 건물 골격은 완성된다. 이후 목조 건축은 지붕 구조재인 서까래와 추녀 등을 도리에 고정시킨다. 따라서 도리는 지붕 면을 따라 경사지게 놓인 서까래와 추녀의 하중을 받는 부재로써 서까래 아래에 가로로 놓여 여러 개의 서까래 하중을 모아 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내용 도리는 단면 형태와 위치에 따라 부르는 명칭이 다르다. 도리는 단면 형태에 따라 크게 납도리와 굴도리로 나뉜다. 납도리는 단면 형태가 대개 사각형이며 서민들의 살림집이나 다소 격이 낮은 건물에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도리는 서민들의 민도리집에서 볼 수 있다. 굴도리는 도리 형태가 원형으로 사대부 양반의 민도리집에서도 볼 수 있다. 원형의 도리는 사각형의 도리보다 목재 마름질할 때 더 많은 공력이 든다. 또한

“둥근 원은 하늘이며 양으로 남성을 뜻하고, 네모진 사각형은 땅이며 음으로 여성을 뜻한다.”하여 건물 사용자의 성에 따라 이를 따른 예도 있다고 한다.

도리는 위치와 규모에 따라 주심도리, 종도리, 종도리 등으로 나뉜다. 측면 주칸 거리가 크게 날수록 도리 수가 늘어난다. 또한 전통가옥의 지붕은 용마루를 중심으로 ㅈ자형을 한다. 이 때문에 주심도리와 종도리가 반드시 존재한다. 단 평사량가구는 종도리 대신 종도리와 주심도리가 가구를 구성한다. 주심도리는 처마도리라고도 한다. 건물 외곽 기둥 위에서 보와 보를 연결한다. 종도리는 마루도리라고 한다. 보 중앙의 용마루와 같은 열에 있는 대공과 대공을 연결한다. 종도리는 주심도리와 종도리 사이에 있는 도리를 말한다. 대부분 동자주나 고주 위에 있는 보와 보를 연결한다.

삼량가구 건물은 주심도리와 종도리가 서까래의 하중을 받으며, 오량가구 건물은 주심도리·종도리·종도리가 서까래의 하중을 받는다. 칠량가구는 주심도리·중하도리·중상도리·종도리, 구량가구는 주심도리·중하도리·종도리·중상도리·종도리로 각각 구분된다. 기둥 상부에 포작을 꾸민 건물의 도리는 포작 위 도리의 위치에 따라 외목도리·주심도리·내목도리로 나뉜다. 주심도리는 기둥 중심 열에 있는 좌우 포작, 외목도리는 주심 밖 외출목 위에서 좌우 포작, 내목도리는 주심 안쪽 내출목 위에서 좌우 포작을 각각 연결한다. 이들 도리는 대부분 보 위에서 나비장이음으로 연결된다. 철물로 보강한 예도 있다. 도리와 도



도리 형태별 종류 | 한옥 설계의 원리와 실무 | 국토교통부

도배 塗槽



오랑가구의 종도리·중도리·주심도리 | 경북 안동 하회 충효당 | 정연상

리의 나비장이음은 나비 모양으로 만든 보강재를 도리 양 마구리의 윗면에 끼워 결속시킨다. 추녀 밑의 도리는 반턱맞춤 또는 왕찌맞춤으로 짜여 있다.

특징 및 의의 전통 목조 건축물은 종도리를 조립할 시점이 되면 뼈대가 완성되어 건물 규모를 확인할 수 있어 건축주와 장인 대부분은 종도리를 걸면서 상량식을 거행한다. 종도리는 좌우 보위 대공을 연결하는 도리이다. 종도리는 연결하기 전에 먼저 장혀라는 각재를 먼저 건 후 그 위에다 건다. 이때 중앙 칸의 종도리 밑 장혀는 상량대가 된다. 상량대 명문은 집안에서 글씨 잘 쓰는 사람이 상량대 밑 부분에다 먹으로 건물의 입주 및 상량 시점과 건축주의 출생연도, 축원 등을 기록한다. 이외에 상량 측면에다 쓰기도 한다. 상량문은 별도의 종이나 천에 건물의 연혁, 공사 경위 및 내역, 일부 참여자 등을 기록한 후 상량대 윗면에 흙을 파고 넣은 다음 종도리를 조립하여 밀봉한다. 따라서 상량문은 건물의 도리 이상을 해체하지 않으면 볼 수 없게 된다. 상량대 또는 상량문에 공사 내역 및 참여자 등을 기록하지 못하는 사찰의 경우, 특히 시주자와 장인 이름을 종도리 또는 중도리의 밑 부분이나 측면에 기록한다. 이외에도 도리에는 다양한 목서가 있어 많은 것을 전한다.

참고문헌 맞춤과 이음(정연상, 고려출판사, 2010), 한국건축대계5-목조(장기인, 보성문화사, 1988), 한국의 살림집(신영훈, 열화당, 1985).

필자 정연상(鄭淵相)

정의 건물의 벽, 바닥, 천장 등을 종이나 천으로 발라서 건축 행위를 마무리하는 일.

내용 도배塗槽는 건물 짓기를 끝내고 바닥, 벽, 천장에 종이나 천으로 바르는 작업이다. 청결하고 분위기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현대 건축물은 도배 전 마감에 시멘트나 합판으로 이루어지지만 전통 건축물은 흙으로 마감되기 때문에 청결한 내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도배를 해야 하였다. 전통 도배 방식은 흙벽 위에 바로 종이를 발라서 도배의 밑바탕을 마련하는 초배初槽, 초배 후에 초배지보다 지급이 높고 두꺼운 종이를 사용하여 바르는 재배再槽, 마지막으로 외부에 보이는 부분을 깨끗하게 마무리하거나 공간 분위기와 격식을 만드는 정배正槽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정배 과정은 무늬나 색이 있는 종이를 이용하기 때문에 대체로 가격이 높은 공간에서만 이루어졌다.

도배는 벽뿐만 아니라 바닥과 천장에도 한다. 바닥의 경우 도배가 끝난 후 콩가루와 들기름을 섞어 문질러 그 활용도를 높이고, 천장은 무늬가 있는 반자지斑子紙로 도배한 후 괴화槐花에 명유明油를 섞고 황색 칠로 마무리하였다. 창과 문에 바르는 도배지는 특별히 연창지烟窓紙라 하며, 내부를 밝게 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한쪽 면에만 바르고 어둡게 하고 싶을 때는 양쪽 면에 두꺼운 종이를 발라서 마감하였다.

전통건축에서 도배는 나무와 흙벽 사이의 빈틈을 막아 외부의 찬 공기가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한 목적도 있다. 이 때문에 도배가 끝난 방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기둥이나 문틀 등을 노출시키지 않고 벽에 이어 도배지로 바른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현대 건축의 도배와 구분되는 전통건축 도배의 독특한 특징이다.

조선시대 관영공사의 전말을 기록한 『영건의궐營建儀軌』를 살펴보면 도배는 생활공간뿐만 아니라 정부와 공식 의례가 행하여지는 공간에도 이루어졌음



도배 | 서울 중구 덕수궁 함녕전 | 1996 | 정정남



농화판 | 가로44 세로23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을 알 수 있다. 공공 공간의 도배에는 일반 생활공간과 달리 무늬가 있거나 염색된 도배지를 특별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영건의궐』에 기록된 도배지는 크게 백지류白紙類, 주지류注紙類, 유지류油紙類, 각장류各張類, 장지류壯紙類, 狀紙類, 농화지류菱花紙類, 염색지류染色紙類, 휴지류休紙類, 낙폭지류落幅紙類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닥나무 껍질을 재료로 하여 얇게 만든 백지류는 주로 초배지로 사용하였다. 주지류는 닥나무를 재료로 하여 만든 품질 좋은 종이로, 격식 높은 공간에 재배지로 사용하였다. 또 초배만 하는 경우 초배지로 썼다. 유지류는 들기름을 먹인 종이로, 방수 기능이 있어 방바닥의 정배지로 이용하였다. 바닥 도배지로는 닥나무를 재료로 하여 두껍게 제작한 각장류와 장지류도 사용하였다. 공간의 품위와 격식을 표현하기 위한 정배는 주지에 색을 입혀 만든 염색지나 운모가루로 마름모 모양인 농화문을 찍어 만든 농화지를 사용하였다. 이외에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휴지나 낙방한 과거시험 답안지인 낙폭지 등도 초배지나 가구의 안쪽을 바르는데 썼다. 격이 낮은 공간은 초배만

으로 도배를 끝내는데 짚과 귀리를 원료로 한 마분지馬糞紙와 고정지稿精紙를 사용하였다.

조선시대 도배는 후대로 갈수록 염색지와 무늬지를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만큼 종이를 만드는 기술이 발달하였기 때문이다. 근대기가 되면서 공업화를 통한 종이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직조 기술도 발달하면서 도배에 종이뿐만 아니라 천도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시멘트나 합판으로 마감된 근·현대 건축물의 벽에 천으로 도배하기 위하여서는 밑바탕에 종이 대신 부직포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초배 재료도 변화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특징 및 의의 도배는 건축과 기술 변화에 따라 재료, 기법이 변경되었지만 내부 공간의 위생과 장식을 위하여 시행하는 중요한 건축 공정 가운데 하나이다. 도배로 내부 공간의 격식을 갖춘다면 건물 규모가 작고 허름하여도 주생활에서 위생과 품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외관이 획일화된 아파트에 생활하는 현대인들은 도배를 통하여 고급 실내 건축 문화를 구현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참고문헌 영건의궐-의궤에 기록된 조선시대 건축(영건의궤연구회, 동년, 2010), 한국건축개념사전(한국건축개념사전기획위원회, 동년, 2013), 한국건축대계4-신편 한국건축사전(장기인, 보성각, 2005), 화성성역의궤 건축용어집(영건의궤연구회, 경기문화재단, 2007), 두산백과사전(doopedia.c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정정남(鄭貞男)

도시한옥

都市韓屋

정의 우리의 전통주거인 한옥이 근대화·도시화 과정에서 도시지역에 건축되면서 형성된 근대도시 주거 유형.

내용 도시한옥都市韓屋은 우리의 전통주거인 한옥이 근대화·도시화 과정에서 도시지역에 건축되면서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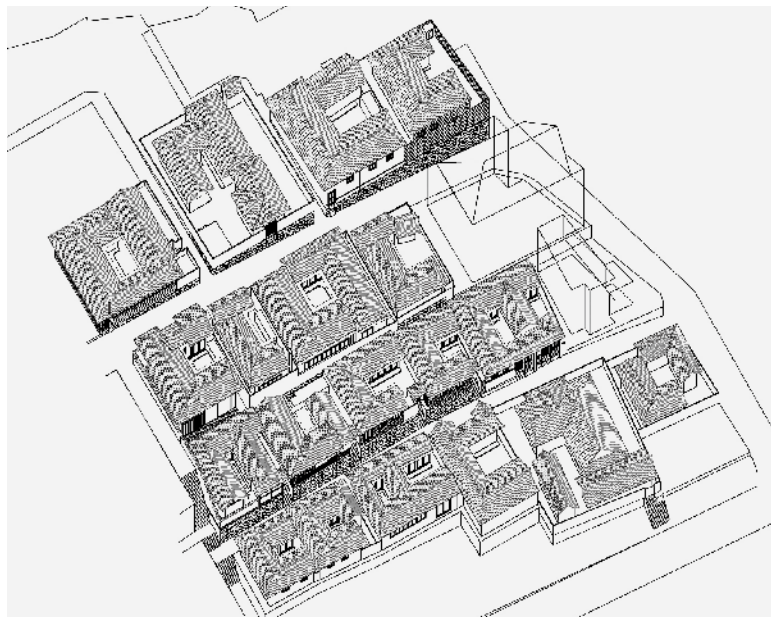
된 주거 유형이다. 도시한옥은 1930년부터 1960년까지 도시 주거지에 집중 건설되었다. 전통의 주거 관습을 바탕으로 건축되던 한옥이 근대화된 도시 환경에 적응하며 도시한옥이라는 새로운 건축 유형이 생겨났다.

도시한옥은 전통한옥 유형이 근대 필지 체계 위에 건축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주택 유형이다. 형태, 재료, 구축 방식에서 언뜻 보기에 전통한옥 유형과 유사해 보이지만 규칙성을 보이는 작은 필지에서 가운데에 안마당을 두고 문간채를 길에 면하게 배치하여 골목길을 만드는 방식은 옛 한옥 주거지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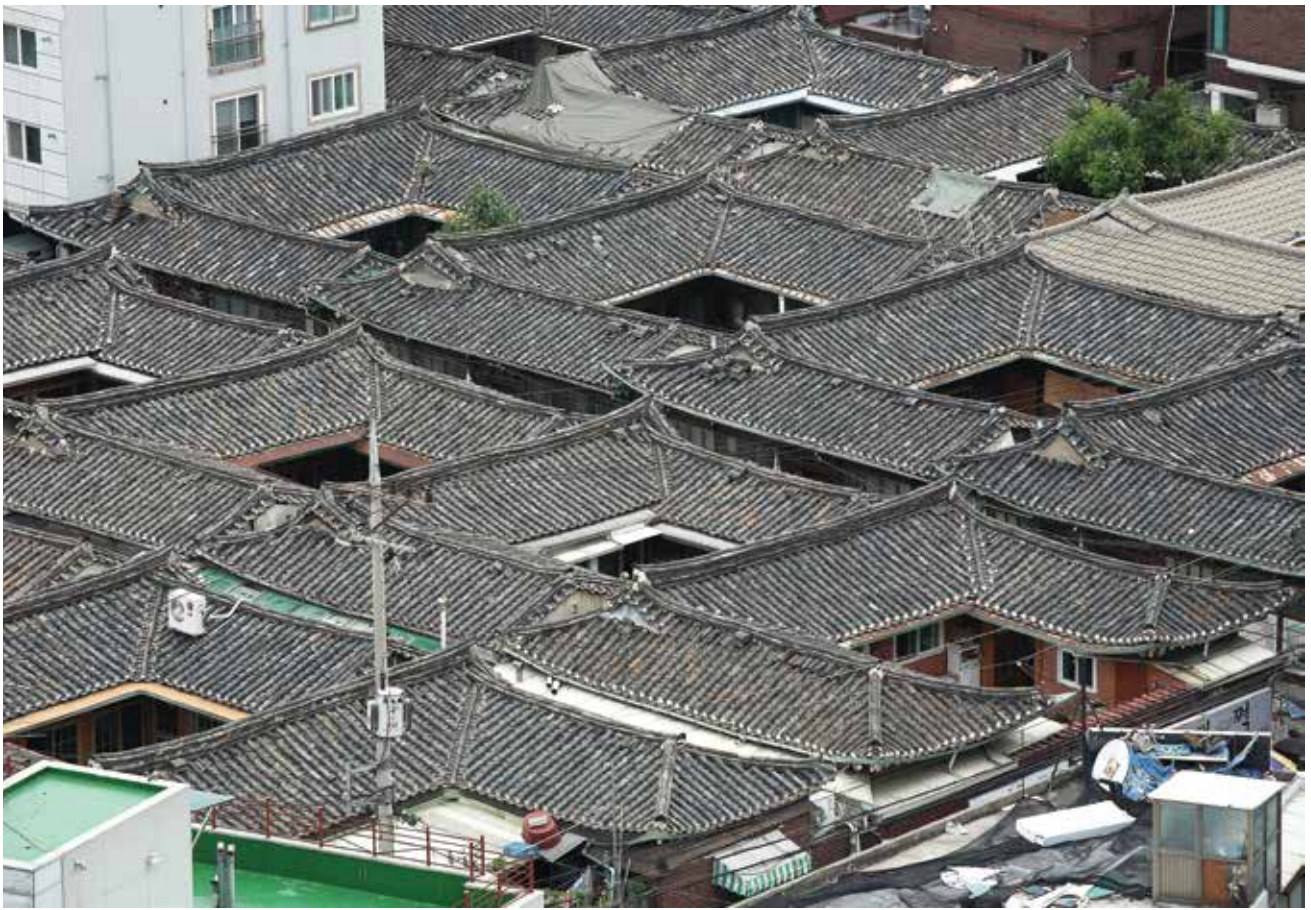
도시한옥은 지역별로 도시 조직과의 관계 속에서 변형되며 발전해 왔다. 서울·경기도·전라도·경상도 등 지역마다 도시한옥의 구축 방식, 평면과 입면 구성, 부재의 치수 등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도시한옥은 농촌, 어촌, 산촌 등 도시 이외 지역에 지어진 한옥과 달리 밀도가 높은 도시지역에 건축된 한옥 유형이다. 전통한식 목구조와 기와·흙 등 자연재료를 사용하고 있지만 산업화 및 도시화, 생활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단·입면·지붕·처마·대청·부재 등에서 변형과 조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1930년대를 전후로 새로운 도시구조 및 도시환경이 조성되면서 필지 형태와 규모에 따라 ㄷ자, ㄱ자 형태의 도시한옥이 건축되었다. 도시한옥은 대개 경기형 민가에서 나타나는 ‘옷방꺾음집’을 기반으로 하여서 안채와 문간채로 구성된다. 안채는 一자형이 아니라 ㄱ자형이다. 기본평면의 구성은 옷방(안방)+대청+건넌방의 一자에 옷방(안방)아래로 부엌이 결합되면서 ㄱ자를 형성한다. 문간채는 가로(도로)에 면해 놓이면서 안채를 도로와 분리시켜 사적공간으로 보호한다. 안채와 문간채가 배치되면서 가운데에 마당이 형성된다. 도시한옥은 대부분 개별 건축주의 요구에 의하여 건축되기보다는 판매(또는 분양)를 목적으로 당시 소위 집 장수로 불리던 건설업자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였다. 따라서 범용 공간 구성이나 구축 방식이 적용되었다.

도시한옥 주거지는 현재 서울 및 지방의 여러 도

시에 남아 있어 도시한옥 밀집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지방도시의 도시한옥 대표 주거지는 전라북도 전주 교동 일대이다. 서울의 경우 도시한옥 주거지는 그 위치에 따라 도심부 도시한옥 주거지와 도심주변부 도시한옥 주거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조성 과정에서 차이를 보인다. 서울의 도심부는 한양도성을 기준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도성 내 지역과 도성 외 지역의 주거지 조성 방식이 다르다. 도심부의 도시한옥 주거지는 1920년대 말까지 권문세도가의 집터, 관아 또는 남겨져 있던 구릉지나 녹지 지역의 대형 필지를 주택건설업자가 매입한 후 소규모 필지로 분할하고 그 필지에 도시한옥을 집단적으로 건설하여 조성되었다. 반면 도심주변부의 도시한옥 주거지는 한양도성의 경계로부터 1936년 경성부의 영역 사이에 조성된 도시한옥 주거지이다. 1934년 <조선시가계획령>이 제정된 이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도심의 주변부에 주거지가 조성되었다. 이때 새롭게 조성된 지역이 돈암지구, 영등포지구, 대현지구, 한남지구, 용두지구, 사근지구, 반대지구, 청량리지구, 신당지구, 공덕지구였다. 도심부와 도심주변부의 도시한옥은 여러 측면에서 서로 구별된다. 평면과 입면 구성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가장 큰 차이는 필지 및 채의 규모, 진입 방식, 입면의 구성 및 표층이다.



도시한옥 주거지 | 김영수



도시한옥 | 서울 성북구 | 2010 | 국립민속박물관

특징 및 의의 도시한옥은 전통한옥과 마찬가지로 주요 구조부가 목조이며, 지붕에 기와를 얹은 건축물이다. 물론 지붕에 전통 기와가 아닌 다른 형태 및 재료가 사용된 경우도 있지만 일반 형태는 한식 목구조에 기와지붕이 있고 자연재료로 마감한 건축물이다. 용도는 살림집 이외에 상업 용도를 포함한다. 도시한옥의 특징은 형태, 구법, 재료 및 부재, 공급 방식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형태에서는 ㄷ자, ㅁ자 형태로 실들이 배치되고 가운데에 마당 공간이 조성된다. 제한된 대지의 중심에 안마당이 위치한다.

구법에서는 전통 한식 목구조 방식으로 축조되었으나 일부 부재가 과장 또는 장식적으로 사용되고, 때로는 생략되기도 한다. 대표 장식 부재는 소로이다. 전통한옥에서는 소로가 장혀를 받치는 부재였으나 점차 그 기능이 사라지고 장식적으로 바뀌면서 딱지소로가 사용되었다. 또한 도시한옥에서는 겹처마와 굴도

리가 많이 시공되었다. 이는 전통한옥 살림집에서는 그리 시공되지 않는 방식이다. 도시한옥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구법은 장식이나 집의 격을 높이는 요소로 사용되었다. 당시 일반인들에게 굴도리를 사용한 소로수장집의 격이 높다는 인식이 팽배하였기 때문에 거래할 때 겹처마나 굴도리집이 더 비싼 집으로 인식되었다. 전통 민가에서는 주로 자연석을 주초로 사용하였으나 도시한옥에서는 다듬은 주춧돌이나 장대석을 사용하였다. 이는 규격화된 부재의 사용과 관계가 있다.

재료로는 벽돌과 타일, 유리화 합석 등 근대 재료가 사용되었다. 제안된 필지로 인하여 짧아진 처마 길이는 합석을 이용해서 처마선을 강조하고 빗물을 처리하였다. 길에 면해 위치한 문간채는 화재와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반화방벽을 설치하였다. 화방벽에 사고석과 벽돌로 문양을 만들어 입면의

패턴에 부분 변화를 주었다. 내부에서는 대청에 유리 문을 단 실내화된 거실 개념이 도입되었다. 부재 사용에서는 제재소에서 공급된 일정한 규격 목재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대들보와 같은 일부 부재를 제외하고 기둥, 도리, 인방, 창호틀 등의 부재가 표준화되었다. 이는 산업화 및 도시화와 생활상을 반영한 결과이다. 도시한옥의 공급 방식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1930년대 도시한옥은 판매(분양)를 목적으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필지 규모가 유사한 경우 평면이 대부분 비슷하다. 도시한옥은 주로 주택업자에 의하여 공급된 주택이어서 형태, 구축 방식, 재료 등이 표준화되었다.

도시한옥의 집단 건설로 조성된 도시한옥 주거지는 1930년대 집합주거 대표 지역이면서 우리나라 근대도시에 새롭게 출현한 도시주택 유형이다. 도시한옥은 이전의 한옥과는 다른 방식으로 생산되었고, 판매를 전제로 분양이라는 새로운 방식에 의하여 소비되었다. 이전에 개별 건설되던 방식이 아니라 동시 및 집단 건설되면서 익명의 다수 소비자 수요와 요구를 반영하였다. 또한 대지나 건축물의 불리한 조건을 없애는 방식으로 발전해 나갔다. 이러한 점에서 현대의 주택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오늘날 대규모 집합주택단지처럼 도시 경관을 훼손하고 도시 맥락을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지형 및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 재료를 사용하는 등 풍부한 도시경관을 만들었다. 그리고 제한된 필지를 지혜롭게 활용하여 공공 영역과 사적 영역을 엄격하게 구분하였다. 도로에 면해 문간채를 배치하여 길로부터는 닫혀 있으나 하늘로 열린 마당을 조성하여 햇볕이 풍부하고 답답하지 않은 건강한 주택이 지어졌다.

참고문헌 도시형 한옥의 유형연구(송인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북촌-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의 터전(서울역사박물관, 2018), 북촌가꾸기 기본계획(서울특별시, 2001), 서울 삼청동 35번지 도시한옥주거지의 도시건축 유형학적 특성(성태원,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한국건축대계5-목조(장기인, 보성각, 1996), 한국근대화 과정의 건축제도와 장인 활동에 관한 연구(김란기,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필자 김영수(金英洙)

정의 겹집이 분포하는 경상북도 북부지역 전통 민가의 한 유형으로, 전면 세 칸 공간의 한가운데에 부엌 칸이 있고 양쪽으로 방이 한 칸씩 있는 모양이 마치 베틀의 도투마리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

개관 ‘도투마리’는 안동포를 짜는 베틀에 원사를 감아 두는 도구이다. 길이 1m 내외, 폭 40cm 내외, 두께 5cm 정도의 원목 판재를 양쪽 단부는 정방형에 가깝게 만들고 중앙의 연결 부위는 매우 가는 목으로 구성한다. 중앙에 원사를 둥글게 감는다. 이것은 베틀에 얹아 길쌈을 할 때 실이 잘 당겨지도록 잡아 주는 역할을 한다. 반 바퀴를 다 짜면 도투마리를 손으로 돌려서 길이를 연장하기 때문에 실타래처럼 둥글지는 않고 네모진 모양의 판이 양쪽 단부에 있어 베틀의 끝에 놓여진다. 이 모양이 양쪽에 방이 있고 중앙이 부엌 혹은 봉당 공간으로, 빈 주거의 구성을 지칭하는 개념에 매우 잘 맞아 도투마리집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내용 도투마리집은 홑집인 오막살이집에서 겹집인 여칸집으로 발전해 가는 중간 과정을 보여 주는 유형이다. 전형의 세 칸 홑집인 오막살이집은 ‘정지+안방+건넌방’으로 구성된다. 홑집에서의 도투마리집은 ‘안방+정지(봉당)+건넌방’으로 구성된다. 중앙의 봉당(칸으로 구획된 공간이지만 마루가 아니라 흙바닥으로 된 공간)을 두고 양쪽으로 방이 있는 구성이다. 양쪽 방으로의 난방은 봉당에서 이루어진다. 봉당 앞에 문이 있는 경우(안동 민속촌)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지만 후면에는 대개 벽과 출입문이 있다. 봉당의 양쪽에는 한 칸씩의 방이 구성된다. 이 방 가운데 안방은 한 칸 깊이로 크게 구성되고, 취사용 아궁이가 설치된다. 사랑방은 전면에 반 칸 깊이의 마구간이 구성되면서 좁아진 깊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후면에 벽장을 확장하여 한 칸 깊이를 확보하며, 사랑방의 전면에는 아궁이를 두어 여물 솥을 걸었다. 깊이가 한 칸 반



■ **안동 의촌동 초가 도투마리집** | 문화재청

도편수

인 반곁집에서의 도투마리집에서는 한 칸 깊이의 봉당 후면에 반 칸 깊이의 마루가 형성되기도 한다. 공간의 깊이가 겹집으로 되면서 봉당 정면에 완전한 한 칸의 마루가 형성되면 더 이상 도투마리집이라고 부를 수 없는 ‘여칸집’이 된다. 이때는 안방 앞으로 한 칸의 부엌이 위치하기 때문에 봉당은 부엌과 구분되는 완전한 현관 기능을 하게 된다.

특징 및 의의 도투마리집은 주로 경북 안동 지역에서 나타나는 민가 유형이다. 홑집과 반곁집에서 부엌(봉당)이 방과 방 사이에 위치하는 구성이 도투마리 형상을 연상시킨다. 도투마리집은 봉당과 마루를 둔 여칸집의 형성 과정을 잘 보여 준다. 건축 유형에 따른 명칭은 대체로 규모, 구성, 재료에 따라 부른다. 형태에 따른 명칭은 주로 문자형(ㄱ자형, ㄷ자형, ㄹ자형 등)이 많다. ‘까치구멍집’과 함께 형상을 연상시키는 명칭은 매우 드문 경우라 할 수 있다. 이 둘이 모두 안동 지역에서 사용되는 공통점이 있다.

참고문헌 옛집에 담긴 생각(김일진, 도서출판 향토, 1996), 한국의 살림집(신영훈, 열화당, 1983).

필자 김화봉(金華峰)

도편수

정의 각각의 공종工種을 담당하는 장인들의 우두머리.

내용 도편수는 개별 공정을 담당하는 장인들을 통솔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우두머리를 지칭하는 말이다. 여말선초에 지어진 건물의 상량문 또는 목서명에서 도편수 또는 편수라는 말은 찾아보기 어렵다. 장인의 우두머리는 도편수 대신에 ‘대목大木’이라고 기록하였다. 1363년(지정 23, 공민왕 12) 봉정사 극락전 목서명에는 대목으로 핑개宏介라는 승려가 기록되어 있고, 1573년(만력 원년, 선조 6) 부석사 조사당 연목 교체 공사에서는 대목으로 불명佛明이라는 비구와 부목副木으로 세 명의 비구가 기록되어 있다. 17세기 관영건축의 내용을 기록한 문헌에 도편수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하지만 도편수가 기록된 경우는 극소수이며, 대신 ‘편수[邊首]’라는 용어를 기록한 경우가 많다. 당시 의궤에서는 공사에 투입된 장인 명단을 기록하면서 첫 번째로 기록한 장인에 한하여 밑에 작은 글씨로 편수라고 적었다.

17세기 문헌에서 도편수라고 기록한 장인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은 석수 조말룡曹末龍이다. 조말룡이라는 이름은 1645년의 『소현세자묘소도감의궤昭顯世子墓所都監儀軌』에서 처음 등장한다. 그는 묘소도감에서 대부석소大浮石所 좌변석수左邊石手の 편수를 맡았다. 또 1648년(인조 26)에 순릉順陵의 능상 석물을 수리하였다. 당시의 공사 내용을 기록한 『공혜왕후순릉수개도감의궤恭惠王后順陵修改都監儀軌』에 조말룡이 석수도편수를 담당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그의 밑에 좌변석수 편수로 백운길白雲吉, 우변석수 편수로 유남柳男이 있었다. 구체적인 수리 모습은 전하지 않지만 논상論賞으로 판단하건대 조말룡이 매우 훌륭하게 일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인조仁祖는 신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조말룡에게 영직影職으로 통정계通政階의 벼슬을 내렸다. 통정계에 올랐다는 것은 당상관에 이른 것을 말하며, 이는 조선의 최고 관리 직급에 해당한다. 다른 편수들이 일한 날씨는 고작 15일에 불

과하였다. 조말룡이 일한 기간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공사를 담당한 다른 관리 및 장인들의 논상과 비교해도 극히 이례적이었다. 조말룡은 이후 1649년 인조장릉산릉도감, 1659년 효종영릉산릉도감에서도 부석소의 ‘좌우편도편수[左右邊都邊首]’를 담당하였다. 의궤에서는 각각 조만룡曹萬龍, 조말을룡曹末乙龍으로 기록하였다. 도편수이면서도 이름이 정확히 기록되지 못할 정도로 사회적 신분이 낮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1660년 영릉의 능상석물을 조성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였다. 석물이 내려앉고 돌의 색이 변하였다. 이에 대한 책임으로 석수 도편수 조말룡은 경기도로 유배되었고, 6개월이 지난 후에야 풀려날 수 있었다. 이후 조말룡에 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도편수라는 명칭은 18세기 중반을 넘어서면서 일반화되었다. 목수들의 우두머리를 도편수라고 칭하였고, 그다음 직책을 맡는 목수를 부편수라고 불렀다. 19세기 초반에 들어서 편수의 직책이 매우 세분화되었다. 서궐영건도감에서는 김성손金盛孫이 목수도편수를 맡았는데, 그 밑에 각 개별 건물마다 편수와 공포편수[工踏邊首]가 지정되었다. 회상전會祥殿, 융복전隆福殿, 흥정당興政堂, 집경당集慶堂, 사현합思賢閣에 각각 목수편수와 공포편수를 두었고, 창호소窓戶所에 또 다른 편수를 두었다. 1857년(철종 8)에는 창덕궁 인정전의 중수공사가 있었다. 이 공사의 목수도편수는 원중명元重明이, 부편수는 지복록池福祿과 정치홍鄭致弘이 맡았다. 여기에 더해 정현편수[正統邊首] 두 명, 공포편수 두 명, 연목편수[椽木邊首] 두 명, 녹로편수[轆轤邊首] 두 명, 당가편수[唐家邊首] 한 명을 더 두었다.

공사를 마치고 시상이 있었는데, 도편수인 원중명은 “자리가 나길 기다려 변장에 제수하라(邊將待窠除授).”라는 상을 받았다. 『각사등록各司謄錄』 「전라우수영계록全羅右水營啓錄」 1858년(철종 9) 10월 26일자에는 원중명이 전라우수영의 고금도수군동침절제사古今島水軍同僉節制使로 임명되어 부임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수군동침절제사는 종4품 외관직 무관 벼슬에 해당한다. 목수일을 전문으로 하는 도편수가 실제 관직에 임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해 12월 17

일자에는 ‘서관西關(평안도)을 수리하는 역사’에 패장牌將으로 선출되어 다시 공사 현장으로 나갔다는 기록이 있다. 한편 인정전 중수공사에서 부편수를 담당하였던 지복록은 1864년(고종 1) 운현궁雲峴宮 경근문敬覲門과 공근문恭覲門 건설공사, 1865년(고종 2) 경복궁 영건공사에 패장으로 참여하였다. 경복궁 영건 당시에는 어영청御營廳 별무사別武士 일을 맡고 있었다. 또 1878년(고종 15) 철인왕후의 예릉산릉도감에서도 간역都看役을 담당하였다. 이 일로 지복록 역시 원중명과 같이 변장에 제수되었다가, 1879년 인천·부평포대진사砲臺鎭舍 공사에서는 다시 패장으로 참여하였다. 패장은 공사현장에서 장인들의 일을 감독하는 직책이다. 평소 건축공사가 없을 때에는 각 지역의 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다가 공사 시작과 더불어 다시 건축 현장에 배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직접 장인들을 부리면서 공사를 관리하는 패장이 장인 출신이었음도 알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도편수에 대해 관영건축의 기록에서는 ‘都邊首’라는 글자를 사용한 반면 사찰건축의 상량문에서는 ‘都片手’라는 글자를 사용하였다.

참고문헌 조선조 17세기 궁궐건축공사에 종사한 목수편수에 대하여(김동욱, 건축역사연구1-1, 한국건축역사학회, 1992), 조선 후기 장인의 담당 공종에 관한 연구(이연노,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25-8, 대한건축학회, 2009), 한국건축공장사연구(김동욱, 기문당, 1993).

필자 이연노(李演魯)

독신자주택

獨身者住宅

정의 독신자를 거주 대상으로 상정하고 그에 따라 계획하여 지은 주택.

내용 독신자주택獨身者住宅은 넓게는 독신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모두 지칭하지만 좁은 의미에선 독신자를 거주 대상으로 상정한 가운데 계획 단계에서 그들의

생활 방식을 염두에 두고 지은 주택을 일컫는다.

독신자란 배우자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을 말한다. 여기에는 미혼자뿐만 아니라 자녀 독립 후나 이혼 및 배우자 사후에 다시 혼자 살게 된 자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른 나이의 결혼을 당연시하던 20세기 중반까지는 대체로 결혼 이전의 젊은이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었다.

독신자를 대상으로 상정한 주택 계획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으나 지금보다 결혼 연령이 현저히 낮았고 대가족 거주 형태가 일반화된 전근대 사회에서는 독신자주택이란 개념이 희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기록으로 확인 가능한 사례는 20세기 초부터 나타난다. 이들 대부분은 관청, 기관, 회사, 공장 등의 관사나 사택 가운데 독신 구성원을 위한 주택이었다. 대부분이 집합주택 형식을 띠는 공동숙사이며, 합숙소·기숙사·요寮 등으로 불리었다. 광복 이전에 건립된 공동숙사는 건립 시기 및 주체에 따라 허름한 단층 목조건물부터 당시로는 최신 건설기술로 지은 다층의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까지 다양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2~3층의 조적조 건물로 1동 내지 2동으로 구성되었고, 각 주호는 9.9㎡(3평) 규모였다. 물론 개인 점유 면적과 주호당 점유 인원 등에도 편차가 있었지만 대체로 같은 건물 내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식당, 부엌, 욕실, 변소, 세면장 등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생활 필수 시설 외에 오락실, 도서실 등 복지 공간이 부가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공동숙사는 광복 후에도 그 시대의 집합주택 형식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한편 관사·사택 성격의 공동숙사 외에도 1930년대 이후에는 민간에서 임대업을 위하여 3, 4층 높이의 아파트를 짓곤 하였다. 특정한 거주 계층을 상정하고 지은 것은 아니지만 당시 기사를 통하여 대개 ‘독신 셀러리맨’이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아파트에는 부엌과 화장실이 주호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각 세대에는 최소한의 면적과 공간만이 주어졌고, 식당·오락실 등 공용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공동숙사와 비슷한 점이 있다. 광복 후에는 1967년에 지어진 세운상가아파트를 위시하여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가 지어졌는데, 여기에 독신

자를 상정한 작은 평수의 주호가 함께 계획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사·사택의 공동숙사 및 일부 민간 집합주택이라는 양대 독신자주택 유형은 독신자가운데 극히 일부만이 거주하는 드문 사례에 속하였다. 20세기 중반까지만 하여도 독신자는 친척 혹은 남의 집에서 하숙하거나 방 한 칸에 세를 들어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결혼 연령 지연 및 비혼자 증가로 인하여 독신자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경제 성장에 따른 생활 수준 향상, 사생활 개념 침투, 주거 고층화에 따른 주호 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이들이 독립된 주호 거주를 선호하자 이들을 위한 새로운 주거 유형이 모색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주거 형태가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 코콘하우스 등이다. 여기에는 독신자만 거주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을 주 대상으로 삼고 계획된 주거 유형이었다. 이 가운데 오피스텔 및 원룸은 경제력이 어느 정도 있는 층을 주 대상으로 하여 욕실, 부엌 등 지원되는 기본 지원 공간을 주호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 형태였다. 그러나 고시원·코콘하우스 등은 개인 공간을 최소화하고 지원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점에서 공동숙사와 유사점을 있다.

특징 및 의의 20세기 중반까지의 독신자주택은 주로 젊은 미혼 남성이 한시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획된 것으로, 임시 주택 성격이 강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하나의 주요한 주거 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편 독신자주택의 다양한 유형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개인 공간의 최소화 및 지원 공간의 공용화이다. 이는 주택의 기본형 및 최소 기준에 대한 논의와 통하기 때문에 독신자주택은 이 논의에 유의미한 사례가 된다.

참고문헌 일제강점기 근대시설의 모더니즘 수용(강상훈,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집-집의 공간과 풍경은 어떻게 달라져 왔을까(전남일, 돌베개, 2015), 한국근대주거론(박용환, 기문당, 2010), 한국의 주택(임창복, 돌베개, 2011), 한국 주거의 사회사(전남일 외, 돌베개, 2008).

필자 김하나(金하나)

돌기와집

정의 판같이 얇은 돌로 기와처럼 지붕을 인 건축물.

내용 점판암이나 얇은 돌을 판형으로 떼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 지붕을 인 건축물이다. 짚이나 기와 등을 쉽게 찾을 수 없는 지역에서 판형의 얇은 돌을 구할 수 있는 인근에서 건축물의 지붕 재료로 사용한다. 돌지붕집, 돌너와집, 돌집, 돌능애집, 돌능와집, 너새집이라고도 한다.

돌기와를 올릴 때는 물고기 비늘처럼 겹치게 돌기와를 이어 놓는다. 용마루와 처마 끝에는 1~2자 크기의 큰 돌기와를 사용하여 폭우에 아랫방향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고, 처마 끝선은 가지런히 하여 조형성과 지붕의 물 흐름을 좋게 한다.

돌기와를 이어서 서로 마주치는 지붕의 합각부 용마루(추녀)는 돌을 세로로 길게 몇 단씩 쌓아 지붕을



청석집



청석지붕

돌기와집 | 충북 보은 | 국립민속박물관

이는 방법과 합각부는 기와 지붕 쌓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넓은 돌을 사용하여 지붕을 이는 방법이 있다. 때로 굴피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내구성과 바람 때문에 눌러 주어야 하는 문제로 인해 자주 사용하지는 않는다. 돌기와의 미끄럼 방지를 위하여 물때는 완만하게 하며, 수명은 대개 20년 이상 유지된다. 지붕의 큰 무게를 지탱하기 위하여 기둥은 굵고 층고는 낮은 편이다.

돌기와집은 우리나라에서 점판암이 많이 생산되는 강원도 평창·정선, 충청북도 보은·영동·청원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 지붕을 개량하였다. 특히 점판암이 생산되는 지역에서는 가격 등 경제성과 함께 한번 시공하면 다른 재료보다 내구성이 훨씬 오래 유지되는 장점이 있어 집단으로 돌기와를 지붕 재료로 사용하여, 마을 대부분이 돌기와집으로 되어 있다.

특징 및 의의 건축 재료를 선택하여야 하는 상황에서는 내구성, 시공의 용이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우수한 것을 선정하여서 활용한다. 산간·평야 등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붕 재료(짚, 너와, 굴피, 겨릅)가 있어도 돌기와를 쉽게 구할 수 있다면 비록 무거운 지붕하중에 의하여 목재가 많이 필요하고 층고가 낮아도 돌기와집을 시공하고 있다.

참고문헌 옛집에 담긴 생각(김일진, 청구, 1989),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주생활(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5), 한국의 살림집(신영훈, 열화당, 199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정재국(鄭在國)

돌담

정의 찰흙 등을 사용하지 않고 돌의 순수한 형태와 특성을 이용하여 쌓은 담.

개관 돌을 주재료로 하여 쌓은 담은 물리·시각·공간

성격의 의미를 띤다. 즉 물리 성격의 의미로는 안과 밖, 이곳과 저곳 간 경계를 짓는다. 시각 성격의 의미로는 좁고 길게 이어져서 길을 형성하거나 중후한 벽체의 질감 위에 초가와 기와의 지붕이 살포시 드러나는 등 여유가 있는 풍경을 연출하기도 한다. 또한 주인 영역과 하인 영역 구분 등 공간 성격의 의미를 부여하는 건축 장치로 사용되기도 한다.

특히 시각 성격 의미로서의 돌담은 구축 방식에 따라 형식과 모양이 달라진다. 일반 형태의 담쌓기는 일정한 크기의 돌이나 기와, 흙, 짚 등을 사용한다. 일정한 간격으로 돌이나 기와를 쌓고 그 위를 짚과 섞은 흙으로 채운 후 다시 돌을 쌓는 방식이다. 짚을 섞은 흙은 일종의 접착제이면서 담을 구성하는 주요 재료가 된다. 흙으로만 쌓은 담은 가볍기 때문에 무너지기 쉽다. 돌이나 기와는 이를 방지하는 골격과 같은 역할을 하며, 흙담의 단조로운 벽면을 예쁘게 장식하는 효과도 있다. 공간 성격의 의미로도 돌담은 선형 형태로 안과 밖을 구획하거나 공동 영역과 사생활 영역으로 구분 짓기도 하며, 때로는 일정한 공간으로 유도하는 통로 기능을 하기도 한다. 특히 담의 높이가 높고 낮음에 따라 공간 성격이 매우 다양하게 변한다. 즉 개방된 공간 혹은 폐쇄된 공간으로 바꾸는 장치 기능을 한다.

돌 문화를 상징하는 곳이 제주도이다. 제주 지역의 돌담은 고려시대 의종毅宗(재위 1146~1170) 때 제주에 부임한 김구金丘라는 판관이 밭의 경계가 모호하여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쌓기 시작한 것이 밭이나 집 울타리의 유래로 전해진다. 이는 문헌상의 기록일 뿐 이미 오래전부터 돌담은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제주 사람들의 다양하고 지혜로운 삶의 흔적이 바로 올래담, 밭담 등의 돌 문화이다. 돌의 경우, 큰 돌뿐만 아니라 작은 돌, 밧돌, 모난 돌, 둥글넓적한 돌을 사용하여 매우 독특한 돌담 이미지를 연출한다. 특히 밭담의 돌담은 구불구불이어져 있어서 마치 검은 용龍과 같다 하여 ‘흑룡만리’라고 일컫는다. 아름다운 제주 섬의 땅 위에 수놓은 인간 활동의 흔적이자 독특하며 오묘하고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제주 지역만의 독특한 풍경이라 할



올래담 | 제주 제주시 | 1986 | 국립민속박물관



솟대문과 돌담 | 충남 아산 외암 참판댁 | 주택문화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의 돌담은 토지나 가옥의 경계를 정하는 의미를 넘어 선조들 삶의 지혜와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문화 산물이기도 하다.

이처럼 돌만으로 쌓은 제주 돌담은 일종의 공동체 의식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 개인의 힘은 너무나 미약하다. 돌담에는 작은 힘을 하나 하나 모아 자연 환경에 적극 대응하며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고스란히 스며져 있다. 폭풍에도 무너지 내리지 않는 제주 민가의 돌담은 갈등과 반목, 대립의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던져 준다.

내용 검고 거친 제주도의 현무암을 쌓아 구축한 밭담이 끝없이 이어져 그 길이가 만리萬里 정도가 되고, 지형에 따라 구불구불이어져 있어 마치 용龍과 같다 하여 흔히 흑룡만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제주도 밭담의

길이는 대략 2만 2,000km로 그 규모가 연출하는 풍경은 제주를 대표하는 풍경이지만 척박한 자연 환경 속에서 대응하고 때로는 순응하며 살아온 제주 사람들의 생활 역사이자 문화라 할 수 있다.

제주도는 돌 문화로 대변된다. 그만큼 돌이 많다는 의미이다. 그렇지만 제주 사람들은 이러한 돌을 역으로 이용하여 척박한 삶의 환경 개척에 응용하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돌만을 이용하여 축조한 제주 돌담은 부지와 부지 간 경계를 구분하는 기능, 바람을 막는 기능, 흙과 씨앗 등이 날아가는 것을 막는 기능, 우마들의 침입을 막는 기능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에 따라 돌담 축조 방식과 용도가 달라지게 된다. 대표 돌담으로는 일반 밭담 형식인 외담, 올래담, 축담, 산담, 잣성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밭담이 농업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람을 막아 주는 것이다. 거센 바람으로 말미암아 흙과 씨앗이 날려서 파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파종이 되어도 끊임없이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하여 농작물이 정상으로 성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밭담은 크게 단계별 기능을 한다. 일차 기능은 거센 바람을 막고 이차 기능은 통과한 바람이 농경지 중앙 부분의 상부와 하부의 기류 변화를 일으켜서 농작물 생산 환경을 적절하게 조성하며, 밭담 사이를 통과한 바람 역시 돌담 주변에서 기류 변화를 일으켜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농업시스템 장치물 역할을 한다.

돌담 쌓기에는 특별한 장인匠人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즉 장인의 손을 거치지 않더라도 돌과 돌이 잘 맞물리도록 쌓아 올리기만 하면 된다. 돌이 무너져서 보수가 필요해도 복구가 용이하고, 지극히 단순한 구조의 돌담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아무나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많은 노인들이 능숙하게 쌓을 수 있다. 이는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보다 바람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빈틈을 일정하게 내면서도 돌과 돌이 맞물리도록 쌓아야 하는, 지극히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삶의 지혜가 요구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보잘 것 없이 작은 돌을 사용하였을 경우 돌 하나 하나는 바람에 견디기 어렵지만 이들이 서로 이음새

역할을 하여 견고한 담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또 돌만으로 쌓이기 때문에 바람에 의하여 어느 한쪽이 무너져도 돌담 전체가 무너지는 일은 없다. 설령 무너진다고 하여도 그 부분만을 쉽게 보수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도 편리하다.

특징 및 의의 제주도는 바람이 거센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지질학상으로도 기름진 토지가 많지 않고 ‘돌랭이’라 일컫는 소규모 밭들로 구성되어 있다. 게다가 밭에는 크고 작은 돌들이 섞여 있어서 농사 짓기에 상당히 어려운 땅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주 사람들은 흙에 섞여 있는 돌을 골라내어 농경지의 경계를 쌓고(외담, 겹담) 길이 없는 밭인 경우 ‘잣벵담’을 쌓아 농사를 짓는 길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미덕의 돌담길을 조성하였다.

참고문헌 제주 건축의 맥(김태일, 제주대학교출판부, 2005), 제주 속 건축(김태일, 안그래픽스, 2018), 흑룡만리 제주밭담 세계농업유산 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2013).

필자 김태일(金泰一)

동사택서사택

東四宅西四宅

정의 360도를 8개 방위로 등분하고 건물의 대문과 나머지 주요 실이 위치한 방위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한 집의 성격.

내용 중국의 청 시대에 조정동趙廷棟(1696~1785)이라는 사람이 기존의 양택이론을 정리하여 저술한 『양택삼요陽宅三要』에 근거한다. 예를 들어 대문이 남쪽에 있고 안방 문이 북쪽에 있는 집이라면 동사택, 대문이 남서쪽에 있고 안방 문이 북동쪽에 있는 집이라면 서사택에 각각 해당한다. 한편 대문이 남쪽에 있고 안방 문이 북동쪽에 있는 집이라면 혼합택이 된다. 즉 동사택 방위로 북·동·남동·남에 대문과 안방 문이 자리하

고 있으면 동사택, 서사택 방위로 북동·남서·서·북서에 대문과 안방 문이 자리하면 서사택이 된다. 동서사택은 8개 방위 가운데 주로 동쪽 편향의 4개 방위를 동사東四, 서쪽 편향의 4개 방위를 서사西四로 각각 묶은 것이다. 만일 대문과 안방 문이 동사택과 서사택 방위로 서로 엇갈리게 배치되면 혼합택이 된다. 혼합택은 대문으로 기氣의 인입引入과 안방으로 기氣의 분배分配가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여 흉한 것으로 간주한다. 동사택은 주로 귀貴로서 명예가 높아지는 복을 기대하며, 서사택은 주로 부富로서 재산이 늘어나는 복을 기대한다. 8방위 상 동사택과 서사택으로 구분하는 원칙은 팔괘차서도 八卦次序圖 상 사상四象 가운데 소음少陰에서 분화된 괘(감, 손)와 소양少陽에서 분화된 괘(리, 진)의 방위를 동사택, 태음에서 분화된 괘(곤, 간)와 태양에서 분화된 괘[건, 태]의 방위를 서사택의 방위로 각각 구분하는 것이다. 방위 측정에는 마당을 중심으로 하여 대문과 안방 문의 방위를 측정하는 중정나반간법中井羅盤看法을 적용한다.

참고문헌 양택삼요(조정동, 김경훈 역, 자연과 삶, 2003), 풍수향법의 논리체계와 의미에 관한 연구(조인철,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필자 조인철(趙仁哲)

두령집

정의 강원도 태백산 산간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화전민의 집.

내용 강원도 너와집, 굴피집으로 호칭되다가 1990년대 중반부터 평면 형식에 따른 분류로 ‘두령집’으로 불린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들거리집, 두루거리집, 둘레집, 돌리집, 두리집이라고도 한다.

두령집은 강원도 삼척 지역에 있는 태백산을 기준으로 동쪽을 향하여 흐르는 오십천과 가곡천 및 마읍천 상류 산간지대에 분포되어 있다. 그 수는 해안으

로 내려갈수록 점차 감소한다. 마루 중심으로 안방·도장·사랑방·마구·봉당·정지가 둘레를 이루며 각실이 사방에 연속 배치되어 있다. 이에 따라 ‘둘레둘레 돌아가며 주위에 실들이 있다’ 하여 두령집이라 하는 등 이칭이 많다.

화전민은 산지에 거주한다. 험준하고 급격한 비탈의 강원도 산지 지형에서는 좁은 S자형을 이루며 길이 형성되고, 이에 맞게 아래를 내려다보며 집들이 배치되어 있다. 자연스럽게 전면에는 경사면을 따라 잡석 축대를 쌓고 정면 출입을 위한 좁은 통로를 만들며, 농사와 산간 생활을 위한 넓은 마당이 양 측면에 놓이는 형식이 되었다. 이에 따라 S자 길을 따라 동선이 형성되고 집의 주 출입구는 측면 마당을 통하여 가옥의 박공면으로 하게 되어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측면형 형식이 된다. 용마루를 보며 출입하는 것이 정면이며, 우리나라 집들은 정면 출입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와 관련하여 많은 이론이 있다.

가옥 구성은 각 실을 이어 가며 방들이 있고, 방 끝에 붙어서 외부와 차단되는 판벽을 지붕과 맞닿게 둘러치고 있어, 내부는 다소 어둡고 지붕의 굴피나 너와 틈새 및 판벽 틈으로 햇빛을 받는 이에 따라 마루 뒤쪽에 방이 없는 경우 바리지참을 두어 실내를 밝게 한다.

중랑마루를 중심으로 여성들이 주로 생활하는 안방과 남성들의 사랑방 공간으로 나누어지는 등 남녀의 공간이 분할된다. 만약 3세대가 거주하면 남녀 구분이 된 공간 영역이 세대 간 구분으로 변환되어 사랑방은 1세대, 안방은 2세대, 그 사이 혹은 측면에 있는 도장방(샛방)은 3세대의 주거처가 된다. 이때 집의 좌·우측으로 각 방 앞에 있는 외부마당은 각 세대의 독립된 별도의 영역이 되고 출입 또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여, 산간지역의 조밀한 공간 배치에서 훌륭하게 3세대 가족이 활동할 수 있게 한다.

집 내부는 지붕 구조가 노출되어 있고, 전면 봉당 중심으로 밀폐 성격의 마당을 갖기 위하여 판벽을 두른 공간 형식을 취한다. 즉 판재벽으로 둘러쳐진 마당에 부엌, 봉당, 정지가 있고 마구가 붙어 있어 긴 겨울 동안 작업과 평소 생업 준비 공간으로 활용된다. 그래

서 일반 집은 담장이나 울타리 경계가 있으나 두렁집은 집의 외벽이 보호막이 되고, 그 안쪽이 생활공간이 된다. 이것은 급변하는 산간 기후와 외부 침입, 산짐승 등으로부터의 보호처 기능을 한다. 각 방의 천장 상부는 고미반자 마감을 하여 추운 산간지역의 겨울 난방을 대비하고 새벽 농사일 준비 등 일상생활을 위하여, 실내를 밝히는 우등불이 정지와 마루 사이 벽체 공간에 있다. 우등불은 벽체의 중간을 뚫은 후 바닥에 돌판을 놓고 그 위에 관솔, 상어기름 등을 태워 조명을 한다. 정지의 안방 쪽 아궁이에는 불씨를 넣은 다음 재를 꼭 눌러 덮은 후 그 위에 넓적한 돌을 얹어 오랜 시간 불씨를 보관하는 화티가 있다.

산간지역은 밭농사가 많으며, 화전을 할 때는 집에서 먼 곳까지 가서 농사일을 하여야 한다. 저녁이 일찍 찾아오는 산간 날씨와 늦은 귀가로 말미암아 화티에는 불씨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식사와 난방 준비를 할 수 있고, 또한 겨울철에는 실내를 따뜻하게 유지해 준다. 그리고 방벽의 모서리에는 방바닥으로부터 40cm 높이에서 짜리나무 뼈대로 코 모양을 만든 후 진흙을 내고, 외부에 에워싸서 만든, 조명 역할을 하는 코클이 있다. 코클은 때로 조명 역할과 함께 어느 정도 실내 난방을 겸하기도 한다.

마루는 거실 기능을 하면서 농사 준비, 식사, 모임 등 다목적 공간으로 사용된다. 마루 밑은 보통 저장 공간이 있어서 감자, 무 등을 갈무리한다. 봉당은 다른 곳보다 5~10cm 높은 흙바닥으로 되어 있다. 안방 정지는 취사, 사랑방 정지는 소여물을 끓이는 용도로 많이 사용한다.

마구는 실내와 연결되는 인축동거형이며, 상부는 축사에 필요한 수납공간으로 사용한다. 마구 외부에는 측간(화장실)이 두 개 있으며, 사랑방(남)과 안방(여)에서 각각 다른 방향에서 출입할 수 있도록 남녀 사용이 구분되어 있다. 두렁집은 우리나라 산간 가옥 가운데 독특한 양식과 생활공간을 담고 있는 등 강원도 태백산 화전민 가옥을 대표한다.

특징 및 의의 강원도 산간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두렁집의 평면은 측입민가형, 각실 배치의 독창성 및 활용

성, 산간지역 기후와 보호처로서의 밀집형 구조 등으로 타 지역에서 볼 수 없는 형식을 취한다. 지금까지는 지붕에 사용되는 재료에 의한 구분으로 강원도 굴피집, 강원도 너와집으로 호칭되었으나 최근의 연구로 인해 평면 양식에 의한 ‘두렁집’이라는 용어를 갖게 되었다.

참고문헌 두렁집 이야기(임상규, 민속원, 2011), 삼척산간지역 두렁집의 주거공간 구성과 확장에 관한 연구(최장순, 대한건축학회논문집20-7, 대한건축학회, 2004), 영동지방 민가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임상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3-3, 대한건축학회, 1997), 영동지역 민가의 지역적 특성에 관한 연구(이용준,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옛집에 담긴 생각(김일진, 청구, 1989), 화전부락의 가옥 및 민구(김광언·이광규, 민속자료보고서35, 문화재관리국, 1971).

필자 정재국(鄭在國)

두레박

정의 줄을 길게 달아 매고 우물물을 퍼 올리는 그릇.

내용 두레박의 본딧말은 드레박이다. 『훈민정음해례 訓民正音解例』에 ‘드레 위爲 급기汲器’라고 새긴 것이 그것이다. ‘드’는 ‘들어올린다’는 뜻을 나타내는 ‘들’이고, ‘에’는 접미사이며, ‘박’은 바가지를 가리킨다. 옛적에 흔히 바가지로 물을 뜬 데서 유래했으며, 오늘날에도 이 우물을 박우물이라고 일컫는다.

가장 오래된 두레박은 4~5세기 초 유적인 서울 송파구 풍납동 귀틀우물에서 나온 세 개의 질두레박이다. 단지처럼 배가 부르고 입은 나팔꽃처럼 벌어졌으며, 전에 줄이 감겨서 이제라도 물을 퍼 올릴 수 있을 듯하다. 줄은 양쪽에 걸었을 터이다. 긴 네모꼴 구멍에 구멍을 뚫은 나무두레박 반쪽도 선보였다. 이곳에 줄이 달린 긴 작대기를 꿰어서 물을 길었을 것이다. 바닥에 빠진 두레박을 건져 올리는 나무 갈고리 세 개도 눈길을 끈다. 하나는 빨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양쪽으로 뻗었으며, 나머지는 세모꼴로 달려있다.

완전한 형태를 갖춘 두레박은 7세기의 것으로 대구 수성구 시지동 유적에서 나왔다. 소나무를 뒷박



두레박 | 높이35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ㄷ

뒤
주



뽕래 | 일제강점기 | 국립민속박물관

(14.2×15.7cm)처럼 파고, 한쪽에 붙인 다음 깎은 턱에 구멍을 뚫고 줄을 꿰었다. 반대쪽에도 펜 줄을 중간에서 하나로 합쳤을 것이다.

뒤를 이어 통일신라시대의 국립경주박물관 유적에서 완형에 가까운 소나무 두레박 일곱 개가 발견되었다. 그 중 하나의 크기는 높이 21.5cm, 너비 29.5cm, 두께 2.6cm이다. 양 어깨에 붙인 다음 깎은 어깨

에 줄을 걸었을 것이다. 상수리나무로 만든 두레박 자루도 나왔다. 두레박이 다소 작은 데다 바닥이 뽕족하지 않고 둥그레한 것은 우물이 크거나 깊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우물에 일부러 넣은 여개 개의 두레박에는 물이 마르지 않기를 바라는 뜻이 담겨 있다.

근대에 들어와 밑이 뽕족한 함석두레박이 퍼졌고, 곳에 따라 둥근 양철통도 이용하였다. 또 헌 철모에 장대를 달아서 두레박 삼아 물을 폈다. 농촌에서는 더러 똥오줌도 퍼 날랐다. 이를 똥바가지라고 불렀다. 이는 철모를 쓰고 근무하는 헌병을 비꼬아서 부른 사병의 은어에서 왔다.

참고문헌 동아아시아의 뒷간(김광언, 민속원, 2017).

필자 김광언(金光彦)

뒤주

정의 곡물을 담아 두는 가구.

내용 뒤주는 도궐度櫃, 두주斗廚, 두도斗度 등으로도 표기한다. 뒤주에는 크고 작은 것이 있다. 큰 것에는 쌀, 작은 것에는 잡곡을 저장한다. 아주 큰 살림집에서는 광채에 큰 뒤주를 한두 개 놓아두는 사례도 있다.

서울 지역의 대표 뒤주는 제물다리를 겸한 튼튼한 네 기둥의 상하에다 두툼한 쇠목을 대어 만든 방형의 울거미에 홈을 파서 두꺼운 널을 끼워 몸판을 삼았다. 위측 쇠목은 몸체보다 돌출되어 네 귀에서 귀틀을 이루었다. 천판은 이등분하여 위로 곡식을 꺼내도록 한 형태가 경기·서울 지역에서 사용된 기본형이다. 앞면은 무늬가 좋은 나무의 통판을 끼웠으며, 측면과 후면은 두세 쪽의 판자를 대었다.

한강변의 밤섬은 예부터 배를 만드는 곳이었다. 이곳에서 배를 만들고 남은 자투리 규목櫓木(느티나무)으로 만든 뒤주는 최상품으로 알려져 있다. 밤섬 뒤주의 특징은 네 귀틀이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고, 면판의

뒷간



뒤주 | 가로109 세로72 높이103 | 19세기 | 충현박물관

무늬가 아름다우며, 면판과 뼈대의 비례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받섬 뒤주와 형태는 유사하나 네 귀틀이 삼각형의 직선을 이룬 것은 전라도식이다.

지방에서 만든 뒤주 중에는 네 기둥의 바닥 안쪽에 마루널을 깔고, 지붕은 삿자리 위에 벚짚으로 이어 만들고, 문은 앞면에 여러 쪽의 널빤지를 끼워 위쪽부터 차례로 빼내게 만든 대형 나락 뒤주도 있다. 이 나락 뒤주는 광에 두거나 한데에 두기도 하였고, 이동할 때는 반고搬庫라고도 불렀다. 이 외에도 윗다지에 곡물을 넣기도 하며, 전면前面 상부에 서랍을 달거나 작은 장을 달아 찬장을 겸용하도록 만든 것도 있다. 강원도에서는 통나무의 내부를 파낸 원통형 뒤주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경기 지역의 뒤주는 곡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들어 튼튼한 네 다리에다 쥐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다리가 길며, 알판은 느티나무의 문목을 사용하여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였다.

특징 및 의의 상류 계층의 대저택에서는 서너 개의 뒤주를 찬방이나 광에 두고 사용하였다. 중하류 계층에서는 대청에 두고 양념과 손쉽게 꺼낼 수 있는 밀반찬을 담은 단지 등을 뒤주 위에 얹어 사용하였다.

참고문헌 林園經濟志, 전통목가구(김삼대자, 대원사, 1997).

필자 김삼대자(金三代子)

정의 똥오줌을 누기 위하여 마련된 공간.

내용 고려시대에는 ‘측厠’으로 적었으며 조선의 상류층은 ‘측간厠間’, 서민들은 ‘뒷간’이라 불렀다. 이 밖에 정낭淨廊, 통시, 변소라고도 하였다. 뒷간은 ‘뒤에 있는 방’이라는 뜻이다. 냄새나는 더러운 곳인 까닭에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집 뒤에 두었다고 이르는 것이다. 그리고 뒤는 곧 북을 가리켰다. 우리 겨레는 시베리아의 찬바람을 등지고 따뜻한 남쪽으로 내려온 까닭에 언제나 앞은 남, 뒤는 북이었다.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에서 북천동北泉洞을 ‘뒷샘골’로 이르고 『훈몽자회訓蒙字會』에서 북北을 ‘뒤 북’이라 새기고 뒷간을 ‘북수간北水間’이라 부른 것이 좋은 보기이다. 대구광역시에서는 지금도 남쪽의 산을 앞산이라 부른다. 똥 누는 것을 ‘뒤 본다’, 밀 닦는 종이를 ‘뒤지’, 여성의 밀 씻는 행위를 ‘뒷물 한다’, 뒤를 보고 나서 남은 것을 떨어내는 대쪽[厠簞]을 ‘뒷나무’라고 부른 까닭이 이것이다.

1950년대 중반까지도 서울특별시 근교, 이틀테면 서대문구 홍제동이나 은평구 불광동의 농민들은 거름으로 쓸 똥오줌을 시내(현저동·영천동·옥천동 일대)에서 돈을 내고 퍼 갔다. 이들 가운데 새벽에 와서 몰래 퍼 가는 암체도 적지 않아서 아침이 되면 이 집 저 집에서 “우리 똥 도둑맞았다.”고 소리쳤다.

1960년대부터는 이 일을 시 청소국에서 담당했다. 큰길가에 똥마차를 세워 놓고, 똥대 양쪽에 거름통을 멘 청소원들이 “똥 퍼요.”라고 소리치며 골목을 누볐다. 주인은 한 지게에 얼마씩 돈을 냈다. 이들이 뒷간을 풀 때는 지켜 서 있었다. 통을 덜 채우거나 쉽게 나르려고 건더기만 건져가기 때문이다. ‘국물’이 많이 남으면 똥이 떨어질 때 불기까지 튀어 올라서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다.

‘뒷간’보다 수명이 조금 긴 ‘변소[便所]’는 중국식 이름이다. 본디 ‘편한 곳’이라는 글자 뜻대로 편소라고 일컫다가 된소리 바뀐 법칙에 따라 ‘변소’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대변’은 똥을 누면 크게 편하고 ‘소

변'은 오줌을 누면 조금 편하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근래까지도 똥을 '큰 것', 오줌을 '작은 것'이라고 둘러댔다. 이 이름이 서양의 '쉬는 방rest room'과 짝이 맞는 것은 신기한 일이다.

이러한 점에서 '근심을 더는 데'라는 '해우소解憂所'도 같은 계열이다. 하기야 급한 것으로 말하자면 이보다 더 큰 근심도 없지 않은가? 한 스님이 1950년대 초반에 지은 명작으로, 조선시대 궁중 나인들이 '급한 데'라고 부른 까닭을 알 만하다. 해우소의 원조는 충청남도 공주 동학사東鶴寺이다. 뒷간 현판은 물론 그리 건너가는 다리 양쪽에도 새겨 놓았다. 오늘날에는 절집뿐만 아니라 음식점에서도 흔히 눈에 띈다.

C

뒷간

우리네 옛적 밧씻개에 대한 기록은 없다. 농촌에서는 1950년대에도 나뭇잎, 채소잎, 옥수수수염 따위로 닦았고 짚도 썼다. 뒷간 한쪽에 세워 둔 멍치에서 서너 개 뽑아 두세 번 꺾어 손에 쥐면 그런대로 쓸 만하였다. 짚조차 귀하면 새끼줄로 대신하였다. 말뚝에 걸린 줄 한 끝을 손에 쥔 채, 가랑이에 끼우고 몇 걸음 걸어 나간 것이다. 줄을 두 개의 말뚝 사이에 걸기도 하였으며, 똥이 마른 뒤 탁탁 털면 몇 번이고 다시 쓸 수 있어서 편리하고 경제적이었다. 한편 도회지에서는 손바닥 크기로 오린 신문지를 뒤지로 삼았다. 조선시대에는 임금이 뒤지 대신 명주 세 필을 썼다고도 하나 우스개에 지나지 않는다.

절집에서는 2000년대 초에도 가랑잎을 썼다. 전라남도 순천 송광사松廣社에서는 뒷간 복도에 가랑잎을 쌓아 놓았고, 충청남도 서산 개심사開心寺는 아예 뒷간 옆에 가랑잎 광을 따로 두었다. 큰일 볼 사람은 한 줌 들고 들어가서 닦은 뒤 떨어뜨렸고, 이로써 냄새가 덜할 뿐만 아니라 거름으로도 더할 나위가 없었다. 그러나 화장지가 나오면서 똥오줌이 썩지 않는 탓에 골머리를 앓는다.

뒷나무[廁簾]는 가정보다 절집에서 많이 썼다. 길이 20cm쯤에 너비 1~2cm인 대쪽을 밑에 바짝 대고 훑으면 남은 것이 깨끗이 떨어졌다.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따로 모았다가 씻어서 다시 썼다. 이것은 불교문화와 함께 인도에서 중국으로 들어갔다가 한반도를 거쳐 일본으로 건너갔다.



전북 익산



해우소 | 전남 순천 송광사

뒷간 | 1998 | 국립민속박물관

우리는 예부터 뒷간귀신을 섬겨서 명절고사 등에 반드시 떡을 바치고 가족의 무사태평을 빌었다. 이름도 뒷간귀신, 부출각시, 측도부인, 측신각시, 정낭귀신 등 다양하다. 뒷간에서 갑자기 죽거나 병을 얻는 것은 성질이 고약한 이 젊은 색시 탓이다.

강원도의 측신각시는 긴 머리카락을 헤아리다가 사람이 갑자기 들어오면 놀란 나머지 머리카락을 뒤집어썩웠고, 이로 인해 생긴 병은 무당의 굿발도 듣지 않아 죽는다고 여겼다. 민간에서는 이를 피하려고 뒷간에 다가가갈 때는 반드시 헛기침을 세 번 하였다.

한편 뒷간에 드나드는 일도 수행 과정으로 삼는 선종禪宗에서는 벽에 세정洗淨, 세수洗手, 거예去穢, 정신淨身, 무병수無瓶水라는 입측오주入廁五呪를 적어 두었다. 삼천궁녀가 몸을 던졌다는 충청남도 부여 부소산의 낙화암 고란사阜蘭寺에는 '뒤볼 때 마음'이라는 이름 아래 '내 몸에 있는 모든 병과 근심 걱정이 대소변

과 함께 빠져지이다’ 하는 머리글에 이어 여러 가지를 덧붙인 다음 ‘대소변을 바로 보되, 밑을 보지 말고 입을 다물고, 글 쓴 종이는 삼가라’는 주의도 곁들였다.

궁궐의 왕과 왕비는 매우 梅雨(메우)를 썼다. 큰 것을 ‘매실’, 작은 것을 ‘비’에 견준 이름이다. 침전·편전·정사를 보는 곳에 두었고, 복이나인이 잘게 찢 여물을 뿌린 그릇을 틀 안에 넣었다가 상대가 일을 마치면 여물로 덮어서 내의원(內醫院)으로 가져갔다. 이것은 일 반에 ‘매화틀’로 잘못 알려져서 주제에 거슬리는 갈 잡은 언행을 <매화타령>이라고 비꼬았다. 조용히 똥이나 누지 무슨 잠꼬대를 하느냐는 뜻이다.

1960년대에 들어와 ‘뒷간’이나 ‘변소’라는 명칭이 ‘화장실’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6·25전쟁 이후 집이 터무니없이 모자라자 유엔에서 도움을 주었고, 그 결과 나타난 것이 20여 평 크기의 서양식 ‘간이주택’이었다. 부엌과 뒷간이 같은 평면에 들어선 것에 놀란 사람들은 곧 ‘문화주택’이라고 불렀다. 이들이 들어선 마을도 문화촌 또는 문화동으로 불렸다. 서울 서대문구의 문화촌이 바로 그곳이다.

그러나 변소가 문제였다. 수세식이 아니어서 여름이면 구더기가 마루에서도 벌벌 기었고, 똥 썩는 냄새가 코를 찢러 머리가 지끈거렸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담배 가루를 뿌리라는 묘책을 냈지만 피기도 아까운 것을 뿌리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지금은 비데 보급률이 높아져서 우리네 화장실이 이름에 걸맞게 탈바꿈한 셈이다. 1960년대에 유럽으로 간 우리 유학생이 비데의 물을 마셨다는 보도가 있었다. 변기 옆에 따로 있는 데다 꼭지를 틀면 물이 솟았으므로 그럴 만도 한 일이었다.

어디 그뿐인가? 뒤를 보고 나서 일어서면 꼭지를 찾아 돌리지 않아도 물이 스스로 흘러나와 똥오줌을 휩쓸고 내려가는 초현대식도 점점 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인류가 발명한 최고 위생품으로 꼽히던 수세식 변기는 근래에 들어와 최악의 발명품이라는 악평을 듣게 되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물 소비량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이다. 지금도 물 부족에 시달리는 인구가 적지 않지만 앞으로 늘어날 인구를 생각하면 수세식 변기가 물 부족을 가속화할 공산이 크다.

특정 및 의의 우리네 ‘뒷간’은 중국의 ‘변소’로 바뀌었다가 오늘날 ‘화장실’이 그 자리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일본 사람들이 쓰다가 버린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아쉬움이 앞선다. 19세기 말부터 서양 취향에 젖어 온 일본인들이 프랑스말 ‘toilette’를 ‘토이레 토티’로 줄여 썼기 때문이다.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 데다 집 한구석에 있어서 드나들기도 어렵던 것이 우리네 뒷간이었다. 똥 오줌을 거름으로 쓴 점만을 제외하면 집에서 가장 불편한 공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내부 시설도 허술하기 짝이 없어서 어린이는 물론 어른도 자칫하면 아래로 떨어져서 곤경을 치르기 일쑤였다. 특히 노인의 경우 겨울철에 쪼그려 앉아서 뒤를 보려고 힘을 쓰다가 뇌일혈로 쓰러지는 일도 드물지 않았다. 노처녀가 제 머리칼로 목을 졸라 죽인다는 민담이 퍼진 것이 이때문이다.

시대 흐름에 따라 주거생활이 서양식으로 바뀌면서 이름 그대로 깨끗한 화장실에서 맵시를 다듬게 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지만 앞으로 다가올 물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동아시아의 뒷간(김광언, 민속원 2002), 서울의 민간신앙(이재근, 백산출판사, 1996), 우리궁궐 이야기(홍순민, 1999, 청년사), 조선조 궁중풍속연구(김용숙 일지사 1987).

필자 김광언(金光彦)

들어열개

정의 문짝을 위쪽으로 들어 올려 들쇠에 얹어서 여는 창호.

개관 들어열개문이 언제 어떠한 형태로 발생하여 발전·계승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고려시대 건축물(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예산 수덕사 대웅전, 아산 맹씨행당 등)에 시설되어 있는 것을 보아 그 사용 시기가 고려시대 이전으로 여겨진다. 고려시대 건축



전북 정읍 김명관 가옥

들어열개 | 서현강



충북 괴산 송병일 고택

물에 외작들어열개문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문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 접어들면서 점차 2·3·4분합과 창호 속에 작은 여닫이창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들어열개 창호가 생겨났다. 울거미와 사이에 돌쩌귀를 달아 문짝을 전부 또는 분합수에 따라 접히는 쪽으로 한 짝 내지 두 짝을 접어서 처마 끝이나 보꼭(지붕 보 상부의 지붕 밑 부분)에 달아 맨 들쇠(걸쇠, 달쇠)에 얹어 매달도록 되어 있다. 필요시에는 창, 문을 완전히 떼어낼 수 있도록 돌쩌귀 대신 비녀장을 사용한 것도 있다.

내용 들어열개문은 외작, 2분합, 3분합, 4분합, 6분합 등이 있다. 이 가운데 4분합 들어열개가 가장 많고, 후대로 내려오면서 분합 수가 많아지는 경향을 띤다.

대개 대청 정면 문이나 대청과 방 사이에 설치하며, 여러 짝인 경우 옆으로 접어서 전체를 한 번에 들어 올린다. 여름에 문을 모두 걸면 대청과 방이 하나로 연결되어 확 트인 시원한 공간을 만들 수 있다. 사당과 감실에도 사용한다. 이는 높은 개방성을 이용하여 많은 사람이 동시에 신위를 보면서 제례의식을 치를 수 있도록 시각적인 면을 고려한 것이다.

들어열개는 설치 시 문짝이 상하로 이동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충분히 두어야 하며, 다른 양식에 비하여 개폐가 힘들어서 먼 구성 재료도 무거운 판재를 피하고 창호지를 주로 사용하였다. 먼 구성 방식은 창

호지를 문짝의 안팎에 모두 바른 맹장지와 안쪽에만 바른 명장지로 구분된다. 시기상 명장지보다 오랜 형식에 속하는 맹장지의 경우 폐쇄적이며, 문을 닫으면 가벽(假壁)이 될 뿐만 아니라 안팎 창호지 사이가 단열층이 되어 방한 효과도 있다. 또한 맹장지 들문인 경우 채광, 환기, 조망이 불리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문 가운데에 여닫이 부설 창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이는 19세기 이전 건물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는 고식으로 드물다.

특징 및 의의 들어열개문이 설치된 벽면은 1/4 개방에서부터 1/2, 3/4, 전면 개방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로 열 수 있다. 필요에 따라 공간 넓이를 조정하여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들어열개를 개방하면 바깥 경관을 끌어들어서 감상할 수 있다. 이는 차경기법으로 자연과의 융합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한국의 들어열개문은 중국과 일본의 단순 개폐 기능과 달리 가벽, 차경, 공간 확장, 단열 등 복합 용도가 특징인 창호 형식으로 독창성과 합목적성이 돋보이는 문이다.

참고문헌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김왕직, 동녘, 2007),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한옥(신영호, 현암사, 2000), 전통건축의 들어열개 창호형식 변천에 관한 연구(정명섭, 한국주거학회지7-2, 한국주거학회, 1996), 한국건축대계1-창호(장기인, 보성각, 2000), 한국의 문과 창호(주남철, 대원사, 2001), 한국의 살림집-상(신영호, 열화당, 1983), 한옥의 향기(신영호, 대원사, 2000), 화성성역의궤 건축용어집(경기문화재단, 2007).

필자 정명섭(鄭明燮)

정의 불을 켜서 어두운 곳을 밝히는 기구.

개관 불을 켜서 어두운 곳을 밝히는 기구를 등燈이라고 한다. 조명을 위하여 불을 담는 그릇이다. 불을 밝히는 재료에 따라 불을 담는 그릇 형태도 달라진다. 송진이 많이 엉긴 소나무의 가지나 옹이, 즉 관솔을 태우며 불빛을 얻는 전통적인 조명 방식도 있고, 송진이나 기름에 담긴 형겅을 긴 봉이나 장대 등의 끝에 감아 손으로 쥘 수 있도록 한 햇불도 있다. 하지만 대개는 자연물에서 기름을 얻어 그것을 태워 불을 밝힌다. 1887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전기등이 밝혀졌지만 전국에 보급된 것은 1970년대 이후이다. 서양에서는 이보다 앞서 18세기 말 석탄 가스를 도관에 흐르게 하여 불을 밝히는 가스등도 도입되었으나 전기등에 밀려났다. 여기에서는 전기등이 일반화되기 이전까지 전통사회에서 사용한 여러 조명기구에 한정하여 서술한다.

등을 밝히는 기름인 등유燈油에는 콩·아주까리 등에서 나오는 식물성 기름, 고래·상어·정어리 등에서 나오는 어유魚油, 굳기름으로 사용하는 돼지·소 등에서 나오는 동물성 유지油脂가 있다. 굳힌 기름이나 밀랍을 원통형으로 만들고 속에 심지를 박은 고체의 조명용 연소물인 초 역시 촛대와 함께 중요한 등기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주로 보편화된 연료로 기름을 이용하다 보니 등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는 역시 등잔이다. 등잔은 조명을 위하여 기름을 담고 심지를 걸쳐 둔 종지 또는 잔 형태의 그릇이지만 전통 등기구 전체를 이르기에도 한다.

등은 사용 공간에 따라 집의 안과 밖을 나누어 옥내용 등과 옥외용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옥내용은 다시 공간 특성에 따라 방에서 사용하는 것, 대청이나 마루에서 사용하는 것, 부엌이나 광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옥외등으로는 마당이나 대문에 걸어 두거나 밤길을 오갈 때 사용하는 이동용의 여러 등이 있다.

내용 널리 알려진 도자기질 등잔 외에도 토기土器, 옥석玉石, 철, 놋쇠[鑪器] 등 재질에 따라 등잔은 다양하다. 형태상으로는 종지형, 탕기형湯器形, 원통형圓筒形, 호형壺形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삼국시대 신라와 가야 고분에서 출토된 다등식多燈式 등잔이나 백제의 돌기형 등잔(일명 뚜껑형 등잔), 등잔의 외피가 겹으로 되어 있는 이중형 등잔 등 이색 형태도 나타나지만 가장 보편화된 형태는 역시 종지형 등잔이다. 삼국시대 이전부터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등잔의 연원淵源은 매우 오래되었으며, 시대에 따라 재질의 변화가 있을 뿐 크기나 형태에는 큰 차이가 없다. 작은 항아리 모양을 닮았다고 하여서 ‘호롱’이라 불린 호형 등잔은 석유등으로, 유리로 된 바람막이가 있는 남포등[lamp, 洋燈]과 함께 석유 수입 이후 전기 도입 이전까지 널리 사용되었다.

조명으로서 적절한 높이를 필요로 하는 등잔은 대개 등잔대와 짝을 이룬다. 즉 등잔대에 등잔을 얹거나 걸어서 사용한다. 사용법에 따라 등가燈架와 등경燈檠으로 구별한다. 등가는 일정 높이의 받침대를 만들고 그 위에 등잔을 얹어서 사용하는 것이다. 받침대 기둥[竿柱]에는 대매듭, 줄구슬, 끈노새김 및 기하학무늬의 돌을새김 등 다양한 조각으로 장식하였다. 등잔대



성협 | 투전 | 조선 후기 | 국립중앙박물관



등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① 등잔대와 목제등경 | 높이84 밀지름31 ② 유제 촛대 | 높이42
③ 밀초 | 너비3 높이10~13

의 밑받침은 재떨이나 서랍을 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실용성이 돋보이는 것도 있으며, 간혹 연꽃모양 새김처럼 한껏 멋을 낸 경우도 있다. 별다른 장식 없이 혹 등잔의 기름이 떨어지더라도 튀거나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의 턱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마무리한 소박한 형태의 것도 있다.

등잔걸이로서의 등경 혹은 ‘등경걸이’는 넓적한 밑받침에 2~4개의 걸이용 단段이 있는 기둥을 세우고 등잔걸이(燈械)를 받친 다음 그 위에 등잔을 얹도록 만든 것이다. 기둥에 높이가 다른 걸이용 단이 있어 등불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고, 등잔이 놓이는 등잔걸이에는 우각형(牛角形)·유방형(乳房形)·타구형(唾具形) 등 기름받이를 달아 등잔심지에서 떨어지는 기름 뚱을 받

도록 하였다. 현재 나무로 만든 등경이 많이 남아 있지만 광명두리(光明斗)처럼 청동이나 놋쇠를 이용하여서 고급스럽게 만든 것도 있다. 대부분 상단부가 고사리 말림이나 납작한 볼로초 모양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고려시대부터 준용된 양식이다.

대체로 등잔대는 등경과 등가로 구분되지만 더러 한 등잔대에 등경과 등가, 등경과 촛대, 등가와 기름병을 함께 갖춘 경우가 있다. 등경, 등가, 촛대의 세 가지 기능 모두를 갖춘 형태도 있다. 등잔대에 다양한 기능을 덧붙임으로써 복합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불의 조도(照度) 강화뿐만 아니라 조명 재료 보관과 조명 수단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실용성을 한층 높였다. 아무래도 조명을 위한 장치로서 등잔을 올려놓는 단순한 한 가지 기능보다는 두세 가지 복합 기능을 갖추게 되면 효율성과 실용성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등잔 가운데 간혹 그 크기가 지름 20~30cm 안팎인 사발 모양의 큰 등잔이 있다. 주로 옥석이나 곱돌로 만든 것으로, 등잔의 양쪽 가장자리에 구멍을 뚫고 철사 고리를 달아 집안의 들보 같은 곳에 매달아 사용한 현등(懸燈)이다. 이러한 등잔은 일반 가정에서보다 궁궐이나 사찰, 굿당 등 규모가 큰 건물에서 사용되었다. 이 등잔도 불빛이 아름다워 중국과의 주요 교역물이 되기도 하였다.

실내에서 사용하는 등에는 등가나 등경 외에 불집(燈皮)을 씌운 여러 형태의 좌등(坐燈)이 있다. 나무로 잔상자 모양의 틀에 종이나 천 따위를 발라서 실내 전체를 은은하게 비추는 간접조명 방식의 등이다. 오랜 시간 불을 밝혀 두는 장식성이 강한 장등(長燈)과 기능적인 서등(書燈)이 있으며, 등피를 씌운 형태로 바람이 있는 실외에서도 안정감 있게 사용할 수 있다. 부엌에서 사용하는 좌등 또는 바닷등의 대표 예는 집등이다. 한자로 화사등(火舍燈) 또는 사등(舍燈)으로 표현되는 이 등은 바람을 막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다. 웅기나 토기 또는 자기로 돔(dome)이나 통형(筒形)의 몸체를 만들고, 등잔을 넣고 뺄 수 있도록 앞부분을 티웠으며, 위에는 환기구멍을 냈다. 에워싼 벽 때문에 등불이 여간하여서는 꺼지지 않는다. 주로 부뚜막 뒤쪽에 자리하지만

등 위쪽에 고리를 달아 손으로 들고 옮길 수 있도록 하였다. 부엌용 좌등에는 관솔을 이용한 제주 지역의 ‘돌코랭이’, 부엌과 방 사이에 두는 강원도 산간의 ‘두 등불’이나 ‘코쿨’ 같은 소박한 형태도 있다.

부엌용 벽걸이 등은 등잔걸이를 중심으로 문양을 조각한 것이 두드러진다. 나무를 깎아 만든 것 외에도 놋쇠·청동·무쇠 등 금속기류, 옹기나 자기 같은 도자기류 등 다양한 재질로 만들어졌다. 조선 후기 들어와 유기鑪器가 인기를 끌면서 벽걸이형 등에도 양식화된 놋 제품이 많이 만들어졌다. 주물 놋쇠에 등잔걸이 주위로 여러 가지 길상吉祥 문양을 새겨 넣거나 새 조각을 장식으로 붙여 복을 얻고자 하는 소망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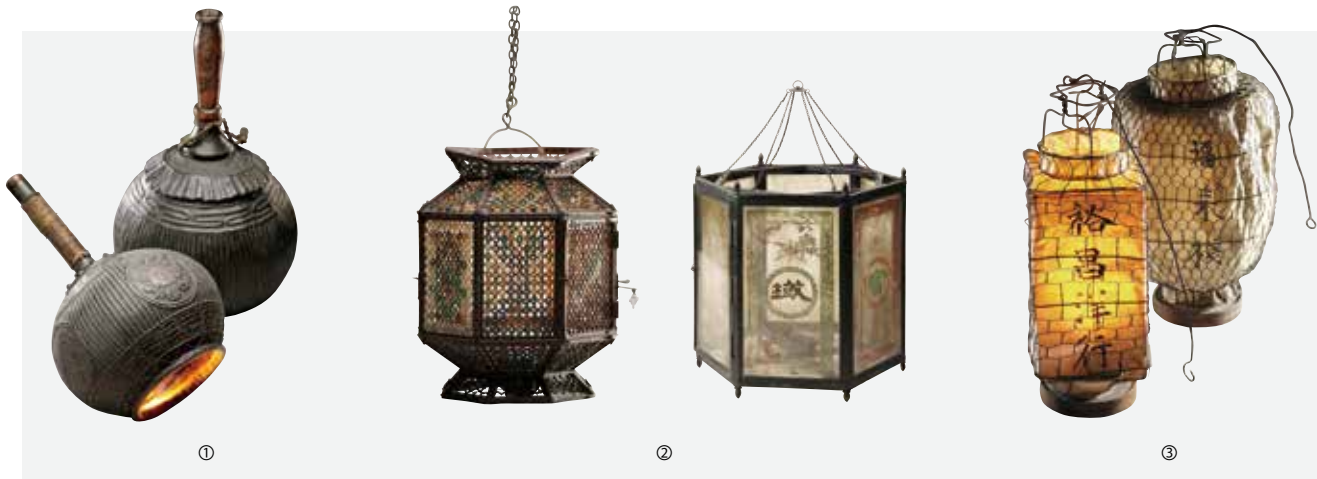
한편 집안의 벽이나 들보, 관청의 전각이나 누각의 천장에 매단 외등 양식으로서 괘등掛燈과 현등懸燈이 있다. 이러한 등에는 등피를 씌운 사방등四方燈·양각등羊角燈·요사등料絲燈, 상가喪家の 발등거리, 가게의 상점등商店燈·주막등酒幕燈이 있다. 외피外皮를 씌우지 않은 옥석등, 곱돌등, 무쇠등과 같이 형태나 재질에 따라 붙여진 다양한 이름의 등도 있다.

사방등은 네 면의 나무틀에 한지나 깁[紗], 유리를 끼워 그 내부에 등잔이나 초를 넣어 켤 수 있도록 만든 등이다. 양각등羊角燈은 양의 뿔을 얹게 펴서 씌워 만든 것으로, 여러 가지 문양의 채색화를 그려 넣었다. 요사등은 오색五色의 유리구슬[硝子玉]을 꿰어 외피를 입힌 매우 화려한 등으로, 일반 가정보다는 사찰이나 궁중에서 주로 사용하였다. 일일이 구슬에 구멍을 뚫은 다음 실에 꿰어 고정시켰다. 곱게 다듬어진 오색 유리구슬이 불빛에 반짝이는 모습은 매우 아름답고도 신비하여 황홀함을 느끼게 해 준다. 상가喪家를 알리는 발등거리는 지금도 볼 수 있는 등이다. 임시로 쓰려고 허름하게 만든 작은 초롱 형태이다. 대나 싸리 나무로 골격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상점등·주막등은 가게나 술집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매단 등으로, 가게 특성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였다. 특히 상점등의 하나인 색주가色酒家 홍등紅燈은 그 붉은 빛깔이 눈길을 끈다. 홍등가紅燈街는 붉은 등이 켜져 있는 거리라는 뜻으로, 나중에 유곽遊廓이나 기생집·술집 등이 늘어선 거리를 이르는 말이 되었다.

외피가 없는 현등인 옥석등·곱돌등·무쇠등은 초를 쓰지 않는 기름등잔으로, 등잔에 직접 기름을 붓고 심지를 꽂아 사용하였다. 규모가 큰 이들 등잔은 대궐의 궁문이나 사찰, 집안의 들보 같은 곳에 걸어 두고 사용하였다. 조선 초기 왕자의 난 때 정도전과 남은 등이 왕의 위독을 핑계로 밤에 한씨 소생의 여러 왕자를 불려내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훗날 태종이 된 정안군靖安君 방원芳遠이 궁중의 여러 문에 등이 밝혀져 있지 않은 것을 의심해서 위기를 모면하였다는 일화가 있다. 이 일화에서 14세기 말에도 이미 대궐의 궁문宮門에는 야간에 항상 현등을 밝혀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자루가 있어 들고 다닐 수 있게 된 제등提燈은 밤나들이에 길을 밝히는 일상생활의 필수품이었으며, 의·예식에서 휴대용으로도 사용되었다. 철사나 나무 등으로 골격을 만들고 표면에 종이나 깁[紗]을 씌웠으며, 공기 순환을 돕기 위하여 밑을 트고 위쪽으로 숨구멍을 내었다. 등의 위쪽에는 고리나 손잡이를 달아 들고 다니기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유리가 수입된 후에는 틀에 유리를 끼워 사용하였다. 내부에 초를 넣는 것을 ‘초롱[燭籠]’, 등잔을 넣는 것을 ‘등롱燈籠’이라고 하였다. 또 등피의 재질에 따라 깁을 씌운 것은 사롱紗籠, 종이를 씌운 것은 지롱紙籠이라 불렀다.

등잔 연료로는 주로 기름을 사용하였다. 식물성 기름으로는 참기름, 들기름, 콩기름, 아주까리[蓖麻子]기름, 동백기름, 면실유棉實油 등이 있다. 동물성 기름으로는 고래기름, 상어기름, 정어리기름 등 어유魚油와 돼지기름·쇠기름 같은 동물성 유지油脂가 사용되었다. 등잔에 기름을 붓고 심지를 넣어 사용하였다. 심지는 솜[綿]이나 삼실[麻絲], 한지韓紙 등을 꼬아서 만들었다. 기름을 담은 등잔에 심지 끝이 살짝 밖으로 나오게 걸치거나 심지를 몇 가닥으로 꼬아 새발[鳥足]처럼 세우는 새발심지가 일반 형태이다. 등잔에 사용한 전래의 기름들은 석유가 수입되면서 일제히 석유로 대체되었다. 등잔 형태 또한 종지형에서 호형壺形 또는 원통형圓筒形으로 바뀌었다. 석유의 인화성引火性 때문에 따로 뚜껑을 만들고 여기에 심지[燈心]를 박아 사용하였다.



등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① 조죽등 | 높이 37~43 밀지름14~15 ② 요사등(현등) | 높이31~55 너비23~54 ③ 상점등 | 높이32 밀지름10

등

특징 및 의의 어둠을 밝혀 빛을 비추는 등은 밀랍이나 동물성 유지를 활용한 고체연료인 초와 관솔을 제외하면 모두 액체의 기름을 연료로 사용한다. 이 때문에 종지형의 불 그릇인 등잔이 등의 대명사가 되었다. 등잔은 조명을 위한 높이를 얻기 위하여 등잔대를 필요로 하며, 등가 또는 등경과 한 짝을 이루어 사용된다. 등가나 등경 위의 등잔불은 주로 실내에서 직접조명으로 사용되었으며, 나무로 틀을 짜 종이나 김을 붙인 좌등은 공간 전체를 은은하게 비추는 간접조명으로 사용되었다. 실외 대청이나 부엌, 대문 등의 공간에는 옥석등이나 곱돌등 같이 규모가 다소 큰 등잔이나 다양한 재질의 등피를 씌운 등을 천장의 들보 또는 벽면에 걸어 사용하였다. 특히 등피를 씌운 현등 중에는 상가의 발등거리나 상점등처럼 건물을 알리는 표식으로 활용되었다.

바닥등과 현등 외에 이동식 등기로 제등이 있다. 일상생활에서는 야간 밤길을 밝히는 필수품이지만 각종 의례에서도 활용되는 중요한 물품이었다. 땃가치나 쇠로 부챗살처럼 뼈대를 갖춘 다음 안팎으로 기름 종이를 발라 습기에 강하게 하였으며, 아래를 트고 윗 부분에도 숨구멍을 내서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였다. 조죽등처럼 흔들림 속에서도 불이 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 내부에 회전식 철제 초꽃이를 설치하여 등이 상하좌우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도 항상 초가 수평을 유지하고 불이 쉽게 꺼지지 않도록 하였다.

석유가 수입되기 시작하면서 등불의 연료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편리성과 효율성이 높은 석유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석유의 인화성 때문에 등잔 형태도 뚜껑을 닫은 원통형 또는 호형으로 변화되었고, 명칭 역시 호롱(불)으로 바뀌었다. 남포불로 불리는 서양식 램프도 도입되었다. 20세기 이후에는 등잔이라는 명칭은 남아있지만 그 형태는 대부분 호롱을 가리키게 되었다.

전등이 도입되었지만 전통 등기가 완전히 자취를 감춘 것은 아니다. 제사나 혼례식 때 환한 전기조명 아래에서도 촛불을 밝혔으며, 상가(喪家)에도 여전히 발등거리가 달렸다. 또 혼례를 앞둔 신부 집에 함이 들어올 때면 함진아비 앞에 어김없이 청사초롱을 밝힌 등잡이가 있었다. 그런가 하면 초 대신 작은 전구로 바뀌었지만 석가탄신일 연등처럼 옛 형태의 각양각색 등이 사찰뿐만 아니라 거리를 밝히고 우리 마음도 밝혀 준다. 전통과 관습의 생명력은 그렇게 끈질기다. 조명으로 등잔은 전등에 밀려났지만 각종 의례에서 여전히 그 명맥을 이어 가고 있다.

한편 등잔은 옛 노래와 이야기 속에 살아남아 작은 등불을 중심으로 온 가족이 웅기종기 모여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하루를 마감하던 그 시절을 추억하게 한다. 등잔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 시절 우리 삶의 불편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등잔불 아래에서 식구들이 나누던 가족 간의 정과 가족의 구심을 그리워한다.

참고문헌 高麗圖經, 高麗史, 梅泉野錄, 世宗實錄地理志, 續大典, 承政院日記, 林園經濟志, 등산(한국등산박물관, 1999), 삼국시대 등기 연구(이상일, 한국상고사학보104, 한국상고사학회, 2019), 불의 민속(국립민속박물관, 1996), 빛(국립민속박물관, 2005), 우리의 옛 불그릇(양의숙, 예나르, 1994), 전기역사를 찾아서(민병근, 전기저널376~449, 대한전기협회, 2008~2014), 한국의 고등기(한국전력주식회사, 1968), 두산백과사전(doopedia.c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e뮤지엄(emuseum.go.kr).

필자 민병근(閔丙謹)

디딜방앗간

정의 발로 디디어 곡식을 찧는 방아틀을 설치한 간.

개관 방아는 긴 나무의 한 끝에 공이를 박고 두 갈래로 된 것을 한 발로 디며서 공이가 오르내리는 기구를 말한다. 바닥에는 돌확이 설치된다. 디딜방아는 벼농사를 짓는 지역에서 발명되었고, 곡식을 찧거나 빵고 떡을 치는 전형적인 농기구 가운데 하나이다. 이는 중국 사람들이 발명하였으며, 우리나라에는 4세기 이전에 중국에서 들어왔다고 한다. 고구려 고분벽화인 황해도 안악3호 무덤에 디딜방앗간이 그려져 있는데, 한 칸 규모의 기와를 얹은 우진각지붕으로 묘사하였고 지붕 위 양쪽의 치미를 강조하고 있다. 디딜방아는 우리나라, 중국, 일본을 비롯하여 동남아시아 대륙과 도서 지역에서 사용되었다. 또한 네팔과 인도를 포함하여 대만, 필리핀, 오세아니아, 소아시아에도 있었다. 유럽에는 중세 이후에 들어갔지만 물레방아 등에 밀려서 퍼져 나가지는 못하였다. 디딜방아에는 다리가 가위다리 꼴로 갈라진 두다리방아와 다리가 곧게 뻗은 외다리방아가 있다. 세계 여러 지역의 디딜방아는 모두 외다리방아뿐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더불어 두다리방아를 주로 사용하였다. 두다리방아는 우리의 발명품으로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작업능률을 올리는 데 외다리방아보다 더욱 효과적이다. 4세기 고구려 약수리 무덤 그림의 방아가 두다리방아일 가능성이 높으며, 요동성 무덤 그림에서도 두다리방아의 특징인 갈라진 다리의 모습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내용 디딜방앗간이 모든 주택에 설치된 것은 아니다. 보통 농촌주택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중급농가 이상의 주택에 디딜방아를 설치한다. 일반적으로 주택 내에서 디딜방앗간을 독립된 건물(채)로 만든 경우는 없고, 잣간이나 그 외에 잡용구를 수납하는 일종의 격납공간인 헛간에 접하여 만들어진 것이 많다. 디딜방앗간의 대부분은 이 헛간을 주체로 하는 건물 끝의 한 칸 내지 두 칸에 만들어진다. 방앗간 건물 뒷면과 헛간과 연이어 있는 측면에만 토벽을 설치하고, 다른 두 면은 문을 달지 않고 개방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드물게 전면을 제외한 세 면의 벽면을 가진 것도 있다. 여기에는 디딜방아 외에 채와 곡물의 정성기구나 이것을 말리기 위한 짚으로 짠 깔개 등을 둔다.

특징 및 의의 상류가옥의 디딜방앗간은 흔히 안채 부엌 가까이에 두지만 곳간 옆에 두기도 한다. 규모는 대체로 곳간을 포함하여 전체 세 칸이며, 지붕은 짚으로 덮는다. 디딜방앗간의 천장에는 줄을 내려 두 사람이 갈라 쥐고 두 다리의 방아를 쉽게 찧을 수 있도록 한다. 방앗간 한쪽에는 곡식가마를 쌓아 두는 곳간이나 허드레 잡기를 모아 두는 헛간, 혹은 여성 전용의 안뒷간이 딸리기도 한다. 중류가옥에서는 방아를 헛간 채에 두고 도장과 함께 쓴다. 상류층에서는 거의 집집마다 디딜방아를 갖추었고, 중류층에는 네다섯 집에 한 집꼴로 있었다.



디딜방아 | 태평성지도 중 부분 | 조선 후기 | 국립중앙박물관

마을 공동방앗간은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길이나 삼거리 등에 놓는다. 방앗간은 동쪽에 두는 것이 좋은데, 동쪽은 해가 뜨는 양陽의 방향으로 상서로운 기운을 받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마을 공동방앗간은 네 귀에 기둥을 세우고, 보를 걸고 그 위에 도리와 서까래를 걸쳐 지붕에 벚짚을 덮은 정면과 측면이 한 칸 규모의 초가집 형태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규모가 큰 것은 정면을 두세 칸으로 하고 공간을 몇 달기도 한다. 디딤방아를 방앗간에 설치하지 않고 노천에 세우는 경우도 있다. 이는 산간에서 발견된다. 비나 눈이 내릴 때 쓰지 못하는 단점이 있지만, 지역의 특성상 찢을 곡식이 많지 않고 물방아, 물레방아, 절구 등이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디딤방아 연구(김광언, 지식산업사, 2001), 한국건축대계4-신편 한국건축사전(장기인, 보성각, 1998), 한국주택사연구(김정기, 국립문화재연구소, 2017),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stdict.korean.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남호현(南虎鉉)

디딤돌

정의 집채의 앞뒤에 디디고 오르내리도록 마루 아래나 뜰에 놓은 돌 또는 돌층계.

내용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도와주는 중간 단계의 돌을 말한다. 또는 디디고 다닐 수 있도록 마당에 일정한 간격으로 드문드문 놓아둔 평평한 돌과 특수한 형태로 말을 탈 때 딛고 서서 올라타기 편하게 놓은 노뚝돌도 이에 속한다.

마루에 올라서기 편하게 놓은 디딤돌을 보통 보석步石 또는 섬돌이라 부르는데, 적당한 크기의 자연석을 약간만 다듬어 쓰기도 하지만 건물의 위상이 높은 경우 화강석을 잘 다듬어서 장대석을 만들어 쓴다. 한국의 전통적인 가옥에서는 대청마루의 중앙부 뜰에 놓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마루가 아니더라도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문지방이 높은 경우에는 사랑방

등, 문지방 안팎의 뒷마루 아래에 놓아 사용하기도 한다. 민가에서도 자연석 돌을 놓아 디딤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마루가 없이 바로 방으로 드나드는 뜰에도 놓는다.

자연석으로 만든 디딤돌은 잘 다듬은 장대석 디딤돌에 비해 정갈하고 세련된 맛은 없으나 독특한 자연적인 정감이 한껏 드러난다.

큰 기와집에서는 디딤돌 대신 나무로 3계단 층층다리를 만들어 디딤돌과 같이 사용하는데, 이 경우 각 칸마다 놓는 것이 일반적이다. 잘 지은 집에서는 디딤돌의 길이를 길게 하여 주초석과 주초석 사이를 꽉 채우기도 하고 약간만 띄워 놓기도 한다. 마루나 방이 상당히 높은 경우에는 디딤돌을 2단으로 놓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아랫단은 넓게 하고 그 위에 다시 한 단을 놓아 계단 형식으로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돌 대신에 큰 나무토막을 놓아 디딤돌을 대신하기도 한다.

한편 노인이 있는 집에서는 디딤돌 바로 위 천장에 잡을 수 있는 끈을 매달아 오르내리는 데 힘들지 않게 하였으며,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팡이를 디딤돌 바로 옆에 두는 경우도 많았다. 우천 시에 대비하여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산이나 우비를 비치해 두기도 하였다. 겨울철에는 차가운 디딤돌 위에 발이 시리지 않도록 짚으로 엮은 멍석이나 양탄자 등을 깔아서 사용하기도 하였다. 디딤돌을 딛고 올라 선 다음에는 내려올 때 편하도록 신었던 신발을 밖으로 향하게 가지런히 정리해 두었다.

마당에서 기단으로 오르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계단을 만들어 썼지만, 기단이 그렇게 높지 않으면 간단한 장대석을 디딤돌 형태로 한 단 놓아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디딤돌은 좀 더 발전된 형식인 계단의 원초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계단의 바닥돌은 그대로 디딤돌이라 할 수 있고, 높이에 따라 여러 개의 디딤돌을 중첩하여 놓은 것이 계단인 것이다.

특징 및 의의 디딤돌은 동선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역할을 하였다. 여러 칸의 마루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지정된 디딤돌을 통하여 들어가게 된다. 그 결과 디



디딤돌 | 경북 안동 | 최지현



잡을끈 | 경북 안동 하회 충효당 | 최지현

디딤돌은 건물이 유지되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디디고 오르내려 마모되어 닳아 있거나 반질반질한 광택이 난다. 따라서 디딤돌의 형태와 재질, 크기, 마모된 상태 등을 통하여 건물의 위상은 물론 건물의 이력까지 읽을 수 있다.

기단이 높아지면 계단을 두어 오르내리게 되는데, 보통 기단에 쓰인 돌을 이용하여 계단을 만들었다. 디딤돌이나 계단의 옆면을 막는 돌을 소맷돌이라 하는데, 잘 만든 계단이나 디딤돌의 소맷돌에는 연꽃이나 연잎을 선각線刻하여 딛고 올라가는 사람이나 보는 이로 하여금 부드러운 느낌을 가지게 함과 동시에 그 위상과 강한 상징성을 내포하기도 한다. 대문에 들어서면 높은 기단 위 건물의 위용에 압도되고, 계단과 디딤돌을 오르면서 마음은 더욱 위축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경주 불국사의 연화교에는 디딤돌마다 연꽃이 조각되어 있어 부처의 세계로 들어감을 표현하고 있으며, 보은 법주사의 대웅전 앞 디딤돌에도 연잎을

새겨서 이와 같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자연석 디딤돌이거나 계단석을 둘 때와 판석·장대석 디딤돌이나 계단석을 둘 때는 그 장식과 위상에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판석·장대석 디딤돌이나 계단석에는 그 양쪽 마구리에 통석으로 된 소맷돌(대우석)을 설치하기도 하고 화려한 문양을 조각하기도 하였다.

6칸 제사·의례 건물이 있는 대청에는 돌계단과 디딤돌을 놓았는데, 동쪽에 있는 것을 조계階階·동계東階라 하고 서쪽에 있는 것을 서계西階라 한다. 제사나 관혼상제 등의 의식을 할 때 주인 또는 제주는 조계를, 손님이나 제사 참석자들은 서계를 통하여 올라와 대청의 동·서에 자리를 잡는다. 의식을 마치고 손님을 접대할 때에도 주인과 손님이 반드시 조계와 서계를 구분하여 오르내린다.

참고문헌 한국의 살림집(신영훈, 열화당, 1983), 한옥 전통에서 현대로-한옥의 구성요소(조전환, 주택문화사, 2008).

필자 김길식(金吉植)

뜰집

정의 조선시대의 경상좌도慶尙左道였던 경상북도 안동권과 경주권 및 영동권에 분포하는 폐쇄적 안마당을 가진 ㅁ자형 기와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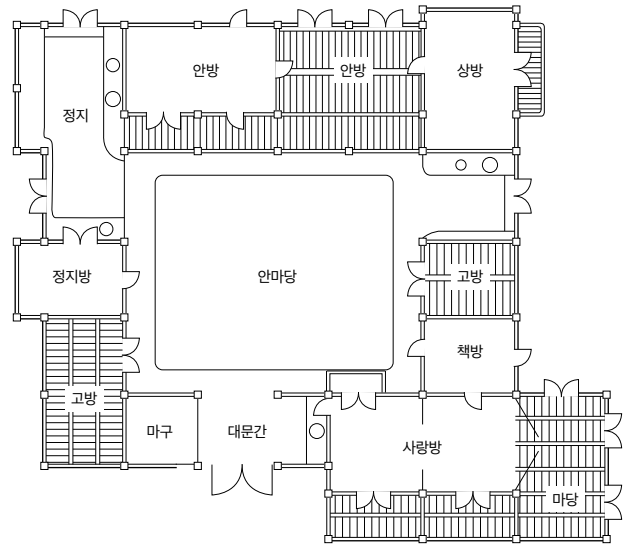
개관 뜰집은 조선 전기에 경북 안동 및 경주에서 형성되어 조선 중기에 영동지역까지 전파되었고, 조선 후기에 밀도가 높아져 현재는 안동권(경북 안동, 영주, 봉화, 영덕, 영양, 예천, 의성, 청송)에 300여 호, 경주권(경북 경주, 포항, 영천)에 20여 호, 영동권(강원도 강릉, 동해, 삼척, 울진)에 50여 호가 남아 있다. 경상도의 중심이었던 대구와 경상좌도에 속한 경북 상주, 경상남도 진주권의 보편적 구성 유형인 ㅁ자집(3채 혹은 4채로 이루어진 채 사이가 개방적으로 구성된 집)과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 조선시대 최상류층의 주거라 할 수 있는 왕족의 주거인 궁집(대군, 군,

공주, 웅주 등이 결혼하여 분가한 주거)은 넓은 기호 지방에 분포하면서 유형적 공통점도 적다면, 뜰집은 지역성이 좁고 유형성도 명확하다. 뜰집은 안마당을 중심으로 안채는 내향적으로, 사랑채는 외향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사랑채와 안채가 모두 안마당에서 출입하는 서울의 근대 도시한옥들의 내향적 구성과도 분명히 다르다.

내용 기원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뜰집이라는 용어는 경북 영덕, 영양, 울진 지방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구전에 의하면 가장 오래된 뜰집은 경주 양동마을의 송첨 종택(1454년 건축)이다. 안동(140여 호)에 가장 많으며 봉화(57호)와 영덕(47호)에도 많다.

뜰집의 공간구성은 대문에서 사랑마당을 거쳐 사랑채를 먼저 접하게 되고, 사랑채 옆의 중문을 통과하여야만 안마당으로 진입하게 되어 안채를 접하게 된다. 조선 후기에 두 채 혹은 세 채로 이루어진 근대적 뜰집이 형성되었지만, 안마당은 폐쇄적으로 구성되어 동과 동 사이를 담으로 막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구성은 안마당의 내부를 완전히 위외(圍繞)하기 위한 의도로 여성의 생활공간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뜰집의 규모는 10~50여 칸으로 다양하지만, 15~25칸이 3분의 2 정도를 차지한다. 안마당은 정방형에 가까운데, 그 폭은 1~5칸이나 2, 3칸 폭이 대부분이다.

뜰집의 유형은 배치, 평면, 구조, 지붕의 형식에 따라 나눌 수 있다. 배치는 본체에 사당, 별당, 대문채, 부속채(고방) 등의 유무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된다. 본체의 평면은 ㄷ자형의 구성을 기본으로 횡방향 및 종방향으로 변형되며, 주로 사랑채의 영역에 많은 확장이 이루어진다. 사랑채와 안채의 생활공간은 홑집, 반겹집, 겹집으로 규모가 다양지만 시대에 따른 변화가 잘 반영되어 있다. 한 마을에서만 보면 씨족마을이 대부분이어서 종가에서 작은집으로 분가하고 또다시 분가하였기에 후기로 갈수록 규모가 작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벼슬을 받거나 더 크게 짓고 싶을 때는 딴 마을로 이동(移洞)하여 건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구조는 본체의 마루 구성에서 일반적으로 3량



영남형 뜰집 | 한국의 민가 | 조성기·한올아카데미



뜰집 | 경북 안동 | 최지현

과 5량의 구조이지만, 직각방향의 익랑(翼廊) 구조가 연결되면서 타 지방에는 없는 특이한 방식인 서산각집과 우산각집의 구조가 형성된다. 서산각집은 맞배지붕이 겹쳐져 상하로 결합되어 이어진 구조이며, 우산각집은 처마선이 같은 높이로 결합되어 외부 모서리에 팔작지붕의 추녀가 보이는 수평으로 결합된 구조이다. 이들 지붕에 사랑채나 안채의 대청이 팔작지붕으로 겹쳐져 매우 다양한 지붕구조로 발전하였다. 경사지에 적합한 형식인 서산각집은 기단의 윗면이 경사진 흘림기단으로 형성되어 뜰집의 가장 특징적 구조이지만, 가장 오래된 송첨 종택에서부터 적용된 구조이기도 하다.

특징 및 의의 뜰집은 일반적으로 퇴계의 학통을 잇는 영남학파의 후학들이 대부분 건축하였으며, 이 문중들은 의성김씨(義城金氏), 진성이씨(眞城李氏), 안동권씨(安東權氏), 재령이씨(載寧李氏), 풍산김씨(豊山金氏), 문화류씨(文化柳氏), 영양남씨(英陽南氏) 등으로 많은 뜰집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학맥을 거쳐 혼맥으로 이어져 뜰집이라는 전통문화의 맥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뜰집은 조선시대 영남학파의 양반주거 형태로서 그 특이성과 명확한 공간성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 주거유형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조선시대 안동문화권의 뜰집에 관한 연구(김화봉,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한국의 뜰집(권영민 외, 기문당, 2013).

필자 김화봉(金華峰)

□자집

정의 주거 형태가 안마당을 둘러싼 □자형이며, 지붕이 하나로 연결된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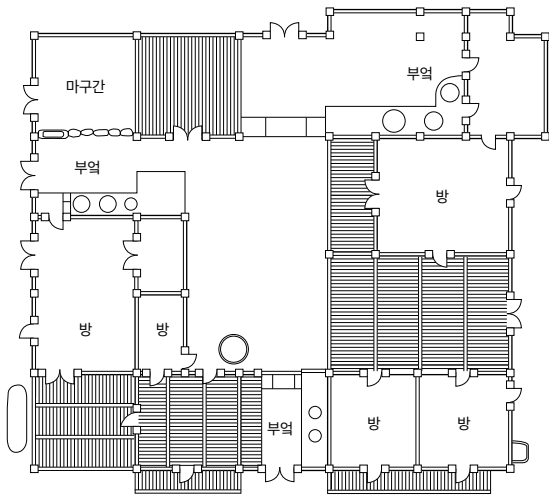
내용 □자집은 주거의 각 실이 □자형을 이루며 안마당을 둘러싼다. 전통 민가는 살림채와 부속채가 안마당을 형성하며 배치되는데 □자집은 안마당이 완결된 형태로 나타나는 집이다. □자집은 집 전체가 한 동으로 이루어졌는지 분동되어 있는지에 따라 □자집과 튼□자집으로 구분된다. 튼□자집은 대체로 ㄱ자형 안채와 ㄴ자형 바깥채가 마주하는 형태를 취한다. 一자집 네 채를 사방에 배치하거나 ㄷ자집이 一자집과 함께 튼□자형 배치를 하기도 한다.

□자집은 살림채와 부속채가 한 동으로 결합된 형태이다. 지붕이 하나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튼□자집에 비하여 마당의 폐쇄성이 높다. 안마당 규모에 따라 폐쇄도가 달라지며, 실과 마당 관계에도 차이가 있다. 규모가 가장 작은 □자집은 꺾리집이다. 꺾리집은 3×3칸의 세겹 집에서 가운데 한 칸에 지붕을 뚫어 마당을 만든 형태이다. 구멍이 뚫린 지붕 모습이 꺾리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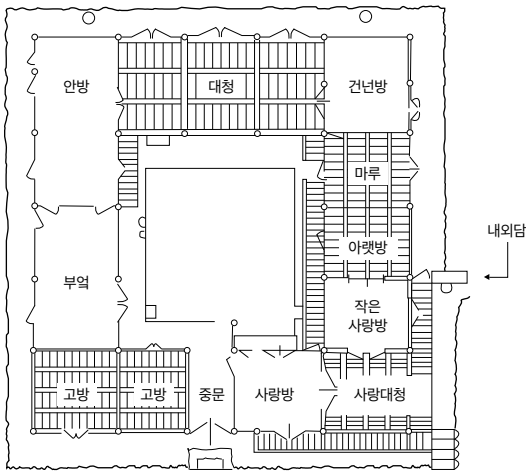
같다고 하여 이와 같은 이름이 붙여졌다. 황해도 지역에서는 띄새집으로도 불린다. 꺾리집은 8칸집이 기본이며, 지역에 따라 실 구성에 차이가 있다. 평안도 집들은 대부분 마루를 두지 않으나 황해도는 마루를 두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경기도와 다르게 마루를 중앙에 배치하지 않고 안채 날개부에 배치한다.

경상북도 안동과 그 주변 지역에서는 □자집을 뜰집이라고 한다. 뜰집은 경북 중·상류 주택을 대표하는 주거 유형이다. 뜰집은 안마당 규모가 가로·세로 각각 두 칸이 보통이며, 살림채 공간 구성이 안동·봉화·울진 등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여칸집과 유사하다. 여칸집에서 봉당과 마루에 해당하는 부분을 확대하여 중정을 만들면 □자집이 된다. 뜰집은 안마당을 중심으로 안쪽에 안채 영역과 바깥쪽에 사랑채 영역이 하나로 결합된 형태이다. 안채 영역은 평면의 중심에 대청을 두고 안방과 건넌방이 자리하며, 사랑채 영역과 안채 영역 사이는 부엌 및 부속 공간 등으로 채워진다. 안마당은 안채의 쾌적한 생활에 필요한 채광과 통풍을 위하여 적절한 규모가 필요하다. 안마당 크기는 안채의 실 구성과 대청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상류층 주택은 3×3칸 규모 이상의 안마당을 갖추고 있다.

□자형 상류 주택은 안채의 실 구성에 따라 두 가지 평면 유형으로 분류된다. 하나는 부엌·안방·대청·건넌방(상방)이 이어지는 형태, 다른 하나는 정면 3칸의 대청을 중심에 두고 좌우에 안방과 건넌방이 있는 형태이다. 전자는 민가의 기본형인 一자집에서 ㄱ자집, ㄷ자집, □자집으로 발전되는 마지막 단계의 완결된 모습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평면 중심에 대청이 있는 □자집은 소위 민가형 □집과는 공간 구조가 다르다. 안마당에 들어서면 넓은 대청이 마당을 향하여 열려 있어 대청이 집의 중심 공간임을 알 수 있다. 상류 주택에서 대청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행례의 중심이다. 제례를 비롯하여 모든 의례가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주거를 계획할 때 안채의 중심에 먼저 3칸 대청을 놓고 좌우에 안방과 건넌방을 배치한 후 □자형 틀 속에 사랑채와 부속 공간들을 배치하였다. □자집은 대부분의 공간이 안마당과 관계를 맺으며, 바깥쪽을 등지고 안마당을 향하고 있다. 그러나



□자집 평면도 | 경북 안동 일성당 고택 | 문화재청



□자집 평면도 | 경북 경주 양동 송첨 종택 | 강영환

남성의 공간인 사랑방과 사랑대청은 집 바깥쪽을 향하고 있다. 사랑 공간은 대문간 우측(동쪽)에 위치하는 것이 보통이다. 유교 의례에서 남동여서(男東女西) 원칙이 주거 공간 계획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6세기 이후 예제가 정착되고 종법질서가 확립되면서 상류 주택은 사랑채 영역이 확장되는 경향을 보였다. □자집은 사랑대청 등이 발달하면서 전면 한쪽으로 사랑 부분이 돌출되거나 좌우로 돌출된 날개집 형태를 이루기도 한다.

특징 및 의의 □자집은 폐쇄적인 안마당을 형성한다. 경

북 안동을 비롯한 주변 지역에서는 뜰집이라고 한다. 뜰집은 경북 지역에 집중 분포하며 조선시대 중·상류 주택의 대표 유형이다.

참고문헌 경북·강원 태백산간지역의 소규모 뜰집에 관한 연구(유재우 외,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29-8, 대한건축학회, 2013), 경북 북부지방의 뜰집과 2자, ㄷ자, ㄱ자형 주거의 공간구성 비교 연구(김화봉, 한국주거학회지7-1, 한국주거학회, 1996),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예제적 체계에 관한 연구(홍승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한국의 민가(김홍식, 한길사, 1992), 한국의 민가(조성기, 한울아카데미, 200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홍승재(洪升在)

마당

정의 건물에 둘러싸인 땅으로, 여러 기능을 하는 공간.

내용 마당의 발달은 살림집 채(棟)의 발달과 관련이 깊다. 선사시대에 움집이 지어지고 주변에 외부 공간이 마련되면서 마당은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고대에는 주택이 기능별로 나뉘고 그 주변에 마당이 형성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상류층을 중심으로 주택에 유교 생활 방식이 반영되어 사랑채·안채·사당·행랑채 등으로 건물이 분화되면서 마당도 사랑마당, 안마당, 사당마당, 행랑마당으로 분화되었다.

전래의 마당은 맨땅으로 비어져 있었지만 20세기에는 도심지 개량한옥 중심으로 안마당은 바닥이 포장되거나 꽃과 나무가 심어지고 수도 시설 등이 설치되었다. 단독주택 마당도 잔디나 나무가 심어지면서 정원으로 일반화되었다.

마당은 20세기 이전에는 기능에 따라 명칭이 달랐다. 『훈몽자회(訓蒙字會)』 등 15~16세기 문헌에는 마당이 한글로 뜰(뜰)·말·뜰으로 표기되어 있고, 한자로는 정(庭)·원(院)·원락(院落)·장(場)·포(圃)로 표기된다. 17세기 가례서(家禮書)를 보면 정(庭)은 의례가 이루어지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17세기 말~18세기 말 문헌에서는 타맥장(打麥場)·타량장(打糧場)·나락마당을 장원(場院)이라 하였으며, 『아언각비(雅言覺非)』에서는 탈곡[打穀]하는 곳을 마당(麻當)이라 하였다. 따라서 뜰(庭)은 의례가 이루

어지는 장소이고 마당은 탈곡하는 장소였으나 오늘날 마당으로 통일된 것으로 보인다.

마당은 건물과 대응하는 주거 공간으로, 집이라는 격을 갖추기 위하여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소였다. 마당에서 방과 대청이 모두 보이고 방과 대청이 마당을 향하여 있어서 마당을 집의 중심으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또한 『훈몽자회』에서 뜰庭(뜰)을 천정天井이라 풀이하고 가옥 좌향坐向을 볼 때 마당인 ‘천정’에 나침반을 놓는 것도 마당의 중심성과 연관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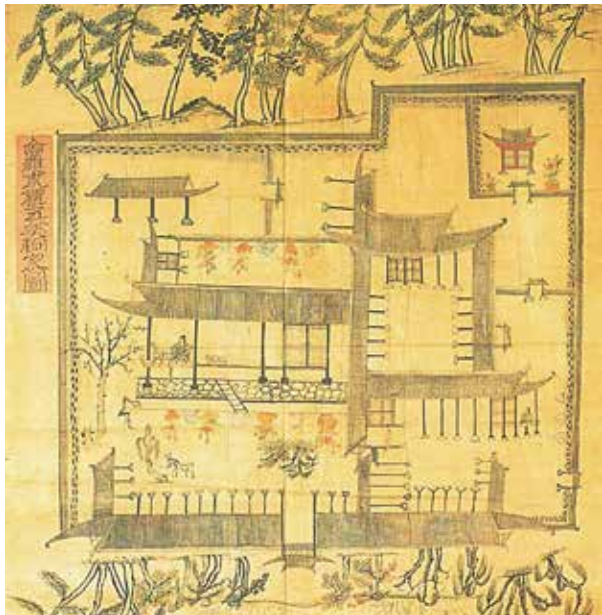
마당은 지형과 같은 자연 요인, 경제력이나 생활관습과 같은 사회 요인의 영향과 함께 마당 주변의 건물(채), 담, 울타리, 수목에 따라 그 크기와 모양·개수가 다르다. 크기는 아주 작은 규모부터 큰 규모까지 다양하며, 모양은 대개 네모난 형태이지만 주변의 요소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가 된다. 마당의 수도 집에 따라 한 개부터 여러 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마당의 크기와 모양은 집의 배치와 매우 밀접하다. 사랑채, 안채, 행랑채가 분산된 경우에는 마당이 크지만 채가 집중된 경우에는 마당이 좁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집 외부와 면하는 사랑채의 마당은 드넓고 개방된 형태이며, 집 안쪽 깊숙이 자리 잡은 안채의 마당은 좁고 폐쇄된 형태이다. 도시와 농어촌 가옥 마당도 서로 다르다. 도시 가옥은 집터가 좁은 탓에 마당도 좁지만 농어촌 가옥은 집터가 넓어서 마당도 넓다. 일부 지역에서는 살림채 앞을 바깥마당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주거 영역이 살림채로 한정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겹집의 집 안 안마루 앞에 있는 흙바닥을 봉당이라 하는데 이곳은 마당의 기능을 일부 담당하였다.

특징 및 의의 마당은 우리 특유의 외부 공간으로, 이곳에서는 집의 실내가 좁아서 실내에서 하지 못하는 생업과 의식주 등 다양한 활동이 펼쳐진다. 마당의 기능은 매우 다양하다. 사람이 사는 데 필요한 양기陽氣를 받아들이는 곳으로, 채광과 통풍에 필요한 물리적 공간이자 집 안과 바깥 또는 채와 채를 이어 주는 통로이기도 하고, 집의 각 영역을 구분하기도 한다. 또한 관혼상제 같은 집안의 대소사 때는 의례 공간이나 보조

공간이기도 하고,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하는 한몫부엌을 두는 장소이기도 하였다. 농가에서는 채소와 가축을 기르고 추수 때면 농작물을 타작하거나 말리며, 떡메질·절구질·방아질도 하였다. 마당에 우물이나 수도가 있으면 세면과 등목, 설거지, 음식재료 씻기 등이 이루어졌다. 그뿐만 아니라 마을 풍물패가 노는 곳이며, 더위를 피하여 가족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였다. 그리고 뒷마당은 된장·간장·고추장과 같이 우리의 식생활에서 필수 식품을 저장하는 장독대를 설치하고 집터를 관장하는 터주신을 모시는 장소였으며, 수장 공간 역할도 하였다. 마당은 정서에도 도움을 주었다. 방이나 대청에서 마당을 보면 기후와 시간 변화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고, 마당에서 건물을 보면 문과 창, 대청, 주련, 편액 등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사랑마당이나 뒷마당에 심은 꽃과 나무는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다준다. 이처럼 마당은 생산과 작업, 의례, 채광과 통풍, 공간 분리, 통로와 같은 물리적 기능과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건물과 함께 집에 필요한 기능을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음과 양의 속성으로 볼 때 건물은 양, 마당은 음이어서 음양의 상보 결합을 통하여 건물과 마당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단위로 할 수 있다.

마당이 여러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비워져



윤조루가도 | 전남 구례 윤조루 고택



평생도 | 국립민속박물관

있어야 한다. 꽃, 나무, 잔디로 채워진 외국의 정원과는 달리 채우지 않고 비움으로써 언제든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마당은 주거공간 바깥에 있지만 마치 실내공간과도 같으며, 비어 있되 언제나 무엇으로든 채울 수 있는 여백 공간으로서 기능을 하였다. 그래서 전래의 마당은 비워 놓지만 풍수상 사신四神의 역할과 정서를 고려하여 식재植栽하기도 하였다. 『산림경제山林經濟』에서는 뜰 가운데에 나무를 심으면 좋지 않으며, 오래 심어 놓으면 재앙이 생긴다고 하였다. 마당의 기능인 곡물 건조를 위하여, 마당은 규모가 크고 습기 없이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며

평탄한 외부 공간이어야 하였다. 이에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는 곡물 건조와 작업 장소로서의 조건에 관하여 기술하기도 하였다.

미국의 인류학자 코닐리어스 오스굿Cornelius Osgood(1905~1985)은 1947년에 강화도 선두포 가옥을 방문한 후 『The Koreans and Their Culture (한국인과 그들의 문화)』에서 “(마당은) 남자들의 작업공간이자 모임공간이다. …… 아이들이 뛰어놀고 노인들이 시간을 보내곤 한다. 마당을 모르는 사람은 결코 한국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고 적어 놓아 마당이 한국 고유의 특성을 띤 공간임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마당의 이런 특성에 착안하여, 한때 ‘우리 민족의 고유한 생활공간, 문화의 창조적 공간’이라는 의미의 제호를 사용한 월간 종합잡지 『마당』도 있었다.

마당은 집에서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공간이기에 우리말과 속담에 많이 등장한다. ‘마당쇠’는 머슴을 이르던 단어이고, ‘마당을 빌리다.’는 속담은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초례식을 지낸다는 뜻이며, ‘남산에서 돌팔매질을 하면 김 씨나 이 씨 집 마당에 떨어진다.’라는 속담은 우리나라 사람의 성에 김 씨와 이 씨가 많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마당은 집안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참고문헌 山林經濟, 雅言覺非, 林園經濟志,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채와 마당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기량,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집의 사회사(강영환, 웅진출판사, 199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기량(奇亮)

마루

정의 널빤지를 깔아 만든 바닥 또는 널빤지로 바닥을 이룬 공간.

개관 지면으로부터 일정한 높이로 들어 올린 마루는 습기나 지열 혹은 해충이나 짐승을 피해 거주 공간을 구성하기에 유리하다. 마루는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들어 올려 설치한 선사시대의 고상식高床式 건축에서부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 고분벽화나 고대 가야의 토기에서 이와 같은 고상식 건물을 볼 수 있다. 전통한옥의 대청이나 툇마루, 다락과 바닥을 들어 올려서 멀리 조망하기 위한 원두막이나 정자 건축 등에 마루가 사용되었다.

본래 독립된 건물을 이루던 마루를 온돌과 함께 하나의 건물 안에 구성하는 방식은 한국건축의 독특한 특성으로, 대략 고려 말경에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마루를 깎은 공간은 대청과 같이 제사를 위한 의례 공간이나 생활공간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광 혹은 고방 같은 수납공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전통 생활공간이나 의례공간으로서의 마루는 대개 적어도 한 면에 벽체가 없거나 완전히 개방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근대기에 들어와 유리문이 설치되면서 내부 공간으로 변모하였다.

내용 마루는 설치 장소와 방식에 따라 대청마루, 누마루, 툇마루, 쪽마루, 들마루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누마루는 지면에서 높이 띄워 설치한 마루로 사랑채 등에 설치된다. 누마루 주위에는 계자난간 등 난간을 두르며, 들어열개문을 설치한 경우 그 아래의 머름이 난간 역할을 한다.

툇마루는 고주와 평주 사이 공간인 툇간에 놓인 마루, 쪽마루는 평주 바깥쪽에 덧단 마루를 각각 일컫는다. 이것들은 실 사이를 서로 긴밀히 연결하고 실내 공간을 마당이나 외부와 연결하는 매개 공간 성격을 띤다. 또한 칸으로 이루어지는 기본 공간만으로는 생활에 필요한 가구와 비품을 두기 어려웠기 때문에 퇴 공간에 마루를 깔고 수납공간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다. 부엌의 아궁이로부터 직접 불길이 닿지 않는 건넌방 등의 실 앞에 설치한 툇마루는 누마루처럼 높이고 그 밑에 함실[아궁이]을 둔다. 들마루는 들고 다니는,



대청마루 | 경북 경주 양동 수운정 | 서헌강



누마루 | 경북 상주 대산루 | 한필원



툇마루 | 충남 논산 명재 고택 | 한필원



쪽마루 | 충남 서산 경주김씨 고택 | 서헌강

이동이 가능한 마루를 이른다.

마루를 구성하는 방식에는 기둥 사이에 장선長線(마루 밑에 가로로 대어서 마룟널을 받치게 한 나무)을 일정한 간격으로 걸고 그 위에 폭이 좁고 긴 널빤지를 이어 대어서 구성하는 장마루, 기둥 사이에 건너지른 장귀틀과 장귀틀 사이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는 동귀틀로 틀을 짜고 동귀틀 옆면의 홈에 마루청판[쪽널]을 끼워 넣어 조립식으로 구성하는 우물마루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마루에는 천장에 반자를 설치하지 않는 연등천장으로 꾸며서 공간 높이를 최대로 한다.



마루기와

지역사례 전라도 서남부 도서지역 살림집에서 볼 수 있는 마루인 ‘마래’는 머릿방이라는 뜻으로 채의 한 끝에 자리하여서 곡물과 성주를 모시는 신성한 공간이다.

마루를 놓을 자리에 마루를 놓지 않고 흙바닥을 그대로 둔 곳으로, 집 안에 있는 작은 마당을 봉당이라 하는데 이 봉당을 중심으로 주거 공간을 폐쇄적으로 구성한 집을 지붕 용마루 양쪽에 낸 통풍구가 까치둥지와 비슷하다고 하여서 ‘까치구멍집’이라 부른다. 경상북도 안동·봉화·울진 등지에서 흔히 발견되는 까치구멍집은 보통 정면 세 칸, 측면 두 칸의 양통집이다. 정면 중앙 칸은 흙바닥으로 된 봉당이고, 봉당 안쪽에 마루가 놓인다. 마루 양쪽에는 안방과 건넌방이 배치된다. 이 마루는 여름에는 밖에 내가고 겨울에는 안에 설치된다.

전통한옥에서 마루는 작은 나무기둥, 즉 동바리로 받친다. 제주도 지역에서는 보통 돌로 받친다. 제주 일부 지역에서는 난간(뒷마루)과 상방(대청) 사이에 호령창號令窓을 설치한다. 생깃문이라고도 하는 호령창은 쌍여닫이 널문이다. 이 문을 통하여 밖을 내다보기도 하고 아랫사람을 부르기도 하여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

특징 및 의의 마루라는 말에는 높다는 의미가 있다. 머리와 어원이 같아서 산마루, 고갯마루, 용마루처럼 꼭대기 혹은 가장 높은 곳을 뜻하기도 한다. 따라서 제사 등의례 공간이나 위계가 높은 공간을 마루로 구성한다.

16세기에 하나의 건축유형으로 완성되는 한옥은 온돌, 마루, 마당이 조합을 이루어 적절히 변형·반복됨으로써 주거 공간이 이루어진다. 우물마루는 우물정(井)자와 같은 모양으로 깎 마루라는 뜻으로, 쪽마루를 제외한 마루 공간에 흔히 쓰인다. 이는 한국건축에서만 사용되는 독특한 마루 구성 방식이다.

참고문헌 삶과 생명의 공간, 집의 문화(국사편찬위원회, 2010),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김왕직, 동녘, 2007), 한국건축개념사전(한국건축개념사전기획위원회, 동녘, 2013), 한국의 살림집(신영훈, 열화당, 1983), 한국의 전통마을을 찾아서(한필원, 휴머니스트, 2011), 한옥과 한국 주택의 역사(전봉화·권용찬, 동녘, 2012).

필자 한필원(韓弼元)

마루기와

정의 목조건물의 지붕마루를 축조하고 장식하기 위하여 각 마루에 사용한 기와.

내용 지붕마루는 용마루, 내림마루, 추녀마루로 구분되며 삼국시대부터 조선까지 여러 종류의 기와가 제작되고 사용되었다. 마루기와는 지붕마루를 축조한 마루축조기와, 각 마루에 이어져 건물을 수호하고 미관을 돋보이게 한 마루장식기와로 구분된다.

마루축조기와는 지붕마루를 쌓아 올리는 기와이다. 착고着固와 부고, 적새[積瓦]와 마루끝수키와로 구분된다. 착고는 마루 밑의 기왓골을 막음하는 기와로, 수키와의 한 측면 양끝을 짧게 절단하여 사용한다. 그런데 고구려의 착고에는 귀면이 새겨져 벽사를 상징한다. 부고는 착고 위에 이은 기와로 완형의 수키와를 사용한다. 관아나 사원은 지붕마루를 높이기 위하여 부고를 이중으로 잇는다. 이에 비하여 민가나 협문은 부고 한 장을 이거나 착고 위에 적새가 곧바로 놓인다.

적새는 부고 위에 잇는 기와로, 암마루장기와와 수마루장기와로 나뉜다. 암마루장기와는 완형의 암키와를 그대로 이거나 암키와를 반분하여 사용한다. 암마루장기와는 건물의 규모와 각 마루에 따라 세 장

에서 아홉 장까지 홀수로 쌓아 올려 건물의 위용을 돋보이게 한다. 용마루 양끝은 암마루장기와를 몇 장 더 얹어 그 끝이 반전된다. 수마루장기와는 암마루장기와 위에 수키와를 가로 방향으로 계속 잇는 기와로, 각 시대에 따라 큰 차이가 없다.

마루끝수키와는 각 마루의 끝을 막음하는 기와로, 한 장 또는 두 장의 수키와를 마루 끝에 세우거나 가로 방향으로 이어 사용한다. 조선시대에는 지붕마루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성 바르기가 성행하였다. 양성은 강회와 백토를 섞어 각 마루의 수마루장기와를 제외한 마루축조기와 전체를 도포한 것으로, 조선시대의 궁궐과 관아 건축의 주요한 특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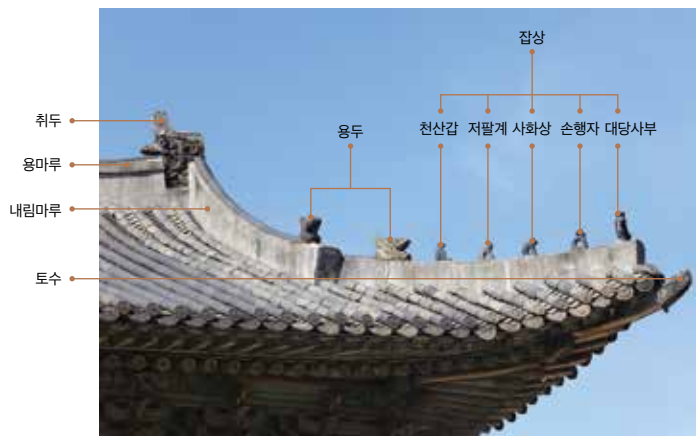
마루장식기와는 지붕마루에 이어져 건물을 수호하고 위용과 미관을 돋보이게 하는 기와이다. 마루장식기와는 각 시대와 건물 규모에 따라 다양하게 제작되었다. 마루장식기와는 치미^{鷗尾}, 치문^{鷗吻}, 취두^{鷗頭}, 용두, 잡상^{雜像}, 귀두^{鬼頭}, 마루끝기와, 마루수막새, 마루암막새, 망와^{望瓦}, 마루끝수막새, 절병통, 보탑, 보주장식으로 구분된다. 창경궁 명정전의 마루장식기와는 전통기와로 교체되었으나 궁궐에 이어진 취두와 용두, 잡상의 사용처를 알 수 있는 주요 자료가 된다.

용마루에는 치미와 취문, 취두와 용두, 망와 등이 이어진다. 치미·치문·취두는 궁궐과 관아에 사용되고 용두는 격이 낮은 관아나 사원에 이어지며, 망와는 주로 민가에 사용된다. 치미는 길상의 의미로 삼국시대부터 제작되어 취두가 등장하는 고려 중기까지 사용되었다. 경상북도 경주 황룡사지에서 출토된 치미

는 높이가 182cm로 큰 규모이다. 두 측면과 뒷면에는 인면 및 연꽃을 부착하여 사귀를 막는 벽사, 불교의 염원 및 극락왕생을 나타냈다. 취문은 어룡^{魚龍} 형태로 고려시대에 제작되었으며 화마를 막는 벽사를 나타냈다. 취두는 고려 후기에 출현하여 조선시대에 성행하였다. 조선 후기의 취두는 측면과 뒷면에 용과 귀면을 각각 장식하였다. 이는 왕실의 권위와 벽사를 상징하였다. 이 외에 전라남도 영광 불갑사와 경상남도 양산 통도사의 대웅전 용마루는 보탑과 보주장식이 이어져 사귀를 막는 벽사, 불교 특성을 나타낸다.

내림마루와 추녀마루에는 용두와 잡상, 귀두와 마루끝기와, 마루수막새와 마루암막새, 망와와 마루끝수막새 등이 이어진다. 용두는 용의 머리를 의장한 기와이다. 궁궐과 관아에서 잡상과 함께 이어져 화마를 막는 벽사를 나타낸다. 그런데 용두는 취두가 이어지지 않는 궁궐과 관아의 용마루에 이어지기도 한다. 잡상은 궁궐과 관아 건물의 마루에 배치한 일종의 조상彫像으로, 마루를 장식하는 한편 건물을 수호하는 역할을 한다. 1920년경에 간행된 『상와도像瓦圖』에는 대당사부, 손행자, 저팔계, 사화상, 이귀박, 이구룡, 마화상, 삼살보살, 천산갑, 나토두 등의 명칭과 도설이 나온다. 그런데 잡상의 개수는 건물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다. 대개 양의 수인 홀수로 3, 5, 7, 9상^像이 놓인다. 경복궁의 경회루에는 11상이 배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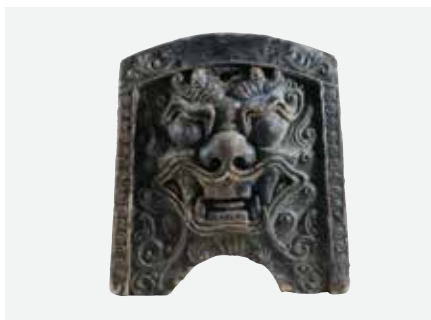
귀두는 귀신의 머리를 무섭게 형상화한 기와로, 마루끝기와 같이 마루 끝을 막음한다. 귀두는 발해에서 제작되기 시작하여 조선시대까지 사용되었다. 귀면기와와 같이 사귀를 막는 벽사를 의미한다. 마루끝기와는 내림마루나 추녀마루를 막음하는 기와이다. 원두방형이며, 삼국시대에 제작되어 고려시대까지 성행하였다. 경주 안압지에서 출토된 녹유귀면기와는 마루끝기와로, 귀면이 무섭게 새겨졌는데 사귀를 막는 벽사를 잘 보여준다. 마루수막새는 막새에 부착된 수키와가 굽은 형태로 모서리암막새나 마루끝기와의 상단에 사용되는 기와로 추정된다. 마루암막새는 암키와가 막새의 하단에 부착된 것으로, 맞배지붕의 마루 끝에 적새와 함께 이어져서 막음한 기와로 추정된다.



마루장식 기와의 사용처 | 서울 종로구 창경궁 명정전 | 국립민속박물관



치미 | 높이182 | 경북 경주 황룡사지 | 신라 | 국립경주박물관



녹유귀면기와 | 높이26 | 경북 경주 안압지 | 통일신라 | 국립경주박물관



문자망와 | 경북 예천 아용정 | 조선 | 김성구

망와는 마루 끝 상단에 사용된 기와이다. 취두와 용두가 사용되지 않는 사원과 향교, 서원과 민가 등의 마루에 이어진다. 망와는 조선시대에 출현하였다. 드림새가 위로 향한 형태로, 망새나 아래기기와로 부르기도 한다. 경북 예천 아용정(보물 제1917호)의 좌측 추녀에 이어진 망와는 암막새를 망와로 사용하였다. 여기에는 화엽당초와 ‘가정병인(嘉靖丙寅)’의 연호가 새겨졌다. 그런데 이 망와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이전인 1566년(명종 21)에 제작된 조선 전기의 기와이다. 그 수명이 2018년을 기준으로 453년으로 밝혀져 우리나라의 기와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마루끝수막새는 마루 끝을 막음하는 기와로, 마루 축조기와와 달리 막새가 부착되어 있어 마루장식기와로 분류되었다. 절병통은 추녀마루가 중앙 한곳으로 모이는 정자나 모난 지붕에 사용된 기와로, 건물의 상승 효과는 물론 안정감을 준다.

특징 및 의의 목조건물의 마루는 건물의 품격과 위용을 잘 나타낸다. 지붕마루는 용마루, 내림마루, 추녀마루로 구분되며, 다양한 기와가 사용되고 길상과 벽사 등의 또 다른 상징성을 보여 준다. 마루기와는 마루축조기와와 마루장식기와로 구별되며, 목조건물의 기능과 조화 및 장식을 위하여 삼국시대부터 제작되어 사용되었다. 마루축조기와는 삼국시대 이후 그 형태에 큰 변화가 없었으나 마루장식기와는 각 시대에 따라 다르게 제작되어 길상과 벽사 등 상징의 의미는 물론 조형의 차이도 많다.

용마루의 양 끝에 이어진 치미는 균형과 길상의

의미로 삼국시대부터 사용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어룡형의 치문으로 대체되어 그 상징성이 화마를 막는 벽사로 바뀐다. 그리고 조선의 궁궐과 관아는 각 마루와 사래에 취두와 용두, 잡상과 토수가 독특하게 조합되어 왕권의 위세는 물론 건물의 위용과 벽사를 상징하였다. 향교·서원 및 민가는 간소한 망와가 이어져 한옥의 단아한 아름다움을 자아낸다.

참고문헌 마루장식기와(화엄사지박물관, 2014), 조선궁궐의 막새기와 문양과 장식기와(김홍식, 민속원, 2009), 조선시대의 마루장식기와와 그 특징(김성구, 최근 기와 출토유적과 조선시대의 마루기와, 한국기와학회, 2014), 치미(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8).

필자 김성구(金誠龜)

마름질

정의 목수가 여러 가지 건축 부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목재를 깎고 다듬는 일.

개관 집을 짓거나 가구를 짤 때 목재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나무껍질을 벗기고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진 장소에 비를 맞지 않도록 목재를 저장해 두는 것이다. 그다음 목재의 크기와 굵은 형태에 따라 사용처를 정하고 목재를 다듬는다. 목재를 다듬는 일은 종류도 다양하지만 형식도 다양하다. 이렇게 연장을 이용하여 목재를 자르고 파내고 다듬어서 건축 부재로 완성하는 모든 일을 마름질이라고 한다. 나무를 다루

는 것을 한자로 치목(治木)이라 하며, 이 용어 또한 일반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내용 목재를 다듬는 일에는 순서와 요령이 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원목을 베는 일이다. 이 일은 목수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일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원목을 베는 일은 마름질에 속하지 않는다. 원목이 집 짓는 현장에 도착하면 비로소 목수 일이 시작된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나무껍질을 벗기는 일이다. 나무는 크기에 따라 사용하는 위치가 다르므로 치목하기 쉽게 나누어 둔다. 즉 기둥, 보, 도리, 창방 등 마름질할 나무별로 선별해서 구분하여 둔다.

마름질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작업 장소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기둥이나 보 같은 무거운 목재인 경우 목재를 쌓아 둔 곳에서 마름질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서까래나 인방 같은 무겁지 않은 목재인 경우 공사 현장 가운데 넓직한 곳에 별도의 작업장을 마련해 둔다. 목재 마름질은 집을 짓는 전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마름질 장소를 잘 정해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전통 목조건축에서 주요 구조 부재를 마름질하는 기법은 다음과 같다.

원기둥을 마름질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둥감으로 쓸 목재를 누인 다음 벌구와 말구를 확인하고, 반드시 말구가 위로 가도록 한다. 그다음 벌구와 말구에 기둥 직경을 표시하고 자귀를 사용하여 기둥을 사각형으로 다듬는다. 네 면에는 기둥 중심선을 먹줄로 표시한다. 그다음 모를 쳐서 정8각으로 만든다. 다음으로 8각의 모를 쳐서 16각으로 만든다. 다시 모를 쳐서 32각을 만든 다음 원형으로 마름질한다. 기둥머리에는 장여·도리·보가 직각으로 끼워질 수 있도록 사개를 틀어 둔다. 사개를 만들 때는 끌과 톱을 사용한다. 이렇게 마름질하면 기둥이 완성된다.

보를 마름질하기 위해 나무의 굽은 상태를 확인하여 굽어진 부분이 위로 가도록 한다. 직선재인 경우 나이테가 촘촘한 부분이 아래로 가도록 한다. 보는 상하 직경을 좌우 직경에 비하여 크게 만든다. 이 특성에 맞춰 마름질을 진행한다. 마름질은 처음에 자귀로

시작한다. 상하 직경은 원목의 최대 직경에 맞추고 좌우는 자귀로 쳐서 약간 좁게 만든다. 대개 상하와 좌우 비례는 3:2 또는 4:3 정도로 한다. 대략 보 형태가 대략 만들어지면 보의 양 끝을 기둥에 끼우기 좋게 ‘송어턱깎기’를 한다. 송어턱깎기는 보머리를 마치 송어턱처럼 만든다고 해서 붙여진 명칭이다. 머리를 두고 가늘게 목을 만들어 기둥에 끼운 다음 그 위에 도리를 끼울 수 있도록 마름질해 두어야 한다. 이때는 끌, 자귀, 톱 등을 사용하여 마름질한다.

도리마름질은 크게 굴도리(원형)와 납도리(사각형)로 구분된다. 도리 부재는 굽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직선재여야 한다. 도리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올려서 서까래를 받치는 부재이므로 직경이 작으면 안 된다. 직경이 작은 경우 도리 밑에 장혀를 하나 더 끼워서 보강한다. 도리를 마름질하는 것은 기둥 마름질과 유사하다. 다만 기둥 위에서 이어지기 때문에 기둥 간격보다 길거나 짧으면 안 된다. 도리를 잇는 마름질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주먹장이음, 반턱주먹장이



마름질 | 1999 | 국립무형유산원

음, 나비장이음, 반딧산지이음 등 다양한 마름질을 목수의 기량과 선호도에 따라 이용한다.

서까래 마름질은 단순하지만 중요한 목수 기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한국 전통 목조건축 특성 가운데 하나가 지붕선을 만드는 것이다. 지붕선의 기본이 서까래 설치에서 형성되기 때문이다. 서까래나무의 굵어진 정도·길이·굵기를 이용하여 많이 굽은 것은 추너쪽, 직선인 것은 가운데 처마 쪽으로 오게 한다. 서까래 마름질은 주로 훑이기(훑이대패)로 한다. 나무접질을 벗긴 다음 마구리에 표시된 구경에 맞춰 끝부분은 소매걸이로 마름질하여야 한다. 이밖에 공포부재, 인방재, 마루틀 등 많은 부재는 그 쓰임새와 용처에 따라 다양한 모양으로 마름질을 하여 쓴다. 마름질에는 크고 작은 다양한 연장이 사용된다.

마 리

특징 및 의의 마름질은 목수 기술을 발휘하는 중요한 기법이다. 마름질 수준에 따라 집 짓는 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마름질 기법은 지역 또는 목수의 계보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목수 개인의 솜씨에 따라 정밀도나 마감 수준이 최종 결정된다. 목재 마름질은 오랜 수련을 거쳐 목수 자신의 기법으로 정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바뀌기가 어렵다. 이러한 마름질 기법이 한국 전통 목조건축을 독특하게 만든 바탕이 되었다. 유네스코에 무형유산으로 한국의 대목 기술이 등재된 것은 이러한 전통 마름질 기법이 계보를 통하여 전해져 왔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연장과 치목(이왕기, 건축167-4, 대한건축학회, 1992), 조선후기의 건축도구와 기술(이왕기, 한국전통과학기술학회지1-1, 한국전통과학기술학회, 1994), 한국의 건축 도구(이왕기, 건축장인의 꿈과 꿈, 국립민속박물관 1999), 한국의 건축연장 연구1(이왕기, 목원대학교논문집7, 목원대학교, 1984).

필자 이왕기(李王基)

마 리

정의 남해와 서해 도서지역 민가의 안채에 속한 독립된 단위 공간(실)으로, 주로 곡물을 보관하는 광의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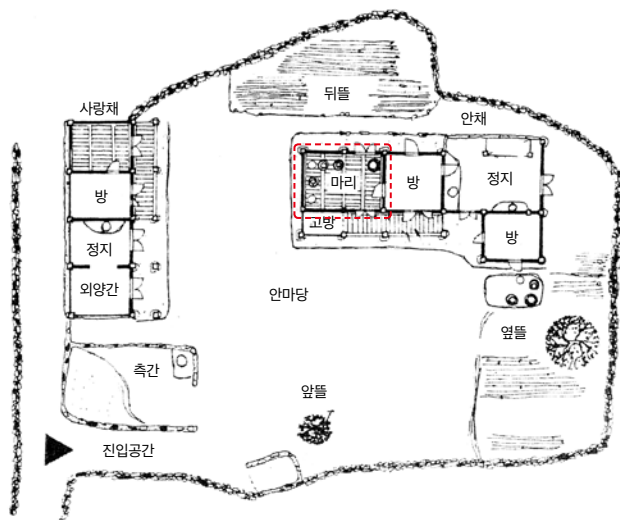
능과 함께 제례 기능을 하던 공간.

내용 남해와 서해 도서지역은 역사상 임진왜란 이후 입도조(入島祖)에 의하여 새롭게 구성된 곳이다. 그 시기는 17~18세기이다. 입도인의 전 거주지는 현재의 전라남도 영암, 해남, 장흥 등 인근 내륙이었다. 그 전에도 왜구의 침략으로 정부가 섬 거주민들을 본토로 이주시키는 공도정책을 여러 번 펴는 바람에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이 많았다. 따라서 현존하는 남해와 서해 도서지역 민가의 역사 역시 그 시기부터 시작된 셈이다.

‘마리’ 또는 ‘마래’는 ‘마루’의 남·서해 도서지역 방언이다. 마룻바닥이 나무이든 흙이든 상관없이 도서 지역에서는 마리(마래)라고 부른다. 대체로 규모가 작고 영세한 가옥의 경우는 마리가 흙바닥으로 되어 있다. 마리는 가옥 규모와 관계없이 남해와 서해 모든 민가에서 설치하였다. 3실 구조로 된 소규모 가옥의 경우 내륙에서는 보통 부엌 하나에 거주용 방 두 개를 두었지만 도서지역 민가에서는 방을 하나만 두더라도 꼭 마리를 설치하였다. 그만큼 마리의 가치를 방보다 높게 본 것이다.

마리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이다. 마리는 내륙지역의 안채 한쪽 구석에 위치한 광과 같은 수장(收藏) 기능을 한다. 내륙지역의 가옥에 보통 설치되는 마루 구조의 ‘대청’과는 성격이 크게 다르다. 이곳에는 곡물을 넣은 다소 큰 항아리를 벽선에 따라 1열로 놓고 다시 그 위로 대개 잡곡 등이 담긴 작은 항아리를 엮는다. 이외에도 각종 살림도구, 자주 쓰이지 않는 부엌기구, 제사용구 등을 벽에 걸어 두거나 시렁 위에 얹어 둔다. 즉 마리는 곡식부터 집안의 각종 생활용구까지 보관하는 수장 기능을 하는 공간이다.

수장 기능 외에 조상 숭배의 실천을 보여 주는 제례 공간으로도 활용되었다. 이곳에 사대부 가옥의 사당과 같이 조상의 위패를 봉안하고 제사도 지냈다. 즉 장소와 행위가 일원화되었다. 이는 사당에는 위패만 봉안하고 제례는 안채의 대청에서 지내는, 즉 장소와 행위가 이원화된 내륙의 사대부 가옥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위패는 실 후면 벽에 선반을 설치하고 그 위에 ‘독’을 안치한다. 가옥에 따라 감실장(龕室藏)을 설치하는



마리 배치도 | 전남 신안 하의도 | 김지민



마리 | 전남 신안 암태도 | 김지민

경우도 있다. 사대봉사가 원칙인 내륙의 사대부 가옥과 달리 조상 신위는 2대 내지 3대까지만 모셨다.

마리는 집의 수호신인 성주를 모시는 공간도 된다. 즉 종도리 밑에 성주가 모셔져 있다. 작은 대나무 가지에 한지를 접어서 꿰어 달고, 거기에 마른 명태를 달아 놓기도 한다. 새로 집을 지었거나 새로 이사하였을 때 이 성주신을 모셔야만 집안이 순탄하고 풍요롭게 된다고 믿었다. 이 성주신을 모시는 의례가 곧 ‘성주올리기’라는 곳이다. 이런 의례는 집이라는 것이 단순히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 세계관이 얹힌 문화 공간임을 말해 준다.

특징 및 의의 마리는 규모와 관계없이 남해와 서해 모든 도서지역 민가의 안채에 꾸며진 독특한 공간이다. 가

옥의 머리에 해당하는 위쪽에 마리를 두었다. 즉 ‘마리’ 위로는 어떠한 실도 배치하지 않는 공간의 위계 질서를 지켰다. 지극히 유교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온 민가건축 규범으로 내륙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없다. 이상의 사실로 볼 때 마리는 유교사회에서 제의 의식을 담당하던 장소로서 그 공간의 의미가 어느 공간 못지않게 크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9세기 한국 남서해 도서 지역 민가의 유형적 체계(김지민, 건축역사연구1-1, 한국건축역사학회, 1992), 남서해 도서민가의 마리 공간 연구(김지민, 건축역사연구20-6, 한국건축역사학회, 2011), 남서해 도서지역의 전통가옥·마을(김지민, 전라남도·목포대학교박물관, 1989).

필자 김지민(金知民)

마을

정의 인간생활의 기본 구성인 가족 단위의 집들이 모여 제반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기초 사회 단위 집단.

개관 마을은 한자 뜻이 같은 촌, 촌락과 혼용된다. 취락은 가옥의 집적이라는 의미의 일반 용어이다. 그러므로 도시와 농촌에 모두 적용된다. 부락은 주로 일본에서 사용된 용어로, 그 영향을 받아 촌락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마을 용례는 매우 다양해서 일반화하기는 쉽지 않지만 대체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기초 사회 단위로 이해되며, 주로 민속학에서 선호하는 용어라 할 수 있다.

마을은 발생 차원에서 자연촌·행정촌, 가옥의 밀집도에 따라 집촌(集村)·산촌(散村), 주민들의 씨족 구성에 따라 동성마을·각성마을, 신분 구성에 따라 반촌(班村)·민촌(民村)·반상혼거촌(班常混居村), 마을 크기에 따라 대촌·중촌·소촌, 생업 기반에 따라 농촌·어촌·산촌 등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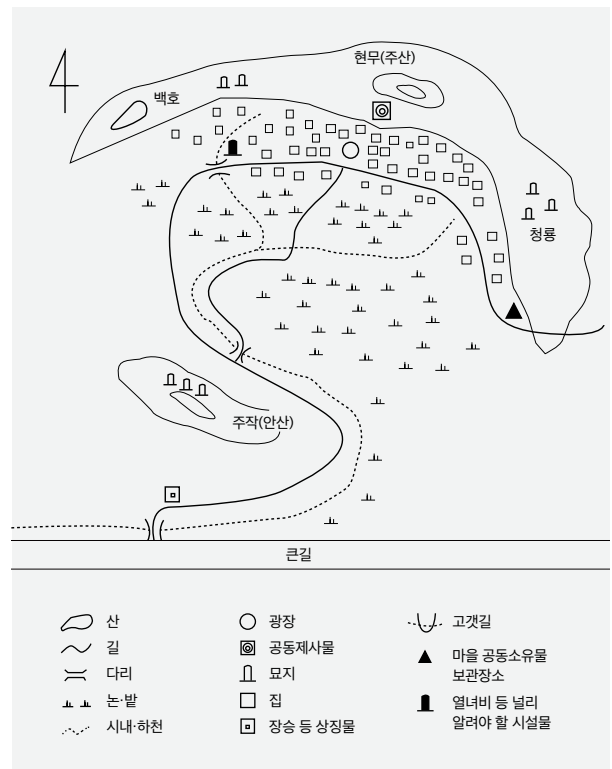
내용 조선 후기 농촌의 전통마을 기본형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자연공간(마을 입지 선택의 기본공간): 전통 마을의 기본 입지는 무엇보다 자연환경 요소와 연관이 있다. 동서양 모두 인류는 산·구룡·강·바다와 같은 자연환경에 순응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마을을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인간이 어느 지역의 자연환경을 삶을 영위하는 장소로 택하여 마을이 형성될 경우 이 마을을 둘러싼 ‘자연환경’은 마을 공간구성의 한 요소로서 마을의 ‘자연공간’이 된다.

어떠한 자연환경을 마을 입지로 택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사례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그것은 배산임수背山臨水의 기본 조건에 마을 주변 좌우에 산자락이 있고, 조금 멀리 앞산도 있어 사방에서 산들이 마을을 아늑하게 감싸 주는 자연환경이 있는 공간이다. 여기에서 만약 배산임수의 뒷산이 북에서 남으로 오는 산줄기라면 자연스럽게 마을의 가옥들은 남향이 되어 더욱 선호하는 장소가 된다.

사례연구를 통한 이러한 마을의 입지 선택은 풍수 논리로 적절하게 설명될 수 있다. 풍수는 산 자의 주 거지나 죽은 자의 무덤이나 모두 그 입지 조건의 기본은 사방四方으로 산의 보호 안에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 사방에서 보호해 주는 산을 현무(뒷산), 주작(앞산), 청룡(왼쪽 산), 백호(오른쪽 산)라고 한다. 이를 총칭하여 사신사四神砂라고 한다. 사신사에서 핵심은 뒷산에 해당하는 현무이기 때문에 흔히 주산主山 또는 진산鎭山이라고 한다. 마을을 둘러싼 사신사는 그 조화 상태에 따라 우열이 매겨진다. 핵심 기준은 사방의 사신사가 마을을 향해 감싸는 형상이다. 예를 들어 왼쪽 청룡에 해당하는 산이 마을을 감싸지 못하고 밖으로 휘었을 경우는 물이 마을을 빠져나가는 수구水口가 열렸다고 하여 좋지 않게 본다. 그쪽 방향의 바람을 막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산에서 내려오는 좋은 마을의 기운도 담아내지 못하고, 물의 흐름도 마을을 감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은 산에서 만들어 낸다. 산이 마을을 감싸야 물도 마을을 감싸며 돌아 나가는 것이다.

한국 전통마을의 입지가 처음부터 풍수 논리로 선택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바람으로부터의 보호, 편안한 경관, 윤택한 생산 조건, 편리한 일



전통마을 배치도

상생활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마을 입지에 대한 오랫동안 누적된 인간의 지혜는 결국 풍수 입지 논리와 일치한다. 그 결과 풍수사상이 유행하면서 마을 입지와 풍수 논리가 더욱 자연스럽게 결합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유명한 반촌일수록 입향시조가 입향할 때 지리와 산수를 보고 입지를 선택하였다는 구전이나 문헌기록, 와우형臥牛形이니 행주형行舟形이니 하여 전국 마을에 널리 전승되고 있는 마을 물형론物形論의 존재, 마을을 보호해 주는 주변 산들이 다소 부족할 경우 행해지는 다양한 비보裨補 행위는 이 점을 잘 보여준다.

인간은 필요하면 사막, 열대지대, 고산지대, 험지, 물위에서도 삶을 영위한다. 또는 다양한 종교 논리와 신념이 반영되어 특별한 곳에 모여 살거나, 외부의 지속된 침입을 방어해야 하는 어려운 조건하에서는 성벽 안에 모여 살기도 한다. 이처럼 삶의 여러 조건 속에서 마을 입지는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가장 일반적인 마을 입지는 동서양 모두 배산임수와 좌우의 산과 앞산이 있는 곳을 택하였다. 이 경우 모든 나라의 마

을 입지에 동양의 풍수 논리가 게재되었을 리 없다. 그러나 역시 마을 입지에 대한 인간의 오래된 경험의 지혜가 동일한 자연환경을 택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마을 입지 논리는 차별성보다 동일성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서양 마을을 답사하면 풍수의 입지 논리로 그 마을의 자연공간을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의 전통마을 자연공간에는 죽은 자의 묘지공간이 있었다. 주로 자연공간 내 마을로 내려오는 주산 아래 또는 좌우의 산능선(청룡, 백호) 또는 앞산에 묘지를 마련하였다. 동성마을의 경우 집안의 번영을 위하여 풍수에 맞는 명당을 찾아 마을과 떨어진 장소에 선산先山을 마련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이러한 묘지공간을 옆두에 두고 마을의 자리를 잡기도 하였다. 또한 마을 뒷산이 내려오는 중요한 길목에 산신당, 입향시조入鄕始祖, 서낭당 등 마을 공동제사 대상물을 배치하기도 하였다. 동성마을의 경우 공동의 사당을 두기도 하였다.

2. 주거공간 및 생업공간(자연공간 하에서 요청되는 필수 생존공간): 마을은 자연환경에서 선택된 자연공간 이외에 다양한 공간이 기능하고 있다. 이 가운데 무엇보다 마을을 구성하는 개별 가족의 일상 삶이 전개되는 주거공간과 가족의 삶을 유지시켜 주는 생업공간은 마을의 필수 생존공간이라 할 수 있다.

주거공간은 마을 성격에 따라, 그 구성원의 신분과 거주공간에 차이가 있다. 즉 앞에서 제시한 그림에서는 집을 똑같이 표시하였지만 반촌班村이나 동성마을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마을은 당연히 전체 구성에서 양반집과 평민집 비율이 달랐다. 또한 동성마을의 경우 같은 성씨나 파 내에서도 혈연상의 상하 수직 구조를 반영하여 종가나 ‘큰집’은 마을의 높은 곳과 안쪽 중심선상에 배열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집의 배치는 자연공간의 경사도와 관계가 깊다. 뒷산의 경사가 완만하면 집을 산에 가깝게 붙이고, 급하면 산에서 거리를 두어 위치시킴으로써 산사태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집의 좌향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좌坐는 집이 어디에

기대고 있는가, 方向은 집의 주축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각각 말한다. 이것은 출입문의 방향과는 관계가 없다. 모든 집의 형태는 앞과 뒤가 기본으로 있다. 집의 뒤가 좌이며 앞이 향이다. 오늘날의 아파트로 말하면 베란다 방향이 앞이다. 전통의 마을 입지가 배산임수라는 것은 집의 배치가 좌坐는 산山, 즉 높은 곳을 기댄다는 뜻이며 方向은 물, 즉 낮은 곳을 바라본다는 뜻이다.

흔히 마을 입지로 배산임수만 제시할 뿐 집의 좌향은 기본원칙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사례를 연구해보면 집의 배치는 기본적으로 높은 곳에 기대고[背山] 낮은 곳을 향함으로써[臨水], 사람들은 안정된 터전에서 가족 앞으로 흐르는 시내 건너 펼쳐지는 앞산案山을 조망하는 경관 가치를 자연스럽게 향유해 왔다. 그런데 오늘날 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농촌마을마저 이러한 기본 원칙이 남향南向만을 선호하는 가치관에 의해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에 제시한 그림에서 각각의 집들을 편의상 분리하여 그렸지만 실제로는 마을 안길을 따라 서로 접하면서 울타리 담장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울타리는 집과 집의 경계를 이루면서 마을 안길을 따라 집들을 이어 주는 동선 역할도 한다. 실제 어느 마을에 대한 느낌은 뒷산 배경하에 울망줄망한 초가와 ‘고래등 같다’는 양반 고택이 한데 어우러진 모습으로도 구현되지만, 마을 안으로 들어섰을 때는 안길을 따라 집과 집을 이어 주는 담장의 정겨움에서도 잘 나타난다. 개별 집들이 집 안 세계와 집 밖 세계를 구분해 주는 경계이자 연결점이라는 점에서, 마을 담장의 모습은 그 마을 구성원의 공동체성과 성정性情을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거공간에는 집 이외에 효자비·열녀비와 같이 널리 알려야 할 시설물이 있기도 하며, 상을 당할 때 시신을 모시는 꽃가마를 두는 상여집 등 마을 공동 소유물 보관 장소도 있었다. 앞의 그림에서 광장이라고 표시된 것은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우리의 마을은 서양처럼 마을 한 가운데에 성당이 있고 그 앞에 광장이 조성되어 있는 구조는 아니다. 여기에서 광장이라고 표현한 것은 서양식의 명실상부한 광

장이 아니라 필요시 공동의 논의가 전개되는 장소를 제시해 본 것이다. 지형상 항상 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동의 대화가 오갈 수 있는 우물터, 종가집이나 부잣집 큰마당터, 마을 가운데에 존재하는 당산목이 있는 곳 또는 공동마당 등은 비교적 많은 사람이 함께 할 수 있으므로 필요시 광장의 의미가 있다.

우리의 마을은 서양처럼 온 마을 사람들이 참여하는 종교행사나 이를 정기 집행하는 교회가 없었고, 그로 인하여 교회 앞 광장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필요한 기존 공간을 활용하여 공동체 논의를 하였다. 이와 함께 저녁에 때때로 전개되던 사랑방 문화가 있었다. 또한 우리의 마을 가옥은 건물 크기에 비하여 커다란 마당공간을 확보하고 있었다. 마당은 휴식·놀이·의례 공간으로 활용되었으며, 수시로 전개되던 소규모 마을 구성원 교류의 장이기도 하였다. 한편 민촌에서 지속해서 존재해 왔던 촌계村契는 자치 체제로 운영되면서 마을제사 및 마을의 중요 사항을 논의하여 시행되었다. 또한 노동공동체로서의 두레를 운용하였다는 점은 모두 한국형 광장 문화의 실질적 구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을이 하나의 모듬살이로서 지속성을 띠려면 생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일터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생업공간 또한 필수 생존공간이었다. 그런데 가장 좋은 토지는 ‘문전옥답’이라는 표현처럼 본래 주거공간과 생업공간은 가까이 있을수록 좋다. 생업공간의 기

본은 주거공간의 연장선에서 시작한다. 물론 어촌마을처럼 주거공간과 생업공간이 완전히 분리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농촌마을은 마을의 자연공간을 구성하는 뒷산과 좌·우 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를 중심으로 농경지가 펼쳐진다. 그러나 마을 인구가 증가하거나 인간 능력이 확장될수록 생업공간은 마을의 경계를 넘어서게 된다. 어떠한 생업공간이라 하더라도 농업용수로서의 하천이나 최소한의 작은 시내가 있어야 한다. 시내가 부족한 경우 하천의 물을 경작지까지 끌어들이기 위하여 보淤를 설치해서 강물을 막고 붓도랑을 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관개시설 또한 생업공간에 포함된다. 또한 자연공간에 해당하는 뒷산은 땀감과 건축자재, 나뭇 등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생업공간 역할도 하였다.

3. 이동공간 및 경계공간(마을 구성원 상호소통망에서 파생된 관계공간): 마을의 이동공간은 자연스럽게 형성되지만 사실상 물의 속성과 같은 것이다. 물의 흐름은 직진성直進性을 기본으로 한다. 그런데 그 물이 돌아서 흘러가는 것은 자연 지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동공간인 길도 마찬가지이다. 기본적으로 가장 짧은 거리로 직진하도록 만들어지는 것이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일부러 길을 돌아가게 만들지는 않는다. 길을 돌아가는 이유는 역시 자연지형 때문이다. 따라서 보통 물길을 따라 사람이 힘을 덜 들고 걸을 수 있는 구배가 연결되면서 길이 만들어진다.



한두마을 | 전북 무주 | 국립민속박물관



만휴정(비보) | 경북 안동 하회 | 국립민속박물관

만약 돌아가는 길이 너무 불편한 경우에는 물을 건너는 다리를 놓을 뿐이지 무리하게 지형을 훼손하며 빠른 길을 내지는 않았다. 간혹 지형을 무시하고 시간을 단축하는 지름길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정식 길이 아니었다. 이처럼 전통마을의 모든 공간은 자연을 인위로 거스르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설정되었다.

이동공간은 크게 주거공간 내의 안길, 주거공간에서 마을 입구까지의 진입길, 마을 입구부터 다른 마을을 이어 주는 외부도로인 큰 길로 나뉜다. 모든 길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연지세의 영향을 받으며, 그러한 지세에 맞춘 길에 따라 주거공간 집들의 배열 상태가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또한 자연지세에 맞추면서도 집의 위상, 집들 간의 관계, 마을 상징물의 위치, 경작지의 영역 등에 의하여 다양한 길의 모습이 형성된다. 특히 동성마을의 경우 큰 길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주 통로가 되는 길은 마을의 중심되는 집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경계공간은 다른 마을과 구별되는 공간으로, 이동공간인 길과 관련되어 있음을 기본으로 한다. 마을의 핵심 경계공간은 마을 입구의 길가이다. 마을 입구에 문이 있는 일본의 마을과는 달리 우리의 마을은 문이 따로 없다. 그 대신 마을 입구의 장승, 당산목, 정자 등이 그 역할을 한다. 마을의 경계공간은 지리상의 경계 개념과 다르다. 지리상의 경계공간은 산과 강, 큰길 등이 그 역할을 한다. 그러나 마을 입구의 경

계공간 상징물들은 다른 마을과 구분되는 관념의 존재물이다. 따라서 그 경계는 지리상의 선線이 아닌 점點으로 존재하며, 결국 그 점點에서 제의 의식을 통해 마을 전체로 확산되는 장場의 개념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휴식공간인 정자를 제외하면 마을의 경계공간 상징물들은 관념상의 상징물이 아니라 대부분 그대로 동제에서 제의 대상이 된다. 또한 상제에서도 마을에는 상징물인 울타리가 있어 상여가 나갈 때 울타리가 상징하는 한계 지점에서 노제를 지내고 죽은 이를 위로한다. 노제는 마을 입구나 약간 떨어진 적당한 장소에 상여를 내려놓은 다음 망자의 마지막 길을 애도한다. 그리고 상여를 뒤따르던 부녀자들은 노제를 끝으로 마을 끝을 상징하는 경계 밖으로 더 이상 따라가지 않는다. 이처럼 경계공간의 상징물들은 점으로 존재하면서도 다른 마을과 구분되는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항상 제의 행위의 대상이 되면서 그 제의를 통하여 마을 전체 공간 속으로 관념적 세계관을 공유한다. 또한 당산제를 거행할 때 풍물패가 마을 돌레를 돌거나, 줄다리기를 행하기 전후에 어깨에 줄을 메고 마을 주변을 돌았다. 이는 마을의 외곽 돌레도 다른 마을과 구별되는, 일종의 경계공간임을 마을 사람들이 인식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4. 놀이공간 및 제의공간(장場의 개념으로 확산되는 가변공간): 놀이공간 및 제의공간은 교회나 광장



조산 | 전북 남원 | 1991 | 국립민속박물관



마을돌기(평택 농악) | 경기 평택 | 국립무형유산원

을 둔 서양과 달리 고정공간이 아닌 가변공간이라는 특성이 있다. 산과 강, 들이 모두 놀이공간으로 전환될 뿐만 아니라 주거공간이나 이동공간은 물론 생업공간과 제의공간도 필요에 따라 놀이공간으로 바뀐다는 점에서 마을의 모든 공간이 놀이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다.

먼저 아이들은 시간과 계절에 맞추어 마당·골목길·텃논·강변, 심지어 동구 밖과 묘지 주변까지 놀이터로 활용한다. 생업공간을 담당하는 어른들은 세시풍속과 명절, 혼례날에 맞추어 노동과 대비되는 휴식과 놀이를 즐긴다. 그리고 그 장소 역시 마을의 모든 공간을 활용한다. 예를 들어 명절 풍물놀이를 할 때 마당과 골목길을 따라 이동하면서 풍물을 친다. 두레패가 풍물을 치면서 일터로 나가며, 일터에서나 일터에서 돌아올 때도 풍물을 치고 놀이판을 벌인다. 일터인 생업공간이 곧 놀이공간으로 바뀐다.

때로는 마을을 감아 도는 하천의 경우 경관이 수려하면 단순한 농업용수 범주를 넘어 놀이공간으로 적극 전환된다. 하회마을의 경우 휘감아 도는 물을 화천(花川)이라 하여 ‘꽃내’로 인식하고 ‘줄불놀이’로 알려진 뱃놀이를 즐겼다. 또한 놀이공간은 자기 마을을 넘어 다른 마을로까지 확산되기도 하였다. 마을끼리 겨루는 집단 놀이가 두 마을의 경계표로 인식되는 강이나 시내를 사이에 두고 벌어지거나 산고개를 사이에 두고 벌어지기도 하였다.

한편 놀이공간과 관련하여 정자가 주목된다. 마을 입구에 있는 마을 구성원 전체의 휴식공간으로서의 정자 외에, 선비들이 많이 있던 마을의 경우 마을 내 또는 마을 외곽에 물 좋고 산 좋은 곳을 선택하여 음풍농월을 즐기는 정자문화가 발달하였다.

마을은 가족 단위의 집을 넘어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집단이다. 그러므로 마을은 공동체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마을 단위의 제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 제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크게 세 곳이다. 하나는 마을공동체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동제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주로 뒷산 아래 산신당·서낭당과 경계공간의 상징 중심으로 행하여졌다. 이들 상징물은 공통으로 동신(洞神)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동신당의 성

격을 지닌다. 이처럼 평소의 경계공간 상징물이 제의공간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마을 비보를 위하여 세워진 장소이다. 물길을 관장하는 수구매기와 마을 길목을 지키는 골매기 등이다. 이것들은 마을을 지켜 주는 중요한 상징물이기 때문에 역시 제의 대상이 된다. 자연공간을 보완해 주는 상징물이 제의공간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혈연공동체 산물로서의 유교 제의장소이다. 동성마을의 경우 마을 뒤 중앙에 모시는 사당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묘지나 각자 집에서 올리는 일반 제사도 제의 행위이나 이것은 마을 공동의 제의가 아니라 가족 단위의 개별 차원에 해당한다. 그러나 같은 성씨로 구성된 동성마을의 묘지 공간은 집단 제사를 통하여 역시 마을 공동의 제의공간으로 기능한다.

사람이 만든 공간은 사람들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 그 그릇이 편리하고 쓰임새가 있기 위해서는 삶의 틀이 맞추어진 것이어야 한다. 우리의 전통마을 공간에는 구성원들의 자연관, 생활양식, 세계관이라는 삶의 틀이 잘 구현되어 있다. 자연관은 마을 공간 전체에 반영되지만 특히 자연공간에 잘 반영되어 있다. 생활양식은 주거공간·경작공간·이동공간·놀이공간, 세계관은 경계공간·제의공간에 각각 특색 있게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긴밀하게 작동시키기 위하여 공동체 규약이 있었다. 특히 촌계는 지배층의 지배이념이나 사족의 지방 지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고 있었지만 기층민의 생활공동체로서 자생적인 필요성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마을의 자연관, 생활양식, 세계관을 유지시켜 준 마을 구성원들의 합의 산물이었다.

특징 및 의의 마을은 한반도 역사가 시작된 후 20세기 중반의 농업사회 시대까지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해 온 생활공간이자 민속·의례·신앙 등 전통문화를 일궈 온 문화공간이었다. 20세기 후반부터 이촌향도(離村向都) 현상과 도시 중심의 지역개발로 인해 전통마을의 기능이 쇠락하고 있지만, 이 시점에서 한국의 전통마을이 담아내고 있는 삶의 지혜와 정신을 현대 감각으로 재창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문에서 제시한 전통마을에 담긴 구성원들의 자

연관, 생활양식, 세계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연환경과의 교감과 마을 구성원들의 공동체성 구현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환경과의 교감 차원에서 풍수상의 입지 논리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서양의 마을 입지에 대한 보편 논리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동체성 구현이라는 전통마을의 지혜는 현대 도시마을의 경우에도 원용될 필요가 있다. 농촌마을뿐만 아니라 도시마을의 공동체성 역시 중요한 과제이며, 도시마을에도 전통마을이 오랫동안 축적해 온 공동체성 구현을 위한 지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공간과 문화(이영진, 민속원, 2007), 국의 사회사(주강현, 웅진출판, 1992), 마을신앙으로 보는 우리문화 이야기(이필영, 웅진닷컴, 1994), 마을의 입지와 모듬살이의 공간구성, 기층문화를 통해본 한국인의 상상체계-상(임재해, 민속원, 1998), 사람의 산 우리 산의 인문학(최원석, 한길사, 2014), 우리 국토전체와 각 지역(임덕순, 법문사, 1992), 조선 후기 촌락민 조직과 촌계(박경하, 정신문화연구5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한국 전통마을의 공간구성 재론(김기덕, 역사민속학57, 역사민속학회, 2019).

필자 김기덕(金起德)

막살이집

정의 아무렇게나 되는대로 사는 집으로, 임시 거처를 위하여 마련한 가설 주택.

내용 막살이의 사전상의 의미는 아무렇게나 되는대로 사는 살림살이이며, 아무렇게나 되는대로 생활하는 장소로 정한 집을 막살이집이라 한다. 제대로 축조한 주택이라기보다 임시 거처를 위하여 마련한 가설 주택 기능을 하는 살림집이다.

주생활(住生活)은 영어로 housing life로 표현되며, 주거를 기반으로 정주하는 생활을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항목이 의식주(衣食住)이다. 즉 거주하면서(住) 먹고(食) 입는(衣) 인간 생활의 모든 것이 주생활 범위에 해당된다.

원시시대부터 인간이 수렵생활을 하면서 야생동물의 공격을 피하기 위하여 숨어들어 간 동굴 등 일시 보호처(shelter)가 최초의 거주지라 할 수 있다. 그러

나 정착과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계획된 주거가 본격적으로 발생하였으며, 기후·지역·사회 특성에 따라 인조 환경의 다양한 주거 형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제주 지역 전통건축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은 건축물 배치 방식이다. 즉 하나의 울타리 안에 부·자·자 2세대가 가계와 경영을 달리하는 형태의 비슷한 간살이를 두 채 별동으로 배치한다. 이를 안거리(안채)와 밖거리(바깥채)라고 일컫는다. 이러한 배치가 제주 지역 주택의 기본형이며, 대개 3칸집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안거리와 밖거리로 구분되는 공간 분할에 따른 생활경제 구분이 제주 지역 주생활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즉 바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쌓은 돌담으로 말미암아 안과 밖이 폐쇄성을 띠지만 돌담의 안, 즉 생활공간은 안거리와 밖거리가 대립되는 배치 관계를 형성하고 마당을 중심으로 개방된 공간에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해 온 것이 특징이다. 평면 구성의 일반 형태는 3칸집이다. 사회 공간인 상방(마루)을 중심으로 한쪽은 큰 구들과 고팡, 다른 한쪽은 작은 구들과 찻방(제주 지역 전통가옥에서 밥상을 차리고 식사를 하는 공간)·정지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 형식이다.

그러나 살림살이 규모에 따라 한 채만으로 살림을 꾸려 가기도 하였는데, 돌담 울타리 안에 있는 한 채의 집을 막살이집이라 한다. 한 채만으로 살림살이를 꾸려간 막살이집으로는 평면 구조에 2칸 막살이집, 3칸 막살이집, 4칸 막살이집 등이 있다.

2칸 막살이집은 일반 형태인 3칸 형식의 안거리를 지을 경제력이 없어서 짓는 집이다. 상방 없이 구들과 고팡 등으로 구성되는 평면 구조로, 제주 지역 전통주택의 원시 형태라 할 수 있다. 건축학자 김홍식의 조사에 따르면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의 2칸 부엌집은 다른 주택과 같이 장방형으로, 긴 면을 앞면으로 하여 진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간살이는 2칸으로 그다지 크지 않으나 오른쪽은 정지[부엌], 왼쪽은 구들과 고팡을 각각 배치하였다. 특이한 점은 방에 들어가는 문 앞에 편평하게 다져진 흙바닥인 토방(土房)(혹은 물동)이 놓여 있다는 점이다. 토방은 방 앞에만 만들지만 필요에 따라 부엌 앞문까지도 만든다. 앞은

개방되어 있다. 토방 위치에는 대체로 툇마루가 놓이지만 생략된 것으로, 이는 경제적 여건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부엌은 가로·세로 각각 칸 반 크기이다. 부뚜막은 바깥벽에 붙여 설치된다. 대략 네 개 정도의 솥이 놓인다. 사용된 연료의 재는 솥과 벽 사이에 놓아둔다. 이 공간을 ‘불치통’이라 한다. 정지 뒤편 안쪽에는 식수를 담아 둔 ‘물항’이 놓이고, 그 옆에 식기를 정리하고 보관하기 위한 ‘찬장(살레)’이 위치하게 된다. 좁고 한정된 부엌 공간이지만 불을 다루고 음식을 조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성 및 위생성과 주부의 동선을 고려한 가구 배치와 공간 활용이라 할 수 있다.

3칸 막살이집의 평면은 전면 3칸, 측면 2칸 크기이다. 2칸집에서 상방이 분화하여 변형된 것이다. 작은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제주 지역 초가의 일반형이라 할 수 있다. 작은방이 없는 3칸집을 예로 들면 3칸집이지만 방은 한 개만 배치된 셈이다. 3칸 가운데 오른쪽에는 구들과 고팡, 가운데에는 상방과 난간이 위치한다. 왼쪽에는 정지(부엌)가 2칸을 차지하는 형식을 취한다. 2칸집과 3칸집의 기본 차이점은 정지와 구들 사이에 상방이라는 개방된 공동 공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공간·기능·영역적 분화(分化)가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부엌의 앞문과 뒷문은 막살이집과 같으며, 상방이 생김으로써 부엌에서 상방으로 연결되는 문인 ‘부엌샛문’이 생겨나게 된다. 상방이 생겨나게 됨으로써 부뚜막은 상방의 반대쪽 외벽 앞쪽에 설치되며, 자연스럽게 물항은 정지 뒤쪽에 놓이고 그 옆에 살레(찬장)가 놓였다. 부엌 샛문 앞쪽에는 풀을 깔아 농번기나 일상생활에서 간단한 식사를 하는 공간으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부엌의 중앙에 봉덕을 설치하여 생선 또는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겨울철에는 부엌 공기를 데우는 난방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4칸 막살이는 한 채로 된 경우가 없고 안거리와 밖거리 이상이 되는 유형이 많다. 평면의 간살이는 중앙에 상방이 위치하고 오른쪽 혹은 왼쪽에 각각 고팡과 큰 구들, 챗방과 작은 구들이 위치한다. 그리고 고팡과 큰 구들의 바깥쪽으로 불을 피우는 ‘굴목’이 위

치하고, 챗방과 작은 구들의 바깥쪽에 정지가 위치하는 평면 형식이다. 3칸집이 제주 지역 초가의 일반형이라고 한다면 4칸집은 제주 지역 초가의 완성형이라 할 수 있다. 정비의 앞문과 뒷문은 3칸집과 형식이 같으며, 정지와 챗방 사이에는 대체로 벽체 없이 개방되어 있지만 살림살이가 큰 집에서는 벽과 별도의 문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식사 공간인 챗방이 부엌에 설치됨으로써 부뚜막 등 부엌 구조에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챗방의 바닥이 흙바닥인지 마루인지에 따라 기능이 달라진다. 챗방이 흙바닥인 경우 부뚜막은 챗방의 맞은편 바깥벽에 설치하고 마루는 작은 구들에 붙여 설치하였다.

특징 및 의의 막살이집은 일시 및 임시 생활을 위하여 건축된 주택이라 할 수 있지만 제주 지역의 경제 여건과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정상 주거공간과 큰 차이가 없다. 원시 형태의 기본 형식인 2칸집은 구들, 고팡, 정지로 구성된다. 이는 식사 기능, 취침 기능, 농업 중심의 생산 기능을 엮을 수 있는 주거공간의 단면이다. 이를 바탕으로 분화·발전하면서 제주 지역 초가의 기본형인 3칸집은 상방이라는 공동 공간이 생기고, 4칸집에서는 작은구들과 챗방이라는 새로운 생활 기능이 분화하게 되었다. 물론 그에 따른 내부공간, 특히 정지와 난간 등 그 주변 공간이 변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주거는 경제·사회·기능 측면에서 다양성과 역사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선조들의 생활상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 생활사의 산물이 된다.

참고문헌 제주도민속자료(제주도, 1987),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grandculture.net).

필자 김태일(金泰一)

막새

정의 수키와와 암키와의 한쪽 끝에 원형 및 장방형의

드림새를 덧붙여서 목조건물의 처마 끝에 사용하는 무늬기와.

내용 막새[瓦當]는 목제와 도제의 막새 틀[瓦范]로 제작하며, 수막새[圖瓦當]·암막새[平瓦當]·이형막새로 구분된다. 목제의 막새 틀은 삼국시대 이후 전 시기에 사용되었고, 도제의 막새 틀은 통일신라시대에 한정되었다. 막새는 각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변천되어 왔기 때문에 당시의 문화 연구와 특성 파악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수막새는 삼국시대에 제작되어 조선시대까지 사용되었다. 수막새에는 구름, 연꽃蓮花, 보상화寶相華, 초화, 서조, 가릉빈가, 사자, 귀면, 인면, 범자 등 여러 무늬가 새겨져 있다. 이와 같은 무늬는 벽사, 불교의 염원을 상징한다. 연꽃이 새겨진 고구려와 백제 및 신라의 수막새는 각각 날카롭고 부드러우며 투박한 차이를 보인다. 보물 제2010호로 지정된 얼굴무늬수막새는 경상북도 경주 영묘사지에서 출토되었는데, 귀면과 같이 벽사를 의미한다. 통일신라의 수막새는 연꽃이 단판單瓣과 복판複瓣, 중판重瓣과 혼판混瓣 등 다양한 형식 변화를 보이면서 화려하고 섬세한 장식미를 발휘하였다. 그런데 조선의 수막새는 조선시대에 그 형태가 원형에서 타원형으로 바뀌고, 수키와가 둔각으로 접합되는 기능상의 특성을 보인다.

암막새는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되었다. 암막새에는 당초唐草, 인동당초, 보상화당초, 화엽당초, 초화, 서조, 용, 기린, 비천, 귀면, 귀목 등 다양한 무늬가 새

겨져 있다. 암막새는 폭이 좁은 공간성 때문에 당초무늬가 주류를 이루어 내향대칭형과 외향대칭형의 형식 변화를 보인다. 암막새는 턱의 유무에 따라 무악식無顎式과 유악식有顎式으로 나뉜다. 통일신라의 암막새는 턱이 없는 무악식으로, 유려한 당초가 새겨져 있다. 턱이 돌출한 유악식은 통일신라 이후 전 시기에 성행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그 형태가 장방형에서 삼각형 또는 설형으로 바뀌고, 암키와가 둔각으로 접합된다.

이형막새는 형태가 특이하고 사용처가 특정한 부위에 한정된 기와이다. 반원막새와 타원막새, 소형수막새와 소형암막새, 모서리암막새와 끝암키와[端平瓦] 등 여러 종류로 나뉜다. 반원막새와 타원막새는 고구려시대와 통일신라시대에 각각 제작되었으며, 수키와가 빗각으로 부착되어 지붕이 ㄱ자로 꺾이는 회첨會檐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소형수막새와 소형암막새는 기와의 규모가 작은 편으로, 차양이나 담집에 사용된 기와로 추정된다. 모서리암막새는 두 암막새를 빗각으로 재단하여 접합한 기와로, 목조건물의 처마 모서리에 사용된다. 끝암키와는 암키와의 한쪽 끝에 무늬를 새긴 기와이다. 고구려와 백제에서 약간씩 제작되었으며, 암막새의 시원 형식으로 간주된다.

특징 및 의의 막새는 각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되었다. 그 규모와 특성에도 차이가 있다. 고구려의 수막새는 규모가 크고 힘차며, 백제의 수막새는 작지만 부드럽고 단아하다. 신라의 수막새는 견실하나 투박하다. 통일신라의 막새는 동아시아에서 최고 수준을



막새 | ① 지름17 | 천추총 | 고구려 | 국립중앙박물관 ② 지름13 | 충남 공주 대동사지 | 백제 | 국립중앙박물관
③ 지름12 | 경북 경주 흥륜사 | 신라 | 국립경주박물관 ④ 너비23 | 경북 경주 월성 | 통일신라 | 국립경주박물관

자랑하며, 매우 정교하고 섬세하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막새가 기능상의 특성을 보였으며, 청자기와와 청유기와가 제작되어 궁궐 건축의 화려한 의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조선 후기와 근대에 이르러 조와造瓦 체계가 붕괴됨에 따라 그 맥이 오늘까지 이어지지 못하였다.

참고문헌 백제의 와전예술(김성구, 주류성, 2004), 신라기와연구(김유식, 민속원, 2014), 이우치 컬렉션 신라·통일신라의 와전(신창수, 돌아온 와전 이우치 컬렉션, 국외소재문화재재단·유급와당박물관, 2015).

필자 김성구(金誠龜)



망
치

망치

정의 쇠나 나무덩이에 손잡이를 달아 한순간의 힘으로 쳐서 못을 박거나 접합체를 결합시키는 연장.

개관 망치의 옛 이름은 ‘메’이며, 한자로는 종규終規로 표기된다. 망치와 메는 순우리말이다. 망치의 기능은 여러 가지이다. 보통 못을 박거나 끌을 사용할 때 사용하지만 목재를 맞추거나 이음을 할 때도 쓴다. 망치는 크기와 재료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다. 집 짓는 일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요긴하게 사용된다. 목수를 비롯한 거의 모든 장인이 사용하는 필수 연장이다.

내용 망치는 말뚝이나 못을 박을 때, 두 접합체를 맞추는 때와 같이 어떤 것을 박거나 칠 때 사용하는 연장이다. 목수를 비롯하여 석수 등 거의 모든 장인이 사용하는 기본 연장이다. 망치의 기본 구성은 내려치는 머리와 손으로 쥐는 자루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주로 쇠나 나무로 만든다. 쇠로 만든 것을 쇠메, 나무로 만든 것을 목메라 한다. 목메는 떡갈나무, 느티나무, 참나무, 대추나무와 같이 단단한 나무를 사용한다. 머리는 다소 크며, 양쪽은 평평하게 되어 있다. 쇠메는 머리를 쇠로 만든 망치이다. 목수 외에도 석수,

야장冶匠이 많이 사용한다. 크기에 따라 대형·중형·소형으로 나뉘며, 용도가 모두 다르다. 목메는 단단한 나무만 있으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지만 쇠메는 대장간에서 머리를 만든 다음 자루를 끼워야 사용할 수 있다. 목수가 사용하는 메는 하는 일에 따라 다르다. 대형 메는 보와 기둥을 맞추할 때와 같이 큰 부재 끼리 맞추거나 이음을 할 때 주로 사용한다. 큰 통나무를 베개 크기로 잘라서 가운데에 긴 손잡이를 달아 쓴다. 중형 메는 수장재와 같은 작은 부재를 맞추거나 이음을 할 때 사용하며, 큰 끌을 쓸 때도 필요하다. 머리를 쇠로 만들기도 하지만 나무로 만들기도 한다. 소형 메는 대체로 못을 박거나 끌을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한다. 머리는 주로 쇠로 만든다.

대장간에서 야장도 망치를 많이 쓴다. 이들은 모



망치 | 국립무형유산원



망치질 | 1999 | 국립무형유산원

두 쇠망치를 사용한다. 쇠를 다루기 때문에 담금질할 때 목메로는 불가능하다. 야장이 쓰는 쇠망치는 단련시켜서 탄소를 많이 함유하여 단단하게 만들어 쓴다. 그래야 머리가 문드러지지 않고 오래 사용할 수 있다. 배를 만드는 선장船匠도 망치를 많이 쓴다. 부재를 맞추거나 이을 때, 축을 만들고 장부를 만들 때 사용한다. 배를 만들 때는 배에 물이 침투하지 않도록 세밀한 작업이 필요하다. 판재와 판재 사이의 방수재는 작은 망치로 세밀하게 두드려서 끼워 넣어야 하기 때문에 작은 망치를 사용한다. 가구를 만드는 소목장은 작고 세밀한 망치를 많이 사용한다. 돌을 다루는 석장石匠도 망치를 많이 사용한다. 돌을 캐낼 때 쓰는 대형 망치부터 글자나 문양을 새길 때 쓰는 작은 망치까지 다양한 종류의 망치를 사용한다.

망치는 유형과 쓰임새에 따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 장도리는 못을 박거나 끌을 사용할 때 쓰며 쇠로 만든다. 머리의 한쪽을 뭉툭하게 만들고 다른 한쪽은 뾰족하게 만든다. 뾰족한 부분은 서까래못을 깊이 박을 때 사용하며 쇠머리 중간에 자루를 끼워서 쓴다. 장도리메는 장도리 대신 사용하는 연장이다.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못이나 산지를 박을 때, 맞춤을 하거나 끌을 사용할 때 많이 이용한다. 소도리는 소목장이나 비문을 새기는 석장이 주로 사용하는 연장으로 아주 작은 망치를 말한다. 먹쇠메는 단단한 흙이나 돌을 두드려서 부수는 데 사용하는 연장이다. 두꺼운 쇠 원판에 자루를 끼워서 사용한다. 일명 몽둥이라고도 한다.

특징 및 의의 망치는 물건을 만들 때 거의 모든 장인이 사용하는 필수 연장이다. 옛 이름으로는 메라 한다. 만드는 재료에 따라 쇠메와 목메로 구분되지만 크기와 모양은 매우 다양하다. 망치는 한순간 힘을 가해 물건을 가공하는 기능도 있지만 두드려 가면서 물건의 모양을 만들어 가기도 한다. 아무리 좋은 연장이 있어도 망치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못을 박거나 끌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망치가 있어야 한다. 이처럼 망치는 그 자체가 물건을 만드는 기능도 하지만 다른 연장을 돕는 기능도 하는 중요한 연장이다.

참고문헌 연장과 치목(이왕기, 건축167-4, 대한건축학회, 1992), 한국의 건축 도구(이왕기, 건축장인의 땀과 꿈, 국립민속박물관, 1999), 한국의 건축연장 연구2(이왕기, 목원대학교논문집8, 목원대학교, 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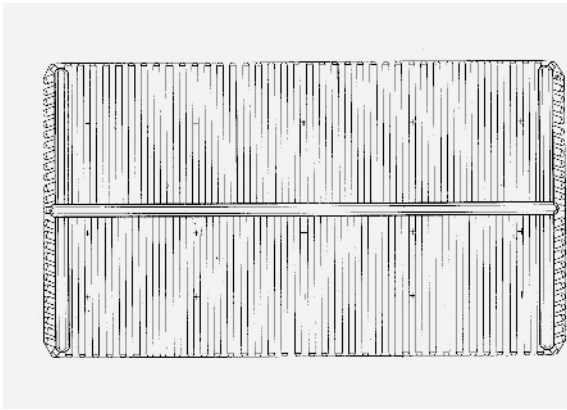
필자 이왕기(李王基)

맞배지붕

정의 건물 앞뒤에만 지붕이 있고 추녀와 추녀마루 없이 용마루와 내림마루로만 구성된 지붕.

내용 맞배지붕은 한국건축 지붕 중에서 그 구성이 가장 단순하고 간결하다. 건물 앞뒤로 서까래를 경사지게 걸어 지붕면을 만들고 양쪽 측면은 삼각형의 벽, 즉 박공을 둔 형태의 지붕이다. 일명 ‘뱃집’이라고도 한다. 철기시대 이전인 초기 원시 움집의 경우는 평면이 원형이나 정방형이 많아서 지붕도 모임지붕이 일반적인 형태였다. 그러나 철기시대 이후 정착 생활을 시작하면서 살림 규모가 커지고 연장이 발달함에 따라 장방형의 움집이 탄생하였다. 장방형 움집의 경우는 모임지붕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맞배지붕이나 우진각 지붕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맞배지붕의 탄생은 움집이 장방형화하는 철기시대 이후 본격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건축이 점차 지상화하고 지붕가구가 벽체와 별도로 독립되면서 가구가 복잡해짐에 따라 현재와 같은 맞배지붕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남한에 현존하는 6개 동의 고려시대 건물 중에서 부석사 무량수전이 팔작지붕인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5개 동은 모두 맞배지붕이다. 북한에 남아 있는 고려시대 주심포 건물 2개 동도 맞배지붕이고 다포건물 2개 동만이 팔작지붕이다. 이에 따르면 고려시대까지 주심포 건물에서는 주로 맞배지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다포 형식이 유행하였고 주전은 대개 다포로 만들어짐에 따라 점차 맞배지붕보다 팔작지붕이 늘어났다. 이 시기의 부속건물이나 작은 건물은 대체로 맞배지붕 형식을 하였다. 그래서 맞배지붕은 작은 건물에 사용한다는 인식이 생겼



맞배지붕 외복도 |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 | 김왕직·동넵



맞배지붕 | 경북 안동 | 최지현

는지 모르지만 그런것만은 아니다. 고려시대 맞배건물은 대부분 주전이였다. 조선 초 맞배건물인 무위사 극락전, 정수사 법당 등도 주전이면서 규모도 컸다. 따라서 맞배지붕이 격이 낮거나 규모가 작은 건물에 사용된 것은 아니다. 맞배지붕도 3량가에서 5량가, 7량가 등 규모가 다양하고 부연이 있는 겹처마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주전이 다포 형식의 팔작지붕을 사용함에 따라 맞배지붕은 부속건물이나 회랑 등 작은 건물에 사용되었다. 건물 성격으로는 규모와 관계없이 서원, 향교의 사당, 종묘, 가묘 등 제사 건물은 맞배지붕을 사용하였다.

특징 및 의의 맞배지붕은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되었지만 측면에는 지붕면이 없기 때문에 비가 들이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측면에 창이 필요한 거실 용도의실이 배치되지 않는 사당과 회랑, 부속건물 등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원시 맞배건물 중에서는 일본에서 많이 나타나는 역사다리꼴 맞배지붕이 있다. 용마루를 많이 빼내서 가능하면 측면의 비바람을 막고자 한 것이다. 현존하는 한국의 맞배건물 중에서도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측면으로 돌출한 지붕의 길이가 길다. 측면을 많이 돌출시키기 위해서는 도리가 내부로 그 이상 물려야 하기 때문에 도리의 길이가 길어진다. 조선시대에 이르면 전쟁을 치르면서 산림이 황폐화되고 목재가 고갈되어 긴 도리를 사용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돌출 길이가 줄어들어 측면에 문제가 발생하여 비바람을 막을 목적으로 박공면에 풍판(風板)

이라는 것을 새롭게 덧붙였다. 풍판이 있어도 측면에 창호를 낼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측면 가구를 구성하는 기둥과 보, 인방재들을 보호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맞배지붕도 양곡(昂曲)을 주기 때문에 양쪽 어깨가 처져 보이지 않고 역동적이며, 양곡이 많은 경우는 팔작지붕과 같이 갈모산방을 쓰기도 한다. 풍판이 없는 경우는 박공으로 마감되고, 그 하부는 수덕사 대웅전과 같이 기둥과 보로 구획된 벽체가 노출된다. 이 경우 면 비례가 주는 아름다움도 건축을 감상하는 맛이라 할 수 있다. 박공은 방환이라고 불리는, 머리가 크고 둥근 장식 못에 의하여 도리에 고정된다. 박공이 만나는 부분에서는 지네철로 연결하여 벌어지는 것을 방지한다. 지네철의 모양과 재질은 매우 다양하였다. 그리고 지네철 아래에는 현어(懸魚)를 달아 도리 말구를 가리고 장식을 해 주었다. 마치 물고기를 닮아 현어라고 하였으며, 금은 황동 장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매우 화려하였다. 조선시대 풍판은 대들보 정도까지 가렸으며, 널판을 세로로 대고 사이를 쥘대목으로 연결한 판벽이다. 풍판에는 통기구멍을 뚫어 가구부재의 부식을 방지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김왕직, 동넵, 2007), 지혜로 지은 집 한국건축(김도경, 현암사, 2011), 한국건축대계4-신편 한국건축사전(장기인, 보성각, 1998).

필자 김왕직(金王植)

맞춤

정의 목 부재 간 결합 방법의 하나로, 크고 작은 두 개 이상의 단일 부재를 직각 방향이 되도록 짜 맞추는 결구 방법.

개관 우리나라 전통 목조 건축물은 하나의 단일 목 부재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다양한 목 부재가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결구 체계를 이룬다. 목조 건축물의 결구 체계는 크고 작은 목 부재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목조 건축물의 조영 원리를 담고 있다. 목조 건축물의 결구는 목 부재 간 다양한 맞춤과 이음을 통하여 만들어진다는. 건축물에 따라, 그리고 목 부재의 역할과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다. 결구와 구조의 기본인 목 부재 간 맞춤 및 이음 부분은 세월이 흐르면서 목재의 수축과 이완 등으로 목재에 변형이 생겨서 보강재를 통하여 안정된 구조를 취한다.

전통 목조 건축물의 목 부재 간 맞춤은 둘 이상의 목 부재가 서로 직교하거나 경사지게 짤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물의 목 부재는 크게 수직재, 수평재, 사장재로 나뉜다. 맞춤은 수평 부재와 수평 부재의 맞춤, 수직재와 수평재의 짜 맞춤이다. 이외에 수평과 수평 부재, 수직 부재 간 맞춤도 있다.

내용 단위 목 부재 간 맞춤은 이음에 비하여 다양하다. 맞춤의 예는 맞댄맞춤, 통맞춤, 걸침턱맞춤, 반턱맞춤, 장부맞춤, 주먹장맞춤, 축맞춤, 은장맞춤(나비장맞춤), 산지맞춤, 연귀맞춤, 사개맞춤 등이 있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물의 몸체 부분과 포작 부분, 가구 부분의 수직 부재와 수평 부재 간 맞춤은 맞댄맞춤, 반턱맞춤, 장부맞춤, 주먹장맞춤 등을 기본 바탕으로 하여 다양하게 한다. 그리고 맞춤은 이음 또는 보강재를 사용하여 외부 하중에 의한 맞춤부의 변형을 막고 부재 간 결속력을 유지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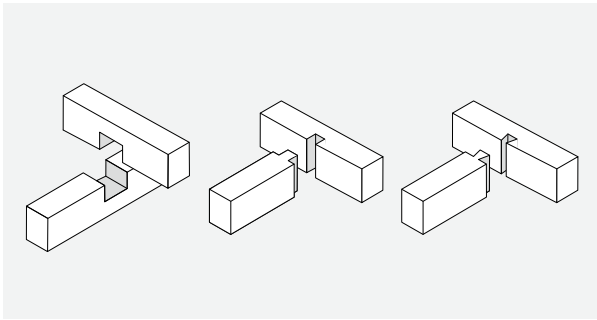
수평 부재와 수평 부재의 반턱맞춤은 두 개의 수평 부재가 직각으로 만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맞춤 방식의 하나이다. 수평 부재 간

장부맞춤은 목리 방향의 횡단면에 장부를 만든 부재와 목리 방향의 종단면에 장부 홈을 만든 부재 간 맞춤으로, 장부의 목과 끝 폭이 같다. 주먹장맞춤은 장부맞춤과 기본이 같지만 장부 끝 폭이 목 폭보다 넓어 횡 방향의 인장력에 의하여 빠지지 않도록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목조 건축물의 수평 부재 간 맞춤은 보통 장부맞춤보다 주먹장맞춤으로 짜 맞춤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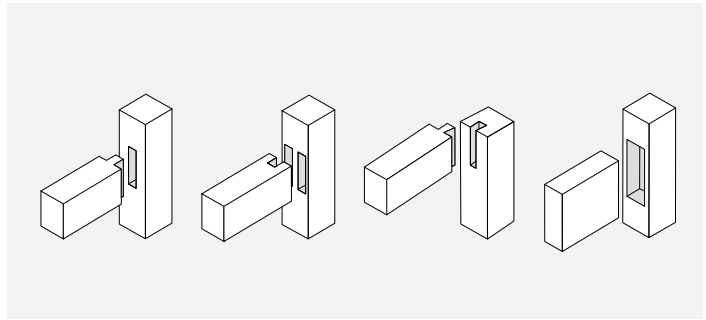
수평 부재와 수직 부재의 장부맞춤은 수직 부재에 장부 홈을 파고, 수평 부재에 장부를 만들어서 짜 맞추는 방법이다. 수평 부재에 장부를 만들지 않고 수평 부재의 제 몸을 그대로 수직 부재에 바로 결합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통장부맞춤이라 한다. 그리고 장부 두 개를 만들어 수직 부재에 결합하는 방법도 있다. 이를 쌍장부맞춤이라 한다. 장부맞춤은 횡 하중의 변화에 의하여 맞춤부에 인장력이 발생할 경우 수평 부재가 수직 부재에서 이탈하므로 산지를 수직 부재와 수평 부재의 장부에 박아 이탈되는 것을 막도록 하였다. 주먹장맞춤은 수직 부재 상부에 주먹장부 홈을 파고, 수평 부재에 주먹장부를 만들어 주먹장부를 수직 부재 위에서 아래로 끼워 짜 맞춘다. 따라서 주먹장맞춤은 횡 하중에 의하여 인장력이 발생할 경우 장부맞춤보다 부재 간 결속력이 강하다.

앞에서 언급한 주먹장맞춤은 주먹장부 홈이 수직 부재의 상부에 있다. 이와 달리 수직 부재 몸에 주먹장부 홈을 파서 맞춤을 한 주먹장맞춤도 있다. 수직 부재 몸에 주먹장부 홈을 낸 맞춤은 ‘내림주먹장맞춤’이라 한다. 이 경우 조립을 위하여 수평 부재 춤의 $1/3 \sim 1/2$ 를 주먹장부로 하고 나머지는 장부맞춤으로 조립한다. 이와 같은 맞춤으로 조립하면 주먹장부 춤만큼의 공백이 생겨서 췌기를 박아 부재 간 결속력을 유지한다. 내림주먹장맞춤은 시공 이후 목 부재의 수축과 할렬로 주먹장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췌기를 이용한 장부맞춤은 수평 부재를 수직 부재 몸체에 결구한 내림주먹장맞춤보다 단순한 결구 방법이다. 이 장부맞춤은 장부 홈의 춤이 장부 춤보다 큰 결구 방법으로, 나머지 부분에 췌기를 박아 고정시킨다. 목재의 수축 및 변형으로 결속력이 급격히 떨어



수평 부재 간 맞춤(반턱맞춤·장부맞춤·주먹장맞춤) | 정연상



수평 부재와 수직 부재 간 맞춤(장부맞춤·쌍장부맞춤·주먹장맞춤·통장부맞춤) | 정연상

맞춤

질 때 사용한다. 이 맞춤 방식은 근대식 건물이나 부속 건물에서 볼 수 있다.

산지를 이용한 장부맞춤은 켜기를 이용한 장부맞춤과 내림주먹장맞춤이 있는 결점을 보완한 결구 방법이다. 이 장부맞춤은 기둥 몸에 장부맞춤을 한 후 산지를 수직 부재와 수평 부재의 장부를 관통하도록 박아서 부재 간 결속력을 높인다.

이 결구 방법은 장부와 장부 홈의 목재가 건조되면서 틈이 생겨 구조상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산지구멍을 1~2푼 정도의 깊이 차이를 두고 뚫어서 결구한다. 그 이유는 조립 시 뽀뽀하게 결구가 되어야 부재 간 짜임새가 견고하기 때문이다. 산지가 장부를 장부 홈에 물고 들어가서 부재 간 짜임새를 높인다. 특히 수직 구조재 기둥 면에 구멍을 원하는 위치에 정확히 뚫는 것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산지 2개 정도를 박은 결구 방법은 현재 목조 건축 시공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요즘 많은 문화재 공사 현장에서는 장부맞춤을 하고 보강재 산지나 띠쇠를 박아 보강한다.

정면과 측면의 수평 부재 창방과 수직 부재 기둥 간 맞춤은 사개맞춤으로 짜여 있다. 특히 우주 상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사개맞춤은 기둥 상부를 십자 형태로 장부 홈을 파고 두 방향의 부재가 장부 홈에서 맞춤을 한다. 횡 방향 부재와 종 방향 부재는 반턱맞춤을 하고, 반턱맞춤을 한 두 부재는 다시 기둥과 장부맞춤을 한다. 우주 이외에 평주의 경우도 기둥 상부는 사각을 트고 종 방향 부재와 횡 방향 부재가 맞춤한 사례도 있다. 사개맞춤은 포작이 없는 일반 살림집이나 작은 규모의 부속채 민도리집 또는 익공집에

서 볼 수 있다. 익공집 기둥은 사각 틈 곳에 창방과 익공재가 결구하며, 민도리집은 보와 도리 또는 보와 장혀가 결구한다. 이때 창방과 도리의 그 끝을 주먹장부치목을 하고, 익공재와 보머리에 주먹장부맞춤을 하여 좌·우로 빠지지 않도록 한다.

삼분턱맞춤은 세 방향의 서로 다른 세 부재 간 결구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삼분턱맞춤은 주로 우주 위 귀포의 포부재 간 결구 방법이다. 특히 팔작지붕 건물은 귀포 위에 추녀가 있어 이 추녀를 받는 귀한대가 대각 방향으로 돌출하면서 삼분턱맞춤을 한다. 삼분턱맞춤은 방향이 서로 다른 3개 포부재의 춤을 삼등분하여서 장부 홈을 파내고 짜 맞춤을 한다.

우주 위 삼분턱맞춤은 단순한 맞춤이 아니라 건물의 직각 틀을 잡아 건물의 전체 균형을 잡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귀한대는 구조뿐만 아니라 우주 상부의 의장성을 높이는 데도 한몫을 한다. 귀한대는 주로 다포계 팔작지붕에 많이 사용하지만 주심포계 맞배지붕 건물에서도 볼 수 있다.

우주 위 귀포작의 귀한대를 구성하는 방식은 현재도 옛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다포계 팔작지붕 건물에 적극 사용되고 있다. 경상북도 청도 운문사 대웅보전 포작은 다포계로, 주상과 주간에 포작을 꾸몄다. 포작은 외 3출, 내 4출로 7포이다. 주두 위에는 살미와 첨차가 반턱맞춤을 하였다. 장혀는 기둥 중심에서 반턱주먹장부이음을 하였고, 살미와 반턱맞춤을 하였다. 대웅보전의 귀포작도 주간 포작과 같이 초제공과 이제공에 주장첨차로 결구하였다. 초제공은 측면과 정면의 주장첨차가 먼저 맞춤을 하고 이 위에 초제공 귀한대 포작이 삼분턱맞춤을 하였다. 이제공·

삼제공·사제공 포재도 삼분턱맞춤을 하였다. 우주 상부의 삼분턱맞춤을 한 포 부재는 열 개 이상의 부재와 정확하게 짜 맞춤을 하므로 정밀한 목재 마름질 및 조립 시공이 필요하다.

특징 및 의의 목조 건축물은 단일 부재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다양한 목 부재가 서로 결합된 하나의 결구 체계이기 때문에 부재 간 결합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당시 집을 계획하고 지은 장인들의 조영 원리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된다. 특히 부재 간 맞춤과 이음 방식을 통해 재료 특성과 장인 구조 해석을 이해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부분이다.

참고문헌 맞춤과 이음(정연상, 고려출판사, 2010),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김왕직, 동녘, 2007), 한국건축대계5-목조(장기인, 보성문화사, 1988).

필자 정연상(鄭淵相)

머름

정의 한옥에서 창호나 벽체의 중방 아래에 방풍 및 장식 목적으로 대는 장식재.

내용 머름[遶音]은 한옥의 창호窓戶나 벽 아래에 설치하는 수장재로, 사람과 물건이 드나드는 문에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방바닥에서 머름 최상단까지의 높이는 대개 30~50cm로, 방 안에 앉은 사람이 편안하게 팔을 걸칠 수 있는 정도이다. 머름은 한옥의 창 하부를 아름답게 구성함과 동시에 온돌방의 온기溫氣가 밖으로 방출되는 것을 막는 방풍·방온 기능, 외부에서 방바닥을 들여다볼 수 없게 하는 등 사생활 보호 기능이 있다. 한옥에서 머름은 환경적인 요구, 집을 아름답게 꾸미려는 의장적 요구, 출입 통제 등 다양한 요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매우 주요한 구성 요소이다. 창호 아래는 물론 난간의 하부 및 내루內樓 주위 등에 사용된 아름다운 머름은 한옥의 통일된 조형미 표현에도 기여하였다.

조선시대 영건도감의궤營建都監儀軌에서는 머름을 한자의 뜻과 음을 빌어 ‘원음遶音’, ‘원힘遶驗’, ‘요음了音’ 등으로 표기하였으며, 19세기 이후 ‘머름’으로 굳어져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다. 머름은 재료에 따라 토머름과 목머름으로 나뉜다. 목재로 만든 목머름은 다시 머름동자[遶音童子]가 없는 간략한 ‘통머름’과 ‘통판머름’, 여러 개의 머름동자 및 어의동자 등을 사용하여 아름답게 꾸민 ‘짜는머름’으로 구분된다. 머름의 길이는 통머름 및 토머름은 대개 상부에 놓이는 창 의 폭과 같으나 ‘짜는머름’은 창이 위치하는 기둥 사이에 걸쳐 길게 시설되는 것이 보통이다.

머름의 종류별 특징을 살펴보면 흙을 반죽하여 바른 토머름은 고식古式으로 온돌방의 정면 창호에 주로 사용되었다. 머름대와 머름하방 사이의 공간에 토벽을 친 형태로, 머름의 높이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토머름은 목머름에 비하여 장식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머름을 구성하는 토벽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목머름의 일종인 통머름은 창얼굴을 형성하는 밀틀을 머름으로 이용하거나 창얼굴과 하인방 사이에 각재(가지방 또는 중방)를 끼워 넣어 만든 것이다. 통머름은 대개 높이가 낮은 형태로, 대청 주위 창호 아래에 많이 사용되었다. 통머름은 목재의 건조 수축으로 인해 틈이 많아 방풍 성능과 장식성이 낮은 머름으로 조선 전기에 많이 사용되었다. 목머름의 한 종류인 통판머름은 머름상방과 머름중방 사이의 공간에 판재를 끼워 막은 형태로, 단순한 형태의 통머름에 판재를 추가하여 단점을 개선함과 동시에 장식성을 가미한 머름이라 할 수 있다.

목머름의 가장 발전된 형태인 ‘짜는머름’은 통판머름에 목재로 만든 머름동자와 어의동자가 추가된 형태이다. ‘짜는머름’은 조선 후기에 궁궐과 양반 사대부 층의 반가, 정자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건축에 널리 사용되었다. ‘짜는머름’은 크고 작은 목 부재를 정교하게 조립하여 만든 것으로, 장식성은 물론 단열·방풍·방습 성능도 가장 우수하다. ‘짜는머름’은 창호가 시설되는 두 기둥 사이에 머름상방(머름대)과 머름하방 및 어의동자를 조립하여 머름의 골격을 형성한 다음 머름동자를 일정한 간격으로 세우고 그 사

이를 판재로 만든 머름청판을 끼워 외기^{外氣}를 막도록 한 머름이다. 머름의 최상단에 놓인 머름상방은 창호가 여닫히는 창턱 역할을 한다.

‘짜는머름’은 짜맞춤과 치목^{治木}이 매우 정밀하고 고급스러운 것이 특징이다. 견고한 짜맞춤과 장식성 향상을 위하여 목재를 짜 맞출 때 다양한 맞춤 기법을 사용하였다. 끝이 뾰족한 머름동자와 머름상방은 제비초리맞춤을 하였으며, 어의동자와 머름상방은 연귀맞춤을 하였다. 이러한 맞춤법은 조선 후기에서 근대로 오면서 고급스러운 제비초리맞춤이나 연귀맞춤보다 간략한 맞춤을 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짜는머름’은 반가의 대청 배면, 온돌방의 전면^{前面} 등에 주로 사용되었다. 이밖에도 난간이나 내루 주위 등에도 폭 넓게 사용되었다.

머름

특징 및 의의 머름의 종류와 주로 사용된 시기를 살펴보면 조선 전기에는 한옥의 온돌방 및 대청 주위 창호 아래에 토머름과 목재 통머름이 많이 사용되었다. 16세기 중엽 이후가 되면 토머름은 사라지고 목머름의 일종인 통판머름이 많이 사용되었다. 17세기 초에는 대청 쪽 창호에 목재로 만든 통판머름이 사용되었다. 18세기를 전후하여 온돌방의 정면 창호 아래에도 통판머름이 널리 사용되었다. ‘짜는머름’은 18세기 중반 이후 등장한 머름으로, 19세기 이후부터 궁궐을 비롯한 양반사대부의 반가 및 누정 등에 널리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개항기 이후 20세기 초에 많이 건축된 상류층의 근대한옥에서는 창호 아래에 있어야 할 머름을 생략하기도 하였다. 이는 키 큰 창호를 설치하여 채광과 환기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당시의 건축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대청을 거쳐 온돌방으로 출입하는 전통적인 출입동선 대신 정면 툇마루에서 온돌방으로 직접 출입하는 동선의 변화를 가져왔다.

머름 형식의 변화는 건축 기술과 연장의 발달 및 방풍과 방습, 단열에 대한 강한 요구 및 온돌방 출입 동선 등의 다양한 건축적 요구가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짜는머름’의 등장과 확산은 건축 기술과 연장 발달 및 한옥 창호의 장식 경향과 깊은 관



머름 | 주택문화사

련이 있다. 선^線 구성이 특징인 ‘짜는머름’ 위에 창살의 살 짜임이 특징인 한옥 창호를 설치하는 방식을 통하여 창과 머름을 더 아름답고 통일된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었고, 이는 한옥의 조형성 강조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참고문헌 머름의 특성과 변천에 관한 연구(박일찬·이호열, 건축역사연구20-2, 한국건축역사학회, 2011), 전통건축의 창열굴과 머름에 관한 연구(박일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필자 이호열(李鎬烈)

머릿장

정의 머리맡에 두고 필요한 일상용품을 넣어서 손쉽게 꺼내 쓸 수 있도록 만든 작은 장.

내용 머리맡에 두고 사용하여 ‘머릿장’이라고 하였다. 또 부유한 가정의 처녀가 혼수용 버선을 가득 담아 시집을 오기도 하여 버선장이라고도 한다. 크기가 작아 ‘애기장’이라고도 한다. 사랑방과 안방에서 모두 사용하였다. 일반 장에 비하여 키가 낮고 폭이 좁은 단층으로 만들었다.

시대가 오래된 머릿장은 천판 아래에 서랍 세 개를 배치하고, 그 아래에는 여닫이문을 달아 장의 기능을 하도록 하였다. 천판과 옆널을 직각으로 맞추고, 옆널에 풍혈을 뚫어 다리 역할을 하게 하는 등 후기의 머릿장에 비하여 간결한 양식을 취한다.

반면 후기에는 천판이 몸체보다 돌출하고 마대를 별도로 만들어서 마치 2~3층 장의 윗부분을 떼어낸 형태를 보인다. 사랑방의 머릿장은 천판 위에 두루마리나 문방용품, 애완품 등을 올려놓고 사용해서 천판의 양귀가 위로 들린 두루마리(귀들림)천판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위에 올려놓은 물건이 굴러 떨어지지 않게 배려한 것이다. 안에는 서적이나 문서 같은 중요한 물품을 넣어 두었다.

안방에서 사용하는 장은 위층을 떼어 낸 형태가 대부분이며, 측실이 없는 경우 그 위에 이불을 올려

놓기도 한다. 안방용의 경우, 문양은 대부분 아름다운 물푸레나무나 느티나무의 용목으로 알갱이를 끼워 화려하게 보이도록 하였다. 일부 부유한 양반계층에서는 채색화를 그린 화각華角, 자수, 자개 등으로 장식하기도 했다.

머릿장 앞판의 사랑방용 알갱이는 오동나무, 먹감나무, 소나무 등 나뭇결이 곧은 목재로 단순 간결한 양식을 보이는 등 사랑방의 문기文氣를 보여 준다.

특징 및 의의 머릿장은 생활에 늘 필요한 물건을 손쉽게 보관하고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 만든 가구로, 중상류 이상의 계층에서 사용하였다. 따라서 현존하는 유물이 적으며 유물의 질과 격이 높은 편이다.

머릿장은 현대의 입식 생활에서도 필요한 가구로서 침대와 조화되는 디자인 개발로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전통목가구(김삼대자, 대원사, 1997).

필자 김삼대자(金三代子)

먹통

정의 먹줄에 먹물을 묻혀서 직선을 표시하는 데 사용하는 건축연장.

개관 먹통(묵통墨筒, 墨桶)은 집 짓는 목수를 비롯하여 가구를 만드는 소목, 창호장, 석수, 와공, 배 만드는 선장船匠 등이 사용하는 기본 연장의 하나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목수에게는 기본이자 필수 연장이라 할 수 있다. 집을 짓거나 무언가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긴 직선을 정확하게 긋는 일이다. 이렇게 긴 거리를 직선으로 긋기에 가장 효과 높은 방법이 팽팽한 먹줄을 이용하는 것이다. 먹통은 먹줄을 보관해 두는 통이자 줄을 빼서 직선을 긋기 좋게 사용하는 연장이다.



머릿장 | 가로78 세로29 높이49 | 20세기 초 | 국립민속박물관



먹통 | 국립민속박물관

① 길이17 너비8 높이9 | 광복 이후 ② 길이20 너비8 | 조선 ③ 길이15 너비5 높이5 | 조선 ④ 길이21 너비7.5 높이7 | 조선

먹통

내용 먹통은 장방형의 두꺼운 나무토막에 전후로 두 개의 구멍을 뚫어서 한쪽(앞쪽)은 먹물을 묻힌 솜을 넣어 두는 먹솜칸으로 하고, 다른 한쪽(뒤쪽)은 먹줄(먹실, 묵사墨糸)을 감을 수 있도록 타래(고패)를 끼워 넣는다. 먹줄의 한쪽 끝은 타래에 묶어 감아 두고 다른 한 끝은 타래칸과 먹솜칸 사이의 작은 구멍으로 빼내어 먹솜에 잘 묻도록 하고, 다시 먹솜칸 앞의 작은 구멍으로 빼낸다. 구멍으로 빼낸 먹줄 끝은 조그만 나무토막에 침을 꽂아 송곳과 같이 만들어서, 쓰지 않을 때는 항상 먹줄꽃이에 묶어 둔다. 먹줄은 명주실이나 목화로 만든 실을 2~3겹으로 꼬아서 사용한다.

먹통을 사용하는 방법은 먹줄 끝의 송곳을 치고자 하는 직선 한쪽 끝에 꽂고 먹칼로 먹솜을 지긋이 누르면서 줄을 풀어 반대쪽 끝에 먹통 줄구멍을 맞춘 다음, 먹통을 단단히 고정시키고 먹줄을 직각으로 들었다가 통기면서 놓는다. 이때 잘못 통기면 직선이 되지 않고 휘거나 곡선으로 되기 쉽다. 먹통 가운데에 고리를 박을 때도 있다. 이 고리에 끈을 묶어서 수직을 가늠하는 다림추 대용으로 쓰기도 한다.

먹통은 대부분 목수가 직접 만들어 사용한다. 먹통을 만드는 재료로는 목재가 가장 많이 쓰인다. 간혹 백토나 주석을 사용할 때도 있다. 목재로는 자단나무(화류), 송진덩이, 괴목(느티나무) 등이 사용된다. 간혹 왕대나무로 만든 것도 있다. 특히 자단나무로 만들면 결이 곱고 물을 덜 먹어서 먹물을 오래 보존할 수 있다. 간혹 도자기로 만들기도 한다. 먹통에 쓰이는 나무는 우선 목질이 단단해야 하고, 결이 고와야 한다. 나무가 젖었을 때나 말랐을 때 큰 차이가 없는 것

이 좋다. 나무를 구하면 오랫동안 음지에서 말린다. 이렇게 말린 나무를 사용하면 뒤틀리지 않고 틈도 생기지 않는다. 먹통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공정은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틈이 생기면 먹물이 새어 나와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

먹통에는 반드시 먹칼(묵도墨刀)이 딸려 있다. 먹칼은 짧은 직선이나 곡선을 긋거나 글씨 등을 쓰고 먹줄을 풀 때 먹솜을 지긋이 눌러서 먹이 잘 묻도록 하는 데 사용된다. 먹칼은 대나무나 싸리대가지로 만든다. 대나무로 만든 것을 보면 한쪽 끝을 가늘고 둥글게 하여서 잔칼질이나 망치로 두들겨 두고, 다른 한쪽은 얇고 납작하게 깎아서 사선으로 절단한 다음 참빗과 같이 잔칼질을 하여 부드럽게 만든다. 선을 그을 때는 납작한 쪽을 이용하고, 글씨를 쓰거나 표시를 할 때는 반대쪽의 가늘고 둥근 끝을 사용한다. 먹칼은 먹통과 항상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먹통 밑에 나비장과 같은 모양의 홈을 길게 파서 여기에 끼워 두고 사용한다. 이 먹칼을 다른 말로 ‘묵침’, ‘대필(죽필竹筆)’이라고 한다.

특징 및 의의 먹통은 목수가 항상 지니고 다니는 필수품이자 목수의 상징과 같은 연장이다. 이런 이유로 먹통을 만들 때 자신이 좋아하는 문양을 새기기도 하고 외부 형태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조각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목수가 스승으로부터 일을 다 배우고 나면 먹통을 물려받는데 이는 기술이 전수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먹통은 목수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연장과 치목(이왕기, 건축167-4, 대한건축학회, 1992), 조선조 먹통에 관한 연구(김상영,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62), 한국의 건축 도구(이왕기, 건축장인의 꿈과 꿈, 국립민속박물관, 1999), 한국의 건축연장 연구(이왕기, 목원대학교논문집7, 목원대학교, 1984).

필자 이왕기(李王基)

명당 明堂

정의 풍수에서 무덤(음택) 앞의 평탄한 곳, 집(양택)의 마당을 의미하며, 혈穴과 함께 대표적인 장소.

내용 풍수에서 혈 앞의 평평한 땅을 명당明堂이라고 한다. 묘지의 경우 묘판 앞 평평한 곳, 주택의 경우 앞마당을 의미한다. 명당이란 이름은 중국의 천자天子가 군신의 배하拜賀를 받는 곳이라고 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명당은 내외의 구분이 있다. 혈穴 바로 앞의 평탄한 곳, 음택의 경우 묘를 향해 절하는 곳을 내명당內明堂이라고 하고, 그 보다 앞쪽에 내명당에 비해 비교적 크고 넓은 땅을 외명당外明堂이라고 한다. 양택의 경우는 본채 앞 마당을 명당이라고 칭한다.

풍수고전인 『명산론明山論』에서는 “혈을 잡기 전에 먼저 명당을 취하고 다음으로 흐르는 물을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인자수지에서는 “참된 기운眞氣이 모이는 곳에서는 명당을 보아야 한다. 명당이 기울어져 있으면 혈 좋은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여 혈과 명당은 불가분의 관계임을 의미하고 있다.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임에도 불구하고 풍수의 가장 좋은 대표적 자리를 명당이라고 칭하는 것은 혈은 특정한 점點을 의미하는 반면 명당은 혈에 비해 조금 더 넓은 면면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명당이 혈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명당이라 함은 풍수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길지를 의미한다. 풍수적 길지의 조건이 대단히 다양하고 복잡하다. 그러나 풍수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바람을 갈무리하고 물을 얻을 수 있는 장풍득수藏風得水를 의미하기 때문에 장풍득수를 이룰 수 있는 길지를 통칭하여 명당이라고 표현하게 된다.

『태조실록太祖實錄』에 “고려태조가 송산松山 명당에 터를 잡아 궁궐을 지었는데 …… 명당의 지덕이 아직 쇠하지 않은 듯하니”, “무악의 명당이 비록 험착하기는 하지만”, “한양은 전후에 석산石山이 험한 데도 명당에 물이 없으니 도읍할 수 없습니다.” 등의 기록이 있다. 또한 『세종실록世宗實錄』에는 “보현봉의 산맥이 곧게 백악으로 들어왔으니 지금의 경복궁이 명당이 되기는 하나”, “백악으로 현무라 하여 경복궁의 터로서 명당이 된다 하니” 등의 기록 등에서는 명당을 길지와 동일어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명당에 대한 개념은 『명산론』에 잘 나타나 있다. 내명당은 발복의 빠르기를, 외명당은 발복의 크고 작음을 주관하는데 그 역량에는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명당은 혈과 함께 풍수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기 때문에 생기가 밀집한 장소에 무덤이나 집, 마을을 입지시키면 이 생기가 죽은 자 또는 살아 있는 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땅을 통해 기복祈福하고자 하는 풍수의 본질은 명당을 얻는다는 것으로 대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명당수明堂水란 명당의 주위를 흐르는 물을 총칭하는 것이다. 명당수의 기본 조건은 혈과 명당의 오른쪽(백호수)과 왼쪽(청룡수)을 흐르는 물이 명당 앞에서 합해져 그 나가는 곳[水口]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굴곡하여 흐르는 것이다. 이를 『인자수지人子須知』에서는



전득린 | 명당도 | 1787 | 국립민속박물관

옷의 양 깃이 마치 합하는 모양이라고 하여 합금수(合襟水)라고 하였다. 양택이나 양기의 경우 명당수는 양 옆을 흐르는 물과 아울러 주택이나 궁궐 앞을 흐르는 물을 의미한다. 한양의 경우 『세종실록(世宗實錄)』에는 “경복궁은 명당수가 부족하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의 명당수는 청계천을 의미한다.

명당수가 빠져나가는 지점을 수구(水口)라고 하는데 그 조건은 자물쇠를 잠그듯 관쇄(關鎖)해야 한다고 본다. 물길이 곧바로 넓게 빠져나가면 즉 수구가 너무 넓으면 명당 내의 기운도 빠져나간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구를 관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나무를 심거나, 숲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는 풍수의 비보(裨補)의 방법으로서 수구맥이(또는 수구막이)라고 한다.

특징 및 의의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운이 밀집된 혈을 찾는 것이다. 그러나 혈과 아울러 명당을 풍수의 대표적인 장소로 칭하고 있는데 이는 명당의 중심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음택에서의 명당은 현무, 주작, 청룡, 백호로 둘러싸인 전 체계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중심이 되며 가장 높은 위계를 가지게 된다. 양택에서의 명당은 마당이다. 전통주거 건축의 기본인 口 형태의 집에서는 주건물(대청)이 주산 겸 혈이고, 양쪽의 건물이 좌청룡, 우백호, 대문이 수구이며 마당은 명당이 되어 생활중심 공간이 된다. 따라서 혈은 좌향설정의 중심이지만 명당은 각 공간요소의 방위결정에 있어서의 중심이 된다.

이러한 관계는 전통건축적 시각으로 볼 때는 건축이란 세계모형을 모방하여 만든 소우주로서 중심으로 향하는 상징인 축(軸)을 가지고 있고 그 진입의 단계마다 상징적인 문(門)을 가지고 있다. 국(局)의 내부의 중심을 혈이라고 하는데 그 혈에 세우는 본전(本殿)은 우주목(宇宙木)의 상징이며 성(聖)의 중심이 된다. 성의 중심인 혈 앞에 중정(中庭, 명당)이 있게 된다. 명당(마당)은 성(聖)과 속(俗)이 만나는 곳으로 속의 중심이 된다는 견해도 있다.

그리고 양기에서의 명당은 혈과 수구 사이의 공간을 의미하는데, 혈과 수구의 거리가 멀수록 명당은 넓

게 분포하게 된다. 따라서 이 명당지역을 중심으로 생활공간과 생산공간이 형성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음택의 명당은 혈처 앞의 좁은 지역을 의미하지만, 양택이나 양기의 명당은 생활공간이나 생산공간 등을 포괄하는 보다 넓은 면의 개념이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明山論, 人子須知, 동양사상의 중심성을 통하여 본 전통주거의 마당공간에 관한 연구(이응희·이중우, 대한건축학회논문집11-5, 대한건축학회, 1995), 한국의 풍수사상(최창조, 민음사, 1984), 혈과 명당의 관계를 통해 본 한국전통건축공간의 중심개념에 관한 연구(유재현, 울산공과대학 연구논문집10-2, 울산공과대학교, 1979), 朝鮮의風水(村山智順, 조선총독부, 1930).

필자 천인호(千寅鎬)

모델하우스

정의 주택공급 전에 원매자들이 미리 주택의 규모, 설비, 마감재, 붙박이 가구 등을 볼 수 있도록 실제 내부와 똑같이 지어 놓는 집.

개관 단독주택이 주택형태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1960년대 후반에 아파트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계몽적 의도로 한강맨션과 남산외인아파트의 모델하우스가 단독주택 형태로 건설되었다. 이후 1970년대 모델하우스는 아파트가 중산층의 주거임을 부각하여 중산층의 선호를 유도함으로써 분양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되었다. 초기 모델하우스에는 분양하는 단위평면 1개 공간이 배치되었는데 이후에는 단위평면 5~6개 공간이 배치되었다.

1990년대 후반에는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로 인해 건설회사가 마케팅 수법으로 아파트 브랜드를 만들었고, 모델하우스에 분양아파트 모델과 상설전시 공간을 함께 배치하여 자사 아파트의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2004년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건본주택이란 용어가 신설되었고 건축기준이 명시되었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건본주택에 공간체험, 교육, 문화강좌의 기능을 추가하여 주택

문화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사용이 일반화되어 2006년 3월 판교 신도시 아파트 분양에 실재의 모델하우스도 없는 사이버 모델하우스와 인터넷 청약이 최초로 도입되었다. 점차 대기업 건설사가 모델하우스에 주택문화관의 의미 이상의 갤러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지역의 복합 문화공간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감성적인 공간을 체험하도록 변화하였다.

내용 아파트 선분양제도는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입주자를 모집하여 입주계약을 하는 것이다. 모델하우스는 1970년대 이후 아파트 선분양제도가 장기간 유지되면서 장래 입주할 단위세대 공간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모델하우스는 1가구용 분양규모 주택을 완공 시 구조와 똑같이 만들어서 공간 구성, 규모, 자재, 설비를 볼 수 있도록 하였고 방, 거실, 부엌 등의 공간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구, 생활소품을 배치하여 실제 생활공간과 같이 전시하였다. 모델하우스는 전시공간 기능 외에 고객상담과 분양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간이기도 하였다.

가구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가 자율화되면서 건설회사들은 아파트를 일반 상품과 같이 일상적인 상품 브랜드로 인지시키는 마케팅 기법으로 모델하우스를 활용하였다. 또한 건축회사들은 모델하우스를 주택문화관, 갤러리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분양 시에는 모델하우스로 사용하고 일상적으로는 상설전시공간이면서 브랜드 홍보, 교육, 문화강좌의 기능을 추가하여 상시적인 문화공간의 기능을 하도록 바꾸었다. 분양 촉진과 전시를 위한 모델하우스는 <건축법 시행령>의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며,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다.

특징 및 의의 공동주택이 선분양제로 공급되는 상황에서 모델하우스는 실제 공급되는 단위세대 내의 전용 내부공간 구성, 내장재의 마감 수준, 설비 등을 입주 전에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다. 단위세대의 내부공간에 치중하여 전시되고, 주택이 위치한 입지환경, 외부공간, 공용공간, 동 배치 등은 축소모형으로 전시되므로

수요자는 전용공간 중심의 내부지향적 관점으로 아파트를 인식한다.

모델하우스에는 소비자의 선호를 반영하면서도 타 건설사와 차별화된 공간구성, 설비, 재료, 색채 등의 인테리어 요소가 강조되므로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 집중되어 있다. 거주공간으로서 주택보다 상품으로서 주택이 강조된 것이다.

참고문헌 도심 속 주택 문화관에 대한 연구(김도윤·김승희, 대한건축학회 학술 발표대회논문집 계획계28-1, 대한건축학회, 2008), 아파트 건분주택 변천과정 연구(신운경,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아파트 모델하우스 비평을 위한 이론적 접근(김정근·전경화·홍형욱, 한국실내디자인학회회지19, 한국실내디자인학회, 1999).

필자 박경옥(朴庚玉)

모임지붕

정의 사방에 지붕면이 만들어지면서 그 모양이 사각뿔·육각뿔·팔각뿔 형태로 된 지붕.

내용 모임지붕은 용마루 및 내림마루가 없고 추녀마루가 하나의 꼭짓점에서 만나는 지붕이다. 평면 모양에 따라 모임지붕의 종류는 세분화 될 수 있다. 방형 평면에 사용되는 모임지붕은 사모지붕, 육각평면의 모임지붕은 육모지붕, 팔각평면의 모임지붕은 팔모지붕이라 한다. 중국의 천단이나 한국의 원구단과 같은 원형 평면의 경우에는 원뿔 형태의 모임지붕이 사용되었지만 현존하지 않는다. 모임지붕의 원초 모습은 원시시대 원형이나 정방형, 모죽인 방형의 움집에서 볼 수 있다. 당시에는 벽체와 지붕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서까래를 직접 땅에 박아 한 꼭짓점에 모이게 걸고 새 등을 엮어 지붕을 만드는 원추형의 모임지붕이 대부분이었다. 자연목을 열기설기 엮었기 때문에 지금의 추녀와 선자연으로 구성된 모임지붕의 가구와는 차이가 있다. 또 움집 내부에서는 중앙에 노를 설치하고 불을 피웠기 때문에 배연을 위하여 서까래 꼭짓점 부분을 열어 두거나 빗물 유입



사모지붕 | 충남 보은 법주사 원통보전 | 2004 | 김왕직



육모지붕 | 서울 종로구 경복궁 향원정 | 문화재청

을 막기 위하여 작은 이중 지붕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이를 주저리라고 한다. 따라서 지붕 중에서 모임지붕이 가장 오래된 형식이라 할 수 있다. 역사시대 이후 건축물에서도 모임지붕은 정면과 측면 길이가 같은 정방형 평면의 건물이나 주로 탑에서 사용되었다. 육모와 팔모지붕 역시 정자나 탑과 같은 특수 건물에서 사용되었다. 그런데 한국의 정자는 정사각형이나 육각·팔각 평면이 거의 없기 때문에 탑을 제외하고는 모임지붕을 보기 어렵다. 불교가 도입되고 목탑이 지어지면서 모임지붕이 널리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목탑인 보은 법주사 팔상전과 화순 쌍봉사 대웅전은 현존하는 중층의 사모지붕 사례이다. 유

적으로만 남아 있지만 조선시대 이전의 경주 황룡사 9층목탑과 같은 수많은 목탑은 모두 사모지붕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모지붕의 정자로는 창덕궁의 애련정, 태극정 등이 있다. 고구려의 금강사지 팔각목탑과 중국 산시성의 불국사 석가탑 등은 팔모지붕의 사례이다. 불전 중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데, 법주사 원통보전과 불국사 관음전이 사모지붕이다. 탑 이외에 육모지붕은 창덕궁 승화루와 존덕정, 경복궁 향원정, 부여 낙화암 백화정, 영천 환벽정, 거창 입암정, 광주 광산 가학정에서 볼 수 있다. 팔모지붕은 의외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원구단 황궁우, 논산 개태사 팔각당, 남한산성 영춘정, 용인 봉서정 등이 있다. 탑을 제외하면 오래된 고대건축에서 모임지붕을 보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모임지붕의 가구 구성은 매우 간단하다. 일반 지붕과 같이 종보, 중도리와 중도리 등이 없다. 사방의 기둥과 찰주를 잇는 추녀를 걸고 추녀 사이에 선자연을 설치하면 지붕가구가 완성된다. 탑은 찰주와 심주가 한 부재로 연결되어 있어서 지면으로부터 올라가지만 정자나 다른 건물들은 지붕 부분에만 설치된다. 심주나 찰주는 추녀 뒷조리가 꽃히기 때문에 부력이 작용한다. 그래서 찰주 부근을 큰 돌덩이로 눌러 주거나 각 방향의 추녀와 상호 연결하여 부력을 잡아 준다. 모임지붕의 꼭짓점에는 절병통이라는 특수 기와를 올려 마감한다. 절병통은 원통형이 많으며, 상하로는 1~3마디로 분리되어 있어서 차곡차곡 쌓아 올린다. 절병통은 꼭짓점 부근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 주고, 무겁게 하여 추녀를 눌러 주는 장식 효과를 겸하고 있다.

모임지붕에서도 흘처마와 겹처마의 사용이 모두 가능하다. 다만 평연 없이 대부분 선자연을 건다. 일반 건물의 정선자와 달리 큰 건물에서는 처마도리 안쪽에서 선자가 온전히 붙지는 않는다. 원구단 황궁우의 경우에는 규모가 커서 중도리를 보내고 장연구간에서는 일부 평연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물론 규모가 작은 모임지붕에서는 처마도리 안쪽의 선자연이 모두 붙는 정선자를 사용하기도 한다. 모임지붕의 단점

은 처마 내밀기가 많고 처마도리 안쪽 지붕면이 작아 안쪽을 누르는 하중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녀와 처마가 처지는 구조적 문제이다. চাল주를 굽은 것을 사용하고 চাল주와 각 방향의 추녀를 일체식으로 맞춤하여 잡아 주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참고문헌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김왕직, 동녘, 2007), 지혜로 지은 집 한국건축(김도경, 현암사, 2011), 한국건축대계4-신편 한국건축사전(장기인, 보성각, 1998).

필자 김왕직(金王植)

목가구 木家具

정의 사람이 삶을 영위하는 데 사용되는 나무로 만든 모든 집기什器를 일컫는 용어였지만, 지금은 나무로 만든 집기 중 사람이 혼자서 들어 나를 수 없는 기물을 가리키는 용어.

내용 기록에서 최초의 가구家具라는 단어는 중국의 동진東晉 때 등장한다. 당시 형주자사荊州刺史를 지낸 왕술王述(4세기)은 초년에 매우 가난하였으나 시험을 통해 완릉령宛陵令이 된 후 뇌물을 받아 가구를 준비하였는데, 주사州司에서 그의 비리를 조사한바 그 수량이 무려 1,300여 건이었다고 한다. 이 기록에서 가구는 집안 살림살이에 쓰이는 각종 재료로 만든 기구와 집물을 망라한 것이다.

그다음 기록은 남송南宋 순우淳祐(1241~1252) 시기에 우승상 겸 추밀사 조규趙葵의 참의관參議官을 지낸 방악方岳이 <통방제형계通方提刑啓>에서 “반드시 가구家具를 빌려 차라리 교외郊外的 추위를 면하겠습시다.”라고 한 것으로, 가구가 매우 광범위하게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조선 초기 생활기물 관련 명칭으로 문신인 어세겸漁世謙(1430~1500)이 중국 왕위王禕의 문체를 본받아 지은 『기물명20수효왕위器物銘二十首效王禕』가 있다. 기물명은 관冠, 옥[佩], 짚신[屨], 베개[枕],

자리[席], 이불[衾], 방장[帳], 대상자[筥], 햇대[櫬], 솥[鼎], 거울[鏡], 빗[櫛], 자[尺], 도장[印], 술잔[觚], 거문고[琴], 궤[櫃], 평상[檯], 병풍[屏], 검[劔], 가죽신[屨], 말[斗] 등이다.

숙종肅宗 대부터 영조英祖 대까지 탁자, 궤, 경대, 보자기, 주전자 등 일상 생활용품 모두를 기구器具라고 하였다.

영조英祖 때 왕실의 각종 의례 행사 관련 복식을 기록한 내용에 공정책空頂幰, 원류관遠遊冠, 독옥대禿玉帶 등 복식류 명칭 밑에 ‘가구’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집에 구비한’ 물품 모두를 가구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이후부터 각 처소에 따라 사용하는 물품을 분류하여 기록한 서적이 발간되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조선 후기의 의관이자 학자 유중립柳重臨(1705~1771)은 “집안에 모든 일용기물家中器物을 갖추지 못함이 한 가지라도 있으면 매양 남의 것을 빌려 쓰기 어려우니 반드시 힘이 미치는 대로 차근차근 준비하되 편리함과 견고함을 위주로 해야 할 것이다.”라고 집안 살림도구의 편리성과 견고성, 실용성을 주장하면서 그가 열거한 가중기물家中器物을 부엌기물[廚中器物], 방과 마루에서 사용하는 방청기용房廳器用, 서재기물[齋中器用], 농사도구[農作諸具], 길쌈용구[紡績具], 잡기용류雜器用類, 제용제물祭用諸物 등으로 나누어 세부 목록을 기록하였다. 이들 물목은 모든 생활용품을 망라한 것으로, 당시의 세간 파악에 도움이 된다. 이들 중 실내에서 살림에 사용하는 물목을 만든 세간을 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부엌세간[廚中雜物]에는 나무통[木桶], 크고 작은 합[大小盒], 목절구[木臼], 공이[杵], 바가지[瓢], 이남박[淘米齒瓢], 솥[刷子], 소쿠리[沙郎], 매통[木磨], 개수통[槩], 말, 뒷박[斗升], 열 말들이되[斛], 찬장饌櫃, 뒤주[斗支], 귀함지[木耳杓], 용수[筥], 키[箕], 말총 채[篩], 대채[竹篩], 행담行擔, 소반[盤], 짜리채반[紐骨盤], 짜리바구니[紐骨籠] 등이 있다.

방과 마루 세간[房廳器用]은 농상籠箱(고리버들로 찬 농과 상자류), 광사筐筥(광주리와 옷상자), 목궤木几, 층탁자卓子層, 탁자卓子, 옷장[衣櫥], 칼[剪刀], 자[尺], 거울[鏡], 빗집[梳貼], 화장구[奩具] 등이다.

사랑채 세간[齋中器用]에는 거문고 또는 가야금[琴],



경상 | 가로67 세로29 높이33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이충책장 | 가로103 세로39 높이102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이충농 | 가로87 세로47 높이127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경기도머릿장 | 가로100 세로46 높이102 | 20세기 초 | 국립민속박물관



경기도반달이 | 가로88 세로43 높이85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목침
가로21 세로12 높이9, 가로14 세로6 높이10
20세기 초 | 국립민속박물관



빗접
가로29 세로29 높이30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등경
높이69 바닥지름28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소반 | 높이22 지름34 | 국립민속박물관



뒤주 | 가로88 세로63 높이85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목
가
구



이충찬장 | 가로125 세로52 높이108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찬합
가로13 세로12 높이24 | 조선
국립민속박물관



향탁
가로30 세로25 높이18 | 조선
국립민속박물관



상탁
가로112 세로82 높이84 | 조선
국립민속박물관



교의
가로64 세로34 높이125 | 조선
국립민속박물관

통소[洞簫], 책상[書案], 평상[平床], 의침[依枕], 각계수리[倭几], 등경[燈檠], 연갑[硯匣], 필통[筆筒], 죽고비[竹高飛], 나무걸상[木坐榻], 서장[書檯], 매장[梅檯(매화분을 넣어 두는 장)], 병풍, 족자, 죽림(대나무발), 대야, 나무 또는 사기, 바둑판[棋局], 삿자리방석[竹皮方席], 고운 대자리[竹細簾], 깃부채[羽扇], 깃털비[羽簾], 죽사관[竹絲冠], 삼신[麻鞋], 나막신[木履], 총채[塵尾], 약절구[藥杵臼], 약채[藥篩], 약룽[藥籠], 약저울[藥秤], 약연[藥研], 지남철[輪圖], 지팡이[杖], 전판[剪板], 도롱이[蓑衣], 대삿갓[筓笠], 우산[雨傘] 등이 포함된다.

제사용구[祭用諸物]에는 병풍과 장막[屏張], 상탁[床卓], 향상[香床], 교의[交椅]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농사에 필요한 농작제구[農作諸具], 방적구[紡績具], 기타 잡기용류[雜器用類] 등이 기록되어 있다. 조선 후기 서유구[徐有渠(1764~1845)]는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기구·기물의 명칭과 특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음식 만드는 일과 관련된 취찬지구[炊爨之具]에 반접, 왜반[倭盤], 화반[華盤], 쟁반[爭盤], 찬합[饌盒], 등합[藤盒], 죽합[竹盒], 목합[木盒], 죽상[竹箱], 광거[筐篋(네모난 광중리와 둥근 광주리)], 랍[籃(대로 만든 바구니)], 뒤주[斗廚], 찬장[饌廚], 목궤[木櫃], 곡갑[穀匣] 등이 있다. 복식지구[服飾之具]에는 형승[紵繩(시렁)], 형간[桁竿(옷걸이)], 여러 가지 장[襪], 헛대[櫬], 채상[彩箱], 버들고리[柳箱], 의농[衣籠], 옷장[衣櫥] 등이 있다. 관즐지구[盞櫛之具(세수하고 머리 빗는 도구)]로는 빗집[梳匣], 림[篋(경대)]과 각종 빗, 빗치개가 있다.

기거지구[起居之具]에는 와상[臥床]과 베개[枕], 접침[摺疊枕(접는 베개)], 왕골베개[莞枕], 퇴침[退枕(서랍 달린 목침)], 죽점침[竹簾枕(대자리로 엮은 베개)], 나전침[螺鈿枕], 우피침[牛皮枕(쇠가죽으로 만든 베개)], 죽부인[竹夫人] 등이 있다.

좌구[坐具]로는 의자[椅], 울[杌, 등[橙(긴의자)], 연궤[燕几(장방형탁자)], 대[檯(방형탁자)] 등이 있다. 기타 잡구[雜具]에는 구장[鳩杖], 전수장[田水杖(물꼬 트는 지팡이)], 마고수[麻姑手(등걸계)], 추[簾(빗자루)], 승진[承塵(쓰레받기)], 무진자[無塵子(총채)], 담뱃대[煙盃], 연초갑[煙草匣], 연회반[煙灰檠(재판)] 등이 있다. 의자와 침대[牀榻]로는 이의상[二宜牀(두쪽 평상)], 죽탑[竹榻], 등받이[靠背], 의상[欵牀(등이나 머리를 바치는 경사진 의자)], 취상[醉床(휴식용 긴

의자)], 단탑[短榻], 등돈[藤墩, 포돈[蒲墩, 곤등[滾凳, 선의[仙椅], 은궤[隱几(기이한 나뭇가지로 만든 3족의 팔걸이 겸 베개)], 나판[懶版(누워서 보도록 책을 올려놓는 판)], 천연탑[天然榻], 선의[禪椅(등피로 엮고 등받이는 대리석을 댄 의자)] 등이 있다.

이동용품[動用諸具]에는 이구[餌具(음식도구)]에 찬합[饌盒], 죽발[竹鉢], 향연반[香櫛盤] 등이 있다.

문방용품[文房雅製]에는 먹갑[墨匣], 먹상[墨床], 연갑[硯匣], 연산[硯山], 연병[硯屏], 도서갑[圖書匣(책갑)] 등이 있다. 서실잡기[書室雜器]에는 서상[書牀(책상)], 의안[欵案(팔걸이)], 서등[書燈], 문구갑[文具匣(문갑)] 등이 있다. 도서를 보관하는 방법[圖書藏訪]에는 서주[書廚(책장)], 서함[書函], 목갑[木匣] 등이 있다.

또 조선 말기 <홍보가興甫歌> 중 박타령[朴打令]에서 안방세간, 사랑세간, 부엌, 헛간기물[器物], 농사연장, 길쌈용구를 거의 빠짐없이 망라하고 있어 주목을 받는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방세간은 삼층, 이층, 외층장, 오합, 삼합, 자드리상자, 지룽, 목룽, 자개함승, 뒤주장, 앞단이, 혼합경대, 쌍용 그린 빗집고비, 바느질상자, 반단이, 선반, 헛대, 장목, 키 큰 병풍, 작은 병풍, 주림, 쟁반 등이다. 사랑세간은 각계수리, 문갑, 책상, 필연[筆硯], 퇴침, 찬합 등물, 사서삼경, 백가어를 가득 담은 책룽, 흑각장궁 유엽전을 넣은 궁대 전통, 조총, 등채, 환도, 당판[唐板冊] 등이다. 이 외에도 농기구 등 밖에서 쏟아져 나온 각종 세간의 명칭을 나열하였다.

헌종 연간(1835~1849)의 기록에는 상[牀], 의자[椅子], 장[櫬, 궤] 등을 <기용[器用]>에서 다루어 소품을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

대한제국 시기에도 가용[家用] 기구[器具]로 의장[衣櫥], 상의장[上衣櫥], 대궤[大櫃], 화로, 방침[方枕], 장침[長枕], 의자, 책탁자, 죽석[竹席], 초석[草席], 화방석[花方席], 죽림[竹簾], 차일[遮日(해를 가리는 천막의 일종)], 차일산[遮日傘], 기반[汽盤] 등을 기록하고 소반이나 뒤주 등은 <주구[廚具]> 항목에 기재하였다. 따라서 1900년 이후부터 가구라는 현대적인 의미의 용어가 사용되면서 정착되었다고 여겨진다.

특징 및 의의 처음에 가구는 처음 중국의 집에서 구비하고 사용하는 모든 물품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조선 초기에는 가구 대신 기물이라는 용어가 쓰이다가 중기 이후에 기용·제구·제물·세간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고, 개화기에 이르러 가구란 단어가 쓰이게 되었다. 이로부터 가구는 집안에서 쓰이는 집기와 집물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나무로 만든 장·농·책상·의자 등 한 사람이 들어 나르기가 어려운 규격의 물건을 목가구라 하고 작은 물건들은 소품이라 하여 구별하여 부르게 되었다.

가구를 비롯한 생활 공예품은 기능면에서 편리하게 쓰이고 또 아름다워야 한다. 즉 용용과 미美는 공예의 기본 요소로, 이를 갖추어야 좋은 생활용품이 된다. 우리나라 가구는 용과 미 외에 염원, 교훈 등을 더하여 제작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염원과 교훈은 문장 또는 나전으로서 표현되기도 하지만 상징 문양으로서 장식적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참고문헌 尙方定例, 五州衍文長箋散稿, 譯語類解, 譯語類解補, 林園經濟志, 財物譜, 增補山林經濟, 증보 조선어사전(문세영, 조선어사전간행회, 1938), 판소리 여섯마당(강한영·신재효, 형설출판사, 1982), 한영사전(Gale, Kelly & Walsh 출판사, 1897).

필자 김삼대자(金三代子)

목수

木手

정의 나무를 깎아 건물이나 기물을 만드는 장인.

개관 목수木手는 나무를 다루는 재능이 있는 모든 장인을 총칭하는 말이다. 과거에는 수많은 기물이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따라 수많은 직종의 목수로 구분되었다. 이런 까닭인지 조선시대 문헌에서 ‘목수’라고 기록한 경우는 건물을 짓는 장인, 즉 현재의 대목장大木匠만을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함이나 목가구를 만드는 장인은 ‘소목장小木匠’이라고 달리 기록하였고, 그 외 다른 직종의 목수들은 목소장木梳匠(빗 만드는 장인), 목혜장木鞋

匠(나막신 만드는 장인)과 같이 구체적인 기물의 명칭과 더불어 기록하였다. 건물을 지을 때 목수들 중에서 대목장만이 공사를 담당한 것은 아니었다. 대목장 이외에도 많은 직종의 목수들이 협업하면서 건물을 지어 나갔다.

내용 궁궐과 같은 대규모 건축 공사는 금양처禁養處에서 목재를 벌목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공사에 적합한 목재를 구하기 위해 중앙에서 목수편수가 파견되기도 하고, 각 지방의 목수들이 산속을 뒤져 벌목할 목재를 찾았다. 공사에 적합한 나무를 발견하면 벌목한 다음 낙인을 찍어 특정 공사에 사용하기 위함을 표시하였다. 벌목된 목재는 작예군斫曳軍에 의해 산에서 강가로 옮겨졌다. 사람이 직접 산 아래까지 옮기는 고되고 위험한 일이었다. 이런 까닭에 공사에 적합한 나무가 있더라도 운반이 힘들면 쓸 수가 없었다. 이렇게 끌어내린 나무들은 뗏목으로 묶어 강을 따라 운반하였다. 뗏목의 운반은 사공沙工(뱃사공)이 담당하였다. 건축 공사가 많은 도시는 주변에 하천을 끼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 하천은 목재 공급을 위한 중요한 운반로였다.

공사 현장에 도착한 원목은 각 부재의 크기에 맞게 가공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몇 단계의 사전 작업이 필요하였다. 가장 먼저 원목을 가공하는 이들이 톱장이들이다. 현대에는 기계로 가공하기 때문에 지금은 사라진 장인이다. 톱장이는 대인거장大引鉅匠, 소인거장小引鉅匠, 걸거장鉗鉅匠, 기거장岐鉅匠 등 세부 공정에 따라 나뉘어 있었다. 톱은 켄톱과 자름톱으로 나뉜다. 켄톱은 목재를 섬유 방향으로 자르는 것이며, 자름톱은 섬유 방향에 직각으로 자르는 것이다. 인거장·기거장·조리장은 켄톱을 사용하였고, 걸거장은 자름톱을 사용하였다. 가장 먼저 대인거장과 걸거장이 원목을 가공한다. 대인거장은 목재를 일정한 굵기의 판재로 켜 내고, 걸거장은 일정한 길이로 나무를 잘라 낸다. 대인거장이 켜 낸 목재는 소인거장에게, 소인거장이 켜 낸 목재는 기거장에게 차례로 전달되어 훨씬 가는 판재로 가공된다. 창호의 살대와 같이 가는 부재는 최종적으로 기거장이 켜 냈다.

건물의 구조를 담당하는 기둥, 보, 도리, 추녀, 서까래 등의 부재는 대목장이 직접 원목을 가공하여 만든다. 규모가 작은 하나의 건물을 만드는 일은 모두 목수들이 담당하였지만, 궁궐 공사와 같이 큰 규모의 일은 대목장들만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았다. 1804년(순조 4)에 화재로 불탄 인정전(仁政殿)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선장(船匠)이라는 새로운 장인들을 공사에 투입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선장은 강가에서 배를 만드는 장인을 말한다. 이전에도 선장이 건축 공사에 투입된 일이 있었지만 극히 소수의 인원으로 특별한 공정에만 투입되었다. 정확히 어떤 일을 담당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썰매나 녹로를 제작하는 일에 투입되어 끌을 가지고 목재에 구멍을 뚫었다는 내용이 전한다. 하지만 인정전 재건 공사에서 선장들은 원목을 초벽련(初劈鍊)하는 일에 동원되었다. 전과 같이 소수의 인원이 아니라 50여 명이 동원되었고, 구멍을 뚫는 끌이 아니라 원목을 일차로 깎아 다듬는 대자귀가 지급되었다. 이 일이 있는 후 궁궐 공사에서 선장은 항상 동원되는 장인으로 기록되었다.

툽장이들이 다듬은 나무판, 선장이 일차로 깎은 원목을 가지고 목수라고 할 수 있는 장인들이 본격적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각각의 공정에 따라 대목장,

소목장이 투입되었다. 건축물의 가구(架構)를 만드는 일은 대목장이 담당하였다. 건물의 창호, 난간 등 세밀한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소목장이 담당하였다. 건물 내부에 비치할 기물을 제작하는 것 역시 소목장이 담당하였다. 특히 건축물과 모양이 유사한 당가(唐家)와 건물의 현판도 소목장이 제작하였다.

궁궐 공사에 자주 동원되는 목수 중에 조각장(彫刻匠)과 목혜장이 있다. 조각장은 물건에 조각을 하는 장인이며, 목혜장은 나막신을 만드는 장인이다. 건축 공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장인들이다. 조선의 마지막 목수로 인정받는 배희한 도편수의 구술집에 “초익공이나 이익공이나 포집은 조각이 많아요. …… 그런데 이 조각은 목수가 안해. 목수는 이제 그러만 주구 그랬지. 목수가 그러 주면 이제 조각쟁이가 죄 허는거야. …… 조각쟁이가 뭐냐하면, 저 나막신 맨드는 사람이 조각쟁이야.”라고 기록되어 있다. 목수들하고 연장도 달라서 조각이 훨씬 정교하고 빠르다고 하였다. 공포, 화반, 대공, 안초공 등의 조각은 원래 대목장의 몫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 일이 조각장과 목혜장에게 넘어가 더 이상 대목장들은 이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축 공사 현장과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장인으로 마조장(磨造匠)도 있다. 마조장은 맷돌을 만드는 장인이다. 나무를 다루는 일과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장인이다. 그런데 이 마조장들이 건축현장에 투입되어서 서까래에 연침구멍 뚫는 일을 맡았다는 기록이 전한다.

특징 및 의의 건물을 짓는 데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한 것은 대목장이었다. 이들이 계획된 크기에 맞게 건물의 구조체를 만들고 공포를 조각하며, 최종적으로 건물의 외관을 완성하였다.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건물을 짓는 모든 일을 대목장이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인 수가 계속 감소하면서 나무를 다루는 다른 직종의 목수들이 건축현장에 투입되기 시작하였다. 급기야는 전문적으로 담당하던 일들을 다른 직종의 목수에게 전담시키기도 하였다. 건축 공사에 투입된 목수들의 직종 변화를 통해서도 건축의 시대적인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목수 | 태평성시도 중 부분 | 조선 후기 | 국립중앙박물관

참고문헌 건축 장인의 땀과 꿈(국립민속박물관, 1999), 이제 이 조선토에도 녹이 슬었네(배희한 구술, 이상룡 편, 뿌리깊은나무, 1992), 조선후기 건축공사에 있어서의 공장도구에 관한 연구(김동욱, 대한건축학회논문집6-2, 대한건축학회, 1990), 조선후기 궁궐공사의 목재치련에 관한 연구(김순일·이권영, 건축역사연구8-1, 한국건축역사학회, 1999), 조선후기 장인의 담당 공종에 관한 연구(이연노,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25-8, 대한건축학회, 2009).

필자 이연노(李演魯)

문

정의 다른 공간으로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든 구조물.

개관 인류가 처음으로 문門을 만든 까닭은 외부와 명확히 격리해서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함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출입의 역할만을 담당하던 문에 여러 의미가 부여되었다. 문은 사람의 동선을 한곳으로 이끄는 역할도 담당하였다. 그러면서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의미의 문이 생겨나게 되었다. 우리 역사에서 문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의 마한조馬韓條에 있다. “초옥토실草屋土室을 지어 거처하는데, 무덤의 모습이고 출입구口가 위쪽에 있다.”라는 내용이다. 말갈조[勿吉條]에도 유사한 내용이 전하는데, “성벽을 쌓고 혈거하는데 지붕이 무덤과 비슷하다. 개구開口를 위에 두었는데 사다리梯로 출입한다.”라고 하였다. 정확한 문의 형태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출입이 이뤄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내용 성곽은 도시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워졌다. 성곽 여러 곳에 문을 세워 그곳을 통해서만 성 안으로 출입하게 하였다. 조선의 도읍으로 정해진 후 한양 성곽에는 사대문四大門과 사소문四小門을 두었다. 사대문으로 정북에 숙청문肅淸門, 정동에 흥인문興仁門, 정남에 숭례문崇禮門, 정서에 돈의문敦義門을 설치하였다. 사소문으로는 동북에 홍화문弘化門(후에 혜화문惠化門), 동남에 광희문光熙門, 서남에 소덕문昭德門(후에 소의문昭義門), 서북에 창의문彰義門



숭례문 | 서울 종로구



혜화문 | 서울 성북구

문 | 1906~1907 | 국립민속박물관

을 두었다. 성문을 통해 도성으로 출입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되었다. 조선의 한양에서는 파루罷漏와 인정人定이라는 제도를 실시하였다. 인정은 통행금지, 파루는 통행의 재개를 알리는 종소리이다. 이 시간에 맞춰 성문은 굳게 닫혔다가 열리기를 반복하였다.

성문 위에는 중층의 문루를 지어 이곳이 성곽의 대문임을 멀리에서부터 알 수 있게 하였다. 특히 남문을 크게 지어 도시의 상징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전쟁과 같은 유사시에는 성문을 닫아 방어에 치중하였다. 성문에 웅성을 두른 경우가 있는데 모두 방어를 위해 설치한 시설이다. 유사시 성곽 외부와 은밀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작은 문들을 성곽 곳곳에 만들어 두는데, 이를 ‘암문暗門’이라고 한다. 암문은 성벽을 안쪽으로 휘게 해서 가장 깊이 들어온 곳에 설치하거나 또는 성벽을 외부로 돌출시킨 다음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옆면 마구리에 설치한다. 암문을 통해 유사시 외부와 연락을 취하고 병기와 식량 등의 물자를 조달하며, 적의 눈에 띄지 않게 역습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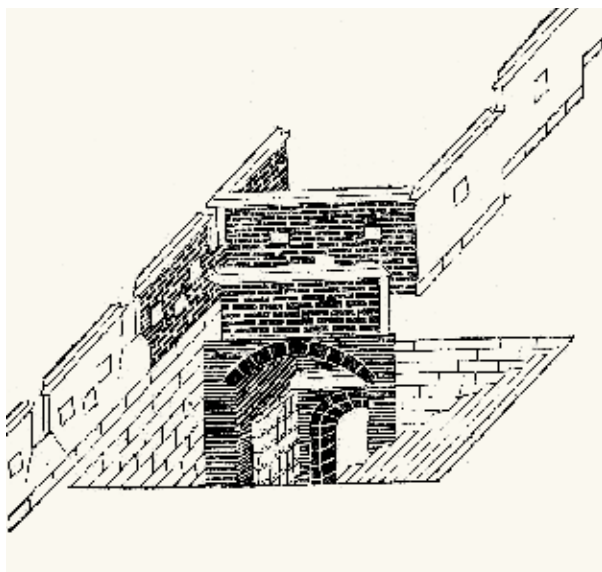
가하기도 한다. 만약 암문이 적에게 노출된 경우에는 급히 메워 암문을 막을 수 있도록 문 안쪽에 돌과 흙을 쌓아 두었다. 한양이나 지방의 읍성과 같이 도시에 만들어진 성곽에는 암문을 설치한 경우가 드물다. 북한산성이나 남한산성과 같이 방어를 위한 성곽에 많은 암문을 설치하였다. 도시에 만들어진 성곽으로 정조 때 조성한 화성에는 다섯 곳에 암문을 두었다.

성곽 내부에는 무덤을 조성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왕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의 시신은 성곽 바깥으로 옮겨져야 하였다. 인산(因山)(황실 또는 왕실의 장례)은 도성의 사대문을 이용하였다. 조선 말 국장을 치를 때 흥인문의 높이가 문제되었다. 상여가 높아 흥인문을 통과하기 어려웠다. 해결책으로 흥인문 통로 아래 땅

문



서암문 | 경기 수원 화성 | 국립민속박물관



화성 서암문 내도 | 화성성역의궤 | 1801 | 국립중앙박물관

을 파내 국장을 치른 다음 다시 메우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런 까닭에 국장이 치러질 때마다 흥인문의 통로를 파내고 메우는 일을 반복하였다. 왕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소문을 이용하였다. 한양 동쪽으로는 광희문을 통해 나갔고, 서쪽으로는 서소문(西小門)을 통해 나갔다. 이 때문에 광희문과 서소문 바깥쪽에는 공동묘지가 많이 만들어졌고, 광희문은 시구문(屍口門)이라는 별칭을 갖게 되었다.

고려시대 개경에 송나라 사신으로 온 서경(徐兢)이 기술한 『고려도경(高麗圖經)』에는 “신이 듣기로 황제와 요순은 예(豫)를 상상(尙象)하여 겹으로 문을 설치하고 딱따기를 쳐서 도적(暴客)에 대비하였고, 후세의 성인들은 또 존비에 따라 차등을 뒀는데 천자의 문은 고문(皋門), 고문(庫門), 치문(雉門), 응문(應門), 노문(路門) 등 다섯 문이고, 제후들은 이 중에서 두 문을 없애고 고문(庫門), 치문(조선시대에는 응문), 노문이라고 하였다.”라는 내용이 전한다. 동양의 궁궐은 정해진 수의 문이 있으며, 고려궁에 세 개의 문이 있어 예(禮)에 합당하다는 말이다. 조선의 궁궐 역시 정전(正殿) 앞으로 세 개의 문을 설치하였다. 경복궁(景福宮)은 광화문(光化門), 흥례문(興禮門), 근정문(勤政門)을 두었고, 창덕궁(昌德宮)은 돈화문(敦化門), 진선문(進善門), 인정문(仁政門)의 삼문(三門)을 두었다. 동향이면서 동쪽으로 터가 좁았던 창경궁(昌慶宮)만이 두 개의 문을 두어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다. 각각의 삼문은 궁궐에서 치르는 의식의 기준이 되었고, 궁궐 건축물의 상량문에는 항상 겹으로 문을 두어 궁궐의 예에 합당하다는 문구가 삽입되었다.

가장 성대한 의식인 조하(朝賀)는 궁궐의 중심인 정전과 정전 마당에서 치렀다. 삭망(朔望)이라고 해서 그믐과 보름, 즉 한 달에 두 번 치르는 것이 원칙이었다. 조참(朝參)은 조하보다 규모를 줄여 치르는 의식인데, 닷새 간격으로 정전의 정문에서 치렀다. 성대하게 치렀을 것으로 생각되는 국왕의 즉위식은 조참의 등급에 맞춰 정전의 정문에서 치렀다. 즉위식이 있기 전에는 항상 선왕의 죽음(崩)이 있었다. 따라서 조선의 즉위식은 화려하고 성대하게 치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의식의 등급도 당연히 조하보다 낮춰 조참의 등급으로 치렀고, 즉위식이 끝나면 상복으로 갈아입은 다

음 국장의 절차를 논의하였다.

궁궐에는 여러 방향에 수많은 대문이 세워져 있다. 궁궐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신분에 따라 각기 다른 대문을 사용하였다. 창경궁의 선인문宣仁門은 세자궁의 정문이다. 세자가 성균관에 입학할 때는 선인문을 통해 출궁하거나 환궁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1761년(영조 37)에 왕세손인 정조가 성균관에 입학하였다. 이때 정조는 집춘문集春門을 통해 출궁한 다음 선인문을 통해 환궁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세손은 세자궁의 정문을 사용할 수 없다는 신하들의 주장에 따라 집춘문을 통해 환궁한 일이 있었다. 각 대문의 출입에 엄격한 규칙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동궐東闕에서 대부분의 신하들은 금호문金虎門과 선인문을 이용해 출입하였다. 신하들 중에서도 유독 사헌부 관원들만 정문인 돈화문敦化門으로 출입하였다. 밤에는 하나의 대문만 열어두고 이곳으로만 출입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사헌부 관원들은 밤에도 돈화문을 통과해야 한다면 문을 열도록 강요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 정해진 대문 이외에 다른 문을 열려면 표신標信이 있어야 하는데, 표신은 국왕만이 내려줄 수 있었다. 한밤에 임금을 깨워 표신을 내려 달라고 하니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단봉문丹鳳門과 통화문通化門은 여성 및 액례掖隸(내시부 소속 중)들이 출입하는 문이었다. 죄인을 압송해 국문을 여는 경우에 죄인들도 이 문을 사용하였다. 동궐 서북쪽 구석에는 요금문曜金門이 위치하고 있는데, 궁궐의 나인[內人]들이 이 문을 통해 궁궐에 드나들었다.

산간에 위치한 사찰들 역시 궁궐과 같이 겹으로 문을 설치하였다. 하지만 반드시 갖춰야 하는 시설은 아니었고, 의례의 기준도 아니었다. 각각의 문은 의미를 부여하여 불심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차례로 문을 통과하면서 점점 불국토에 다가가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 사찰의 대문으로 널리 알려진 것이 일주문一柱門이다. 기둥이 열을 맞춰 한 줄로 늘어서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마음을 하나로 가다듬으라는 뜻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옛 문헌에서 일주문이라는 이름은 찾아보기 어렵고, 대신 조계문曹溪門이라는 이름이 등장한다. 조계문을 지나 사찰로 진입하면



문 | 국립민속박물관

금강문金剛門이 위치한다. 금강문은 좌우에 금강역사를 봉안한 건물이다. 사찰에 따라 해탈문解脫門 또는 불이문不二門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사찰의 여러 문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는 것이 천왕문天王門이다. 천왕문은 사대천왕을 봉안한 건물이다. 사천왕은 천국이라는 수미산을 수호하는 신중神衆이다. 수미산 아래 네 방향에 각각 위치해서 불법을 지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천왕문을 통과하면 바로 수미산에 다다르게 된다. 사찰의 불전 영역을 천국에 비유한 결과다.

세 칸으로 구성된 대문을 삼문이라고 한다. 관아, 객사, 향교, 서원 등 여러 유형의 건축에서 삼문을 사용한다. 삼문은 겹으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바깥에 설치한 삼문이 외삼문이며 내부에 설치한 삼문이 내삼문에 해당한다. 삼문의 중앙 칸을 좌우측 칸보다 높게 설치한 경우도 있는데 이를 솟을삼문이라고 한다. 삼문은 통과하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 통과 위치를 다르게 설정하였다. 특히 중앙 칸은 거의 대부분 출입이 제한되었다. 향교, 서원 등과 같은 사묘 건축에서

는 국가에서 내린 향축香祝이 가운데 칸을 통해 들어갔다. 객사라면 국왕 또는 임금의 내린 교서가 가운데 칸을 통과하였다. 외삼문 밖에는 홍살문[紅箭門]을 만든다. 홍살문은 두 개의 기둥을 세우고 상부에 두 개의 인방을 걸어 만든 단순한 대문이다. 인방에는 여러 개의 살대를 설치하고, 최종적으로 붉은색을 칠한다. 홍살문은 안쪽이 신성한 공간임을 상징하는 것이다. 홍살문 인근에는 하마비下馬碑를 세웠다. 안에 들어가려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말에서 내려 예를 갖추라는 표시이다.

문갑

문갑

특징 및 의의 통일신라시대의 건축법을 기록한 『삼국사기三國史記』 옥사조屋舍條에는 출신에 따라 문의 설치를 규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옥두품은 중문重門과 사방문四方門을 설치할 수 없었고, 오두품 이하는 대문大門과 사방문을 설치하지 못하였다. 중문은 2층으로 만들어진 문이며, 사방문은 네 방향에 각기 설치한 문, 대문은 규모가 큰 문을 말한다. 문이라는 것이 단순히 통과하는 시설이라는 의미에 더해 다양한 의미가 부여된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궁궐-조선을 말하다(조재모, 아트북스, 2012), 사찰-그속에 깃든 의미(김현준, 교보문고, 1991), 한국의 문과 창호(주남철, 대원사, 2001).

필자 이연노(李演魯)

문갑 文匣

정의 문방용품을 넣어 두는 갑.

내용 각종 문방용품과 문서 등을 보관하기 위한 가구로, 문구갑文具匣의 준말이다. 명칭에서 보듯이 갑이 발전된 것이다. 중국의 송·명 대에는 각종 문방용품을 개별 보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갑이 사용되었다. 문갑 형태도 중국의 강[剛] 위에서 쓰이던 강문갑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문갑은 처음에 외짝으로 제작되어 높이가 꽤 높았



문갑 | 가로106 세로32 높이43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다. 18세기 이후 가옥의 규모가 커지면서 문방이 유행하자 문갑은 방의 규격에 맞춰 쌍으로 제작되었다.

문갑은 평좌생활에 알맞은 책상 높이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으며, 벽면을 따라 길게 한 쌍을 놓고 사용되었다. 문방에 필요한 소품들을 넣기 위한 작은 설합과 선반으로 이루어진 형태가 있고, 서랍과 선반을 네 짝의 두겹다지문으로 감춘 형태도 있다. 이와 같이 네 짝의 두겹다지문으로 된 문갑을 병어리문갑이라고 한다. 천판 위에는 필통, 연적, 수석, 난분 등을 늘어놓는 진열대 구실도 한다. 궁중에서는 중국의 강문갑 중 다소 높은 형태의 문갑과 유사한 것을 쌍으로 사용했으나 일반 민가에서 높은 것은 단문갑單文匣인 경우가 많다. 조선시대의 선비 사대부들은 기교와 장식이 인위로 과다한 것을 천박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문방가구 재료는 대부분 오동나무나 소나무였고, 알갱이에 자연스러운 목리가 아름다운 용목을 사용하였다. 당시의 풍조는 외형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무늬를 조각할 필요가 없었다. 죽사竹絲를 붙인 죽장기법竹粧技法도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비용에 비해 일찍 파손되므로 아무런 이득이 없기 때문이다.

특징 및 의의 문갑은 문방에 쓰이는 각종 지필묵紙筆墨을 비롯한 소품들을 넣어 두던 가구이다. 그 위에는 지통紙筒·벼루·연적 등 문구류를 안배하며, 수반水盤이나 분재 화분을 놓기도 하여 실용과 함께 양성의 취향을 살리는 공간으로도 이용되었다. 문갑은 사용자에 따라 외짝으로만 놓이기도 하고 쌍으로 나란히 놓이기도 하였다. 그 위치는 서안·연상과 가장 가까우며 좌석에서 쉽게 손이 미치는 곳으로, 대개 좌석 전면의 좌우 한편이 되기 마련이다. 우리 조상의 생활방식은

좌식이었으므로 서안이나 연상류와 함께 문갑도 운두가 얹어 실내 배치에서는 매우 안정감이 있고 쓰기 편리하며 보기도 좋아 문방생활의 기초를 이루었다.

참고문헌 林圖經濟志, 전통목가구(김삼대자, 대원사, 1997).

필자 김삼대자(金三代子)

문고리

정의 문을 여닫을 때와 잠글 때 사용하기 위하여 문틀에 달아 놓은 쇠고리.

개관 문고리는 손잡이와 잠금장치 역할을 한다. 문 안팎을 출입할 때는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여닫고, 외출 시에는 자물쇠를 문고리에 걸어서 문을 잠근다. 문고리는 외부인이 쉽게 집과 방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인 동시에 경계를 확실히 하는 장치이다. 또한 문고리에 각종 형상물을 배치함으로써 가정의 안녕과 복을 기원한다.

내용 전통가옥에서 문고리는 주로 방문과 창문 등 중간 지점에 배치하여 문을 열고 닫을 때와 잠글 때에 사용하며, 손잡이 역할을 한다. 대문 밖에도 문고리를 배치한다. 방 안에서 밖으로 나갈 때와 반대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여닫는다. 잠을 잘 때에는 안에서 문고리를 잡아 당겨서 배목에 걸어

둔다. 이것으로도 안심하지 못하면 주인은 숟가락 등을 배목에 끼운다. 이는 고리가 배목에서 이탈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로서, 외부인이 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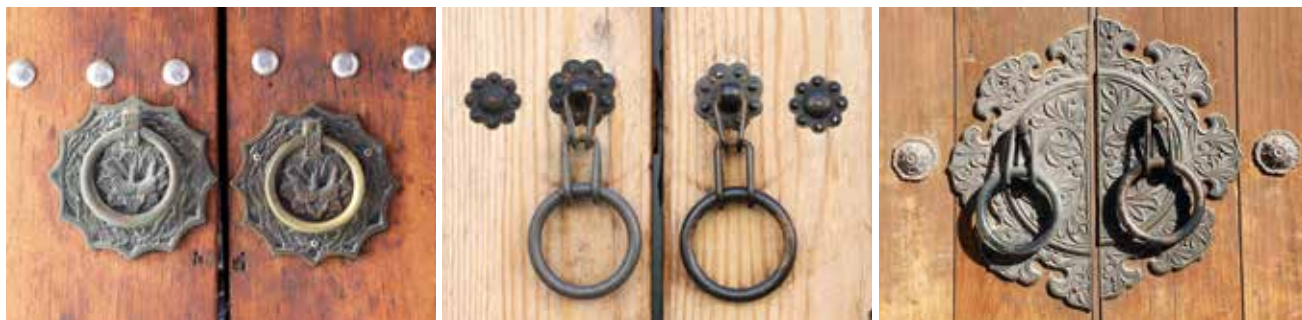
이와 반대로 외출 시에는 밖에 배치되어 있는 고리를 배목에 건 후에 자물쇠를 채우는 등 잠금장치를 활용하여 잠근다. 문고리는 외부인이 쉽게 집과 방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인 동시에 경계를 확실히 하는 장치이다.

문을 제작한 후 일정 기간이 흐르면 틀이 뒤틀린다. 문과 틀이 잘 맞지 않을 수 있다. 출입자는 이때 문고리를 잡고 문을 살짝 들어 올려서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

문고리는 고리와 사슬, 배목을 한 조로 한 것과 사슬 없이 고리와 배목을 한 조로 한 것이 있다. 고리는 일반적으로 둥근 형태이다. 전자는 연환(連環, 聯環)이며, 쌍련(雙聯), 삼련(三聯), 사련(四聯) 등으로 부른다. 후자는 단환(單環)으로 불린다. 문고리는 대부분 둥근 고리(圓環)이지만, 네모 고리(方環)도 있다.

우선 무쇠로 고리를 둥글게 제작한 후에 사슬 윗부분을 구부려서 작은 고리를 만들고 이 고리를 잡는다. 마지막으로 배목을 제작해서 사슬과 연결하면 한 조의 문고리가 완성된다. 사슬이 없는 문고리는 고리와 배목을 연결한다.

배목은 두 개를 제작한다. 문이 두 개인 경우는 다른 문에, 하나인 경우는 문틀에 배목을 배치한다. 두 짝의 문은 한쪽에 문고리를 배치하고 다른 쪽에 배목을 배치해서 고리를 걸어들 수 있도록 하였다. 여닫이 방문에는 안과 밖에 문고리를 달았다. 배목은 문틀에



판문 문고리 | 서울 종로구 | 국립민속박물관



창호 문고리 | 주택문화사

문방구

구멍을 뚫은 후에 끼워서 머리를 반대편으로 약간 나오게 해서 구부린다. 이는 문고리를 잡아당겨도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바람이 심하게 불 경우에 문이 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리가 나지 않게 하여 가족들은 방에서 조용히 지낼 수 있다.

대가(大家)의 방문은 덧문으로 여닫이문과 방 안으로 미닫이문의 이중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닫이문에는 주로 손잡이 형태의 문고리를 달았다. 미닫이문의 경우 벽 속에 수납되어야 하는 구조적 특성상 가죽 끈 등으로 손잡이를 대신한다. 이런 종류의 방문은 잠금장치를 별도로 설치해서 사용해야 한다.

문고리에는 의미 있는 각종 형상물을 만들어서 배치하기도 한다. 도깨비나 사자 등은 고리를 입으로 물고 있고, 용두는 문고리 위에 배치하였다. 이들은 부정을 쫓는 수호신과 길상적인 의미를 지닌다.

문을 여닫고 잠그는 장치는 가옥 구조의 변화로 인해 형태도 변하였다. 명칭도 일반적으로 문고리보다 손잡이로 불린다. 최근 건축물에는 둥근 손잡이와 길쭉한 손잡이에 이어서 디지털 도어록까지 설치한다.

특징 및 의의 문고리는 문을 여닫고 외부인 침입을 막는 잠금장치 기능을 한다. 각종 형상물 배치는 부정을 쫓음으로써 가정의 안녕을 기원하면서 입체적인 미도 보여준다. 문고리는 실질적인 효율성과 민간신앙적이고 장식적인 효과를 두루 갖추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의 살림집(신동훈, 열화당, 1986), 한국의 주거민속지(김광언, 민음사, 1988).

필자 박종민(朴鍾珉)

문방구

文房具

정의 글을 쓰고 공부하는 데 사용하는 지필묵연과 그 외의 필수도구.

개관 문방구(文房具)에는 붓·먹·종이·벼루의 필수 도구 외에 붓과 관련한 필갑(筆匣)·필통(筆筒)·필격(筆格)(산이나 누운 짐승의 형태로 붓을 걸쳐 놓도록 된 도구)·필상(筆床)(붓을 누어 엎어 놓을 수 있는 나무판)·필모(筆帽)(붓뚜껑)·필가(筆架)(붓걸이)·필세(筆洗)(붓을 씻는 그릇)·필점(筆硯)(붓을 잠시 내려놓거나 붓을 그어 보기 위하여 사용하는 작은 접시), 먹과 관련한 묵갑(墨匣)·묵상(墨床)(먹을 갈고 난 후 먹을 엎어 두는 작은 받침)·먹집게, 종이와 관련한 서진(書簞)·시전지판(詩箋紙板)(시나 편지를 적던 시전지에 사란(絲欄)과 그림을 찍어 내는 목판)·지통(紙筒), 벼루와 관련한 연병(硯屏)(먹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벼루에 치는 작은 병풍)·연적(硯滴)·수중승(水中丞)(항아리 형태로 구연부가 넓어 그 안에 물을 구기로 뜨도록 함) 등이 포함된다.

『역어유해(譯語類解)』에서 지(紙)는 ‘조희’, 필(筆)은 ‘붓’, 먹(墨)은 ‘먹’, 연석(硯石)은 ‘벼루’로 각각 기록하였다. 문방사우는 조선의 선비에게 필수 용품이면서 애장품으로, 그 종류와 특산품·제조법·보관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록이 전한다. 문방사우와 관련하여 조선의 대표 문헌 기록으로는 『지봉유설(芝峯類說)』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성호사설(星湖僞說)』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송남잡지(松南雜識)』 등이 있다.

종이는 동한(東漢)시대 채륜(蔡倫)이 만들었다고 전해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종이를 만들었는지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고려 견지(靑紙)가 뛰어나다고 하는 기록을 보면 일찍부터 우리나라에서 종이가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송나라 문헌에 “고려지는 면견으로 만들어 빛은 비단처럼 희고 질기기는 명주와 같아서 먹을 잘 받으니 사랑할 만하여 이는 중국에 없는 것이니 역시 기품(奇品)이다.”라고 하여 고려의 종이 가 견으로 만들어졌다고 오인할 정도로 뛰어났음

을 알 수 있다.

붓의 시작은 명확하지 않으나 진나라 장군 몽염(蒙恬)(?~기원전 209)이 만들었다고 하며, 산뽕나무로 붓대를 만들고 사슴털로 속심을 만들며 토끼와 양털로 바깥털을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낙랑지역 왕광묘의 후한 시대 붓과 경상남도 창원 다호리 유적에서 출토된 양쪽에 붓촉이 달린 다섯 점의 칠기 붓, 6세기 <집안 사신총 필신도>의 붓을 쓰고 있는 인물 등에서 고대 우리나라 붓의 발달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먹은 중국의 위진시대에 이미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덕무李德懋의 『청령국지蜻蛉國志』에서 “(일본에 온) 고구려 담징曇徵이 단청丹青에도 능하고 종이·먹과 방아를 만들 줄 알았다.”고 하였다. 『열하일기熱河日記』의 “고구려에서 소나무 그늘음으로 만든 먹을 당나라에 바쳤다”는 인용문이나 『고려도경高麗圖經』에서 송연묵松煙墨의 특산지로 평안남도 맹산孟山을 꼽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 먹의 역사가 길며, 특히 송연묵이 발달하였음도 알 수 있다.

『설부說郛』에서 “조선의 방언으로 연硯을 버루皮廬라고 한다.”고 하였다. 버루는 일찍이 중국에서 발달하였다. 우리나라 초기의 버루로는 가야와 삼국의 도연陶硯·토제연 등과 통일신라시대 안압지에서 출토된 목심칠연木心漆硯이 있다.

내용 우리나라 종이의 명칭은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대전회통大典會通』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한양가漢陽歌>, 조지서造紙署 혹은 조선총독부의 기록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종류도 무수하지만 이름을 붙이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어 어떤 종이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중 갑의지甲衣紙·표지表紙·선자지扇子紙·시축지試軸紙와 같이 사용 용도를 알 수 있는 이름이 있고 용전지龍箋紙·능화지처럼 문양이 있는 종이, 재료에 따라서는 귀리 혹은 버드나무 잎으로 만든 고정지藁精紙·유엽지柳葉紙, 어린 대 혹은 버나곡물로 만든 모변지毛邊紙, 등나무로 만든 계등溪藤, 이끼로 만든 태지苔紙, 울무로 만든 의이지薺紙, 마를 재료로 한 마골지麻骨紙, 목화를 사용한 백면지白綿紙, 갈대로 만든 노화지蘆花紙, 소나무 껍질로 만든 송피지松

皮紙, 뽕나무로 만든 상지桑紙 등의 이름이 전한다. 종이의 가장 주된 재료인 닥나무로 만든 저와지楮渦紙 외에도 다양한 재료로 종이를 만들었던 것이다. 종이를 염색하는 방법은 『임원경제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홍랍紅藍의 즙이나 소방목蘇方木, 아청색의 전(靛, 쪽으로 만든 검푸른 물감), 울금鬱金 등이 사용되었다. 조선시대 종이는 삼도를 비롯하여 전국에서 생산되었으나 매우 귀해서 재활용하여 생활용품으로도 재생산되었다. 이처럼 질기기로 이름난 우리의 종이는 그 활용도가 높았다.

붓에 관해 『지봉유설芝峯類說』 『목민심서牧民心書』에는 필관으로 쓴 ‘용편초龍鞭草’라는 희귀한 재료 혹은 금관이나 은관 같은 고급스런 재료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 외에 상아나 나전 등도 사용되었으며, 가장 많이 쓰인 것은 대나무였다. 『증보산림경제』에서 “붓이 빠지면 묻는 것이 옛 법이다.”라 하여 다 쓴 붓도 쉽게 버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한유韓愈가 『모형전毛穎傳』에서 붓을 의인화하였듯이 문방구에 대한 선비들의 애착심은 문헌 곳곳에서 보인다.



문방구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증보산림경제』에서 붓의 재료로 족제비 꼬리만큼 좋은 것이 없고, 특히 몽골에서 난 것이 좋다고 하였다. 당시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붓은 족제비털로 만든 황모필이었다.

『증보산림경제』 등에서는 종이 말리는 법이나 먹을 만드는 방법에 관하여 상세히 기술하였다. 먹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을음을 채취하여 쇠가죽으로 만든 아교와 물을 섞는데 1~3만 번까지 뿔아 손에 묻지 않을 정도가 되었을 때 움집에서 종이를 덮어 말려 만들게 된다고 하였다. 또 그을음을 만들 때는 기름을 사용하거나 소나무를 태운 것 혹은 백년송의 뿌리 기름을 태운 그을음이 좋다고 하였다. 이렇게 벼루를 사용하는 것은 오랜 시간과 긴 공정이 필요한 작업이었다.

벼루는 질이 매끄럽고 촉촉한 것이 좋다고 하였다. 그 가운데 남포현藍浦(현재 충청남도 보령)의 침수석인 ‘오鳥’라는 돌을 높이 평가했다. 그 외에 남포의 수심석水心石과 국화석菊花石, 성주산聖住山의 현옥玄玉 등이 귀한 것으로 여겨졌다. 벼루 수집광이라고 전해지는 석치石痴 정철조鄭詰祚(조선 영조 때 화가)는 벼루조각에도 뛰어났다고 한다. 『속동문선續東文選』 권4에 김종직金宗直(1431~1492)이 남긴 ‘土疆新自義州來以宣川石硯將贈兼善兼善予奪得之詩以射兼善’에서 벼루는 문방에 하루도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라 하였고, 벼루를 익우益友(사귀어 도움이 되는 벗)로 표현하였다. 또 여기서 겸선兼善 홍귀달洪貴達에게 전해질 자석연을 중간에서 몰래 빼돌려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심정을 담아 선비들에게 벼루가 얼마나 아꼈던 애장품이었는지를 보여 주기도 한다.

특징 및 의의 문방구는 조선 선비들의 필수품이었으며 애장품으로서 지필묵연은 문방사우라 하여 벗이라 불렀다. 지필묵연은 중국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그러나 특히 견지나 송연묵은 중국에서도 이름난 우리의 산물임이 확인된다. 종이 재료로는 닥나무가 주종을 이루었다. 대체로 두껍고 질긴 성질을 띤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 종이는 누에고치로 만들었다고 오인될 정도로 매끄러운 견지가 이름났었다. 붓은 족제비털로 만든 황서낭필이 유명하였고, 묵은 해주묵, 벼루는

남포·위원벼루가 좋다고 전해진다.

참고문헌 譯語類解, 增補山林經濟, 국역 송남잡지3-문방류(조재삼, 강민구 역, 소명출판, 2008), 서예생활과 문방사우(김미라, 한국 서예문화의 역사, 국사편찬위원회, 2011), 조선시대 문방제구(김삼대자, 국립중앙박물관, 1992), 종이(이종석, 한국의 전통공예, 1998).

필자 김미라(金美羅)

문배 門排

정의 한 해의 질병과 재난을 막기 위하여 정월 초하룻날 새벽에 대문에 붙이는 그림이나 글씨.

내용 문배門排가 벽사를 주제로 삼았다면 세화歲畵는 신년을 송축하는 길상을 주제로 담았다. 조선 말 『경도잡지京都雜志』와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도 세화와 문배를 구분지어 설명하고 있다. 세화는 서화 관련 임무를 맡고 있는 도화서圖書署에서 <수성선녀도壽星仙女圖>와 <직일신장도直日神將圖>를 그려 임금에게 바치고 또 서로 선물하는 것으로, 그 목적이 서로 축하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문배는 사귀邪鬼나 전염병傳染病 등을 막기 위하여 문에 붙이는 신상을 말한다. 조선 후기 『육전조례六典條例』에도 세화와 문배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는 곳과 진상 시기를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



진숙보와 위지경 | 경북 안동 하회 북촌댁 | 정연학

인물	세화(歲畵)	문배(門排)
문헌		
목은시고(牧隱詩藁)	십장생	
허백당집(虛白堂集)		신도(神荼) 울루(鬱壘) 글씨 창에 처용(處容)의 머리 그림
용재총화(慵齋叢話)		처용(處容), 각귀(角鬼), 종(鍾), 두(頭), 관인(官人), 개위장군(介胃將軍), 경진보부인(擎珍寶婦人)
성소복부고(惺所覆瓿藁)	선녀	천왕(중규)
분서집(汾西集)	모란병풍, 십장생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무안(武安)
번암집(樊巖集)	남극노성도 (南極老星圖)	
분서집(汾西集)	남극노성도 (南極老星圖) 신선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울지(蔚遲)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세기잡영(歲時雜詠)		위징(魏徵), 울지경덕(蔚遲敬德)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영처시고(嬰處詩稿)		귀신 그림
경도잡지(京都雜誌)	수성(壽星), 선녀(仙女), 직일신장 (直日神將)	도끼를 든 장군, 몽둥이를 든 장군
세시풍보(歲時風譜)	신선과 거북과 학	
열양세기(洌陽歲時記)	신선(神仙)	금갑신장(金甲神將)
한양가(漢陽歌)		신장(神將), 모대(帽帶)한 문배(門裨)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수성(壽星), 선녀(仙女), 직일신장 (直日神將)	도끼를 든 장군, 몽둥이를 든 장군, 붉은 도포와 까만 사모를 쓴 상, 종규(鍾馗), 귀신 머리
면암유고(勉菴遺稿)		금갑장군
황제পুর이		울지경덕, 진숙보, 중문에 세 선비

문헌에 등장하는 세화와 문배의 내용

주제	세화	문배
그리는 곳	도화서(圖書署) 차비대령(差備待令) 화원, 본서 화원	장무관(掌務官)과 관원(官員)
주제	수성(壽星), 선녀(仙女), 직일신장(直日神將)	도끼를 든 장군, 몽둥이를 든 장군
대상	임금	각궁의 문
의미	송축, 하사, 선물	벽사
시기	12월 20일	12월 그림

『육전조례』의 세화와 문배의 차이

문배 그림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신라시대 이래 문배로 처용의 얼굴을 그려 붙였다고 하지만 이후로는 주로 신도, 울루, 위지공尉遲公, 진숙보秦叔寶 등 중국 문신에 나오는 인물이 등장했다. 따라서 중국의 문신門神이 우리나라 문배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문배 풍속은 18~19세기의 세시기歲時記에 빠지지 않고 언급되고 있어 조선 말기까지 널리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867년에 간행된 『경국대전經國大典』 조례집인 『육전조례六典條例』 진상조進上條에 “화원들로 하여금 각 전과 궁에 진상할 문배 및 각 문에 붙일 그림을 매년 초에 그려 바치게 했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조선 말기까지 국가 차원에서 문배 풍속이 유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근대 문물이 도입된 이후인 1930년대에도 문배를 붙이는 풍속은 여전히 존재하였다. 서울에서 채집된 성조가成造歌인 <황제পুর이>에는 “중문에 세 선비요. 대문에는 위지경덕, 진숙보가 분명하다.”는 대목이 있을 정도로 당시에도 문배 풍속은 매우 보편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대에는 문배 풍속이 사라졌고, 경상북도 안동 등 일부 종가宗家에서 문에 글씨를 붙이는 정도만 남아 있다.

참고문헌 大東鎮府群玉, 獨斷, 東國歲時記, 勉菴遺稿, 問禮, 備邊司謄錄, 三國遺事, 惺所覆瓿藁, 洌陽歲時記, 慵齋叢話, 六典條例, 朝鮮時, 靑莊館全書, 秋齋集, 風俗通儀, 荊楚歲時記, 문과 상징(정연학, 시월, 2009), 민화와 민간연화(정병모, 강좌미술사7, 한국불교미술사학회, 1995), 조선시대 회화사론(홍선표, 문예출판사, 1999), 조선 후기 세화 연구(김윤정,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필자 정연학(鄭然鶴)

문자형집

정의 주거의 평면 또는 집의 형상이 한자 또는 한글의 자음 형태인 집.

내용 문자형집은 주거의 평면 형태 또는 집의 전체 모

습을 한자 또는 한글의 자음을 따서 이름 붙인 것이다. 주거 유형에서 한글 문자형집은 ㄱ자집, ㄷ자집, ㅁ자집이 있다. 한자는 一(한 일)자집, 二(두 이)자집, 口(입 구)자집, 日(날 일)자집, 工(장인 공)자집 등이 있다. 주거 형태를 문자로 표현한 사례는 명나라 왕기王圻가 편찬한 『삼재도회三才圖會』에서 볼 수 있다. 이 책의 궁실宮室조에는 나쁜 구조의 집들을 그림으로 그려 설명하고 있다. 집 형태에 따라 丁(丁)자방, 水(水)자방, 王(王)자방, 小(小)자방, 工(工)자방 등 한자 이름을 붙였다.

우리나라는 적어도 18세기 초부터 주거 형태를 한자형으로 표현하였다. 홍만선은 그의 저서 『산림경제山林經濟』에서 집의 형상을 한자의 의미와 연관시켜 길흉관계를 설명한다. 집을 지을 때 집의 형상이 일 日·월 月·구 口·길 吉과 같은 길상 문자면 좋고, 工(장인 공)자와 같이 만들고 부수는 등 그 의미가 지속적이지 못하거나 尸(주검 시)와 같이 좋지 못한 의미의 글자 모양은 불길하므로 피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집을 지을 때 칸수를 홀수로 하는 것이 길하고 기둥의 척수 및 서까래의 숫자로 홀수로 한다고 기록하고 있어 집이 단순히 기능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명운과 가족의 이상을 상징하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전통 주거 유형은 분류 기준에 따라 다양하다. 주거의 지리 분포에 따라 중부형·남부형 등 지역형으로 분류하고, 보칸의 분화 정도에 따라 홑집과 겹집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대체로 문자형집의 분류는 본체인 안채나 살림채의 평면형 또는 집의 전체 배치 모습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一자집은 농촌 민가의 기본형이다. 평면 한쪽 끝에 부엌을 두고 그 옆으로 방과 실이 이어지면서 2칸집, 3칸집, 4칸집, 5칸집으로 늘어난다. 소작농에서 부농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의 주거에서 볼 수 있는 주거 형태로,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분포한다. 一자집은 살림채 한 채로만 구성되는 경우가 드물다. 대개 헛간채, 행랑채, 사랑채 등을 두는 경우가 많다. 부속채는 보통 본채 중심으로 안마당을 둘러싸며 배치한다. 一자집 두 채가 안마당을 사이에 두고 앞뒤로 배치되면 二자집이 된다.

ㄱ자집은 경기 지역에서 곱은자집, 평안도 지역에

서 꺾음집, 충청도 지역에서 고패집이라고 각각 부른다. ㄱ자집이란 용어는 20세기 중반 이후에 사용되었다. ㄷ자집과 ㅁ자집도 마찬가지로이다. ㄷ자집과 ㅁ자집은 집이 분동되어 있을 때는 ㅌㄷ자집과 ㅌㅁ자집으로 구분하여 부른다. ㅌㄷ자집은 ㄱ자형 살림집과 一자집 사랑채 또는 부속채가 안마당을 형성하면서 ㄷ자형을 이룬다. 집이 한 동으로 이루어진 ㄷ자집은 전면에 문간채 또는 사랑채와 함께 ㅌㅁ자집이 보통이다. ㅁ자집은 경상북도 안동과 그 주변 지역에서 뜰집이라고 한다. 뜰집은 안마당을 중심으로 안채, 사랑채, 부속채가 한 동으로 결합된 형태이다. ㅁ자집은 경북 지역에 집중 분포하며, 조선시대 중·상류 주택의 대표 주거 유형이다.

특징 및 의의 전통 주거는 분류 기준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된다. 문자형집이라는 명칭은 본체인 안채나 살림채의 평면 형태 또는 집의 배치 전체 모습을 한자 또는 한글 자음의 형태와 연관지어 붙여졌다. ㄱ자집, ㄷ자집, ㅁ자집, 一(한 일)자집, 二(두 이)자집, 口(입 구)자집, 日(날 일)자집, 工(장인 공)자집 등 다양한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참고문헌 山林經濟, 林圖十六志, 개정판 한국건축사(주남철, 고려대학교출판부, 2010), 산수간에 집을 짓고(서유구, 안대회 역, 들베개, 2013), 한국의 민가(김홍식, 한길사, 1992), 한국의 민가(조성기, 한울아카데미, 2006), 한국의 살림집(신영훈, 열화당, 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홍승재(洪升在)

문지방 門地枋

정의 방의 출입문이나 대문에서 문 밑부분의 문중방 위에 덧대어 수평으로 놓은 인방.

내용 문지방門地枋은 방과 방의 경계, 혹은 문의 안과 밖의 경계로 먼지나 바람, 벌레나 곤충 등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생긴 건축 구조물이다. 대문은 사람의 얼굴에 빗대어 말하기도 하며, 대문의

문지방은 사람의 얼굴 전체 가운데 턱에 해당하기에 ‘문턱’이라고도 칭한다.

문턱을 밟아 본 사람은 어른들에게 혼난 기억이 있을 것이다. 특히 그 위에 앉으면 ‘재수 없다’라고 하여 큰 꾸지람을 받았을 것이다. 또한 문턱을 밟는 것은 부모의 머리를 밟는 것과 같다고 하여 지극히 꺼렸다. 이를 어기면 부모가 머리를 앓는 병에 걸린다고 한다. 또 문턱을 베고 자면 일찍 죽고, 걸터앉으면 벼락을 맞는다고 한다. 문턱을 가운데에 두고 물건을 주고 받지도 않는다. 이는 장례식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여자가 문턱에 앉거나 밟는 것에 대하여 불길하게 여기는 것도 전 세계에 보편화된 현상이다. 특히 신부가 신랑집 문턱에 앉거나 문턱을 밟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러하다. 혼례식 때 신랑이나 친척들이 신부를 업거나 안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러한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한 행동인 셈이다. 문턱은 신이 사는 장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문턱을 밟는 것을 신을 모독하는 행위로 여겼다. 특히 달거리를 하는 여인 또는 신부들은 ‘피 부정’으로 말미암아 문턱신의 노여움을 살 것을 두려워하여 더욱 금하였다.

문턱을 밟는 것을 금기시하는 풍습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도 나타난다. 모로코, 아르메니아, 러시아에서는 문턱을 신령들이 사는 곳이자 휴양지로 여겨서 함부로 접촉하지 않으려고 피하는 등 조심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집안에 재앙이 생길 흉조凶兆로 여겼다. 몽골에서는 가한궁장可汗宮帳(황제의 왕궁으로 사용하는 막사)의 문턱을 밟은 자를 사형에 처하기도 하였다. 중국에서도 문턱을 밟는 것을 금기시한 사실은 『예기禮記』에서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역사가 오래되었다. 근래에도 많은 소수민족들이 문턱에는 사람을 비롯하여 가축과 집을 보호하는 신이 산다고 믿고 있다.

문턱의 높낮이는 그 집안의 부와 권세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문턱이 높다는 것은 가문의 신분이 귀하거나 부자라는 의미와 함께 함부로 들어가는 안 된다는 경계의 뜻을 나타낸다. 은행에서 돈을 잘 빌려주지 않거나 관청에서 원활하게 협조하지 않을 때 “은행(관청) 문턱이 높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문턱 | 경남 함양 일두 고택 | 정연학



달문 | 경북 경주 | 정연학

특징 및 의의 근래에는 대문에 문턱이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집 안으로 농기계가 진입하다 보니 오히려 문턱이 불편한 장애물이 된 셈이다. 어느 농가에서는 문턱을 없애는 것을 기피하여 문턱의 일부를 잘라내고 바퀴를 달아 상황에 따라 문턱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들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論語, 禮記, 문과 상징(정연학, 시월, 2009), 문명과 야만(J.G.프레이저, 이양구 옮김, 강천, 1996), 중·한·일, 세 나라의 주거민속 연구(김광언, 비교민속학18, 비교민속학회, 2000).

필자 정연학(鄭然鶴)



문패 門牌

정의 성명이나 집주소 등을 나무 등에 표시하여 문 앞에 거는 패.

개관 문패門牌는 돌, 나무, 금속, 사기, 아크릴 등 다양한 재질로 만든다. 대개 세로가 긴 직사각형 모양의 패 위에 그 집의 호주主 내지 거주자의 성명 또는 주소를 새기거나 적어서 대문 앞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한다. 한국에서는 1894년 7월 11일 군국기무처가 전국 각 집[家戶]에 문패를 달도록 하면서 문패 부착이 처음 실시되었다. 문패라고 하면 보통 주택에 다는 문패를 지칭하는 것이었지만 개화기와 일제강점기에는 기관명, 단체명, 상호商號를 표기하여 붙이는 간판의 의미로도 사용하였다.

문패 부착은 개인이 아닌 정책과 사회 문제였다. 개화기와 일제강점기에는 호적 등재, 지번地番 확정, 우편제도 실시에 따라 문패 부착이 권장되었다. 광복 이후에는 치안 유지, 체신 업무의 효율화, 한글 상용화 등을 목적으로 문패 달기 운동이 전개되었다. 또한 문패 달기는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도 적극 권장되었고, 1970년대에는 각급 학교 학생이나 집배원 등이 문패를 만들어서 달아 주는 봉사 활동이 꾸준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파트 건설이 확대되고 아파트 거주

자가 증가하면서 문패 부착이 저조해졌다. 대문이 없는 아파트 특성상 문패를 다는 일에 의미가 없어졌고, 호별 우편함이 설치되어 우편물 수취를 위하여 문패를 달 필요도 없어졌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후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문패 부착으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사회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기존에 부착한 문패 이외에 새롭게 문패를 다는 경우는 드물어졌다.

내용 문패를 다는 위치나 문패에 기재하는 내용은 통일되어 있지 않으나 대체로 집의 소유주이자 호주인 사람의 성명을 표기하였다. 따라서 문패를 다는 것은 셋집을 전전하며 고생하다가 드디어 자기 명의의 가옥을 장만하게 되었음을 의미하였다. 반면 셋방살이를 하는 가구주는 자신이 사는 집 대문 앞에 자기 명의의 명패를 걸기가 어려웠다. 관행은 그러하나 문패를 달도록 권장하는 정부 입장에서 실제 거주자의 확인이나 원활한 우편배달이 주된 목적이었기 때문에 문패를 통해 주소나 집 주인의 성명뿐만 아니라 더부살이든 셋방이든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 전부를 파악하기를 원하였다. 그 결과 시기별로 문패의 형식이나 권장되는 기재 내용이 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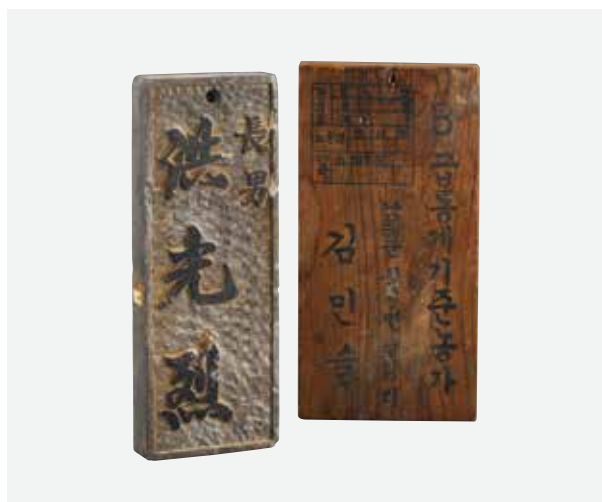
대한제국기에 권장되던 문패 양식은 각 집의 주소와 성명을 기본으로 하였다. 1899년 서울 지역의 예를 들면 ‘서서西署 반송방盤松坊 제72통第七十二統 9호九戶 전승지前承旨 윤기진尹起晉’이라 하여 주소·직함·성명을 표기하였다. 이어 1905년 경무청에서 정하여 배포한 문패 도식을 보면 종이에 가로로 주소와 호주의 연령·직업, 친척·고용인 등과 함께 거주하는 남녀의 수, 집의 칸수를 상세하게 쓴 후 연월일 아래 통수統首의 도장을 찍은 방계동통坊契洞統을 패에 붙여서 문 앞에 달도록 권장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문패를 부착하지 않는 것을 경찰이 단속하기도 하였지만 문패 보급이 전국으로 확산되지는 못하였다. 일제강점기까지도 문맹자가 적지 않았고 자신의 이름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이 편지의 정확한 수취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문패를 달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는 지

번이 신설되면서 문패에도 동명(洞名)과 번지수, 성명을 기입하도록 규정하였다. 주소의 표기 방식이 달라졌을 뿐 주소와 성명을 적어야 하는 것은 대한제국기와 마찬가지로였다. 예를 들면 하나의 문패에 ‘경성부 창신동 487번지’의 주소와 ‘김상옥’이라는 성명을 세로쓰기 두 줄로 함께 적는 식이다. 그렇지 않고 아예 주소를 적은 패와 성명을 적은 패 두 개를 따로 만들어 거는 방식도 있었다. 문패 크기는 가로 약 6cm(2치) 이상, 세로 약 15cm(5치) 이상이 권장되었다.

광복이 되면서 한글전용촉진운동이 전개되었고, 이에 따라 1950년대까지는 문패도 한자가 아닌 한글로 고치자는 운동이 전국 각지에서 추진되었다. 한글로 된 문패를 보면서 한글의 중요성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한글을 깨우치도록 하자는 것이 이 운동의 취지였다. 하지만 한문 문패는 물론 한글 문패도 쉽게 정착되지는 못하였다. 문맹자가 여전하였고, 특히 6·25전쟁을 거치며 치안이 불안한 상황에서 자칫 문패를 달았다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영향을 미쳤다. 문패를 달지 않는 일이 지속되자 1956년 치안국에서는 집집마다 정문 앞에 문패를 달지 않으면 엄벌에 처하겠다고 발표하였고, 문패 미부착을 이유로 실제로 구류 처분을 내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큰 진전이 없었고, 내무부에서는 1961년 6월 30일까지 집집마다 문패를 게시하라고 시달하였다. 문패에 가구주의 성명과 그 가족 수, 소속된 통반과 주소, 셋방살이 가구주의 이름 등을 새기라고 하였다. 또한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사람이나 판잣집 또는 천막에 산다 하더라도 독립된 가구를 이루고 있으면 반드시 문패를 달아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문패에는 주로 호주 또는 가구주의 성명만이 표기되었고, 이러한 형식은 이후로도 지속되었다.

특징 및 의의 1930년대 남의 집 문패를 몰래 떼어 가면 시험에 합격한다는 속신이 유행하여, 서울과 함흥 등지에서 문패 절도 사건이 빈발한 적이 있다. 1965년에도 남의 집 문패를 떼어다 삶은 물에 밥을 지어 먹으면 합격한다며, 중학교 입시를 앞둔 학부모가 문패를 훔친 일도 발생하였다. 아무 집 문패를 떼어다 삶



문패 | 가로7~10 세로2 높이20 | 1940~1960 | 국립민속박물관



문패 | 충남 청양 | 1998 | 국립민속박물관

는다고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외아들 집의 문패라든가 자녀가 합격한 집의 문패 등 여러 가지 속신이 떠돌았다. 행운이 있는 집의 물건을 훔쳐 간직하면 복을 나누어 받을 지도 모른다는 전근대의 속신이 문패에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패는 외부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그 집과의 친분이 없어도 쉽게 훔칠 수 있기에 문패가 대상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한국인 어떤 집에서 살았나(김혜숙 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7), 남의 문패를 떼어가면 입학시험에 급제(매일신보, 1932.2.19), 문패게출의 규정, 일반시민의 착념(매일신보, 1914.6.13), 문패를 꼭달라(동아일보, 1956.9.3), 문패신식(황성신문, 1905.3.22), 문한글운동 전개, 장단군서 일반에(동아일보, 1948.11.12).

필자 이대화(李大和)

문화주택 文化住宅

정의 1920년대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서양식 주택을 지칭하며 유행한 용어.

내용 ‘문화주택文化住宅’은 일제강점기, 특히 1920년대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서양식 주택을 가리키며 쓰인 용어이다. 서양식 주택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때때로 ‘양옥洋屋’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기도 하였지만, 당시 주택의 유행을 주도하며 커다란 사회적 반향까지 일으키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넓게는 비주거 용도의 서양식 건축물까지 가리켰던 ‘양옥’보다는 시기와 대상이 특정화된 단어였다.

원래 문화주택이라는 단어는 1920년대 일본에서 새로운 문물에 접두어로 붙던 ‘문화文化’라는 단어가 ‘주택住宅’과 결합하면서 ‘서양식 주택’ 또는 ‘새로운 주택’을 지칭하는 단어로 생겨났고, 그런 의미의

문화주택이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유입되어 유행하였다. 현재 일본의 건축학계에서 문화주택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교외 주택지에 건설된 주택으로, 빨간기와지붕에 모르타르를 바른 외벽과 안에 들어가면 응접간과 의자식 식당이라는 모던주택을 떠올리지만 엄밀한 정의는 없다.’라고 알려져 있다. 다만 그 시작이 1922년(다이쇼 11) 도쿄 우에노上野 공원에서 개최된 평화기념동경박람회平和記念東京博覽會의 ‘문화촌文化村’ 전시라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이곳에 전시된 주택 14동은 그즈음 일본에서 주택개량과 관련하여 제기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보여 주었는데, 당시 도시 중산층을 겨냥한 20평 내외의 서양식 소주택들을 실물로 보여 주는 자리였고 박람회 이후 각종 인쇄 매체와 교외 주택지를 통해 ‘문화주택이라는 단어가 널리 퍼지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문화주택’은 신문과 잡지 등을 통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주택’으로 소개되었는데, 1922년 문화주택도안전람회文化住宅圖案展覽會와 1929년 조선박람회朝鮮博覽會의 문화주택 실물 전시를 계기로 ‘문화주택’ 개념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일부 건축가들은 문화주택을 통해 새로운 평면과 외관, 그리고 재료와 구조를 실험하기도 하였는데, 서양식 주택이라는 특징을 드러내기 위해 빨강고 파란기와를 올리고 벽에는 하얀 모르타르를 발랐으며 주택 전면 테라스와 퍼걸러를 두기도 하였다. 문화주



서울 | 1930

문화주택 | 서울역사박물관



서울 중구 | 1937

택의 유행은 단지 주택에 대한 실험으로 그치지 않고 ‘문화주택지’라 불린 교외 주택지 개발로 이어지게 된다. 서울에서는 대체로 성벽 주변이나 근교 야산의 미개발지가 그 대상지가 되었는데, 개발된 주택지에는 ‘○○원圖’, ‘○○장莊’, ‘○○대臺’, ‘○○가오카ヶ丘’, ‘○○촌村’이라는 별도의 브랜드가 붙기도 하였다. 이곳은 ‘빨강고 파란 지붕의 2층 양옥’이 늘어선 고급 주택지이자 ‘문화도시’, ‘이상도시’를 구현하는 신주택지로 선전되었다. 또한 고급 자동차가 다니고 피아노 소리가 들리며 서양식 사교춤을 즐길 수 있는 선망의 주택지로 그려졌다.

광복 이후 1970년대까지도 문화주택은 ‘푸른 잔디 위에 벽돌로 짓고 그 안에는 욕실, 부엌, 변소 등이 구비되어 있고 자그마한 테라스도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주택의 이미지를 갖고 그 명맥을 이어갔다. 전후 복구기의 한국 건축가들도 ‘서양식’과 ‘한식’이 절충된 스타일에 편리하고 위생적인 ‘모던 하우스’인 문화주택을 ‘장차 지향해야 할 주택’으로 제시하기도 할 만큼 문화주택 개념은 한동안 지속되었다.

특징 및 의의 문화주택은 일제강점기 일본인에 의해 재해석된 서양식 주택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당시 조선의 심각한 주택 문제와는 무관하게 상류층을 중심으로 유행한 주택이었다. 선망하는 주택의 대명사가 된 문화주택은 많은 조선인들로 하여금 서양식 주택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과도한 욕망을 갖도록 하였는데, 당시 문화주택을 둘러싼 결혼 사기 사건과 가산 탕진 등에 관한 신문 기사가 이주택의 엄청난 영향력을 말해 준다.

문화주택이 대거 들어서서 상류층의 고급 주택지로 조성되는 ‘문화주택지’는 원래 도시 외곽의 토막이 밀집된 조선 빈민 주거지인 일명 ‘토막촌’이라 불리는 곳이었었는데, 개발 시 일어났던 강제 철거와 폭행 사건, 이어진 생활 터전의 박탈과 추방 등으로 인해 피지배민이었던 조선인은 여러모로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일제강점기 지배층이었던 일본인들에게는 고급 주택문화에 대한 실험과 향유의 산물이었던 문화주택과 문화주택지가 피지배층이었던 조선인들에게는 식민지 시기의 암울하고도 가혹한 현실을 또

한 번 느끼게 하였다.

결국 일제강점기 문화주택은 당시 서양식 주택이라는 새로운 주거문화가 좀 더 대중적으로 소개되는 기능을 하기도 하였지만, 식민지적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조선인들에게는 상상 속에만 존재하고 실제 경험할 수 없는 고급 주거문화이자 자신들의 비참한 현실을 다시 한 번 자각하게 만드는 대상물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그 영향은 광복 이후인 1970년대까지도 지속되면서 ‘장차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주거’를 대표하는 용어로 쓰이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일제강점기 문화주택 개념의 수용과 전개(이경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한국건축개념사전(한국건축개념사전기획위원회, 동녘, 2013), 江戸東京学事典(小木新造, 三省堂, 2003), 文化——語の辭典(柳父章, 三省堂, 1995).

필자 이경아(李旻娥)

물형론

物形論

정의 풍수지리에서 땅의 형세를 특정한 사물에 비유하여 설명하는 이론.

역사 물형론物形論은 중국에서 이론적 체계가 갖춰지고 이후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 당나라와 송나라 때 여러 학자들의 물형론에 관한 저서가 편찬되었는데, 중국에서는 주로 ‘갈형론喝形論’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었다. 물형론의 대표적인 저서로 요우廖瑀의 『갈형명목喝形名目』과 장자미張子微의 『갈형도격喝形圖格』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 도입된 물형론은 다른 풍수이론과 더불어 음택풍수뿐만 아니라 마을의 풍수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내용 물형론은 물형物形(사물의 생김새)의 명칭과 특징, 혈소穴所(가장 핵심 장소인 혈처)와 대안對案(대응되는 안산), 발복과 관련된 소응所應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특정 물형의 장소를 표현한 산도山圖가 덧붙여진다. 물형의 종류에는 형태에 따라 단독형과 복

합형이 있다. 단독형은 산, 사(砂)(청룡·백호 등의 사신사), 명당, 수(水) 등의 개개 형태가 어떤 것과 유사한가에 따른 물형이며, 복합형이란 작게는 결혈(結穴)(맺어진 혈처), 크게는 성국(成局)(이루어진 형국)의 전 범위를 종합한 형태가 무엇과 유사한가를 말하는 것이다.

일제강점기 한국의 풍수를 조사한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은 단독형의 물형 유형을 오성(五星) 유형, 유형사(類形砂) 등으로 구분하였다. 금대(金帶), 둔군(屯軍), 와우(臥牛), 복호(伏虎), 낙타, 배반(盃盤) 등의 유형이 단독형에 해당한다. 복합형은 성국(成局)의 형상 여하에 따라 이름이 붙여지는데, 지형에 따라 명칭도 다양하다. 형국명의 어휘구조는 대체로 사람이나 사물 등의 표현주체와 그들의 형상을 덧붙이는 형식을 취한다. 예외적으로 형상의 표현 없이 주체인 사람, 사물만으로 형국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주체 없이 형상만을 내세운 경우도 없지는 않으나 대부분 주체에 형상을 결합하는 형태를 취한다. ‘금계포란형(金鷄抱卵形)’의 경우 주체인 금닭에 ‘알을 품고 있는’이라는 형상을 덧붙여 명칭이 만들어졌다.

물형론의 구성요소 가운데 ‘대안’은 물형론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다. ‘대안’은 물형론에서 주체의 격을 맞추어 주는 대상물로서 이것이 주체와 짝을 이루었을 때 길지의 형국이 완성된다. 예를 들면 복호형(伏虎形)인 경우는 명견안(眠犬案)(호랑이 앞에 졸고 있는 개)이 있어야 하고, 와우형(臥牛形)인 경우는 적초안(積草案)(소 앞의 풀 더미)이 있어야 하는 이치이다. 즉 옆드린 호랑이 형국인 경우 그 앞에 호랑이의 먹이인 졸고 있는 개가 있어야 하고, 누워 있는 소의 형국인 경우 그 앞에 풀 더미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어떤 사물 하나에 비유하는 것을 넘어 전체적인 물형이 성립하게 하는 장치 또는 서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닌 이야기가 있는 비유라 할 수 있다.

산천의 형세를 특정의 물형으로 판단하였다면, 그곳의 핵심되는 곳을 혈로 정한다. 물형의 진수(眞髓), 정기(精氣)가 가장 몰려 있는 곳을 파악하여 혈처로 잡는 것이 원칙이다. 물형 중에서 힘을 쓰는 곳이나 긴장을 한 곳, 정신을 집중한 곳 등인데, 기가 흩어지고 빠진 곳은 혈이 될 수 없다. 낚시하는 어부형은 눈, 새형은



제주 성읍마을 배치도 | 탁옥정도식(영인본)

날개, 알을 품은 닭은 다리나 눈 또는 귀가 혈처이다. 와우형의 경우는 입이나 꼬리가 혈처가 된다.

물형에 비유하여 형세를 설명하고 대안과 혈처를 정한 이후에는 ‘소응’을 덧붙인다. 소응은 특정 장소에 입지함으로써 미래에 나타나게 될 길흉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소응을 화복설(禍福說)이라 하는데, 신비적 속성이 강하여 현실적인 유학자들의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송대에 저술된 장자미의 『갈형도격』에는 다양한 소응이 수록되어 있고, 이후 물형론의 저서에는 대부분 소응이 기재되어 있다. 물형론의 소응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영화를 누리며, 높은 벼슬을 하고 훌륭한 인물을 배출하며, 자손이 번성하는 것 등이 주류를 이룬다.

특징 및 의의 물형론은 산의 모양, 물의 흐름, 혈처의 위치 등과 같이 풍수적 요소를 세밀하게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전체적인 형세를 특정의 사물에 비유함으로써 그 땅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론적 엄밀

성은 떨어지지만 형세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이해하는 데에 강점이 있다. 아울러 물형론에서는 특정 물형에 비유함으로써 그 물형의 핵심부위에 해당하는 혈처를 잡는 데 유리하다. 특히 물형론에서는 난해한 용어와 방위 등을 사용하는 대신 시각적으로 표현된 산도山圖를 이용하기 때문에 형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물형론과 관련된 담론은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풍수의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보다는 조선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조선의 유명 명당을 답사하여 풍수적 해석을 기록한 책에서는 대부분 물형론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평지가 적고 많은 구릉성 산지로 이루어진 지형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조선 후기 풍수가 사회적으로 널리 확산되면서 물형론은 풍수의 한 이론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된다. 특히 마을의 입지와 같은 양택풍수에서도 물형론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통적인 마을 경관의 이해에서 물형론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손감묘결(고제희 평역, 다산초당, 2008), 알레고리의 지형학-조선시대 풍수 갈형론 탐색(오상학, 문화역사지리27-2,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15), 조선의 풍수(무라야마 지준, 최길성 역, 민음사, 1990), 풍수 사신사의 지형발달사적 해석(박수진·이도원·최원석, 문화역사지리26-3,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14), 한국의 풍수사상(최창조, 민음사, 1984).

필자 오상학(吳尙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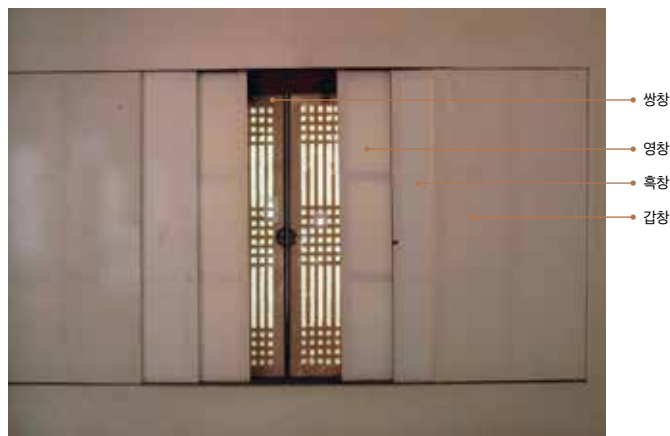
미달이

정의 문틀에 홈을 판 다음 홈을 따라 밀어서 열고 닫는 창호.

내용 문틀과 창호 양쪽에 긴 홈을 만든 다음 홈에 창호를 끼워 밀고 당겨 개폐하는 창호가 미달이이다. 대부분의 창호는 회전축을 만들어 회전하면서 개폐하는 여단이로 만든다. 하지만 여단이가 공간 활용에 제약이 있는 반면, 미달이는 내외부로 열리지 않고 홈을 따라서만 이동하기 때문에 공간을 더 자유롭게 활용

할 수 있다. 하지만 들어열개와 같이 개구부를 완전하게 개방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행에 불편함이 있고 개방감을 느끼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그뿐 아니라 미달이는 문틀과 창호의 재질이 모두 목재이므로 마찰로 인해 쉽게 열고 닫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오직 인력으로 마찰력을 이기고 개폐해야 하기 때문에 창호를 가볍게 만들어야만 한다. 미달이는 개폐할 때 창호에 큰 충격이 가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여단이 처럼 바람에 의해 저절로 세게 닫힐 염려도 없다. 따라서 미달이로 사용하는 창호는 대부분 살대를 이용하여 만든다. 큰 충격을 받지 않아 살대가 부러질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미달이는 역사적으로 늦게 개발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전통한옥에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다.

미달이를 가장 많이 사용한 부분은 문이 아닌 창이었다. 외기에 접하는 창문은 추위에 대비하기 위해 몇 겹의 창호를 겹쳐서 설치한다. 가장 바깥쪽에 설치하는 여단이창을 쌍창雙窓이라고 한다. 그리고 가장 안쪽에 설치하는 창은 불박이로서 두겹단이 또는 갑창甲窓이라고 한다. 쌍창과 갑창 사이에 미달이를 설치하는데, 이것을 영창影窓, 映窓이라고 한다. 살대는 용용자살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영창과 갑창 사이에 미달이 창호를 하나 더 덧달기도 하는데, 이것을 흑창黑窓이라고 한다. 영창은 한쪽에만 창호지를 바르는 반면, 흑창은 창호의 양면에 창호지를 바른다. 영창은 약간의 빛이 투과되지만, 흑창은 거의 빛이 투과되지 않는다.



미달이 | 서울 중구 덕수궁 함녕전 | 2005 | 이연노

궁궐의 침전과 같이 하나의 건물에 여러 개의 방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방과 방 사이에 칸막이가 필요하다. 칸막이 역할을 담당하는 창호를 장지[障子]라고 한다. 장지는 대표적인 미닫이 창호에 해당한다. 한 면에만 종이를 발라 빛이 투과하는 경우를 장지라 하고, 양면에 종이를 발라 빛이 투과되지 못하도록 만든 장지를 맹장지[盲障子]라고 한다. 미닫이기 때문에 살대가 부러질 염려가 크지 않고, 따라서 살대가 촌촌한 만살보다는 완자살과 같이 화려한 살대를 사용한 경우가 많다. 창덕궁昌德宮 낙선재樂善齋는 매우 화려한 살대로 장지를 꾸민 특징이 있다.



미장

특징 및 의의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한옥의 대청에는 출입문으로 미닫이가 설치되었다. 대청 이외에도 많은 여닫이 창호가 미닫이로 변경되었다. 창호는 살대로 만들고 종이 대신에 판유리를 붙였다. 유리창은 기존의 종이를 붙인 창호에 비해 방한이나 빛의 투과면에서 뛰어난 창호였다. 많은 힘을 들이지 않고 훨씬 부드럽게 미끄러지도록 창문 하단에는 바퀴를 달았다. 하지만 유리창을 여닫이로 만들 수는 없었다. 현재도 매우 많은 경우에 미닫이를 사용한다. 대부분의 문은 여닫이로 설치하지만 창은 미닫이를 더 많이 설치한다. 조선시대 주택과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며 시대에 따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김왕직, 동녘, 2007), 영건의례(영건의례연구회, 동녘, 2010), 지혜로 지은 집 한국 건축(김도경, 현암사, 2011), 한국의 문과 창호(주남철, 대원사, 2001), 화성성역의례 건축용어집(경기문화재단, 2007).

필자 이연노(李演魯)

미장

정의 벽면 또는 바닥, 천정 등에 진흙 등을 바르는 일.

개관 전통건축물 시공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하여 완성되는데, 문화재로 지정된 전통건축물을

보수할 때도 각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업자가 참여한다. 문화재수리기술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감독한다. 문화재수리기능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감독 아래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기능공 관련 업무는 한식 목공사, 창호공사, 한식 석공사, 단청공사, 드잡이공사, 와공사, 철물공사, 조각공사, 칠공사, 도금공사, 표구공사, 조경공사, 세척공사, 보존과학공사 등이 있다. 미장은 기본 골격과 수장재를 조립 시공한 후 흙으로 마감하는 작업이다. 미장 일은 주로 벽체 및 천장 마감 공사이며, 이외에 구들바닥 마감 공사나 담장 벽 마감 공사 등을 다룬다. 벽체의 미장은 수장재인 임방재와 문선 등을 드리운 다음 벽면에 외를 얹어 벽체의 뼈대를 만들고, 그 뼈대 위에 점성이 있는 진흙을 바른다.

내용 미장공사는 벽체의 뼈대를 만들고 다양한 첨가재를 넣어 점성이 높은 진흙을 벽면에 바르는 일로, 다른 어느 분야보다 일손이 많이 필요하면서 고된 작업이다. 그리고 미장은 한번 진흙을 바르는 것으로 마감되는 것이 아니라 갈라진 면에 고운 모래로 다시 바르며, 여러 차례의 바름을 통해 갈라진 부분을 메워 마감한다. 미장 공사는 벽체 외에 서까래와 서까래 사이, 천정 등에 회벽이나 진흙을 바르기도 한다. 이와 같은 미장공사는 기본적으로 물을 함유한 진흙을 다루고, 천정을 쳐다보면서 작업을 하므로 다른 어느 분야보다 힘든 작업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현재 미장공의 수가 줄어들고 인건비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현대건축 시공 시 벽체 등의 마감공사는 물을 함유한 미장재료를 줄이면서 물이 필요없는 건식재료가 늘어나는 추세다.

미장은 빈틈 등을 메우거나 바르는 마감 공사이다. 마감 면적이 넓은 수직의 벽면은 먼저 벽면을 지지할 수 있는 뼈대를 세우는데, 이를 외엮기라고 한다. 외엮은 면에 흙을 바르는데 처음 바르는 작업을 초벽이라고 하며, 초벽의 흙이 마른 다음 맞은편에서



미장 | 경북 안동 하회 양오당 고택 | 정연상

다시 흙을 바르는데, 이를 맞벽이라고 한다. 초벽과 맞벽의 진흙은 물에 진흙을 이겨 바른다. 진흙 표면은 건조하면서 갈라지는데, 흙의 점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 서민들은 짚을 소여물처럼 썰어서 진흙과 이겨 바른다. 짚을 넣은 진흙으로만 마감한 벽면은 표면이 거칠고, 건조되면서 갈라지기 때문에 다시 미장하는데, 이를 재벌이라 하고 벽을 재벌벽이라 한다. 그리고 재벌 표면을 다시 미장하는데, 이를 정벌하며 그 벽을 정벌벽이라 한다.

재벌 미장은 초벌 미장을 한 거칠고 갈라진 벽면을 고르게 다듬은 다음 백토와 모래를 섞고 점성을 높이기 위해 해초풀이나 닥풀, 찹쌀풀 등의 천연재료를 섞어 바른다. 이와 같은 벽면을 재사벽이라고 한다. 재사벽 방식의 벽면 미장공사는 흰 석회를 쉽게 구하지도 못하고 사용할 수 없던 전통시대 집을 치장하는 방법 중 하나였다. 조선시대는 벽면에 흰 석회를 발라 마감하는 것을 사치라고 규제했기 때문에 궁궐 및 관아 등에서만 볼 수 있었다.

정벌은 재사벽 위에 다시 미장하는 것을 정벌이라 하는데, 재사벽에 다시 재사벽을 발라 갈라짐을 메우면서 마감한다. 석회 사용에 대한 규제가 없는 오늘날은 재사벽한 벽면에 회를 바르는데 이 또한 정벌이라 한다. 정벌 시 석회만을 바를 때 점성이 떨어져 탈락하는 때도 있으므로 해초 또 마 섬유질의 삼여물을 섞어 바르기도 한다.

진흙 또는 석회 등의 점성을 높이기 위한 첨가제는 짚을 잘게 썬 소여물, 왕겨, 소나 말의 배설물, 마에서 추출한 섬유질, 해초풀, 찹쌀풀, 양털 등 다양하다. 특히 해초풀은 천연 접착제로서 미장작업을 할 때 미장한 벽의 접착 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미장 재료의 점성이 있어 미장칼이 잘 먹는다. 해초풀은 청각채, 듬북, 은행초 등을 넣고 끓인 후, 끓인 물의 이물질을 채반으로 거른 것을 말한다.

특징 및 의의 미장은 흙 또는 시멘트 모르타르 등을 바닥과 벽체, 천정 등에 바르는 일로 건축 공정 중 마감공사에 해당된다. 오늘 현대건축의 미장은 시멘트 모르타르를 주재료로 사용하지만, 과거 전통건축의 미장은 천연재료인 흙을 주재료로 사용하였다. 전통가옥의 미장은 주로 온돌방의 바닥과 벽체 등을 미장하는데, 주로 습식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참고문헌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김왕직, 동녘, 2007),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한옥(신영훈, 현암사, 2005), 집짓는 법(김종남, 돌베개, 2011).

필자 정연상(鄭淵相)

미장이

정의 벽면 또는 바닥, 천정 등에 진흙 등을 바르는 미장 일을 하는 사람.

개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전통건축물 시공이 이루어지는데, 문화재로 지정된 전통건축물을 보수할 때도 각 분야의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

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업자가 작업한다. 문화재수리기술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감독한다. 문화재수리기능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감독 아래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에 관한 업무를 맡는다. 미장이는 기능인을 지칭하는 말로 미장공이라고도 한다.

내용 문화재수리기능자는 다루는 재료 및 업무에 따라 분류된다. 한식 목공은 목조 건조물의 해체·조립 및 치목治木과 그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대목수, 목조 건조물의 창호·단집 등과 이와 유사한 구조물의 제작·설치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소목수로 나뉜다. 한식 석공은 석재 가공과 그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가공석공과 석조물의 축조·해체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쌓기석공으로 나뉜다. 화공은 단청(불화 포함)과 그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며, 드잡이공은 기울거나 내려앉은 구조물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도구 등을 이용하여 바로잡는 드잡이 일과 그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와공은 기와의 해체 및 번와와 그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번와와공과 기와·전塼 등의 제작과 그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제작와공으로 나뉜다. 이외에 철물공, 목조각공과 석조각공, 칠공, 도금공, 표구공, 조경공, 세척공, 보존과학공의 훈증공과 보존처리공이 있다.

미장이는 미장공을 지칭하는 말로 미장과 그에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전통목조건축물의 미장 일은 기본 골격과 수장재를 조립 시공한 후 작업을 담당하는데, 주로 벽체 및 천정 마감 공사가 여기에 해당되며 이외에 구들바닥 마감 공사나 담장벽 마감 공사 등도 다룬다. 벽체의 미장은 수장재인 인방재와 문선 등을 드리운 다음 벽면에 외를 엮어 벽체의 뼈대를 만들고, 그 뼈대 위에 점성이 있는 진흙을 바른다.

미장이는 벽체의 뼈대를 만들고 다양한 천연재료인 첨가재를 넣어 점성이 높은 진흙을 벽면에 바르는 일을 한다. 다른 어느 분야보다 손이 많이 가면서 고된 작업이다. 그리고 미장일은 한번 진흙을 바르는 것으로 마감되는 것이 아니라 바르면서 갈라진 면에 고



직업훈련원 미장 수업 | 1980 | 서울역사박물관



온돌바닥 미장 | 2010 | 정연상

운 모래로 다시 바르며, 여러 차례 바름을 통해 갈라진 부분을 메워 마감한다. 미장이는 벽면 외에 서까래와 서까래 사이와 천정 등에 회벽이나 진흙을 바르는 일도 한다. 물을 머금은 진흙을 만지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 천정을 쳐다 보면서 작업을 하는 것은 더 힘든 일이다. 현재 미장 일은 기피 대상으로 인력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건비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현대건축 시공 시 벽체 등의 마감공사는 물을 사용하는 미장재료를 이용한 마감공사가 줄어들면서 물이 필요 없는 마감재료를 이용한 건식 마감공사가 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미장이는 건축물 조영활동에 참여하는 다양한 장인 중 한 사람이며, 공정 상 마감공사에 참여한다. 과거의 미장이는 흙을 주재료로 미장일을 진행했으며, 오늘 현대건축의 미장이는 시멘트모르타르를 주재료로 미장을 한다. 문화재 보수 시 미장이는

과거의 전통적 방법에 따라 흙을 주재료로 사용하고, 흙의 점성 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천연재료인 첨가재를 사용한다.

참고문헌 맞춤과 이음(정연상, 고려출판사, 2010),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김왕직, 동녘, 2007), 집짓는 법(김종남, 돌베개, 2011), 한국건축대계5-목조(장기인, 보성문화사, 1988).

필자 정연상(鄭淵相)

민가 民家

정의 민간주택 또는 서민의 살림집.

개관 근대화 이전 사회에서 민가民家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관영건축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민가로, 민간주택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고대국가시대의 문헌에는 민호民戶·민옥民屋이라는 용어가 나타나고, 조선시대의 문헌에는 민가民家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관청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민가는 이곡李穀(1298~1351)의 『가정집稼亭集』 권6 기記에 기술된 표현에서 잘 드러난다. “국가의 법제에 수령이 거하는 곳을 공야公衙라고 일컫는다. 그런데 이 고을은 수령이 거할 곳이 없어서 민가民家에 우거하고 있으니, 어떻게 고을로 행세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내용에서 민가는 공야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나타난다. 즉 관청이나 공공건축이 아닌 민간의 살림집을 의미한다.

한편 일제강점기부터 지리학이나 민속학, 건축학계에서 조선시대 서민계층의 살림집을 규정하면서 ‘민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학자들이 무사들의 저택인 ‘무가武家’나 도시주택 ‘정가町家’와 구분되는 농민의 주택을 ‘민가’로 지칭한 것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많은 연구에서 상류주택인 반가班家와 구별되는 서민의 주택을 민가로 지칭하는 사례가 보편화되어 왔다. 그 적절성을 판단하기에 앞서 서민의 살림집을 구분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내용 근대사회 이전까지 건축학이나 건축역사학 등에서 주택건축에 대한 관심은 주로 상류계층의 저택에 한정되어 왔다. 서민주택은 기술 또는 예술 측면에서 열등하다는 인식 아래 연구 대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20세기 이후 문화와 환경에 대한 관심의 폭이 넓어지면서 서민주택도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였다. 주택이 한 사회 주거문화의 산물로 인식되면서 주거 유형에 대한 관심의 폭이 확대된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다양한 계층적 차이가 조망되고 지리학적으로는 국가 간, 지역 간 차이에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

특히 주거 형식의 지역 차이에 관심을 둔 문화지리학에서는 한 지역사회를 대표할 만한 보편화된 주거 형식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했다. 상류주택은 독자성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 간 차이를 비교하고 설명하는 데 유용하지 못하였다. 한 사회에서 대표성과 보편성을 띠는 주거 형식은 결국 그 사회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 대중의 집이었다. 이는 시간의 변화가 적고 자연환경과의 관계를 여과 없이 반영한다는 점에서도 유용한 주거 유형이었다.

이러한 주거 유형은 다양한 이름으로 지칭되었다. 아모스 라포포트Amos Rapoport는 선산업 토속건축preindustrial vernacular이라 하였고, 브루스 알숍Bruce Allsopp은 민속건축folk architecture, 피에트로 벨루스치Pietro Belluschi는 공동체 건축architecture without architect이라는 용어로 각각 지칭하였다. 이들은 주로 주거 유형의 생성 과정 또는 결과로서의 형태 특성을 분류의 주요 관점으로 하고 있으며, 전문가가 아닌 사회 집단 구성원들이 공동체 생활 경험에 의하여 산출한 건축으로서 그 사회 안에서 보편화된 형태의 건축으로 정의하고 있다.

광복 이후 국내 학자들도 서민계층의 주거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고, 이를 ‘민가’라고 부르는 학자가 많아졌다. 조성기는 민중적 전통과 정당한 전통을 대비시키면서 ‘서민층의 여러 가지 주거형’을 민가로 보았다. 김홍식은 민가를 ‘민중들이 삶을 영위했던 주

생활공간으로서 이때 민중은 그들의 경제적 활동이 사회적 이익과 직접 결부되는 경제적 이해집단'이라고 규정하였다. 장보웅은 민가를 '과거의 전통이 잔존하는 서민의 주택'이라 정의하였다.

외국 학자들이 주거건축의 기법이나 형태에 관심을 두었다면 국내 학자들은 주로 사회계층에 주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각각 어느 일면만을 설명한 것에서 비롯된 것일 뿐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대상에는 큰 차이가 없다. 건축 역사의 흐름으로 볼 때 주거 유형의 분화는 주로 사회의 계층 분화에 수반되기 때문이다. 소위 상류계층의 주거는 직업 성격의 장인에 의하여 건설되며, 풍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개인의 취향과 권위를 표현하는 다양한 개성을 띠게 된다. 그러나 서민계층의 주거는 스스로의 능력이나 기술자의 도움을 받아 그 사회 일반대중의 공통된 체험이나 관습에 따라 건설되기 때문에 유사한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논의를 종합해 볼 때 민가는 한 사회의 다수를 이루는 대중의 보편화된 주거로서 그 사회의 주거문화를 대표하는 주거 유형으로 정의될 수 있다. 서민 대중이라는 사회계층과 그들의 주거 형식은 시대마다 다르기 때문에 민가를 어느 특정 시대의 산물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 고려시대의 민가도 있고 조선시대의 민가도 있으며, 나아가 현대의 민가라는 용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가 개념이 시대에 국한되지 않는다면 지속성 문제도 재고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선산업 토속건축이나 민속건축, 대중건축 등은 산업사회 이전에 여러 시대에 걸쳐 지속되고 있는 주거 유형이라는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산업화 시대 이후에도 민가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 있다면 굳이 모호한 시간 개념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산업화 이전부터 이어온 지속된 맥락이 필요하다면 전통민가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이다.

민가에 대한 개념 규정으로부터 전통민가는 주거 문화의 시간 지속성을 반영하는 전통성, 시대에 따라 그 집단의 주거문화를 대표하는 대표성, 그 집단 구성원들에게 폭넓게 공유되는 보편성, 생태 환경의 적응

과정을 솔직하게 반영하는 토착성 등을 특성으로 하는 주거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민가라는 개념의 유용성은 건축학, 지리학, 민속학 등 학문 분야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다. 먼저 지리학에서의 민가는 하나의 물질문화로 인식되며, 민가의 지리상의 차이는 바로 문화의 지역상의 차이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민가를 지표로 하는 문화지역 구분, 민가의 확산, 민가의 생태, 민가의 문화통합, 민가의 문화경관 등이 주요한 연구 주제로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핵심 주제는 여전히 민가형(民家型) 지리상의 분포에 머물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차이와 지역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기여했다.

민속학이란 한 지역 내에 사는 민족이 예부터 향유해 온 전통생활 양식을 체계화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다. 민속학에서 민속(民俗)이라는 개념은 ‘한 민족의 전통생활 양식으로서의 문화’를 의미하며, 전통민가는 전통적 주생활 양식으로서 주요한 연구 주제에 포함된다. 지리학에서 사용되는 민가 범주보다 계층 폭이 다소 넓지만 공동체 생활 양식을 담는 주거라는 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민속학의 고유한 관점은 집을 생활 무대로 파악하여 집을 매체로 한 생활, 곧 집의 기능 측면을 밝히는 데 기여하였다.

건축학의 민가 연구는 주거 형태의 시대성, 계층성, 지역성을 망라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만 건축학 분야에서는 주거 형태의 실측 조사를 통하여 건축의 기술·계획·의장 성격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어 왔다. 건축학에서의 민가는 주로 조선시대 민가로 국한되었고, 상류주택인 반가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인식되었다. 서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제약 등에 따라 기후나 지형과 같은 자연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 주거 형식으로 연구되었다. 특정한 시대에서 주거의 계층 차이를 조망하거나 시대 변화를 이해하고, 건축의 계획된 의장 기법과 원리를 파악하는 데 기여해 왔다.

특징 및 의의 민가는 시대를 반영하는 사회 구조의 맥락 속에서 주거문화의 발전법칙을 규명하려는 건축사의 연구 대상이 되어 왔고, 또한 그 지역사회를 특징짓는 문화 산물이기 때문에 지리학과 민속학의 조명을 받

아 왔다. 또한 전통사회의 주생활이 융해되어 형태화된 것이기 때문에 주거학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특히 전통 주거문화의 본질과 의미를 규명하려는 노력은 건축학의 주요한 주제이며, 전통민가는 그 성격으로 볼 때 이러한 주제와 관련하여 가장 적절한 연구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민가의 개념(강영환, 건축과 환경36, 건축과 환경사, 1987), 한국 민가연구의 회고와 전망(장보웅, 교학사, 1983), 한국민속학(김동욱 외, 새문사, 1988), The Themes of Cultural Geography(Philip L. Wagner · Marvin W. Mikesel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2).

필자 강영환(姜榮煥)

민도리집

정의 기둥 상부에 다포 또는 익공에서 사용하는 첨차와 살미·익공·주두 등을 사용하지 않고 다포처럼 출목 없이 보, 장혀, 보아지, 장혀 받침재를 짜 맞추는 민도리식 집.

개관 우리나라 목조 건축물은 기둥 상부의 형태 및 짜임새에 따라 크게 민도리집, 포집, 익공집으로 나뉜다. 민도리집과 익공집은 주로 살림집에서 볼 수 있다. 포집과 익공집은 주로 궁궐, 관아 건축물, 사찰 건축물, 학교 건축물에서 그 사례를 볼 수 있다. 포집은 기둥 상부가 출목이 있는 공포로 짜인 형식의 집이다. 이는 주포계 형식과 다포계 형식으로 나뉜다. 주포계는 공포가 기둥 상부에 있는 경우, 다포계는 기둥 상부뿐만 아니라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공포가 있는 형식이다.

익공집의 익공 형식은 주로 출목이 없는 형식으로, 사갈 튼(十자 모양으로 홈을 팜) 기둥 상부에 좌우 창방과 보 방향으로 새 날개 모양을 한 익공이라는 부재를 사개맞춤으로 결구하는 방식이다. 익공은 기둥 위에 놓이는 익공 수에 따라, 하나만 사용한 경우를 초익공, 두 개를 사용한 경우를 이익공, 세 개를 사용한 경우를 삼익공이라 한다. 초익공은 사개맞춤



민도리집 | 경북 안동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 | 정연상

한 위에 주두를 놓고 주두 위에서 보, 장혀, 도리를 짜 맞추는 방식이다. 이때 주두의 굽 부분은 초익공이 물고 있고 주두는 보머리 부분을 물도록 조립하여 초익공과 보가 밀착되어 구조의 안정성을 높인다. 익공은 기둥과 기둥 사이에 포를 구성하지 않고 도리를 받치고 있는 장혀와 창방 사이에 소로를 놓아 마감한다. 살림집의 경우 새 날개 모양과 같이 익공 끝을 초각하지 않고 익공 면 도안에 따라 둥글둥글하게 초각하거나 마구리만 직각으로 직절하고 안쪽은 익공처럼 초각한다. 마구리 끝이 둥근 모양의 익공은 물익공, 직절한 익공은 직절익공이라 한다.

내용 민도리집의 민도리식은 기둥 상부에 다포 또는 익공에서 사용하는 첨차·살미·익공·주두 등을 사용하지 않고 다포처럼 출목 없이 보, 장혀, 보아지, 장혀 받침재를 짜 맞추는 형식이다. 민도리식은 가장 단순한 형식의 소로를 사용하여 장식한 경우에 따라 세분된다.

첫째는 사갈 튼 기둥 상부에 전후 방향 보와 좌우 방향 도리가 사개맞춤을 하는 가장 단순한 방식이다. 둘째는 첫째 방식과 같지만 도리 밑에 장혀 등을 첨가한 방식이다. 셋째는 둘째 방식에서 보 밑에 보받침 부재를 첨가한 방식이다. 넷째는 셋째 방식에 도리받침 장혀 밑에 별도의 부재를 결구하는 형식이다. 도리받침 장혀 밑의 부재가 장혀인 경우 상하 장혀 사이에 소로를 끼워 좌우 변형을 막도록 한다. 근대기 살

림집의 경우 통소로가 아닌 반쪽짜리 소로를 붙인 예도 있다. 세분하여 도리 밑에 장혀를 사용한 경우는 세분하여 장혀수장집이라 하며, 장혀와 장혀 사이에 소로를 사용한 경우는 소로수장집이라 한다.

민도리식 가운데 살림집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예는 둘째 방식이다. 기둥 상부를 사갈로 트고 사갈 틈 장부 홈에 보와 도리 받침 장혀를 결구한 후 좌우 기둥 위 보머리 위에 도리를 거는 방식이다. 좌우 도리는 보와 맞춤을 하고 마구리를 서로 맞닿은 도리와 도리는 나비장이음을 한다. 도리와 장혀는 소로를 사용하지 않고 밀착시켜 마감한다. 도리 받침 장혀는 수장재의 단면 폭보다 큰 창방을 사용한 다포 및 익공과 달리 수장재 단면 폭과 같다.

특징 및 의의 민도리식은 우리나라 전통가옥에서 볼 수 있는 기둥 상부 구조 방식으로, 살림집 구조 및 형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민도리식 기둥이 좌우 장혀와 전후 보 받침 부재 및 보가 직접 짜 맞춤하는 방식으로, 익공 방식의 결구 방법과 다르다. 도리는 보통 방형을 사용한다. 건물 성격에 따라 원형을 사용한 예도 있다. 민도리집 가운데 방형의 도리를 건 경우를 납도리집, 원형의 도리를 건 경우를 굴도리집이라 한다.

참고문헌 맞춤과 이음(정연상, 고려출판사, 2010),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김왕직, 동녘, 2007), 한국건축대계5-목조(장기인, 보성문화사, 1988), 한국의 살림집(신영훈, 열화당, 1985).

필자 정연상(鄭淵相)

민영주택 民營住宅

정의 민간 업체가 자기자본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 즉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직접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되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임대·분양되는 적정 규모의 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

내용 민영주택(民營住宅)은 1972년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법제 개념이 정립되기 시작하였으며, 국민주택 이외의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집단으로 건설하여 공급되는 주택으로 정의되었다. 1962년에 제정된 공영주택법의 공급 대상이 공공주택이었다면 주택건설촉진법은 공공의 복리를 위한 국민주택 이외에도 민영주택을 공급 대상으로 삼기 시작하였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구분 짓는 기준은 결국 공적 자금의 투입 여부이다. 민영주택은 공적 자금의 지원을 받지 않고 민간 업체의 자본으로 건축된 주택이다. 이렇게 건설 재원에 따라 주택을 구분한 것은 결국 입주자의 자격을 관리하기 위함이었다. 즉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에 지원할 수 있는 입주자 후보들이 구분될 수 있도록 주택청약제도를 마련하였다. 주택청약제도는 부족한 주택 금융 재원을 조성하고 개인에게 아파트 분양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1977년에 제정된 <국민주택우선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국민주택청약부금 가입자에게 우선권을 주면서 등장했다. 이러한 주택청약제도는 공공 부문의 주택 공급 한계를 민간 부문의 공급으로 보완하는 동시에 민간 건설업체에는 선분양을 통해 건설 재원을 확보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특히 청약제도는 주택 투기에 대한 조절 장치로서도 큰 역할을 하였다.

1970년대 국민주택은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의 지원이 가능하였다면 민영주택은 부양가족이 있는 주택청약예금 가입자 및 재형저축 가입자의 지원이 가능했다. 1980년대에는 국민주택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서 선매청약저축 가입자의 지원이 가능하였고, 민영주택의 경우 세대주로서 청약예금 가입자 혹은 청약부금 가입자의 지원이 가능하였다. 1990년대에는 국민주택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서 청약저축 가입자의 지원이 가능하였다면 민영주택의 경우 세대주로서 청약예금 혹은 청약부금 가입자의 지원이 가능하였다. 이는 2000년대에도 지속되다가 2009년에 이러한 구분을 두는 제도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하나로 합쳐져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국민주택은 공공

의 복리가 목적이므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민영주택은 주택 소유의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게 한 것이 주된 차이이다.

특징 및 의의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에 비해 단위 주호의 면적이 넓기 때문에 평면을 계획할 때 국민주택보다 좀 더 다양한 생활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었다. 두 개의 욕실을 갖춘 단위 주호의 비율이 국민주택에 비해 높으며, 단위 주호의 전면 폭이 대체로 넓은 특징이 있다. 즉 태양빛을 더 적극적으로 받고 외부로의 조망을 더욱 적극 누리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거실, 식사 공간, 부엌을 일렬로 나열하고 그 주위에 방을 배치하는 LDK(living-dining-kitchen)형 평면은 국민주택과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채택된 평면 배치 방식이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따르지 않는 평면형도 존재했다. 그리고 침실, 드레스룸, 욕실이 통합 배치되어 부부 중심의 생활을 강조하는 평면형도 민영주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민영주택의 단위 주호 평면은 국민주택의 평면보다 거주자의 다양한 삶의 양상을 담아내는 주택의 기능을 하였다.

참고문헌 대량생산과 공용화로 본 한국 근대 집합주택의 전개(권용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민영아파트 평면특성에 관한 연구(배정민·윤정숙·정유선, 한국주거학회지12-2, 한국주거학회, 2001), 우리나라의 주택공급제도(대한주택공사 조사연구실, 1991), 주택공급체계의 국내외 비교분석(김현아·김혜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4), 주택단지총람-1979~1987(한국토지개발공사, 1988), 한옥과 한국 주택의 역사(권용찬·전봉희, 동녘, 201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권용찬(權容贊)

민택삼요

民宅三要

정의 조선 후기 손유헌(孫維憲)이 중국 양택삼요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편찬한 양택풍수서.

내용 『민택삼요(民宅三要)』는 1928년 손유헌이 중국 양택서의 내용 중에 우리에게 맞지 않는 부분을 우리나라 가옥제도에 맞게 고쳐 쓴 것이다. 서문에서 그는

1892년 서울에 유遊할 때 역관가에서 양택서를 얻어 속독 연구하여 민택에 관한 경험을 쌓은 지가 38년이라고 적고 있다. 그는 “양택에 관한 책은 주로 중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 큰 주택, 관청건물, 사찰, 상가 건물에까지 적용하는 양택법이 기록되어 있으나 일반 가옥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어 조선의 민중들이 집을 지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올바른 이론서가 없어 이 책을 출간한다.”라고 하였다.

『민택삼요』의 주요 내용은 중국 청나라대 조정동이 저술하였다고 알려진 『양택삼요(陽宅三要)』와 유사하지만 손유헌은 조선 양택론과 중국의 그것과의 차이를 언급하고 있다. 『양택삼요』는 주택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주방(主房), 부엌(灶), 대문(大門)의 위치에 따라 길한 주택과 흉한 주택을 구분한다. 그러나 『민택삼요』는 『양택삼요』의 논리를 수용하면서도 주방에 대한 개념이 다르고 부엌의 문보다 아궁이의 위치를 더 중요시하며, 특히 방위를 측정하기 위해 나침반을 놓는 위치의 차이가 존재한다.

『민택삼요』는 전 6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에서는 권1에 양택삼요론본문(陽宅三要論本文)과 아울러 나경(羅經), 태극과 사상(四象), 팔괘(八卦), 오행(五行), 동사택(東四宅)과 서사택(西四宅), 구성(九星), 대유년가(大遊年歌), 간법(看法) 등의 이론들이 소개되어 있다. 권2와 권3에는 서사택의 길흉 판단과 관련한 내용이, 권4에는 동사택의 길흉판단과 관련한 내용이, 권5에



역단회도조선민택삼요(연화자본) | 1929 | 국립중앙도서관

는 동사택의 길흉 판단과 집안의 물이 흘러나가는 방위를 판단하는 24산방수법二十四山放水法이, 권6에는 문門과 부엌[灶]의 길흉 판단과 부엌을 만드는 방법을 그림으로 설명한 작조도作灶圖 등이 있다.

특징 및 의의 『민택삼요』는 『양택삼요』의 내용을 수용하면서도 조선의 실정에 맞도록 개선·보완하였다. 이에 따른 차이는 삼요 중 하나인 주초에 대한 개념의 차이와 부엌[灶]에 대한 해석의 차이, 삼요의 방위를 측정하는 나침판을 두는 지점에 대한 차이이다.

반가

반가

첫째, 『양택삼요』는 주방主房은 그 위치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높고 큰 방[高大房]이 주방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민택삼요』에서는 조선의 가택에서 고대방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방지두방高大房之頭房이라 하여 필히 정침正寢으로 고대방이 되게 하므로 정침의 두방이 고대방이라고 하였다. 『민택삼요』에 따르면 주방은 용마루 끝 부분의 수직 아래에 위치한 안채로 해석하는 경우와 바깥주인이 거주하는 사랑방이라고 해석하는 두 가지가 있다.

둘째, 『양택삼요』에서는 방위의 측정으로 주방은 안채가 있는 마당의 중심에서 측정하는 것은 『민택삼요』와 동일하다. 그러나 부엌의 경우 『양택삼요』는 부엌이 있는 마당의 중심에서 부엌문 중앙의 방위를 측정하지만, 『민택삼요』는 대들보 중심에서 나침반을 놓아 부엌의 방위를 측정하고, 다시 부뚜막의 방위인 조구灶口의 방위를 측정한다. 따라서 『민택삼요』는 중국의 양택서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경험을 통해 조선에 알맞은 택법宅法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양택삼요』의 내용을 수용하면서도 주방과 부엌의 개념과 그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는 등 조선 가옥의 특성에 맞추어 저술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民宅三要, 陽宅三要, 민택삼요를 통해 본 조선양택론에 관한 연구(이상해, 대한건축학회논문집4-6, 대한건축학회, 1988), 양택삼요 간법과 그 적용에 따른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배치계획에 관한 연구(김성우·정성현, 대한건축학회논문집4-5, 대한건축학회, 1988), 전통양택의 삼요 적용에 관한 연구(류창남·천인호, 한국문화와 사상49, 한국사상문화연구소, 2011), 전통지리학의 주택입지와 내부공간의 방위적 상징성에 관한 연구(이승노, 문화역사지리23-2,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11).

필자 천인호(千寅鎬)

정의 조선시대 지배 계급인 양반사대부의 가옥.

내용 조선시대에 들어와 양반 관료 체제가 정비되면서 문·무반 관직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가문까지도 양반으로 불리게 되었다. 양반사대부들의 가옥인 양반사대부가라 하였으며, 줄여서 ‘양반가’ 또는 ‘반가班家’라 한다. 관제상의 문·무반을 뜻하는 본래의 양반 개념은 조선시대의 지배 신분층을 뜻하는 양반 개념으로 바뀌게 되었다. 조선시대에 양반사대부라 하면 관제상의 문·무반뿐만 아니라 지배 신분층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양반사대부는 양반 관료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양반사대부는 성리학에 바탕을 둔 예제와 사회윤리를 생활의 기본으로 여기고 스스로를 엄격히 규제·절제하였다. 『주자가례朱子家禮』에서 말하는 관혼상제冠婚喪祭를 중심으로 성리학적 사회 윤리 실천이 중시되었다. 성리학 사회윤리는 16세기 이후 지방 사족士族의 향촌 질서 재편 노력과 사림파의 정치 활동에 힘입어 차츰 사회 전반에 확산되었다. 조선 중기 이후 성리학적 사회 윤리인 가사제한·여성금고·장유유서長幼有序·남녀유별男女有別과 내외법內外法·가묘제 등은 반가의 건축 및 공간 구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남계男系 중심 가족제도가 정착되면서 한 집에서도 노인과 젊은 사람의 상하 관계에 바탕을 두고 주인 부부와 만아들 부부의 기거 위치를 구분하여 배치하였다. 남녀를 구분하는 유교 윤리와 여성의 사회생활을 금지하는 관습법인 내외법은 부녀자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쳐서 남녀의 생활공간을 엄격히 구분하도록 하였다. 내외법은 대개 16~17세기에 『소학小學』이 널리 보급되면서 일반화되었다. 이후 반가에는 내외법 및 남녀 사이에는 구별이 있다는 성리학의 가르침에 따라 여성의 생활공간인 안채와 남성의 생활공간인 사랑채를 구분하여 짓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주자가례』에서 정한 관혼상제의 사례는 가묘 없이 실행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반가의 가묘는 이러한 가례家禮를 실행하는 중심 공간이었다. 군자가 집을 지을 때 먼저 정침의 동쪽에 사당을 지어야 한다는 가례서의 가르침에 따라 반가에서는 안채[正寢] 동쪽에 가묘를 지었으며, 가묘를 짓는 경향은 16세기 후반 이후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가옥 내 건물 배치에서 최우선으로 고려되었다. 반가를 짓고 살던 양반사대부는 성리학에 바탕을 둔 예제와 사회윤리를 생활의 기본으로 생각하고 스스로를 엄히 규제·절제하였다. 그들은 성리학의 가르침을 따라 생활하였으며, 성리학 사회윤리와 가족윤리는 반가 건축에 큰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 반가는 생활상의 편의를 고려한 물리 기능보다 성리학 사회윤리와 가례 및 부계父系 위주의 대가족제도, 사회 지배계급으로서 높은 신분과 지위 등이 강하게 반영된 인문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송유崇儒 사상과 함께 풍수지리설도 당시 반가 건축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전 국토의 2/3가 산으로 되어 있는 지형 특성과 풍수설의 양택론은 반가의 터를 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쳐 배산임수한 터에 자연과 조화되는 집을 짓기를 좋아하였다. 집을 지을 때는 좌청룡左靑龍(개울), 우백호右白虎(큰 길), 전주작前朱雀, 후현무後玄武(구름)를 잘 구비한 길지吉地를 택하였다. 집의 평면 형태 또한 일日·월月·구口 등 길자吉字 형태를 즐겨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천지天地의 정기를 화합하여 집에 생기가 돌도록 하였다. 가옥 배치는 주산에 의지하여 좌우로 흘러내린 청룡과 백호가 가옥의 중요 부분을 에워싼 명당에 건물을 남에서 동 또는 서로 약간 틀어 배치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조선시대 반가는 채[櫺]의 분화와 칸[間]의 분화가 발달한 형태이다. 반가는 대개 여성들의 거주 공간인 안채와 남성들의 사랑채 그리고 행랑채, 별당, 사당, 고방채, 방앗간채 등 여러 부속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반가를 이루는 여러 채의 부속 건물은 다시 여러 칸의 실로 분화되어 다양하고 독특한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이들 여러 채의 건물은 크고 작은 마당과 여러 종류의 담에 의하여 구성된 아름다운 외부 공간을 형성한다.

조선시대 반가는 안채, 사랑방, 별당, 행랑채 등 여러 채의 건물과 크고 작은 다양한 마당으로 이루어졌다. 주택 내 각 건물의 기능을 살펴보면 안마당에 면한 안채(정침正寢 또는 내당內堂)는 여성이 생활하는 내밀한 공간으로, 안방·안대청·건넌방·부엌 등으로 구성되었다. 안방은 반가의 안주인인 주부가 생활하는 공간이었다. 마룻바닥의 안대청은 안방과 건넌방을 드나드는 전실前室이자 관례冠禮·제례祭禮·혼례 시에는 중요한 의례를 치르는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안방 맞은편에 있는 건넌방에는 주로 며느리가 거주하였다. 안방에 딸린 부엌은 안방 쪽에 부뚜막을 만들고 불을 때서 취사와 난방을 하는 가사공간으로 사용되었다. 이처럼 안채는 반가의 건물 배치에서 가묘 다음으로 중시된 건물이었으며, 제사를 모시는 중심건물이라는 뜻에서 정침이라고도 하였다. 하지만 조선시대에 들어와 내외법과 남녀유별 윤리에 따라 여성의 전용 공간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외부인의 출입이 어렵고 내밀한 폐쇄 공간 구성이 특징이다.

사랑마당에 면하여 자리 잡은 사랑채는 남성들의 생활공간으로, 사색과 독서 및 자녀 교육은 물론 문중 집회나 손님 접대 등에 사용되었다. 반가의 사랑채는 대개 사랑방, 침방, 사랑대청, 누마루 등으로 구성된다. 안채에 비하여 외부인과의 접촉이 빈번한 공간이기 때문에 주로 집의 바깥쪽에 자리 잡는다. 18세기 이후 반가의 사랑채는 대개 안채에서 떨어져 독립된 형태로 건축되었다. 사랑채는 사랑마당을 가운데 두고 대문채 또는 바깥 행랑채와 마주보게 지었으며, 안채에 연결된 사랑채의 경우에도 분리 건축이 되었다. 사랑마당과 안마당의 경계에 반드시 담이나 안행랑채 또는 중문간채 등을 두는 등 남녀 공간을 명확히 구분하였다. 이는 남녀 생활 공간의 엄격한 구분 및 외래객의 안채 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였다. 사랑채의 사랑마루는 사랑방과 누마루로 출입하는 전실이자 관례·제례·상례喪禮 시에는 의례를 실행하는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사랑채 침방寢房은 가장의 침실로, 남녀유별 윤리와 내외법에 따라 발생하였다. 이처럼 조선 중·후기 반가의 특징은 다양한 성격의 마당과 여러 채의 건물이 성리학 사회

윤리와 예제를 이상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시대 반가에서는 가례에 따라 대개 안채의 동쪽에 가묘家廟(사당)를 지어 그 안에 주인의 4대조까지의 신주를 모셨다. 가묘는 조상신이 거주하는 상위 공간으로, 높은 위계와 그에 따른 영역이 있었다. 집을 지을 때는 가장 먼저 가묘부터 지어야 하였으며, 집을 수리하거나 이건할 때를 제외하고는 허물지 않았다. 가묘는 정면 1칸 또는 3칸 규모로 주위에 담을 쌓아 공간이 구분되도록 하였다. 내부 바닥에는 전塼을 깔거나 우물마루를 시설하고, 그 위에 자리를 펴고 의례를 실행하였다. 가묘 뒷벽에 붙여 교의와 제상을 두고 4대의 위패를 일렬로 열향列享하여 모셨다.

반가

반가에서는 사랑채의 곁이나 별도의 여유 있는 공터에 별당別堂을 지어 접객, 교유, 사회, 교육 활동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반면 안채와 가까운 곳에 지은 별당은 주로 자녀와 노모의 거처로 사용되었다. 특히 동족마을에 위치하는 반가의 경우 사랑채 앞쪽에 별당을 지어 문중원의 회합 장소 또는 사회교류, 자녀교육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별당은 대개 가운데에 마루를 두고 좌우에 온돌방을 둔 형태이며, 연못가에 지은 별당의 경우 연못을 조망할 수 있는 누마루를 꾸미기도 하였다.

반가의 앞쪽에는 줄행랑채가 배치되어 있다. 대개 행랑채는 행랑마당에 면하여 배치되어 있다. 반가의 상징인 솟을대문 좌우로는 솔거노비의 거처인 행랑방 및 대문간, 각종 수장공간 등이 있다. 행랑채에 속한 수장 공간으로는 고방庫房과 곳간, 곡간穀間, 헛간 등이 있으며, 이밖에 마구간과 가마고 외에 남자들이 사용하는 측간을 두기도 하였다. 행랑방은 정면 1칸 또는 2칸 정도 규모로 남자 청지기와 머슴의 처소로 사용되었다. 반가의 행랑채는 10여 칸에서 수십 칸에 이르는 경우도 많다. 반가에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대문은 솟을대문으로, 종2품 이상의 고급관리 가옥에만 시설할 수 있었다. 대문이 있는 대문간의 지붕을 좌우 건물보다 한 단 높게 만들었다. 솟을대문에 접하여 가마를 보관하는 가마고와 마구간을 두고 맞은편에 행랑방을 두었다.

이처럼 조선시대 지배계층인 양반사대부의 가옥 반가는 외부에 대하여 폐쇄성 강한 공간 구성, 주거공간의 남성·여성 분화 및 신분의 높고 낮음을 반영한 공간 구성, 민가에 비하여 큰 규모와 강한 장식성이 큰 특징이다. 관혼상제로 대표되는 가례와 성리학 사회윤리가 반영된 공간 구성, 권위를 지키기 위하여 가족의 일상생활이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 폐쇄형 건물 배치도의 특징이다. 남녀의 출입 동선을 엄격히 분리하여 남성들은 바깥마당에서 솔거노비의 살림방·고방으로 구성된 행랑채에 낸 대문을 사랑마당과 사랑채로 거쳐 출입하였으며, 여성들은 사랑마당 한 편에 놓인 중문을 거쳐야 안마당과 안채로 출입할 수 있었다. 아니면 여성들을 위한 별도의 출입시설과 동선을 두고 출입하도록 하여 사랑채에 앉아 있는 외부인들이 안채의 여성들을 볼 수 없도록 하였다. 여기에 더해 중문 주변에 내외담이나 내외벽을 만들어 외부인이 여성들의 생활공간인 안마당과 안채를 들여다 볼 수 없도록 하였다.

반가는 대체로 막돌로 쌓은 자연석 막돌 기단 위에 초석을 놓고 목조 가구식으로 지었다. 안채와 사랑채의 지붕은 주로 팔작지붕이었으며, 행랑채와 부속 건물은 맞배지붕 또는 우진각지붕이었다. 15세기 초부터 가사제한이 제정되어 신분 계급에 따라 반가 규모와 형식이 제한되었으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 가사제한이 유명무실해져 99칸까지 지을 수 있다는 민간 전승어가 나돌 정도였다.

특징 및 의의 조선시대 지배계층 양반사대부 가옥인 반가의 건물 배치와 공간 구성에는 성리학 사회윤리인 가사제한, 가례, 장유유서, 남녀유별과 내외법, 가묘제 등이 큰 영향을 미쳤다. 남녀유별을 강조한 성리학 사회윤리와 내외법은 남·여성의 생활공간을 안채 및 사랑채로 구분하여 짓도록 하였다. 남계 중심의 가족제도는 한 집에서도 노인과 젊은 사람의 상하 관계(장유유서)에 따라 주인 부부와 맏아들 부부가 거주하는 실의 위치가 구분되도록 하였다. 안채의 안방(주부)과 건넌방(머느리), 사랑채의 큰사랑방(가장)과 작은사랑방(장남)의 경우 위치와 규모를 결정할 때

장유유서 윤리가 반영되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생활을 금지한 여성금고는 반가의 공간 구성에서 집의 가장 내밀한 곳에 안채를 배치하는 근거가 되었다. 내외법 및 남녀유별의 성리학 사회윤리는 안채 앞쪽에 사랑채를 배치하는 결과를 낳았다.

반가의 가묘는 관혼상제를 실행하는 중심 공간이었다. 가례서에 따라 집을 지을 때 먼저 안채(정침)의 동쪽에 사당을 건축하였으며, 16세기 후반부터 사회 전반에 가묘를 짓는 경향이 확산되어 반가의 건물 배치에서 최우선 고려되었다. 조선시대 양반사대부들은 성리학의 가르침을 따라 생활하였으며, 이 같은 인문 배경으로 성리학에 기반을 둔 사회윤리와 가족윤리는 반가의 건물 배치, 공간 구성, 장식 등에 큰 영향을 미쳤다. 대다수의 양반사대부는 가사제한을 지키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치를 배격하고 검소하고 질박한 생활을 하기를 좋아하였으며, 이는 조선시대 반가의 조형·의장상의 특징이 되었다. 반가는 생활상의 편의를 고려한 물리 기능보다 성리학 사회윤리와 가례 및 부계 위주의 대가족제도, 사회 지배 계급으로서의 높은 신분과 지위 등이 강하게 반영된 인문 산물이었다. 자연환경과의 긴밀한 조화를 고려하여 집터를 정하거나 건물을 배치하는 데에는 풍수지리설과 양택론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참고문헌 조선전기 주택사 연구(이호열,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한국주택건축(주남철, 일지사, 1980).

필자 이호열(李鎬洙)

반달이

정의 나무로 된 장방형의 상자로, 누워 있는 궤.

내용 반달이는 와궤臥櫃라고도 한다. 궤에는 윗다지와 반달이(앞다지)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천판(윗면)을 앞뒤로 절개해서 앞쪽을 문판으로 삼은 것을 위쪽에 문이 있다 하여 윗다지라고도 하고, 흔히 궤라고 부른

다. 앞면을 상하로 이등분하여 위쪽을 문판으로 삼은 것은 반달이 또는 앞다지라 한다.

반달이는 문(뚜껑)이 널판으로 되어 운두가 없으며, 문판에 붙은 경첩이 천판과 연결되어 포개 놓을 수 없다. 장이나 농을 구비하지 못한 서민 가정에서는 옷을 수장하기 위하여 반달이가 필수 가구였으며, 서민의 기본 혼수품이었다. 그러므로 서민들은 이 반달이를 안채(또는 안방)에 두고 사용하였으며, 천판 위에는 이불을 얹었다.

반달이 중 특이한 형태는 내부를 좌우로 칸을 나누고 문판을 두 개 나란히 단 원앙 반달이와 문을 중앙에 작게 낸 개구명 반달이이다. 원앙 반달이는 부부가 해로하라는 의미로서 결혼 예물로 만들며, 부유한 집에서는 나이든 노부부의 수의壽衣를 보관하기 위하여 만들기도 한다. 개구명 반달이는 옷을 많이 넣기 위하여 문을 작게 내는 등 특별히 고안된 양식으로,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였다.

반달이는 견고하고 물품 보관에 안전하여 가정마



반달이 | 국립민속박물관

① 가로87 세로44 높이67 | 1800년대 말 ② 가로107 세로46 높이86
③ 가로100 세로44 높이68 ④ 가로94 세로42 높이83

다 여러 구를 비치하였으며, 다양한 수요로 지역 특색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필요에 의하여 주문 제작한 것은 일정한 양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그 예로 책탁 반닫이, 반닫이장 등은 다른 양식의 가구와 결합하여 독특한 양식을 띤다.

북부지역의 반닫이는 남부지역의 반닫이에 비하여 높이가 높으며, 관서關西에서 호서湖西에 이르는 반도의 서쪽지역은 금구장식이 화려하며 많이 부착되어 있다. 강화江華와 박천博川의 반닫이가 지역의 특성이 잘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

자

강화 반닫이는 주로 소나무로 만들며, 폭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무쇠 장식에 만관자 또는 아홉자를 투각하여 장식성을 높이고, 중심 절개부에 표주박형(瓢子形) 경첩을 달고 그 좌우로 사각의 경첩을 부착한다. 표자형 경첩 아래로는 배꼽 장식이 있으며, 자물쇠 앞바탕 좌우로는 광두정을 대어 자물쇠를 열고 잠글 때 판재를 보호하도록 하였다. 대부분의 반닫이는 길목이 천판에 부착되어 문판의 자물쇠 앞바탕까지 T자형으로 꺾어져 있으므로 천판 위에 물건을 얹었을 때 문을 열기가 불편하지만 강화 반닫이는 길목이 천판의 이마에 달려 천판에 물건을 얹어도 문을 여닫는데 편리하게 설계되었다.

박천 반닫이는 일명 승승이 반닫이라고 알려진 무쇠 장식 반닫이이다. 승승이 반닫이는 피나무로 만들어 무미한 나무결에 투각의 무쇠 장식을 앞면에 가득 부착하여 장식했다.

특징 및 의의 반닫이는 서민들의 의복을 간수하는 기본 가구였다. 과거 교통이 불편하던 시기에 각 지역에서는 산지에서 생산되는 재료로 반닫이를 제작하였으므로 각 지역의 특색을 가장 잘 보여 주는 가구이다. 또 용도에 맞춰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는 가구이다.

참고문헌 한국 민속의 세계4-주거환경(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필자 김삼대자(金三代子)

반자

班子

정의 지붕 밑이나 위층의 바닥 밑을 가리기 위하여 꾸민 내부공간의 상부 구조물.

내용 반자班子를 대표하는 우물반자는 가늘고 긴 가로대와 세로대를 직교하도록 하여 우물 정井자 모양으로 만들고, 각각의 사각형 격자 안에 나무 널을 설치하는 방식 또는 그렇게 만든 천장을 말한다.

반자의 가장자리는 도리나 보와 같은 튼튼한 구조재에 부착해서 고정시킨다. 가운데를 교차하는 반자대와 구분해서 반자돌림대라고 한다. 반자돌림대는 반자대보다 약간 굽게 만들어 쓰는 것이 좋다. 반자틀을 만들 때 사용하는 가늘고 긴 나무 틀재는 다라니라고 한다. 의궤에서는 다란多欄, 다안多案, 다안리多案里 등으로 쓰고 있다.

반자돌림대 사이 면적을 정간수로 나누기 때문에 정확한 정방형이 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보기 좋게 적당한 장방형이 되도록 간격을 조절해서 만든다. 반자대 사이에 끼우는 널을 반자널 또는 반자판班子板이라고 한다. 반자판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하기 위하여 아래쪽으로 사방에 쏙대를 댈다. 이를 소란小欄이라 하는데, 이런 이유로 소란반자라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반자틀을 튼튼하게 고정시키기 위하여 달대와 달대받이를 사용한다. 달대는 반자틀에 세로로 달아매는 긴 나무이고, 달대를 보와 결구시키기 위하여 보 상부에 직각으로 걸치는 부재를 달대받이라고 한다.

우물반자에서 반자널 또는 반자판에 꽃무늬와 같은 예쁜 무늬를 새겨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반자花班子 또는 국화반자라고 한다. 반자판의 아랫면을 화려하게 단청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반자畵班子라고 하였다.

우물반자는 반자가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있다. 외기반자가 대표적이다. 팔작지붕에서 합각 부분 아래쪽으로 외기도리가 있으며, 이곳에 설치하는 우물반자를 외기반자라 할 수 있다.

우물반자의 경우 반자판을 반자들의 위쪽에서 내려 끼우게 되지만 이와 반대로 반자판을 아래서 위로 올리고 판을 박아 고정시키는 반자가 있다. 이 경우에는 반자들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아랫면이 평평하게 된다. 이를 평반자平班子라 하는데, 널판으로 마감한다고 해서 판반자板班子라고도 한다. 판반자 가운데 나무널을 길게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에는 장반자長班子가 된다.

반자는 보통 수평으로 설치하지만, 경사지게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빗반자라 한다. 빗반자는 육모정이나 팔모정과 같은 정자 건물에서 중앙부를 제외한 경사부를 가리기 위하여 꾸미는 경우가 있다. 사찰에서는 불전 내부 가운데 우물반자가 설치된 부분을 제외하고 앞쪽과 뒤쪽으로 서까래가 노출되는 부분을 가리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빗반자는 우물반자로 할 수도 있고 장반자로 할 수도 있다. 빗반자를 장반자로 꾸미는 것이 경제성으로 볼 때 유리하다.

한편 특별한 위치에 설치되는 반자 가운데에는 공포에서 출목과 출목 사이에 위치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순각반자順閣班子라 한다. 조선시대 의궤에는 승각崇閣, 순각順角, 포승각包崇閣 등 다양한 표현을 사용했다.

반자를 마감은 보통 나무널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앞선 경우들과 달리 종이나 흙을 사용하여 마감하는 경우도 있다. 종이로 마감하는 경우 지반자紙盤子, 紙班子라 한다. 치받이흙으로 마감하는 경우는 고미반자라고 한다.

지반자에서 반자들을 만드는 방식은 우물반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반자를 아래에 종이를 직접 바른다는 점이 다르다. 종이가 반자들에 잘 붙어 있게 하려면 반자대의 아래쪽과 옆면을 대패질로 마무리해 주면 된다. 지반자는 나무 반자판이 설치되는 우물반자에 비해 가볍다.

고미반자는 방의 위쪽이나 다락 하부 등에 천장을 낮게 만들어서 아늑한 공간을 만들 때 사용된다. 인접한 보와 보 사이에 고미받이를 먼저 걸치고 그 위에



우물반자 | 서울 종로구 경복궁 경회루 | 국립민속박물관



육각반자 | 서울 종로구 창덕궁 존덕정 | 국립민속박물관



종이반자 | 전남 장흥 죽헌 고택 | 김왕직



고미반자 | 경북 경주 양동 무첨당 | 국립민속박물관

사각형으로 다듬은 긴 고미서까래를 직각으로 걸친다. 다음에는 산자를 위에 얹고 흙질을 한 다음 아래부분을 치받이흙을 발라 마무리한다. 흙을 사용하여 천장을 만들기 때문에 토반자土班子라고도 한다.

특징 및 의의 반자는 위치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설치될 수 있다. 근대 건축에서는 금속재를 사용한 경우도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영건의궐(영건의궐연구회, 동녘, 2010), 한국건축대계5-목조(장기인, 보성각, 2000), 두산백과사전(doopedia.c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류성룡(柳成龍)

발

발

발

정의 방의 채광을 막거나 외부에 있는 타인의 시선을 차단하는 한편 사생활을 보호받기 위하여 치는 가리개의 총칭.

내용 발은 창문 앞에 늘어뜨려지도록 만든 가리개로, 여름철 뜨거운 태양 빛을 가리거나 문을 열어 시원한 바람을 통하게 할 때 타인의 시선을 막고 사생활을 보호받기 위하여 만든 용품이다.

한국 전통한옥은 마루가 개방되어 있어 온돌방의 창호가 열리면 내부가 그대로 노출되는 구조이다. 지붕의 처마가 깊다고는 하지만 태양 각도에 따라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 빛이 실내에 입사되므로 이것을 막기 위하여 마루 끝이나 방문에 주로 대나무나 갈대 등으로 만든 발을 치고 생활하였다.

조선시대 사대부 계층에서는 남녀유별의 질서가 엄격하였고, 이런 질서는 여성의 거주 공간을 집의 안쪽 깊숙한 곳에 위치시켜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나 안채라 하더라도 대가족이 거주하고 신분에 따른 계급이 구분되어 있어 상류계층의 여성은 여름철에 방문을 열고 시원한 환기를 필요로 할

때 외부인의 시선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발을 치고 생활하였다. 즉 발은 내부 공간의 사생활이 드러나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켜 주면서 빛은 차단하고 통풍도 가능한 여름철의 요긴한 도구였다.

발 가운데에서 대을에 붉은 칠을 하여 짙은 주름朱簾은 왕실을 상징하며, 잔치가 베풀어지는 궁궐 창호나 왕이 탄 가마, 왕의 신주를 모신 종묘나 왕의 초상을 모신 진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궁궐에서 특별한 의식이나 연회가 있을 때에도 신분이 높은 궁실 여성들은 주름을 치고 그 안에서 밖을 감상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전통 발을 만드는 기술자는 염장簾匠이라 불리며,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발은 비단 가운데 가장 얇은 사紗나 풀(초草, 대마나 아마 등)로도 만들어 사용하였다.

발의 장식은 대의 마디에 문양을 넣거나 호랑이·용·사슴 등과 선호되어 온 복福·수壽·희囍자 등을 아울러 새겨 넣고 테두리를 남색 모단으로 감싸서 발이 풀리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아름다운 마무리 장식도



발 | 경기 용인 한국민속촌 | 국립민속박물관



발 | 경북 안동 | 최지현

하였다. 이러한 발은 작게 만들어서 가마의 창에도 설치하였다. 농촌에서는 창문에 치는 용도 외에 벋짚과 같이 손쉬운 재료로 가볍게 만들어 고추나 채소말리기 등 농산물을 말리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발은 역대 임금의 신위를 모시기 위하여 세운 종묘의 정전에서도 볼 수 있다. 정전은 19실로 구획되어 있고, 조선조 열아홉 임금의 위패가 봉인되어 있다. 각 방은 건물 내의 고주(高柱)에 의지하여 분할되어 있으며, 고주의 내전에 봉안실이 꾸며져 있다. 고주의 주간에는 황색 비단으로 만든 휘장이 늘어져 있고, 뒷벽과 좌우 벽에는 고급스러운 발이 늘어뜨려져 있다.

오늘날 산업사회 이후 발을 만드는 재료는 매우 다양해졌으며, 유형에서 차이가 있다. 발의 사용은 주로 전통한옥, 농촌의 단독주택, 공공 사무실, 도로에 노출된 요식업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전통 재료인 갈대나 짚과 같은 자연 소재부터 플라스틱 등 화학제품까지 다양하다. 기능보다 실내장식을 위한 수공예 작품인 삼베나 모시조각보로 만든 발도 인기가 많다. 특히 천연 염색된 모시조각보로 만든 모시발은 커튼 대신 우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외국인에게 관광상품으로도 인기가 많다.

특징 및 의의 발은 대나 직물로 만들어, 여름철 채광 차단, 공간 구획, 외부 시선으로부터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설치가 용이하고 수납하기에도 간편하여 현대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참고문헌 주령·왕권의 존재와 왕실 혼백의 상징(장경희, 문화재사랑171, 문화재청, 201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박선희(朴善姬)

방

정의 문을 닫았을 때 사방을 폐쇄할 수 있는 생활공간으로 주로 잠을 자는 곳.

개관 전통 주거공간에서의 ‘방房’은 물리적 형태로는 마루와 구분되며, 추울 때는 온돌로 난방이 되는 겨울철 기본 생활공간이다. 이때 방은 단지 잠만 자기 위한 장소는 아니다. 식사, 교류, 위생 활동 등 일상의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었다. 방의 명칭은 내외(内外) 관념에 따라 여성이 사용하는 안방, 남성이 사용하는 사랑방 등 사용자에 따라 구분되었다. 방은 난방을 하는 물리 성격상 주로 보온을 위하여 문을 닫았고, 잠을 잘 때 역시 문을 닫았다. 방은 온돌 위를 장판으로 마감하여 목재의 마루와 구분되었다. 또한 개방적 성격의 마루와 달리 서까래를 노출시키지 않고 천장을 구성하였다. 방은 주로 폐쇄된 형태로 사용하였지만 필요에 따라 대청 등 인접 공간에 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융통성 있는 사용이 가능하였다.

근대적 개념의 가족 형성과 함께 서구식 생활양식 및 주택이 확산된 이후 방을 사용하는 성별 구분은 사라졌다. 기능은 단순화되었다. 오늘날의 방은 이전보다 더 독립된 형태로 구성되고 폐쇄성이 더 강화되어 잠을 자는 곳, 개인의 사생활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규정된다.

내용 전통한옥의 목조 가구식 구조에서 방의 규모는 기둥 네 개로 이루어진 칸(間)을 기본 단위로 한다. 따라서 방의 폭은 대부분 기둥 간격 이내로 제한되었다. 서울 지역 한옥의 원형이 되는 경기도 지역의 서민 주택에서 안채는 대부분 ㄱ자형 홑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면은 건넌방-대청-안방-부엌의 네 칸이 차례로 배열되고, 안방을 중심으로 ㄱ자로 꺾이는 유형이 전형적인 사례이다. 대청을 중심으로 양쪽에 안방과 건넌방이 배치되고 안방 아래 부엌이 결합되어 ㄱ자가 된다. 따라서 안방은 채광에 불리하여 매우 어두웠다. 사랑방은 바깥채, 즉 대문과 연결된 사랑채에 있었다.

전통사회에서 ‘방’은 제례(祭禮), 잔치 등 비일상사를 제외하고 일상의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었다. 즉 방에서 한 가정의 공적(公的) 생활과 사생활이 동시에 가능하였다. 온돌의 바닥 난방은 방에서의 좌식 문화를 형성하였다. 가구 없이 공간을 비워 둠으로써 다목적용으로 공간을 사용하는 방식이었다. 「방 하나

가 주택」이라는 글에서는 “우리 한식 주택은 주인방, 하인방, 사랑방 등 방이 많았으며 방 하나가 각각의 주택 역할을 해왔다. 방 하나에서 식당·침실·거실·응접실 심지어 변소의 역할까지 해왔다.”라고 묘사되어 있다. 이와 대조를 보이면서 ‘목적 있는 방’에 대해서는 “주택은 어디까지나 가족을 단위로 한 휴식처인 관계로 자기 혼자 조용히 쉴 수 있는 침실, 온 가족이 모여 단란한 시간을 가지는 거실, 식사를 준비하는 주방 등 그 방의 목적에 알맞도록 방을 설계하고 혹은 개량해야겠다.”라고 기술되었다.

방

‘안방’은 ‘내실(內室)’이라고도 하며, 여성 및 어린 자녀의 공간이었다. 구한말 이후 등장한 주택 개량 논의 가운데 안방을 가족 공용 생활공간으로 규정하여 밝고 깨끗한 공간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가족 위주의 주생활 양식이 도입되면서 성별로 분리된 공간 사용방식에서 탈피하여 오늘날의 거실과 같은 역할을 안방이 담당하게 되었다. 이후 안방은 주택의 평면에서 마루 및 거실의 바로 옆 남측에 위치하는 것으로 변화하였으며, 그 크기도 다른 공간에 비하여 매우 커졌다.

1980년대 이후 거실이 본격 정착되고 가정 내 교류 기능을 담당하면서부터 안방은 부부침실로 역할이 축소되었고, 취침 기능만을 담당하게 되었다. 안방은 부부침실로 변화하였음에도 오늘날까지 집안의 중요한 공간이라는 의미가 지속되어 주택 평면의 가장 좋은 자리에 위치한다. 안방이 부부가 함께 기거하는 방으로 사용되면서 남성 공간인 사랑방의 기능은 점차 상실하게 되었다. 일제강점기와 1950~1960년대의 서양식 주택에서 사랑방의 접대 기능을 더 강화하여 서양식으로 재구성한 ‘응접실’이 있는 경우가 있었고, 규모가 큰 주택에서는 사랑방과 응접실을 함께 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안방의 명칭과 그 역할이 오래 지속된 것에 비해 사랑방은 근대 및 서구식 주거공간 정착과 함께 사라졌다.

전통주택에서는 안방과 사랑방 외에도 옷방, 건넌방, 아랫방, 문간방 등 다양한 종류의 방이 있다. 이들 용어는 사용자의 위계에 따라 정해졌다. 오늘날 방은 이러한 명칭의 위계가 사라진 동등한 공간이다. 부부

공간이 정착되고 가족 구성원의 사생활이 존중되면서 자녀 공간이 ‘아들방’, ‘딸방’ 등으로 불린다. 성별과 위계에 따라 공간을 구분하지 않고 그 기능에 따라 공간을 구별하는 오늘날의 공간 사용 방식에 따라 방은 취침을 위한 공간이자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는 장소라는 의미가 더욱 강화되었다. 또한 가족 구성원 모두가 평등한 공간으로서의 방을 차지하게 되었다.

오늘날 흔히 아파트에서 전면의 방들은 거실을 사이에 두고 양 옆에 떨어져 있는 형식을 취한다. 이것은 전통한옥에서의 안방-대청-건넌방의 배치와 유사하지만 공간 질서는 다르다. 원래 전통한옥에서 안방은 주택 전체로 볼 때 후미진 곳에 위치하여 있었지만 현재 안방은 한 주택에서 가장 좋은 자리인, 주로 남향 위치에 자리한다. 또한 전통 주거공간에서 안방과 대청 사이, 건넌방과 대청 사이에 벽이 아니라 얇막한 창호지의 분합분이 설치됨에 따라 사생활 보장이 약하였지만 오늘날에는 독립 형태로 구성된다. 서구식 주거문화에서 방들과 거실 사이에는 여닫이문이 있는 두꺼운 벽체가 놓여 있어 시각적·청각적 사생활이 확보된다. 방들은 서로 독립된 형태이며, 방과 방 사이 거리를 멀게 하여서 방들의 독립성과 내밀성을 높였다.

특징 및 의의 넓은 의미로 ‘방’이라는 용어는 도시 안에서 ‘노래방’, ‘PC방’ 등으로도 사용된다. 이때의 방은 하나의 특정한 기능을 담당하는 장소로서 개방된 공간에 대비되는 폐쇄되고 배타하는 성격의 장소를 일컫는다. 주거공간 내 방의 기능과 의미는 시대 변화와 함께 달라져 왔지만 방이 공공성을 띠는 개방 공간과 대비되는 장소라는 속성은 유지되었다. 이러한 ‘도시의 방’은 공공장소에 속하지만, 동시에 폐쇄적이면서 내밀한 성격의 공간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참고문헌 우리 생활 100년·집(김광언, 현암사, 2000), 집·집의 공간과 풍경은 어떻게 달라져 왔을까(전남일, 돌베개, 2016), 한국 주거의 미시사(양세화·전남일·홍형욱, 돌베개, 2009), 한옥과 한국 주택의 역사(권용찬·전봉희, 동녘, 2012).

필자 전남일(田南一)

방석 方席

정의 밑이 배기거나 바닥에 앉을 때 까는 사각형의 자리.

개관 방석方席은 앉을 때 밑이 배기지 않고 차가움과 뜨거움으로부터 앉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된 생활용품이다. 『역어유해보譯語類解補』에서는 중국어의 ‘좌욕坐褥’을 ‘방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광재물보廣才物譜』에서는 방석을 ‘인옥茵蓐’ ‘포단蒲團’ ‘수돈繡墊’ 등으로 부르고 있다. ‘인옥’은 ‘왕골즈리’, ‘포단’은 ‘부들로 짠 자리[織蒲爲席]’로 설명하고 있다. ‘수돈’은 ‘슈방석’이라고 하여 수를 놓은 방석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 ‘氈’을 ‘담’이라 쓰고 ‘모석毛席’이라 하여 털로 만든 자리라고 하였다. ‘고비阜比’는 범의 가죽으로 만든 스승이 깔던 ‘호피방석虎皮方席’이라고 설명하였다. 재료에 따라 명칭을 달리하고 그 종류가 다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세조실록世祖實錄』(세조 2, 6월 15일)에 명나라 사신에게 준 선물 가운데 ‘아다개[豹皮阿多介]’는 표범이나 호랑이 등의 가죽으로 만든 요나 방석 등 깔개의 속칭이라고 하였다.

조선시대 방석은 신분에 따라 사용 여부가 제한되어 6품 이상 관원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세종실록世宗實錄』(세종 24, 11월 27일)에 왕세자가 종묘 제사를 대행한 후 음복하는 절차 중에 6품 이상의 관원은 방석方席을 설치한다는 기록이 있다. 또 야인野人을 접대하는 좌차座次에 대하여서도 “만호萬戶를 받은 야인은 좌석이 없고 적당하게 방석方席을 설치해 대접한다.”고 하였다(세종 24, 10월 25일). 또 이러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는 해당 관리자를 국문鞫問한 것을 알 수 있다. 『세조실록世祖實錄』(세조 6, 12월 9일 신사)에 사정司正을 제수받은 보랑합甫郎哈 등 세 사람이 대단히 추웠는데 예빈시禮賓寺에서 포진鋪陳을 베풀지 않아 의금부에 명하여 해당 관리를 국문하도록 하였다고 전해진다.

『성종실록成宗實錄』(성종 3, 1월 22일)에는 서인 부녀가 안장 위의 좌자坐子에 채단을 사용하는 것은 사



방석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① 지름51 ② 가로57 세로57

치라 하여 이를 금하여야 한다는 기록이 있다.

『태종실록太宗實錄』에는 왜倭에 보내는 토산물 목록에 ‘만화방석萬花方席’이 있으며(태종 2, 6월 6일), 이후 만화방석은 중국 명에 보내는 방물표에도 빠지지 않고 포함되었다(태종 17, 8월 2일).

특징 및 의의 방석 등의 자리는 좌식생활에 적합한 생활용품으로, 방바닥에 오래 앉아 있을 경우 밑이 배기기 때문에 사용하였다. 난방이 충분하지 않은 주거 환경에서 방석은 추울 때는 물론 더울 때도 유용한 생활용품이었다.

방석은 대개 정사각형이지만 직사각형, 원형 등 다양한 형태로 만든다. 직물이나 가죽 등으로 만들 경우 사각형이 많으며, 왕골·부들·대나무 등 식물을 재료로 만들 경우에는 원형으로도 가능하다. 식물 재료를 쓸 경우에는 방석 안에 속을 넣지 않고 대개 여름용으로 사용한다. 직물 등으로 방석을 만들 경우에는 방석 안에 보충재를 넣는다. 솜이나 곡물 껍질 등으로

속을 채우고, 겉은 비단 등으로 만들어서 화려하게 수를 놓기도 하였다.

방석은 재료에 따라 왕골방석, 부들방석, 죽방석 竹方席, 죽피방석 竹皮方席이 있다. 모직물이나 동물 가죽을 이용한 것으로는 털방석·양모방석·가죽방석 등이 있고, 직물을 이용한 것으로는 비단방석과 삼베방석 등이 있다.

참고문헌 광재물보(홍윤표, 홍문각, 1998), 한한대사전(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99~2008), 조선왕조실록(sillok.history.go.kr), 한국학자료센터(kostma.aks.ac.kr).

필자 김영재(金永才)

방

장

방장 房帳

정의 실내 보온이나 채광 차폐 혹은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침상 주변이나 창문에 설치한 직물용 가리개나 늘어뜨린 휘장.

내용 취침 때 침상 둘레에 친 직물용 막幕(가리개나 커튼과 같은 형태)이나 창문 앞에 쳐서 여름 채광이나 겨울 외풍을 막기 위한 직물용 막 등을 총칭한다. 침장寢帳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의 방장房帳 사용은 삼국시대부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구려 고분벽화 건축물에 부착된 장막을 볼 수 있고, 침상을 꾸민 주인공 내외의 거처 공간에 친 방장을 볼 수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고구려 귀족이나 왕족은 넓은 방의 네 벽에 거대하고 두꺼운 유막을 늘어뜨려서 일단 외기를 차단하고, 방 한쪽에 따로 침상을 놓고 그 침상에 천장과 벽체를 방장이나 병풍으로 둘러 설치하여 또 하나의 공간을 구성하는 구획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삼국사기三國史記』의 집에 관한 금령에도 비단을 써서 전을 두른 발을 육두품은 사용하지 못한다 하였다. 수를 놓은 병풍도 쓸 수 없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육두품 이상의 골품에서는 쓸 수 있다는 뜻이므로 사용하는 계

층을 고려하면 방장은 방의 문쪽에 늘어뜨렸다기보다 침상의 네 벽에 설치된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같은 방장의 사용은 조선시대까지 이어져서 역대 임금의 신위를 모시기 위하여 세운 종묘의 정전에서도 볼 수 있다.

궁실이나 귀족들이 쓰던 침상(평상)에도 방장이 사용되었다. 침상은 사방으로 낮은 난간이 있고 앞쪽에만 난간이 없이 터진 형태이다. 이들 침상 가운데는 두 짝을 한데 접합하여 하나를 이루고 네 귀퉁이에 맞장부를 뚫고 기둥을 세운 것도 있다. 이러한 유형은 네 기둥에 의지하고 기둥머리에 인방을 짜 돌려서 소규모 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 골조를 형성한다. 겨울이 되면 비단으로 만든 방장을 네 벽에 치고 천장에도 휘장을 덮어서 그 외벽에 병풍을 두르든가 하는 방법으로 외기를 차단하였다.

방장은 수를 놓아 예쁘게 꾸미기도 하였다. 그 가운데 두툼한 비단(용단)에 오색실로 수壽·복福 등 길상무늬를 수놓은 것이 일품이었다. 이와 같이 방장은 일반 민간인의 주거 공간에서보다는 귀족이나 왕실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방장이 귀한 장식품이었으며, 온돌 난방이 없을 경우 보온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즉 상류층의 침상 생활 방식은 고구려시대 이래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 계승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한반도 전역에 온돌 보급이 완성되고 전통한옥에 온돌방과 마루가 겸용되어 정착되면서 비로소 좌식 생활양식이 상류층에까지 파급된 것으로 보인다.

방장 형태는 장방형과 정방형 두 종류에 대개 상·하 두 쪽 연결 형태가 많다. 대개 자수로 시문된 문양은 박쥐, 용, 목단, 십장생 및 길상문吉祥紋으로 장수와 복을 기원하는 문자(수·복, 수복강녕壽福康寧 등)가 애용되었다. 이들 문양은 장식 효과도 있지만 가문이나 왕가의 권위를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즉 방장 크기나 시문된 문양 표현을 통하여 각각 가문이나 왕가의 격을 갖추기 위한 의도와 개성을 나타낸 것이다. 조선시대 방장은 왕가 및 양반층 혼수용품으로 포함되었다. 실용과 장식, 상징을 목적으로 조선시대 왕가 및 양반 사회에서 사용된 공예품의 하나였다.



방장 | 길이241 | 조선 | 서울역사박물관

이러한 방장은 근대까지도 사용되었다. 방장 재료는 시대에 따라 변화되었다. 면직물, 견직물의 경우 조선 초기의 방장에서도 볼 수 있지만 모직물이나 융은 조선 중기 이후의 방장에서 볼 수 있다. 특히 융은 직물 가운데 가장 늦게 수입된 것으로, 주로 조선 말기의 방장에 나타난다.

방장에 쓰인 색채는 적·청·황·백·흑의 다섯 가지이고, 이 색들이 시문의 기본이 되었다. 단순한 오색 개념보다는 그 오색에서 파생된, 세분화된 색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바탕, 테두리, 시문된 문양으로 두 가지 정도의 색채가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인 가운데 바탕은 주로 황·적·청·백색 순이고, 테두리 및 문양은 청색이 가장 많이 쓰였다. 여기에 황·적·흑색 순으로 바탕색에 반대되는, 음양에 따른 보색이 많이 사용되었다. 방장에 쓰인 문양은 앞에서 기술한 침구 문양과 유사하여서 동물문·식물문·자연문·기하문이 모두 쓰였으며, 현존하는 방장 가운데 같은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따라서 방장은 우연한 형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예술성이 그대로 표현된 독창성을 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침장은 겨울철 방풍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비단으로 면 분할과 길상 문양 자수를 하여서 아름다운 미감을 형성하였다. 오늘날은 생활양식과 공간 변화로 모든 것이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바뀌어 별도의 방장 사용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러나 여름철 가벼운 공간 차폐 장식으로 수공예품의 모시 조각보와 같은 방장이 일부분 인기가 있음을 볼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전통 주거에서 방장은 매우 품격 있고 화려하게 만들어져 방풍 역할뿐만 아니라 실내장식을 위한 도구로도 큰 효과가 있었다. 설치와 보관까지도 용이하였다.

참고문헌 우리 규방문화(허동화, 현암사, 1997), 조선시대 방장에 관한 연구(오복녀,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필자 박선희(朴善姬)

배산임수 背山臨水

정의 뒤로 산을 등지고 앞으로 물을 내려다보고 있는 지형을 지칭하는 용어.

개관 한국의 마을은 대체로 산의 경사가 완만하게 내려오다가 시냇물을 끼고 들판으로 바뀌는 산기슭에 자리를 잡았다. 이러한 주거 원칙은 구석기시대 동굴 주거와 신석기시대 물가 주거를 거쳐 청동기시대 구릉지역과 철기시대 산밑에 정착한 이후 현대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배산임수背山臨水の 주거 원칙은 산의 기운인 음陰과 물의 기운인 양陽의 조화라는 풍수사상 측면에서도 출되었다. 풍수서 『장서葬書』에 “기는 바람을 타면 흩어지고 물을 경계로 하면 멈춘다(氣乘風則散 界水則止).”라고 하였듯이 뒷산에서 내려온 땅기운[地氣]은 물을 만나면 움직이는 것을 멈춘다. 그러므로 배산임수 지형은 음양이 조화된 장소가 된다. 그러나 배산임수라고 하더라도 산과 물의 크기나 흐름 혹은 산과 물과의 거리 등에 적절한 조화와 균형이 없으면 풍수



한개마을 | 경북 성주 | 최지현

에서는 흉한 땅으로 본다. 『명산론(明山論)』에서 “음양(산과 물)이 조화롭게 만나지 않은 것을 사람들은 나쁜 땅이라고 한다(陰陽不和會 所謂凶也).”라고 한 것이 그 이유이다. 이처럼 배산임수라고 해서 풍수에서 전부 좋게 보는 것은 아니지만 산악 지형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마을 입지는 배산임수의 지형을 기본으로 선택하였다.

한편 배산임수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임(臨)을 면하고 있다는 면(面)으로 표현하면 배산면수, 물을 일반 명칭인 수(水) 대신 물이 모여 있는 소(沼)로 표현하면 배산임소, 물이 모여 흐르는 강의 뜻을 나타내는 낙(洛)으로 표현하면 배산임락 또는 배산면락이 된다.

내용 높은 산을 뒤로 하고 낮은 물을 바라본다는 배산임수의 주거 원칙은 생활과학 측면에서도 적합하였다. 먼저 주거지에서 선호되던 남향 가옥의 경우 배산

조건은 겨울에 차가운 북서풍을 막아 주고 집을 따뜻하게 해 주며, 땀감이나 산나물을 제공해 주었다. 또한 임수 조건은 빗물과 생활용수의 배수가 용이하여 택지로서 적합하였으며, 식량 생산지인 하천 유역 주변 경지의 관개에 유리하였다.

이러한 배산임수의 마을 입지가 처음부터 풍수 논리로 선택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인간 삶의 경험된 지혜에서 산출된 입지 선택 결과와 풍수사상의 입지 선정 논리가 일치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조선 후기 풍수사상이 유행하면서 마을 입지와 풍수 논리가 더욱더 자연스럽게 결합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전국 마을에 널리 전승되고 있는 마을 물형론(物形論)이나 마을을 둘러싼 자연환경의 다소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다양한 풍수비보(風水裨補), 묘지 공간까지를 염두에 두고 마을 자리를 잡았다는 입향시조의 기록 등을 고려해 본다면 이 점은 분

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배산임수의 주거 원칙에서 주목할 것은 가옥의 좌향坐向이다. 좌坐는 가옥의 뒷방향, 향向은 가옥의 앞방향을 각각 말한다. 여기서 출입문의 방향은 관계가 없다. 당연히 전통가옥의 배치는 좌는 뒤의 높은 산이 있는 방향, 향은 앞의 낮은 물이 있는 방향으로 하였다. 이는 지기地氣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풍수 기본 원칙에 부합하며, 편리한 생활환경 조건에도 맞는다. 또한 가옥 앞으로 흐르는 시내 건너편에서 펼쳐지는 숲과 산들은 보는 이의 심상을 편안하고 따뜻하게 하는 경관 요소가 된다. 이 때문에 전통시대 양반가나 민가 모두 이러한 좌향을 선택하였다. 이 원칙은 어촌 가옥, 산사山寺, 묘지도 마찬가지였다.

철기시대 이후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이러한 배산임수의 주거지 원칙과 그에 따른 가옥의 좌향 원칙은 1980년대 들어와 본격화된 신도시 개발로 무너졌다. 인구증가와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현대에 와서 배산임수 지형만을 주거지로 선택할 수 없는 현실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대단위 신도시 개발은 평지뿐만 아니라 배산임수 지형마저 개발에 포함시키면서 아파트의 좌향을 가능하면 전부 남향南向으로 배치하였다. 남향집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햇볕이 깊숙이 들어와 따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남향집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남향집에 살려면 3대가 적선積善해야 한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다. 남향집에 살려면 먼저 산의 지세향地勢向이 남향이 되어야 가옥의 좌향이 남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남향집에 살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만약 무조건 남향집에 살려면 산의 지세향이 어떠한 가옥의 좌향을 남향으로 하면 된다. 그러나 전통시대에서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산의 지세향이 북향인 경우 가옥의 좌향은 배산임수에 맞추면 북향집이 된다. 그러므로 전통 관점의 가옥 입지는 산의 지세에 맞추어 가옥의 좌향을 배치하였기 때문에 남향집이 아닌 것도 많았다. 남향집보다 지세향의 배산임수를 우선시하였기 때문이다. 풍수 관점에서 인재를 많이 배출하여 최고의 명당 주거지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 인촌 김성수 생가도 북향집이다.

만약 산의 지세향이 북향인데 가옥의 좌향을 남향으로 한다면 배산임수가 아니라 배수임山背水臨山이 된다. 즉 가옥의 뒤가 물처럼 낮고 앞이 산처럼 높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풍수 지기地氣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며, 삶의 지혜에서 도출된 배산임수에 맞춘 가옥 배치에도 어긋난다. 그러나 아쉽게도 1980년대 대단위 신도시 개발을 기점으로 전통사회 마을 구성원들이 공유해 온 상식이요 지혜이던 배산임수는 잊혀지고, 현대의 한국인에게는 남향 여부만이 주거지 선택의 기준이 되었다.

특징 및 의의 배산임수의 주거지 원칙은 풍수 논리 차원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마을의 주거 조건을 연구한 지리학·건축학·민속학 연구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다. 더욱이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구를 포함하여 전 세계의 주거지 선택 원칙이기도 하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특별한 경우나 평지 지형을 제외한다면 가장 일반화된 주거지 유형은 배산임수 지형이다. 즉 가옥의 좌향을 좌는 뒤의 산이 있는 곳, 향은 앞의 낮은 물이 있는 곳을 선택하였다. 이는 삶의 지혜에서 우리나라 아주 자연스러운 인류의 보편적인 주거지 원칙이었다.

이러한 원칙이 과연 현대에 와서는 적용될 수 없는 논리인지 아니면 빗나간 남향신화南向神話로 인한 무원칙의 주거지 논리인지에 대하여 새로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배산임수(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사람의 지리 우리 풍수의 인문학(최원석, 한길사, 2018), 풍수학사전(김두규, 비봉출판사, 2005).

필자 김기덕(金起德)

벌집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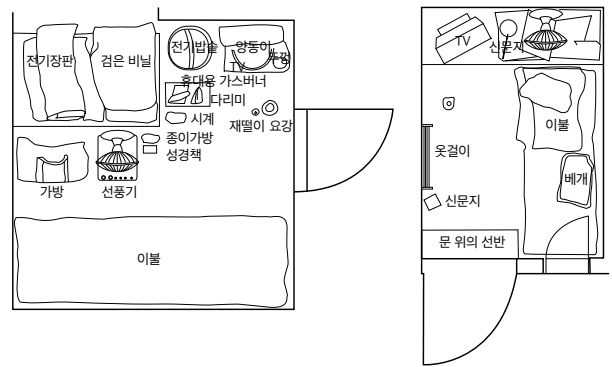
정의 오래되고 낡아서 제 구실을 잃은 구조물의 실내

공간을 한두 사람이 겨우 들어갈 크기의 작은 방 여러 개로 구획한 뒤 화장실과 목욕탕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한 임대용 임시거처 또는 이들 주거공간이 밀집한 지역.

내용 우리나라의 주택법은 최저주거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가구원 수에 따라 방의 개수며 총 주거면적을 정하고 있는데, 1인 가구라면 거실로 겸용할 수 있는 방 하나와 별도의 부엌을 두어야 할 뿐만 아니라 최소 14㎡의 주거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여기에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위생식수와 더불어 전용 수세식 화장실과 목욕시설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인 거주자가 주로 이용하는 별집이나 쪽방의 대체적인 면적은 2.5~5㎡에 불과하고, 많게는 열 가구 이상이 화장실이나 목욕탕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등 최소한의 법적 요건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부분 창문이 없는 ‘먹방’이거나 작아서 최저주거기준에서 정한 적정 방음과 환기, 채광을 확보할 수 없어 거주자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특히 내열·내화, 방열 및 방습 성능을 갖추지 못해 선풍기나 전기난로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전기설비가 오래되고 낡은 까닭에 안전에 취약해 늘 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쪽방들이 도시 외곽의 공단 주변 낡은 건물을 촘촘하게 채운 모습이 별의 집과 유사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 별집이고, 이들 쪽방이나 별집이 일정한 곳에 밀집한 상황을 일컬어 별집촌이나 쪽방촌이라 한다. 별집을 공단 여공들의 자취공간으로 보아 별도 부엌을 갖춘 경우로 특정할 때 쪽방과 엄격히 구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공간은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을 정도로 비좁고 대각선 방향으로 누워야 다리를 펼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통상 쪽방이나 별집은 나무사다리를 이용하여 오르내릴 수 있는 중이층重二層 형식으로 무허가나 등기가 없는 비공식 건축물인 동시에 토지와 주택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다. 관리 역시 재임대 등 다단계 구조로 복잡해 이곳 거주자들은 주거복지의 최우선 대상이다. 도심지와 외곽을 가릴 것이 없이



쪽방 내부 평면도

쪽방 주민의 주거실태 및 주거안정대책에 관한 연구 | 대한주택공사



가리봉동 별집촌 | 서울 구로구 | 서울역사박물관

곳곳에 퇴적한 별집촌은 주거공간 개선의 최우선 대상이라 할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쪽방이나 별집이 언제부터 발생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 정확하게 그 연원을 파악할 수는 없으나 1인 거주자가 보증금이 없는, 게다가 전용 화장실이나 부엌조차 갖추지 못한 아주 협소한 공간에 살게 되었다는 사실로만 판단하자면 그 역사가 짧지 않은 것만은 분명하다. 일제강점기 몰락 이농민과 도시의 세공민이 살았던 토막이며 움집, 혹은 1960년대의 하천변 판자촌을 철거하며 조성된 도시 외곽 구릉지의 철거민정착촌 등에서도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의 별집이나 쪽방은 1997년 말 외환위기의 여파로 가족의 해체에 따른 노숙자의 기하급수적 증가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쪽방상담소가 설치된 시점을 전후해 기원을 찾을 수도 있

다. 2012년 조사에 따르면 별집과 쪽방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상주인구와 그 이하로 머무는 유동인구로 나눠볼 때 이들의 비율은 대략 9:1로 파악된다.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에 따라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이 누적되고 있다. 따라서 일용직 단신 거주자들의 임시숙소인 별집과 쪽방은 낡은 건축물의 개조와 변경을 거치며 점점 늘고 있는 실정이다.

1995년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서는 모든 사람들의 건강, 안녕, 안정을 위해서는 국가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과 함께 부적절한 주거상태에 봉착한 사람들은 사회에 도움을 요청할 당연한 권리가 있음을 밝혔다. 이때의 권리란 포괄적 주거권으로, 국가가 영속적이고 구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함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가난한 이의 살림집(노익상, 청어람미디어, 2010), 영등포 쪽방촌 리모델링 시범사업(서울특별시, 2013), 쪽방 주민의 주거실태 및 주거안정대책에 관한 연구(한국도시연구소, 대한주택공사, 2005), 한국인 어떤 집에서 살았나(김혜숙 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7).

필자 박철수(朴哲守)

베개

정의 잠을 자거나 휴식을 위하여 누울 때 머리에 괴는 물건.

내용 베개를 언제부터 사용하였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현재 전해지고 있는 베개 유물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은 6세기 초 백제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왕과 왕비의 베개이다. 통나무를 베개모양으로 만들어 겉에 주칠朱漆을 한 후 봉황문과 비천문 금박장식을 하였다. 문헌기록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고려도경高麗圖經』 권29로, 여기에 수놓은 베개[繡枕]라는 말이 나오는데, 청자상감운학모란문침靑磁象嵌雲鶴牡丹文枕은 장방형으로 속이 비어있는 고려시대 청자베개이다.

조선시대 『금침발기衾枕件記』의 궁중용 이불과 베개 자료 중에서 다홍색 바탕에 봉황·용·십장생·기린·오리·칠보·연꽃·모란무늬를, 유청 바탕에 쌍용·



베갯모 |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학과 복숭아 무늬 등 동물과 식물 무늬 등을 자수하여 베개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다.

경운박물관 소장품 궁중용 베갯모는 옥玉으로 조각한 수壽·복福자를 중심으로 용龍무늬를 정교하게 금사자수한 것이다. 홍색紅色 공단貢緞의 사각 형태에 복자 무늬가 있는 것은 남성용, 청색靑色 공단貢緞의 둥근 형태에 수자 무늬가 있는 것은 여성용이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남자는 원형圓形, 여자는 방형方形이라는 형태의 구분이 반드시 지켜지지는 않았다.

베개의 몸체는 대나무·나무·도자기·가죽·나전·화각·돌 등의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고, 죽침竹枕·목침木枕·도자침陶瓷枕·피혁침皮革枕·나전침螺鈿枕·화각침畫角枕·석침石枕이라고 불렸다.

전통적인 베개의 형태는 긴 원통형이 가장 일반적이나 둥근형, 사각형, 반달모양 등도 있다. 형태를 만들어 속에 왕겨나 메밀껍질 등을 넣고 봉한 다음 백색 무명으로 호청을 만들어 겉을 씌운다. 즉 베개는 베개몸체·베갯속·베갯잇·베갯모로 구성되었으며, 베갯모 형태는 둥근형·사각형이 있다. 베갯모는 화각·나전·자수 등으로 장식하여 만든다. 장식판에는 수복·부귀富貴·춘화春花·추실秋實 등의 장수·다산과 복을 기원하는 문자를 새기거나, 모란과 학·사군자·십장생 등을 수놓기도 하였으며, 한가지 무늬보다는 복합무늬를 많이 사용하였다.



베갯모 | 가로12 세로9 | 국립민속박물관

불로침不老枕은 장수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사방으로 여섯 개의 구멍이 뚫려 있어서 머리가 닿는 부분에 공기가 서로 통하고 압박감이 적다. 오래 누워서 생활하는 환자나 노인에게 특히 적합하다고 한다. 구봉침九鳳枕은 한 쌍의 어미봉황과 일곱 마리의 새끼봉황을 수놓아 만드는 혼수용 베개로 다산을 상징하며 신부가 혼인하기 전에 미리 자수를 놓으며 준비한다고 한다.

퇴침退枕은 작은 궤 모양으로 만든 남성용 베개로 서랍이 달린 것도 많지만, 사방을 막아 살구씨 같은 것을 넣어서 흔들면 딸가닥 소리가 나는 것이나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접이식 목침도 있다. 등나무 줄기를 엮어서 만든 등침藤枕, 판재로 짜서 복판에 풍혈을 뚫은 풍침風枕, 경상남도 통영에서 나전을 박아 만든 나전침螺鈿枕 등 퇴침은 주로 낮잠이나 잠깐 쉴 때 주로 사용하는 베개이다. 골침은 전라남도 나주지방의 특산물로 벚짚을 눌러서 직육면체를 만들고 겉을 형겅으로 짠 것이다. 베개보다는 탄력이 있고 목침보다는 폭신하여 감촉이 좋다고 한다. 베개는 낮게 베야 장수한다는 설이 있으나, 각자 습관에 따라 높이가 다르므로 알맞은 치수를 정해서 사용해야 한다.

현대에 와서는 숙면을 위하여 베개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으며, 이를 위한 메모리폼 베개, 라텍스 베개, 경추지압용 베개 뿐만 아니라 오리털 등의 폭신한 재료를 속에 넣어 만드는 베개도 생겨났다. 이들은 옆에 모를 붙이지 않고 넓적한 모양으로 만들어서, 베갯잇을 따로 바느질하지 않고 통으로 씌워 세탁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특징 및 의의 베개는 베갯속 재료에 따라서 결명자베개, 녹두베개, 국화베개, 쑥베개, 깃베개, 꽃베개 등이 있다. 베갯속 재료는 주로 몸에 이로운 것으로 메밀이나 벼 껍질은 폭신하면서 탄력이 있어 머리의 혈액순환에 좋고, 결명자·말린 국화는 머리와 눈을 맑게 해주며, 쑥은 살균효과가 있고 머리 뒷부위를 덥혀주어 고혈압에도 좋다고 한다. 녹두는 머리가 시원해지고 풍이 없어지며 눈이 밝아진다고 하여 특히 어린아이에게 좋다고 한다. 이러한 재료를 사용한 선조들의 지혜는 베갯속 하나에도 건강에 유익한 재료를 사용하여 생활에 편리하도록 관심을 가져 왔음을 말해준다. 이 외에도 갓난아기용은 누워서 뒤척거리도 베개가 밀리지 않도록 쌀이나 조·수수를 넣어서 작게 만들기도 하였다.

베갯모에 넣은 무늬는 당시 사람들의 소망과 의지, 소박한 염원을 반영하여 다남多男·다복多福과 부귀·장수長壽, 고결高潔, 지조, 사랑, 신의 등을 상징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 상징적 내용들은 글자무늬, 식물무늬, 동물무늬와 혼합한 무늬로 재치있게 표현하였다.

참고문헌 국립중앙박물관명품도록(국립중앙박물관, 삼화출판사, 1972), 전통한복양식(손경자, 교문사, 1990), 조선시대 침구에 관한 연구(박지연,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조선향토대백과(평화문화연구소, 2008), 한국복식사(석주선, 보진재, 1978), 한국민족문화대백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최은수(崔銀水)

베란다

정의 건물의 외벽에 부가된 반외부 공간으로, 지붕이 있으며 외기에 면한 공간.

개관 ‘베란다(veranda)’는 서양 및 이집트·인도 등지에서 유래한 용어로, 건물의 상부층에 돌출되어 그늘을 형성하는 반외부공간이다. 베란다는 시작은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특히 도시 주거에서 외부공간의 부재를 보완하고 내부공간의 기후 조건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 왔다. 우리나라에 베란다라는 용어는 개항기의 서양식 주택, 일제강점기의 일·양·洋 절충식 주택을 통하여 소개된 이후 6·25전쟁 후 건설된 다수의 서양식 단독주택에 도입되었다. 단독주택의 경우 건물의 상층부가 아니라 1층의 마당에 접한 부분에 설치된 노대露臺, 즉 테라스terrace를 베란다로 혼용하여 부르기도 했다. 다층多層 공동주택이 보급되면서부터 본래 뜻에 맞게 상부층에 반외부 공간을 베란다로 설치하게 되었다. 현재 발코니balcony와 혼용하여 사용되는 일반 용어이다.

내용 한국 주거에서 베란다는 보통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상부층 전면에 난간과 함께 설치된다. 주로 거실의 전면에 위치하고, 기타 공간의 전면에는 선택적으로 존재한다. 내부공간과 외부공간 사이 완충 공간으로서의 베란다 기능은 매우 다양하다. 여름에는 내부공간으로 유입하는 일조를 차단하고, 겨울에는 찬 외기로부터 열을 지켜주는 기후 조절 역할을 한다. 화재 등 재난 발생 시에는 피난 공간이 된다.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외부공간을 대신하는 공간으로서 휴식과 조망 장소로도 이용된다. 베란다는 내부공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세탁, 빨래 널기 등의 생활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건물의 후면에 이러한 부가 공간이 있을 경우 ‘후면 베란다’라는 용어가 일상에서 사용되는데, 이는 흔히 다용도실로 정의된다.

한국의 건축법상 베란다 설치에서 돌출된 부분의 깊이는 1.5m 이하여야 하고, 길이에는 제한이 없다. 또한 안전을 위하여 규정에 맞는 난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베란다는 건물과는 별개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난방도 하지 않는 공간이다. 생활 편의를 위하여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한국의 주생활

문화에서는 마당을 대신하기도 한다. 기능이 다양한 베란다는 원래 외기外氣에 노출된 공간이어야 하지만 겨울철 보온을 위하여 대부분 유리를 부가하여 사용한다. 이뿐만 아니라 실내공간을 베란다까지 연장하여 확장하는 사례가 일반화되었다.

특징 및 의의 베란다 혹은 발코니는 건축법상 주거 전용 공간에 포함되지 않고 부가로 제공되는 서비스 공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베란다 공간 확장 행위는 처음에 불법이었으나 확장이 빈번해지자 2005년 이후에는 합법화되기에 이르렀다. 오늘날 건설되는 아파트에서는 거의 ‘베란다(발코니) 확장형’ 평면이 제공된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주거공간, 특히 아파트에서는 합법으로 베란다 공간은 존재하지만 사용 측면에서는 내부공간과 구분할 수 없는 가상 속 공간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베란다는 도입 초기에 거실 전면에만 설치되어 돌출부를 구성하였지만 현재



베란다 | 서울 강남구 | 2017 | 서울역사박물관

는 대부분 주거공간 전면 전체에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그 형태를 알아볼 수 없고, 원래 발생 목적과는 매우 다르게 변형·변용되어 있다.

참고문헌 박철수의 거주박물지(박철수, 집, 2017), 집-집의 공간과 풍경은 어떻게 달라져 왔을까(전남일, 돌베개, 2016), 한국 주거의 공간사(전남일, 돌베개, 2009), 한국건축개념사전(한국건축개념사전기획위원회, 동녘, 2013), 한옥과 한국 주택의 역사(권용찬·전봉희, 동녘, 2012).

필자 전남일(田南一)

바

벼락달이창

벼락달이창

정의 위에 돌쩌귀가 있어서 밑에서 밀어 열 수 있도록 한 창.

개관 한옥에서 벼락달이창은 창 윗부분에 돌쩌귀를 달아 문인방에 걸속하여 창을 거미 아랫부분을 들어서 밑에서 위로 밀어 열 수 있도록 한 창문이다. 손을 놓으면 벼락처럼 빠르게 아래로 떨어져 닫힌다는 것 때문에 벼락달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만 벼락달이창과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열리는 반달이 앞면의 문판 개폐 방식 또한 벼락달이라 부르기도 하므로, 열리고 닫히는 방향보다 문짝이 떨어져 내린다는 데에 중점을 두고 사용되는 단어일 수도 있다.

내용 벼락달이창은 상인방에 달린 돌쩌귀가 창문 상단을 붙잡아 매단 형태이다. 창문 하단을 바깥쪽으로 밀면서 위로 들어 열고 안쪽으로 당겨 닫는다. 돌쩌귀는 위에서 문을 잡아 주어야 하기 때문에 튼튼해야 한다. 열린 채로 고정시키려면 아래쪽 창틀과 창문 하단 문올거미 사이를 버팀쇠나 막대 등으로 받쳐 둔다. 일반적으로 중방 위 높은 곳에 설치한다. 주로 행랑채의 바깥쪽 창호에 쓰이거나 방의 후벽에 창을 달 때 쓴다. 화방벽이 있는 곳에서는 중방을 경계로 화방벽 위에 설치한다. 창 모양은 정방형에 가깝게 또는 긴 장방형으로 만들기도 하며, 살의 짜임은 다양하게 구

사할 수 있다.

벽의 높은 곳에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개폐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된 기능은 채광과 환기이다. 또한 실내에서 창 가까이에 서 있는 사람은 문을 들치고 밖을 살짝 내다보는 것도 가능하다. 벼락달이창의 외부 조망 기능과 관련된 흥미로운 용례를 경상북도 안동 하회 양진당(養眞堂)의 안채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회마을 풍산류씨(豊山柳氏) 가문의 큰 종가인 양진당의 안어른들은 손님에 따라 걸맞은 접객을 위하여 사랑채 마당에 들어선 손님이 어떤 사람인지 바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하였다. 하지만 손님을 살피더라도 내외가 엄격한 사대부 집에서 손님과 안채 사람들이 직접 눈이 마주치는 것은 피해야 하였다. 이 때문에 양진당 안채에는 대문과 사랑채 마당을 조망할 수 있도록 설치된 다양한 형태의 벼락달이창을 통해서 어떤 손님이 왔는지를 파악하였다. 벼락달이창은 위로 민 손만 놓으면 바로 닫히기 때문에 손님과 시선이 닿는 것을 피하고 내외의 구분을 지킬 수 있었다.

『영건의궐』(2010)에서는 민가에서 벼락달이로 알려져 있는 창호가 조선 영건의궐에서 ‘擧窓’, ‘扃窓’, 또는 ‘擧’ 밑에 ‘乙’자를 붙인 걸자를 쓴 걸창으로 표기되어 있다고 밝히고 이들을 들창 또는 걸창으로 해석하였다. 의궐에서 들창, 걸창은 주로 행랑 외부 창호로 많이 사용되었는데, 들창 명칭은 1834년을 끝으로 의궐에서 사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표준국어대사전』과 『한국건축사전』(2005)에는 벼락달이가 ‘위쪽은 붙박이고 아래쪽만 오르내려 여닫는 창문’으로 기재되어 있어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이 설명은 장기인(2005)의 벼락달이 표제어에 ‘single hung window’라는 영문 표제가 병기되어 있어 주로 서양식 근대 건축물에 쓰이는 창문 형태를 기존의 한국 건축용어를 빌려 이름을 붙인 것으로 보이므로 한옥과는 별개로 간주해야 한다.

특징 및 의의 벼락달이창은 벽 위의 높은 곳에 설치하고 들어서 여닫는 창호이다. 좌식 생활공간에 맞추어 나지막한 머름 위에 설치된 큰 창호를 열 경우 부득이하게 실내가 노출되게 마련이다. 반면 바닥면에서 높



벼락달이창 | 주택문화사

이 떨어진 곳에 작게 만든 벼락달이창은 열어 두어도 내부의 상황이 그다지 드러나지 않고 여의치 않을 때에는 재빠르게 닫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환기를 하거나 외부 상황을 살짝 내다보는 등의 용도에 활용되었다.

참고문헌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김왕직, 동녘, 2007), 영건의궐(영건의궐연구회, 동녘, 2010), 한국건축대계1-창호(장기인, 보성각, 1993), 한국건축대계4-신편 한국건축사전(장기인, 보성각, 2005), 한국의 문과 창호(주남철, 대원사, 2001), 한옥 전통에서 현대로(조전환, 주택문화사, 2008), 국립국어원(korean.go.kr), 두산백과사전(doopedia.c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향토문화전자대전(grandculture.net).

필자 이우중(李雨鍾)

벽

정의 바람벽의 준말로, 건물이나 방의 주위를 수직으로 둘러막은 건조물.

개관 벽은 주거건축에서 공간의 경계를 설정한다. 건물의 외곽에 사용되면 외부공간으로부터 주거공간을 구분하며, 건물 내부에 사용되면 실내공간을 세분화한다. 한반도 주거건축에서 벽이 등장하는 시기는 기둥과 지붕 가구가 본격적으로 사용되는 철기시대로, 이때 벽이 지붕과 구분되어 수직으로 세워졌다고 할 수 있다. 삼국시대 통치자의 무덤에서 벽돌을 수직으로 쌓는 조적벽의 성숙미를 볼 수 있고 가형토기에서 당시에 튼튼하게 만들어진 벽체의 형태를 유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시에 벽을 만드는 재료와 공법이 상당히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내용 벽의 기본 기능은 공간의 경계를 정하는 것이다. 벽은 세워지는 순간 여러 공간을 설정하는 동시에 소유를 분명하게 표시한다. 동시에 대자연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피난처를 형성하는 방어벽이 된다. 주택에서 벽을 사용하여 실내공간의 규모와 용도를 결정하는 것은 사용자 안전을 꾀하는 원초적 요구와 주택 내에서의 행위를 세분화하는 기능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이다. 건물 밖으로 치면 도시공간을 구분하는 담장이 된다. 학교나 관청의 담장이 공공장소의 경계를 짓고 성격을 구분하는 역할은 건축물 내에서 벽이 하는 역할과 유사하다. 그래서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서는 담과 벽을 아울러 ‘장벽(牆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바 있다. 벽을 한자로는 ‘壁’으로 쓰며, 흙이라는 뜻의 土(흙 토)와 ‘피하다’ 또는 ‘벗어나다’라는 뜻의 辟(피할 피)가 결합한 글자이다. 즉 흙을 쌓아서 외부의 비바람과 침입으로부터 피하려는 목적으로 벽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주거건축의 발생은 선사시대로 올라가지만, 땅을 파고 내려가서 바닥을 마련하고 벽과 지붕을 원추형의 경사진 지상 구조물로 단번에 형성하는 움집에서는 벽과 지붕을 구분하기 어렵다. 주거건축의 구조체가 기둥과 같은 수직재와 도리와 같은 수평재로 구분되는 철기시대가 되어서야 기둥을 세우고 기둥 사이에 수직으로 형성된 벽이 만들어졌다. 즉 벽의 출현은 지붕의 등장과 함께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처음 출현한 벽은 현재와 같이 기밀성 있는 벽이라기보다는



벽

자연 재료로 벽면을 채운 가림판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벽의 재료는 큰 잎사귀나 줄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에 움집의 지붕을 덮었던 재료가 벽으로 연장되었으리라는 추정이다. 이 방식은 지금도 헛간을 간단하게 지을 때 활용되기도 한다. 수렵생활을 위주로 하는 지역에서는 짐승의 가죽이 벽을 만드는 데에 이용되었을 것이다.

한반도에서 기와지붕을 갖춘 건축이 시작된 삼국 시대에는 벽돌벽, 판벽, 토벽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선사시대와 고대에서 주거건축의 벽을 확인할 수 있는 유적은 남아 있지 않지만, 유사 건축유물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 벽돌벽은 백제 무령왕릉(武寧王陵)을 비롯한 통치자의 고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분 속 벽돌벽은 공간을 구획하는 칸막이벽과 달리 외부의 흙더미가 내부로 침입하지 못하게 하는 흙막이벽 성격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벽돌을 필요한 크기로 제작하고 문양을 새기는 기법을 마련하며, 벽돌을 수직으로 가지런하게 쌓고 반원형 천장인 궁륭까지도 만드는 솜씨는 이미 벽돌 활용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었음을 보여 준다. 판벽은 나무널로 기둥 사이를 막아 만드는 벽이다. 나무를 판재로 만들려면 잘 드는 톱이 있어야 하는데, 건축공사에 사용된 철제 연장이 사용되는 시기를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판벽의 시작을 확정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이미 고구려에서 작은 창고인 부경(浮京)을 만들 때에 통나무를 횡으로 쌓아서 귀틀집 유형을 사용하였다는 점은 목재로 공간을 구획하는 시도가 일찍부터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

벽은 사용 재료에 따라 토벽, 판벽, 벽돌벽, 화방벽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토벽은 건물의 기둥과 상하 인방 사이의 공간에 외벽기로 벽체의 뼈대를 만들고 짚여물과 석회를 섞은 흙반죽을 안팎으로 두툼하게 발라서 만든 벽 유형이다. 먼저 외벽기의 실내 측에 흙반죽을 바른 뒤 적당히 마르면 외벽기 실외 측에 흙반죽을 바르는 초벌바르기를 진행한다. 초벌이 잘 마른 후에는 흙반죽을 3푼 정도의 두께로 재벌바르기를 한다. 재벌까지 잘 마르면 회반죽·진흙 또는 삼화토(三和土)를 사용하여 정벌바르기를 진행하고 벽

의 전체 두께가 인방의 두께에 맞추어지도록 마무리한다. 토벽은 구조상 외벽기를 기준으로 안벽과 바깥벽을 합쳐서 만들어진다. ‘안벽 치고 발벽 친다’라는 속담은 이편에 가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편에 가서는 저렇게 말해서 이간을 붙인다는 뜻이다. 위치에 따라 벽의 속성이 달라지는 모습에서 유래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토벽을 만드는 순서이기도 하다.

판벽은 널빤지를 가로 또는 세로 방향으로 막아 대어 만든 벽으로, 한옥의 부엌이나 창고 등에서는 주로 세로판벽을 사용해 왔다. 판벽은 상하 인방이 벽체와 만나는 부분에 널판 두께의 홈을 파고 널판을 세로 방향으로 끼워 막는다. 고정된 널판의 중간에 수평으로 한 줄 또는 두 줄의 띠장을 두르고 널판과 못을 박아 고정한다. 근대건축에서는 비아무림이 좋은 가로판벽이 주로 사용되었다. 위쪽 가로널판이 바로 아래 가로널판의 상단부를 덮으면서 걸쳐지는 비늘판벽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세로판벽에서는 틈막이대를 막아 대거나 반턱맞춤으로 틈새를 없애고자 하였다.

벽돌벽은 흙을 직육면체로 빚은 후 구워서 만든 벽돌을 쌓아서 만든 벽이다. 전돌을 사용할 경우 전돌벽으로 구분하여 부르기도 한다. 또한 흙을 직육면체로 구워서 굽지 않고 말려서 사용할 경우에는 흙벽돌로 구별하기도 한다. 벽돌은 삼국시대에 백제의 고분에 사용된 바 있으며, 조선시대에는 중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수원 화성 축조 시에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그룹에도 불구하고 고유의 제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민가보다는 궁궐이나 국가시설에서 사용하였다. 근대건축에서는 일본의 건축기술과 중국의 벽돌공을 통해서 벽돌로 지은 조적조 건축물이 세워졌으며, 1907년에는 서울 마포에 연와제조소가 설립되어 벽돌을 전담하여 생산하기도 하였다.

화방벽은 목조건물의 화재 연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벽의 바깥면에 사고석(四塊石)을 쌓아 불길을 막는 방화기능을 갖춘 벽 유형을 말한다. 사고석은 표면 가로와 세로가 20~30cm 이내, 보통 사방 25cm의 크기에 두께는 표면 한 변 길이의 0.5~1.2배이고 뒤편이 뿔형으로 다듬어진 석재를 말한다. 사고석을 지면에서부터 처마 밑까지 벽면의 전체 높이로 쌓은 것

을 화방벽이라고 하고, 벽면 절반 높이에 해당하는 중방 높이까지 쌓은 것을 반화방벽이라 한다. 화방벽은 종묘, 향교, 서원 등의 제향공간에서 봉안 대상을 외부의 침입과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뒷벽 등에 사용해 왔다. 민가에서는 북촌 도시형 한옥과 같이 주택의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문간채 외벽에 사용하여 다른 건물의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

벽은 조성되는 위치에 따라서 외벽·내벽·고막이벽·당골벽·포벽·합각벽 등으로도 구분된다. 벽이 외기와 접할 경우 외벽 또는 바깥벽·발벽이라고 하며, 실내에 세워질 경우는 내벽 또는 안벽이라고 한다. 특별히 마루나 온돌방 하부에 실내외를 구분하기 위하여 설치한 벽을 고막이벽이라고 하며, 서까래 사이의 빈 공간을 메우는 벽을 당골벽, 공포가 사용된 꽃집에서 공포 사이의 빈 공간을 메우는 벽을 포벽이라고 한다. 팔작지붕의 측면 상부에 만들어진 삼각형의 작은 벽은 합각벽이라고 한다.

특징 및 의의 벽과 담은 공간을 둘러막거나 구분하는 기능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실내공간을 둘러싸면 담이 된다. 전통한옥의 행랑채와 서울 북촌 지역의 도시형 한옥 문간채에서 건물 외벽이 담장의 역할을 겸하기도 하는 경우를 보면, 벽과 담은 일정 부분 서로 공유하는 역할이 있다. 벽은 칸막이 또는 간벽으로서 지붕이 덮인 실내공간을 분할하는 기능도 겸하고 있다. 간벽은 단일한 실내공간에 서로 다른 위계와 기능을 함께 담을 때에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대에 따라 복잡화, 다양화되는 주거공간의 발전 과정을 보여 준다. 간벽이 없는 선사시대의 초기 움집이 청동기시대와 철기시대를 거치면서 의례공간과 생활공간을 구획하였다. 한옥이 근대기에 채로 나누어 사용하던 방식을 통합하여 단일 건물로 만들고 벽을 만들어 화장실까지도 포함하는 많은 수의 실을 하나의 지붕 밑에 공존하게 하는 방식이 이에 해당한다.

실내공간 영역을 규정하는 벽은 외부의 비바람과 침입으로부터 내부를 보호할 수 있는 내구성을 확보해야 함과 동시에 거주에 적합한 실내환경을 조성해

야 하기 때문에 미려한 형상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이유에서 판벽에는 세로방향 널판 위에 횡으로 띠장을 두르고 흙벽에는 사고석을 다시 쌓아 화방벽을 조성함으로써 방어력을 강화하는 한편, 내부에서는 판벽에 틈막이대를 붙여 틈새를 막아 대거나 흙벽에 도배를 하여 표면을 단장하였다.

참고문헌 건축시공학(장기인, 보성문화사, 1982), 한국건축대계4-신편 한국건축사전(장기인, 보성각, 1998), 한국건축대계8-재료(장기인, 보성각, 1999), 한국의 전통미장기술(김진옥, 성안당, 201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장필구(張弼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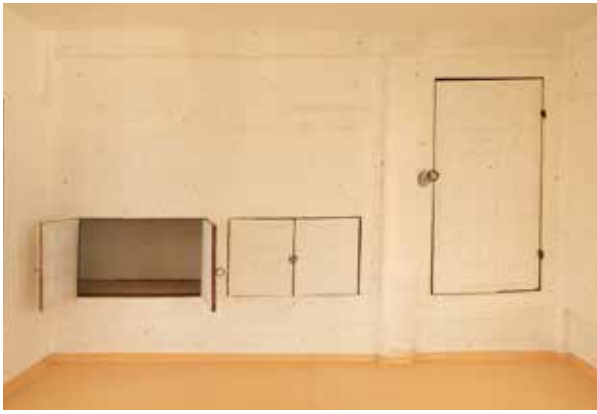
벽장 壁藏

정의 집안 생활용품을 넣기 위하여 실내 바닥면에서 일정한 높이를 두고 벽에 붙여 만든 작은 수납 시설.

내용 현대사회에서 물건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은 주 생활에서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 최근에는 가구보다 별도의 수납공간을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전통사회에서도 선반, 벽장, 다락, 뒤주, 시렁, 찬장 등 각 실의 용도에 맞는 다양한 수납시설이나 공간을 마련하였다.

벽장壁藏은 전통사회에서 서민이나 상류층 가옥 구분 없이 널리 설치된 수납공간이다. 가옥 내 방의 단위 면적은 좁았고 특히 서민 가옥에는 가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벽장 같은 공간은 매우 유용한 수납처였다. 수납 물품은 생활용품에서부터 침구류와 의류 등 매우 다양하였다. 침실에 딸린 벽장에는 이불, 요, 방석 등 침구류나 자주 사용하는 생활용구를 넣었다. 부엌 벽장에는 그릇과 부엌용품 등 식생활 관련 용품을 넣었고, 뒷마루 한쪽 모퉁이에 벽장을 설치하여 잡다한 생활도구를 보관하였다.

벽장 구조는 대체로 간단하다. 안방의 경우 목구조를 부엌 부뚜막 쪽으로 50~80cm 가 나오게 설치하고, 벽체를 만든다. 방에서는 사람 허리 정도의 높이



벽장 내부 | 경기 남양주 궁집 | 서헌강



벽장 외부 | 경기 용인 한국민속촌 | 국립민속박물관

가 되어 편리하고 부엌도 바닥 높이가 낮기 때문에 사용에 불편함이 없다. 즉 부엌 부뚜막 상부에 떠 있는 구조로 유희공간을 적절히 활용하였다. 건넌방이나 부엌에는 외벽 바깥으로 돌출되게 설치한다. 즉 처마 밑을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지붕이 필요 없다. 그리고 지반면에서 일정한 높이로 띄우기 때문에 습기를 방지하고, 바닥면 높이도 방바닥보다 높기 때문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전통가옥에서 벽장과 대비되는 건축 구조로는 다락이 있다. 벽장이 작은 수납처였다면 다락은 큰 수납처로, 보통 부엌 상부 전체에 설치하였다. 중층 구조의 다락도 있었으며, 아녀자들의 휴식 공간으로도 활용되었다.

특징 및 의의 벽장은 과거 전통 주생활에서 매우 요긴하게 사용된 수납공간이다. 신분 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가옥에 설치되었고, 구조도 매우 간단하여 설치에 기

술이 크게 들지 않았다. 부족한 실내를 보완한 일종의 공간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벽장의 의미는 매우 크다.

참고문헌 한옥 전통에서 현대로(조전환, 주택문화사, 2008).

필자 김지민(金知民)

변기 便器

정의 대소변을 보는 좌·입식 용기.

개관 변소라고 불리는 한국 전통가옥의 화장실은 실외에 배치되어 방에서 대청마루를 지나 신을 신고 가야만 하던 재래 화장실이었다. 20세기 초 서구 문화 영향으로 서양식 주택, 한식 개량주택이 확산되면서 화장실과 세면을 겸비한 욕실이 실내로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서구식 화장실은 양변기로 불리는 좌변기를 설치하여 실내에서 편리하게 생리 현상을 해소할 수 있게 하였고, 위생 상태로도 건강하였다. 좌변기 설치는 1970년대 아파트의 본격 등장과 함께 보편화되었고, 현재는 최고 상태의 위생을 위한 최첨단 비데 좌변기가 개발되고 있다.

내용 양변기로도 불리는 좌변기는 현대 화장실에서 세면대와 더불어 필수 요소이다. 한국 전통주택인 한옥의 화장실은 뒷간이라 불리며 구조상 본체와 떨어져 실외에 위치하고 있었다. 따라서 화장실이 실내로 들어와 좌변기를 사용하게 된 것은 사실상 혁명이었다. 도기로 만들어진 좌변기는 크게 물통(물탱크)과 몸통(보디)이 분리된 형태, 물통과 몸통이 하나로 되어 있는 일체형 두 가지로 분류된다. 그리고 몸체 뒷부분이 노출되어 청소하기 어려운 수로 노출형(개방형), 치마처럼 가려져 청소가 용이한 수로 밀폐형(치마형) 두 종류로 나눈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좌변기의 유형을 살펴보면 물통과 몸체로 구성된 투피스 양변기, 원피스 양변기, 반피스 양변기, 벽배수관형 양변기가 있다. 또 물통이 없이 직수형으로 물 수압이

중요한, 하나의 몸체로 되어 있는 일체형의 플러시벨브형 양변기와 비데 일체형 양변기 등도 있다.

초창기에는 기본형이면서 가장 일반화된 투피스 양변기를 사용하였다. 이후 원피스·반피스·벽배수관형·플러시벨브형 양변기가 개발되었고, 현재 비데 및 일체형 양변기로 발전하였다. 비데형 양변기는 일반 양변기의 시트 위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시트 비데와 일체형 비데가 있다. 높은 물 수압을 요구하는 비데일체형 양변기, 플러시벨브형 양변기, 벽배수관형 양변기는 물탱크가 없거나 벽에 매립되어 있어 세척력이 강하다. 플러시벨브형 양변기는 소음이 커서 상업용으로 사용하고, 일체형 양변기와 벽배수관형 양변기는 고급형이어서 주로 호텔·고급레스토랑·백화점 등에 설치된다. 하지만 최근 비데가 일반화되어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에서도 고가의 고급형 비데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비데bidet는 국부세척기라는 말로, 프랑스에서 여성의 위생을 위하여 개발되어 발전된 것이다. 오늘날 휴지 소비를 줄이면서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국내 비데는 양변기 위에 있는 커버를 제거하고 설치하는 시트 비데와 일체형 비데가 있다. 초기의 비데는 단순한 세척이나 건조 등에 주력하고 비데의 청결이나 사람의 체형 등은 덜 고려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체공학으로 개발된 곡면시트와 자외선램프의 자동 살균에 의한 청결 및 항균 기능, 여기에 스파 기능이 더해져서 화장실을 더욱 깨끗하고 안락한 힐링 공간으로 만들어 주고 있다.

특징 및 의의 한옥은 대청마루 중심으로 그 둘레에 방이 있고, 부엌과 뒷간으로도 불린 화장실은 마루를 통과하여 갈 수 있거나 별채의 건물에 따로 두었다. 서구에서 유입된 욕실문화는 추운 겨울에도 실내에서 따뜻한 물로 세면을 할 수 있고 좌변기의 설비로 편리함을 주면서 생리위생과 건강관리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오늘날 살균과 항균, 스파 기능을 겸비한 최첨단 비데의 확산은 청결함·편리함·안락함을 제공하는 등 개인이 쉴 수 있는 최고의 사생활 힐링 공간이 되어 가고 있다.

참고문헌 세면기 디자인에 관한 연구(구창모,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아파트 거주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가사작업공간 사용행태와 의식(김진영,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아파트가구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남영락, 서울산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욕실 세면기 개발에 관한 연구(박윤선,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주거문화적 배경으로 본 아파트 단위세대 주방공간의 계획 특성에 관한 연구(정다운,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한국가구의 역사(조숙경, 미진사, 2019).

필자 문선옥(文善玉)

별당 別堂

정의 주택에 속하는 건물로, 안채·사랑채·행랑채·대문채 등 기본 용도 외에 별도의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

내용 별당別堂은 말 그대로 별도의 목적을 위하여 지어진 건물이다. 경우에 따라 주택 안에서 사랑채의 연장이 되어 가장家長을 위한 다목적 용도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집안 사정에 따라 가족 구성원 가운데 딸을 비롯한 자녀 또는 은퇴한 노인들의 거처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사랑채에 부속된 경우를 외별당이라 하기도 한다. 지역사회에서 대화가 이루어진 공공장소이자 마을 안에서 사회·문화·경제 부문의 중심이 되는 구실을 담당하였다. 이와 비교하여 혼인을 앞둔 딸이나 노인 등이 사용하는 경우는 내별당이라 할 수 있다. 외부로부터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었다. 별당의 입지는 주택 입지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외별당은 정원이나 주변 지세에 대한 조망성 및 독서가 가능한 것이 중요 조건이었고, 내별당은 사생활 유지와 한적함이 중요한 조건이었다.

이처럼 별당은 사랑채와 안채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구별될 수 있다. 강원도 강릉 선교장은 안채를 중심으로 서쪽과 동쪽으로 양편에 별당이 마련되어 있다. 사랑채와 가까운 쪽의 서별당은 서재가 마련되어 있어서 외별당이 되고 안채 안쪽의 동별당은 외부 사람들과 분리되어 가족들만의 단란한 생활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사용되어 내별당이 된다.

현재 남아 있는 별당건축은 사랑채에 속하는 경우



해운정 | 강원 강릉 | 문화재청



해운정 | 강원 강릉 선교장 | 국립민속박물관

가 많다. 강원도의 강릉 해운정 海雲亭과 오죽헌 烏竹軒, 경상북도의 영천 송렬당 崇烈堂과 경주 독락당 獨樂堂 및 안동 소호헌 蘇湖軒과 임청각 衿子亭 등이 임진왜란 이전에 건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진왜란 직후의 17세기 건축물로는 대구의 달성 태고정 太古亭, 회덕 동춘당 同春堂, 달성 하목정 霞鵲亭 등이 남아 있다.

해운정과 오죽헌은 一자형 평면으로 좌우 양쪽이 모두 팔작지붕인 경우, 송렬당은 一자형 평면에 양쪽을 맞배지붕으로 하고 맞배지붕 아래에 가작지붕을 덧붙인 경우, 독락당은 一자형 평면에 한쪽은 팔작지붕으로 다른 한쪽은 맞배지붕으로 구성한 경우, 소호헌은 양쪽 팔작지붕 중간에 직각으로 부속채를 맞배지붕으로 구성한 경우, 군자정은 정(丁)자형 평면에서 익사는 맞배지붕으로 구성하고 마루 위 지붕은 한쪽만 팔작지붕으로 구성한 경우가 된다. 한편 17세기

건물로 태고정은 독락당과 같이 一자형 평면에 한쪽은 팔작지붕으로 한쪽은 맞배지붕으로 구성한 경우, 회덕 동춘당은 오죽헌이나 해운정과 같이 일자형 평면에 양쪽을 팔작지붕으로 한 경우, 하목정은 군자정과 같은 모습으로 정자형 평면의 익사는 맞배지붕으로 구성하고 마루 위는 한쪽만 팔작지붕으로 구성한 경우가 된다. 하목정에는 초가지붕 형식이라 할 수 있는 방구매기가 남아 있는 것이 독특하다.

이처럼 별당건축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건축주의 사회 신분과 기호, 지역에 따라 다른 형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별당 건축은 주택 안 건물 가운데 외부를 향하여 가장 개방된 위치에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결과적으로 별당은 건물 내부에서 밖을 내다볼 때 주위 환경이 잘 조망되는 위치에 있었고, 밖에서 보면 시선이 집중되어 가장 돋보이는 모습이다.

조선 후기가 되면 사랑채 별당이 화려해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경상남도 함안의 무기연당 舞沂蓮塘이 대표 사례이다. 종갓집에 부속된 별당으로, 원림을 포함하고 있다. 인공으로 방형 지당 池塘을 만들고 가운데에 섬을 조성하여 축산 築山을 하였으며, 주변은 담장으로 에워싸다. 담장 안에는 풍욕루 風浴樓와 하환정 何換亭의 누정樓亭을 세우고 충효사 忠孝祠, 영정각 影幀閣 등을 배치하여 추모 기능을 포함하는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이 외에도 대구 달성 박황 가옥의 별당인 하엽정 荷葉亭 역시 건물 주위로 연못과 가산을 꾸민 다음 어울리는 식재를 통하여 정원을 새롭게 조성하고 영역 전체를 담장으로 두른 형식을 취하였다. 이들 사례를 통하여 조선 후기에서 말기로 이어지는 사랑채 별당 형식의 경향과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별당은 주택에 속하기 때문에 주택의 입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풍수지리설의 영향을 받아 길지 吉地로 선택된 주택과 그 안에 속한 별당의 입지가 크게 다르지 않다. 정자와 비교하면 독서·접객·사색·관상 觀賞 등의 기능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같지만 정자 건축이 주택과 독립하여서 자연에 더 가까운 입지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는 다르다.

참고문헌 강릉 선교장(이기서, 열화당, 1996), 한국건축양식론(정인국, 일지사, 1988), 한국의 정원(주남철, 고려대학교출판부, 200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grandculture.net).

필자 류성룡(柳成龍)

별서 別墅

정의 살림을 하는 집 외에 경치 좋은 곳에 따로 지어 놓고 때때로 묵으면서 쉬는 집.

역사 조선시대에는 별업(別業), 별저(別邸), 별제(別第) 등으로 불렸으며, 주인의 식견에 따라 집에 당(堂), 정(亭), 재(齋), 와(窩), 정사(精舍), 여(廬), 전(庵), 암(庵) 등의 글자를 넣어서 당호(堂號)를 짓기도 하였다. 특히 별서는 농장이나 들이 있는 부근에 한적하게 따로 지은 집을 말하며, 별장(別莊)과는 뜻이 비슷하나 농사를 짓는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정자는 집의 경내에 짓기도 하지만 강 건너 경치 좋은 자리에 따로 짓기도 하는데, 이것도 별서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별서와 별서정원에 대한 기록으로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의하면 최치원이 당나라에서 돌아와 난세에 실의하여 벼슬을 버리고 경상북도 경주와 영주 등지에 산림 속에 대사(臺舍)(높고 큰 누각이나 정자)를 짓고 풍월을 읊었으며 마산에 별서정원을 조영한 것이 그 기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신라에서는 일부 상류층에 별서주택의 개념인 사절유택(四節遊宅)이 있었다. 이는 철에 따라 거처하는 별장형 주택이 따로 마련되었던 것으로, 그 명칭은 봄철에 동야택(東野宅), 여름철에 곡량택(谷良宅), 가을철에는 단풍이 아름다운 구지택(仇知宅), 겨울철에는 가이택(加伊宅)이라고 불렸다. 고려시대에는 최씨 무신정권 이후 등장한 학자적 관료 사대부들이 자기의 향리에서 은신처로서 별서를 짓고 자연그대로의 임천정원(林泉庭園) 생활을 즐기기도 하였다.

내용 현존하는 별서 건물은 규모와 형식이 다양한데, 이는 주인의 성정(性情)에 따라 각각 특색 있게 구조되

었기 때문이다. 별서의 용도는 삶의 거주처로서의 살림집, 강학과 학문의 장소, 풍류와 위락의 장소로 활용되었다. 특히 주인과 그 가족, 교우, 문인, 문하생, 내방객들에 의한 활동 장소로 그 장소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현대의 별장은 조선시대의 별서보다 더 먼 곳에 조성된다. 즉 조선시대의 별서는 살림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경치 좋은 곳에 조성되어 살림집과의 유대관계가 있었다고 한다면, 현대의 별장은 생활활동의 범위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독립성이 강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조선시대 별서건축과 별서정원은 사화와 당쟁의 심화로 인해 세상을 피하려는 은둔의 풍조, 유교와 도교 사상에 따른 선비들의 풍류적 자연관 등의 배경을 통해 조성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형이 다양하고 공간의 위계가 점차적으로 형성되는 지리적



광동각 | 전남 담양 소재원 | 문화재청



석파정 | 서울 종로구 | 문화재청

환경으로 인해 경승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별장건축을 아름답게 지을 수 있었다. 조선시대의 대표적 별서로는 서울 옥호정玉壺亭·석파정石坡亭·성락원城樂園·부암정傳巖亭, 대전 남간정사南澗精舍·옥류각玉溜閣, 괴산 암서재岩棲齋, 영양 서석지瑞石池, 예천 초간정草澗亭, 양산 소한정小閑亭, 완도 보길도甫吉島 윤선도尹善道 원림園林, 강진 다산초당茶山草堂, 화순 임대정臨對亭, 담양 명옥헌鳴玉軒·소쇄원瀟灑園 등이 있다.

이들 별서건축의 특징은 별서가 우선 산수가 수려한 경승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관의 감상 대상이 담장 안의 공간뿐만 아니라 담장 밖의 공간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별서는 대단위 수공간이나 계류 등을 끼고 있어 물의 공간이 정원 구성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별서정원은 대개 방형이나 장방형으로 나타나며, 그 안에 세워지는 정자는 향과 관계없이 언덕이나 산기슭에 세워진다. 정자의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2칸을 기본으로 하여 3×2칸, 4×2칸 등으로 하였고, 한시적 기거와 강학을 위해 대개 온돌방을 두었다. 온돌방의 위치는 호남지역은 평면의 한가운데 두었지만, 영남지방은 한쪽으로 두었다. 정원의 수경요소로 연못을 둘 경우 방지方池와 중도中島를 두는데, 이는 신선사상과 음양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조선시대 별서정원에 관한 연구(이재근,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한국의 정원(주남철, 고려대학교출판부, 200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남호현(南虎鉉)

屏風

정의 목재 판재에 부착된 한지나 비단 등의 표면에 서화 또는 자수로 예술 작품을 담은, 2폭에서 12폭 크기의 차폐용 장식물.

내용 병풍屏風은 본래 중국 주나라의 천자가 높이 8척

의 판에 자루가 없는 여러 개의 도끼를 도안화로 그려 뒷벽을 장식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삼국시대부터 사용된 기록이 있다. 당시의 병풍은 일상 기물이 아닌 특수한 의미를 띤 것이었다. 즉 병풍은 본래 제례와 관련된 제단화였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신라시대 신분제도를 기록한 항목에 진골과 육두품은 병풍에 수繡를 금한다는 조항이 있다. 『고려도경高麗圖經』에도 관청의 사면에 꽃을 수놓은 병풍을 쳐 놓았다는 기록과 목화 병풍을 하인에게 선물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병풍 역사가 꽤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병풍은 장방형으로 짠 나무틀에 종이를 바르고 종이·비단·삼베에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자수 등을 붙이고, 폭과 폭은 돌쩌귀로 접합시켜 접었다 폈다 하기에 편리하도록 만든다. 병풍은 접힐 때를 고려하여 2폭에서 12폭까지 모두 짝수로 제작되었다. 그림의 내용과 방식도 사용 및 목적에 따라 다양하였다. 12폭과 같이 가장 큰 것은 다루기에 편하도록 둘로 나누어 6폭씩 만들기도 한다. 병풍의 한 장 폭은 36~45cm, 높이는 60~180cm 정도가 일반적이다. 높낮이는 장식과 용도에 따라 다르다. 2폭 병풍은 가리개 혹은 곡병曲屏이라 하며, 머리맡에 치는 얇은 병풍은 머리병풍 또는 침병枕屏이라 한다. 한 가지 주제로만 그린 것은 일본에서 전해진 형식이라 하여 왜장병倭粧屏이라 일컫는다.

병풍에 사용된 그림 내용은 사용 계층과 목적에 따라 매우 다양하였다. 궁중에서는 어좌병풍御座屏風(정전의 용상 뒤에 치는 의전용 병풍), 행렬도병풍行列圖屏風(국가 행사를 기념하기 위한 그림을 그린 병풍), 의궤도병풍儀軌圖屏風(궁중 예법과 규모 등 일의 경과나 경비 등을 알리는 용도의 병풍), 궁궐지리도병풍宮闕地理圖屏風(궁궐과 성곽 등의 모습을 치밀하게 묘사한 그림), 경직도병풍耕織圖屏風(농민이 일하는 모습을 교육적으로 그린 병풍), 세화병歲華屏(정월 초 장수와 복을 비는 그림), 백수백복도병풍百壽百福圖屏風(연회용에서 많이 사용하는, 장수와 행운을 기원하는 그림), 십장생도병풍十長生圖屏風(십장생을 주제로 그린 민화 그림) 등을 사용하였다. 일반 행사나 의례에는 혼병婚



2폭 모란도병



8폭 소상팔경도병



4폭 책가도병



6폭 소병

병풍 | 국립민속박물관

屏(혼인식에 사용되는 병풍), 연회도병풍宴會圖屏風(연회·사회·계회 모습을 그린 기념 병풍), 수렵도병풍狩獵圖屏風(사냥하는 그림) 등이 사용되었다. 사대부와 민간의 주택 실내에서는 연병硯屏(먼지나 먹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벼루 머리에 치는 작은 병풍), 수병繡屏(자수로 꾸민 병풍), 백납병풍百納屏風(여러 가지 주제의 글씨나 탁본, 도장 등으로 구성한 병풍), 삽병插屏(한 주제의 그림이 이어져 그린 병풍), 평생도병풍平生圖屏風(사람의 출생과 죽음까지의 생활 모습을 단계별로 표현한 그림), 계언병戒言屏(사람의 살아가는 도리나 인륜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 문방도병풍文房圖屏風(선비들의 문방 기물을 표현한 그림), 백동자도병풍百童子圖屏風(어린이들의 갖가지 놀이 모습을 그린 병풍으로, 무병장수의 뜻이 내포됨), 노안도병풍蘆雁圖屏風(기러기 떼와 갈대밭을 묘사한 그림으로, 형제간의 우애와 화목을 상징함) 등이 사용되었다. 그 외 도형 설명도병풍圖形說明圖屏風(고대 중국의 주역과 이를 설명한 글귀가 표현됨), 군선도병풍君仙圖屏風(신선도) 등도 나타났다.

조선시대 한옥 실내에서 사용된 병풍은 다양성과 기능 면에서 매우 활발하게 적용되었다. 중국의 병풍은 대개 목판으로 만들어 실내의 차면 설비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 용도이다. 그러나 한국은 제사·혼례·장례 등 의례 생활에 사용된 필수 집기였다. 또한 일상에서는 상류가옥의 안방과 사랑방에서 방 주인이 좌정하는 위치의 배경 장식으로 사용되었다. 병풍의 그림 내용은 이러한 기능과 사용 목적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특히 모란병풍은 전통혼례, 폐백, 경사 의례 때 사용되었다. 상류가옥 안방에서는 화조도 등이 화사한 배경 병풍으로 사용되었으며, 다양한 색상의 꽃과 나비 등이 수놓아진 자수병풍도 애용되었다. 자수병풍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다양한 자수 기법이 교육되면서 크게 확산되기도 하였다. 사랑방에서는 서예, 책가도, 산수화, 문인화 등이 사용되었다.

병풍은 1980년대까지도 보수성의 기풍이 남아 있는 지역에서는 신부가 지참하는 중요한 혼수 품목이었다. 오늘날에도 병풍은 한국에서 제례를 지낼 때

와 전통혼례 때는 반드시 비치하는 주요 배경 용품이다. 그 외에 현대 인테리어에서 전통 양식의 특성을 보여 주는 호텔이나 한정식을 제공하는 고급 식당, 전통한식 주거공간 등에 한국의 미를 표현하기 위한 주요 실내장식 요소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병풍은 차폐 용구이지만 전통미술을 일상에 끌어들이는 다용도 인테리어 용품으로, 배경 장식에서 큰 몫을 담당하였다.

보

참고문헌 민화(부산박물관, 2008), 병풍의 기능에 따른 공간 및 조형성 연구(홍경태,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연구(박정혜, 일지사, 2000), 한국민속대사전(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7).

필자

박선희(朴善姬)

보

정의 정면과 배면 기둥을 연결하는 전통 목조 건축물의 중요한 가구 부재.

개관 우리나라 전통 목조 건축물은 주요 건축 재료가 나무이다. 치목 가공한 목부재가 다양한 결구 방법으로 짜여 있다. 전통 목조 건물의 기본 골격을 이루는 구조재는 기둥, 보, 도리이다. 이들 부재의 짜임을 가구라고 한다. 보는 정면과 배면 기둥을 연결하는 중요한 가구 부재다. 가구 유형은 가구를 구성하는 주요 구조재가 어떤 방식으로 짜여 있느냐에 따라 나뉜다. 가구는 단순한 구조재가 아니라 목조 건물의 평면 규모와 형태, 공간 이용 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기둥과 보와 도리의 짜임새인 가구법은 전후 기둥 위에 보를 걸고 도리를 조립한 전통 목조 건물의 단면 형식이다. 목조 건축물의 가구는 앞뒤로 기둥을 세우고 앞뒤 기둥 상부에 보를 건 후 보와 직각 방향으로 보머리 위에 도리를 걸어 상부 하중을 받는 구조이다. 기둥과 기둥 사이는 구조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안정된 구조를 취할 수 있으므로 목조 가구식 건물은 기둥과

기둥 사이 구성 방식이 자유롭다.

기둥·보·도리의 짜임 방식에 따라 가구식은 천두식과 대량식으로 나뉜다. 천두식은 기둥에 구멍을 뚫어 수평 부재인 인방재 또는 보를 연결하여 수직 부재와 수평 부재의 결속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기둥이 직접 도리를 받는다. 기둥과 기둥을 수평 부재로 조밀하게 연결하므로 실내공간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은 천두식 가구법은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량식 가구법으로 바뀌었다. 대량식은 앞뒤 기둥 위에 보를 걸고, 보가 도리를 통하여 서까래의 지붕 하중을 받는 방식이다. 대량식은 측면 주칸 거리에 따라 보와 도리의 수량이 다르다.

내용 우리나라 전통 목조 건축물은 대부분 가구식으로 짜여 있다. 가구법은 보 위에 있는 도리 수에 따라 분류된다. 도리는 기둥과 보 사이의 공포 유형에 따라



오량가구 보 | 경기 화성 정용수 가옥 | 정연상



대들보·충랑·고주 | 전남 순천 선암사 대웅전 | 정연상

기둥 중심뿐만 아니라 내·외출목에도 걸쳐 있다. 기둥 중심에 있는 주심도리는 서까래의 하중을 직접 받아 보에 전달하지만, 내·외출목의 도리는 초기에 직접 하중을 받지 않았으나 시간이 지나 목 부재가 자리를 잡으면서 하중을 받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대목장은 가구법에서 도리를 산정할 때 그 수를 제외한다.

가구는 측면 주칸 거리에 따라 삼량가구, 평사량가구, 오량가구, 칠량가구 등으로 나뉜다. 삼량가구는 앞뒤 기둥에 보를 걸고 전후 보머리와 용마루에 보와 직각 방향으로 도리 세 개를 거는 방식이다. 오량가구는 기둥 중심 열과 용마루 열, 기둥 중심과 용마루 사이 열에 중도리를 거는 방식으로 도리 다섯 개를 건다. 평사량가구는 오량가구의 용마루 열 도리를 생략하고 앞뒤 중도리에 서까래를 수평으로 거는 방식이다. 칠량가구는 규모가 큰 목조 건물에서 볼 수 있다. 오량처럼 주심과 용마루의 도리 열 사이에 2열의 도리를 더 건 형식으로 총 일곱 개 도리를 거는 방식이다.

보는 기둥과 도리보다 큰 부재로, 도리가 지붕의 서까래 하중을 모아 기둥에 전달한다. 기둥 중심 열의 하중뿐만 아니라 용마루 열의 하중도 받는다. 오량가구 이상 규모의 건물은 하나의 보로 가구를 구성할 수 없으므로 상하에 대량과 중량을 걸어 지붕 하중을 받도록 한다. 가구는 측면 주칸 거리가 떨어질수록 보와 도리 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대량, 중량, 종량을 걸어서 상부 하중을 기둥에 전달한다. 이에 따라 용마루와 주심도리 위의 서까래 수도 늘어난다.

보의 명칭은 위치와 형태 등에 따라 다양하다. 건물 규모에 따라 보의 수도 늘어나 여러 개의 보가 상하에 걸린다. 보는 단면 형태에 따라 폭보다 치가 높은 방형의 구형보, 목재의 표피만을 제거하고 그대로 사용하는 원형보, 향아리 단면처럼 상부는 직선으로 하고 좌우 측면을 둥글게 하며 밑을 소로 폭과 같게 한 향아리보 등이 있다. 입면 형태에 따라 보는 물방울이 햇빛에 의해 생기는 무지개 모양을 한 홍예보, 쇠꼬리 모양으로 치목한 우미량 등이 있다. 특히 우미량은 중도리와 주심도리의 상하 도리를 연결하는 도리로, 고려시대 주심포계 건물인 예산 수덕사 대웅전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보는 위치에 따라 퇴량과 충량 등이 있다. 퇴량은 툇간의 외부 기둥과 내부 고주에 걸린다. 이와 같은 가구는 대체로 일고주 오량을 하고 있다. 퇴량은 대들보에 비하여 단면 크기가 작고 길이가 짧다. 충량은 좌우 측면 외곽 기둥과 대들보 등 위에 걸리는 보를 일컫는다. 이외에 중층건물의 모서리 내부에 걸리는 귀보와 귀잡이보가 있다.

특징 및 의의 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통 목조 건축물의 가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구조재이다. 보는 건물의 규모와 공간에 따라 다양한 형태 및 크기의 목재가 필요하다. 공간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이용자의 가치관, 경제 여건, 미의식 등을 담고 있다.

참고문헌 맞춤과 이음(정연상, 고려출판사, 2010), 한옥 짓는 법(김종남, 돌베개, 2011), 한국건축대계5-목조(장기인, 보성문화사, 1988).

필자 정연상(鄭淵相)

보료

정의 안방이나 사랑방 등에 방치레로 깔아두었던 안석도구.

내용 보료는 좌식인 온돌방에서 생활하였던 우리 선조들이 안방이나 사랑방 등에 항상 깔아두고 사용하던 도구로 바닥에 깔아서 온돌의 딱딱함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는 실용적인 도구였다.

보통은 바닥에 까는 넓은 요형태만 보료라고 하기도 하지만, 장침·사방침·안석·방석 등을 모두 총칭하기도 한다. 보료의 색상은 홍색과 남색이 일반적이지만, 기록에는 초록색 궁초宮緋라고 있어서 녹색 계열도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비단과 왕골로 형태를 만들고, 장수와 부를 상징하는 수복壽福·보문寶紋, 거북, 학, 봉황 등의 무늬를 비단으로 오려 붙여서 장식한다. 속을 넣는 재료는 조선시대에 우모牛毛나 돈모豚毛를 넣어서 만들었다고 되어 있으나, 근래에는 솜을 넣고 누



강릉 강릉 선교장 | 국립민속박물관



보료일습(1990년대 재현) | 서울 종로구 운현궁 | 국립민속박물관

벼서 만드는 경우가 많다.

사방침은 베개의 일종이지만, 그 쓰임이 다르다. 머리를 받치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히 기대어 팔꿈치를 펼 때 사용한다. 선교장(船橋莊)에 남아있는 유물에서 보면 사방이 22cm 정도 길이가 되게 정육면체를 만들고 그 위를 홍색계열의 비단으로 싸서 베갯잇을 만들고 속을 채운다. 각 면의 중앙에 왕골자리를 붙였는데, 자리 중앙에 보문(寶紋)을 놓았고, 그것을 중심으로 네 모서리에 기하무늬를 붙여서 장식하였다.

안석은 앉을 때 세워놓고 등을 기대어 편하게 앉을 수 있게 한 등받이이다. 아래쪽이 넓고 위로 갈수록

좁아지며 윗부분은 산모양 형태이다. 중앙에는 장수를 상징하는 수(壽)자나 거북, 학, 봉황을 배치하고, 아래에는 당초무늬를 비단으로 오려붙여서 장식한다. 중앙에 왕골자리를 붙이고 가장자리에는 홍색이나 남색 비단을 둘러서 감싼다.

장침은 비스듬히 앉아 팔꿈치를 펼 때 사용한다. 전체적인 형태는 긴 직육면체이고, 사방침과 마찬가지로 베개로 분류되지만, 그 쓰임은 다르다. 안방이나 사랑방 등의 아랫목에 병풍을 치고 보료를 깔고 안석에 등을 기대고 장침이나 사방침에 팔을 괴었다. 양 옆에는 ‘수(壽)·복(福)’ 등의 문자나 길상무늬를 오려서 새겨 넣었다. 각 면에 왕골자리를 붙이고 중앙에 글자를 새겨 넣었으며, 가장자리에는 비단을 둘러쌌다. 강원도 강릉 선교장(船橋莊)에 남아있는 유물에서 보면 긴 방향의 네 면의 중앙에는 보문(寶紋)을 놓았고, 그것을 중심으로 네 모서리에 기하무늬를 붙여서 장식하였다. 보료는 서양화된 생활방식으로 인해 전통적인 형태의 보료는 예단용으로만 간혹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조선의 복장』에서 무라야마 지준은 한국인들이 “앉을 때 발생하는 고통을 배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석이나 팔걸이 같은 것이 있는데, 여기서 그 두 세 가지를 소개하면 방석·사방침·의자·장침 등을 들 수 있다. 방석은 사각형이고, 사방침은 측면에 장식적으로 자수를 넣은 사각 팔걸이이며, 의자는 앉을 때 벽에 붙여 몸을 뒤로 의탁할 때 사용하는 도구로 표면에 장식적으로 자수를 넣었으며, 장침도 마찬가지로 여덟 면에 장식적으로 자수를 넣은 직사각형 사방침이다. 또 요처럼 생긴 사각형으로 얇은 솜을 넣은 보료를 깔고 그 위에 앉는 일도 적지 않다. 이상 보료 1장, 방석 2장, 장침 1개, 사방침 1개, 의자 1개를 좌구(坐具) 일조(一組)라고 하며 무릇 가정의 남성 방에는 모두 갖추어져 있어야 하나, 필수품이라기보다 오히려 사치품인 감이 있어 중류층 이하에서는 이를 갖추지 않은 가정이 많다.”라고 하면서 일제강점기에 보료를 사용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묘사하였다.

보료는 앉아서 좌식생활을 하는 전통시대 사람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도구였다. 점차 서양식 생활방식

의 영향으로 보료 대신 소파가 대중화되었으나, 1인 가구와 어린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현대생활에 맞게 재디자인한 전통보료도 생겨나고 있다.

참고문헌 조선의 복장(무라야마 지준, 최은수·김일권·이에나가 유코 역, 민속원, 2017), 조선조 궁중풍속연구(김용숙, 일지사, 1996), 현지조사자료(이강백, 강원 강릉, 2019.9.1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최은수(崔銀水)

보일러

정의 물을 가열하여서 증기나 온수를 발생시켜 이를 다른 장치로 공급하는 설비.

내용 한국에서는 구한 말 개항을 통하여 근대식 증기 난방이 도입되었다. 즉 서구문명을 먼저 받아들인 일본인들이 한국의 관청이나 공공건물에 서양식 증기 난방 및 온수난방을 도입하면서 관련 장치들이 국내에도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가정용이 아닌 백화점이나 호텔 및 공공기관 등과 같은 대형 빌딩을 위한 것이었다.

광복 이후 주택용 연료로 개발된 구명탄이 출현하였고, 사용의 편리성으로 인하여 순식간에 대중의 인기를 얻었다. 이를 계기로 1958년 정부 주도로 전국 20여 개 도시에 임산연료(땔감) 반입 금지와 함께 무연탄 전환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로써 주물보일러의 급속한 성장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연탄 제조는 1920년대 부산에서 재래식 연탄이 제조되면서 시작하였으며, 당시의 9공탄은 난방용보다 화로에 피워서 차를 끓이는 데 이용하였다. 규격화된 연탄은 정부가 연탄 규격을 정한 1961년 이후부터이다.

그 후 우리나라 최초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서울 마포아파트에 연탄 온수보일러를 이용한 난방 방식이 실용화되었다. 마포아파트에서는 보일러 경진 대회를 열어 당시 개발된 연탄보일러를 설치하였다. 이 무렵부터 도시 주택에서는 연탄보일러 사용이 급

속히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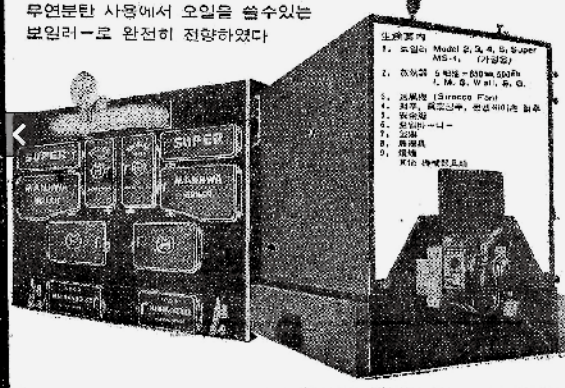
1960년대 도시주택은 전통한옥과 같이 부엌이 방과 분리되어 있고 부뚜막이 있는 아궁이에서 취사와 난방을 동시에 하는 구조로 된 집이 대부분이었다. 이 아궁이에 연탄을 이중으로 넣을 수 있는 바퀴 달린 원형 용구를 사용하여 취사와 난방을 겸하였다. 한편 새마을운동과 더불어 열관리 차원에서 가정의 화덕을 개량하여 연탄을 효율 높게 이용하기 위한 연소 장치가 개발되었다. 이것이 바로 새마을 보일러이다. 새마을보일러는 1960년대 후반에 보급이 확산되고 인기가 많았지만 방마다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보완책이 요구되었고, 그 대안으로 개발된 것이 바로 연탄보일러였다. 연탄보일러는 연소통 수를 복수화하고 새마을보일러와 같은 온수 순환 원리가 적용되었다.

1970년대 들어 연탄보일러는 당시 새로 건축된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에 폭넓게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그 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방마다 딸린 개별 아궁이가 있었고, 이를 통하여 연탄을 관리해야 하였다. 이에 비하면 연탄보일러가 설치된 아파트는 연탄을 아침저녁으로 한 곳에서만 갈아 주면 되므로 훨씬 편리하게 개선되었다. 또한 연탄보일러가 설치된 다용도실의 빈 공간에 연탄을 저장·관리하였다. 이 다용도실은 이름과 다르게 보일러실 겸 연탄 저장고였던 셈이다. 더욱이 연탄에서 묻어 나오는 검댕 자국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였다. 한편 연탄보일러를 설치하지 못하고 연탄아궁이나 새마을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방 틈새로 스며든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하는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기름보일러는 이미 서울 중심으로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대단지 아파트 같은 곳에서 시행되고 있었다. 1978년 전체 아파트의 기름보일러 점유율이 45%를 넘었고, 연탄보일러는 35%를 차지하였다. 기름보일러는 연탄으로 인한 가스 중독이나 검댕이 묻어 나오는 등의 어려움 없이 깨끗하게 실내 생활을 유지하고 늘 따뜻하게 보온이 된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중앙난방식 아파트 단지에서는 개별

MANHWA 萬和 보일러

무연탄 사용에서 오일을 쓸수있는
보일러로 완전히 진화하였다



生産部内
1. 모델명 Model 50, 60, 70, Super
Model 50, 60, 70, Super
2. 연료의 5種別 - Oil, Gas, L.P.G.,
M.G., W.M., K.O.
3. 5種別 (5種別) - Oil, Gas, L.P.G.,
M.G., W.M., K.O.
4. 5種別 (5種別) - Oil, Gas, L.P.G.,
M.G., W.M., K.O.
5. 5種別 (5種別) - Oil, Gas, L.P.G.,
M.G., W.M., K.O.
6. 5種別 (5種別) - Oil, Gas, L.P.G.,
M.G., W.M., K.O.
7. 5種別 (5種別) - Oil, Gas, L.P.G.,
M.G., W.M., K.O.
8. 5種別 (5種別) - Oil, Gas, L.P.G.,
M.G., W.M., K.O.
9. 5種別 (5種別) - Oil, Gas, L.P.G.,
M.G., W.M., K.O.
10. 5種別 (5種別) - Oil, Gas, L.P.G.,
M.G., W.M., K.O.

萬和보일러의 特長

1. 構造面擴大와 熱動力에 對한 強度增加
舊 構造의 熱動力을 擴大하여 強度를 增加하여 構造面擴大와 熱動力에 對한 強度를 增加시킨다.
2. 構造面擴大와 熱動力에 對한 強度增加
舊 構造의 熱動力을 擴大하여 強度를 增加하여 構造面擴大와 熱動力에 對한 強度를 增加시킨다.
3. 構造面擴大와 熱動力에 對한 強度增加
舊 構造의 熱動力을 擴大하여 強度를 增加하여 構造面擴大와 熱動力에 對한 強度를 增加시킨다.
4. 構造面擴大와 熱動力에 對한 強度增加
舊 構造의 熱動力을 擴大하여 強度를 增加하여 構造面擴大와 熱動力에 對한 強度를 增加시킨다.
5. 構造面擴大와 熱動力에 對한 強度增加
舊 構造의 熱動力을 擴大하여 強度를 增加하여 構造面擴大와 熱動力에 對한 強度를 增加시킨다.


萬和鑄物工場

本社 仁川市 瑞泰洞 349 電話 0930 3491
 서울事務所 仁川市 瑞泰洞 48 電話 3716 37716

만화 보일러 | 1967.6.13 | 매일경제

온도 조절이 되지 않았다. 실내 온도를 일괄적으로 높게 유지하다 보니 겨울철에도 실내에서 반팔을 입을 정도여서 부러움과 함께 빈축 어린 언론 기사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1980년대 초반에는 기름보일러가 연탄보일러를 대체하는 추세였다가 1980년대 후반에 가스보일러가 도입되었다. 이미 1970년대 초에 LPG가 보급되어 취사 연료로 사용되었지만 폭발 위험성이 있었고, 수급에 한계가 있었다. 1973년 1차 오일쇼크와 1979년 2차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정부에서는 에너지 다원화 정책과 더불어 가스보급 정책을 시행하였다. 가정에서의 에너지 사용이 많아지면서 아파트 거주자들도 중앙난방식보다 실내 온도도 관리할 수 있고 에너지도 절감할 수 있는 효율 높은 개별난방을 선호하는 경향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대도시보다 지방도시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이 때문에 개별 관리를 선호하는 아파트 단지는 여전히 세대별 가스보일러를 설치한 아파트가 많은 편이다.

2000년대 이후 건축된 대부분의 아파트나 도시지역의 개인 주택에 개별 관리가 가능한 가스보일러가 설치되었으며, 성능도 매우 좋아졌다. 현재도 이러한 가스보일러 사용은 대부분의 주거 유형에 효율 높게 활용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난방은 한국에서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온돌을 통하여 따뜻한 바닥을 느낀 경험은 필연으로 온수 보일러 난방의 발달을 가져왔다.

취사 연료와 난방 방식의 변화는 한국 주택의 평면 구조에서 부엌 개선과 큰 상관성이 있다. 연탄보일러는 집약된 난방 방식에 의한 가사노동을 절감하게 하였으며, 가스레인지 사용은 곧 입식으로의 발달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석유보일러 도입으로 인한 취사와 난방의 완전한 분리는 부엌의 실내 입식을 가능하게 하였다.

참고문헌 보일러산업50년사(한국보일러공업협동조합, 1998), 부엌총서-각국의 부엌(박선희 외, 한샘연구6차연도보고서, 1999), 산업안전대사전(최상복, 도서출판 골드, 2014), 태백석탄박물관(taebaek.go.kr/coalmuseum).

필자 박선희(朴善姬)

복덕방
福德房

정의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의 매매·교환을 위한 중개나 대리 사무를 하여 주는 곳.

내용 복덕방(福德房)은 부동산의 매매나 교환 등의 사무를 하여 주는 곳을 말한다. 복덕방의 기원은 고려시대 이후의 객주(客主)와 거간(居間)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객주란 원래 객상주인(客商主人)이라 하며, 거래를 알선하는 일종의 위탁매매업자를 뜻한다. 객주 가운데 타인 간의 거래를 성립시키는 일을 거간으로 칭하였다. 거간은 취급하는 상품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구분된다. 집과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의 매매·임차·전당 등을 주로 중개하는 것을 가거간(家居間)이라 하고, 종사자를 집주름이라 일컬었다.

1900년대 초에 많이 사용된 ‘가괘’는 대도시, 특히 서울과 평양 등지에서 집주름을 칭하던 용어이다. 가괘들이 모여서 사무실을 차린 것이 이른바 ‘복덕방’이었다. 즉 집과 토지를 중개하는 가거간이 복덕방의 기원이라 할 수 있다.

거간들이 사용하는 장소가 거래 당사자에게 복과 덕이 생긴다 하여 ‘생기복덕’ 복덕방으로 불리었다고 한다(임명규, 2012). 초기 복덕방은 밀을 여러 갈래로 가른 누런 삼베를 간판으로 사용하였다. 누런 삼베는 수수해서 복(福)이 잘 붙고 감이 질겨 오래갈 수 있다는 뜻이며, 밀을 여러 갈래로 갈라놓은 것은 출입하기 편하다는 뜻에서 한 것이다.

초기 복덕방은 대체로 노령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모여 소일로 하였다. 손님이 찾아오면 거간 노릇을 하여 주고 보답으로 작은 선물을 받거나 경우에 따라 매도금액에 약간의 웃돈을 붙여 매매를 성립시킨 뒤 그 차액을 수수료로 얻기도 하였다. 이것이 구전(口錢) 형식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중개수수료는 구문(口文), 내구(內口), 외구(外口), 원구(原口), 과구(過口)라고도 불리었다.

과거의 복덕방은 공인중개사라는 전문 자격증이 도입되면서 중개업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도시개발 계획 이후 부동산 중개업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여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1983년 12월 <부동산중개업법>이 제정되어 공인중개사가 전문자격증 제도로 도입되었다. 이 법은 공인중개사 자격제와 중개업 허가제를 동시에 도입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 사람과 과거 복덕방을 운영하던 중개업자에게 모두 부동산 중개



판잣집의 복덕방 | 1977 | 서울역사박물관

업을 허용하였다. 이 법 시행 이전부터 복덕방을 운영하던 사람들의 영업권은 보장되 이들은 ‘공인중개사’라는 용어 대신 ‘중개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었다. 공인중개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있고, 중개인은 영업소가 있는 관할구역 안에서만 중개업을 할 수 있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를 주요 골자로 하여 2005년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14년에 <공인중개사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특징 및 의의 1960년대 도시개발계획으로 다양한 용도의 택지와 주택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복덕방이 중요한 사회 기능을 담당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법률 지식이나 기동력이 부족한 노인층의 복덕방은 점차 부동산 중개업에서 소외되었다. 이후 부동산중개업이 제도화되면서 ‘공인중개사’가 새로운 전문자격증으로 등장하였고, 업역 성격도 점차 변화되었다. ‘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고,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공인중개사법> 제2조).

참고문헌 부동산중개업 창업에 관한 연구(임명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필자 천현숙(千賢淑)

복부인 福婦人

부

복부인

정의 금전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여성을 지칭하는 말.

개관 1970년대 들어 부동산 투기 붐이 일었고, 이에 편승한 투기꾼 가운데에는 아파트 단지나 택지 주변 등의 복덕방을 단골로 거리낌 없이 출입하는 상류층 부인도 있었다. 이들이 부동산 시장을 누비고 다니면서 치맛바람을 일으킨다고 하여 1970년대 후반에 등장한 신조어가 바로 ‘복부인福婦人’이다. ‘복부인’이라 할 때의 ‘복福’자는 복덕방福德房에서 떼어내 ‘부인’ 앞에 붙인 것이다. 이와 비슷한 신조어로 ‘골부인骨婦人’이 있다. 골부인 역시 1970년대 후반에 등장하였다. 투기 목적으로 골동품을 사들이는 부인을 지칭한다.

내용 이들은 대개 화려한 옷차림에 고액 수표가 들어 있는 핸드백을 든 30~40대의 유한부인들로서, 자가용을 타고 일확천금을 노리며 잠실·영동·반포 등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추첨 현장이나 신항개발지의 복덕방 등을 철새 떼처럼 물려다닌다고 하여 ‘복부인부대’라고도 불리었다. 시세 차익을 노리고 부동산 사고팔기를 거듭하는 복부인에 대한 사회 인식은 매우 좋지 않았다. 이들의 상습 투기 행위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다는 인식이 팽배하였다. 또한 비리 연루와 탈세, 도박, 불륜, 사채, 카바레 출입은 물론 살인 사건까지 각종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면서 사회의 지탄 대상이 되었다.

정보력과 자금 동원력을 앞세운 전문 투기꾼의 개

입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정부는 1978년 8.8 조치(<8.8 부동산 투기억제 및 지가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를 포함하여 강력한 억제책을 거듭 발표하였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는 근절되지 않았고, 정부 조치는 일시 효과에 그쳤다. 투기꾼들은 등기를 하지 않고 아파트, 토지, 상가 등 부동산을 매매함으로써 차익은 얻으면서도 세금은 내지 않는 미등기전매未登記轉賣 수법을 주로 구사하였다. 이 수법은 매매 근거가 없어 당국이 적발하기가 쉽지 않았다. 또한 복부인들은 민영아파트 청약제도가 실시된 이후에는 지방까지 가서 하는 원정遠征 청약, 무자격자임에도 서류를 갖추어 청약을 신청하고 당첨되는 부정 청약, 부동산을 끼고 10여 명에서 50명 단위로 청약계를 조직하고 각자 명의로 아파트를 신청한 후 당첨된 아파트의 프리미엄을 모아서 이를 균등 분배하는 형태의 투기를 계속하였다. 청약계보다 규모는 작지만 복부인 5~8명이 한 조를 이루어 신축아파트에 프리미엄을 형성시키고 오른 프리미엄을 챙긴 다음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니는 투기 수법을 쓰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복부인의 투기 활동이 계속된 배경에는 도시로의 인구 집중이나 절대 인구 증가에 비하여 주택공급량이 매우 부족하였고, 땅과 집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경험에 기초한 믿음과 토지 소유에 대한 강한 집착이 한국인 사이에 뿌리 깊게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학군으로 상징되는 교육 환경, 1970년대 경제 발전과 중동 특수로 인한 여유 자금 및 낮은 금리, 계속되는 아파트 건설과 인기 상승에 따른 기존 아파트 및 신규 아파트 간 가격차 등이 영향을 미쳤다. 특히 과천·반포·강남 등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투기 양상이 과열되면서 1982년 정부가 다시 강력한 단속에 나섰지만 이에 대응하여 복부인은 아파트가 아니라 임야와 목장, 개발예정지 등의 토지로 대상을 변경함에 따라 투기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전후로 한국경제가 호황을 지속하면서 시중자금이 풍부해지자 다시 복부인 열풍이 불었다. 이들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전답과 임야를 가리지 않고 사들이면서 미등기 전매를 통하여 차익을 챙겼다. 그런데 2002년을 전후로 개별 성격의

‘복부인’에서 기업화된 형태로 바뀐 소위 ‘기획부동산’이 등장하고 부동산 투자가 부유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으로 확산되면서 ‘부유층 여성 부동산 투기꾼’을 상징하는 복부인이라는 표현은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다.

특징 및 의의 1960~1980년대 대한민국의 고도성장 이면을 상징하는 용어 가운데 하나로, 빈부 격차와 불로소득이 만연한 사회 현실을 풍자한 표현으로 평가할 만하다.

참고문헌 한국인 어떤 집에서 살았나(김혜숙 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7), 근교임야에 눈돌리는 복부인들(경향신문, 1983.1.14), 복부인이라는 새 사회계층을 탄생(경향신문, 1978.2.14), 투기 상승수법은 미등기전매(동아일보, 1980.2.26), 현대판 불가사리2-복부인 부대(경향신문, 1978.2.14).

필자 이대화(李大和)

봉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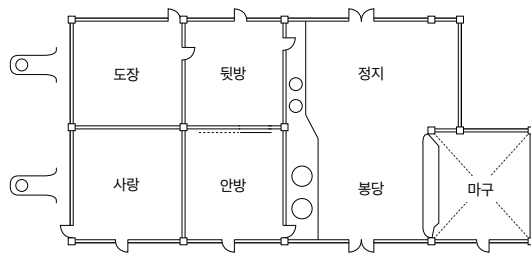
封堂

정의 주택 내에 마루나 온돌을 놓지 않고 흙이나 강회, 백토 등을 깔아 놓은 바닥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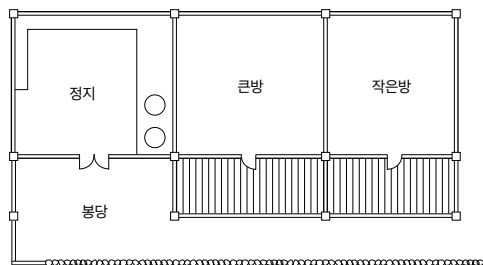
내용 봉당封堂은 마루나 온돌을 놓지 않은 주택 내부 공간으로, 봉당을 거쳐 좌우의 각 방과 내부 쪽으로 진입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 주택 유형 가운데 함경도·강원도·경상도 지역의 곁집(양통집)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주로 출입 공간과 연결 통로 역할을 한다.

6간 8자집의 곁집 형태인 인천광역시 강화 교동도 지역의 봉당은 부엌을 통하여 출입이 가능하며, 안방을 거쳐 마루로 나갈 수 있고, 집 뒤란으로도 통한다. 봉당의 주요 기능은 ‘제사음식을 나를 때 이곳을 통하여 운반하는 것’이다.

봉당의 규모는 주택의 건물 평면과 비례한다. 세칸의 경우 한 칸이나 한 칸 반을 마루로 만들어 사용하기도 한다. 이것을 ‘봉당마루’라 한다. 봉당은 형태에 따라 길게 가로나 세로로 놓이면 ‘긴봉당’, ㄱ자형이면 ‘ㄱ자형봉당’이라고 다르게 말한다.



봉당 | 강원 삼척 | 한국의 민가 | 조성기·한울아카데미



봉당 | 경북 안동 | 한국의 민가 | 조성기·한울아카데미

홀집(외통집)에서 봉당은 뒷간에 마루를 깔지 않은 상태로 전면이 개방되어 있다. 즉 방과 방 사이에 마루 대신 남아 있는 공간이다. 그런데 봉당에 마루를 깔아도 봉당이라고 칭한다. 강화도 지역에서는 봉당에서 뭇 가져오라는 말을 하면 마루에 있는 것을 가져온다. 마루에 단 문도 ‘봉당문’이라고 부른다.

특징 및 의의 봉당은 곁집에서 본래 출입이나 연결 통로 역할을 하였지만 안방 퇴가 늘어나서 마루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봉당 명칭은 그대로 남아서 안방과 건넌방 사이의 마루는 ‘대청마루’, 대청마루 앞쪽에 댄 마루는 ‘안마루’, 안마루 바깥쪽에 덧댄 마루는 ‘봉당’이라고 부른다. 홀집에서 봉당은 안방과 건넌방 사이에 마루를 설치하지 않고 흙바닥을 그대로 둔 곳으로, 방보다 마루 설치가 나중에 이루어졌음을 말하여 준다. 따라서 봉당은 건축학에서 중요한 의미를 띤다.

참고문헌 강화도의 상량문(정연학, 강화문화원, 2016), 봉당(김동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5), 조선시대 주택건축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주남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6), 한국의 살림집(신영훈, 열화당, 1983).

필자 정연학(鄭然鶴)

정의 채광과 통풍을 위하여 창틀 없이 벽에 구멍을 내어 만드는 창.

개관 신영훈(1983)은 봉창封窓을 햇빛이 투광되는 자재인 종이나 비단이 발명·보급되기 이전에 구멍이 열린 채로 돌 수밖에 없었던 불박이 창문과 연관지어 설명한다. 신영훈(1983)은 이어서 한자 유漏가 이런 창문을 뜻한다고 지적하고 『설문해자說文解字』에 “‘유’는 남양納陽(채광採光)하는 창窓으로, 햇빛이 잘 비치는 곳의 벽을 뚫고 그곳에 나무를 박아 만든 창을 말한다.”라고 풀이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원시시대의 인류가 처음 만든 소규모 움집에서는 출입구나 연기구멍이 채광, 환기의 역할을 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벽이 생기고 건물의 규모가 늘어나면서 출입구와 구분되는 창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처음 나온 창문이 아마 봉창의 원초적 형태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내용 봉창은 주로 집의 토벽 일부에 조그맣게 구멍을 만들어 작은 창문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다. 당연히 여닫지 못하는 불박이창이다. 비록 작은 창문이지만 이미 완성된 벽을 나중에 뚫긴 곤란하기 때문에 처음에 건물을 짓고 벽을 만들 때부터 봉창 널 자리를 계획해서 남겨 놓고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토벽을 칠 때 봉창이 될 곳은 외만 남겨 놓고 흙을 바르지 않으며, 토석벽일 경우는 외여기가 없으므로 봉창이 될 곳을 나뭇가지 등으로 버티 공간을 만들고 쌓는다.

봉창의 모양과 크기는 필요에 따라 다양하다. 봉창이 아주 작을 때는 살 없이 만들지만, 조금 크면 벽의 흙이 떨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나뭇가지를 꺾어 살대를 받치고 만든다. 살대는 날짐승 등이 봉창을 통하여 들어오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한다. 살대의 재료로는 나뭇가지나 싸리, 대쪽 등이 쓰이고, 가는 새끼줄로 살대를 엮어 모양을 내기도 한다. 살대의 유무와 촘촘함에 따라 정도는 다르지만 봉창은 기본적으로 빛과 공기가 안팎에서 그대로 출입하는 불박이창이다. 하



봉창 | 경기 용인 한국민속촌 | 국립민속박물관

지만 투광이 가능한 종이라는 재료를 사용하여 봉창 안쪽을 창호지로 발라 막으면 빛은 들이면서 바람은 막을 수 있다.

봉창이 쓰이는 대표적인 장소는 부엌이다. 통풍을 하여 땀감의 연기와 술의 수증기를 빼내기 위한 배기구멍으로 봉창을 뚫는다. 인방 위쪽 처마 밑에 봉창을 마련하는데, 부엌 바깥벽 세 면에 다 뚫을 수 있다. 작은 구멍을 여러 개 낼 수도 있고, 외를 촘촘히 엮어 길게 낼 수도 있다. 또한 외양간이나 헛간, 함실아궁이가 있는 벽체에도 뚫을 수 있다. 까치구멍집이나 ㅁ자형집 등 앞뒤 사이로 깊이가 깊은 집에서는 대문 윗벽에도 뚫는다. 이처럼 통풍을 위해서 쓰는 봉창은 창호지를 바르지 않고 터놓는다. 반면 방의 외벽에 출입문과 별도로 낸 봉창은 백지를 발라 찬바람을 막는다.

한편 방과 방 또는 마루, 부엌 등 주거 내에 연결한 두 공간 사이의 간벽을 봉창처럼 뚫기도 하는데, 이를 화창火窓이라 한다. 구멍 아래에 등잔을 올릴 자리를 만들어 양쪽 공간을 함께 밝히는 것이다. 조명

외에 속화(宿火, 즉 불씨의 보존을 위하여 약쑥이나 뜬 숯을 두는 기능을 겸한 화창은 ‘고쿨’이라 부른다. 지역에 따라 코쿨, 쿨쿨, 고꾸리 등의 방언으로 불리며, 방과 부엌 사이에 만든다. 너와집 중에는 고쿨에 관솔불을 피울 수 있도록 하고 굴뚝을 연결하여 조명과 약간의 난방까지 가능하도록 한 예도 있다.

특징 및 의의 봉창은 고대에 벽이 있는 건축물이 만들어진 이후 처음 등장한 형태의 창문이었을 것이다. 후대에 다양한 형식의 창호들이 발달하여 고급 건축 의장의 일부로 쓰이던 중에, 봉창 또한 채광과 환기를 위한 개구부가 필요한 곳에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졌다.

참고문헌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김왕직, 동녘, 2007), 영건의궤(영건의궤연구회, 동녘, 2010), 한국건축대계1-창호(장기인, 보성각, 1993), 한국건축대계4-신편 한국건축사전(장기인, 보성각, 2005), 한국의 살림집(신영훈, 열화당, 1983), 국립국어원(korean.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이우종(李雨鍾)

부경

桴京

정의 고구려에서 곡식 등 농산물을 저장하던 고상창고 건물.

개관 3세기 후반에 기록된 중국 역사책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 고구려조(高句麗條)에 의하면 “나라에 큰 창고가 없으며, 집집마다 각기 조그만 창고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부경(桴京)이라고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고구려에서는 부경이라고 부르던 작은 창고 건물이 집집마다 딸려 있었음을 전하고 있다. 높은 마룻대가 설치된[桴] 창고[京](본래 창고를 의미)를 의미하는 부경은 곧 고상창고(高床倉庫)였음을 알 수 있다.

부경과 같은 고상창고 건물은 이미 청동기시대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 후 초기 철기시대, 원삼국(삼한)시대, 고구려·백제·신라·가야 등 삼국시대를 거쳐 통일신라·고려·조선·현대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계

승되고 있다. 청동기시대에 들어와 벼농사를 비롯한 농업생산력이 크게 증대하여 잉여생산물이 생기게 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저장·관리할 수 있는 시설인 창고 건물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저장창고 시설은 주로 땅을 깊게 파서 만든 수혈창고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곡물 등 농업생산물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통풍이 잘되고 다른 동물로부터의 해를 방지할 수 있는 창고시설인 고상창고가 효율적이었다. 청동기시대에서 삼한시대까지는 마을 안 고지대의 한쪽 공간을 구획하여 여러 동의 고상창고를 지어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가 차츰 사유재산제도가 확립되고 개별 가구 단위로 생활을 영위하게 됨에 따라 공동 창고군 외에 개별 가구 단위의 창고시설도 일반화되었다. 따라서 고구려·백제·신라·가야 등이 정립되어 있던 삼국시대에 개별 가구 단위의 창고로 부경이 유행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고대국가이든 창고시설은 국가의 형성·발전과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는 중요한 시설이었음을 알 수 있다.

내용 『삼국사기(三國史記)』 권40 직관지(職官志)에는 경(京)이 경(京)으로 표기되어 있다. 여기에서 경은 일본어 京, クライ 그대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구려가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기 이전의 수도인 지안(集安) 일대에는



부경 | 덕흥리 고분벽화 | 고구려

당시 개별 가옥이나 본채 옆에 2층으로 된 작은 창고가 있었다. 이러한 고상창고는 얇은 목재를 가로 또는 세로로 엮어서 다락식 창고 형태로 지은 것이다. 현지에서는 옥미창玉米倉 혹은 포미창包米倉이라고도 부르는 것으로 보아 주로 벼를 저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옥미창은 특히 만보정묘구萬寶汀墓區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옛 강서군江西郡 덕흥리 고분벽화에 보이는 2층 다락집도 이와 같은 형태의 창고 건물임을 알 수 있다. 이 벽화에는 2층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도 묘사되어 있어 부경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도 옛 지안 도읍지의 고구려 영토인 중국 지린성, 랴오닝성, 헤이룽장성 등 동북 3성 지역에는 집집마다 부경과 같은 고상창고가 설치되어 있다. 2층에는 벼나 옥수수 등 농산물이 보관되고, 그 아래층에는 돼지우리나 소 외양간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아마 고구려 당시에 이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었을 것이다. 한편 고구려는 산이 많고 평야가 적어 농업 생산력이 그리 높지 않아 전쟁을 통하여 식량의 많은 부분을 다른 나라로부터 약탈하여 해결하였으며, 약탈해 온 식량을 보관하는 작은 창고를 마을마다 만들었다는 견해도 있으나 신빙성이 없다.

특징 및 의의 고구려에서는 부경과 같은 고상창고 외에도 집안의 미선구麻線溝 제1호묘 등 고구려 고분벽화에 귀틀집(고상식건물) 형태의 목조건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고상창고보다 훨씬 큰 대형 창고도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본의 쇼소인正倉院 쌍창雙倉과 같은 구조로, 일본의 국창國倉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형태의 창고는 곡물을 저장하는 부경과 같은 용도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물품·보물 등을 보관하는 특수 창고일 가능성이 높다.

고구려의 고상창고인 부경은 그 후 백제에도 영향을 미쳐 백제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창고가 설치되어 운영되었다. 백제에서는 창고 관련 기록이 문헌과 부여 쌍북리에서 출토된 목간에 기록되어 있어 창고 형태와 창고 운영의 실상을 알 수 있다. 백제에서는 창고 사무를 맡은 내관內官 소속의 관청 이름을 경부椋部

라고 하였다. 고구려의 부경을 차용하여 그렇게 부른 것으로 보인다. 『북사北史』 권94 백제전百濟傳에는 이를 내략부內掠部·외략부外掠部라 하였으나 『한원翰苑』 권30 백제조에 인용된 팔지지拈地志에 각기 내경부內椋部·외경부外椋部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경부가 올바른 명칭인 것으로 보인다. 신라와 가야에서는 부경과 같은 창고 명칭이 나타나지 않지만 신라토기·가야토기 가운데 마룻대를 4개 또는 6·9개가 설치된 고상창고 모양의 토기가 종종 출토되고, 취락 발굴 조사에서 기둥구멍이 4개 또는 6·9개를 설치한 고상창고 건물이 많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부경과 같은 형태의 고상창고가 일반화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창고 모양 토기에 표현된 고상창고 구조는 원통형의 기둥 상부에 나무로 된 마룻바닥이 높게 설치되고 사방 벽이 판자를 세워 연결하여 내부 공간을 만들었다. 상부의 지붕은 초가 또는 경초를 가지런히 이은 다음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끈으로 엮어 묶은 구조가 일반적이다. 창고의 한쪽 면에는 한 군데 또는 두 군데에 두 개 1조의 문짝을 설치하여 여닫을 수 있게 만들었으며, 상면床面에서 바닥으로는 나무 사다리를 연결하여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나무 사다리는 원통형 나무에 디딜 수 있는 홈을 파서 만든 사다리와 두 개의 나무 지주 사이에 같은 간격으로 발판을 설치하여 만든 일반 형태 등 두 종류가 확인된다. 한편 마룻대인 기둥에는 쥐 등 동물의 접근을 막을 수 있도록 독액을 바르거나 마룻바닥과의 경계부에 둥근 반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부경과 같은 고상창고에서는 농사와 농산물 저장과 관련된 의례도 설행되었다. 고상창고를 짓기 전에 마룻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판 기둥구멍에서 인위로 매납한 토기편 등 각종 유물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창고 건물이 견고하게 유지되기를 바라는 기원의 의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민속례를 통하여 고상창고 안에서도 의례가 설행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창고 안에 농사신 또는 곡물신을 상징하는 벼이삭 묶음을 걸어 놓고 제사 의례를 거행하는 등이 그것이다. 이 경우는 특별하게 해당 창고가 이듬해에 파종할 틈실한 종자를 보관하는 잘 보관하여 풍성한 수확을 기

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참고문헌 北史, 三國史記, 三國志, 翰苑, 고구려의 부경(신형식, 동양학26,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1996), 부경고(주남철, 민족문화연구27,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94), 百濟의 掠及 掠部(稻葉岩吉, 釋, 1936).

필자 김길식(金吉植)

부뚜막

정의 솥을 걸 수 있도록 아궁이 위에 흙과 돌을 쌓아 만든 터.

내용 부뚜막은 불의 옛말인 ‘붓’과 ‘옻’으로 이루어진 낱말이다. ‘옻’은 ‘옻막’의 ‘옻’과 같은 의미로 ‘집’을 말하며, ‘옻’은 결합모음으로 ‘붓’의 ‘ㅅ’가 ㅅ-ㅈ-ㅊ으로 바뀌어 ‘뚜’가 되었다. 1775년의 『역어유해(譯語類解)』에서 조대(竈臺)를 ‘붓두막’, 『한청문감(漢淸文鑑)』에서는 과대(鍋臺)를 ‘붓두막’으로 새겼다. 제주도 가옥에서 마루에 불을 피우고 온기를 쬌는 자리나 부엌 바닥에 둘러놓은 돌에 불을 지펴서 음식을 익히는 곳을 부엌이라 부르는 것도 연관이 있다.

부뚜막은 원시시대 움집의 화덕에서 비롯되었다. 빗살무늬토기시대에는 움집 한가운데 돌을 원형 내지 타원형으로 두른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어 무문토

기시대로 접어들면서 연기가 쉽게 빠지도록 움 한쪽에 설치하는 것 외에 한쪽을 터놓거나 바닥에 돌을 깔기도 하였다. 화덕이 오늘날의 형태를 갖춘 것은 고구려시대부터이다. 서기 1세기 무렵의 유적에서 나온 도제 및 철제 부뚜막이 좋은 사례이다.

황해도 안악 3호 무덤의 벽화는 4세기 무렵의 부뚜막을 보여 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형태는 긴네모꼴이며, 연기는 한 끝에 붙인 오리 입을 닮은 굴뚝을 통하여 집 밖으로 나간다. 이 부뚜막이 음식 조리 외에 난방 기능을 겸한 것은 4~5세기이지만 초기에는 구들이 외구들인 까닭에 방의 일부에만 불길이 들어갔다. 그리고 오늘날처럼 앞의 두 가지 기능을 완벽하게 하는 부뚜막이 전국에 퍼진 것은 조선시대부터이다.

부뚜막의 기능도 두 가지로 나뉘어 난방은 아궁이, 조리는 부뚜막에 걸어 놓은 솥이 각각 담당하게 되었다. 솥의 수는 집 형편에 따라 달랐다. 상류가옥에서는 흔히 부엌 안쪽에서부터 용가마·가마솥·중솥·옹솥 따위를 걸며, 물을 담아 두고 쓰는 두멍솥은 부뚜막 바깥쪽에 놓는다. 용가마나 가마솥은 입이 위낙 커서 널을 반달꼴로 짠 두 쪽으로 여닫는다. 흔히 용가마나 가마솥에는 물을 끓이고, 중솥에는 밥을 지으며, 옹솥에는 국을 끓였다. 한편 서민들은 중솥과 옹솥 둘을 걸었으며, 옹솥은 일제강점기에 양은솥이 들어오면서 자취를 감추었다.

한편 기온이 따뜻한 제주도에는 구들에 불을 넣을 필요성이 적어서 부뚜막을 따로 걸지 않았다. 이에 따



부뚜막 | 강원 삼척 | 한승일



조왕궁 | 경기 용인 | 1981 | 국립민속박물관

라 아기 머리 크기만한 돌을 놓고 솥을 올렸으며, 굴뚝이 없어서 연기는 벽에 뚫은 구멍으로 빠져나갔다. 이곳에서 난방을 시작한 것은 100여 년이 채 되지 않는다.

솥 가운데 가장 큰 가마솥은 국가 자체를 상징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박세무朴世茂(1487~1564)가 『동몽선습童蒙先習』에 조선왕조의 건국을 “조선이라고 불리는 나라가 한양에 솥을 놓았다(國號曰朝鮮 定鼎于漢陽).”라고 적은 것이 좋은 보기이다.

부뚜막은 흙과 돌로 쌓고 황토를 두 번 바른 뒤 가늘고 고운 매흙을 여러 번 덧칠하였기 때문에 흙이 마르면 기름을 바른 듯 번들거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물에 젖거나 하면 흙이 부서져 내려서 한쪽이 일그러지기 마련이다. 사람들은 부뚜막을 가운家運의 상징으로 여긴 나머지 정월 열나흘날 저녁에 ‘복토福土 흙치기’라고 하여 부잣집의 흙을 몰래 가져다가 부뚜막에 덧발랐다. 이로써 그 집의 복이 옮겨 온다고 믿은 것이다.

또한 부뚜막을 부엌의 성소聖所로 여긴 까닭에 주부들은 이곳을 깨끗이 하려고 애썼고, 걸터앉거나 하는 행위를 삼갔다. 이곳에 놓은 종지에 담은 물을 신체로 삼아서 조왕신으로 받든 것도 마찬가지이다. 주인 아낙은 아침마다 물을 새로 갈아 부으며 그날 하루 온 식구의 평안을 빌었다. 중국에서 물이 아닌 신상神像을 받들고 조군龜君 또는 사명조군司命龜君이라 하여 주로 남성으로 다루는 데 반해 우리는 조왕각씨, 조왕할망이라 하여 여성으로 섬기는 점은 대조가 된다.

방을 외줄로 배치하는 대부분의 홑집에서는 부뚜막과 방 사이에 벽을 쳐서 막았지만 방을 두 줄로 배치하는 함경도 겹집에서는 부뚜막과 집의 중심 공간인 정주간을 터놓았다. 이처럼 부뚜막과 정주간이 한 평면에 배치된 덕분에 주부는 부뚜막에서 익힌 음식을 바로 상위에 차리게 되어 아주 편리하다. 그리고 아궁이가 딸린 공간을 부엌이라고 부르는 점도 특이하다.

특징 및 의의 조리과 난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부뚜막은 중국이나 일본에 없는 독특한 시설이며, 이

것은 일본으로 건너갔다. 에쿠안 겐지榮久庵憲司는 “부뚜막이 (조선)반도에서 들어오기까지 땅을 파고 만든 화덕[爐]을 썼다.”고 적었고, 가노 도시쓰구狩野敏次도 “부뚜막은 5세기쯤 조선반도에서 들어왔으며, 조선에서 솥[釜]을 가마[かま]라 부르는 것으로 미루어 ‘가마’도 본디 조선어였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참고문헌 동아시아의 부엌(김광언, 놀와, 2015), 어원사전(안옥규, 동북민족교 육출판사, 1996), 한국식생활풍속(강인회·이경복, 삼영사, 1984), かまど(狩野敏次, 法政大學出版局, 2004), 台所の歴史(榮久庵憲司, 柴田書店, 1976).

필자 김광언(金光彦)

부

정의 제주도에서 난방과 조명, 간단한 조리를 위해 불을 지피는 고정용 돌확.

개관 불은 빛이 되기도 하지만 별이 되기도 하고 음식을 구워먹는 화식火食의 수단이 된다. 불은 조명과 난방과 취사炊事의 세 가지 기능을 갖는데, 이 부섭은 세 기능을 한 데 합쳐 놓은 원시적 생활도구이다. 고대 움집에서 사용되던 화덕과 관련성이 있는 장치이다.

내용 제주의 가옥에서 가장 중심은 상방(마루방)이다. 상방에 집 안의 가장 중요한 문전신이 깃들어 있



부섭 | 제주 제주시 돌문화공원 | 백운철

다고 생각한다. 그다음 중요한 곳이 부엌이다. 상방에는 마루 널을 떠서 박아놓고, 정지(부엌)에서는 흙바닥을 파서 돌로 만든 화로를 고정시켰는데, 부엌은 이동이 간편한 돌화로보다 일반적으로 크다. 부엌에 각불(관솔불)을 밝혀 조명에 쓰기도 하고, 작은 나무나 솔가지를 태워 불을 켜기도 하고, 땀감을 지퍼 간단한 음식을 조리하기도 하였다.

상방 바닥 가운데에 부엌이 놓이는데, 상방 부엌은 제사 때 쓸 산적을 굽는 용도로 주로 사용하였다. 부엌에는 별도의 화덕이 있었다. 이것은 불을 밝히거나 간단한 조리를 할 때 주로 사용하였다. 부엌에는 한 면이 50~60cm이고, 깊이는 10~15cm 정도인 정사각형의 큰 돌이 쓰였다. 마루에 설치하는 것은 마루 구조와 직결되어 직사각형으로 만든 경우가 많았고, 정지의 것은 정사각형으로 만든 것이 많았다. 겨울에는 나무를 태서 공기를 덥히는 난방 용도로 많이 쓰이고, 큰일 때는 생선이나 고기 산적을 구워내는 데 쓰이기도 하였다. 부엌은 주로 동쪽 지역에서 많이 설치하였다. 서귀포시 난산리의 경우는 거의 모든 집에 부엌이 있었다고 한다.

난산리 오씨(여, 1939년생)는 사라호 태풍이 불어 초가지붕을 걷어내고 슬레이트지붕으로 개량을 하였는데, 그때 상방에는 마루가 깔려 있지 않고 흙바닥이었다고 한다. 흙바닥에 초석을 깔고 거기서 식사를 하였는데 그것을 북덕방이라 불렀고, 이 북덕방에 돌화로인 부엌을 두었다고 하니 원시적인 형태가 20세기까지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상방이 북덕방의 경우에는, 가운데 부엌을 설치해 짚이나 초석을 깔아서 생기는 습기를 보완하였던 것이다. 마루를 설치한 경우에도 마루를 파서 부엌을 설치했지만, 대개는 북덕방에 부엌을 설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징 및 의미 남도(경상도, 전라도)에서 부엌은 아궁이를 부르는 말이다. 아궁이는 난방과 취사를 위주로 하는 곳인데, 제주도는 난방·취사와 조명이 분리되지 않은 원형을 간직한 채 부엌을 활용하였다. 제주도의 보편적 부엌은 육지와는 달리 난방과 취사를 나누었고, 난방을 위한 아궁이를 별도로 두어 굴묵이라 하였다.

참고문헌 제주도 민가(신석하, 제주의 민속4, 제주도, 1996), 제주의 돌문화(고광민·이윤형, 제주돌문화공원, 2006), 제주의 마을공간조사 보고서-난산리(양성필, 한국건축가협회 제주지회, 2012).

필자 허남춘(許南春)

부엌

정의 전통적으로는 취사와 난방을 겸하는 공간이었지만 현대에는 취사 준비를 위하여 주로 사용되는 공간.

내용 부엌이라는 용어는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었다. 서울 및 경기 지역에서는 ‘부엌’, 충청 지역에서는 세부 지역에 따라 ‘부엌’ 혹은 ‘정지’, 그 외의 지역에서는 발음상으로나 표기상으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대개 ‘정지’로 더 많이 불렸다. 정지는 경상·전라·강원 지역의 부엌에 대한 방언이고 정제는 전라·제주 지역 방언이다. 서울이나 경기 지역은 부엌이 취사와 난방 기능만 하는 평면구조가 많았다. 강원 지역에서는 취사·난방 외에 우천과 적설 시 작업장, 연료 및 농작물 작업장이었다. 그 외 농어촌 지역도 이러한 복합 기능이 있었다.

부엌과 인접한 가장 큰 방인 안방에는 겨울철에 난방을 하기 위하여 온돌과 아궁이가 설치되었고, 그 상층부는 취사를 위해 부뚜막이라 하여 무쇠술을 걸고 물과 밥과 국을 끓이는 설비가 필수적이었다. 어원을 보면 ‘정지’는 부엌과 어원을 같이하는 부석(아궁이)이 자신의 의미를 정지에 물려준 것이다. 부석은 아궁이의 의미로 제한되었다. 부엌은 조선시대에는 ‘부엌’이나 ‘부엌’, ‘부엌’으로도 표기되었다. 즉 부뚜막을 지칭하였다. 그만큼 부뚜막은 부엌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구조물이었다. 전통가옥에서 부엌은 가족 식사를 위한 취사와 난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부뚜막에 설치되는 술은 보통 대·중·소의 세 개이지만 가옥과 부엌의 규모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다. 바

다에 까는 온돌의 구조상 부엌은 실내보다 훨씬 낮게 층 차를 두었으며, 불을 다루는 곳인 만큼 화재에 대비하여 흙바닥과 아궁이를 둘러싼 부뚜막 설비를 만들었다. 상류층 가옥에는 공간의 분절화가 이루어져 농작물이나 작업공간이 따로 분리되어 있어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부엌은 대체로 취사 중심의 공간이다.

부엌은 난방과 취사를 위한 ‘불’을 다루는 공간이었고, 전통가옥은 대부분 목재로 만들기 때문에 부엌은 화재 예방에 특히 민감한 공간이었다. 『임원경제지 林園經濟志』에 “부엌은 특히 불을 경계해야 하므로 사방에 벽돌을 쌓아 올려 벽을 만든다. 무릇 기둥과 인방 등 일체의 목재는 모두 벽돌의 내부에 파묻는다. 만일 바람을 통하게 하고 햇빛을 받아들이려면 벽의 상반부에 모두 영롱장 玲瓏牆을 만든다. 부뚜막에서 한 두 길[一二丈] 떨어진 곳에 남북으로 문을 뚫고 왕정 王楨의 장생옥법 長生屋法에 따라서 법제회니 法製灰泥를 사용하여 문짝 안팎을 바른다.”라고 하여 부엌공간을 설계하고 구들을 만들 때는 무엇보다도 화재에 대비한 구조적 설비에 주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취사와 난방으로 인한 연기와 냄새를 배출하기 위하여 부엌에는 환기창을 설치하였다. 대개는 살창으로 하여 자연적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조선시대 부엌 내에는 급배수 시설이 따로 없었다. 따라서 쇠나 옹기로 된 물두멍을 놓고 여기에 물을 받아 사용하였다. 쇠로 된 물두멍은 술과 달리 바닥이 움푹하게 깊고 몸통과 주둥이는 지름이 축박하며 밑바닥은 삼바리 받침으로 고여서 부엌 한 귀퉁이

에 놓고 물(식수)을 담아 놓고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는 큰 항아리를 두고 사용하는 집도 많아졌다. 물을 사용한 뒤에는 부엌 바깥의 배수로에 내다 버렸다. 식품을 씻거나 설거지할 때는 우물이 집 안에 있는 상류층 가옥은 대개 우물가에서 하였지만 우물이 별도로 없는 서민층 가옥은 개수통을 마련해서 사용하였다.

부엌공간 사용은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여름철에 난방이 따로 필요 없고 또 집안에 큰 행사가 있어서 아궁이가 더 필요할 때는 부엌공간이 아닌 곳에 별도의 화덕을 마당에 설치하여 활용하였다. 이것을 ‘한뎃부엌’이라 하였으며, 지금도 농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용한 시설이다.

보통 부엌 양측에 모두 문이 있었다. 이는 안마당에서의 출입과 뒷마당의 서비스 공간의 편이한 왕래를 위함이었다. 즉 한식의 필수적인 기본 재료인 간장, 된장, 고추장이 비치된 뒷마당의 장독대와 부엌 사이를 왕래해야 하였다. 장독대는 햇볕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놓여야 하기 때문에 보통 안채의 뒤뜰에 배치하였다. 따라서 부엌에는 안마당과 뒤안으로 쉽게 왕래할 수 있는 양방향 개폐의 문 설비가 구성되었다.

상류주택, 특히 지방의 상류주택에서는 크고 작은 규모의 부엌이 두 곳 이상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하나는 안방과 접한 조리를 하는 주된 부엌이고, 다른 하나는 방에 불을 때기 위한 아궁이 성격을 부엌으로 전환하여 술을 걸고 평상시 더운 물을 끓이며 때로는



전남 구례 윤조루 고택

부엌 | 서현강



강원 강릉 선교장

조리도 하였던 것이다. 상류주택 가운데서도 특히 대가(大家)라 일컫는 큰 주택에서는 부엌 위 지붕 밑에는 누다락을 설치하고 바닥에 불을 지피는 아궁이를 만들어 부엌은 순수 취사를 위한 공간인 반딧간으로 구성되었다. 조선시대 상류층 가옥의 부엌에서는 하인들이 모여 식사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목적과 기능 때문에 다른 일반 가옥에 비하여 상류층 가옥의 부엌이 큰 경우를 볼 수 있다.

식사생활의 일상적 과정에는 음식을 준비하는 취사공간, 마련된 음식을 차리는 설비 및 배선공간, 식사를 하는 공간, 남은 음식을 저장·관리하는 설비 및 공간이 필요하다. 조선 후기에는 한식문화가 가장 풍부하게 발전하였고, 지역에 따른 고유한 음식문화도 크게 발전하였다. 이러한 음식 발달은 점점 취사를 보조하는 부엌 옆의 다양한 공간들의 구성과 맥을 함께 하였다. 일반 가옥에서는 광이나 곡간이 많았다. 전라남도 지역의 경우 젓갈 보관을 위한 젓곳간이 발달하였다. 그 외 지역도 고방, 도장, 곡간, 광, 찬방, 찬광, 마루광 등 다양한 호칭으로 불린 식품 저장 공간들이 마련되었다. 또한 발효를 위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김치를 저장하기 위한 김치광이 있었다. 이것은 부엌 옆 뒷마당이나 아래채에 설치되었다. 김치광 안에는 여러 개의 김칫독이 땅에 묻힌 채로 상비(常備)되어 겨울철 식사 반찬으로 가장 중시되었던 것이다.

상류층 가옥이나 서민층 가옥 모두 부엌의 안방 쪽이나 뒷마루 쪽으로 배선이나 유사시 동선 단축을 목적으로 사잇문을 낸 경우도 많았다. 부엌 천장은 대

부분 서까래가 노출되는 연등천장이거나 집의 규모가 일정 이상 큰 가옥은 대부분 상부에 다락을 조성하므로 이 다락의 바닥이 부엌 천장이 되었다. 특별한 사례이지만 전라남도 해남의 윤선도 고택처럼 지붕의 일부를 덧지붕으로 돌출시켜 부엌의 연기와 냄새를 지붕 위로 빼내는 과학적 구조를 지닌 경우도 있다.

이러한 부엌공간은 1960년대 이후 크게 변화하였다. 구한말부터 도입된 서구식 교육에 힘입어 공간의 기능적인 사용과 설비 개선 의식이 확산되었다. 광복 이후 특히 1972년에 전국적으로 시작한 새마을운동이 농촌은 물론 도시까지 크게 파급되었으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부엌공간이었다.

경제개발정책의 확산과 위생적 기능 의식은 사회 전반에 엄청난 변혁을 몰고 왔다. 부엌바닥과 부뚜막의 재료는 전통적인 흙에서 시멘트로, 시멘트는 다시 깨끗한 타일마감으로 바뀌었다. 대도시 신축 주택이나 일부 주택들은 이미 1960년대부터 부엌이 취사 중심 공간으로 바뀌면서 실내 연계가 이루어져 서서히 공간 입식화로 개선되었다. 이런 배경에는 취사와 난방 연료의 대체에너지 변화가 있었다. 1960년대 도입된 석유연료는 취사와 난방을 비로소 분리·가능하게 해 주었다. 난방은 보일러가 설치되어 가능하였고, 취사는 석유곤로가 개발되어 편리한 식생활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등장한 가스레인은 한 차원 위의 취사혁명만은 물론 부엌의 실내 입식화를 가능하게 만든 주인공이었다.

1970년대 서울 등지에서는 부엌의 입식화가 많



타일을 붙인 개조식 부엌 | 충남 서산 정순왕후 생가 | 국립민속박물관



현대식 공유부엌 | 서울 금천구 | 국립민속박물관

이 진행되었지만 전주처럼 전통적인 지역에서는 여전히 도시한옥이 많았다. 이러한 차이는 부엌공간의 평면이나 입면상으로도 지역 간에 시기적 차이가 있음을 말해준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에 보급된 아파트가 가옥의 대표 자리를 굳히면서 부엌의 빠른 변화가 이루어졌다. 실제 우리나라 도시 부엌의 입식률은 1970년 18%에서 1985년경에 50%를 넘었다.

특징 및 의의 주로 가사를 담당하는 여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간은 예나 지금이나 부엌이다. 주거 유형으로 아파트가 확산되면서 공간 평면이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부엌의 위치나 크기도 달라졌다. 1990년대를 기점으로 아파트의 30평형대 이하는 一자형 부엌 작업대가 ㄱ자형으로, 40평형대 이상은 ㄷ자형 혹은 조반용-breakfast 식탁이 달린 반도형 peninsula으로 그 크기가 확대되었다. 또한 일부의 부엌 작업대 제조회사가 고급 재료와 다양한 상판 컬러가 들어간 작업대를 제품화하여 판매함으로써 단순히 기능 중심이었던 이 부엌에 장식적 인테리어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이후 부엌에 도입된 변화는 상부 수납장에 휴대용 라디오나 텔레비전 연계 비디오를 설치하고, 시각을 알려주는 등의 서비스 설비가 통합되기 시작하였다. 부엌이 가사노동이라는 한정된 공간의 성격에서 다기능적 활동이 가능한 곳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특히 아파트 설계의 질적 변화는 부엌이 거실 및 식사공간과의 연계와 조화를 이루도록 개방적인 인테리어 디자인을 시도하였고, 여성들의 정서적 감각을 반영하기 시작하였다. 아일랜드 작업대가 도입되거나 부엌 주변에 별도의 독립된 식품고가 설치되는 추세이며, 냉장고를 비롯한 다양한 가전제품이 불박이 수납공간 안에 일체화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현대 부엌은 취사의 속성은 유지하지만 식사공간이 인접한 다기능 복합 공간이 되어가고 있으며, 주거공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가족 모두의 공간이 되었다. 부엌은 현대인에게 거실과 식탁의 연계가 이루어지는 집의 중심이자 가장 중요한 공간이다.

참고문헌 조선시대 반가의 주생활과 공간사용에 대한 연구(박선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한국의 민가 연구(장보웅, 보진재출판사, 1981), 한국의 전통적 주방공간에 관한 연구(윤정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한국의 주거 민속지(김광언, 민음사, 1988).

필자 박선희(朴善姬)

부연 附椽

정의 겹처마를 구성하는 처마서까래 끝에 거는 길이가 짧고 단면이 방형인 서까래의 일종.

내용 부연附椽은 처마를 더 길게 뻗 목적으로 장연 끝에 덧달아낸 방형 서까래이다. 고대건축에서는 부연을 사용하는 것을 사치라고 여겨서 법으로 금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차양을 달아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차츰 규정이 완화되고 기술이 발달하여 부연을 설치함에 따라 처마가 깊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러 건물이 있는 경우 정전과 주요 건물은 겹처마로 하고 행랑채 등 부속 건물은 홑처마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하나의 건물에서도 앞에만 겹처마로 하고 나머지는 홑처마로 하는 사례도 있다. 이를 보면 부연이 처마를 길게 빼는 것 외에 장식 효과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연은 처마서까래마다 걸기 때문에 처마서까래수와 같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선자연의 초장과 이장 사이가 벌어져서 넓게 보이기 때문에 부연을 하나 더 넣어 주는 경우가 있다. 이를 새발부연이라고 한



부연 | 서울 중구 덕수궁 석어당 | 김왕직

다. 또 부연은 평연과 선자연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건다. 평연 위에 올라간 부연은 평부연(벌부연), 선자연 위에 올라간 것은 고대부연(선자부연)으로 구분한다. 평부연과 고대부연은 큰 차이가 없지만 고대부연이 좀 더 길고 곡이 세며, 착고판을 끼우는 홈이 사선으로 난다는 것이 다르다.

특징 및 의의 부연도 소매견이를 하지만 지역과 목수에 따라 차이가 있다. 보통은 소매견이 시점이 말구로부터 3분의 1 지점에서부터 출발한다. 소매견이의 정도가 세고 약한 차이가 있다. 부연의 말구도 서까래처럼 직절하지 않고 10분의 1 정도로 사절하며, 양 옆면도 밑부분이 좁고 위가 넓은 역사다리꼴로 가공한다. 밑에서 올려다보았을 때 안정감과 위가 좁아 보이는 착시현상을 교정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부연의 모양은 중국과 일본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한국건축의 고유한 기법이다.

참고문헌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김왕직, 동녘, 2007), 지혜로 지은 집 한국건축(김도경, 현암사, 2011), 한국건축대계4-신편 한국건축사전(장기인, 보성각, 1998).

필자 김왕직(金王植)

부지깥이

정의 짚이나 나무, 솔잎 등을 넣고 불을 땔 때 불꽃이 잘 일어나도록 쏘시개를 헤집는 데 쓰는 막대기.

내용 부지깥이는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와 헤집어서 불이 잘 타도록 할 때, 불에 타다 남은 잔가지와 재를 아궁이 안으로 들일 때에 쓰인다. 실외에 화덕을 설치해서 불을 지필 때에 같은 용도로 사용한다. 부지깥이는 난방과 조리 시에 불을 관리하는 도구이다. 부지깥이를 사용하다 보면 짧아지는데 이때 주부들은 다른 것을 골라서 사용한다.

우리의 전통적인 땔감은 장작과 잔가지, 나뭇잎,

짚 등으로 주로 난방과 조리용으로 활용한다. 주부는 부엌 아궁이에 땔감을 가지런히 정리한 후에, 불을 지피고 불길이 지속적으로 잘 일도록 쏘시개를 이리저리 헤집는다. 이때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부지깥이이다. 재와 불에 타다가 된 잔가지를 아궁이 안으로 들어서 정리할 때에도 부지깥이를 사용한다. 이 외에 부지깥이는 실외에 화덕을 설치하고 불을 땔 때에도 사용한다. 화덕은 손님에게 접대할 많은 음식을 마련할 때, 빨래를 삶을 때 등에 사용한다.

형태와 재질은 대체로 一자형이고 나무이다. 이외에 굽은 형도 있고, 철로 제작한 부지깥이도 있다. 재를 아궁이 안으로 들일 수 있도록 끝에 별도로 네모난 나뭇조각을 붙이기도 하였다. 손잡이는 나무로 되어 있고, 불에 직접 닿는 부분은 쇠로 만들기도 하였다. 부지깥이는 단순하면서도 다양한 형태를 취하며 오래전부터 사용되었다.

화력이 점점 세져서 부지깥이에는 불이 붙기 일췌였다. 그러면 주부는 불붙은 부지깥이를 부엌 바닥에 탁 쳐서 불을 끈다. 부지깥이는 불길이 직접 닿는 끝부터 조금씩 타면서 손잡이 부분으로 올라와 결국 길이가 점점 짧아진다. 부지깥이는 길이가 짧아져 불을 관리하는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결국 부지깥이 자신도 불 속으로 들어가 한 줌의 재가 되면서 수명을 마친다.

부지깥이는 부엌이 입식으로 바뀌고, 연료가 연탄 등으로 대체되면서 실내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문간방 또는 사랑방이 있는 농촌 주택에서는 아궁이에 불을 피우고 부지깥이를 활용하여 쇠죽 등을 쪄기도 한다. 그리고 단독주택에서는 마당 또는 부엌 근처에 화덕을 설치해서 부지깥이를 사용하여 불을 지핀다. 부지깥이는 불을 다루는 데 주로 사용되었지만, 아이들을 야단칠 때와 동물들을 밖으로 내쫓을 때에도 사용되었다. 불을 지피는 것이 부지깥이의 본래 사용 목적이지만, 주부들은 자신의 힘을 드러내야 할 때에도 이를 사용하였다.

특징 및 의의 부지깥이는 단순하면서도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고 있으며, 인류는 불을 발견하면서부터 불을

관리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왔다. 부지깽이는 불의 화력을 조절하기도 하고 흐트러진 불을 다시 정리하는 유용한 기능을 하면서 가족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추운 겨울을 지낼 수 있게 하였다.

참고문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e뮤지엄(emuseum.go.kr).

필자 박종민(朴鍾珉)

분가

분가

분가 分家

정의 가족 구성원이 살림을 차려 주거를 달리하는 행위.

개관 ‘분가分家’라는 용어는 주로 둘째 이하의 아들이 결혼하여 새로 살림을 차리는 것을 뜻한다. 아들이 결혼 이후에 부모나 만형의 가족과 함께 생활하다가 독립하는 것도 분가에 속한다. 딸은 출가하면 바로 시댁 식구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분가에 해당되지 않지만, 만일 결혼한 딸 가족이 함께 살다가 독립하여 나가면 이 또한 분가에 해당된다.

분가는 생활상의 영역과 법률상의 영역 변화를 구분하여 살펴야 한다. 생활상의 분가 형태나 방식이 자료로 확인되는 시기는 조선 전기 이후로, 지방의 사대부 계층이 세거지 인근에 개척한 별업別業을 차남 이하에게 나누어 주는 예를 분가로 볼 수 있다. 오늘날 삼남 지방에 다수 남아 있는 동성 촌락은 입향조入鄕祖로부터 분가하면서 형성된 것이 대부분이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별업을 이용한 분동이나 분가의 비중은 줄어들었고, 같은 마을 내에서 분가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광복 이후의 분가는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전된 이후 셋방이나 셋집을 얻어 주고 살림살이 일부를 장만해 주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결혼과 동시에 분가하는 것이 보편화되었고, 집을 남성이 마련하는 대신 여성은 살림살이를 혼수로 장만하는 형태가 자리 잡았다.

내용 엄밀히 말하여 분가는 인간이 가족생활을 영위

한 직후부터 존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 분가의 역사를 통시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는 남아 있지 않고, 문서 자료를 통하여 짐작할 수 있는 시기는 조선 전기부터이다. 이 또한 분가에 관한 상세한 기록보다는 주로 분재기의 형태로 남아 있다. 분재기는 부모 생전 혹은 사후에 상속분을 나누는 문서이므로 상속 상황을 파악할 수 있지만 분가의 양상을 정확히 추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조선 전기에 새로운 지배계층으로 등장한 사대부는 중소 지주층 출신으로, 성리학과 함께 들어온 이양법을 통하여 소득을 증대시키고 미간지를 개간하여 경제력을 길렀다. 그리하여 거주지 인근에 이른바 별업을 개척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매입하여 별업으로 삼은 예가 적지 않았다. 생전 또는 사후에 차남 이하에게 별업을 분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이 분가의 한 형태이다. 그 외에 세거하는 마을 안에 따로 집을 지어 분가시키는 예도 많았다. 이러한 세거지와 분가·분동의 상황은 삼남 지방에 산재한 유력 가문의 족보를 통하여 시기별로 재구성할 수 있다. 도시화가 진전된 1960년대 이후에는 차남 이하가 결혼할 때 셋방이나 셋집을 얻어 주고 살림 일부를 장만해 주는 것이 분가의 형태로 자리 잡았다. 결혼할 때 남성이 집을 장만하고 여성이 혼수를 마련하여 살림살이를 갖추는 형태가 공고해진 것도 대략 이 시기로 볼 수 있다.

생활상의 분가 이외에 근대에는 법적인 의미의 분가가 등장하였다. 이는 일본의 호적제도를 참고한 것으로, 1909년 민적법民籍法이 시행될 때 도입되었다. 일본의 호적제도를 참고한 것이었다. 이후 1923년의 <조선호적령朝鮮戶籍令>을 거쳐 1960년 호적법에 이르기까지 분가는 호주의 권한이었다. 실제 생계를 별도로 꾸린다고 하더라도 분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동일한 호로 간주되었다. 1962년 민법에서 법정분가제도가 도입되면서 차남 이하는 혼인신고와 동시에 별도의 호적으로 자동 분가되도록 하였다. 법정분가제도는 2005년 호적법이 폐지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특징 및 의의 분가할 때는 소가족이 살 만한 대지와 가옥, 3~5정보의 농토는 보유해야 자영농으로서의 삶을 영

위할 수 있다. 따라서 재지사족在地士族이라면 분가할 때 그 이상을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 재산 규모는 각 가문의 경제력과 시대 상황에 따라 제각각이므로 분재를 통하여 추론할 수밖에 없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별업을 개간할 미간지가 거의 사라졌고, 세대를 거쳐 상속이 반복되면서 개인별 재산 규모가 줄어들었으므로 분동보다는 같은 동네 안에서 분가하는 사례가 늘어 왔다. 분급되는 재산 규모가 지나치게 줄면 모든 자녀의 경제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장남에게 봉제사 명목의 재산을 더 상속시키고 분가 재산을 줄이는 경향도 나타났다.

참고문헌 조선 후기 문중서원 연구(이해준, 경인문화사, 2008), 호적(손병규, 휴머니스트, 2007).

필자 이대화(李大和)

분합문 分閤門

정의 주로 대청 앞쪽 또는 방과 대청 사이에 설치되는 네 쪽 또는 여섯 쪽짜리 들어열개문.

개관 조선시대 영건의궐營建儀軌들에서는 분합이라는 단어가 현재보다 좀 더 넓은 의미로 쓰였다. 분합은 단순히 대청의 들어열개만이 아닌 여닫이 창호를 아

우르는 통칭으로, 주로 건물 외부의 덧문에 쓰인 것으로 보인다. 17세기 의궤에서는 크기, 18세기 의궤에서는 건물에서의 위치에 따라 분류하는 정도였으나, 19세기 의궤에서는 분합을 살 모양, 청판의 유무와 형태 등에 따라 세분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분합문分閤門은 “주로 대청과 방 사이 또는 대청 앞쪽에 다는 네 쪽 문. 여름에는 들썩 접고 들어 올려 기둥만 남고 모두 트인 공간이 된다.”라고 영건의궤보다 좁게 정의하였다. 19세기 서유구徐有渠의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서도 이와 거의 일치하는 형태를 설명하면서 “우리나라 제도[東制]”이고 “민간[俗]에서 이를 분합分閤이라 부른다.”라고 명시하였다. 즉 근세 이래 일반 주거의 용례에서 분합문은 주로 대청에 설치한 네 짝 들어열개문을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내용 우리나라 주거의 대청에 쓰인 들어열개 형식의 분합문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네 짝으로 이루어진 분합문 중 가운데 두 짝은 문울거미의 선대, 즉 세로변에 돌쩌귀를 달아 양쪽 끝의 두 짝과 각각 연결한다. 양쪽 끝의 두 짝은 문작의 윗울거미와 문틀 상인방에 돌쩌귀를 달아 연결한다. 문을 열 때에는 가운데 두 짝을 각각 좌우로 열어 양쪽 끝 두 짝 위로 접어서 포갠 다음, 문 아랫단을 들어 올려 서까래에 매달아 늘어뜨린 들쇠에 걸친다. 때로 네 짝이 아닌 여섯 짝으로 구성할 때도 있는데, 이 경우 중앙의 두 짝



경북 안동 하회 원지정사
분합문 | 서헌강



전북 정읍 김명관 고택

은 각각 한 짝씩 들어열개로 들쇠에 매달고 그 좌우의 두 짝씩은 앞서 네 짝으로 구성된 분합문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각각 접어 겹쳐서 들쇠에 매단다. 서유구가 『임원경제지』에서 설명한 분합도 위에 설명한 네 짝짜리 구조와 유사하다. 다만 서유구는 분합의 문을 여닫는 부분이 지도리[鐵樞]에 쇠비녀장[鐵簪]을 끼워 고정시키는 형태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밖으로 노출된 쇠비녀장이 쉽게 뽑히는 단점을 없애기 위하여 암수로 된 돌쩌귀[鑿樞]를 써야 한다고 하였다.

들어열개 형식의 분합문의 살대 짜임에는 세살(띠살), 만살(정자살)과 같은 형태가 많이 쓰인다. 서유구는 문짝의 윗부분은 문살[欄], 아래는 판자라 하여 분합 하단에 청판을 끼운 형태를 설명하였다. 분합문에는 불발기[煙窓, 連窓]가 쓰이기도 한다. 불발기는 각 문짝의 한가운데에 방형, 팔각형, 원형 등의 형태로 울거미를 짜고 그 안을 다시 다양한 살짜임새로 꾸민 것인데, 가운데에 짠 울거미 안에는 창호지를 한 면만 발라 빛이 통하게 하고 문짝의 위아래 나머지 부분은 모두 두껍게 종이를 발라 빛을 막는다. 불발기 분합문은 네 짝 모두 모양을 통일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중앙과 좌우를 달리하거나 불발기 아래위에도 한 면만 창호지를 바르고 살짜임새를 노출시켜 변화를 주기도 한다. 근래에는 불발기를 수리할 때 한 면만 창호지를 발라 방 안에 빛을 더 환하게 들이도록 한 사례들이 있다. 다만 이런 불발기는 살짜임새가 투박하고, 살대도 등밀이나 투밀이 등의 꾸밈없이 앞뒤 모두 평활하게 다듬은 형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살대를 노출하도록 제작한 문짝과는 구분된다. 불발기는 원래 문짝 위아래의 면에 종이를 발라 가려 상하의 빛을 막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특징 및 의의 들어열개 방식의 분합문은 기후의 변화나 의례상의 필요 등에 따라 대청을 주위 공간으로 크게 개방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으로, 주거공간 사용에 융통성과 운치를 더하는 장치이다.

참고문헌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김왕직, 동녘, 2007), 영건의례(영건의례연구회, 동녘, 2010), 임원경제지-섬용지1(서유구, 임원경제연구소 역, 풍석문화재단, 2016), 한국건축대계1-창호(장기인, 보성각, 1993), 한국건축대계4-

신편 한국건축사전(장기인, 보성각, 2005), 한국의 문과 창호(주남철, 대원사, 2001), 국립국어원(korean.go.kr), 두산백과사전(doopedia.c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이우종(李雨鍾)

불란서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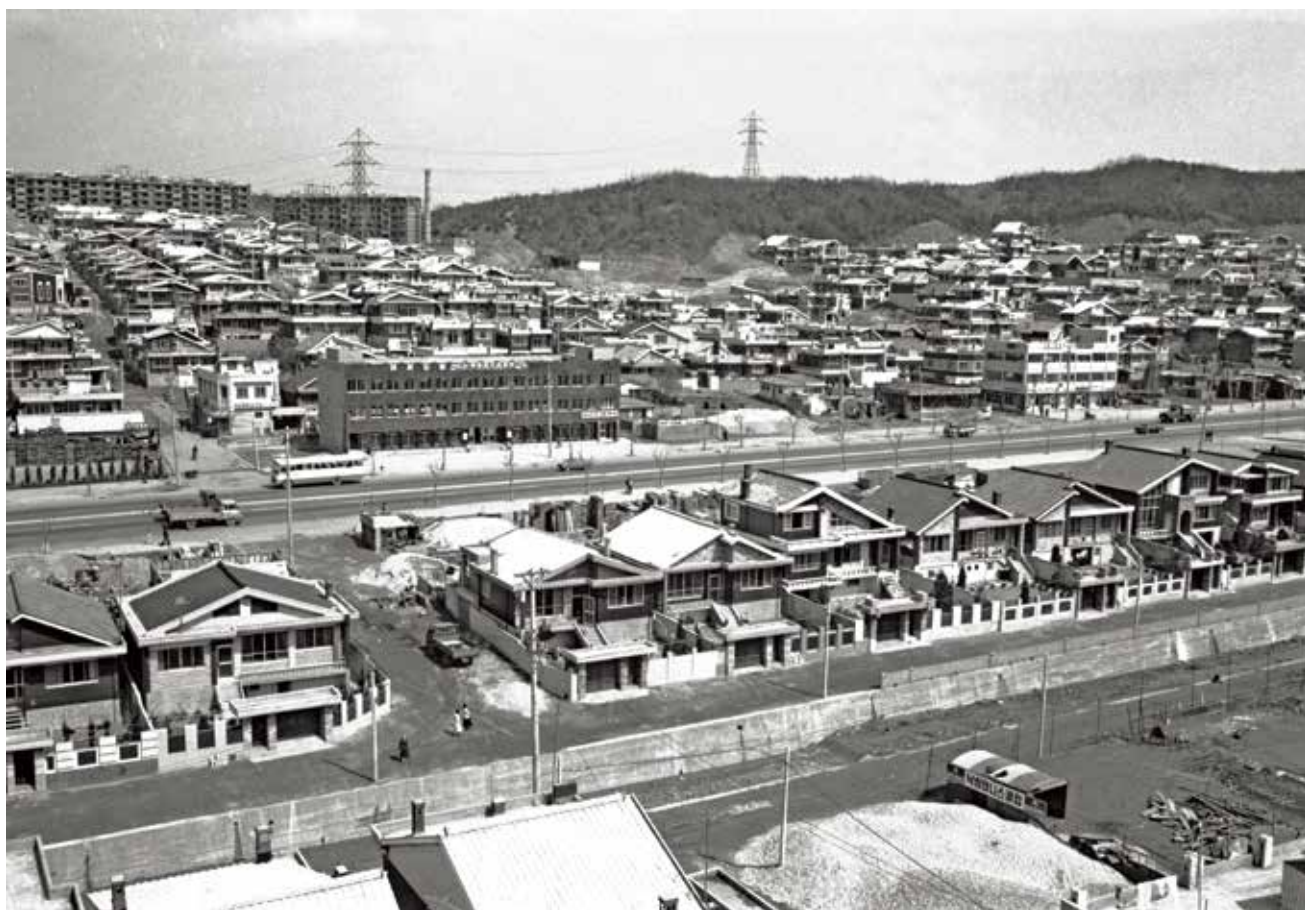
拂蘭西住宅

정의 프랑스 건축양식에 토대를 둔 양식의 주택이 아니라 1970년대 중반 이후 폭발적 경제성장에 따른 주택시장 활황에 편승해 민간주택사업자들이 상품주택에 부여한 명칭.

내용 우리나라는 1970년대 10년간 연평균 10.5%의 폭발적 경제성장 과정에서 중산층이 등장하였고,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에서 행정권역 확장에 따른 대규모 주택공급을 도모하며 아파트에 비해 선호도가 높은 단독주택을 대거 공급하였다. 서민용 주택이라는 인상을 주었던 아파트에 ‘맨션’이라는 이름을 붙여 고급의 세련된 중산층용 주택이라는 인상을 갖도록 하였듯 경제적 형편이 나아진 단독주택 수요층을 상대로 민간건설업체는 ‘주택’ 앞에 프랑스를 뜻하는 ‘불란서拂蘭西’를 덧붙여 꿈에 그린 집이라는 이미지를 부여했다.

불란서주택은 통상 八자형이나 入자형을 갖는 뽕족지붕 아래 다락방을 두면서 현관이나 대문은 아치형으로 모양을 내고, 발코니 부분에는 유래를 알 수 없는 콘크리트 기둥을 마치 서양의 신전건축에서나 볼 수 있는 모양으로 붙이면서 1970년대 유행을 선도하였다. 여기에 지붕의 용마루를 남쪽으로 향하도록 하여 동서 방향으로 경사를 이루도록 하였다. 하지만 건축양식사의 측면에서나 재료 및 의장의 측면에서 프랑스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

불란서주택의 유행은 1970년대 중반 이후 광풍처럼 몰아쳐 신문지상의 매물정보나 부동산 시세에 하루가 멀다 하고 실렸고, ‘미니 불란서식 2층’, ‘불란서주택’, ‘미니 2층 불란서식’ 등으로 소개되었다. 이



불란서주택이 밀집한 봉천동 주택가 | 서울 관악구 | 1978 | 서울사진아카이브

들은 모두 단독주택이었는데, 1976년에는 단독주택 유행에 편승해 ‘불란서식 아파트’라는 선전 문구를 붙인 아파트 분양광고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그런 까닭에 주한 프랑스대사관까지 나서서 프랑스의 주택 건설을 설명하는 신문 기사를 게재하였을 정도였다.

불란서주택을 욕망하지만 비용 감당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전체 공사비를 줄이는 방법이 모색되었는데 반지하 셋집을 뒤 전세보증금으로 건축비 일부를 충당하는 방법이 쓰였다. 그렇게 등장한 주택이 바로 ‘미니 2층 불란서식’이다. 세트장이라고는 하지만 텔레비전 드라마로 방영된 <응답하라 1988>의 정봉·정환 집이 그렇다. 대도시 지역에서 크게 붐을 이룬 불란서주택은 다시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농촌 주택개량사업으로 이어져 주택 정면에 화강석을 붙이고, 뽕죽지붕 아래 난간에 콘크리트로 만든 기둥을 장식처럼 두르는 방식이 유행하며 전국적으로 1970년

대 상품으로서의 주택 이미지를 강화하였다.

특징 및 의의 1970년대 후반은 불란서주택의 절정기였는데, 이미 그 이전의 잠재적 동력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6·25전쟁 이후 통상 용어로 자리 잡은 ‘양옥’은 일제강점기의 ‘문화주택’이 변용된 것이다. 1970년대의 폭발적 경제성장을 이르는 용어가 소비 상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란서’로 특정된 것인바, 양옥이 재래의 건축과 외래의 건축을 구분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인 것처럼 불란서주택 역시 통상의 양옥과 구별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로 자리 잡은 것이다.

1960년대 이후 유럽의 국가는 대부분 근대건축의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고층아파트 위주의 주택 공급 방침에서 벗어나 도심인구분산 정책의 일환으로 외곽 신규지역을 개발하며 충분한 공공시설을 갖

춘 평온한 분위기의 단독주택 공급으로 전환하였는데, 이와 달리 1970년대 중후반 우리나라에서 프랑스 문화를 과잉 소비하면서 주택에 덧씌워진 것이 곧 불란서주택이다. 당시 여성용 스타킹 광고에서도 ‘프랑스의 멋’이라는 광고문이 실릴 정도로 프랑스는 과시를 위해 소비되었는데, 해외여행도 불가능하였던 시절이었으니 불란서주택은 욕망으로 소비되었을 뿐이다.

참고문헌 박철수의 거주박물지(박철수, 집, 2017), 집-집의 공간과 풍경은 어떻게 달라져 왔을까(전남일, 돌베개, 2015), 한국 주택 건축의 실상(윤승중, 건축사150, 대한건축사협회, 1981), 한옥과 한국주택의 역사(권용찬·전봉희, 동녘, 2012), 경동 미주아파트 분양 광고(동아일보, 1976.10.18).

필자 박철수(朴哲守)

불발기창

정의 문 가운데에 채광이 되도록 여러 문양의 살을 짜서 창호지를 안쪽에 바른 불박이 광창.

내용 ‘불발기’란 ‘불밝힘’의 뜻을 가진 것으로 빛을 유입하여 방을 밝힌다는 의미이다. 불발기를 언제부터 사용하였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설치된 건물들의 건립연대를 토대로 널리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를 조선시대 후반으로 짐작할 수 있다.

불발기는 어두운 실내를 밝히는 광창으로 궁전 침

전과 상류 주택·서원·향교·누정 등의 대청과 방 사이에 나 있는 문 가운데 설치되며 연창連窓이라고도 한다. 이 창은 일반적으로 두 짝 이상으로 구성된 분합문에 설치되어 있다. 채광을 위한 불발기는 분합문 가운데 세살의 안쪽에 창호지를 바른 명장지로 꾸미고 나머지는 안팎에 창호지를 발라 빛을 차단한 맹장지로 꾸민다. 간혹 분합문과 불발기 모두를 명장지로 한 문도 있다. 즉 불발기는 문에 별도로 낸 불박이 창이다. 드물게 들어열개 문 가운데 개폐 가능한 명장지창을 내기도 하는데, 이 창은 불발기와 구분되는 부설창에 속한다.

불발기의 높이는 일반적으로 앉은 사람 눈의 수평 기준 높이와 같게 한다. 이는 좌식 생활에서 밝기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적절한 높이로 눈보다 높거나 낮으면 답답하다. 불발기는 집과 각실의 용도에 따라 울거미 형태와 살 짜임새가 다르다. 울거미나 살 짜임새는 모두를 하나의 모양새로 통일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문짝 수가 많은 경우 중앙과 좌우를 달리하여 변화를 주기도 한다. 울거미의 형태는 사각형·육각형·팔각형·원형 등이 있으며, 살 짜임새는 정자살·빗살·완자살·아자살·귀갑살·숫대살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꾸민다. 격이 높은 궁전과 주택의 사랑채는 안채보다 살의 꾸밈새를 화려하게 하여 권위와 위엄을 더해 주기도 한다.

특징 및 의의 사람이 거주하는 방의 채광을 위하여 대청과 방 사이의 출입문 가운데 주로 설치하여 실내를 밝



충남 아산 외암 건재 고택

불발기창 | 서현강



경북 경주 양동 송첨 종택

했다. 사각형·육각형·팔각형 등의 울거미 형태에 장수와 만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은 각종 문양의 살을 베풀어 미적 효과를 더해 주기도 하였다. 살 짜임새의 화려함 정도는 건축물의 품격과 신분을 상징한다.

참고문헌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김왕직, 동녘, 2007),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한옥(신영훈, 현암사, 2000), 한국건축대계1-창호(장기인, 보성각, 2000), 한국의 문과 창호(주남철, 대원사, 2001), 한국의 살림집(신영훈, 열화당, 1983), 한옥의 향기(신영훈, 대원사, 2000), 화성성역의궤 건축용어집(경기문화재단, 2007).

필자 정명섭(鄭明燮)

불박이장

정의 옷이나 이불 등을 수납하기 위하여 벽면에 고정하여 설치한 장櫥.

내용 불박이장이 등장하기 이전에도 한국에서는 안방의 다락이나 벽장을 일종의 불박이 수납공간으로 활용하여 왔지만, 이불과 옷은 주로 장롱에 보관하였다. 안방의 장롱은 여성이 혼인할 때 혼수로 마련하기도 하고 살면서 구입하기도 했는데, 주부의 취향과 집안의 경제적 수준을 상징하는 가구로 여겨져서 목돈을 들여 장만하고는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1970년대 이후 더 강해져서 장롱의 고급화와 대형화가 더욱 진행되었다. 1980년대에는 16자^[R] 장까지 등장할 정도로 장이 커졌고, 장롱이 큰 면적을 차지함으로써 방의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문제는 도시화와 산업화로 이사가 잦아진 상황에서 큰 장롱은 운반하기도 어렵고 운반 과정에서 파손의 위험도 컸으며, 기존에 살던 집과는 문이나 방의 크기가 달라서 배치하기도 쉽지 않았다. 그렇기는 하지만 자기 집을 마련할 때까지 셋집을 전전하면서도 주부들은 장롱에 애착을 가졌다.

일반 장롱에 비해 불박이장이 여러모로 실용적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확산되지 못한 데는 비용이 영향을 미쳤다. 이미 건축된 주택에 불박이장을 새로 설



불박이장 | 울산 남구 | 2010 | 국립민속박물관

치하려면 일반 장롱을 구입하는 것 못지않게 경제적 부담이 컸다. 따라서 불박이장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신축하면서 설치하도록 하는 편이 효과적이었다. 결국 아파트 건축이 늘어나면서 불박이장의 보급도 증가할 수 하였다.

국내에서 아파트 침실에 처음으로 의류 및 침구용 불박이장이 설치된 것은 1959년이다.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소재 개명^{開明}아파트에 설치되었는데, 건평 18평의 75가구 5층 아파트였다. 광복 이후 아파트가 최초로 준공된 해가 1958년이었음을 감안하면, 아파트에 불박이장이 설치된 시기는 매우 빨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장롱 위주의 주거문화 영향으로 불박이장의 보급은 이후 큰 진전이 없었다.

불박이장의 설치가 본격화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서였다. 1980년대까지는 아파트에 불박이장을 설치한다고 해도, 안방에는 여전히 일반장롱이 자리

잡았고 대개는 안방이 아니라 작은방에 소형 불박이장을 설치하는 수준이었다. 1986년 6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에도 “공동주택에는 1개소 이상의 수납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소형아파트에는 다용도실에 창고를, 대형아파트에는 작은방에 불박이장을 설치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안방에 불박이장을 설치한다 해도 중년 주부들 중에는 장롱을 버리려 하지 않고 불박이장과 함께 쓰는 경향이 강하였다. 따라서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작은 평수의 아파트에 굳이 더 좁아 보이기만 하는 불박이장을 설치할 필요가 없었다. 50~60평이 넘는 대형아파트 역시 안방에 불박이장을 설치하면 거주자가 갖고 있는 고급 가구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철거하는 일이 많아서 설치를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던 중 1993년 부산 해운대구에 안방에도 대형 불박이장을 설치한 아파트가 등장하고, 1994년에는 건설부에서 주택업체로 하여금 아파트 안방에 불박이장을 설치할 것을 적극 권장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아울러 장롱을 그 집의 경제적 지위를 과시하는 상징물로 인식하지 않는 젊은 주부들이 불박이장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에 힘입어 1990년대에는 전체 가구시장에서 극히 작은 비중을 차지하던 불박이장 시장이 조금씩 성장하였다. 이후 건축된 아파트나 오피스텔, 원룸 등에는 불박이장이 보편적으로 설치되면서 불박이장은 대중들에게 친숙한 수납가구가 되었다.

특징 및 의의 불박이장은 벽면 안쪽의 공간을 활용하여 수납공간을 설치하고 앞에 문을 달아 만든 장이다. 불박이장이라는 명칭에서도 드러나듯이, 일반 장롱과 달리 이동시킬 수 없도록 고정시킨 수납가구이다. 일반 장롱은 6자, 8자, 10자, 12자와 같이 정해진 규격이 있지만, 불박이장은 방의 크기에 따라 공간을 조절하고 사용자의 상황과 취향을 반영하여 내부를 설계할 수 있다. 아울러 방바닥부터 천장까지 벽의 한 면을 전부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장롱에 비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 수납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여닫이문이 흔한 일반장롱과 달리 불박이장은 대개 레일을 이용한 미닫이문이 많다.

참고문헌 불박이장의 형태 구조 변화와 소비자 특성 연구(이승용,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8-3, 한국콘텐츠학회, 2008), 아파트 불박이 가구 개조실태 조사연구(박영순·이숙영, 한국가정관리학회지5-2, 한국가정관리학회, 1987), 한국 가정용 가구디자인의 시대적 경향분석에 관한 연구(인미애, 한국가구학회지16-1, 한국가구학회, 2005), 한국인 어떤 집에서 살았나(김혜숙 외,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7), 안방도 불박이장 설치(매일경제, 1994.4.28).

필자 김혜숙(金惠淑)

비

정의 먼지나 쓰레기를 쓸어 내는 기구.

내용 비의 옛말은 ‘뽀’이다. 지역에 따라 비짜락, 비짜루, 비짜리, 비짜락 따위로 불린다. 재료 또한 다양해서 짚, 띠, 싸리, 수수, 소나무뿌리털, 짚, 동물 뿌리털, 청을치 따위로 엮어 방비·마당비·마루비·부엌비 따위로 쓴다. 이 가운데 방비는 목 부분을 청홍색실이나 왕골 끈으로 묶기도 하며, 마디와 마디를 조여 묶으면 부채살처럼 퍼져서 독특한 아름다움을 자아낸다.

비에는 ①장목수수비 ②장목비 ③땃싸리비 ④개꼬리비 ⑤청을치비 ⑥솔뿌리비 등이 있다.

①장목수수비의 수수는 알이 작고 껍질이 두껍지만 줄기가 길어서 농가에서 비를 매기 위해 일부러 심는다. 흔히 수수비라 부르며 부엌에서 많이 쓴다. ②장목비의 ‘장목’은 군기軍旗나 농기農旗의 깃대 끝에 장식으로 꽂는 꿩의 꽂지깃 묶음으로, 이를 모아 묶은 비가 장목비이다. 꿩의 깃도 아름답지만 손잡이나 깃을 모아 묶은 끈에 채색을 입혀서 벽에 걸면 훌륭한 장식품 구실을 한다. 상류가정에서나 쓴 고급품이다. ③명아주과에 딸린 땃싸리는 심기도 하지만 밭 근처에서 스스로 자라며, 줄기 1m에 가지가 무성해서 비를 매기에 알맞다. 줄기째 매어서 마당비로 쓴다. ④띠는 벼과에 딸린 다년생 풀로, 들이나 길가에서 스스로 자란다. 잎은 실처럼 가늘지만 길이가 65cm 정



빗자루와 쓰레받기 | 국립민속박물관
① 길이30 너비110 | 1950년대 ② 가로38 세로25

도, 줄기는 30cm에 이른다. 흔히 방비로 쓰이지만 널리 퍼지지 않았으며, 전라북도 남원 지역의 생산품을 첫손에 꼽는다. ⑤개꼬리비는 개의 꼬리만 잘라서 안의 것을 발라내고 나무 심을 박아서 맨 비이다. 방비로 쓰다가 더러워지면 물에 빨기도 한다. ⑥청을치비의 청을치는 칠당굴에서 벗긴 속껍질이며, 이를 가자로 구부러진 나무에 매어서 비로 삼는다. 흔히 상류 가정의 사랑방에서 쓴다.

우리 옛이야기에 부엌비가 도깨비로 변하는 내용이 적지 않다. 날뛰는 도깨비를 잡아서 묶어 놓았더니 이튿날 비에 피가 묻어 있었다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에서 듣는다. 이는 달거리 중의 아낙이 아궁이에 불을 넣을 때 비를 깔고 앉는 것을 경계하는 뜻을 담고 있다. 비를 깔고 앉으면 도깨비로 바뀐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이다.

또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던 노인이 큰 고개에서 만난 도깨비와 싸우다가 왼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허리띠를 풀어 나무에 묶어 놓고 이튿날 보았더니 도깨비는 간 곳 없고 피 묻은 몽당비가 있었다는 내용도 흔하다. 이를 피하기 위하여 몽당비를 반드시 불에 태웠다.

한편 농가에서는 선달그믐날 동쪽으로 뻗어 나온 녹죽(綠竹)의 잎, 엄나무가지, 익모초(益母草) 줄기, 복숭아 나무 가지 따위를 모아서 비를 매어 정과 꿩과리가 울리는 가운데 문이나 마당을 쓸어서 악귀를 쫓았다.

방목귀(放牧鬼)라는 이름은 여기에서 나왔다.

이밖에 농가에서 정월대보름날 아침 생 솔가지로 맨 비에 재를 듬뿍 묻힌 다음 뜰을 한 바퀴 돌며 재를 터는 것을 ‘뱀 치기’라고 한다. 이로써 뱀을 비롯한 여러 해충이 달아난다는 것이다. 또 이날 현 수수비를 밭가에 거꾸로 꽂고 절굿공이나 메를 들고 밭의 네 귀를 쫓고 다니면 벌레가 피지 않고 독도 튼튼해진다고 믿는다.

또 마당을 쓸 때 비 끝이 반드시 집 안쪽으로 향하도록 한다. 밖으로 향하면 복이 나간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사 때 현 비를 가져가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 비로 비질을 하면 복을 쓸어 내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비로 쓸어 모은 쓰레기를 담아 나르는 그릇을 쓰레받기라고 한다. 농가에서는 흔히 마당쓰레기를 삼태기에 담아 두엄더미에 쏟아 버리지만 도회지의 일반 가정에서는 마당쓰레기는 나무로 짠 네모 그릇에 담아 담 밖에 쓰레기통에 부으며, 방 쓰레기는 작은 쓰레받기에 담아서 아궁이 따위에 넣는다.

특징 및 의의 식물 소재로 매어 쓴 비와 쓰레받기는 시대 변화에 따라 손잡이는 물론 몸통까지 가볍고 수명이 긴 플라스틱 제품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집집마다 비를 매어 쓰는 수고도 덜어졌다. 이제는 청소도구세트라고 하여 플라스틱으로 만든 크고 작은 비와 쓰레받기를 한 묶음으로 팔기도 한다. 어디 그뿐인가? 가전 제품이 청소기까지 나오면서 비를 쓸 필요가 거의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물걸레까지 등장해서 쭉그려 앉은 자세로 이곳저곳을 훑아 다니며 닦아 내는 수고도 사라졌다.

참고문헌 민속한국사1(이규태, 현음사, 1991), 한국의 농기구(김광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69), 한국의 민속공예(맹인제,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9).

필자 김광언(金光彦)

정의 풍수적인 최적 입지 혹은 명당 조건을 보완하는 수단과 방법.

개관 풍수의 이상적 입지 환경과 여건이 부족할 때 인문적·자연적 요소를 보충함으로써 풍수적 조화를 이루고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 풍수사에서, 최적입지를 추구하는 명당풍수는 비보풍수라는 인간의 상대적 자율성이 신장된 자연-인간의 공간관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비보풍수는 한국풍수의 역사적 정체성과 특징을 이루는 문화전통으로서, 비보경관은 한국의 전통취락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며 지리생활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내용 한국에서 비보풍수의 역사적 기원은 나말여초의 도선道詵(827~898)에게서 비롯한 비보사탑설裨補寺塔說이다. 비보의 용례는 『삼국유사三國遺事』나 『고려사高麗史』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등 고려 및 조선시대 관련 주요 문헌에 다수 나타난다. 고려왕조에서 ‘비보’는 ‘산천비보’와 동의어로 사용되었고, 조선왕조에는 풍수적 조건을 보완하는 개념의 일반명사로 쓰였다. 비보에 대한 기록을 ‘비보기裨補記’라고 하였고, 그 언설을 ‘비보설裨補說’이라고 하였으며, 조선조에는 ‘비보술裨補術’이라고도 일컬었다. 비보대상의 공간적 위계는 국가비보, 군현비보, 마을비보, 주택비보 등으로도 나뉜다.

비보풍수의 법식은 비보법裨補法과 압승법壓勝法으로 구성된다. 비보법은 이상적인 풍수환경을 이루는데 부족한 조건을 인위적으로 더하고 복돋는 방식이고, 압승법은 풍수환경에서 지나치거나 흉한 여건을 빼고 누르는 방식이다.

비보풍수는 설치 장소나 조성 주체에 따라 적절히 채택되어 지역마다 명칭, 형태 등에서 각각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 통시적으로는 민간화·민속화 과정을 거치면서 비보 양식이 변모하며, 신앙적 비보에서 실제적 비보로 발전하는 과정을 보인다. 비보 형태는 시

대, 지역, 조성 주체에 따라 특징이 있지만, 사찰이나 탑, 숲, 조산 등이 일반적이었다. 사찰이나 탑은 주로 왕실이나 큰 고을의 비보 형태였는데, 그 조성과 운영에 많은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적은 비용으로 실질적인 비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숲 비보는 중·소읍이나 마을에서 많이 나타난다. 숲을 활용한 비보는 기능상 경제적·실용적이고 비보효과가 좋아서 마을의 비보수단으로 널리 활용되었다. 특히 손쉽게 조성하여 신속하고 상징적인 부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조산은 서민 마을의 대표적인 비보 형태였다. 그 밖의 비보 형태로서 상징조형물에는 선돌, 솟대, 장승, 남근석, 돌거북, 돌자라 등이 있는데, 주로 마을비보에서 활용되었다. 그리고 비보못의 풍수적 기능은 화기火氣를 막거나 흘러가는 지기地氣를 머물게 하였다. 비보놀이와 비보지명은 공동체 행위와 의식을 통해 풍수비보를 하는 형태다. 그중에 비보놀이는 대동놀이라는 집단문화적 경로로 비보 효과를 꾀하는 것으로, 주로 줄다리기 형태로 많이 나타난다. 지명비보는 호명하여 비보효과를 얻고자 하는 심리적·상징적인 비보 형태이다.

지역사례 한국의 비보풍수와 비슷한 내용은 중국, 류큐(현재 오키나와) 등지에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동아시아는 비보풍수의 원리나 방법, 형태, 기능 등에서 유사하나 각국의 지형적·문화적 배경에 따라 특수성이 있다. 중국은 물을 끌어들이는 득수得水비보에 치중한 반면 한국에서는 조산造山비보가 성행하였다. 취락 입구에 위치하는 수구비보의 동기와 기능은 공통적이거나 한국은 중국에 비해 그 규모가 작다. 비보를 위한 숲을 조성할 때 위치상으로 중국은 흔히 마을 뒤편에 하였지만 한국은 주로 앞쪽의 수구 부위에 많이 하였다. 중국에서는 풍수탑을 조성하여 문풍文風을 고취시키는 형태가 다수 나타나지만 한국이나 류큐에서는 찾기 어렵다. 한국의 비보는 중국과 달리 흉한 모습을 개조하거나 조작하기보다는 가리는 경우가 많다. 중국과 류큐의 주택 비보에는 석감당石敢當을 활용하여 진압하는 사례도 나타난다.

특징 및 의의 비보는 풍수적 조건을 보완하는 인문적 행태를 일컫는 범주로서, 자연과 사람, 생태와 문화 간의 상보적 논리에서 출발한다. 풍수상 흉지凶地일지라도 적절한 비보적 수단과 방책을 통해 길지吉地로 바꿀 수 있다고 간주한다. 여기에서 사람은 자연지형 혹은 지기地氣의 영향을 조절할 수 있는 조정자로서의 위상을 지닌다. 풍수는 자연의 상서로운 영향 하에 있을 수 있는 입지 장소와 방법을 가르치지만, 비보는 사람이 환경에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적지로 가꾸는 방법을 가르친다.

비보풍수는 풍수의 산·수·방위에 사람과 문화요소를 더하여 다섯 가지의 상호조합으로 구성된다. 기존 풍수의 산·수·방위로 대별되는 자연적 요소뿐만 아니라 비보하는 주체로서 사람 그리고 신앙, 상징, 조경, 놀이 등의 문화적 요소가 복합되어 재구성된 것이다. 비보풍수는 형세풍수와 방위풍수 혹은 이기풍수로 대별되는 동아시아 풍수의 보편성에 비추어 한국풍수의 특색을 이룬다.

주민들은 자연환경에 대한 비보 장치와 경로를 통하여 풍수적 주거조건을 개선할 수 있고, 풍수적 환경인지에서 유발된 불안 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안전판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집단심리적으로 한 공동체 집단의 풍수적 불안 요인이 있을 경우에 비보를 통해 이를 적절히 해소하여 그 집단의 환경심리적인 안정과 조화를 이끄는 문화적 장치로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

역사 속에서 비보풍수와 그 요소는 자연재해(風水害)를 조절하기 위한 실용적·실질적 기능과 상징적 경관의 역할을 겸비하였다. 또한 고려시대에는 지역균형발전의 사회적 담론으로서 사회발전을 추동하는 역할도 하였다.

비보풍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 자연과 인간관계의 통합적이고 상보적인 전통지리사상이자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기초한 전근대적인 문화생태학이자 경관생태학이다. 기존 풍수의 공간사상이 지녔던 기능적 한계를 극복하고, 자연에 대한 인간의 상대적 자율성에 기초한 공간관계를 제시해줌으로써 기술과 문명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부합할 수 있는 진보된 풍

수지리사상이자 실천으로서 가능성을 지닌다.

참고문헌 사람의 지리 우리 풍수의 인문학(최원석, 한길사, 2018), 한국의 풍수와 비보(최원석, 민속원, 2004).

필자 최원석(崔元碩)

빗장

정의 대문 등 여닫이문을 잠그기 위하여 가로지르는 잠금장치.

내용 널빤지로 만든 문 안쪽에 가로지른 나무가 빗장이고, 홈을 파서 빗장을 질러 넣어서 걸리도록 덧대어 놓은 나무가 둔테(빗장걸이)이다. 이들은 외부인 출입 제한, 기물과 곡물 등의 보관을 위해서 문에 배치된다. 거북 등 길상문양을 배치하여 집안이 대대로 번성하고 나쁜 기운을 물리쳐 주었으면 하는 기원의 마음을 담았다.

빗장은 외부인이 집 밖에서 문을 열지 못하도록 하는 잠금장치이다. 여닫이문을 집 안에서 가로질러 잠그는 막대기나 쇠장대이다. 이는 자물쇠보다 훨씬 단순한 구조로 빗장과 둔테로 구성된다. 빗장을 밀어 넣기 위해서 홈을 파 양 문에 덧댄 나무는 둔테라 한다. 둔테와 둔테에 가로질러 끼우는 것을 빗장이라 한다. 부엌문에는 부엌마다 서로 다른 각양각색의 빗장이 달려 있다. 집에는 대문과 부엌문, 곳간문, 측간문 등에 빗장을 설치한다. 이 외에 성문과 궁궐 문에도 빗장을 설치한다.

빗장은 문이 열려 있을 때나 닫혀 있을 때 둔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두 개의 볼록한凸을 만든다. 이를 둔테에 끼우면 빗장은 계속 걸려 있어서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문이 열려 있어도 한 쪽으로 기울 뿐 빗장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고 둔테에 걸려 있다.

문을 닫을 때에는 빗장 한쪽을 올리고 다른 한쪽을 내려서 수평이 되도록 하여 다른 둔테 홈에 끼운다. 이 방법이 가장 단순한 잠금방식으로, 문과 벽 또

는 양쪽 문에 둔테의 홈이 평행하게 고정시키고 그 사이에 빗장을 걸어 뚫으로써 문을 닫는다. 빗장의 뚫룩한凸부분을 손으로 잡아서 좌우로 움직여서 둔테에 끼웠다가 빼면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다.

문을 잠그는 방법은 둔테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벽선에 둔테를 부착하여 문짝을 열지 못하도록 장군목을 건너지르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궁이나 관아, 성의 문 같은 대규모 문에 쓰인다. 이와 같은 문들은 석벽에 홈을 파서 둔테를 만들고 장군목을 그 홈에 고정하여 견고하게 달아서 걸어야 한다. 두 번째는 양 문짝에 둔테를 세워 박아 빗장을 지르는 방법이다. 여염집 대문이나 부엌문, 곳간 등에 부착되는 둔테는 길이가 한 자가량 되는 나무로 만든다. 문에 부착하는 둔테 면은 중간 부분쯤에 빗장이 드나들 수 있도록 적절한 크기로 凹 모양의 홈을 파낸다. 왜냐하면 둔테 홈이 너무 크면 작은 바람에도 문짝이 덜그렁거리고, 좁으면 빗장이 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빗장의 설치 방법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빗장을 둔테에 끼우고 오른쪽 문에 둔테를 부착한다. 이어서 오른쪽과 같은 높이에 왼쪽 문에 둔테를 부착한다. 빗장은 뒤쪽과 중간쯤에 턱을 만들어 빠지지 않도록 한다. 빗장은 집 안쪽에 배치하지만, 공간에 따라서 문 안과 문 밖에 배치한다. 대문에는 빗장을 문 안뿐만 아니라 거주공간 안쪽에 배치한다. 부엌문과 곳간문에 배치한 빗장은 집 안쪽이지만, 본래 목적 공간 밖이다. 부엌과 곳간은 기물과 곡물 등을 보관하는 공간이므로 빗장을 문 밖에 배치해서 이들을 잘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영남과 호남 지방은 둔테를 거북 형상으로 만들기도 한다. 왼쪽 거북머리는 빠질 수 있도록 한다. 빗장을 지르고 거북머리를 쏘으면 빗장의 턱이 걸려서 빠지지 않게 된다. 빗장을 뺄 때에는 먼저 거북머리를 빼야 작동이 된다. 거북의 목과 머리가 몸통인 둔테로부터 위아래로 움직이며 빗장에 파인 오목한 홈에 걸리게 되어 있다. 일종의 이중 안전장치인 셈이다. 예부터 거북은 장수와 수호를 상징하니 빗장에 이보다 더 좋은 장식이 없다. 집안이 오래도록 대대로 번성하



빗장 | 강원 강릉 선교장 | 국립민속박물관



빗장 | 경북 안동 하회 | 최지현

고 외부 적과 나쁜 기운을 물리쳐 주었으면 하는 기원의 마음이 거북 형상으로 드러난 것이다.

특징 및 의의 빗장은 문의 본래 기능인 잠금과 개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대문과 궁궐문, 성문은 출입문으로 건물의 시작인 동시에 끝이다. 집 안에는 부엌과 곳간, 측간 등의 문에도 빗장을 만들어서 잠근다. 빗장은 여러 곳에서 유효적절하게 쓰인다. 게다가 길상의 형상물을 배치함으로써 가족의 장수와 가정의 수호, 가문의 번성을 기원하고 상징한다. 가족을 위한 상징이니 이보다 더 좋은 장식은 없다.

참고문헌 한국의 살림집(신동훈, 열화당, 1986), 한국의 주거민속지(김광언, 민음사, 198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박종민(朴鍾珉)



한국의식주생활사전
주 생활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of Basic Necessities

HOUSING

부록

I. 화보 II. 속담·관용구 III. 색인 IV. 필자

화보

화보

I







경주김씨 고택 | 충남 서산











學有所據切問近思

東門松消息

身心保惜精神



송별일 고택 | 충북 괴산







喜愧我心

喜愧我心

三徑荒松系
石自携幼
室為拙荒
引壺觴存
自携幼
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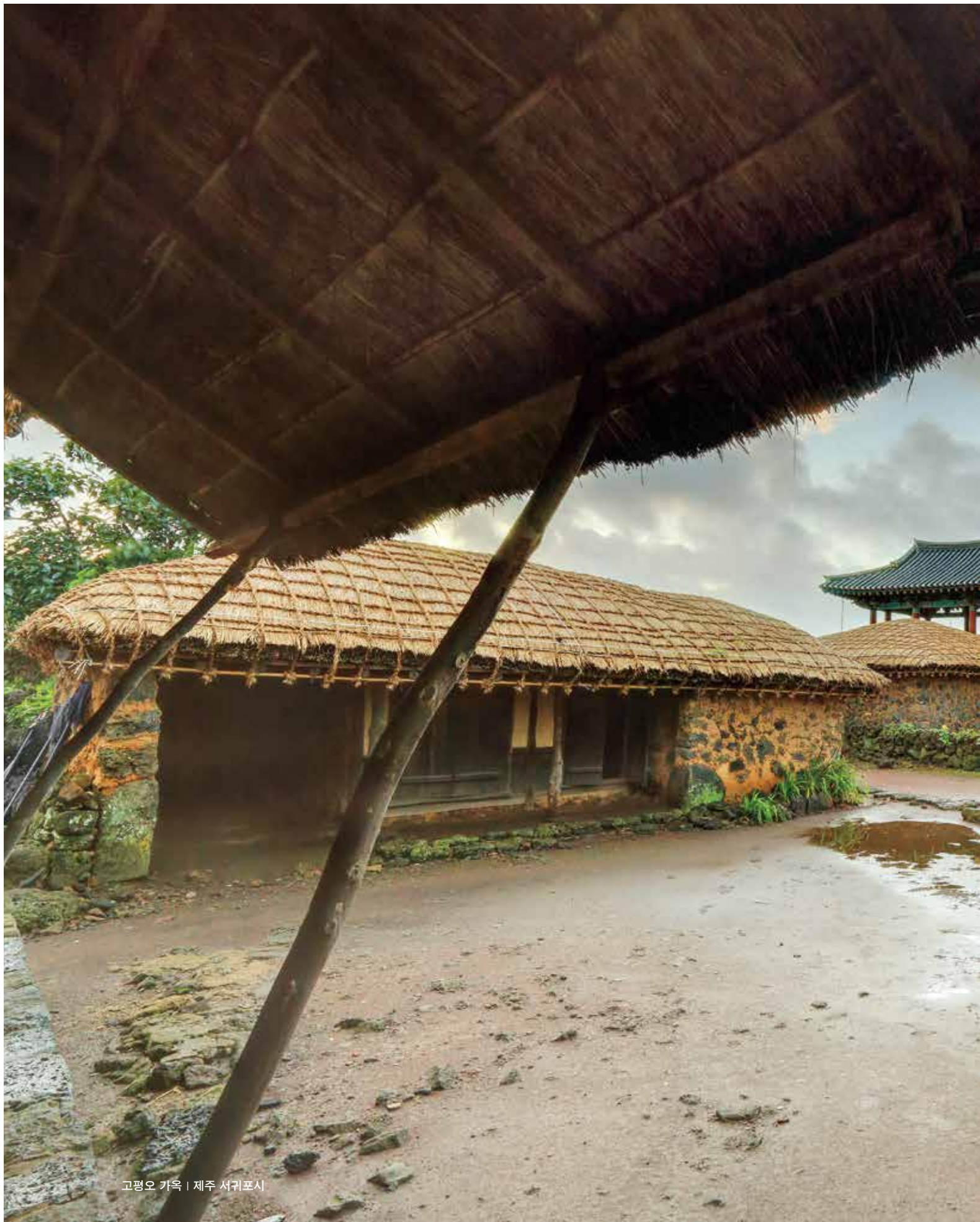
是而吹非
我景尤喜
微乃征以
雅子衡前
門載

歸去來兮
田園將蕪
胡不歸
獨悲自以
為形役
胡不歸
獨悲自以
為形役
胡不歸



송병일 고택 | 충북 괴산





고평오 가옥 | 제주 서귀포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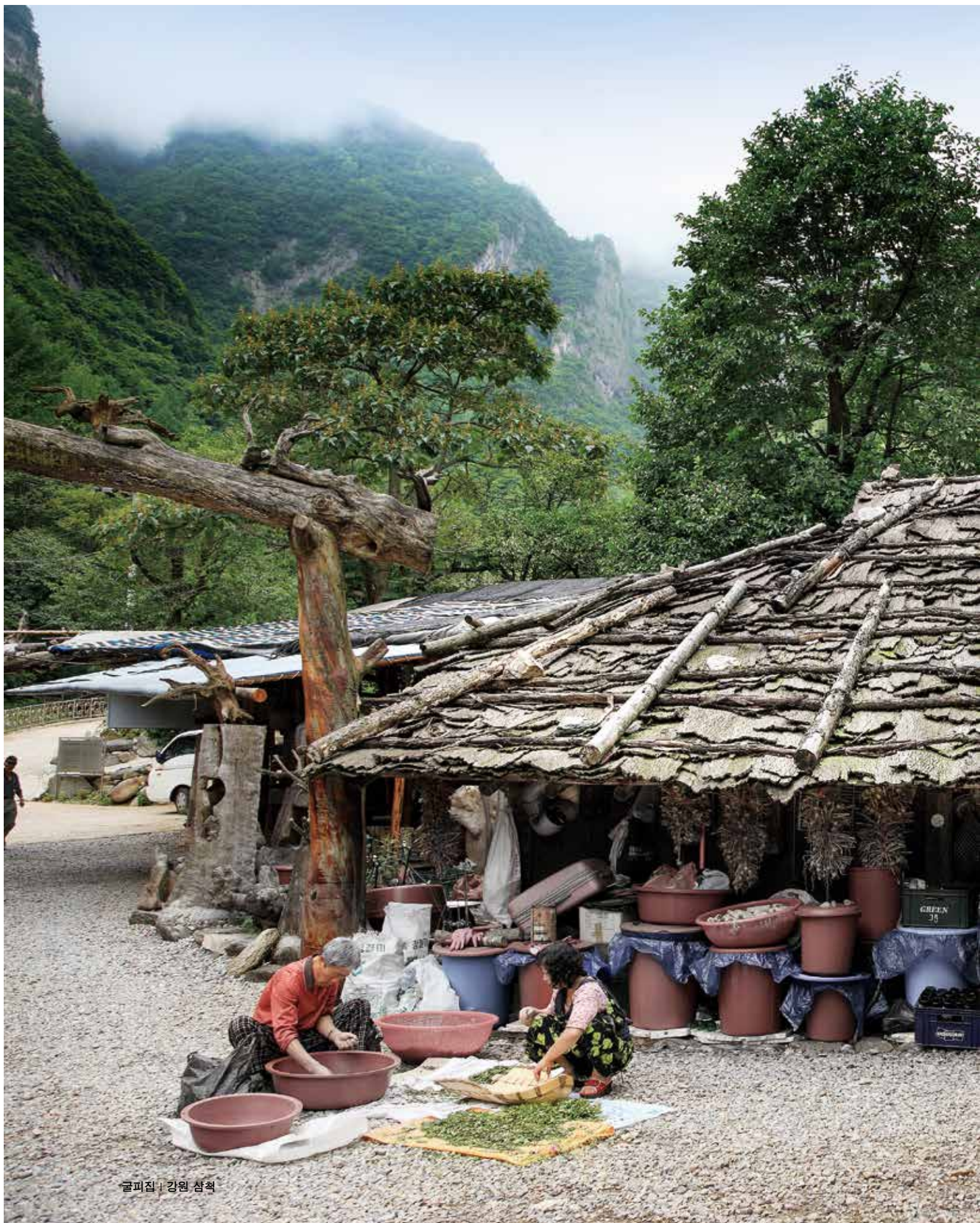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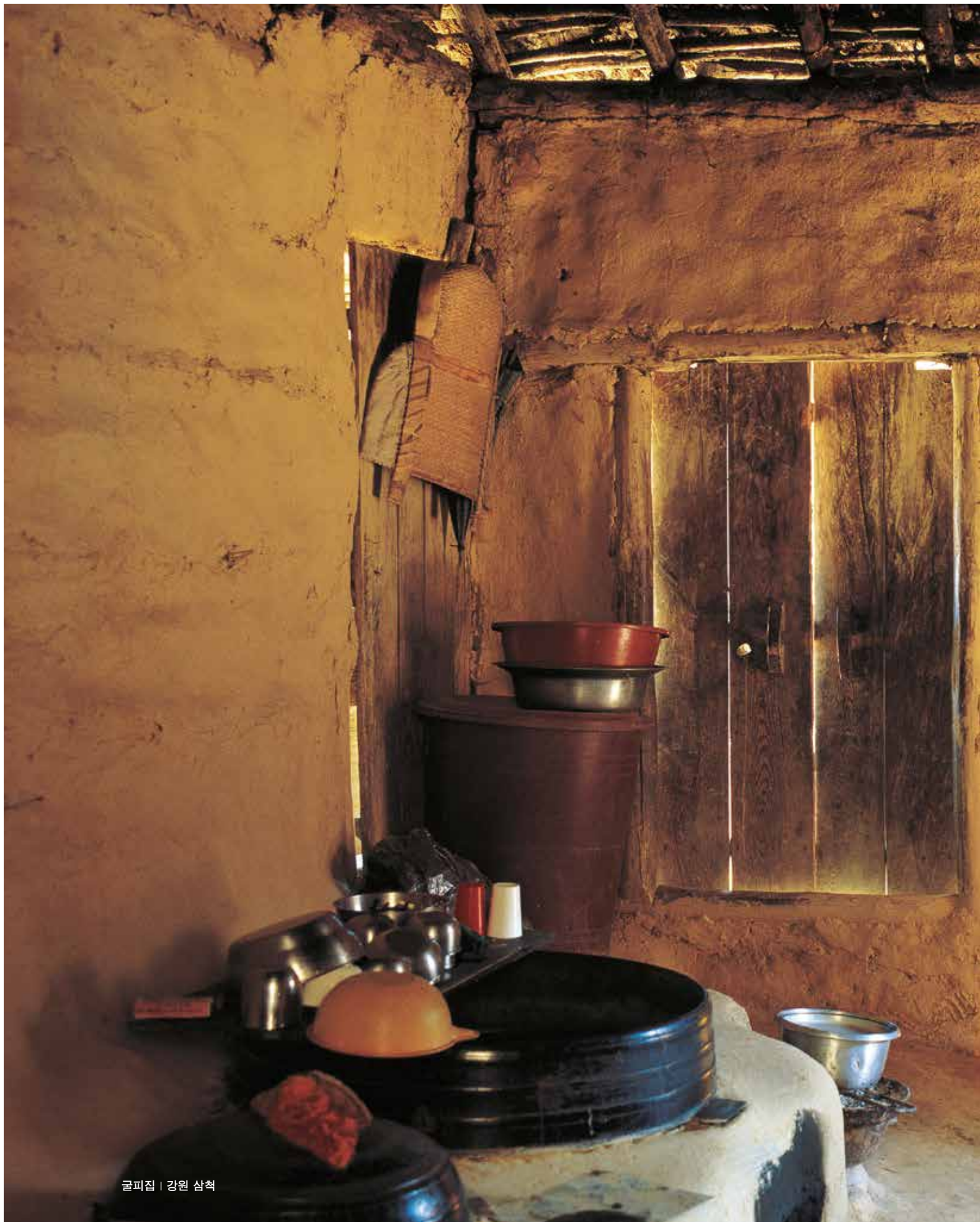






굴피집 | 강원 삼척









마루방집 | 전남 순천



時和年豐



國泰民安



명재 고택 | 충남 논산





백수현 가옥 | 경기 양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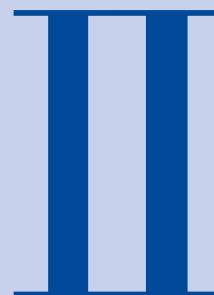






기역
니은
디귤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읓
키읔
티을
피읖
히읇

속담·관용구



기역

속담·관용구	내용
가게 기둥에 입춘 ^[주현]	추하고 보잘것없는 가갯집 기둥에 '입춘대길'이라 써 붙인다는 뜻으로, 제격에 맞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가까운 데 집은 깎이고 먼 데 절 ^[절] 은 비친다	가까운 데 있는 절이나 집은 자잘한 흠도 잘 드러나서 좋지 않아 보이고 먼 곳에 윤곽만 보이는 절이나 집은 좋아 보인다는 뜻으로, 늘 가까이에 있는 것은 그 뛰어남이 보이지 않는 반면 멀리 있는 것은 실제보다 더 돋보이기 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가난한 집 신주 굶듯	가난한 집에서는 산 사람도 배를 곯는 형편이므로 신주까지도 제사 음식을 제대로 받아 보지 못하게 된다는 뜻으로, 줄곧 굶기만 한다는 말.
가난할수록 기와집 짓는다	1. 당장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 넉넉지 못한 가난한 살림일수록 기와집을 짓는다는 뜻으로, 실상은 가난한 사람이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기 싫어서 허세를 부리려는 심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가난하다고 주저앉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잘살아 보려고 용단을 내어 큰일을 벌인다는 말.
가을 메는 부지깽이도 덩벙인다	1. 가을에 메는 용도가 많아 부지깽이도 메로 쓰인다는 뜻으로, 어떤 물건이 자주 쓰이어 그와 비슷한 것까지 마구 대용됨을 이르는 말. 2. 가을걷이 때에는 일이 많아서 누구나 바빠 나서서 거들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갑갑한 놈이 우물 판다 꼭마른 놈이 우물 판다	제일 급하고 일이 필요한 사람이 그 일을 서둘러 하게 되어 있다는 말.
같이 우물 파고 혼자 먹는다	여럿이 함께 노력하여 이룬 일의 성과를 혼자서 차지하는 것을 이르는 말.
개를 따라가면 측간으로 간다	못된 자와 어울려 다니면 좋지 아니한 곳으로 가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개 못된 것은 부뚜막에 올라간다	못된 개가 도적은 지키지 않고 더러운 발로 부뚜막에 올라간다는 뜻으로, 제구실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이 못된 짓만 함을 이르는 말.
결방살이 불내기 결방에서 불낸다	남에게 세를 내준 결방에서 잘못하여 불이 일어난다는 뜻으로, 평소에 눈에 거슬리던 데서 사고가 생겨 더욱 밉다는 말
결방살이 코 곤다 결방 년이 코 곤다^[구른다]	남의 집에서 결방살이를 하는 사람이 코를 곤다는 뜻으로, 제 분수도 모르고 버릇없이 함부로 굴거나, 나그네가 오히려 주인 행세를 함을 이르는 말
굴뚝 막은 덕석같다	검고 더러운 옷이나 물건 따위를 이르는 말.
굴뚝 보고 절한다	빛에 쪼들리어 한밤중이나 이른 새벽에 도망가는 사람이 이웃 사람에게 인사는 할 수 없어 하는 수 없이 굴뚝을 보고 절하고서 도망간다는 뜻으로, 무엇을 피하여 몰래 달아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굴뚝에 바람 들었나	굴뚝에 바람이 들면 아궁이로 연기가 나와 불을 때는 이의 눈에서 눈물이 난다는 데 빗대어, 왜 우느냐고 되묻는 투로 이르는 말.
굴우물에 돌 넣기	1. 깊은 우물에 돌을 아무리 넣어도 차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제힘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을 감히 하려고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아무리 하여도 한 ^한 이 없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속담·관용구	내용
굴우물에 말뚝 쓸어 넣듯 한다	1. 음식을 가리지 아니하고 마구 먹음을 조롱하여 이르는 말. 2. 가망 없는 일에 밀천을 한정 없이 많이 밀어 넣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굵은 개 부엌 들여다보듯	계절스럽고 치사스럽게 남의 것을 바라는 모양을 욕으로 이르는 말.
귀한 것은 상량문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꿇구멍이 도자전 마룻구멍이다	배우지 않았으나 얻어들어서 아는 것이 많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기동보다 서까래가 더 굵다	주 ^초 가 되는 것과 그에 따르는 것이 뒤바뀌어 사리에 어긋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기동을 치면 대들보가 ^[들보가/뿔장이] 운다 ^[울린다]	1. 직접 맞대고 탓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언지시 말을 하여도 알아들을 수가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주 ^초 가 되는 대상을 탓하거나 또는 그 대상에 일격을 가하거나 하면 그와 관련된 대상들이 자연히 영향을 입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기와집 물려준 자손은 제사를 두 번 지내야 한다	초가집 지붕 이기가 귀찮고 힘들음을 이르는 말.
기와집에 옷칠하고 사나 그렇게 하면 뒷간에 옷칠을 하나	그렇게 하면 뒷간에까지 값비싼 옷칠을 하고 살겠느냐는 뜻으로, 매우 인색하게 굴면서 재물을 모으는 사람을 비꼬는 말.
기와집이면 다 사창 ^{社倉} 인가	겉이 훌륭하다고 하여 내용까지 다 훌륭하지는 않다는 말.
기와 한 장 아끼다가 대들보 썩힌다	조그마한 것을 아끼려다가 오히려 큰 손해를 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길가에 집 짓기	1. 길가에 집을 지으면 오가는 사람들이 저마다 간섭을 하여 집을 짓지 못한다는 뜻으로, 무슨 일에 참견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주견이 없이 남의 간섭이나 의견만 좇다가는 아무 일도 제대로 끝을 맺을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김씨가 한몫 끼지 않는 우물이 없다	김씨 성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말.
까막까지도 집이 있다 갈매기도 제집이 있다 / 우렁이도 집이 있다	하찮은 까마귀나 까치들도 다 제집이 있는 법이라는 뜻으로, 집 없는 사람의 서러운 처지를 한탄하여 이르는 말.
니은 나간 놈의 집구석이라	집 안이 어수선하고 정리가 안 되어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나중에 들어온 놈이 아랫목 차지한다	1. 늦게 왔지만 제일 좋은 조건을 차지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늦게 와서 주재님께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우쭐대는 경우를 놀림조로 이르는 말.

니은

속담·관용구	내용
남이야 뒷간에서 낚시질을 하건 말건 남이야 전봇대로 이를 찌시킨 말건	남이야 무슨 짓을 하건 상관할 필요가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넙기는 과부 집 굴뚝이라	과부 집에는 나무를 빼개고 말리고 할 사람이 없어서 마르지 않은 나무를 그대로 때므로 연기가 심하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보다 심히 곤란한 처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너의 집도 굴뚝으로 불을 때야 하겠다	불을 거꾸로 때야 할 집이라는 뜻으로, 일이 꼬이기만 하는 집안을 이르는 말.
노름은 도깨비 살림	도박의 성패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어 돈이 불어 갈 때에는 알 수 없을 만큼 쉽게 또 크게 늘어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늦바람이 용마름을 벗긴다	늦게 불기 시작한 바람이 초가집 지붕마루에 얹은 용마름을 벗겨 갈 만큼 세다는 뜻으로, 사람도 늙은 후에 한번 바람이 나기 시작하면 견잡을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다 가도 문턱 못 넘기	애써 일을 하였으나 끝맺음을 못하여 보람이 없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단칸방에 새 두고 말할까	한집안 식구처럼 가깝게 지내는 사이에 무슨 비밀이 있겠느냐는 말.
닭 쫓던 개 울타리 넘겨다보듯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	개에게 쫓기던 닭이 지붕으로 올라가자 개가 쫓아 올라가지 못하고 지붕만 쳐다본다는 뜻으로, 애써 하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남보다 뒤떨어져 어찌할 도리가 없이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담벼락을 문이라고 내민다	시치미를 떼고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억지를 써서 우겨 댄다는 말.
담벼락하고 말하는 셈이다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상대를 비꼬는 말.
담에도 귀가 달렸다 벽에도 귀가 있다	비밀은 없기 때문에 경솔히 말하지 말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담을 쌓고 벽을 친다	의중계 지내던 관계를 끊고 서로 철저하게 등지고 삶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담을 쌓았다 헐었다 한다	이렇게도 궁리하여 보고 저렇게도 궁리하여 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대들보 썩는 줄 모르고 기왓장 아끼는 격	장차 크게 손해 볼 것은 모르고 당장 돈이 조금 든다고 사소한 것을 아끼는 어리석은 행동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대명전 대들보의 명매기 걸음	맵시를 내고 아양을 부리며 아장아장 걷는 여자의 걸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대문 밖이 저승이라 문턱 밑이 저승이라	1.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뜻으로, 사람의 목숨이 덧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머지않아 곧 죽게 될 것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숙담·관용구	내용
대문이 가문	1. 아무리 가문이 높아도 가난하여 집채나 대문이 작으면 위엄이 없어 보인다는 말. 2. 겉보기가 훌륭하여야 남에게 위압을 준다는 말.
대문턱 높은 집에 정강이 높은 며느리 들어온다 문턱 높은 집에 무종아리 긴 며느리 생긴다	일이 마침 알맞게 잘되어 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더부살이가 주인 마누라 속곳 베 걱정한다 더부살이 환자 걱정, 칠월 더부살이가 주인 마누라 속곳 걱정한다	남의 집에 더부살이하면서 제 옷도 변변히 못 입는 형편에 주인집 마누라의 속곳 마련할 걱정을 한다는 뜻으로, 주제넘게 남의 일에 대하여 걱정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도깨비 수키왓장 뒤듯 도깨비 기왓장 뒤듯	1. 집안이 망하려면 도깨비가 기왓장을 뒤져 흐트러뜨린다는 이야기에서 나온 것으로, 쓸데없이 이것저것 분주하게 뒤지기만 하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남 보기에 분주하게 일을 엄병덤벙하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도둑맞고 사립(벤치) 고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소를 도둑맞은 다음에서야 빈 외양간의 허물어진 데를 고치느라 수선을 떠난다는 뜻으로,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음을 비꼬는 말.
도둑의 집에도 되는 있다	못된 짓을 하는 사람에게도 경위와 종작이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도둑의 집에 한당이 들었다	몹쓸 놈이 그보다 더 몹쓸 놈에게 변을 당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돈은 도적맞을 수 있어도 땅은 도깨비도 떠메고 갈 수 없다	땅이 가장 안전하고 없어질 걱정이 없는 재산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돌담 구멍에 족제비 눈깔 돌담 구멍에 독사 주둥이	1. 돌담에 족제비가 많은 것처럼 무엇이 흔하게 많이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눈매가 날카로운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돌담의 부른 배는 쓸모가 없다 돌담 배 부른 것	도무지 유용한 데는 없고 해만 끼치는 존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돌아본 마을 꺾어 본 방귀	놀러 다니던 사람일수록 잘 돌아다니며 방귀는 꺾어 보기 시작하면 안 할 수 없다는 뜻으로, 무엇이나 하기 시작하면 재미가 붙어 그만둘 수 없음을 이르는 말.
돌쩌귀에 녹이 슬지 않는다 흙통은 썩지 않는다	1. 창문이나 미닫이문이 계속 왕복하는 흙통은 썩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무슨 일이든 쉬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하여야 실수나 탈이 안 생긴다는 말. 2. 물건이나 재능 따위를 쓰지 아니하고 놓아 두면 못 쓰게 되므로 항상 잘 활용하라는 말.
돌쩌귀에 불이 나겠다 돌쩌귀에 불이 난다	문을 자주 여닫는다는 뜻으로, 사람이 많이 드나들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동방화촉 노릇도령이 숙녀 만나 즐거운 일 칠십 노인 구 대 독자 생남을 한 듯	동방에 비치는 환한 촛불이라는 뜻으로, 혼례를 치르고 나서 첫날밤에 신랑이 신부 방에서 자는 의식을 이르는 말.

속담·관용구	내용
뒷간과 사돈집은 멀어야 한다 사돈집과 뒷간은 멀수록 좋다	사돈집 사이에는 말이 나돌기 쉽고 뒷간은 고약한 냄새가 나므로 둘 다 멀리 있을수록 좋음을 이르는 말.
뒷간 기둥이 물방앗간 기둥을 더럽다 한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자기는 더 큰 흉이 있으면서 도리어 남의 작은 흉을 본다는 말.
뒷간에 갈 적 마음 다르고 올 적 마음 다르다 똥 누러 갈 적 마음 다르고 올 적 마음 다르다	자기 일이 아주 급한 때는 통사정하며 매달리다가 그 일을 무사히 다 마치고 나면 모른 체하고 지낸다는 말.
뒷간에 앉아서 개 부르듯 한다	자기에게 필요할 때만 찾는다는 말.
뒷간에 옷칠하고 사나 보자	재물을 인색하게 모으는 사람에게 뒷간까지 옷칠을 해 가며 살겠느냐는 뜻으로, 얼마나 잘사는지 두고 보겠다는 말.
뒷집 마당 벌어진 데 솔뿌리 걱정한다 마당 벌어진 데 웬 솔뿌리 걱정	마당이 벌어진데 그릇이 터졌을 때 필요한 솔뿌리를 걱정한다는 뜻으로, 당치도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수습하려 하는 어리석음을 비웃는 말.
뒷집 짓고 앞집 뜯어 내란다	1. 자기에게 방해가 되거나 손해가 된다 하여 자기보다 먼저 한 사람의 일을 못하게 한다는 말. 2. 사리 ^ㅅ 는 제쳐 놓고 제 경우와 제 욕심만을 옳다고 한다는 말.
들어오는 복도 문 닫는다	방정맞은 짓만 하여 오는 복도 마다함을 나무라는 말.
등잔 뒤가 밝다	가까이서보다는 조금 떨어져 보는 편이 상황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다는 말.
등잔 밑이 어둡다	대상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도리어 대상에 대하여 잘 알기 어렵다는 말.
딸 셋을 여의면 기둥뿌리가 팬다 딸 삼 형제 시집보내면 좁도둑도 안 든다	딸은 시집보내는 비용도 많이 들고 시집간 딸들이 무엇이고 가져가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도둑도 안 들 정도로 살림이 준다는 뜻으로, 딸이 많으면 재산이 다 줄어든다는 말.
딸의 시앗은 바늘방석에 앉히고 며느리 시앗은 꽃방석에 앉힌다	딸은 귀하게 여겨 어떻게 하든지 그 시앗을 없애려 하나, 며느리에 대해서는 미워하는 마음으로 며느리가 시앗을 보고 괴로워하는 것을 도리어 통쾌하게 여긴다는 말.
딸의 차반 재 넘어가고 며느리 차반 놓 위에 둔다	1. 딸은 차반을 재를 넘어 시집으로 가져가고 며느리는 남편에게 주려고 차반을 제 방 놓 위에 둔다는 뜻으로, 딸이나 며느리나 부모보다는 제 남편을 더 위하고 생각한다는 말. 2. 딸에게 줄 차반은 아끼지 않으면서 며느리에게 줄 차반은 아까워 놓 위에 두고 망설인다는 뜻으로, 며느리보다 딸을 더 생각한다는 말.
딸이 셋이면 문을 열어 놓고 잔다 딸 삼 형제 시집보내면 좁도둑도 안 든다	딸은 시집보내는 비용도 많이 들고 시집간 딸들이 무엇이고 가져가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도둑도 안 들 정도로 살림이 준다는 뜻으로, 딸이 많으면 재산이 다 줄어든다는 말.
딸 죽은 사위 불 꺼진화로 불 없는 ^ㄱ 꺼진 화로 딸 없는 ^ㄴ 죽은 사위	직접적인 인연이나 관계가 끊어져 쓸데없거나 긴요하지 않게 된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속담·관용구	내용
똥 누고 간 우물도 다시 먹을 날이 있다 이 샘물 안 먹는다고 똥 누고 가더니 그 물이 맑기도 전에 다시 와서 먹는다	두 번 다시 안 볼 것같이 하여도 나중에 다시 만나 사정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뜬 소 울 넘는다	동작이 매우 느린 소가 울타리를 넘는다는 뜻으로, 평소에 동작이 느린 사람이 뜻밖에 장한 일을 이룸을 이르는 말.
마구 뚫은 창	질서나 순서도 없이 되는데로 함부로 하는 행동을 이르는 말.
마당 벌어진 데 웬 솔뿌리 걱정 뒷집 마당 벌어진 데 솔뿌리 걱정한다, 마당 터진 데 솔뿌리 걱정한다	마당이 벌여졌는데 그릇이 터졌을 때 필요한 솔뿌리를 걱정한다는 뜻으로, 당치도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수습하려 하는 어리석음을 비웃는 말.
마당이 환하면 비가 오고 계집 뉘가 반지르르하면 애가 든다	아이 어머니의 쇠약하였던 몸이 다시 회복되고 몸매가 반지르르하게 되면 또 아이를 가지게 됨을 이르는 말.
마루 밑에 별 들 때가 있다 마룻구멍에도 별 들 날이 있다	마루 밑과 같은 음침한 곳에도 별이 들 때가 있는 것처럼, 어떤 일이나 고정불변한 것은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마루 아래 강아지가 웃을 노릇	어떤 일이 경우에 몹시 어긋남을 이르는 말.
마룻구멍에도 별 들 날이 있다	고생을 참고 기다리면 좋은 시기를 만날 수도 있다는 말.
마음은 걸걸해도 왕골자리에 똥 싣다	말로는 잘난 체 큰소리를 하여도 실제로는 못난 짓만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막다른 골목이 되면 돌아선다	일이 막다른 지경에 이르면 또 다른 방법이 생긴다는 말.
만만찮기는 사돈집 안방 사돈네 안방 같다	사돈네 안방처럼 감히 넘겨다보지 못할 만큼 어렵고 조심스러운 곳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말 잃고 외양간 고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소를 도둑맞은 다음에서야 빈 외양간의 허물어진 데를 고치느라 수선을 떠나는 뜻으로,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음을 비꼬는 말.
머느리 상청에서도 떡웃지짐이 제일	죽은 머느리를 위하여 베푸는 상청에서도 떡 위에 놓여 있는 지짐이에 신경을 쓴다는 뜻으로, 먹는 데만 정신이 팔리어 체면 차리지 않고 맛있는 것만 골라 먹는다는 말.
모래 위에 선 누각[제] 모래 위에 쌓은 성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여 곧 허물어질 수 있는 물건이나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 갑갑한 놈이 송사한다, 갑갑한 놈이 우물 판다, 답답한 놈이 송사한다[소지 쓴대]	제일 급하고 일이 필요한 사람이 그 일을 서둘러 하게 되어 있다는 말.

미음

속담·관용구	내용
목마른 송아지 우물 들여다보듯 소금 먹은 소 굴우물 들여다보듯	소금 먹은 소가 목이 말라 깊은 굴우물을 들여다보며 안타까워한다는 뜻으로, 무엇을 골똘하게 궁리하거나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여 애쓰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목수가 많으면 기둥이 기울어진다 목수가 많으면 집을 무너뜨린다	여럿이 일하는데 의견이 너무 많으면 도리어 일을 망친다는 말.
목수가 많으면 집을 무너뜨린다 목수가 많으면 기둥이 기울어진다	여럿이 일하는데 의견이 너무 많으면 도리어 일을 망친다는 말.
목수가 해금통을 부순다	자기의 재주만 믿고 선불리 덤비다가 오히려 일을 망치는 수가 있다는 말.
못된 바람은 수구문(동대문 구멍)으로 들어온다	긋은일이나 실패한 일의 책임은 자기에게만 돌아온다고 항변하는 말.
못된 벌레 장판방에서 모로 간다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이 난다	미운 자가 하는 짓마다 미운 짓만 함을 이르는 말.
못살면 터 탕 잘되면 제 탕(뽕) 못되면 조상(비) 탕	일이 안될 때 그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태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몽둥이 들고 포도청 담에 오른다	제가 지은 죄를 숨기려고 남보다 먼저 나서서 떠드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무른 땅에 말뚝 박기	1. 몹시 하기 쉬운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세도 있는 사람이 힘없고 연약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학대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문 돌쩌귀에 불 나겠다	문을 자주 여닫음을 이르는 말.
문 연 놈이 문 닫는다 맺은 놈이 풀지	무엇이든 처음 하던 사람이 그 일의 끝을 내야 한다는 말.
문 열고 보나 문 닫고 보나 보기는 일반 문틈으로 보나 열고 보나 보기는 일반	드러내 놓고 하나 몰래 하나 하기는 마찬가지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문을 연 사람이 바로 문을 닫은 사람	원인에 따른 결과가 있기 마련이라는 말.
문전 나그네 혼연대접	어떤 신분의 사람이라도 자기를 찾아온 사람은 친절히 대접하라는 말.
문턱 높은 집에 무종아리 긴 며느리 생긴다 대문턱 높은 집에 정강이 높은 며느리 들어온다 / 확 깊은 집에 주둥이 긴 개가 들어온다	일이 마침 알맞게 잘되어 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문턱 밑이 저승이라 대문 밖이 저승이라	1.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뜻으로, 사람의 목숨이 덧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머지않아 곧 죽게 될 것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비유

속담·관용구	내용
문틈으로 보나 열고 보나 보기는 일반 문 열고 보나 문 닫고 보나 보기는 일반	드러내 놓고 하나 몰래 하나 하기는 마찬가지로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문풍지 떨어진 데는 풀비가 제격	문풍지가 떨어지면 풀비로 풀칠을 하는 것이 좋다는 뜻으로, 격에 맞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물 좋고 정자 좋은 데가 있으라	모든 조건을 두루 갖춘 곳이 있기는 힘들다는 말.
미운 개가 주걱 들고 조왕에 오른다	미운 개가 못되게도 밥주걱을 물고서 부엌 귀신을 위해 두는 조왕에 오른다는 뜻으로, 미운 것이 더욱더 미운 짓을 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반자를 받다	성이 나서 펄펄 뛰다.
반자가 얇다 하고 펄펄 뛰다	몹시 성이 나서 반자에 닿을 정도로 펄펄 뛰는 말.
반풍수 집안 망친다 반편이 명산 폐묘한다	못난 것이 도리어 잘난 체하다가 명산을 모르고 묘를 폐한다는 뜻으로, 못난이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오히려 이러쿵저러쿵하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방바닥에서 낙상한다 장판방에서 자빠진다	1. 안전한 곳에서 뜻밖에 실수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마음을 놓는 데서 실수가 생기는 것이니 항상 조심해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방 안 풍수風水	방 안에 앉아 있으면서 주제넘게 알지도 못하는 바깥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다는 뜻으로, 자기가 직접 겪어 보지 못했거나 구체적인 실정을 모르는 일에 대하여 마음대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방에 가면 더 먹을까 부엌에 가면 더 먹을까 부엌에 가면 더 먹을까 방에 가면 더 먹을까 / 이 장떡이 큰가 저 장떡이 큰가	남보다 더 먹기 위하여 방에 들어갈까 부엌에 들어갈까 타산한다는 뜻으로, 어느 쪽이 더 이익이 많을까 하고 잇속을 따지느라 망설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방에서는 매부 말이 옳고 부엌에 가면 누이 말이 옳다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옳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옳다	양편의 말이 모두 일리가 있어서 시비를 가리기가 어려운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방앗간에서 울었어도 그 집 조상조상	집 안까지 들어가지 않고 밖에 있는 방앗간에서 울었다고 하여도 그 집에 조상한 것이라는 뜻으로, 마음이 문제이지 장소나 형식이 문제가 아님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벽을 치면 대들보가 울린다	1. 암시만 주어도 곧 눈치를 채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서로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변소에 기와 올리고 살겠다	인색하게 굴어도 큰 부자는 못 됨을 비꼬는 말.

숙담·관용구	내용
병자년 까마귀 빈 뒷간 들여다보듯	병자년에 큰 흉년이 든 데서 나온 말로, 어떤 일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구차스럽게 여기저기 기웃거리거나 돌아다니면서 기다리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봄 방 추우면 만사위 달아난다	봄철에 방이 추우면 견디기 힘들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붕당을 빌려주니 안방까지 달란다	매우 염치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부뚜막 땀질 못하는 며느리 이마의 털만 뽑는다 동정 못 다는 며느리 맹물 발라 머리 빗는다	부뚜막에 땀질 하나 제대로 못 하여 너절하게 하고 사는 며느리가 그래도 모양을 내겠다고 이마의 털만 뽑고 있다는 뜻으로, 일을 할 줄 모르는 주제에 몇만 부리는 밍살스러운 행동을 비꼬는 말.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가까운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넣지 아니하면 음식이 째맛이 날 수 없다는 뜻으로, 아무리 좋은 조건이 마련되었거나 손쉬운 일이라도 힘을 들이어 이용하거나 하지 아니하면 안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부엌에 가면 더 먹을까 방에 가면 더 먹을까 방에 가면 더 먹을까 부엌에 가면 더 먹을까	남보다 더 먹기 위하여 방에 들어갈까 부엌에 들어갈까 타산한다는 뜻으로, 어느 쪽이 더 이익이 많을까 하고 잇속을 따지느라 망설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부엌에서 숟가락을 얻었다 살강 밑에서 숟가락 얻었다 (주웠더)	대단치 아니한 일을 하여 놓고 성공이나 한 듯이 자랑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불한당 치른 놈의 집구석 같다	집 안이 몹시 어수선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비 오기 전에 집이다	비 오기 전에 집에 와 있다는 뜻으로, 미리 마련하거나 갖추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비 오는 것은 밥 짓는 부엌에서 먼저 안다	비가 오려고 기압이 낮아지면 아궁이에 불이 잘 안 붙으므로 부엌의 아낙네들이 비 오는 것을 먼저 알게 된다는 말.
빈 외양간에 소 들어간다	빈 외양간에 소를 들여다 매면 어떤 빈자리가 적절하게 채워지게 된다는 뜻으로, 일의 형편이나 외모가 좋아져 꼭 짜이게 잘 어울리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빈집에 소 매었다	없는 살림에 큰 횡재를 하였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시웃	
사당 당직은 타도 빈대 당직 타서 시원하다	사당의 당직은 불타 버렸지만 그와 함께 빈대까지 탔으니 시원하다는 뜻으로, 제게 손해가 되더라도 시끄럽고 귀찮던 것이 없어져 시원함을 이르는 말.
사당치레하다가 신주 개 물려 보낸다	사당 걸치레만 하며 돌아다니다가 사당에 두는 신주를 개한테 물려 보냈다는 뜻으로, 걸치레만 지나치게 하다가 그만 중요한 것을 잃어버림을 이르는 말.
사람 안 죽은 아랫목 없다	사람 사는 집에서 사람 안 죽은 집이 거의 없다는 뜻으로, 알고 보면 어느 곳이나 험하고 궂은 일이 있었던 자리일 수 있음을 이르는 말.

속담·관용구	내용
사위 집 더부살이	장인이나 장모가 출가한 딸네 집에서 더부살이하기란 땀땀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이르는 말.
사촌 영장도 부엌부터 들여다보아야 한다	사촌의 장례를 지내는 경우에도 먹을 것이 있는가를 알아보아야 한다는 뜻으로, 경황없는 환경에서도 먹을 것을 알아보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사촌네 집도 부엌부터 들여다본다	친한 사이인 사촌네 집조차도 먹을 것이 있어야 찾아다니는 뜻으로, 남을 만날 때 얻어먹을 것만 바라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삼간초가가 다 타도 빈대 죽어 [타 죽는 것만] 좋다	비록 자기에게 큰 손해가 있더라도 제 마음에 들지 아니하던 것이 없어지는 것만은 상쾌하다는 말.
새로 집 지은 후 삼 년은 마음을 못 놓는다	새로 집을 짓고 살면 처음 삼 년은 무슨 사고가 있을까 하여 마음을 놓지 못한다는 말.
새벽 봉창 두들긴다	1. 한참 단잠 자는 새벽에 남의 집 봉창을 두들겨 놀라 깨게 한다는 뜻으로, 뜻밖의 일이나 말을 갑자기 불쑥 내미는 행동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 2. 너무나도 뜻밖의 일을 당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새벽바람 사초롱	새벽바람에 꺼질까 봐 조심스럽게 들고 있는 비단 초롱이라는 뜻으로, 매우 사랑스럽고 소중한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색시가 고우면 처갓집 외양간 말뚝에도 절한다 아내가 귀여우면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절한다	1. 아내가 좋으면 아내 주위의 보잘것없는 것까지 좋게 보인다는 말. 2. 한 가지가 좋아 보이면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 어떤 사람을 너무 좋아하여 사리 판단이 어두워지면 실수를 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서투른 풍수 집안만 망쳐 놓는다	무슨 일에 잘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체하여 일을 하다가 아주 크게 그르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서푼짜리 집에 천 냥짜리 문호	서푼짜리 초라한 집을 지어 놓고 대문은 천 냥짜리로 요란하게 만들어 달았다는 뜻으로, 크고 값지게 만들어야 할 것은 작게 하고 작아야 할 것은 요란하게 만들어 주객이 바뀐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시집 울타리 귀신이 되어야 한다	여자는 한번 시집을 가면 무슨 일이 있어도 시집에서 끝까지 살아야 한다는 말.
시형님 잡숫고 조왕님 잡숫고 이제는 먹어 보랄 게 없다	많지 아니한 것을 여기저기 주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는 말.
이유	
아쉬워 엄나무 방석이라	아쉬운 대로 엄나무 방석에 앉았다는 뜻으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어서 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아욱으로 국을 끓여 삼 년을 먹으면 외짝 문으로는 못 들어간다	아욱으로 늘 국을 끓여 먹으면 몸이 불어서 외짝 문으로 못 들어간다는 뜻으로, 아욱이 몸에 매우 좋다는 말.

속담·관용구	내용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옳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옳다	양편의 말이 모두 일리가 있어서 시비를 가리기가 어려운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ㄴ 방에서는 매부 말이 옳고 부엌에 가면 누이 말이 옳다.
안방을 밝히면 못쓴다	남녀 관계에서 절제하는 생활을 하여야 함을 이르는 말.
안벽 치고[붙이고] 발벽 친다[붙인다]	1. 겉으로는 도와주는 체하면서 속으로는 방해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이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편에서는 저렇게 말하여 둘 사이를 이간질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앞문으로 호랑이를 막고 뒷문으로 승냥이를 불러들인다	겉으로 공명정대한 체하나 뒷구멍으로 온갖 나쁜 짓을 다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얇전한 고양이[강아지/개]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겉으로는 얇전하고 아무것도 못 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딴짓을 하거나 자기 실속을 다 차리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염초청 굴뚝 같다	마음보가 검고 음흉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오뉴월 장마에 토담 무너지듯	힘없이 내려앉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올바자가 혈어지니 이웃집 개가 드나든다	자신에게 약점이 있으니까 남이 그것을 알고 업신여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올타리 밖을 모른다	일정한 범위 안에만 머물러 세상 물정을 전혀 모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부자리 보고 발을 펴라 누울 자리 봐 가며 발을 뻗어라	어떤 일을 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생각하여 미리 살피고 일을 시작하라는 말.
이불깃 봐 가며 발 편다	무슨 일이고 간에 조건과 사정을 보아 가며 거기에 알맞게 일을 하여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불 밑에 엇 묻었나 노구 전에 엇을 붙였나	뜨거운 노구솔 가에 엇을 붙여 놓고 왔다면 곧 녹아 흐를 것이니 바빠 돌아가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뜻으로, 집에 빨리 돌아가려고 몹시 안달을 하는 경우를 이르는 말.
이불 속[안]에서 활개 친다	남 앞에서는 제대로 기도 못 하면서 남이 없는 곳에서만 잘난 체하고 호기를 부리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불 속에서 하는 일도 안다	이불 속에서 하는 일을 알 정도로 세상에 비밀은 없다는 뜻으로, 남이 없는 곳에서도 항상 조심하여야 함을 이르는 말.
이 우물에 똥을 누어도 다시 그 우물을 먹는다	두 번 다시 안 볼 것같이 하여도 나중에 다시 만나 사정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웃집 새 처녀도 내 정지에 들어 세워 보아야 한다	사람의 됨됨이는 겪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음을 이르는 말.

지읒

속담·관용구	내용
입의 말 다 듣자면 고래등 같은 기와집도 하루아침에 넘어간다	먹고 싶은 대로 다 먹다가는 아무리 큰 재산이라도 다 거덜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입춘 거꾸로 불었나	입춘 뒤 날씨가 몹시 추운 경우에 이르는 말.
장님이 문고리 바로 잡았다 장님이 문 바로 들어갔다	재주나 지식이 없는 사람이 어떤 일을 우연히 성취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장님 등불 쳐다보듯	1. 서로 아무 관계 없이 지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아무리 보아도 그 진미眞美를 알아볼 능력이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장님 문고리 잡기 봉사 문고리 잡기	1. 눈먼 봉사가 요행히 문고리를 잡은 것과 같다는 뜻으로,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쩌다가 요행수로 어떤 일을 이룬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가까이 두고도 찾지 못하고 헤매을 이르는 말.
장님이 문 바로 들어갔다	재주나 지식이 없는 사람이 어떤 일을 우연히 성취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장님이 집골목을 틀리지 않는다	무슨 일이든지 익숙해지면 실수 없이 해낸다는 말.
장판방에서 자빠진다 방바닥에서 낙상한다	안전한 곳에서 뜻밖에 실수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젓불 화로의 불씨가 끊어져서는 집안이 망한다	예전에 불씨를 보전하는 것이 살림살이의 중요한 부분이었던 데서, 불씨를 꺼뜨리는 소홀한 살림살이로는 한집안을 잘 꾸려 나갈 수 없다는 말.
저 긴지 않는다고 우물에 똥 놀까	자기 이익과 직접 관계가 없는 남의 경우라도 살피 주고 남에게 해가 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
저승길과 변소 길은 대궐로 못 간다	죽음이나 용변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는 말.
저승길이 대문 밖이다 대문 밖이 저승이라	1.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뜻으로, 사람의 목숨이 덧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집을 나서면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험악한 세상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제 코도 못 씻는 게 남의 부뚜막 걱정한다 제 코도 못 닦는 것이 남의 코 닦으려고 한다	자기 일도 감당 못하는 주제에 남의 일에 참견함을 비꼬는 말.
조는 집은 대문턱부터 준다	1. 주인이 게을러 졸고 있으면 집안 전체가 다 그렇게 된다는 말. 2. 대문밖을 보면 그 집 주인들의 생활 기풍을 알 수 있다는 말.
좁쌀만큼 아끼다가 담 돌만큼 해를 본다 기와 한 장 아끼다가 대들보 썩힌다	조그마한 것을 아끼려다가 오히려 큰 손해를 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속담·관용구	내용
주린 개가 뒷간을 바라보고 기뻐한다	누구나 배가 고프면 무엇이고 먹을 수 있는 것만 보아도 기뻐한다는 말.
중년 상처는 대들보가 된다	어린 자녀를 많이 남겨 놓고 아내가 죽게 되면 집안 살림이 엉망이 된다는 말.
중방 밑 귀뚜라미	무엇이고 잘 아는 체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지각하고는 담뿍았다	1. 지각없이 못한 짓만 함을 비꼬는 말. 2. 도무지 철이 나지 아니하였다는 말.
지신에 붙이고 성주에 붙인다	가뜩이나 적은 것을 이곳저곳에 뜯기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는 말.
집과 계집은 가꾸기 탓	집은 손질하기에 달렸고 아내는 가르치기에 달렸다는 말.
집도 절도 없다	가진 집이나 재산도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닌다는 말.
집 떠나면 고생이다	1. 이러니저러니 해도 제 집이 제일 좋다는 말. 2. 집을 떠나 돌아다니게 되면 아무리 대접을 받는다 해도 고생스럽고 불편한 점이 있기 마련이라는 말.
집 안에 연기 차면 비 올 징조	곳은 날에는 저기압으로 인하여 아궁이에 역류 현상이 일어난다는 말.
집 안 좁은 건 살아도 마음 좁은 건 못 산다	집이 좁은 건 참으면서 살 수 있으나 속이 좁아서 껄짜하게 구는 사람하고는 같이 생활하기 힘들다는 뜻으로, 집안이나 집단이 화목해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집에 금송아지를 매었으면 내 알 게 무엇이냐	아무리 귀중하고 훌륭한 물건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을 볼 수도 없고 쓰지도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말.
집에 꿀단지를 파묻었나	집에 빨리 가고 싶어 안달하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들에 가도 샌다	본바탕이 좋지 아니한 사람은 어디를 가나 그 본색을 드러내고야 만다는 말.
집에서 큰소리치는 놈 나가서 어찌지 못한다	집안의 만만한 식구들한테 큰소리치며 못살게 구는 사람이 밖에 나가 남들 앞에서는 꼼짝도 못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집을 사면 이웃을 본다 팔백 금으로 집을 사고 천 금으로 이웃을 산다	집을 정할 때는 집 자체보다도 주위의 이웃을 더 신중히 가려서 정해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집이 망하면 지관 탓만 한다 집안이 망하면 집터 잡은 사람만 탓한다	무슨 일이 잘못되면 남의 탓만 한다는 말.
집이 타도 빈대 죽으니 좋다 초가삼간 다 타도 빈대 죽는 것만 시원하다	비록 자기에게 큰 손해가 있더라도 제 마음에 들지 아니하던 것이 없어지는 것만은 상쾌하다는 말.
집 태우고 바늘 굵는다	큰 것을 잃은 후에 작은 것을 아끼려고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치웃

속담·관용구

내용

찬물 먹고 냉들방에서 땀 낸다

1. 도무지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이니 하지도 말라는 말.
2. 당치 않은 방법으로 목적을 이루려고 어리석게 행동함을 비꼬는 말.

참새가 방앗간^[울조밥]을 그저 지나라

1. 욕심 많은 사람이 이곳을 보고 가만있지 못한다는 말.
2. 자기가 좋아하는 곳은 그대로 지나치지 못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참새가 방앗간에 치여 죽어도 짹 하고 죽는다

참새가 죽어도 짹 한다

아무리 약한 것이라도 너무 괴롭히면 대항한다는 말.

청국장이 장이나 거적문이 문이나

못된 사람은 사람이라 할 수가 없고 좋지 아니한 물건은 물건이라 할 수 없다는 말.

청을 빌려 방에 들어간다

행랑 빌리면 안방까지 든다

1. 대청을 빌려 쓴다는 구실로 시작해서 방에까지 들어간다는 뜻으로, 염치없이 처음에 한 약속을 어기고 야금야금 침범해 들어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처음에는 조심하여 삼가다가 차차 통이 큰 짓까지 하게 된다는 말.

초가삼간 다 타도 빈대 죽는 것만 시원하다

삼간초가가 다 타도 빈대 죽어^[타 죽는 것만] 좋다 /
 절은 타도 빈대 죽는 게 시원하다 /
 집이 타도 빈대 죽으니 좋다 /
 초당 삼간이 다 타도 빈대 죽는 것만 시원하다

비록 자기에게 큰 손해가 있더라도 제 마음에 들지 아니하던 것이 없어지는 것만은 상쾌하다는 말.

초가집 대교^[대교]가 없고 물 건너 대교가 없고
엷은 대교가 없다가난한 집에서 대교 벼슬이 나올 수 없고 물 건너 사는 세력 없는 집에서도 대교가 나올 수 없으며 낮이 엷어 못생긴 사람 가운데서도 대교가 나올 수 없다는 뜻으로, 어떤 자격으로서 돈 많고 세력 있고 외모가 번듯해야 함을 요건으로 내세울 때 이르는 말. 옛날 규장각^[奎章閣] 대교 벼슬의 인선이 매우 까다로웠다 하여 나온 말.초당 삼간이 다 타도 빈대 죽는 것만
시원하다

초가삼간 다 타도 빈대 죽는 것만 시원하다

비록 자기에게 큰 손해가 있더라도 제 마음에 들지 아니하던 것이 없어지는 것만은 상쾌하다는 말.

초저녁 구들이 따뜻해야 새벽 구들이
따뜻하다

먼저 된 일이 잘되어야 그에 따른 일도 잘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촌년이 아전 서방을 하더니 초장에 길청
문밖에 와서 갓신 사 달라 한다

촌년이 아전 서방을 하면 날 샌 줄을 모른다

변변치 못한 사람이 조그만 권력이라도 잡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잘난 체하며 몹시 아니꼽게 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춘향이네 집 가는 길 같다

이 도령이 남의 눈을 피해서 골목길로 춘향이네를 찾아가는 길과 같다는 뜻으로, 길이 꼬불꼬불하고 매우 복잡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춘향이 집 가리키기

집이 어디냐고 묻는 이 도령의 질문에 춘향이가 대답한 사실이 까다롭고 복잡했다는 데서, 집을 찾아가는 길이 복잡한 경우를 이르는 말.

칠월 더부살이가 주인 마누라 속곳 걱정한다

더부살이가 주인 마누라 속곳 배 걱정한다

남의 집에 더부살이하면서 제 옷도 변변히 못 입는 형편에 주인집 마누라의 속곳 마련할 걱정을 한다는 뜻으로, 주제님께 남의 일에 대하여 걱정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속담·관용구	내용
침 뱀은 우물 다시 먹는다 이 샘물 안 먹는다고 똥 누고 가더니 그 물이 맑기도 전에 다시 와서 먹는다	두 번 다시 안 볼 것같이 하여도 나중에 다시 만나 사정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키움	
큰 집 무너지는 데 기둥 하나도 버티지 못한다	큰 것이 망하거나 무너질 때에는 작은 힘으로 막기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티을	
티를 닦아야 집을 짓는다	기초 작업을 해야 그다음 일을 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티주에 놓고 조왕에 놓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시형님 잡숫고 조왕님 잡숫고 이제는 먹어 보랄 게 없다	많지 아니한 것을 여기저기 주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는 말.
티주에 붙이고 조왕에 붙인다	무엇을 찢어서 사방에 갈라 붙이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피움	
포도청 뒷문에서도 그렇게 싸지 않겠다	장물도 그렇게 싸지 않겠다는 뜻으로, 물건값이 비싸다고 하면서 깎으려 할 때 그렇게 싼 데가 어디 있느냐고 비꼬는 말.
포도청의 문고리 빼겠다	대담하고 겁이 없는 사람의 행동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히움	
한 계단씩 밟아 올라가다	낮은 데서부터 높은 데로 순차적으로 올라간다는 말.
한량이 죽어도 기생집 울타리 밑에서 죽는다	사람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본색이나 행실을 죽을 때까지 버리지 못한다는 말.
한 마을 공사 한 마루 공사	같은 관청의 일이라는 뜻으로, 하는 일마다 한결같음을 이르는 말.
한집 살아 보고 한배 타 보아야 속을 안다	사람의 마음은 오래 같이 지내면서 역경을 겪어 보아야 알 수 있다는 말.
행랑 빌리면 안방까지 든다 청을 빌려 방에 들어간다	1. 대청을 빌려 쓴다는 구실로 시작해서 방에까지 들어간다는 뜻으로, 염치없이 처음에 한 약속을 어기고 야금야금 침범해 들어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처음에는 조심하여 삼가다가 차차 통이 큰 짓까지 하게 된다는 말.
행랑이 몸채 노릇 한다	1. 손님이 주인 노릇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제치고 일을 주관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속담·관용구	내용
행실을 배우라 하니까 포도청 문고리를 뺀다 버릇 배우라니까 과부 집 문고리 빼어 들고 엇장수 부른다	좋은 버릇을 길러 품행을 단정히 하라고 이르니까 오히려 못된 짓만 하고 돌아다님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허청 기둥이 측간 기둥 흥본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자기는 더 큰 흥이 있으면서 도리어 남의 작은 흥을 본다는 말.
호랑이 보고 창구멍 막기 범 본 여편네[할미/늬] 창구멍을 틀어막 듯	범을 본 여편네가 질겁하여 범이 창구멍으로 들어오지나 않을까 걱정하여 창구멍을 틀어막는다는 뜻으로, 급한 나머지 임시변통으로 어리석게 맞추려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호조 담을 뚫겠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아 이익이 있는 일이라면 형벌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는 말.
혼인 뒤에 병풍 친다 열흘날 잔치에 열하룻날 병풍 친다	때를 놓치고 일이 다 끝난 다음에야 하려는 것을 비꼬아 이르는 말.
홍두깨 세 번 맞아 담 안 뛰어넘는 소가 없다	아무리 참을성이 많은 사람도 혹심한 처우에는 저항을 하기 마련이라는 말.
힘센 놈의 집에 저다 놓은 것 없다	힘이 세다는 것을 믿고 게으름을 부린다는 말.

색인



지역

ㅊ자집	018, 127
가구	145, 275, 430, 459, 543, 551, 576, 647, 651, 652
가대제한	022
가도	034
가람 배치	534
가람집	019, 056, 720
가례	247, 435
가례집람도설	738
가리개	020, 252, 256, 272, 642, 740
가묘	039, 248, 418
가문	433, 623
가사관계	035
가사규제	080, 434
가사노동	131
가사명문	035
가사제한	022, 246
가스	116
가스등	175
가스레인지	027, 432, 475
가스보일러	278, 562
가신	029, 451, 546, 553, 565, 629
가야	187
가옥도본	034
가옥도형	033, 090
가옥문기	034
가을떡	504
가전제품	584
가족	433
가칠단청	134
각계수리	037, 218
각기소리	037
각성마을	193
간룡법	506
간접조명	176
간편주택	074
갈대	443
갈모산방	204

갈집	443
갈형도격	235
갈형론	235
갈형명목	235
감실	038, 418, 460
감실장	192
갑창	237
개공제	039
개기제	040, 044
개랑한옥	040, 184
개머리판	459
개별난방	042, 621
개수대	475
개수통	288
개업	462
개자리	061
개토제	039, 043, 635
객청	422
거름	687
거실	045, 544
거주	624
거중기	046, 050
거처	623
거피칼	049, 111
건궁	452
건년방	047, 183, 253, 665
건물	625
건설업자	633
건재 고택	482
건축	625, 629, 634
건축연장	048, 209
건축의례	634
걸거장	219
겨름집	050, 659
건본주택	212
결구	205, 639
겹집	051, 066, 161, 281, 559, 728
겹처마	214, 699
경국대전	229
경대	053

경도잡지	228
경상	515
경주 양동마을	054
계단	059, 180, 711
고구려	179, 187, 201, 227, 660, 706, 740
고래	061, 086, 477, 525, 717
고래등	195
고려도경	222, 227, 698
고려사	700
고미반자	251
고방	072, 289, 729
고분벽화	530
고비	062
고상마루	689
고상식	187
고상주거	127
고상창고	283
고성 왕곡마을	064
고시원	068, 164, 457, 544
고위관료	465
고주	187, 687
고팡	199
고패집	018, 230
곡간	289
곡자	569
골목	068
골목길	198
골부인	280
곶은자집	018, 230
곶자	070
곶간	071, 644
공	557
공동	164
공동주택	073, 084, 129, 130, 213, 605, 607
공동체주거	075
공예품	465, 612
공유경제	074
공유주택	074, 436
공인중개사	076
공장기숙사	484

공정	136
공포	077, 274, 657
관리	614
관아	464
관혼상제	185, 712
광	289, 721
광재물보	255, 498
광창	080, 082, 296
괘등	177
교창	081, 082
구들	477, 525, 601
구들장	062, 516
구멍	611
구유	531
국가민속문화재	054, 064, 479
국민주택	083, 244, 607, 609
굴도리	156, 191
굴도리집	084
굴뚝	085, 512, 525, 619, 734
굴목	287
굴피나무	619
굴피지붕	088, 616, 621
굴피집	087, 168, 444, 619, 672
궁가	088
궁궐	464, 625
궁집	088
궐	090, 249, 498
궐상	693
궐연	512
궐장	498
귀두	189
귀리	227
귀면	201
귀속재산	581
귀접이천장	658
귀중품	716
귀틀집	088, 091, 536, 736
그래자	093
그랭이질	093
근대	692

근대화	158, 733
금고	037
금단청	134
금입택	095
굿기단청	134
기거장	219
기공식	039
기구	609
기단	059, 097, 634
기둥	100, 128, 274, 541, 543, 563, 603, 635, 687
기름보일러	277
기숙사	073, 164
기와	103, 188, 512, 619
기와지붕	616, 655
기와집	066, 105, 181, 630, 654
기왓골	188
기종기	047
기초	106
길일	464
김치냉장고	121
김치웁	541
까귀	049
까치구멍집	109, 162, 521
깍넛	049, 110
칼개	571
꺾음집	230
꽃담	111
끌	049, 113

니은

나무널	121
난간	114, 116, 187, 638
난로	116
난방	116, 287, 516, 525, 577, 621, 731
난방설비	622
난분	224
남귀여가혼	450

남녀유별	246
남동여서	184
남산골한옥마을	715
남새밭	677
납도리	156, 191
납도리집	117
내담	118
내림마루	188, 213
내별당	269
내외담	057, 118
내외법	119, 246
내외벽	118
냉동	119
냉동식품	585
냉장	119
냉장고	119, 433
너새집	165
너와	536
너와지붕	616, 621
너와집	121, 168, 444
널문	690
널뻐지	121
널판문	690
네모송곳	466
노뚝돌	180
녹로	050, 122
농	431, 527, 575
농기구	179
농촌문화주택	442
농촌주택	441
농촌주택개량사업	442
농한기	473
누마루	047, 058, 124, 187, 712
누정	124
눈썹재기창	125
눈박이	681
느티나무	170, 210

더글

ㄷ자집	126
다가구주택	130, 458
다다미	668
다락	124, 127, 267
다림보기	128
다세대주택	073, 129, 457
다용도실	131, 432
다포	695
다포계	206
다포식	078
닥나무	227
단독주택	132, 184, 212, 295, 505, 544, 583, 584, 607
단지	171
단청	023, 134, 227, 528
달집	201
달고	050
달구지	468
달구질	136
달곳대	681
달동네	138
담장	111, 113, 118, 140, 142, 265, 464, 476, 483
담집	142
당육전	667
당초	201
당호	144, 677, 696
당회요	667
대각선	070
대길지	428
대나무	210, 738
대동여지도	426
대들보	145, 451
대마	050
대목	162, 192, 530
대목장	146, 219, 460, 634
대문	148, 225, 301, 509, 612, 640
대문간	150

대문채	072, 150
대인거장	219
대잡이	503
대장간	202, 669
대주	503
대청	152, 183, 185, 192, 293, 296, 435, 470, 499, 647, 723, 728
대청마루	480
대패	049, 153
댓돌	723
더부살이	155
덤벙주초	661
데릴사위제	450
도끼	049
도래인	706
도로	467
도르래	046
도리	084, 145, 156, 274, 616
도배	157, 579
도서지역	192
도시가스	614
도시한옥	040, 158
도시화	159
도장	289
도투마리집	161
도편수	146, 162, 530, 741
독서실	068
독신자주택	163
독창	650
돌기와집	165
돌담	141, 165
돌랭이	167
돌집	165
돌쩌귀	174, 264, 510
돌층계	180
돌코랭이	177
동계	181
동국세시기	228
동기시대	731
동바리	188

동사택	675
동사택서사택	167
동산	587
동성마을	193
동아시아	669, 707
동이전	450
동제	718
뒷박	169
두동불	673
두등불	177, 673
두령집	122, 168
두레박	169
두루거리집	168
두리집	168
둔테	302, 510
둘레집	168
둘리집	168
뒤주	170, 267, 644
뒷간	171, 669, 732
뒷간귀신	172
뒷마당	709
드므	733
득수법	506
들거리집	168
들마루	187, 689
들쇠	174, 294
들어열개	173, 650
들어열개문	293
등	175, 591
등나무	227
등디	731
등롱	177, 592
등유	175
등잔	176, 598
디딜방앗간	179
디딤돌	180
땃감	577
똥돼지	686
떠리집	183
뜰집	181, 183

띠쇠	206
리을	
레토르트	584
미음	
ㄴ자집	183
마가리집	020
마구	169
마구간	530
마당	184, 198, 212
마당비	298
마래	188, 192
마루	186, 192, 281, 435, 638
마루광	289
마루기와	188
마루비	298
마름질	190, 568
마리	039, 192
마사토	680
마을	193
마조장	220
마차	050
마한조	221
막살이집	020, 199
막새	190, 200
막새기와	618
만살	238
만송정	491
말갈조	221
말구	191
말명	029
망새	190
망와	103, 189, 190
망치	050, 202
맞배지붕	105, 203, 662

맞벽	239
맞춤	205, 555, 639
매우	173
매천야록	727
매화틀	173
맨션	073, 294
맹장지	174, 238, 579
머름	187, 207
머름동자	207
머릿장	209
먹쇠메	203
먹자	569
먹통	209
명석	180
메	050, 202
명당	211
명당도	508
명산	622
명산론	211
명장지	174
모델하우스	212
모로단청	134
모영전	227
모임지붕	105, 213, 662
모탕고사	039, 634
목가구	215, 423
목도	046
목민심서	227
목소장	219
목수	146, 163, 190, 192, 210, 219, 570, 635
목욕	534
목혜장	219, 466
무늬	134
무량수전	203, 695, 742
무악식	201
무허가	692, 720
문	221, 648, 711
문간채	150
문갑	224

문고리	225, 510
문방가구	037
문방구	226
문방사우	226
문배	228
문서	224
문설주	510
문자형집	229
문지방	230, 464
문턱	231
문패	232
문화주택	132, 173, 234, 295, 505
물두멍	288
물레방아	179
물형론	194, 235, 428
미단이	237, 650
미레자	569
미장	238, 239
미장이	239, 684
민가	109, 241, 535, 541, 708
민도리집	042, 117, 243, 459
민영아파트	280
민영주택	244, 607
민촌	193
민택삼요	245, 675
민흘림	742
민흘림기둥	741
밀반찬	171

비읍

바깥채	467
바라지창	081
바래기기와	190
바심질	128
바자울	476
박공	204
밖거리	199, 488, 595
반가	246, 676, 708

반곡	511
반다지	090
반달이	249, 431
반딧간	643
반자	250, 657
반좌식	733
반지하	458
반촌	193
반친영훈	450
발	020, 252, 437
발코니	263
발해	189, 661
발효식품	575
밥상	471
방	253
방갈로	505
방바닥	579
방비	298
방석	255, 433
방앗간	591
방위	168, 602
방장	256
방주	100
발농사	687
발담	167
배산임수	194, 257, 258, 520, 602
배흘림기둥	741
백두대간	424
백제	201, 660, 706
백호	194
뱃집	203
버드나무	227
버선장	209
번암선생집	738
번와	620
별구	191
별집촌	259
범종	700
법사	500
배개	261, 551

베란다	262
벼락달이	650
벼락달이창	264
벼루	431, 514
벼루집	514
벽	265
벽감	018, 038
벽돌담	141
벽돌벽	266
벽사	189, 564
벽장	267
벽체	536, 543
변기	268
변소	171, 268, 686, 732
별당	247, 269
별서	271, 588
별업	271
별저	271
별제	271
벗짚	443
병풍	020, 218, 272
병화불입지	064
보	145, 274, 543
보곡	174
보료	275, 665
보일러	042, 277, 535, 613
보조주방	131
보증금	582
보침	642
보통주택	683
복덕방	278
복부인	280
붕당	161, 168, 185, 281, 735
붕덕	731, 736
붕사훈	450
붕창	282, 437
붕침	548
부경	072, 127, 283
부고	188
부넝기	061

부동산	279
부뚜막	285, 287, 477, 590, 735
부삽	731
부삽	286
부삽지붕	694
부속채	720
부엌	162, 253, 287, 429, 475, 489, 500, 590, 603, 644, 647, 706, 728, 734
부엌비	298
부연	290, 654
부연기와	447
부영주택	683
부용대	491
부재	554
부적	567
부젓가락	731
부정	231
부지깡이	291
부출각시	172
북촌한옥마을	715
분가	292, 435
분양	161
분양가	212
분합	650
분합문	293
불교	189
불란서주택	294, 442
불목	061
불발기	294, 296
불발기창	296
불밤이쌀	501
불씨	731, 735, 737
붓	514
불박이	650
불박이장	297, 433
불박이창	282
블라인드	022
비	298
비녀장	174
비늘판벽	691

비데	269
비보	212, 300, 507
비보론	506
비보풍수	300, 572
빈민촌	138
빈소	512
빈지널문	689
빌라	073
빗장	301
빗집	053
빗천장	658
빨래	456
뽕나무	227

시
옷

사개	191
사개맞춤	206
사공	219
사글세	458, 544
사당	038, 248, 418, 436
사당마당	184
사랑대청	152, 184
사랑마당	184, 677, 709
사랑방	247, 253, 419, 449, 665, 666
사랑채	124, 269, 421, 445, 613
사래기와	447
사롱	177, 438
사립	422
사립문	422, 689
사방	194
사방침	276
사방탁자	423, 449
사슴털	227
사신	186
사위	450
사찰	533, 625
사창	081, 438
사창가	641

산간지역	168
산경표	424
산담	167
산도	235
산동네	138
산림경제	186, 230
산맥체계	425
산뽕나무	227
산신당	195, 712
산업화	159
산줄기	424
산지	206
산태극수태극	426, 490
살강	429
살림살이	430, 533, 643
살림집	241, 433, 495, 536, 542, 556, 632
살림채	185, 559, 709
살미	077
살창	437
삼국사기	224, 530, 667, 740
삼국유사	667
삼국지	221
삼년상	510
삼신	029, 479, 496
삼신당	493
삼신메	501
삼작	422
상가	605
상가주택	513
상량고사	441
상량문	440
상량식	451, 636
상량제	440
상류주택	096
상방	200, 286
상수리나무	619
상여집	195
상자	716
새마을보일러	277, 517
새마을운동	441, 660

새마을주택	441
샛담	118
샛문	640, 726
샛방	168
샛집	443, 659
생깃문	188
생울	444
생활용품	610
서계	181
서고	445
서까래	156, 191, 192, 275, 290, 446, 543, 616, 636, 654, 657, 658, 738
서까래기와	447
서낭당	195, 712
서랍	037
서류부가혼	450
서사택	675
서안	449, 651
서양식	234
서옥	450
서원	464
서장	653
서주	653
석가탄신일	178
석비레	680
석수	147, 162, 209
석유	116
석유곤로	027
석장	203
석축기단	097, 107
석탄	116
선반	267, 470
선방	533
선장	203, 220
설부	227
섬돌	180
성리학	022
성문	509
성주	193, 501, 554, 566
성주독	452

성주매기	451
성주신	029, 040, 451
성주올리기	193
성죽단지	452
성죽대	503
성호사설	226
쌔나무	477
세간살이	470, 646
세로살창	438
세면	534
세면대	454, 732
세모송곳	466
세살목수	461
세종실록지리지	227
세탁	131
세탁기	433, 456, 535
세탁실	455
세화	228
셋방살이	457
세어하우스	075
소금	567
소나무	227
소도리	203
소란반자	250
소로	077
소로수장집	042, 160, 459
소목	209
소목장	050, 071, 219, 459, 466
소반	472, 644
소인거장	219
소파	461
속동문선	737
속신	233
손괘	462
손 없는 날	462, 472
솔거노비	720
숫을대문	148, 464, 509
숫을삼문	464
송곳	465
송남잡지	226

쇠막	530
쇠메	202
수구	507
수납공간	470
수랫간	434, 467
수막새	528
수맥	469
수석	224
수장	637
수키와	529, 620
수혈주거	626
속박	522
속식	155
송어턱깎기	191
슬레이트지붕	442
승려	533
승방	533
시공	239
시공자	634
시령	267, 470
시비	422
식기	644, 646, 647
식탁	471
신구간	472, 554
신도	229
신라	201, 660
신주	038, 418
신한옥	636
신행	532
실내공간	562
실향민	720
심벽	683
십승지	473
십승지지	428
십장생	694
싱크대	028, 475
싸리나무	476
싸리문	422
싸리울	476
쌍창	237, 650

빼기	205
이응	
아궁이	062, 285, 287, 291, 477, 478, 512, 516, 525, 531, 545, 604, 671, 717, 734
아랫목	031, 477, 478, 546, 718
아산 외암마을	479
아연각비	184
아파트	073, 232, 456, 484, 625, 697
안거리	199, 488, 595
안거리·밖거리	488
안대청	152
안동 하회마을	489
안마당	183, 184, 677, 709, 730
안방	047, 253, 419, 495, 501, 546, 666, 728
안방물림	497
안석	275, 276, 498
안악3호분	467
안자장	466
안채	247, 613
안택	451, 500
안허리곡	540
앞은곳	500
암막새	528
암문	221
암키와	529, 620
양곡	540
앞다지	249
애기장	209
액막이	452
약장	038
양념	171
양동마을	182
양반가	464
양반주거	183
양복장	551

양옥	132, 295, 504, 708
양진당	489, 493
양탄자	180
양택	245, 506
양택삼요	245, 675
양택풍수	237
양통집	053, 281, 559
어룡	189
역새	443, 536
엽가리	029
엽신	029
여관	641
여달이	238, 509, 650
여막	510
여묘살이	510
여칸집	183
역어유해	226
연가	512
연갑	515
연귀자	569
연꽃	181, 201
연도	085
연료	577, 613
연립주택	073, 513
연목	446
연목기와	447
연상	449, 514
연세	545
연잎	181
연장	110, 114, 122, 153, 154, 202, 568, 570, 611, 670, 685
연적	224
연탄	027, 477, 516
연탄보일러	042, 277, 562
연탄아궁이	277, 517
연화교	181
열하일기	227
영남학파	183
영단주택	517
영당	418

영동지역	181
영조척	518
영주 무섬마을	428, 520
예기	231, 738
예기주소	738
오동나무	730, 738
오막살이집	559
오주연문장전산고	226
오피스텔	164, 457, 522
옥사	667
옥사조	224, 740
옥상	523
옥탑방	524
온돌	061, 187, 281, 435, 478, 525, 545, 601, 637, 698, 717
온돌문화	665
온돌방	512, 545, 546
온수	614
올레	069, 585
옷장	527, 646
와공	528, 618, 636
와우형	194
와적기단	097, 107
완자살	238
왕대나무	210
외거노비	019, 720
외기반자	250
외양간	468, 530, 591, 669, 709, 720, 722
외엮기	238, 684
외통집	559, 729
요	551
요강	532, 665, 732
요사	533
요사등	177
요사채	533
욕실	455, 534, 544, 733
용	538
용단지	029
용두	189, 695
용마루	188, 213, 618, 620, 659, 695

용마름	659
용머리	699
용밥주기	538
용비어천가	171
용알뜨기	538
용왕제	538
우데기	093, 535
우데기집	536
우등불	169
우리판문	689
우마신	029
우물	169, 185, 537
우물마루	188
우물반자	250
우물신	030
우물천장	695
우물 훑치기	538
우백호	212
우사	721
우진각지붕	105, 539, 659, 662
우차	050
올루	229
올타리	115, 140, 444, 476
움	541
움물	537
움집	213, 285, 511, 525, 542, 626, 682, 729
옷방	159, 546
원두막	187
원룸	164, 457, 544
원장	140
원주	100
월남민	719
월방	047
월세	458, 544
위서	221
위지공	229
위패	418
윗다지	090, 249
윗목	478, 545

윗방	546
유곽	641
유네스코	058
유약식	201
육전조례	229
윤달	473
윤도판	547
웃집	020
은신처	434
음택	506
음택풍수	235
응접실	461, 549
의결이장	449, 527, 550
의자	433, 600, 651, 698
이부자리	551
이불	551
이사	462, 472, 553, 565, 631
이영	659
이영엿기	620
이음	554, 639
이장	473, 684
이촌향도	198
익공	557
익량	182
인거장	685
인면	201
인방	191, 230, 683
인자수지	211
일문	640
一자집	558
일제강점기	234, 697, 704, 733
일주문	148
임대료	582
임대아파트	485
임대주택	457, 484, 485, 487, 560, 607
임원경제지	186, 288, 293, 531, 680, 730, 737
임종	479
입사식	719
입식	454, 461, 471, 561
입식부엌	475, 517

입주	563
입주식	636
입춘첩	564
입택	441, 566, 631
입택고사	565

지
욱

자	518, 568
자개	209
자귀	049, 191, 569, 685
자단나무	210
자동차	606
자리	255, 571, 698
자물쇠	716
자생풍수	572
자수	209
작업장	722
작예군	219
잔치	632
잠금장치	225
잡귀잡신	503
잡상	103, 189, 695
잡지	596
잣성	167
장	209, 431, 527, 575
장광	501, 573
장도리	203
장도리메	203
장독간	573
장독대	185, 573, 643, 709
장독신	030
장롱	297, 527, 575
장벽	140
장식	134, 597
장유유서	246
장인	146, 162, 202, 219, 569, 634, 671
장작	116, 477, 577
장지	238

장지문	578
장척	530
장침	276
장판	571, 579
장풍득수	211
장풍법	506
장허	441
재벌	239
재벌바름	684
재벌벽	239
재사벽	239
젓간	072, 722
적산가옥	580
적산주택	581
적새	188
전기냉장고	121
전기등	175
전세	545, 582
전원주택	583
전자레인지	028, 475, 584
전축기단	097, 107
점판암	165, 619
정감록	474
정낭	585
정낭귀신	172
정방형	070
정벌	239
정벌바름	684
정벌벽	239
정약용	047
정원	483, 587
정자	187, 270
정주간	286, 590
정주석	586
정지	287, 489
정착생활	434
정초식	634, 636
정침	247, 418, 548
정혈법	506
제등	591

제사	421
제석신	029
제액초복	567
제의	197
제주	199
제주도	166, 188
제주 성읍마을	593
제청	422
조경	587
조계	181
조명	175, 599, 671, 734
조산	300
조상	192
조상신	029
조선건축	596
조왕	501
조왕신	029
조족등	178
종갓집	546
종도리	440, 446
좌경	053
좌변기	268
좌상	600
좌식	561, 601
좌식생	712
좌식생활	723
좌청룡	212
좌향	259, 418, 441, 602
좌향론	506
주독	038
주두	077
주련	185, 603
주렴	252
주방	603
주산	490, 506
주상복합	074, 605
주생활	433, 625, 631
주심포	203, 557
주심포식	078
주자가례	246

주작	194
주차장	606
주초	635
주춧돌	563
주택	623, 625
주택개량	234
주택개량운동	040, 505
주택건설계획	607
주택법	607
주택복권	608
죽부인	609, 665
준주택	068, 607
줄	050, 611
중문	612
중앙난방	043, 278, 613, 621
중침	548
증보산림경제	226
지계	050, 467
지관	614
지기	300
지네철	204
지룽	177
지번	232
지붕유설	226, 227
지붕	203, 213, 539, 615, 657
지붕개량사업	442
지붕마루	188
지붕엮기	619
지상주거	544
지신	629
지역난방	621
지팡이	180
지표수	469
지하수	469
직각	071
직접조명	178
진산	622
진속보	229
짐수레	467
집	433, 623, 629

집들이	631
집성마을	479
집성촌	422, 489
집수리	462, 472
집안	623
집장사	459, 633
집장사집	040
집짓기	625, 633
짚	619
짜는머름	207
쪽마루	187, 638, 723
쪽매	555, 639
쪽문	640, 726
쪽방	068, 260, 640

치
욱

차양	201, 642
착고	188
찬광	289, 643
찬방	289, 644, 647
찬장	267, 429, 643, 644, 645
찬탁	644, 646, 647
참판댁	480
창	648
창고	643, 722
창방	191
창호	125, 207, 237, 264, 509, 648, 711
창호장	071, 209
채광	437
채광창	109
채마밭	677
책갑	653
책상	218, 431, 433, 449, 651
책장	449, 652
챗방	199, 595
처마	192, 290, 616, 618, 642, 654, 687, 699
처마도리	446

천장	657, 658
철기시대	203, 731
철륜	030
첨차	077
청동기시대	660
청령국지	227
청룡	194
청석집	444
청장관전서	226
초가	654
초가삼간	559, 630
초가지붕	442, 540, 621
초가집	020, 051, 619, 659
초룻	177, 592
초반	660
초배	580
초벌바름	684
초벽	238
초석	660
초헌	464
촌계	196
춧대	431, 598
추녀	192, 540, 619, 655, 662, 699
추녀마루	188
축원문	441
출산	718
출입문	148
총량	275
충효당	489
취두	103, 189
취락	622
취문	103
취병	445
취사	287, 577
측간	072, 171, 722, 732
측간신	030
측도부인	172
측신각시	172
치목	191
치문	189

치미	189
친영제도	422
친정	450
칠성	030, 501
침구	431
침대	433, 664, 667
침방	665
침상	698
침실	666

키읔

칸	667
칸막이	238
칼	670
커튼	021
코클	169, 177, 671, 734
코하우징	074
큰방	497

티을

타구	431
타래송곳	466
탁자	471, 651
탈수기	457
태백산	169
택리지	673
택보요전	675
택일	464, 500, 631
택호	676
탱자나무	444
터주	501, 566
터주신	029, 185
터줏가리	029
텃고사	040
텃밭	677
텔레비전	433, 678

토광	072
토담	141, 680
토담집	020, 143
토막	682, 692
토막집	143
토막촌	682
토벽	179, 266, 282, 683, 691
토벽집	143
토수	190
토축기단	097, 107
톱	685
통과의례	441, 712
통머름	207
통시	171, 686
통일신라	201
통판문	689
퇴량	275
퇴비	687
퇴침	262
뒷간	187, 687
뒷마루	187, 638, 688, 712, 723, 729
투막집	093, 536
특권	465

피윤

판담	141
판문	649, 689
판벽	168, 266, 691, 695
판자촌	138, 692, 704
판장문	689
판축	681
팔걸이	693
팔작지붕	105, 662, 691, 694
패철	507, 547
편액	145, 185, 696, 725
평	697
평대문	148, 465
평상	698

평주	187, 557, 687
포치	723
풍경	699
풍령	699
풍수	194, 435, 506, 548, 572, 615, 623, 628, 700
풍수가	615
풍수사	615
풍수사상	257
풍판	204
피란민	719
피란촌	703
필통	224

히웅

하마비	224
하회마을	058, 428
한국주택은행	609
한뎃부엌	185, 706
한양가	227
한옥	433, 504, 625, 707
한옥보존지구	714
함	716
함실	061, 187, 477, 531, 717
함실아궁이	282
합각	694
합각지붕	694
해막	718
해방촌	719
해우소	172
행랑마당	184, 709
행랑채	072, 150, 155, 247, 464, 531, 559, 613, 720, 722
행주형	194
향교	464
허청	721
헛간	179, 531, 721
헛간채	559

헛담	118
현관	722
현등	176
현무	194
현어	204
현판	460, 697, 724
협문	640, 725
형국론	506
호남지방	669
호령창	188
호룡	727
호자	532
호적	232
호주	232
호지집	020
훈수품	054
훈인	462
홍살문	148
홀집	051, 559, 728
홀처마	214, 699
화각	209
화강암	711
화계	711
화단	729
화덕	285, 286, 291, 543, 731, 734
화로	553, 730, 734
화방벽	266
화성	046
화성성역의궤	690
화장대	054
화장실	173, 268, 455, 732
화재막이	733
화전민	168
화창	283
화티	731, 734
환기	437
환기공	109
활비비	466
활주	101, 664
햇대	737

회다짐	136
회룡포	428
후원	587
훈몽자회	171, 184
훈민정음해례	169
훈이기	049, 192, 738
취장	021, 256, 437, 740
흑룡만리	166
흘림기둥	741
흙담	143
흙벽돌집	143
흥보가	218

필자

IV

강영환 姜榮煥 울산대학교

가랍집	019
개공제	039
개토제	043
귀틀집	091
달구질	136
민가	241
살림집	433
상량제	440
셋집	443
움집	542
입주	563
정주간	590

권용찬 權容贊 서울대학교

국민주택	083
민영주택	244

기량 奇亮 국립민속박물관

마당	184

김광언 金光彦 인하대학교

두레박	169
뒷간	171
부뚜막	285
비	298
요강	532
우물	537
장독대	573
한뎃부엌	706

김기덕 金起德 건국대학교

마을	193
배산임수	257
산경표	424
산태극수태극	426
십승지	473
윤도판	547

김길식 金吉植 용인대학교

금입택	095
기단	097
기초	106
디딤돌	180
부경	283
수렛간	467
초석	660

김도현 金道賢 태동문화재연구원

코클	671
화티	734

김두규 金頭奎 우석대학교

지관	614
풍수	700

김만태 金萬泰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손 없는 날	462

김명자 金明子 안동대학교

가신	029

김미라 金美羅 숙명여자대학교

고비	062
문방구	226
연상	514
좌상	600
죽부인	609
평상	698
햇대	737

김미영 金美榮 한국국학진흥원

사당	418
아랫목	478
윗목	545
택호	676

김삼대자 金三代子 전 국립민속박물관

각계수리	037
괘	090
뒤주	170
머릿장	209
목가구	215
문갑	224
반닫이	249
의결이장	550
장롱	575
책장	652
함	716

김선중 金仙中 울산대학교

공동주택	073
임대주택	560

김성갑 金性甲 한국토지주택공사

가옥문기 034

김성구 金誠龜 전 국립경주박물관

기와 103

마루기와 188

막새 200

서까래기와 447

김성우 金聲遇 연세대학교

집 623

한옥 707

김시덕 金時德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내외담 118

여막 510

김영수 金英洙 서울학연구소

개량한옥 040

도시한옥 158

집장사 633

쪽방 640

판자촌 692

한옥보존지구 714

해방촌 719

김영재 金永才 국립민속박물관

방석 255

안석 498

김왕직 金王植 명지대학교

맞배지붕 203

모임지붕 213

부연 290

서까래 446

우진각지붕 539

지붕 615

차양 642

처마 654

추녀 662

팔작지붕 694

김지민 金知民 목포대학교

감실 038

겹집 051

마리 192

벽장 267

홀집 728

김태일 金泰一 제주대학교

굴목 068

돌담 165

막살이집 199

정낭 585

제주 성읍마을 593

김하나 金하나 서울대학교

독신자주택 163

주상복합 605

김혜숙 金惠淑 원광디지털대학교

가스레인지 027

냉장고 119

불박이장 297

세탁기 456

연탄 516

장작 577

전자레인지 584

텔레비전 678

김화봉 金華峰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까치구멍집 109

도투마리집 161

돌집 181

우데기 535

김효경 金孝慶 한남대학교

입택고사 565

김희수 金熹洙 국립한글박물관

사방탁자 423

팔걸이 693

남호현 南虎鉉 순천대학교

곳간 071

다락 127

디딜방앗간 179

별서 271

외양간 530

정원 587

덧발 677

헛간 721

화단 729

류성룡 柳成龍	고려대학교
난간	114
반자	250
별당	269
천장	657

문선옥 文善玉	경상대학교
변기	268
서안	449
세면대	454
소파	461
식탁	471
싱크대	475
옷장	527
책상	651
침대	664

민병근 閔丙謹	전기박물관
등	175
제등	591
좌등	598
호롱	727

박경립 朴耕立	강원대학교
고성 왕곡마을	064

박경옥 朴庚玉	충북대학교
개별난방	042
공유주택	074
단독주택	132
모델하우스	212
전원주택	583
중앙난방	613
지역난방	621

박선주 朴宣注	국립민속박물관
경주 양동마을	054
기와집	105
초가집	659

박선희 朴善姬	전북대학교
건넌방	047
발	252
방장	256
병풍	272
보일러	277
부엌	287
살림살이	430
윗방	546
입식	561
족자	597
좌식	601
휘장	740

박종민 朴鍾珉	국립산악박물관
경대	053
난로	116
문고리	225
부지깥이	291
빗장	301
살강	429
시렁	470
찬장	645
찬탁	647
화로	730

박철수 朴哲守	서울시립대학교
벌집촌	259
불란서주택	294
새마을주택	441
아파트	484
토막촌	682

배영동 裴永東	안동대학교
안방	495
집들이	631

손승광 孫勝光	동신대학교
다세대주택	129
연립주택	513

송석기 宋石基	군산대학교
적산가옥	580
조선건축	596

오상학 吳尙學	제주대학교
물형론	235

유승훈 柳承勳	부산광역시
달동네	138
피란촌	703

윤덕인 尹德仁	가톨릭관동대학교
찬광	643
찬방	644

윤일이 尹一二 일리건축사사무소

누마루	124
사랑방	419
서고	445
쪽마루	638
침방	665
툃간	687
툃마루	688

은현정 殷賢貞 국립민속박물관

주차장	606

이강민 李康民 한국예술종합학교

칸	667

이경아 李炅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주택	234
양옥	504
영단주택	517

이대화 李大和 중앙대학교

더부살이	155
문패	232
복부인	280
분가	292
셋방살이	457
편액	696
현판	724

이연노 李演魯 경기도문화재위원회

계단	059
공포	077
기둥	100
대목장	146
도편수	162
목수	219
문	221
미닫이	237
소목장	459
여닫이	509
익공	557
창호	648
흘림기둥	741

이왕기 李王基 목원대학교

거중기	046
건축연장	048
곱자	070
그랭이질	093
깎낫	110
끌	113
녹로	122
다림보기	128
대패	153
마름질	190
망치	202
먹통	209
송곳	465
아산 외암마을	479
영조척	518
자	568
자귀	569
줄	611
지붕엮기	619
칼	670
툃	685
훈이기	738

이우종 李雨鍾 영남대학교

광창	080
교창	082
눈꼽재기창	125
벼락닫이창	264
봉창	282
분합문	293
살창	437
장지문	578

이필영 李弼泳 한남대학교

안택	500

이호열 李鎬洌 부산대학교

가사제한	022
머름	207
반가	246

임승범 林承範 국립무형유산원

성주매기	451

장필구 張弼求 동양미래대학교

꽃담	111
담장	140
담집	142
벽	265
토담	680
토벽	683
판벽	691

전남일 田南一 가톨릭대학교

거실	045
다용도실	131
방	253
베란다	262
욕상	523
욕실	534
응접실	549
주방	603
침실	666
현관	722
화장실	732

정명섭 鄭明燮 경북대학교

들어열개	173
불발기창	296
영주 무섬마을	520

정연상 鄭淵相 안동대학교

굴도리집	084
납도리집	117
대들보	145
도리	156
맞춤	205
미장	238
미장이	239
민도리집	243
보	274
소로수장집	459
안동 하회마을	489
와공	528
이음	554
장판	579
집짓기	633
쪽매	639

정연학 鄭然鶴 국립민속박물관

문배	228
문지방	230
봉당	281
안방물림	497
움	541
이사	553
입춘첩	564
주련	603
통시	686
해막	718
화재막이	733

정재국 鄭在國 가톨릭관동대학교

거름집	050
굴피집	087
너와집	121
돌기와집	165
두렁집	168

정정남 鄭貞男 건축문화고고스튜디오

가리개	020
가옥도형	033
고래	061
굴뚝	085
궁가	088
당호	144
도배	157
사랑채	421
서옥	450
아궁이	477
안채	499
연가	512
온돌	525
자리	571
함실	717

조인철 趙仁哲 원광디지털대학교

동사택서사택	167
좌향	602

조현정 趙賢貞 문도건축유산보존연구소

대문	148
사립문	422
생울	444
숯을대문	464
싸리울	476
중문	612
쪽문	640
판문	689
협문	725

천인호 千寅鎬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명당	211
민택삼요	245
수맥	469
양택	506
택리지	673
택보요전	675

천현숙 千賢淑 SH도시연구원

고시원	068
공인중개사	076
복덕방	278
오피스텔	522
원룸	544
월세	544
전세	582
주택법	607
주택복권	608
평	697

최원석 崔元碩 경상대학교	
비보풍수	300
자생풍수	572
진산	622

최은수 崔銀水 국립민속박물관	
베개	261
보료	275
이부자리	551

한필원 韓弼元 한남대학교	
대문채	150
대청	152
마루	186
행랑채	720

허남춘 許南春 제주대학교	
부섭	286
신구간	472
안거리·밖거리	488

현승욱 玄勝旭 강원대학교	
단청	134
요사	533
풍경	699

홍승재 洪升在 원광대학교	
ㄱ자집	018
ㄷ자집	126
ㄹ자집	183
문자형집	229
ㅡ자집	558

관내자문

기량
김종규
박선주
정연학

관외자문

강영환(울산대학교)
김기덕(건국대학교)
김길식(용인대학교)
김명자(안동대학교)
김시덕(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박선희(전북대학교)
박철수(서울시립대학교)
이왕기(목원대학교)
전봉희(서울대학교)
정정남(건축문화연구소)
천인호(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홍승재(원광대학교)

감수위원

김광연(인하대학교)
김삼대자(전 국립민속박물관)
김성우(연세대학교)
윤인석(성균관대학교)